INCUBATING PROGRAM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시민사회파트너 대상

지역조사 결과보고집
2017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시민사회파트너 대상

지역조사 결과보고집
2017

CONTENTS

교육

01 그린티처스 ····· 04
02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 43
03 더라이트핸즈 ····· 88
04 비소나눔마을 ····· 109
05 아프리카아시아난민교육후원회 ····· 149
06 온해피 ····· 186
07 위드 ····· 233
08 카야 ····· 275
09 하나를위한음악재단 ····· 298
10 한국해비타트 ····· 334
11 한코리아 ····· 353

보건

12 부산YMCA ····· 391
13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 424
14 아프리카미래재단 ····· 446
15 월드휴먼브리지 ····· 480
16 전국재해구호협회 ····· 524

공공행정

17 더프라미스 ····· 551
18 지구촌나눔운동 ····· 577
19 피난처 ····· 608
20 한국장애인인권포럼 ····· 620

농림수산

21 굿파머스 ····· 692
22 아름다운가게 ····· 718
23 텐포원 ····· 797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국제협력단이 주최하고,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가 주관운영하고 있는 [2017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시민사회 파트너 대상)] 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이 수행한 지역조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변경없이 수록한 것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 및 국제개발민간협의회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료의 인용 및 출처 등 연구윤리 관련 사항 준수의무는 수행단체에게 귀속됨을 밝힙니다.

PART 01

[교육] 그린티처스

시행일자	2017년 4월 18일(화) ~ 6월 17일(토) (총 60일)
지역	르완다 키갈리

2017년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지역조사(사업형성조사) 결과보고서

기본정보					
단체명	사단법인 그린티처스		작성자	김 신 혜	
단체현황	현지 지부			☐ 있음	☑ 없음
	NGO 등록			☐ 있음	☑ 없음
	KOICA 협력사업 수행 경험 유무			☑ 있음	☐ 없음
사업 분야	교육		코드번호	112	
조사 목적	르완다 특수교육 관련 현황 및 특수교사 자격연수 수요조사				
대상 국가 및 지역	국 가	르완다	지역	키갈리	
조사기간	전체 조사 기간	2017년 4월 18일(화) ~ 6월 17일(토) (총 60일)			
	현지 체류기간	5월 4일 ~ 5월 13일 6월 11일 ~ 6월 14일 (총 14일)			

조사 목적

chapter 01

- 장기적으로는 르완다의 특수교사 자격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단기적으로는 현직 특수교육 담당교사들에게 전문적인 특수교육 자격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향후 르완다의 특수교사 양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르완다의 구체적인 장애인 교육 실태와 연수 프로그램의 기회 제공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사업을 기획·운영하는데 필요한 이해관계자 정보를 파악·분석한다. 아울러 현직 특수교육 담당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조사·분석함으로써 향후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밑바탕을 마련하고자 한다.
- 목표 1. 르완다 지역정보 수집
- 목표 2. 장애인 교육 실태 파악
- 목표 3. 이해관계자 정보 파악 및 분석
- 목표 4. 연수 프로그램 우선순위 수요 분석

조사 결과

chapter 02

01 일정별 조사 활동

기 간		활동 내역 약술
국내	4월 18일~5월 3일	**문헌조사** - 르완다 일반사항 - 르완다 교육 정책 - 르완다 특수교육 정책
	4월 21일~5월 3일	**1차 현지조사 준비** - 질문지 개발
	4월 18일~5월 3일	방문 기관 섭외
	5월 15일~6월 9일	문헌조사
	5월 15일~19일	1차 현지조사 내용 정리
	5월 22일~6월 9일	2차 현지조사 준비 방문 기관 섭외
현지	5월 4일(목)	출국
	5월 5일(금)	▪ **KOICA 르완다 사무소** 참석자: 조형래 소장, 최제윤 부소장, 전병운, 김민정, 김신혜 내용: - 조사계획 및 문헌조사 내용 공유 - 르완다 현지 정보 공유
	5월 6일(토)	▪ **KICS 세미나 Parent/Teacher/Caregiver Training** 참석자: 전병운, 김민정, 김신혜 내용: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과 학생을 대하는 방법
	5월 7일(일)	키갈리 시내 탐방
	5월 8일(월)	▪ **르완다 교육부(MINEDUC)** 참석자: Mary KOBUSINGYE(특수교육 담당관 professional in cahrge of special needs education), 전병운, 김민정, 김신혜 내용: 특수교육 정책과 비전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참석자: 김동욱 소장, 유지숙 팀장 내용: 르완다 내 교육현황, 국제 NGO 교육사업을 위한 정보 공유
	5월 9일(화)	▪ **르완다 교육대학 특수교육과(University of Rwanda College of Education Department of Special Needs Education)** 참석자: Patrick 교수, Gonzague 교수, 전병운, 김민정, 김신혜 내용: 특수교사 양성과정 운영 ▪ **2&5 Christian School (일반 사립학교)** 참석자: 이송희 교사, 이희주 교사, 전병운, 김민정, 김신혜 내용: 르완다 교육 실태 조사
	5월 10일(수)	▪ **St. Fillippo Smaldone in Nyamirambo (특수학교)** 참석자: Jane Mary 교장, Guillaume 교사, 전병운, 김민정, 김신혜 내용: - 청각장애 특수학교, 통합학급 운영 - 교사 인터뷰 ▪ **HRD La Misericorde in Muhanga (특수학교)** 참석자: Leoncie 설립자, Epiphanie 교장, Daniel 교사, 전병운, 김민정, 김신혜 내용: - 지체 장애 통합학교, 지적장애·자폐성장애 특수학교 운영 - 교사 FGI ▪ **HVP GATAGARA in Nyanza** 참석자: Jean Baptiste 교장, 교사 4인, 전병운, 김민정, 김신혜 내용: - 특수학교와 통합학교 운영 - 교사 FGI
	5월 11일(목)	▪ **HVP GATAGARA in Gikondo** 참석자: Jean Pierre 교장, 전병운, 김민정, 김신혜 내용: - 특수학교 및 센터 운영 - 교사 인터뷰 ▪ **UNICEF 르완다 지역사무소** 참석자: Sara McGinty(교육분야 총괄 Chief of Education), 전병운, 김민정, 김신혜 내용: 르완다 교육/특수교육 정책과 실태, 국제기구 사업 ▪ **르완다 대학교 작업치료과 교수 인터뷰** 참석자: Magaret 교수, 연구원, 전병운, 김민정, 김신혜 내용: 장애인 대상 서비스 실태 ▪ **장애아동 학부모 인터뷰** 참석자: FanFan, Shema, 전병운, 김민정, 김신혜 내용: 르완다 특수교육 실태

	5월 12일(금)	▪ **VSO (Voluntary Servise Overseas)** 참석자: Ruth Mbabazi (교육자문가 Education Advisor) 내용: 르완다 특수교육 실태와 교사연수의 필요성 ▪ **KOICA 르완다 사무소** 참석자: 조형래 소장, 최여정 부소장 내용: 현지조사 내용 공유
	5월 13일(토)	귀국
	6월 11일(일)	르완다 입국
	6월 12일(월)	▪ **HVP GATAGARA GIKONDO** 참석자: Jean Pierre 교장, 교사 2인 내용: 특수학교 현황 파악 ▪ **새마을 세계화 재단** 참석자: 윤효정 소장 내용: NGO 설립 과정, 키갈리 지역 정보 공유
	6월 13일(화)	▪ **P.S Rubingo in Gasabo** 참석자: 교사 3인 내용: – Inclusive Child Friendly School 사업 실태 – 교사연수 내용 우선순위 조사 ▪ **르완다 교육대학** 참석자: 교수 3인 내용: – 르완다 특수교사 양성과정 – 사업 동반 관계 방안 논의 ▪ **Nyamirambo Women's Center 방문** 내용: 르완다 여성 자립을 위한 협동조합 ▪ **르완다 교육청(REB)** 참석자: Janvier GASANA 교육감, Elisabeth 자문가(Technical Advisor) 내용: – 르완다 특수교육 정책과 비전 – 특수교사 양성과정과 연수의 필요성
	6월 14일(수)	귀국

02 조사 항목 및 방법

	조사 항목	조사 방법	조사 기간
1	르완다 일반 정보	문헌조사	4월 18일 ~5월 3일
2	르완다 교육정책과 실태	문헌조사, 관련기관 인터뷰	4월 18일 ~6월 13일
3	특수교육 정책과 실태	문헌조사, 방문조사, 인터뷰(반표준화)	4월 18일 ~6월 13일
4	특수교사 양성 실태	문헌조사, 방문조사, 인터뷰	4월 18일 ~6월 13일
5	특수교육 및 특수교사 연수 수요	방문조사, 포커스그룹인터뷰(반표준화)	5월 5일~12일 6월 12일~13일
6	지역 내 타기관 활동 현황	문헌조사, 방문조사, 인터뷰	4월 18일 ~5월 12일
7	이해관계자 정보	방문조사, 인터뷰	5월 5일~12일 6월 12일~13일
8	범분야 이슈	문헌조사, 인터뷰	4월 18일 ~6월 1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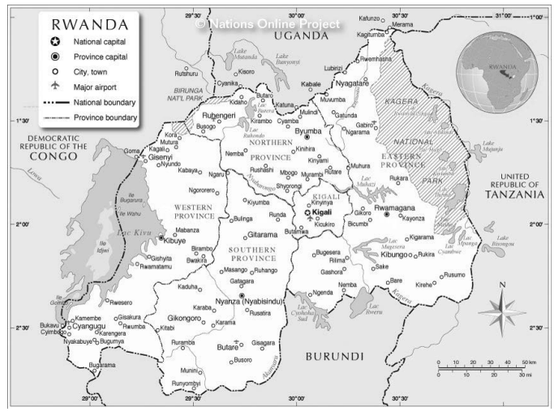
○조사팀 구성

성명	소속	직책	역할
고등영	그린티처스	대표이사	사업조사 총괄
김신혜	그린티처스	간사	르완다 일반정보 조사 현지 기관 연락 및 일정 조율
전병운	그린티처스/공주대학교	이사장/교수	특수교육분야 사업조사
김민정	공주대학교	연구원	현지조사 분석

03 조사 결과 분석

가. 르완다 일반 정보

구분	내용
국명	르완다 공화국 Republic of Rwanda
수도	키갈리 Kigali
인구	11,809,295명 (2017 예상)[01]
면적	26,338 ㎢ (한국의 약 1/4)
언어	영어, 프랑스어, 키냐르완다어(현지어)
종교	로마카톨릭(44%), 개신교(38%), 제7일 안식일(12%), 이슬람(2%), 기타(4%)
민족	후투족 85%, 투치족 14%, 트와족 1%
GNI	700 USD (2015) atlas method
HDI	0.483 (2014년 163위)
화폐	르완다 프랑 RWF
기대수명	64.7세
교육	10.8년 Expected years of schooling
성인문맹률	70.5%
정부교육예산	5.0%



◎ 르완다 지도

01 출처: NISR (Rwanda's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 르완다는 아프리카 중동부 내륙에 위치하며 우간다(북), 부룬디(남), 콩고 민주공화국(동), 탄자니아(서)와 접하고 있다. 1919년부터 1962년까지 벨기에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 이후 다수족인 후투족과 소수족인 투치족 간의 갈등으로 인한 유혈사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1994년 대학살 사건으로 당시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약 80만 명이 살해당하는 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

- 남위 2도에 위치한 열대지역이지만 해발고도가 높아 연중 온화한 기후를 나타내며 적도수렴대의 이동에 따른 2번의 우기(3-5월, 10-12월)가 있다.

- 평균출생률 3.8명으로 출생률이 높고 제곱킬로미터 당 인구는 470.6명(2015, WB)으로 인구밀도가 높다.

- 4개 주(남부 서부 북부 동부)와 1개 시(키갈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30개 구(districts, uturere)와 416개 지방 자치체(sector, imirenge)로 나뉜다.

- 1994년에 대학살을 겪고난 후 2003년 민주선거를 통해 당선된 폴 카가메 대통령이 2010년 재선에 성공하였다. 2015년 헌법을 개정함으로써 올해 3선에 도전하여 압승하였고[02] 7년 임기에 더해 5년 임기의 대권에 2차례 더 도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다.

- 새천년개발목표(MDGs) 중 절대 빈곤 및 기아 퇴치 목표를 제외한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성평등과 여성 능력의 고양, 영유아사망률의 감소, 모자보건 향상,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등 모든 목표를 달성하였다.

- 르완다 정부는 효과적인 사회안전망 및 사회보장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국가경제 성장과 동시에 빈곤선 이하 인구비율이 2005/06년 56.9%에서 2014/15년 39.1%까지 감소하였다. 성공적인 개발 성과에 힘입어 2020년까지의 국민 소득 목표치를 900불에서 1,240불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빈곤 인구의 비율 또한 30%에서

2 2017년 8월 7일 르완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8월 4일에 치러진 대선 개표 결과, 폴 카가메 대통령이 98.63% 득표를 받았다.

20%로 하향 조정하였다.

- UNESCO 통계에 의하면 2012년도 르완다의 15세 이상 성인 문해율은 82.33%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70.82%, 아프리카 전체 73.84%보다 높은 수준이다.
  - 전체 인구의 경우 여성 77%, 남성 82%, 전체 79.5%로 15세 이상 성인 문해율보다 다소 높고, 도시가 89%, 농촌 지역이 78%로 지역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 2015년 UNDP 자료에 따르면 르완다의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는 0.498로 186개국 중 159위를 기록하였다. 2014년 0.483, 163위에서 발전되었으나 여전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평균 0.522보다 낮은 수준이다.

나. 르완다 교육정책과 실태

1) 교육정책

- Vision 2020은 국가 통합 및 종합적 성장을 기반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여 2020년까지 중소득국가로 전환하고자 하는 르완다의 국가경제사회개발계획이다. Vision 2020 하위 정책으로 경제개발 및 빈곤감소전략(EDPRS, Economic Development and Poverty Reduction Strategy)이 있으며 이는 주제별 분야 및 범분야 주제를 포함한다.
- 2008년부터 2013년까지 EDPRS Ⅰ 중심으로 하위 정책들이 계획되었고 현재 경제체제전환, 농촌개발, 생산성 및 청년 고용, 책임성 있는 거버넌스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EDPRS Ⅱ가 시행되고 있다.
- 이에 맞추어 르완다 정부는 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섹터전략계획(ESSP, Education Sector Strategic Plan)을 수립하여 교육제도 개선 및 교육·훈련 접근성 강화를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수를 증대하고자 한다.
- Vision 2020과 EDPRS Ⅱ, ESSP에 나타난 교육 분야 주요 목표 중 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책	분야	세부분야	내용	교육분야
Vision 2020	인적자원개발 및 지식기반사회	교육	'모두를 위한 교육'을 위해 정부는 강력한 교사 함양 프로그램들을 편성함.	기초교육 교사양성
			Vision 2020 목표 성취를 위해 분야별 개발과 노동 정책들을 교육 정책들과 적절하게 연계시키는 것이 중요함.	TVET[03]
	범분야		모두를 위한 포괄적인 교육을 지원하고 모든 차별을 근절하고 가난에 대항하여 싸우며 여성들을 지지하는 사회적 약자 우대정책을 만듦.	기초교육
EDPRS Ⅱ	생산성 및 청년 고용	서비스 및 산업 부문을 위한 핵심기술 및 인식 개선	'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	기초교육 TVET
		노동시장 개입	고용지원센터 설립 등을 통한 실업 해소	TVET 고등교육
	기초 및 범분야	영유아교육 및 기초교육	영유아들의 인지·심리·사회·정서 발달을 위한 유아교육의 기회와 질 개선	유아교육
			9년간의 완전한 기초 의무교육 달성	기초교육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자격교사 비율 확대	기초교육
			과밀학급 해소 및 학생-교사 비율 감소	기초교육
			교수-학습 자료에 대한 지원 확대	기초교육
			평가 및 시험 제도 개선	기초교육
			교사 임용 및 지원 제도 개선	기초교육
		범분야이슈: 가족 및 젠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기초교육 TVET 고등교육

3 기술·직업 교육 및 훈련,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ESSP	기초교육	교육의 질	[교과서 및 학습 자료]교과서 및 학습 자료 보급 및 활용 지원	교육과정 개발
			[교사]교사양성기관 역량강화, 교사 연수 강화, 새로운 교육과정 및 충분한 교육보조재 보급	교사교육 교사연수
	기초 후 교육	교육분야에 대한 협력과 관리	중등교육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질관리체계 (qualifications frameworks) 마련	교육행정
		고등교육	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학습자중심교수법 연수	중등교육 교육방법
			교사 부족 해소	교사임용
		교사교육	교사 임용 및 관리 역량 강화	교사연수
			교사 연수 역량 강화	교사연수
			교사 사기진작 및 장려책 마련	교사임용

가) 학제

구분		연령	기관		
유아교육 Pre-primary		4-6	유치원		
초등교육 Primary		7-12	초등학교		
중등교육 Secondary	Lower	13-15	중학교		
	Upper	16-18	일반고등학교	교사훈련학교 (TTC, Teacher Training College)	기술고등학교 (TSS, Technical Secondary School)
					직업훈련센터 VTC, Vocational Training Center,
고등교육 Tertiary		18세 이상	대학교		종합기술전문학교 Intergrated Polytechnic Regional Centres, IPRC
			교육대학 College of Education		

(1) 유아교육

르완다의 기본 교육은 7세부터 18세까지 12년 동안 이루어지며, 초등 6년, 중등(중학교, 고등학교) 6년으로 "12년 기본 교육(12YBE)"으로 규정되어 있다.

유아교육에서 공식적인 유아원 입학 연령은 3세이며 완성 연령은 6세이다. 일반적으로 예비 초등교육인 유아교육은 보육 학교에서 3년 동안 이루어진다고 하였지만 현지에서 방문한 학교에서는 대부분 1년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2) 초등교육

초등교육은 7세에서 12세 대상의 6년과정이며 무상의무교육이다. 2009년부터 초등학교 수업에 영어를 사용하도록 하여 초등학교 3학년 이후부터는 모든 교과를 영어를 사용하여 수업하도록 한다. 하지만 많은 교사들이 영어 수업 능력이 부족하여 르완다 정부는 교사의 영어교육에 많은 관심이 있다. 학기는 매해 1월에 시작하며 총 3학기제로 운영된다. 6학년 졸업생에 대한 국가자격시험(Primary leaving examination)이 있으며,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학생은 중학교에 진급할 수 없어 1년간 마지막 학년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3) 중등교육

중등 교육은 총 6년으로 우리나라의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된다. 공식 연령은 13세에서 18세이다. 중학교 3년을 마치고 역시 국가 수준의 시험을 통과해야 고등학교 진학이 가능하다.

중학교 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일반적인 고등학교 과정(과학, 인문, 외국어)의 중등학교나 교사 훈련(사범학교) 또는 기술 및 직업 훈련과 같은 구체적 분야로 진학할 수 있다.교사훈련학교는 우리나라에도 존재하였던 사범고등학교 성격으로 졸업 후 유아교육과 초등교육 기관에 배치되어 학생들을 가르친다.

(4) 고등교육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A-Level national examination"을 통과한 학생들은 HEI(Higher Education Institutes), CoE(Colleges of Education), CoT(Colleges of Technology)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르완다에는 17곳의 공립대와 14곳의 사립대가 설립되어 있다. 총 17개의 공립대 중 8개 대학이 학위과정(Degree, 'A0')을 제공하고 나머지 9개 대학은 수료과정(Diploma, 'A1')을

제공한다.

나) 학교 유형

유형	설립 주체	예산 운영	비고
공립학교 (Public)	정부	정부(전체)	
정부 지원 학교 (Gov-aided)	사립	정부(일부) + 자체(일부)	공립학교로 인정
사립학교 (Private)	사립	자체(전체)	

2) 교육 실태

○ 르완다 교육현황을 정리한 통계자료는 아래와 같다.

① 인원

	2014년			2015년		
	학생 수	교직원 수	기관 수	학생 수	교직원 수	기관 수
아동교육	159,291	4,671	2,431	183,658	5,386	2,618
초등교육	2,399,439	41,192	2,711	2,450,705	42,005	2,752
중등교육	564,312	27,116	1,521	543,936	27,644	1,543
TVET	21,566	1,796	174	20,937	1,914	186
고등교육	87,013	6,813	45	86,315	6,431	44
성인문해	112,656	5,571	4,602	95,829	5,240	4,313

② 유아·초등교육

	유아교육		초등교육	
	2014 (%)	2015 (%)	2014 (%)	2015 %)
총등록율	17.5	20.2	134.2	135.3
순등록율	13.3	14.2	96.7	96.9
수료율			61.3	60.4
진학률			72.6	71.1
반복률			20.7	18.4
중퇴률			10.3	5.7
학생당교사 비율			61:1	62:1

③ 중등교육

	전기 중등교육 (중학교)		후기 중등교육 (고등학교)	
	2014 실제 (%)	2015 실제 (%)	2014 실제 (%)	2015 실제 (%)
총등록율	46.6	45.9	34.4	32.2
순등록율	22.8	22.3	27.3	20.9
진학률	88.3	82.3	4	6
반복률	11.6	11.6	4	6
중퇴률	14.4	6.5	5.9	2.5

④ 직업훈련학교

TVET		
	2014	2015
전체 학생 수	93,164	94,373
VTCs 학생 수	21,566	20,932
TSSs 학생 수	66,102	67,456
고등기관 학생 수	5,496	5,980

⑤ 고등교육

고등교육		
	2014	2015
전체 학생 수	87,013	86,315
공립 학생 수	37,759	36,427
사립 학생 수	49,254	49,888
교직원 수	4,038	6,431

○ EDPRS Ⅱ 교육분야와 ESSP의 성과는 아래와 같다.

Outcome	Indicators	2014/15	2015/16
(EDPRS II)	Employers satisfied with university graduates	80.2	80.2
	Pupil: qualified teacher (primary)	61:1	62:1
	Pupil: qualified teacher (secondary)	30:1	29:1

Increased equitable access to 9 years of basic education for all children and expanding access to 12 years of basic education	Transition from primary to lower secondary	72.6	71.1
	Transition from lower to upper secondary	88.3	82.8
	Primary completion rate	61.3	60.4
Increased equitable access to education for students with special educational needs within mainstream and special schools	Number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enrolled in schools	25,770	24,056
Improved access to schools readiness programmes by 2017/18, accompanied by expanded access to three-years of early learning for four-to-six year olds	Percentage of children aged 4-6 enrolled in pre-primary education programmes	13.3	14.2
Increased equitable access to relevant, high-quality, demand-driven TVET programmes	Number of Qualified TVET trainers trained	729	421
	Percentage of employers satisfied with TVET graduates	75	75
Strengthened performance in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at all levels of education, and application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in relevant sectors of the economy	Proportion of students enrolled in science and technology fields at upper secondary and tertiary education level (Secondary)	55.2	58.6
	(Tertiary)	34	34

- 르완다는 교육열이 높고 졸업 시험을 통과해야만 다음 단계로 진학할 수 있기 때문에 입시 위주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초등학교 졸업 시 국가시험을 보며 공립 중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할 경우 학비의 부담이 크므로 가난이 대물림 되는 경우도 많다.

다. 특수교육 정책과 실태

1) 특수교육 정책

르완다의 정부의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 관련 지침이나 정책 그리고 특수교육 관련 문헌에서 통합교육(Inclusive Education)을 계속 확인할 수 있었다. 특수교육 방법이나 개념을 이끌고 있는 미국이나 그를 따라가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순서와 개념으로 통합교육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다.

르완다의 통합교육 또는 장애인 교육을 뒷받침하고 있는 정책과 법은 아래와 같다.

- 르완다 헌법 제 40 조는 모든 사람의 교육권과 '국가는 장애인 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라고 선언하였다.
- 법규 번호 20/01/2007의 01/2007, 장애인 보호 관련 제 2장은 교육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장애인의 권리를 다루고 있다.
- 특별 요구 교육 정책(2007)은 장애인을 포함한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교육 조항을 안내한다. 2013년 정책이 검토되고 특별 요구와 통합교육 정책으로 변경되었다. 특별한 요구와 통합 교육 전략 계획 2015/16-2019/20은 그 실행을 안내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 개정된 정책 및 전략 계획은 2007년 정책보다 더 자세하며 특별 요구 교육을 전체 교육 시스템의 일반적인 활동에 통합하기 위한 기본 틀과 전략을 제공한다.

교육부의 특수교육 담당자를 통해서 르완다 정부가 다른 선진국처럼 장애인 인권과 장애학생 교육에 대하여 법과 관련 정책으로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특수교육 실태

우리나라에 기독교 선교사가 처음 장애 아동 교육을 시작하였던 것처럼, 르완다는 로마 카톨릭 선교사에 의해서 장애 아동 교육이 시작되었다. 1962년에 Nyanza에 장애 아동을 위한 첫 번째 센터인 HVP Gatagara가 설립되었다.

현재 르완다에는 10개의 특수학교가 있으며 그 중 9개는 정부 지원 학교이다. 이 외에 약 40개의 특수교육센터가 있으며 이 센터들은 특수학교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특수교육기관의 대부분은 종교단체나 학부모 협회가 소유하고 장애 유형별로 전문화되어 있으며 재활 서비스와 같은 교육 이외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르완다 내 정부 지원 9개 특수학교는 국가 정책에 따라 통합교육을 통해 특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하고 있으나, 행정·교사·시설 등 한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센터는 통합교육을 통한 특수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교사 역량 강화를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특수교육 실태를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사립, 정부지원)의 학교들을 방문하였다. 그 결과 각 학교마다 주목할 만한 문제점들이 있었고, 본 사업을 위한 수요를 파악할 수 있었다. 장소와 특징(주목할 만한 문제점)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① St. Fillippo Smaldone (정부지원 특수학교, Nymirambo 소재)

Nymirambo의 St. Fillippo Smaldone 학교는 카톨릭 선교사가 설립하였고, 정부 지원 학교이며, 청각장애 특수학교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이다. 전형적인 정부 지원 특수학교의 형태이기에 르완다 특수교육과 특수학교 실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학교장의 학교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는 저학년 교실부터 들어가서 수업을 하고 있는 교사와 학생들을 직접 만나보았다.

- 수화 교육 부족
  - 통일된 수화와 그에 대한 교사 교육이 필요함을 대부분의 교사들이 강조함
- 단순한 물리적 통합
  - 청각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의 어휘 수준은 건청 학생의 어휘 수준과 다를 게 분명하지만, 같은 교재와 같은 내용으로 한 공간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짐
- 교과 내용 중심의 수업
  - 상급 학교로의 진학을 위한 국가 수준의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교사의 교과 내용 전달 중심의 강의식 수업이 이루어짐
- 특수교육의 기본적 개념과 여건의 부재
  - 청각장애 학생과 건청인 학생의 언어 발달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수화와 구화, 서면의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므로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기대함

② HRD La Misericorde (정부지원 특수학교, Muhanga 소재)

Muhanga의 HRD La Misericorde는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장애인들을 위한 학교의 필요성을 느낀 르완다 현지인이 설립한 정부 지원학교이다. 특수학교로 시작했으나 비장애 학생도 함께 교육을 받는 통합학급와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학급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설립자와 교장으로부터 학교의 체계와 교사의 교육 수준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학교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를 가진 학생과 장애가 없는 학생이 함께 교육받는 통합형 특수학교
- 예비초등교육(유치원)부터 초등교육이 이루어지며, 지적장애 학급의 이원화 체계임
- 지적장애 7개의 학급 중 2개 학급은 자폐성장애 학생으로만 구성됨
- 예비초등교육부터 초등교육은 각 학년마다 1개 학급 씩 통합교육으로 이루어짐(청각장애, 경도의 지적장애, 지체장애, 그리고 비장애학생 혼재)
- 교사들은 여러 기관들로부터 체계적이지 않지만 단기간 교사교육을 받음
- 단순 물리적 통합
  - 통합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소개하였지만 그냥 같은 공간에서 방치되고 있는 학생들이 관찰됨
- 교수·학습 자료의 부족
- 교사의 전문성 부재
  - TTC[04] 출신 교사가 대부분, 교사 자격 과정에서 특수교육에 관련한 교육 받지 못함
- 특수교육의 기본적 개념 부족
  - 다양한 형태의 장애를 가진 학생의 같은 공간에서 같은 수업으로 이루어짐

③ HVP GATAGARA Nyanza (특수학교 및 센터, Nyanza 소재)

Nyanza의 HVP GATAGARA는 르완다 최초의 특수학교이자 병원, 보조기기 제작소, 물리 치료실, 학교가 집합되어 있는 센터의 형태이다. 청각장애, 지체장애 중심의 특수학교이지만 통합학교의 형태로 비 장애학생도 함께 수업을 받고 있다. 규모나 시설 면에서는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으나, 다른 여타 특수학교와 마찬가지로 실제적인 특수교육을 하는 교사가 느끼는 어려움은 유사하였다. 즉, 교사 교육 부재로 특수교육에 대한 지식 및 교육 자료의 부족을 호소하였다. 교사들과의 FGI를 통해 교사 교육의 필요성을 알아보았으며,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장애 발견과 진단 및 평가
- 장애 유형에 따른 교수법
- 교육 자료의 활용

4 교사훈련학교 'Teacher Training College'의 약자로 우리나라 사범고등학교의 개념과 유사한 교사양성기관이다.

④ HVP GATAGARA Gikondo (특수학교 및 센터, Kigali Gikondo 소재)

Gikondo의 HVP GATAGARA는 2015년에 신설된 지적장애, 학습장애 중심의 특수학교로 자폐성 장애학생도 볼 수 있었다. 교장은 특수교육 전공자로 자체 교육과정을 만들고 있는 중이며, 국가수준의 특수교육 교육과정에도 참여하고 있다. 유아기의 아동들이 치료의 목적으로 왔다가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다. 개별화교육계획(IEP)[05]을 작성하고 있으나 실제 계획대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조사팀이 방문한 학교 중 가장 한국의 특수학교와 근접한 교육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이 학교의 주목할 만한 특징은 아래와 같다.

- 장애 정도별로 그룹지어 수업이 이루어짐
- 학생 5명 당 교사 1명 배치
- 학교 자체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됨(5년제)
- TTC 출신의 교육대학 졸업한 전공자로 교사 구성
- 특수교육 관련 교육을 받은 교사가 없으므로 교사 연수의 시급함 토로
- 전체적인 수업도 다른 통합교육으로 이루어지는 특수학교와 다르게 지적장애 학생에 맞게 활동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임

라. 교사양성제도와 특수교사 양성 실태

1) 교사양성제도

르완다의 교사 양성은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진학할 수 있는 교사 직업교육의 성격을 띤 교사훈련학교(TTC, Teacher Training College)와 고등교육의 교육대학교(UR-CE)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르완다의 특수교육 실태와 나아갈 방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제 장애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현장에 나오는지 확인이 필요하기에 현지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가) 교사훈련학교(TTC)

TTC는 1998년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교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과거 한국의 사범고등학교와 같은 형태이다. 3년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초등학교 교사가 될 수 있다. 조사

5 개별화 교육(Individual Education Plan, IEP)이란 특수교육 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 및 장애 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 교육방법, 교육내용,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이다.

팀이 방문했던 학교의 대부분의 교사들은 교사훈련학교 출신이었다. 교사훈련학교는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되어 졸업하면 교사 자격증(Certificate)을 받는다.

나) 르완다대학교 교육대학

2007년에 설립된 KIE는 4년제 대학으로 대학 학위과정(Degree, 'A0')을 제공한다. UR로 통합되어 UR-CE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년제 Diploma과정도 제공하고 있으며, 야간대학 및 석사과정도 개설되어 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중등학교에서 근무하게 되기 때문에 현장 경험이 없어도 교사 훈련 학교(TTC)에서 교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을 가르칠 수도 있다.

교사의 월급은 학력에 따라 달라지며, 교사임용제도에 따른 자격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학력	자격증 형태	레벨	자격 내용	초임 월급	기타(공무원)[06]
교사훈련학교	Certificate	A2	초등교사	27,012 RWF[07]	80,012 RWF
초급대학	Diploma	A1	하위중등교사(중학교급)	89,000 RWF[08]	144,000 RWF
대학	Degree	AO	중등교사(고등학교급)	113,000 RWF[09]	200,000 RWF

2) 특수교사 양성 실태

르완다 교육대학 특수교육과는 2014년에 신설되어 학사과정(4년제), 석사과정(2년제), Diploma과정(1.5년제) 등을 개설하고 있다. 학사과정의 경우 현재 3학년 46명, 2학년 108명, 1학년 19명이 재학 중이다. 3년 동안 이론수업을 듣고 1년은 실습을 한 후 특수교사 자격과 일반 교사교육 자격을 갖게 되어 사범고등학교에서 예비 초등교사들을 가르치게 된다.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 과정(Diploma 과정)은 교사들의 수요가 있고 개설되어 있다고는 하나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여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못한

6 르완다 교사와 공무원 월급 비교(출처: World Bank(2011) Rwanda Education country status report, Washington, DC:World Bank)

7 2017년 6월 기준으로 한화 약 4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임.

8 학습 도움실이란 특수교육 대상 아동들이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다가 시간제로 와서 개인적 또는 소그룹으로 개별화된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받는 별도의 공간이다.

9 2017년 6월 기준으로 한화 약 120,500원에 해당하는 금액임.

상태이다.

르완다 교육대학 특수교육과 교수는 1년 동안 실습할 수 있는 기관과 기관 내 전문가가 부족함을 언급했다. 또한 학생들이 졸업하고 교사훈련학교(TTC)에 교사가 될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더라도 실제적인 경험이 부족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교육의 효과성 문제를 지적하였다. 특수교육과 교수로서 현재 르완다 특수교육의 현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응답하였다.

- 특수교육 전문가의 부족
- 물리적인 통합에 그치는 통합 교육의 문제
- 특수학교에 특수교사 부재로 인한 질적 문제
- 특수교육과 졸업생들의 특수교육 전문가로서의 진로 불투명

교육부의 특수교육 담당관은 장애아동 교육에 있어서 유아교육, 초등교육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사훈련학교에는 특수교육 관련 내용이 없어서 르완다의 특수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였다.

학교의 관리자들은 근무자들이 특수교육의 전문 교육을 받지 못하고 현장에 배치되어, 교수 내용과 방법에 전문성 문제를 느낄 뿐 아니라 장애학생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지 지식과 경험이 없기에 교사 교육 체계와 부족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르완다 교육대학 특수교육과 졸업생들에게 교육실습을 포함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특수교사 자격을 주어 양성체계를 규정하는 것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마. 타 기관 활동 현황

르완다 내에서 교육사업 및 특수교육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해 사전 문헌조사를 진행하고, 현지조사에서 면담 및 현장 방문을 하였다. 다양한 공여기관들이 르완다의 교육과 장애아동 교육에 관심을 갖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일부 기관들은 르완다 공교육에 깊이 관여하여 교사교육, 모델 학교 설립 등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1) UNICEF

어린이에게 친근한 학교 만들기(Child Friendly School, CFS)

CFS 프로그램은 UNICEF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린이 교육 중 하나이다. 학교에 위생적인 식수시설과 화장실을 만들고, 소수민족이나 여자 어린이들에게 친화적인 교과 과정을 통해 차별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수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각 지역사회를 지원한다.

르완다에서 진행하고 있는 CFS 사업은 MINEDUC, REB, Handicap International(HI) 등과 함께 협력하여 통합교육 모델학교(Inclusive Education Model School)를 운영한다. 장애아동들을 위한 경사로 설치, 화장실 수리 등의 인프라 구축과 교사 대상 장애이해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다.

CFS 통합교육 모델학교 중 Rubingo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였다. 물리적인 환경 개선으로 경사로와 화장실 설치가 완료된 상태였으며, 학습도움실(Resource room)[10]에 남녀 학생 휴게실 마련 등 그럴듯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화장실의 문은 잠그고 있어 사실상 사용을 하지 않고 있었다. 게다가 교사교육은 아직 미비하여 장애가 아닌 질병을 갖고 있는 학생(특수교육 대상 아님)을 장애 아동으로 분류해 놓기도 하였다.

2) NGO

가) Voluntary Service Overseas, VSO

VSO는 1998년에 르완다에 진출하여 르완다 교육부 및 지방 자치 정부를 비롯하여 UNICEF, DFID, USAID 등의 국제 공여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사회 통합, 빈곤 퇴치 등을 위한 봉사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	내용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Quality education for all)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학습자 중심 교수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TTC와 학교에 봉사자를 파견한다.
사회 통합 및 거버넌스 (Social inclusion and governance)	장애인 권리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약 2천 명의 장애인들이 그들의 권리와 서비스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받았다.
생계 (Livelihoods)	약 40%의 르완다 빈곤층 중 장애인, 에이즈 환자, 대학살 고아, 실업 청년 등 가장 취약한 계층들을 위해 협동조합을 형성함으로써 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모성, 아동 및 청소년 건강 (Maternal, child and youth health)	젊은 사람들은 의료 서비스 접근하는 경우가 낮아 열악한 성적인 생식 건강으로 인한 위험이 높다. 아동과 청소년 건강을 개선한다.

10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in Rwanda: the problem of supply and demand, 2016

VSO 교육 자문가 인터뷰와 교사 인터뷰를 통해 Handicap International과 함께 2000년부터 약 10년 동안 교사들을 대상으로 특수교육 관련 연수를 진행했음을 알 수 있었다. 수화 사전을 개발((St. Fillippo Smaldone 협업)하기도 하고 수화 통역에 관한 보고서[11]를 르완다국립농협회와 작성하는 등특수교육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 VSO 교육 자문가 역시 특수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르완다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하기도 하였다.

나) Handicap International, HI

HI는 르완다 대학살이 일어난 1994년부터 르완다에서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돕는 사업을 하고 있다.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취약계층과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막고 취약계층, 특히 장애인들이 사회의 보호와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정책과 이니셔티브를 모색한다. 주요 사업은 아래와 같다.

사업	내용
간질	간질환자들이 평등한 의료 서비스 접근, 가족과 지역사회 내에서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 르완다 사람들이 간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응급 상황에 대처 하는 방법을 알린다.
정신 건강 및 폭력 예방 (Mental Health and Violence Prevention)	대학살로 인한 정신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으므로 지역사회 기반 접근을 통해 정신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성적인 학대를 막기 위한 지역사회 활동을 개발한다. 또한 지역 및 국가 단위의 옹호활동을 통해 정신 건강과 성폭력범죄 이슈를 정치적으로 논의하도록 한다.
통합교육	르완다 교육부와 협조하여 모든 아이들이 통합교육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한다.
지역사회 기반 재활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장애인들의 사회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재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의료 전문가와 지역 건강 담당자를 훈련시킨다. 재활 직업으로서 작업치료사를 도입한다.
장애인 기관 지원 (Supporting Disabled People's Organizations)	사회, 특히 지역 수준의 장애인들의 통합을 지원한다. 장애인 기관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기관들이 장애인 권리를 발전시키고 시민 활동에 참여하도록 한다.

11 2017년 6월 기준으로 한화 약 160,600원에 해당하는 금액임.

바. 이해관계자 분석

	이해관계자	위치	위치 설정 이유	강점 및 약점		위치변화전략
		+ 0 -		강점	약점	
1	특수교육 대상 학생	+	최종 수혜 대상자	- 특수교육 필요 시급	- 개별화 교육 경험 부재	
2	특수/통합교육 교사	+	직접 수혜 대상자	- 연수에 대한 높은 수요	- 특수교육 전공자 부재 - 교사 당 많은 학생 수로 개별화 교육의 어려움 - 특수교육 대상 학생 선별 능력 부족	
3	일반교사	0	이해 관계자	- 장애 이해 교육	- 연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	
4	비 장애학생	0	이해 관계자	- 장애 이해 교육	-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	- 특수교사의 역량 강화에 장애학생의 문제행동 감소로 학습분위기 개선
5	특수교육 대상 학생 보호자	+	협력자	- 높은 교육열 - 특수교육 필요성 인식	-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	
6	교육부/교육청 특수교육 관계자	+	협력자	- 교사 교육 정책 - 특수교육의 중요성 인식	- 특수교육 담당자 혹은 전문가 부재 - 재원 부족	
7	현지에서 유사사업을 하는 NGOs	0	협력자	- 유사 사업 운영 경험	- 경쟁자로 인식할 가능성	- 교육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특수교육의 필요성 역설 - SDGs 달성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 교육부·교육청 관계자

교육부의 관계자는 르완다 특수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분위기였다. 그러나 체계적이지 않은 특수교육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지만 그럴만한 여유가 없음을 안타까워하였으며,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시급함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였다.

○ 특수교사 및 특수학교 관리자

특수교사들은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장애학생을 지

도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열정은 어느 나라 못지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전문적인 교육의 부재로 자신들의 교육방식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이에 대한 교육적 요구가 많았다. 따라서 장애아동들에게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교사들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가 시급함을 역설하였다. 하다. 이에 따라 현재의 특수교육을 하고 있는 특수교사들을 재교육하고, 특수교사 양성을 지원하여 체계화시키고, 특수교육 전문가의 질을 높여 궁극적으로 특수교육의 질을 높이는 일이 당면 과제라고 하였다.

○ 르완다 내 NGO

르완다 VSO의 교육자문가는 르완다 특수교육의 문제점에 정책입안자와 전문가들의 적극성이 부족하여, 특수교육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특수교육을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부족한 점도 지적하였다. 또 현재 정부주도로 통합교육이라고 불리는 교육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주류 교육 환경에 준비되지 않은 교사들이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받는 정도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그린티처스의 사업 계획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향후 파트너십 구축 가능성도 있다.

○ 특수교육 대상 부모

자폐성 장애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르완다 장애아 학부모의 시선에서 르완다 공교육 속의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교육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였다.

- 장애 진단의 어려움
- 특수교육을 아는 교사의 부재
- 일반 교사들에 장애 학생을 대하는 방법, 가르치는 방법 등에 관한 연수 부재
- 특수학교는 있으나 특수교육을 공부하거나 자격이 있는 교사의 부재
- 르완다 사회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

사. 범분야 이슈

- 유엔개발계획(UNDP)의 성불평등지수(GII, Gender Inequality Index)의 84위로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 대비 성평등지수가 높은 편이다. 한국과 비교하여 볼 때, 한국은 HDI와 GII가 모두 10위권대로 유사한 반면, 르완다는 HDI가 159위로 하위권인데 반해 GII는 84위로 중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구분	HDI		GII		여성 국회의원 비율	GDI[12]
	지수	순위	지수	순위		
한국	0.901	18위	0.067	10위	16.3%	0.929
르완다	0.498	159위	0.383	84위	57.5%	0.992

- 성평등 관련 지표를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와 르완다를 비교한 표는 아래와 같다.

구분	산모 사망률 Maternal mortality ratio	노동참여율 (%) 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		기대수명 Life expectancy		기대 교육연도 Expected years of Schooling		평균 교육연도 Mean years of schooling		GNI per capita		HDI values		F-M ratio
남/녀		F	M	F	M	F	M	F	M	F	M	F	M	GDI value
르완다 Rwanda	290	86.4	83.2	67.4	61.8	11.4	9.3	3.3	4.4	1,428	1,822	0.491	0.495	0.992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Sub-saharan Africa	551	64.9	76.1	60.2	57.6	9.1	10.3	4.5	6.3	2,637	4,165	0.488	0.557	0.877

- 비전 2020의 범분야이슈의 주요 목표에는 모두를 위한 포괄적인 교육을 지원할 것이고 모든 차별을 근절하고 가난에 대항하여 싸우며 여성들을 지지하는 사회적 약자 우대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 그러나 장애가 있는 여성들은 marginalised group으로 장애 여자 아동들은 학교에 가는 일이 매우 드물고, 적절한 치료를 받거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적다.[13]

12 VSO Rwanda Strategy 2012-17

13 남녀평등지수 'Gender Development Index'의 약자

04 변화의 영역

가. 주목 분야

- 교육부의 특수·통합교육 전략(Special Education and Inclusive Education Strategic Plan 2011-2015, MINEDUC)에 따르면 특수교육이 지역수준은 물론이고 국가수준에서 주목 받지 못하여 왔다. 따라서 대부분의 장애아동은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거나 일반학교에 다니기 어려운 일부의 특수교육 대상 아동들은 대개 정부 지원이 없는 사립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 학교들도 일반학교와 같은 교육과정을 적용하였으므로 전문적인 특수교육 즉, 개별화 교육[14]을 받았다고 보긴 어렵다.
- 르완다는 편의상 통합교육을 추구하고 있고, 특수교육 대상 아동들은 일부 사립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나 공식적인 특수교사 양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교사에 의해 특수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주 소수만이 특수교육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어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성 제고에 문제가 많다고 사려 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르완다 특수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체계화된 특수교육을 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교육의 부재와 장애에 대한 인식 부족임을 확인하였기에, 특수교사 양성의 전문성, 특수교육 관련 교사 재교육에 주목할 예정이다. 특히, 이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르완다 교육대학의 교사 재교육 과정(diploma course)에 본 기관의 특수화된 전문 인력 투입과 교사 연수 프로그램 제공을 주축으로 하고자 한다.
  - 르완다 교육대학 특수교육과 재학생들 대상의 특수교사로서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제공
  - 르완다 교육대학 주체의 현장 교사 대상의 교사 재교육 과정에 대한 인적 자원 및 연수 프로그램 제공

나. 현지의 수요 및 상황

- 앞서 언급하였듯이 르완다 특수교육은 매우 열약하고, 정부에서는 통계적인 자료만 제시하고 있을뿐 사실상 구체적인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다행이 교육부의 특수교육 담당관은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을 피력하고 있고, 최근들어 르완다 대학에 특수교육과가 신설되었고, 특수교사 양성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지 특수교육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가능성

1) 정부부처(르완다 교육부 및 교육청)

사전조사 시 교육부 특수교육 담당관(Mary KOBUSINGYE)와 교육청장(Janvier GASANA)을 대면하여 특수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교사연수 사업과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앞으로 특수교육 교사 교육 사업 선정 시 실행을 위한 행정적 절차와 협조를 약속하였다.

2) 르완다 대학교(University of Rwanda)

르완다 대학교 교육대학을 방문하여 특수교육과 교수와의 면담 결과 르완다 내에 전문가 부족으로 인한 양질의 특수교육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였다. 이에 르완다 대학교 교육대학은 필요에 따라 현지 상황에 맞는 연수를 기획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하였다.

○특수교육 교사 교육 현지 수요 및 상황

	주목분야	현지수요 및 상황
특수교육 교사 교육	특수교사 양성과정	▪ **교육대학의 특수교육과의 내실화 필요** - 실습할만한 모델 학교 부족 - 실제를 지도할 수 있는 선배 교사의 부족 - 졸업 후 사범고등학교의 교사로서 실제 경험 부족 - 특수교사의 전문성 제고 필요
	교사 재교육 (교육대학, 다른 ngo와의 협력)	▪ **장애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전문성 제고 필요** - '특수교육'의 이해가 부족한 교사들이 대부분인 현실 - '장애'와 그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교수적 수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 - 장애부모교육 필요 -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 필요 - 장애의 진단과 평가에 대한 연수 필요 - 교재·교구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연수 필요

○특수교육 교사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예상되는 어려움

르완다는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국가 교육의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14 개별화 교육(Individual Education Plan, IEP)이란 특수교육 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 및 장애 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 교육방법, 교육내용,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이다.

국가단위 교육과정도 제정하지 못해 지역 학교 사정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아동의 특수교육 지원과 특수교사 양성과 같은 문제를 르완다 정부 스스로 정책을 수립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르완다 정부는 통합교육의 형태로 장애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실제 교육 현장에 특수교육을 이해하는 교사가 극히 적고, 학교 관리자의 인식이나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특수교육을 위한 교사 교육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르완다 교육대학 특수교육과와 협력을 통해 교육 장소와 프로그램 공유 및 협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줄여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다. 사업대상 분야(Target Area)의 지표 및 기초선

산출물	사업활동	지표	기초선
예비 특수교육 교사 전문역량강화	- 국내 특수교육 교사 교육 전문가 파견 - 교육 매뉴얼 제작 - 르완다 교육대학 특수교육과 협업을 통한 장/단기 교육 프로그램 실시	1. 전문가 파견 여부 2. 매뉴얼 제작 여부 3. 연수를 수료한 교사의 수 4. 연수를 수료한 교사의 특수교육 직무 자가효능감 점수 평균	1. 0 2. 0 3. 0 4. 0
교사 재교육 (직무연수)	- 장애 진단·평가 교육 - 장애아동 교수법 교육 - 교재·교구 제작 및 활용 교육 - 교육 매뉴얼 제작 및 교육	1. 장애 진단·평가 직무능력점수 2. 연수를 수료한 교사의 특수교육 직무 자가효능감 점수 평균	1. 0 2. 0
동료학습 (교사연구회)	- 특수교육 동료학습	1. 특수교육 동료학습 실시 횟수 2. 동료학습 만족도 점수 평균	1. 0 2. 0

라. 단체의 특성과의 연계

- 사)그린티처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특수교사들이 설립한 전문가 단체로 이사진 및 회원의 95%이상이 특수교사 및 교수, 특수교육 행정가, 장애아동 가족, 그리고 장애인복지 전문가 등이다.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 특히 50여개의 특수학교, (특수교육과)대학, (특수교육)연구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등과 협력 MOU를 체결하여 본 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충분한 국내 기관과 협력이 가능하다. 본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별한 요구까지도 반영할 수 있다.
- KOICA의 외교부 민관협력 보조금을 비롯한 다양한 재원으로 개발도상국 특수교육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특성에 맞는 사업 계획과 관리방법 등의 노하우가 있다.
- KOICA 몽골 특수교육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사업 등 KOICA 사업에 대한 경험이 충분하다. 따라서 본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며, 사업 본연의 취지에 맞게 성공적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05 자료 출처

- World Bank Databank
  http://databank.worldbank.org/data/reports.aspx?source=2&country=RWA
- Rwanda Education country status report, Washington DC, World Bank
- 2015 Education Statistical Yearbook, Ministry of Education, 2016
- Special Education and Inclusive Education Strategic Plan 2011-2015, Ministry of Education, 2011
- A study on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their right to education: Republic of Rwanda, the Education Development Trust & UNICEF ESARO, 2016
- Guide to Inclusive Education in Pre-primary,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Rwanda Education Board(REB), 2016
- Position Paper of the Rwanda National Union of the Deaf(RNUD) and Voluntary

Service Overseas Rwanda(VSOR): part of the project 'INSPIRED' funded by UKAID(2013-2016)
- Karangwa, E. (2014). Towards Inclusive Education in Rwanda An assessment of the socio-political contributors to Inclusive Education developments. Rwandan Journal of Education, 2(1), 46-60
- Talley, L., &Brintnell, E. S. (2016). Scoping the barriers to implementing policies for inclusive education in Rwanda: an occupational therapy opportunity. International Journal of Inclusive Education, 20(4), 364-382.
- Williams, T. P. (2016). Oriented towards action: The political economy of primary education in Rwanda.
- https://www.unicef.org/cfs/
- http://www.rencp.org/about/member-organizations-1
- http://www.nationsonline.org/oneworld/map/rwanda-admin-map.htm

06 기타 활동 자료 (사진 등)

가. 특수학교 방문

01

02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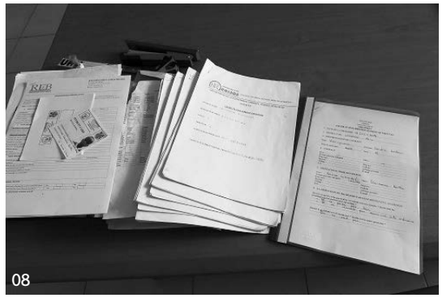
04

01 St.Philloppo Smaldone 교실 내부
02 St.Philloppo Smaldone 학교장 인터뷰
03 HRD La Misericorde 교사 FGI
04 HRD La Misericorde 학급

05

06

07


08

09

10

11

12

05 HVP GATAGARA Nyanza 학교 설명
06 HVP GATAGARA Nyanza 교사 FGI
07 HVP GATAGARA GIKONDO 학교장 인터뷰
08 HVP GATAGARA GIKONDO IEP
09 HVP GATAGARA Gikondo 수업 모습
10 HVP GATAGARA Gikondo 보조기기
11 HVP GATAGARA Gikondo 치료실
12 HVP GATAGARA Gikondo 보조공학기기 작업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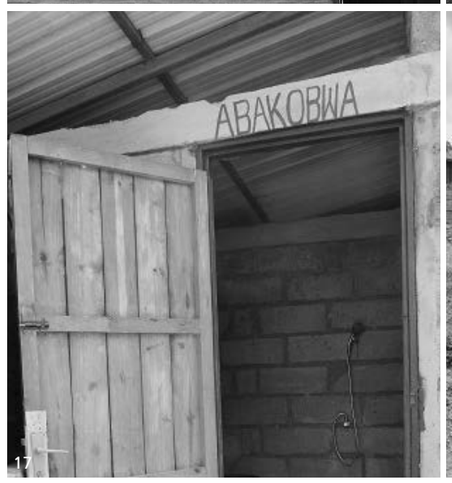
나. 모델학교 방문

13

14

15

16



17

18

13 Rubingo Child Friendly School
14 Rubingo Child Friendly School Resource Room
15 Rubingo Child Friendly School 교실 외부
16 Rubingo Child Friendly School 교사와 학생
17 Rubingo Child Friendly School 화장실 외부
18 Rubingo Child Friendly School 경사로

다. 특수교육 이해관계자 인터뷰

19

20

21

22

23

24

19 UR, Dep. of SNE 교수 인터뷰
20 UR, Dep. of SNE 교수 인터뷰
21 UNICEF Rwanda Office 교육담당관 인터뷰
22 VSO 교육자문관 인터뷰
23 장애학생 학부모 인터뷰
24 작업치료과 교수 인터뷰

향후 계획

chapter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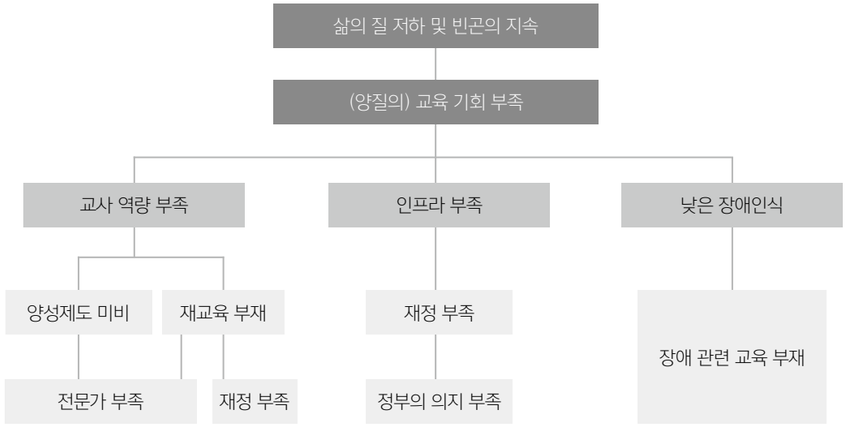
- 본 지역조사를 통해 특수교육 현황과 교사 교육의 필요성, 연수 수요 등을 충분히 파악하였으나, 기초선 조사가 추가로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시스템은 선진외국 프로그램에 뒤지지 않지만 르완다 상황에 맞춰 프로그램을 구안하기 위해서는 르완다 현장교사들의 요구 조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후 추가적인 기초선 조사를 통해 사업을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성과 지표를 작성한다. 한국의 특수교사 연수 프로그램과 르완다 현장 조사 결과의 조합은 르완다 특수교육 연수에 적절한 교육과정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 본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함으로써 르완다 내에 많은 교사들이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 특히 특수교육 정책 관계자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선진 한국 특수교육의 발전 과정과, 최근 동향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르완다에서 적용 가능한 한국의 모델을 논의하는 시간을 통해 단순한 연수의 의미를 넘어 르완다 특수교육의 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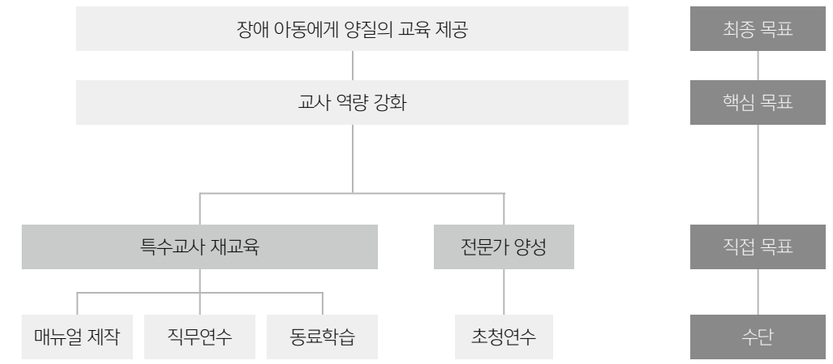
- 본 사업에 앞서 사업 담당자를 파견하여 그린티처스 르완다 지부를 설립함과 동시에 르완다 교육청과 MOU를 체결하여 르완다 측과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특히 사업이행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르완다 국립대학과 공동으로 본사업에 대한 세부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협력관계를 발전시킨다. 나아가 르완다 교육청 및 국립대학과 본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르완다 내 교사 및 관계자가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실시한다.

- 르완다 교육청 및 국립대학과 긴밀히 협력하며 연수과정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본 사업은 우리나라의 선진화되고 전문화된 특수교육 시스템을 르완다의 특수성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연수과정 개발은 직무연수 매뉴얼을 제작하는 것을 최종적인 산출물로 한다.

가. 문제분석



나. 목표분석



다. 사업 대상 분석

사업 대상 (Target Group)	관심, 동기 및 태도 (Interests, Motives, Attitudes)	특 성 (Characteristics)	잠재성 (Potentials)	결론 (Conclusion)
특수교육 교사 통합교육 교사	특수/통합교육 전문성	특수교육 전공자 부재	연수를 통해 교수 학습능력 향상 가능	특수교사의 질적능력향상(교수학습)
	교사로서의 책무성	연수 수료여부	르완다 특수교육 발전의 핵심 역할	사명감 향상
	연수에 대한 욕구 있음/높음			

PART 02

[교육]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시행일자	2017년 5월 17일(수) ~ 7월 16일(일) (총 60일)
지역	라오스 비엔티안

2017년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지역조사(사업형성조사) 결과보고서

기본정보					
단체명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작성자	이 초 희	
단체현황	현지 지부			☑ 있음	☐ 없음
	NGO 등록			☑ 있음	☐ 없음
	KOICA 협력사업 수행 경험 유무			☑ 있음	☐ 없음
사업 분야	사회복지		코드번호	43081	
조사 목적	라오스 내 복지 현황 조사 및 사회복지지원센터 건립 사업 타당성 조사				
대상 국가 및 지역	국 가	라오스	지 역	비엔티안	
	*비엔티안 시내 20분 지역에 위치함				
조사기간	전체 조사 기간	2017년 5월 17일(수) ~ 7월 16일(일) (총 60일)			
	현지 체류기간	5월 27일 ~ 6월 7일 (총 12일)			

조사 목적

chapter 01

- 현재 라오스 내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분야에 있어선 국가 내에서 아직 용어도 제대로 성립되지 않았으며 또한 당연하게도 라오스 국가 내 통계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의 라오스 조사에서도 사회복지와 관련된 통계가 거의 부재한 상황이다.
- 라오스 국가의 빈곤에 대한 양적 지표인 빈곤율은 46.0%에서 39.1%으로 점차 좋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지니계수가 37.89%라는 점과 더불어 도시에 거주하는 이들의 31.4%가 빈민가(슬럼)에서 살고 있다는 점에서 보아 빈곤으로부터 지표의 질적인 향상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 이와 더불어 라오스 내 존재하고 있는 빈곤층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부분도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 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라오스의 종합 사회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간접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 그러나 사회복지에 대한 용어, 지표조차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선 본 재단이 희망하고 있는 '라오스 사회복지지원센터 사업'은 현지 주민 욕구, 타당성, 사업 방향성, 장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 불투명한 상황이다.
- 그리하여 종합사회복지지원센터 건립 사업에 앞서 인큐베이팅 사업을 통한 철저한 지역 조사를 기반으로 현지 주민의 욕구, 타당성을 이해하고 사업 방향성, 단·중·장기적인 추진 계획 또한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을 성립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 만약 재단이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현지 주민 욕구, 타당성이 재단이 초기

에 예상했던 방향과 다르다면, 조사 이후에 복지재단의 사업방향성을 현지 주민의 욕구에 맞추어 수정하게 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 여겨지며 또한 사회복지에 대해 관심이 많은 타 재단 및 단체에도 유용한 결과로써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져 사회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였다.

- 그러나 인큐베이팅 현지 조사를 진행하면서, 정부부처와 현지주민들이 재단이 2011년도부터 진행해 온 라오스 보건사업 분야에 대해서 재단이 연속성을 이어가는 것과 함께 보건 분야 사업의 확장에 대한 부분의 욕구가 상당 부분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게 되어 사회복지센터와 더불어 보건지원센터에 대한 타당성 및 욕구조사도 함께 진행하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

chapter 02

01 일정별 조사 활동

기 간		활동 내역 약술
국내	4.20-4.27	▪ **인큐베이팅 사업에 대한 팀 회의** : 문헌조사 일정, 조사 필수 사항 계획 ▪ **라오스 문헌 조사** : 생활 현황(교육, 인구/인적 자원/노동, 보건/의료/위생, 사회복지, 빈곤) : 라오스 전반적인 국가 통계 : 라오스 경제, 역사, 공동체
	4.27-5.3	▪ **현지 지부 일정 조정 및 유관기관 사전 접촉** : 대략적인 일정 조정, 사전 접촉 진행 ▪ **라오스 문헌 조사** : 중앙 정부, 정부 산하 조직 관련 조사 : 라오스 국가정책조사 (교육, 인구/인적 자원, 보건/의료, 빈곤)
	5.10-5.25	▪ **라오스 문헌 조사** : 라오스 국가정책조사 (교육, 인구/인적 자원, 보건/의료, 빈곤) : 라오스 분야별 통계 (교육, 인구/인적 자원, 보건/의료, 사회복지, 빈곤) -일정 확정 및 현지조사 준비
	6.15-16	▪ **국내기관 방문** -6.15일자 : 배혈병어린이재단 기관라운딩 및 회의 -6.16일자 : 고양시 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기관라운딩 및 회의

현지	4.20-5.27	▪ **인큐베이팅 사업에 대한 팀 회의** : 정부부처, NGO기관, 마을 조사 및 접촉 : 기관 및 마을 방문 관련 일정 기획 (정부부처, 타 NGO기관, 마을 등 일정 조율)
	5.27-6.7	▪ **현지 조사 진행** -5.27-28일자 : 라오스지부 합류, 인큐베이팅 사업 관련 회의 진행 -5.29일자 : 기술발전센터 회의, 비엔티안 시청 회의, 현지 지부 회의 -5.30 일자 : 국립아동병원 회의 -5.31일자 : 교육체육부 회의, boun phone khor마을 방문, 질병치료센터 회의 -6.1일자 : 책나눔터 방문 -6.2일자 : 국가건설종무국 회의 -6.3일자 : 중간 점검 (취소 일정에 따른 일정 조율) -6.4일자 : 지구촌공생회 회의 -6.5일자 : 보건부회의, 스님(옹뚜사원) 회의, 아시아센터 회의, 쉼터 환아 가족 인터뷰 -6.6일자 : 외교부 회의, 굿네이버스 회의, KCOC코디 회의
	6.8-16	▪ **현지 조사 진행** -타 병원 환아부모 인터뷰 조사 일정 수립

02 조사 항목 및 방법

	조사 항목	조사 방법	조사 기간
1	생활 현황(교육, 인구/인적 자원, 보건/의료, 사회복지, 빈곤)	문헌조사, 관찰, 반구조화 인터뷰	4.17-6.16
2	국가 정책/법제도	문헌조사, 반구조화 인터뷰	
3	시설 및 서비스	문헌조사, 관찰, 반구조화 인터뷰	
4	지역 내 유사 기관 활동 현황	문헌조사(사례연구 위주), 현지조사, 반구조화 인터뷰	
5	정부 조직	문헌조사, 반구조화 인터뷰	
6	예상 수혜자층 생활현황/욕구	문헌조사, 반구조화 인터뷰, 관찰	

03 조사 결과 분석

1) 라오스 빈곤 현황

가. 조사방법: 국내 문헌 조사

나. 조사 내용 :

- 국내문헌조사: 라오스는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낮은 국민소득, 빈약한 천연자원과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2015년 현재 약 680만명) 등으로 최빈국의 지위를 벗어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빈곤과 경제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라오스 정부는 대외관계의 개선을 통하여 선진국 및 주변 아시아 국가의 공적개발원조를 활용하고자 노력해왔다. 라오스 8차 국가발전전략에 따르면 현재 라오스는 빈곤율은 1993년의 46%부터 2008년에 28%까지 지난 15년 사이에 39%로 하락해왔다. 또한 라오스는 1990년도 이래로, 빈곤격차와 절대적 빈곤에 있어서의 점차적인 감소를 보여 왔으며 이러한 부분은 정부에서 진행된 개발활동에 있어서 범분야적으로 빈곤 감소에 대한 부분을 접근해왔던 것에 대한 성과로 보인다. 또한 라오스 정부는 현재 빈곤감소 대책과 국가 성장에 있어서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 빈곤감소에 대한 전략들은 고위험 계층에 대한 전략과 불평등에 대해 줄이고자 하는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빈곤율 감소와 빈곤 대책에도 불구하고 소득불평등 정도는 아세안 국가들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한수준이나 지난 10여 년의 지니계수 추이 상 소득불평등이 심화된 것을 알 수 있었다.

2) 라오스 교육 현황

가. 조사방법: 국내 문헌 조사

나. 조사 내용 :

- 국내 문헌 조사 : 라오스 정부는 7차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2010-2015)을 통해 2015년까지 MDGs달성, 초등학교 중퇴율 감소 및 11-14세 아동의 중등학교 등록률증대, 노동시장의 수요에 맞춘 직업훈련교육과정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 (라오스 교육 체제) 라오스의 교육 체제 관련하여 유아교육은 영아교육(출생 후 3개월부터 3세)과 유치원 교육(4~6세)을 포함하며, 일반교육은 초등교육 (1~5학년), 전기중등교육(6~9학년), 후기중등교육(10~12학년)을 포함한다. 고등교육은 다양한 형태

로 이루어지는데, 전문학사 3년, 학사 4년, 석사 2년 및 박사 3년 과정으로 구분되며 직업교육훈련은 교육체육부(MOES: Ministry of Education and Sports)와 노동사회보장부(MOLSW: Ministry of Labor and Social Welfare)에 의해 이분화 되어 이루어진다. 교육체육부는 학교시스템에 의해 실시되는 직업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반면에, 노동사회보장부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비형식 직업훈련을 총괄한다.

- (라오스 등록률, 진학률) 라오스 보편적 초등교육은 라오스 정부 통계기준으로 2014년 초등학교 순등록률(98.6%)로 MDGs(98.6%)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남부지역의 직업훈련 교육시설 확대 등의 성과를 이루었으나 등록률과 5학년까지 진학률간의 격차가 크며 효율성 측면에서 교육 시스템 수준은 여전히 낮다. 그러다보니 상당수의 학생이 학령기에 맞는 교육을 못하는 실정이며 5학년까지 진학률은 1992년 48%에서 2012년 70%까지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주변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

구분	유아교육 총등록률	초등고등 순등록률	중등교육등록률	고등교육 총등록률
인도네시아	45.5	99.0	74.4	24.9
말레이시아	68.6	95.9(05년)	68.6	42.3
베트남	73.0	99.4	-	24.4
라오스	23.6	97.4	40.7	17.7

*출처 : United Nations ESCAP(2013), p. 85.

- (라오스 교육의 기회) 라오스 교육기회의 성평등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십 년간 교육의 모든 단계에서 성별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고등교육 진학률 면에서 성별 격차는 상당히 큰 편이다. 2011년 기준으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순등록률의 성평등 지수는 모두 0.9를 넘는 반면에, 고등교육 총등록률의 성평등 지수는 0.74에 불과하다
- 이러한 격차는 성별 뿐만 아니라 민족별, 도농별 분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02-2003 학년도 현재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남아의 초등학교 순등록률을 비교해보면 라오 타이족(Lao-Tai:라오스의 민족 중 다수를 차지하는 라오룸을 구성하는 하위 민족)은 77.8%인데 비하여 기타 민족은 55.1%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민족간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도시에 사는 라오 타이족 남아의 초등학교 순등록률은 87.0%인데 비하여, 농촌의 경우 그 수치는 77.8%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도

도농간의 교육격차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차이는 여아의 초등학교 순등록률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도시에 사는 라오 타이족 여아의초등학교 순등록률은 90.%인 반면에 농촌의 경우 그 수치가 77.7%에 불과하다.

구분	도시				농촌						계
	라오 타이		기타		라오 타이		기타		소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총 계											
순등록률	87.0	90.4	85.6	88.6	77.8	77.7	55.1	48.7	68.4	65.0	70.4
총등록률	130.6	132.3	133.4	130.4	126.0	122.0	104.3	83.7	117.0	105.2	114.9
비 빈곤층											
순등록률	89.4	92.2	88.1	91.0	84.0	83.3	61.5	56.5	76.6	74.1	78.5
총등록률	128.8	131.4	131.2	130.6	134.1	129.6	113.1	96.1	127.3	118.2	124.7
빈곤층											
순등록률	77.9	83.2	78.31	81.1	64.7	66.8	49.5	42.6	56.5	53.1	57.6
총등록률	137.7	136.2	139.9	129.6	108.7	107.1	96.8	74.0	102	88.4	99.7

- (라오스 중도 탈락률) 라오스의 교육단계별 '높은 중도탈락률'또한 교육 분야에 있어 상당한 문제가 될 것임을 시사한다. 전기중등교육의 평균 중도탈락률이 8.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후기중등교육(7.2%), 초등교육 (6.3%)의 순이다.
- 재단이 현재 초기 사회복지센터 건립 당시 구상한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라오스 정부 부처 관할 직업교육 훈련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2-13학년도 현재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은 총 35개이며, 이에 등록 중인 훈련생은 1만 1,685명으로 조사되었다.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교육문화부 산하에 22개 기관으로 가장 많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이 있으며, 전체 훈련생의 85%가 등록해있다. 학사 학위과정의 직업교육훈련 등록자는 2005-6 학년도 3만 574명에서 2010-11학년도 6만 8,935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동일한 기간에 고급 디플로마(high diploma) 과정의 등록자수도 1만 9,073명에서 4만 134명으로 늘어났다. 이와 같이 중등이후 직업교육훈련과정에 등록한 학생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주의해야 할 부분은 반숙련 노동자를 양성하는 중급 디플로마 과정의 등록자수는 2009-10학년도까지 줄어든 부분이다.

구분	직업교육훈련 기관 수	등록학생	교직원		
			정규직	초빙직	계
교육문화부	22	9,906	92	0	92
농림수산부	2	88	0	0	0
정보문화관광부	4	453	115	35	150
보건부	5	897	39	4	43
법무부	2	281	0	0	0
계	35	11,685	246	39	2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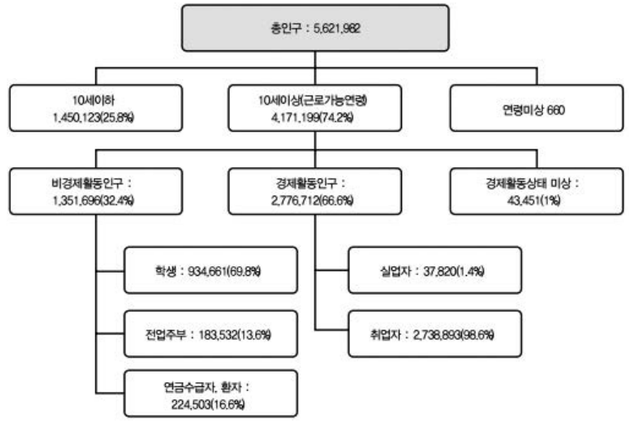
*출처 : ucation Statistics Information and Technology Center(2012), pEp. 58-59

3) 라오스 인구/인적 자원/노동 관련 현황

가. 조사방법: 국내 문헌 조사

나. 조사 내용 :

- 국내 문헌 조사 : (라오스 인구) 2015년 현재 라오스의 인구는 680만명으로 세계 인구 순위로는 109위에 머물고 있다. 현재 라오스는 저개발국이나 개도국에서 주로 나타나는 '피라미드형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라오스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 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2020년에는 총 인구가 900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추세는 ASEAN+3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경제활동인구(labor force)의 증가율로 나타나고 있다.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에 라오스의 경제활동인구는 약 28% 정도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여타 ASEAN 국가 중에 가장 높은 편이다. 이러한 높은 인구 증가율을 생산력의 증가에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라오스의 경제발전을 위한 핵심변수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 (라오스 인구 활용) 인구의 활용과 관련하여, 재단이 현재 라오스 국민의 고용형태를 조사한 결과, 5~17세 아동과 청소년이 총 경제활동인구 중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9세의 약 5%, 10~14세의 12%, 15~19세의 약 50%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여아가 남아보다 참여율이 높은 편이다. 아동과 청소년은 비숙련 노동에 종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인적자원의 발전 측면에서 아동과 청소년 노동을 위한 학교교육과 직업교육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 경제활동 인구 구성

출처 : Lao Statistics Bureau(http://www.nsc.gov.la, 검색일 2014. 7. 1).

- (라오스 고용형태) 노동 시장 및 고용형태와 관련하여 성별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라오스의 경우 2012년 현재 만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중 남성 취업률은 77.7%로, 여성 취업률 75.5%보다 다소 높은 편이다. 그러나 직종에 있어서는 남성은 정부, 공기업 등에 취업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에, 여성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무급 가족 종사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편다는 점에서 인적자원 용도를 전체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보이고 있다.

CODE	구분	고용인	여성(%)	남성(%)
01	공무원	468,388	31	69
02	준공무원	11,446	33	67
03	민간노동자	121,786	40	60
04	공기업 직원	19,486	27	73
05	자영업자	7,210	31	69
06	독립 근로자	1,149,906	32	68
07	무임금 가정 근로자	1,260,671	71	29
전체		2,738,893	50	50

*출처 : Lao Statistics Bureau(2005), p. 81.

4) 라오스 보건/의료/위생 관련 현황

가. 조사방법: 국내 문헌 조사

나. 조사 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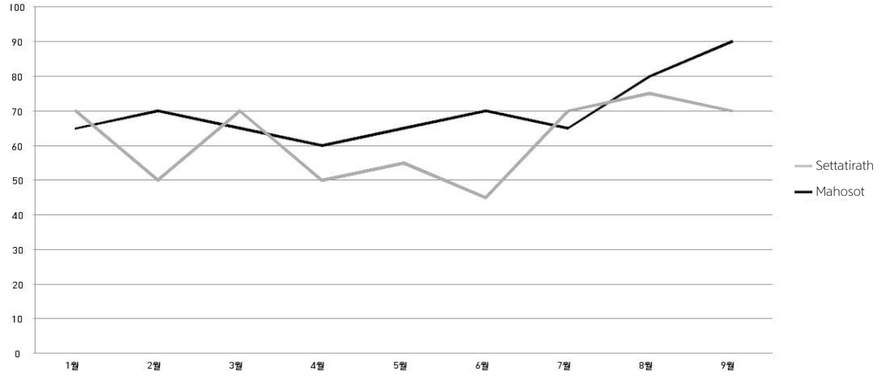
- 국내 문헌 조사(보건): 라오스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발전을 이루었으나 의료산업은 아직 초기성장 단계에 있다. 초기성장 단계에 있는 의료 분야를 개선하기 위해 라오스 정부는 제 7차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2010-2015)을 통해 135개의 군립병원과 985개의 보건소를 운영하며 농촌산간지역 까지 의료보건 서비스지역을 확장하였다. 다만, 라오스 보건인력은 인구 1,000명당 의사 0.182명(2012), 간호사 또는 산파 0.876명(2012)에 불과하여 인력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더하여 현지국민과 외국인거주자들의 국내의료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시설 뿐 아니라 적절한 훈련을 거친 숙련된 의료직원 부족으로 인해 이들 수요 대부분이 태국 등 주변국에서 충족되고 있다.
- (라오스 보건 인력) 공공부문 보건 관련 인력은 총 약 18,000명이며 이 중 70%는 보건부, 30%는 보안부/국방부 소속이다. 해당 인력은 급여와 기본 트레이닝 수준이 낮다보니 보건 시스템의 효율성을 저하하고 있다. 주로 도시에서 채용이 이루어지며, 취약한동기부여, 이해상충, 트레이닝 및 커리어개발 기회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들 의료관련 직원 중 63%만이 의료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다. 민간부문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확장 중이며 현재 2,000개 이상의 약국, 약 500개의 민간의원, 600여개의 전통의원 등이 존재한다. 민간부문의 규제적 틀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으나 공공부문 인력이 공식 근무 시간 이후에 민간분야에서 근무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민간부문에 관여하고 있어 실행과 집행과정에서 이해상충 등이 전형적인 이슈에 직면해있다
- (모자 보건) 모자 보건 이슈와 관련하여 지난 15년간 5세 이하 아동사망률이 크게 감소하여 1,000명당 80명이라는 MDGs 목표를 2010년 달성하였으며, 추가 목표치(2015년 까지 사망률 70명이하) 또한 달성하였다는 점과 모성사망비 또한 75% 감소로 MDGs목표치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모자보건 부문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아동사망률이 국제목표인 1,000명 당 57명을 미달하고 있다는 점과 모성사망 또한 10만명 당 197명으로 더 많은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라오스는 부족한 보건 재원과 시스템 및 인력 미비로 여러 가지 보건의료 문제가 상존하며, 특히 국가 MDGs 목표를 부분 달성했음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의 5세미만 아동사망률 및 모성사망비를 기록하고 있다.)
  - * 모성사망비(10만명 당) : 546명(2000) → 197명(2015)
  - * 숙련된 전문인력에 의한 분만율 : 19%(2001) → 40%(2007-2014)
  - * 1회 산전 진찰율 : 44%(2001) → 53%(2007-2014)
- 위의 말을 요약하여 말하자면, 현 문제는 라오스 내 5세 이하 아동사망률이 1,000명당 국제목표인 57명에 미달하고 있고 모성사망비 또한 10만명당 197명으로 집계됨에 따라 아직 보건 분야에 있어서 개선할 부분이 많을 것이라 여겨진다. 또한 보건 인력과 보건 시설에 대한 수요에 지원이 맞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라오스 정부는 제 8차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5세 이하 아동사망률 1,000명당 40명, 모성사망비 10만명 당 160명으로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 (보건시설 접근성) 라오스의 보건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하여 4개의중앙병원, 6개 전문센터(모두비엔티안에 소재), 17개 지방 및 지역병원, 141개 구 단위 병원, 740개의 보건소와 약 5천여 개의 진료소(약 제조)가 있다. 모든 헬스케어 센터의 5,000개의 병상과 보건소 별로 7천여 명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시설에서 1천명 미만을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드러나듯이 기존 시설 가운데 일부는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보건시설로부터 3km 이내 반경에 거주하는 라오스국민은 26%에 불과하며 2/3 이상은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돼있거나 전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정부서비스 활용도가 낮고 외래환자헬스케어의 대부분이 민간분야를 통해 제공된다. 의료서비스사용이 필요한 경우 가장 먼저 취하는 조치가 공식, 비공식 약국에서 의약품구매로, 특히 구 보건소 등의 공공시설의 사용도는 매우 낮다. 2007년 8월 국가보건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치료목적으로 이들 기관에 접촉한 횟수는 연평균 0.2회에 불과하다. 예방적 목적의 보건서비스의 커버리지 역시 낮다. 이들 시설의 활용도가 낮은 가장 주된 이유는 치료비 지급능력의 부족이다.
- 위에서도 서술했듯이, 시설 활용도가 낮은 이유는 치료비 지급능력이 원인이다. 보건부 보고서에 따르면 빈곤층과 부유층 간 헬스케어서비스접근성에 격차가 존재한다. 빈곤층 대비 부유층은 보건소 등의 공공보건시설활용도가 훨씬 높다. 지방일수록 이러한 추세는 명확하여 부유층은 1000명당 42.4명이 입원하는 반면 하위 20% 소득계층의 경우 15.9명에 불과하다.

소비 계층	도시 거주	지방 거주	총 계
최상위 20%	38.1	42.4	40.4
상위 20~40%	25.5	38.2	34.4
상위 40~60%	49.8	27.4	32.3
하위 20~40%	22.7	22.8	22.8
최하위 20%	24.5	15.9	17.0
총 계	33.0	26.7	28.3

◎ 소비 계층에 따른 보건서비스 활용도

출처 : World Bank, IMF and ADB, Lao PDR Public Expenditure Review , Integrated Fiduciary Assessment (May 2007), June 2006 draft version.

● (병상이용률) 라오스의 병상이용률과 관련하여 2009-10년 비엔티안병원의 병상이용률은 대표적으로 Mittaphab병원과 Settatirath 두 병원의 사례를 보아도 환자들에게 우려스러운 상황을 나타내고 있음. 두 병원 모두 수용가능한 시설 규모를 넘어서는 병상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병상이용률은 사용가능한 병상의 이용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100%를 초과할 경우 입원환자가대기실이나 병원복도에 개인 매트를 두고 수면을 취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이는 또한 의료장비와 기기부족, 특히 중환자실이나 산모실 같은 특수병동이 부족함을 내포하고 있다. (The Australian Medical Association, Australasian College of Emergency Medicine 등의 의료 전문기관은 병상이용률이 85%를 초과할 경우 병원운영의 안전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더하여 Irish Medical Organization은"Acute Hospital Bed Capacity"(2005년 3월) 성명서에서 병상이용률 85%를 '국제기준'으로 보고 이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헌조사 결과와 더불어 실제 국립아동병원 내 난치병 환아 가족들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과 인터뷰 결과, 지방에서 치료 온 경우 어쩔 수 없이 병원에서 머물며 국립아동병원 내에서 입원할 경우는 입원실 뿐만 아니라 보호자를 위한 간이침대도 없는 경우가 다수라 대부분 병원 근처의 숙박시설에서 머물러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점들로 보아 라오스 내 병원의 병상 이용률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병원 복도에 개인 매트를 두고 수면을 취하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 병상이용률

● (보건 사회보장체계) 라오스정부 는 각각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직원을 대상으로 한 두 가지의 광범위한 사회보장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노동복지부에서 운영 및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 두 프로그램 외에 보건부는 지역의료보험과 보건주식펀드 등을 통해 비공식부문(informal sector) 대상 의료보험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위 시스템은 공중보건부산하로 운영되고 있다. 노동복지부와 공중보건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은 다수의 조직이 운영하는 뮤추얼펀드로 구성돼있다.

구분	사회 보장 조직 (공공부문)	사회 보장 조직 (민간부문)	지역건강보험 (비공식 부문)	보건주식펀드 (빈곤층)
강제성 여부	의무	의무	자율	지역 당국 승인
대상	공공부문 근로자 및 가족	민간부문 근로자 및 가족	가족 등본이 등록된 라오스 국민	빈곤층 가구
비용분담	총 급여의 16.5% (직원 8%, 정부 8.5%)	총 급여의 95% (직원 5%, 직원 4.5%)	가족규모 및 거주지에 따라 상이 (지방, 도시 구분)	
혜택	외래, 입원			외래, 입원, 이동비용, 식사비 지원
담당 기관	노동복지부		보건부	

◎ 의료보장제도

출처 : WHO, Review of HSS Strategies 2012.

- 공무원사회보장시스템인 CVS와 민간부문사회보장시스템인 SSO는 노령연금, 장애수당, 실업복지수당(incapacity benefit), 사망보험금, 유족수당, 질병수당, 출산수당, 고용상해보험, 아동수당 및 헬스케어수당을 포함한다. 보험금은 배우자와 18세 미만의자녀에게 지급된다. 보험수익자가 여성인 경우 최소급여의 60%에 해당하는 출산수당이 세 달간 지급된다. 비공식부문 근로자보호를 위해 보건부는 지역건강보험(CBHI)을 도입하여 자율가입을 통해 이들이 자신과 가족의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지역건강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나 미용관리는 급여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건강보험 외에도 보건부는 아시아개발은행, 세계은행, 세계보건기구등과 공동으로 보건주식펀드라는 특수목적펀드를 설립하고 빈곤층에 식품과 이동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 보험유형별로 가입률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ILO국가별보고서에 따르면 CVS의 공무원 가입률이 100%인 반면 SSO는 민간부문 근로자의 54%만이 가입돼있다. SSO의 가입자는 53,075명, 이들의 배우자와 자녀 54,662명까지 포함하면 SSO의 총수익자는 2010년 기준 107,737명에 이른다. 반면 지역건강보험 가입률은 총인구의 0.8%에 불과하다.
- (영양) 영양 관련 통계로는 5세 이하의 저체중 비율은 2006년 37%였으며 2011-2012년 사이에 27%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2015년도 MDG목표치인 22%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5세 이하 스턴딩 비율 또한 2006년 40%였으며 2011-2012년 38%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2015년도 MDG목표인 34%에는 달성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리하여 라오스 보건부 및 보건 분야 공여국 협의체는 취약계층의 모자보건을 중점 지원하는 형태로 영양개선 활동을 통합하여 실시해오고 있으나 보건 분야 단일 섹터로의 노력만으로는 영양결핍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인지하고, 보건·농업·교육 분야의 노력을 응집한 멀티섹터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5) 사회보장체계 (사회복지)

가. 조사방법: 국내 문헌 조사

나. 조사 내용 :

- 국내 문헌 조사 : (라오스 사회보장 역사) 1993년 이전에는 사회보장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정부는 해당 제도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해왔다. 1975년 이후 정부는 건설 노동자들을 제외한 노동자들에게 의료지원, 산후 지원, 사망 후 연금 등의 복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회보장체계가 이루어졌다. 1990년 들어서, 정부는 공무원 기본급의 6%를 공제하여 사회보장기금을 마련했고, 1993년에는 노동사회복지부가 신설되었으며 그 후 라오스의 사회보장체계는 두 개의 별도 사회제도로 발전했다. 별도의 사회제도 중 하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민간 부문 노동자들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다. 1993년 공공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178/PM)이 제정되었으며 1999년 민간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207/PM)이 제정되었고 2001년 중반 공식적으로 시행되었다. 2006년 공공 노동자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의 개정안(70/PM)이 제정되었고 2008년 시행되었다.
- (공공 사회보장 프로그램 시행 기관 및 재원) 공무원과 민간 또는 기업 제도의 이행은 노동사회복지부, 특히 사회보장국 소관이다. 지역사회 기반 건강 보험과 건강 주식형 펀드는 공공보건부가 관할한다. 여러 재원으로 마련된 예상 지출은 GDP의 약 1.14%이다. 의료 서비스가 0.3%, 노령, 취업 불능, 유가족 수당이 0.28%,가족 및 아동 수당이 0.42%, 그리고 사회 복지 및 주택 수당이 0.03%를 차지한다. 공식적인 사회적 보호에 지출된 총액이 매우 적다는 점은 분명하다. (전체 인구의 11.7%에게만 사회 보장 제도가 적용된다).

프로그램	담당기관 (정부기관)	재원	주요 혜택
의료서비스	SSD, SSO	ER, EE 및 정부 분담금	의료 서비스 혜택
질병수당	SSD, SSO	ER, EE 및 정부 분담금	단기적 소득 대체 현금 지원 (공공 및 공식 부문 노동자에 한함)
출산수당			단기적 소득 대체 현금과 일시금 (공공 및 공식 부문 노동자에 한함)
취업 불능 연금			장기 질병과 유가족 연금 (공공 및 공식 부문 노동자에 한함)
사망 위로금			SSD와 SSO 노동자들에 한해 법정 최저 임금 8배에 해당하는 장례 지원금
유가족 수당			유가족 연금 또는 일시불 현금
가족 수당			일시불 현금

산재 및 직업병	SSD, SSO	ER분담금	일시금 또는 장애연금
빈공층 의료 서비스	MoPH	국가 예산	빈곤층에 대한 무료 의료 서비스
지역사회 기반 건강보험	MoPH	분담금	의료서비스 혜택
정규 보조금을 위한 사회보장 기금	MLSW	국가 및 지방 예산	노인, 고아, 장애인, 극빈자들을 위한 최저 생활 보조금
전쟁의 영향을 받은 계층을 위한 보장 기금	MLSW	국가예산	

◎ 사회보장제도 종류 및 재원

● (민간 부문의 사회보장) 민간 부문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 보장 제도에 대한 법(07/PM)은 1999년 제정되었고 2001년 초에 공식 시행되었다. 해당 제도의 취지는 일시적 및 영구적 소득 상실의 상황에서도 노동자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라오스의 여러 민족들이 공식적으로 조직된 단체를 통해 상호 지원과 연대의 정신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 제도는 또한 산업, 농업, 서비스업 및 기타 분야의 공공, 민간,협력 기업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되나, 대사관, 국제 기구, 다국적 기업의 지사로 라오스에 설립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다른 나라에 자회사가 있는 기업의 노동자들과 1년 이상 해외 근무를 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공무원, 군인, 경찰,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간 부문의 사회보장 제도 유형은 혜택 당사자도 납입금을 분담하는 의무 제도이다. 물론 자발적 가입도 가능하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10인 이상의 노동자를 둔 고용주에게는 의무 제도이다. 민간 부문의 사회보장 제도의 혜택 유형은 현금 혜택으로 노령 연금, 취업 불능 수당, 유가족 수당, 질병 수당, 출산 수당, 의료 서비스 및 산재 수당이 있다. 해당 사회보장제도의 담당 기관으로는 노동사회복지부의 감독을 받는 자치 단체인사회보험기관(SSO)이 집행하고 있으며 고용주와 노동자의 분담금으로 운영된다.(고용주는 노동자 임금의 4.5% 노동자는 5%를 분담금으로 납부하며 이 때 최대 임금은1.500.000 kip으로 계산한다) 현재 민간제도의 사회보장기금에 정부의 현금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해당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은 민간 부문의 사회보장을 법으로 의무화했음에도 이행이 쉽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은행, 통신사 등의 여러 대기업들이 자체 제도가 있음을 이유로 SSO에 가입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혜택 유형	수급자 수		
	2008	2009	2010
의료서비스	76,183	81,790	107,737
질병 수당	1,099	541	1,026
출산 수당	2,964	1,384	3,316
장례 지원금	126	135	131
산재/직업병 수당	348	42	333
퇴직연금	1,700	289	4,196
취업 불능 수당	52	10	140
유가족 수당	78	53	386

◎ 민간보험의 혜택 유형과 수급자 수

혜택 유형	급여 지급액		
	2008	2009	2010
의료서비스	5,811,077,763	7,170,753,059	8,927,418,784
질병 수당	484,126,249	473,416,088	494,321,846
출산 수당	2,244,017,030	2,610,342,206	2,818,797,192
장례 지원금	466,155,889	464,290,082	503,846,959
산재/직업병 수당	162,359,488	143,731,978	213,875,140
퇴직연금	389,998,083	791,065,161	1,263,760,767
취업 불능 수당	15,434,245	49,320,998	75,962,061
유가족 수당	14,489,094	59,954,270	106,661,261

◎ 민간보험의 혜택별 지급액

6) 비엔티안 지역 내 마을 현황 조사

가. 조사방법: 현지 마을 직접 관찰/마을 이장 인터뷰

나. 조사 내용 :

● 마을 이장 인터뷰 : (마을 인구/위치 및 주요 시설/직업) 비엔티안 시청 직원 1명과 마

을 이장 1명과의 조사 결과 인구수는 현재 1,905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96명 정도가 여성이었다. (가구 수는 370가구이며 가옥수는 450가구이다) 현재 마을은 비엔티안과는 2-3시간 정도(교통수단 차로 이동시)걸리지만 마을 주변에 형성된 소규모의 시장과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양 혹은 기초 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이 크지 않을 것으로 여겨졌다. 또한 마을의 주요 시설로는 초등학교가 1개(9개의 교실을 가지고 있음)가 있으며, 물은 주로 전기 모터 펌프를 사용한 우물을 통해 얻고 있다.(거의 90%의 가구가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을 이장의 의견으로는 물에 대한 접근성은 좋지 않은나 해당 물이 깨끗하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주로 원하는 부분은 물 공급 시스템이라고 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보건과 관련한 주요 시설은 9개의 구 마다 1개의 공공 보건소가 있으며 위의 문헌조사 결과와 유사하게 이장의 의견으로도 보건소의 접근성이 좋지 않아 이용을 자주 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가옥형태는 콘크리트 집이 9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화장실은 집집마다 구비되어있다) 마을주민들이 주로 종사하고 있는 직업은 주로 농부로 하루 당 임금은 직업별에 따라 달라져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 결과 마을의 전체적인 시설은 양호한 상황이며, 마을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수요는 식수로 여겨진다.

- (타 단체/정부의 지원 여부) 미국에서 INGO(Room to read)가 지원한 적이 있다. 지원 내역으로는 학교 내 1칸의 도서관이다. 현재 도서관은 개방하지 않은 상황이며 올해 시작하다보니 아직 성과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정부 자체의 지원은 부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마을 내 보건) 조사 결과, 현재 마을 사람들이 주로 앓고 있는 질병과 관련해서는 라오스 내에 유행하는 뎅기를 주로 앓고 있으며 치료시에는 마을과 조금 거리가 있는 보건소(위의 언급한 9개의 구 당 1개의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비엔티안에서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만약에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을 때는 주로 간단한 치료만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예방주사 등의 접종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정부가 현재 아동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학교에 가지 않는 아동들을 대상으로는 마을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였을 때 예방과 같은 부분은 마을 내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그러나 영양과 위생교육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위생교육은 이따금씩 학교에서 진행은 하지만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영양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지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7) 환아 부모 인터뷰

가. 조사방법: 쉼터 직접 관찰/쉼터 이용자(환아 부모) 인터뷰(초점집단 인터뷰)

나. 조사 내용 :

- 쉼터 이용자 인터뷰(일시: 6.5일자 16:00-17:00) : (병원 내 환경/생활) 실제 국립아동병원 내 난치병 환아 가족(환아 부모 3명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과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지방에서 치료 온 경우 어쩔 수 없이 병원에서 머물며 국립아동병원 내에서 입원할 경우는 입원실뿐만 아니라 보호자를 위한 간이침대도 없는 경우가 다수라 대부분 병원 근처의 숙박시설에서 머물러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점들로 보아 앞서 문헌조사에서 언급하였듯이 라오스 내 병원의 병상 이용률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병원 복도에 개인 매트를 두고 수면을 취하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 (병원 환경-병원 내 생활 : 영양, 위생) 또한 병원에 머무는 다수의 환아 가족의 영양과 관련해서는 요리할 장소가 없다보니 식사는 무조건 외식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러다보니 식비에 지출되는 금액 또한 커 부담이 큰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환아 부모들 사이에 다수를 차지하였다. 위생과 관련된 세탁의 경우도 세탁실이 따로 있지 않아 주로 화장실에서 세탁을 하고 있으나 환아 가족들이 보기에도 화장실이 더러워 위생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병원 응급실의 경우만 환자에게 환자복을 제공하고 세탁해준다는 내용도 있었다.)
- (병원 환경-병원 내 환아 생활 : 교육) 병원생활 중 교육과 관련된 환아 부모 대상 인터뷰 결과 환아의 진료 혹은 진단 이후에 간호사나 의사에게 따로 위생교육 등을 받지 못하고 있고 위생에 대해 메뉴얼화된 책보다는 의사로부터 간단한 브로슈어만 지급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위생교육과 더불어 학령기를 거치고 있는 환아에게 중요한 기초교육과 관련해서 환아는 치료 때문에 학교를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다 보니 대다수가 중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몇몇 환아 부모들은 자녀와 마찬가지로 읽고 쓰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해당 아동들에게 부모가 직접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다소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래서 환아 부모들의 난치병 아동을 위한 라오 알파벳 교육이나 혹은 치료 중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부모를 위한 교육과 같은 부분이 필요하다는 수요가 있었다.
- (병원 환경-병원 내 환아 생활 : 소득) 쉼터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부모님들은 소득에

대한 문제를 호소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이와 함께 치료비로 인한 소득의 상실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하게 부모님 중 한 명은 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육아에 몰두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 (병원 환경-쉼터) 마지막으로 병원 내 입원 생활 외의 쉼터와 관련하여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병원에서의 생활이 어렵거나 혹은 병원에서 커버하지 못하고 있는 환아 부모 혹은 가족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병원과 재단에서 운영하는 쉼터가 있으나 병원 쉼터는 많은 가족들이 오기 때문에 쉼터 자체가 너무 붐비는 상황이고 재단에서 운영하는 쉼터는 현재 규모가 2-3명의 환아 가족을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절대적으로 쉼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그러다보니, 병원, 쉼터 모두 이용하는 환자가 많아 모두를 수용하지 못할 때는 인근 숙박업소를 이용해야 하다 보니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난치병 환아 혹은 고위험(혹은 만성적인 치료를 요구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환아를 보조하는 환아 부모 혹은 가족에게는 숙박비에 대한 부분과 외식비용에 대한 부분이라는 이중부담이 생긴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병원 쉼터의 경우는 병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머무는 일자는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불편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8) 정부부처 회의

가. 조사방법: 정부 부처 주요 관계자 인터뷰

나. 조사 내용 :

- 비엔티안 시청 회의(일시: 5.29일자 14:00-16:00) : 비엔티안 시청 회의는 비엔티안 시청 관계자(외교부서장 Mr Duagka, 전문관 Mr Chansouk) 2명과 진행하였다. (비엔티안 시청 현 관심 분야) 조사 결과, 비엔티안 시청 직원의 의견은 현재 재단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은 있으나 상통구, 사이타닉 구에 속한 마을들을 대상으로 식수 사업을 진행하면 어떨지에 대한 의견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직업기술과 관련해서 마약과 직업기술에 있어 많은 의견을 보였다는 부분을 고려할 때, 현재 비엔티안 시청은 식수 사업과 직업기술(마약재활자 대상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 (직업 기술 훈련) 초기 조사하고자하였던 사회복지센터 내 하위 사업인 직업기술훈련과 관련한 의견을 요청하였을 때, 비엔티안 시청의 의견으로는 대나무수공예 기술 혹은 마약사용자의 갱생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직업기술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

는 것에 대한 부분을 요청하였다. (요청과 함께 마약 치료 센터를 방문하는 것을 추천하기도 함)

- (난치병 지원 쉼터) 이와 함께, 비엔티안 시청의 의견으로는 현재 재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난치병 쉼터의 규모를 크게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전시키면 어떤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기도 하였다.
- 교육체육부 회의 (일시: 5.31일자 10:00-11:00) : 교육체육부 회의는 교육체육부 관계자(해외부문 부장 Mis Chantavone, 해외부문 부서장 Mr Houmphanhkeo-ounkham, 해외부문 사무직 Mis Latsame)과 진행하였다. (사회복지지원센터 관련) 기존에 재단이 진행하려 했던 사회복지지원센터 관련하여 사업이 너무 포괄적인 부분이 있어 염려가 있다는 제언을 받았다. 왜냐하면 교육체육부가 생각하기에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려면 해당 사업과 관련된 모든 정부 부처와의 상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었다.
- (교육체육부 현 관심 분야) 현 교육체육부 관계자들은 인적자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도서관 혹은 기술교육에 관심이 많다는 의견을 받았다. 또한 이와 함께 산지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나 혹은 초등 수준의 교육을 끝내지 못하고 자퇴하는 학생들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다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하였다. 이러한 점으로 고려하였을 때, 현재 교육체육부는 보편적인 교육의 커버리지에서 벗어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보건과 관련한 교육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였는데, 그 이유는 관계자의 말로는 위생에 대한 부분이 충족되면 학교에서의 성취도도 증가할 것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래서 재단에서 다루려고 하는 활동인 영양, 우생, 손씻기 등을 진행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주었다.
- (비엔티안 내 센터 건립 부지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과 NGO자체에 대한 재원은 다른 부분이 많으므로 예산과 같은 부분이 논의 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받을 수 있었다.
- 국가건설종무국 회의(일시 : 6.2일자 10:00-11:30) : 국가건설종무국 회의는 국가건설 종무국 관계자 총 3명(종교부문 부문장 Mr Kangong lidseesounmboon, 국제조직부문 부장 Mr Davnh sounaky, 외교부문 사무직 Mr Chantala)과 진행하였다. (라오스 주민 수요) 라오스 주민들의 수요와 관련해서 국가건설종무국과 회의를 거친 결과 국가건설종무국이 의견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재단의 보건 분야 프로그램에 대해서 라오스 주민의 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제언이 있었다. 보건 분야 선정의 이유는 현재 라

오스 주민들에 대한 수요는 너무 광범위한 측면이 있으며 만약에 진행한다면 재단이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보건 사업에 강점이 있기 때문이었다. 만약에 보건 분야가 아니라면, 비엔티안 시내의 걸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쉼터와 함께 걸인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제언을 받았다. (쉼터 임대 부지 관련) 국가건설종무국의 의견으로는 만약에 부지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부지에 대해서 같이 조사는 진행해줄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토지를 관리하는 부서에 보건부와 해당 사업에 대해서 체결한 MOU를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는 의견이 있었다. 개인 토지의 경우는 절차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을 위해서 정부의 토지를 이용하고 이후 10-20년 뒤 정부에 다시 반납하는 절차를 거쳐 부지를 구하는 방향이 좋다고 제언하였다.

- 보건부 회의(일시: 6.5일자 10:00-11:00) : 보건부 회의는 보건부 관계자 총 3명(보건부 부장 Mr Soulivanh Pholsena, Ms Niphalay Thongkham, Ms Siqiphonexah pheisouvanh)과 진행하였다. (부처 분야 관심사항) 현재 보건부는 국가의 전반적인 정책이 건강에 대한 홍보(건강 비디오, 오디오, 선생님 교육 등)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있는 상황이다.
- (재단 사업 관련 제언) 보건부의 제언으로는 사업에 있어서 건강이나 영양제에 대한 브로슈어나 책자 제작 및 배포가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현재 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병원 내 도서관 사업과 같은 부분을 확대하여 장기적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이라 여겨진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 재단이 타 병원에 확장해도 되는지에 대해 문의했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세부적인 부분을 해당 병원장과 논의하고 MOH논의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받았음)
- (비엔티안 내 헬스케어 캠페인) 라오스 내 건강, 영양과 관련한 홍보에 있어서 현재 라오스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 사업에 대해 문의하였을 때, 보건부의 답변으로는 뎅기에 대한 부분의 교육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 (병원 내 쉼터 확장 관련) 사회복지센터 건립 외에 쉼터 확장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 제언을 얻었을 때, 교육부의 제언으로는 현재 병원 자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쉼터의 규모를 늘리는 부분이 긍정적이라는 답변을 얻었다.
- (쉼터/사회복지센터 부지 관련) 부지와 관련해서는 비엔티안시의 경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는 답변을 받았다. 라오스국립아동병원보다는 보건부로부터 50km 떨어진 새로운 의대나 병원 근처에서 부지를 얻을 확률이 높을 것이라 여겨진다는 논의가 있었으며, 이후 추진시 지방정부와의 논의도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 외교부 회의(일시: 6.6일자 10:00-11:00) : (쉼터 규모 확장시, 사무실 등록 절차 유무) 본 재단이 쉼터 규모 확장시 사무실 등록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한 문의를 함에 따라 단순히 Project office 개념으로 프로젝트를 위한 사무실을 열려고 하고 있다면, 관련된 서류를 부처에 제출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Representative office를 열고자 한다면 최소한 5년의 경험과 함께 예산 500,000$를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언을 주었다.
- (쉼터 부지 관련) 쉼터를 건립하려 하는 데 부지와 관련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에 있어서는 외교부의 답변으로는 만약에 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프로젝트와 관계된 부처가 부지에 관련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란 답변을 받았으며, 현재 비엔티안 시내에 부지가 많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

9) 유사/관련 기관 방문

가. 조사방법: 유사/관련 기관 방문 및 인터뷰

나. 조사 내용 :

- 직업기술센터(일시 : 5.29일자 10:00-12:00) : 초기에 사회복지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센터 내 하위 사업인 직업기술과 관련한 라오스 내 현황 및 직업기술 커리큘럼을 위해 방문 및 인터뷰 진행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직업기술센터 관계자는 Ms Chansaveng Boutsavath였다.
- (직업기술센터 현황) 조사 결과, 현재 직업기술발전센터는 직업훈련과 함께 지방 거주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직업기술발전센터의 강좌로는 뷰티(네일아트), 미용, 요리, IT, 의류, 회계 등의 6개의 강좌(기본 3개월, 미용 강좌 6개월, 회계 강좌 2년 진행)를 지원하고 있다. 이용자는 강좌마다 다양한 이용자층이 있으며 주로 요리강좌는 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고, 열악한 지역의 아동들은 학교 대신에 직업학교의 개념으로 다니고 있다. 또한 회계 강좌는 주로 대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총 이용자 수는 연간 1,229명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 (직업기술센터 운영 관련) 현재 직업기술센터는 정부 소속의 기관이며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로 보조금으로는 선생님 임금으로 사용되며, 수익금은 학교 운영비나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인턴 선생님의 임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센터 이용료는

강좌마다 다르지만 초급단계 기준으로 800,000kip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료를 낼 수 없는 아동의 경우 지방정부부처로부터 증명서를 받으면 수업료 없이 수업을 받을 수 있다.

- (민간 운영 직업기술센터에 대한 제언 관련) 민간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센터의 경우는 인력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정부 부처의 경우는 정부 소속의 선생님이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나 민간의 경우는 인력에 대한 통제가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국가 자체에서도 몇몇 NGO단체와 태국의 직업훈련센터가 실패하는 사례가 있어 약간의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 현재 라오스 내에서 국가와 직접적으로 협력하지 않는 이상 민간단체 자체만의 직업기술 훈련센터의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 국립아동병원(일시 5.30일자 14:30-15:00) : (국립아동병원 관심 사업) 국립아동병원과의 회의 결과, 국립아동병원은 현재 지방쪽에 영양이 부족한 아동들에게 영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파일럿 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상황이며 이와 함께 부모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도구에 대해 발전시킬 사업을 고민하고 있다. 국립아동병원의 의견으로는 현재 약에 대한 처방 혹은 진단시 개개인의 의사와 간호사마다 처방하는 방향이 다르고, 부모의 질병에 대한 인지도 낮기 때문에 위의 사업이필요할 것이라 여겨진다. 또한 관련해서 지중해성빈혈을 앓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을 주었다.
- (쉼터 증축 관련) 국립아동병원의 의견으로는 쉼터의 규모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환아가족의 수요가 많을 것이라 생각되며, 만약에 규모를 늘리면서 위치를 옮겨야 될 상황에는 셔틀버스도 같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는 답변을 받았다.
- (쉼터 부지 관련) 쉼터 증축를 위한 부지와 관련하여 현재 라오스 국립아동병원내에 20*30m정도 남는 공간이 있으나 이 부분은 국립아동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답변을 줄 수 없어 보건부와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 비엔티안 시청 치료&직업훈련센터(일시 : 5.31일자 14:00-15:00) : 초기에 사회복지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센터 내 하위 사업인 직업기술과 관련하여 방문 및 인터뷰 진행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이들은 직업기술센터 소속 4명의 관계자 (이사장 Mr Ounsuen souriyathai, 관리부문 부장 Dr. Phatakhone, 치료부문 부장 Dr Oukeo vorlavong, 기술훈련부문 부장 Mr Bounyayong seesuvong)와 비엔티안 시청 직원 1명(전문관 Mr Chansouk)이었다.
- (치료&직업훈련센터 운영 현황) 1996년도에 시작한 치료&직업훈련센터이며, 비엔티안센터에서 6km정도 떨어져있다. 비엔티안 시청의 산하 기관으로, 현재 직원은 50명 정도가 있는 상황이다. 4개의 부서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부서는 치료(약), 행정, 기술 교육, 보호 등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약물(암페타민, 헤로인, 모르핀 등)뿐만 아니라 알코올 중독자도 같이 치료하고 있으며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의 500명 정도의 마약중독자들이 치료를 받았다. 이 중 여자는 49명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치료를 종료한 사람은 149명 정도가 있으며, 현재까지의 누적 환자수는 89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 된다. (현재 센터에 오면 첫 번째 코스로 42일 정도 머물며, 2번째 코스의 경우는 3개월, 기술 교육은 6개월 정도 진행하고 있음)
- (직업 기술 관련) 해당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업기술이 현재 본 재단이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과 유사할 것으로 여겨져 조사한 결과, 이전에 남성들을 위해 차, 전기, 언어와 같은 기술을 가르치기도 하였으나 현재 예산 문제로 인해 몇몇 수업은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도 의류만드는 기술, 요리 강좌 등을 진행하였으나 유사하게 예산 문제(현재 예산은 년 1,000,000usd 정도 지급받고 있음)로 인해 진행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지구촌공생회(일시: 6.4일자 14:00-16:00) : 현재 지구촌공생회는 라오스 내에서 사회복지센터는 아니지만 유사한 성격의 청소년센터를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본 재단에게 유용한 정보가 많을 것으로 여겨져 지구촌공생회 센터장인 태유스님과 회의를 진행하였다.
- (센터 건립 예산/부지) 지구촌공생회 센터 건립 예산의 경우 경기도청, 비엔티안 시청과 같이 진행한 프로젝트로 건축비는 대략 6만$이었으며 총 92700$ 규모의 예산으로 진행되었으며 부지 또한 교육청에서 안 쓰는 부지를 지원해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단에 대한 기관의 조언으로는 교육체육부의 홈판이 현재 방과후운영하고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홈판과 협업하여 진행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만약에 부지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지원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정부에게 30-50년 단위의 임대를 받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구분	내용
센터 이용자 수	월 평균 1,768명정도 되고 있음 (연 인원 2만명)
정기 프로그램	-영어, 컴퓨터, 독서교실을 운영하고 있음 -독서의 경우 초기 흥미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초기 5년은 신나는 도서관을 주제로 인식 개선에 맞추어 진행하였음
비정기 프로그램	-전통춤, 과학, 기타, 사진, 탁구, 한국어 프로그램 등이 있음 -특별행사로는 삐마이 축제, 어린이날 행사, 송년회, 운동회를 진행하고 있음
도서관 운영 관련	- 8,085권 정도 보유하고 있음. (만약에 재단에서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 있다면 태국어 책을 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언을 제공함) - 지역도서관 활성화 사업(외부 사업-삼성꿈장학재단)을 지원하고 있음. 도서관 리모델링을 제공하는 것과 함께 사서 선생님 교육도 같이 진행하고 있음
교육지원 사업	- 교육지원사업으로는 던눈공생유치원, 던눈초등학교, 단쌍초등학교, 쌈본화계초등학교, 위앙께오 초등학교, 나응옴마이초등학교. 나 초등학교, 논킬렉 불국초등학교, 던룸지환초등학교, 나파쑥초등학교, 켕카이 금화 초등학교를 지원하고 있음. (건축 혹은 리모델링 등) (지구촌공생회의 의견으로는 지역도서관을 진행할 계획이라면, 지역주민의 방문이 중요한 부분이므로, 교사/주민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지적함)

◎ 센터 운영 상황

- 일본 재단 아시아 센터(일시: 6.5일자 14:00-15:00) : 초기에 사회복지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센터 내 하위 사업인 '문화지원' 관련하여 교육체육부가 문화사업에 대해 아시아 센터가 라오스 내에서 가장 잘 운영하고 있다는 방문 추천이 있어 조사를 진행하였다. 직접 센터를 방문하여 조사하였으며 회의는 일본 재단 아시아 센터 소속의 AKIRA와 진행하였다.
- (아시아 센터 운영/활동) 현재 일본 재단 아시아센터는 문화적인 사업과 함께 일본어 수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다. 기존의 아시아센터는 다른 나라에서는 센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라오스에서는 오피스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활동은 주로 일본 영화를 라오스 영화관에 상영시키고 소개 시키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로 일본의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댄스 축제, 스포츠 축제 등)를 같이 진행하고 있다. (아시아센터는 본인 자국의 문화를 소개한다는 점에 있어서 초기 재단이 운영하고자 했던 라오스 자체 문화에 대한 지원과는 조금 방향이 다르다고 여겨짐)
- (아시아 센터 일본어 교육 관련) 아시아 센터 사업 중 가장 흥미로웠던 사업은 일본어 교육 프로젝트인데, 라오스 3개의 고등학교에 라오스인을 대상으로 한 일본어 교

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그와 병행하여 교사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일본인 자원봉사자를 파견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이후에 언어 교육과 관련해서 교사를 교육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 있었다.

- 굿네이버스 방문 회의 (일시: 6.6일자 14:00-16:00) : 라오스 내에서 사회복지센터는 아니지만 같은 한국 단체로써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본 재단에게 유용한 정보가 많을 것으로 여겨져 굿네이버스 박범근 지부장, 조순영 과장과 회의 진행하였다.

구분	내용
굿네이버스 사업장	라오스 내에 2개의 사업장 운영 중에 있음 (비엔티안 내 문 구역, 씨엥쿠앙 주에 무앙목 구)
MOU 관련	굿네이버스는 현재 교육부와 MOU를 맺고 있으나, 현재 USaid와 컨소시엄(인신매매, 여성 폭력 등)을 진행하고 있음에 따라 타 부처인 보건부와 MOU를 진행하고자 하는 상황임
굿네이버스 라오스 사업 특징	-비결연으로 진행하다보니, 특성화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음. (학교 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교실 개선, 운동장 및 놀이터 조성 사업, 교사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음) -이와 함께, 학교 내 IT를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 중에 있음

◎ 굿네이버스 사업 현황

- (부지 관련 제언) 부지의 경우는 현재 정부의 부지보다 개인이 가진 부지가 많으며 비엔티안 내에 땅 값이 비싼 편에 속하기 때문에 20-30년 정도 장기 임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 KCOC코디네이터 방문 회의 (일시: 6.6일자 16:00-17:00) : 본 kcoc코디네이터(이건재 코디네이터)의 경우는 2013년도 5월 말에 본 재단 소속으로 파견하여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는 점과 4년차의 라오스 경험을 가지고 있어, 본 재단의 사업의 특성을 이해한 사업 제언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여겨져 회의를 진행하였다. (사회복지센터) 사회복지센터의 하위사업에 대한 이건재 코디네이터의 제언으로는 프로그램에 있어서 라오스 주민들은 현재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므로 라오스 주민들의 소득·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조금 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센터를 운영할 때, 라오스 주민들은 이용료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므로 이용료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현재 라오스에서 사업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로운 상황이고, 새로운 MOU를 맺는 것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 라오스 내에서 사업을 다각화해서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견을 종합하였을 때 현재 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처인 MOH와의 사업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처들과 사업을 시작한다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재단이 지속해온 보건 분야의 사업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것을 추천하였다.

- (센터 부지 관련) 센터 부지 관련하여서는 개인 부지를 장기 임대하고 건축한 뒤, 다시 반납하는 방식으로 초기 교민들이 진행하였으나 아예 정부가 배제되면 위험요인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정부와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추천하였다.

10) 설문 조사

가. 조사방법: 설문지 조사

나. 조사 내용 : 비엔티안 국립아동병원 의료시설 설문 조사

비엔티안 의료시설 설문조사 결과

- 시설 일반 정보

전체면적(m^2)	-미응답-	침대개수	70
층수	2층		
위치	비엔티안 찬타보우리 Phonsavang 지역		
의학부문	총 (18과목) *특별 진료 : 미응답		
부대시설	식당 (01) 편의점 (01) 휴게실(x) 휴식/숙박 시설 (01) 환자들을 위한 급양시설(0) 놀이방(01) 목욕탕 (02) 세탁실 (01) 다른 시설 ( )		

- 의료진 정보

의사 수	09	간호사 수	42
행정직원 수	25	기술직원 수	27
그룹 조직	4개 그룹		

- 시설이용자 정보

외래환자 수	150-300 (매일) 2,000-4,000 (매달)		
입원환자 수	22-70 (매일) 1,000-2,500 (매달)		
[환자들 이용 비율](%)			
비엔티안 거주자들	98 percent	다른지역 거주자들	
5세 미만	90 percent	5~18세	
60세 이상			

- 병원의 역량 강화& 환경 개선 계획

1) 시설을 확대할 계획이 있나요? (면적확대, 침대 수 증가 등.) : 현재 계획 없음
2) 병원의 부대시설을 증가할 계획이 있나요? (휴게실, 놀이방, 식당 등) : 현재 계획 없음
3) 의료 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나요? : 현재 계획 없음
4) 입원 환자와 그 가족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있나요? 만약 없다면, 이를 만들 계획이 있나요? 현재 계획 없음

비엔티안 의료시설 설문조사 결과 분석

현재 환자 이용비율으로 비엔티안 거주자들이 98%라는 점을 보았을 때, 문헌조사결과와 유사하게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어있다는 결과(문헌조사 결과, 보건시설로부터 3km 이내 반경에 거주하는 라오스 국민은 26%에 불과하며 2/3 이상은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거나 전문한 것으로 추청된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 지역별로 헬스케어 접근성에의 격차가 존재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위의 설문지를 보면 병상이용률도 높은 수치를 달하고 있는데 매일이 20-70명이며, 월로 보았을 때, 1,000-2,500명이라는 수치를 감안하면 국립아동병원 병원 또한 수용가능한 시설 규모를 넘어서는 병상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며 이로 인해 병원 복도에 개인 매트를 두고 수면을 취하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병상이용률은 사용가능한 병상의 이용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100%를 초과할 경우 입원환자대기실이나 병원복도에서 개인매트를 두고 수면을 취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임)

11) 설문 조사

가. 조사방법: 설문지 조사(위생/영양)

나. 조사 내용 : 위생, 영양 기초선 조사

조사 설문지

환아 가족 대상 설문지

(일자 : 2017.6.23.일자)

1. 조사 설문지

▪ **Ⅰ. 설문참여자 기본정보**

참여자이름		나이	
자녀(환아)이름		환아 나이	
환아병명		거주지	

▪ **Ⅱ. 욕구 조사**

1. 자녀가 병원에 장기 입원 중입니까? (장기-10일 이상)
   1-1. 입원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1-2. 발병 이후 총 치료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1-3. 무슨 질병으로 입원을 하였습니까?
   1-4. 자녀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2. 보호자가 하루종일 자녀와 함께 병원에서 지냅니까?
   2-1. 병원 치료비, 입원비는 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2-2. 병원 치료비는 수입 내에서 충당이 가능합니까?
   2-3. 가정의 월소득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2-4. 가구 구성원은 몇 명입니까?
   2-5. 의료보험에 가입하셨습니까? (혹은 지원 받는 의료비가 있습니까?)
   2-6.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있는 경우, 가족들은 누가 돌봅니까?
3. 병원에 들어올 때 환아 보호 방식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받았다면,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의사 ②간호사 ③행정직원 ④안내책자 ⑤기타
   3-1. 환아에게 중요한 영양소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3-2. 환아에게 손씻는 습관을 가르칩니까?
   3-2-1. 환아는 하루에 손을 몇 번 씻습니까?
   3-2-2. 환아는 언제 손을 씻습니까?
   ①외출하고 나서 ②밥먹기 전에 ③대/소변을 보고 나서 ④기타 ( )
   3-3. 환아에게 양치질하는 습관을 가르칩니까?
   3-3-1. 환아는 하루에 몇 번 양치질을 합니까?
   3-3-2. 환아는 언제 양치질을 합니까?

4. 환아는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까?
   4-1. 학교를 다니지 못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5. 병원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느낍니까?
   5-1. 식사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떤 음식을 주로 먹습니까?
   5-2. 보호자는 어디서 자고, 빨래 등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5-3. 병원에서 지내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6. 최근 3일간 먹은 음식 목록 **언더바 표시는 예시

오늘			1일 전			2일 전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생선	생선	돼지고기	달걀	국수	생선	생선	달걀	생선
오이	생선	죽순	죽순	죽순	달걀	생선	국수	달걀
파파야	생선	죽순	국수	생선	돼지고기	국수	달걀	소고기

▪ **Ⅲ. 지식 평가**

1. 영양
   1-1. 영유아기에 철분 섭취가 부족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①신체적/정신적 발달 속도 느림 ②빈혈 ③모름
   1-2.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에 대해 알고 있는가?
   ①안다 ②모른다
   1-2-1. 안다면, 각각의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의 예시를 한가지씩 들어주세요.
   -단백질 :
   -탄수화물 :
   -지방 :
   1-3. 철분 결핍, 요오드 결핍, 비타민A 결핍에 대해 알고 있는가?
   ①어떤 증상인지 잘 알고 있음 ②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름 ③들어본 적 없음

2. 건강 및 질병
   2-1. 설사
   2-1-1. 설사의 증상을 알고 있는가?
   2-1-2. 설사의 원인을 알고 있는가?
   2-1-3. 설사의 치료방법을 알고 있는가?
   2-2. 말라리아 및 뎅기
   2-2-1. 말라리아, 뎅기 모기에 물렸을 때의 증상을 알고 있는가?
   2-2-2. 집에 모기장을 설치하는가?

기초선 설문 조사 결과

- 수혜자 층 설문조사 결과 위생관련 설문지 평균은 13.05였으며 환산점수로는 65.25점대를 기록하였다. (70점 이상 기준으로 하였을 때 3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영양 관련 설문지 평균은 7.6이었으며 환산점수로는 38점대를 기록하였다. (70점 이상 기준으로 하였을 때 1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위생/영양 인식도 BASELINE												
		배점	1	2	3	4	5	6	7	8	9	10
위생	3-2. 환아에게 손씻는 습관을 가르칩니까?	2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3-2-1. 환아는 하루에 손을 몇 번 씻습니까?	3	3~4	3~4	3~4	3~4	3~4	5~6	3~4	3~4	3~4	3~4
	3-2-2. 환아는 언제 손을 씻습니까?	5	2,3	2,3	2,3	2,3	2,3	2,3	2,3	1,2,3	1,2,3	2,3
	3-3. 환아에게 양치질하는 습관을 가르칩니까?	2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3-3-1. 환아는 하루에 몇 번 양치질을 합니까?	3	2	2	3~4	2	4	3~4	3	2	2	2
	3-3-2. 환아는 언제 양치질을 합니까?	5	아침, 자기전	아침, 자기전	아침,자기전, 식사후	아침, 잠자기전	아침,자기전, 식후	아침,자기전, 식후	아침, 잠자기전	아침, 잠자기전	아침, 잠자기전	아침, 잠자기전
		20	12	12	16	12	16	18	13	14	15	12
영양	3-1. 환아에게 중요한 영양소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2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6. 최근 3일간 먹은 음식 목록	4	(골고루)	(골고루)	(골고루)	(골고루)	(골고루)	(죽)	(죽)	(골고루)	(골고루)	(골고루)
	1-1. 영유아기에 철분 섭취가 부족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3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빈혈	빈혈	모른다	빈혈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1-2.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에 대해 알고 있는가?	3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1-2-1. 안다면, 각각의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의 예시를 한가지씩 들어주세요.	5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1-3. 철분 결핍, 요오드 결핍, 비타민A 결핍에 대해 알고 있는가?	3	들어본적 없음	들어본적 없음	들어본적 없음	들어본적 없음	들어본적 있으나 잘모름	들어본적 없음	들어본적 없음	들어본적 없음	들어본적 없음	들어본적 없음
		20	6	6	6	9	10	4	7	6	6	6

위생/영양 인식도 BASELINE													
		배점	11	12	13	14	15	16	17	18(19)	19(20)	20(21)	평균
위생	3-2. 환아에게 손씻는 습관을 가르칩니까?	2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3-2-1. 환아는 하루에 손을 몇 번 씻습니까?	3	4~5	4~5	5~6	4~5	4~5	5~6	8	4	4~5	5~6	
	3-2-2. 환아는 언제 손을 씻습니까?	5	2,3	2,3	2,3	2,3	2,3	2,3	2,3	1,2	2,3	2,3	
	3-3. 환아에게 양치질하는 습관을 가르칩니까?	2	아니오	아니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3-3-1. 환아는 하루에 몇 번 양치질을 합니까?	3	0	0	2	2	2	2	2~3	3	2	4	
	3-3-2. 환아는 언제 양치질을 합니까?	5	아침, 잠자기전	아침, 잠자기전	아침, 잠자기전	아침, 잠자기전	아침, 잠자기전	아침, 잠자기전	식사후	식사후	아침, 잠자기전	아침, 잠자기전	
		20	9	9	13	13	13	13	12	12	13	14	13.05
영양	3-1. 환아에게 중요한 영양소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2	네	네	네	네	네	네	아니오	네	네	네	
	6. 최근 3일간 먹은 음식 목록	4	(죽)	(죽,우유)	(죽,우유)	(골고루)	(골고루)	(죽,우유)	(골고루)	(골고루)	(골고루)	(비교적)	
	1-1. 영유아기에 철분 섭취가 부족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3	빈혈	모른다	빈혈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빈혈	빈혈	빈혈	빈혈	
	1-2.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에 대해 알고 있는가?	3	네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네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1-2-1. 안다면, 각각의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의 예시를 한가지씩 들어주세요.	5	단백질O, 탄수화물X, 지방O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단백질O, 탄수화물X, 지방X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1-3. 철분 결핍, 요오드 결핍, 비타민A 결핍에 대해 알고 있는가?	3	들어본적 있으나 정확히모름	들어본적 없음	들어본적 없음	들어본적 없음	들어본적 없음	들어본적 없음	들었으나 정확하게 모름	들었으나 정확히 모름	들었으나 정확히 모름	들어본적 없음	
		20	15	5	5	6	6	5	16	10	10	8	7.6

04 변화의 영역

가. 주목 분야

- 본 재단의 경우 기존 인큐베이팅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 조사에 있어 사회복지분야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으나, 다양한 정부 부처의 회의 및 문헌조사 결과 사회복지센터 건립을 기획하게 된다면 라오스가 현재 사회복지 부분의 전문가, 예산 등이 없는 상황이므로 사업 철수시 라오스 국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나아가 사회복지센터 건립 초기 단계에 있어서 MOU를 맺어야 할 때도 다양한 하위 사업을 다루다 보니 각 하위사업과 관련된 모든 정부부처와 MOU를 진행하는 것조차도 사업 준비에 있어서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여겨진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위험요소가 있었다. 이러한 점과 함께 몇몇 정부 부처는 수혜자층과 분야에 있어서 집중 그리고 재단이 지속적으로 해왔던 보건사업에 대한 긍정적 의견과 함께 보건사업 확장에 대한 부분을 제언하였다.

*하단의 '현지의 수요 및 상황'에서 서술한 각 부처별 주요 의견 참조

- 그러므로 이러한 각 정부부처별 제언과 환아부모 인터뷰를 고려하여 기존에 재단에서 보건분야에 있어서도 재단이 지속적으로 해왔던 쉼터 사업의 규모 확장과 함께 환아 및 환아가족들의 치료 후 사후관리를 위한 프로그램(환아 및 환아 가족대상의 정서지원프로그램, 영양/위생 교육프로그램, 환아부모 대상의 직업기술 교육,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환아 대상의 기초 교육 프로그램)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나. 현지의 수요 및 상황

-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쉼터 증축) 현재 라오스의 경우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보건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보건시설 접근성 격차에 있어서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현재 라오스 내 보건시설 3km내 반경 거주하는 라오스 국민은 26%만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자연히 병상이용률(대부분이 60-80%상회하고 있는 상황이며 85%이상이면 고위험수치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또한 높은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쉼터 이용에 대한 욕구가 큰 상황이나 대형 병원 근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쉼터는 2곳 밖에 운영하고 있지 않아 주로 민간 숙박이나 혹은 병원 내에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이러한 부분에서 쉼터에 대한 증축이 필요로 될 것으로 여겨진다.
-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환아/환아부모 교육) 병원환경과 관련된 환아 부모 대상 인터뷰 결과 환아의 진료 혹은 진단 이후에 간호사나 의사에게 따로 위생·영양교육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매뉴얼화된 책은 없으며 간단한 브로슈어만 지급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치료 중인 아동에게 적합한 케어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필요로 되는 위생·영양에 있어 정보가 부족할 것으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위생·영양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 여겨진다.
-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환아/환아부모 교육) 또한 현지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환아 부모)의 자녀들(6-7살 아동) 대부분이 치료 때문에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으며 대다수가 중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몇몇 환아 부모들은 자녀와 마찬가지로 읽고 쓰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해당 아동들에게 부모가 직접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다소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래서 환아 부모들의 난치병 아동을 위한 라오 알파벳 교육이나 혹은 치료 중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부모를 위한 교육과 같은 부분이 필요하다는 수요가 있었다.

이해관계자	위치			위치 설정 이유	강점 및 약점	위치변화전략
	+	0	–			
병원 근방 식당			–	만약에 쉼터에서 영양프로그램 혹은 급식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면 식당 이용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음	강점으로는 급식프로그램을 직접 재단이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같이 협력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여겨짐. 그러나 약점으로는 병원 근방 식당의 소득이 떨어질 것으로 사료됨	급식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을 거쳐,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위기대상자 위주로 지원하여 근방식당의 생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할 예정
병원 근방 숙박업소			–	쉼터 내 수용인원이 많아진다면 병원 근방 숙박업소 이용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음	강점으로는 재단 내 쉼터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보다 많은 수요자가 있을 때 협력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여겨짐. 그러나 약점으로는 병원 근방 숙박업소의 소득이 떨어질 것으로 사료됨	재단 내 수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방 숙박업소와 논의하여 해당 숙박업소 이용환아 가족들에게 숙박 시설 이용료 지원 혹은 시설 이용료 할인에 대해서 진행할 예정
병원 쉼터		0		현재 병원 내 쉼터는 라오스 국립아동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수용인원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부분에서는 본 재단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병원 쉼터 측 자체에서는 이용자의 감소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강점으로는 재단 내 쉼터와 교집합이 있으므로 서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 여겨짐. (재단 내 쉼터 혹은 반대로 병원 내 쉼터가 유지 혹은 보수와 같은 유사시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짐) 약점으로는 병원 내 쉼터와 재단 내 쉼터 사이에서 수혜자들이 이중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짐	라오스 국립아동병원쉼터의 지속적인 교류 및 수혜자 현황 공유 예정
라오스 국립아동 병원 등 근처 병원		+		현재는 라오스 국립아동병원에 국한하여 진행할 예정이나 쉼터 증축이 진행되면 다른 병원도 해당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 병원들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것으로 여겨짐	장점으로는 타 병원의 이용자까지 프로그램으로부터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부분에서 프로그램의 영향력이 더욱 증대될 것이라 여겨짐. 단점으로는 각 병원간의 쉼터 이용에 있어서 경쟁이 있을 수 있음	각 병원과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쌓아 병원 간 경쟁을 최소화할 예정
병원 이용자		+		쉼터를 이용할 수 있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병원 이용자에게 긍정적인 요소일 것으로 여겨짐	장점으로는 프로그램 직접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잠재적 수혜자일 것으로 여겨짐. 단점으로는 모든 병원의 이용자의 질병이 다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짐	병원 이용자 질병 비율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조사할 것이 필요로 된다 여겨짐

◎ 이해관계자 상황

정부 부처 명	정부 부처 협조/의견
비엔티안 시청	– 현지 조사 미팅 당시, 비엔티안 시청 측에서 본 재단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난치병 지원 쉼터와 관련해서 더 규모를 키워서 지원하면 좋을 것이란 의견이 다수 있었음. – 진행에 있어서는 MOH를 통하지만, 이후 부지 선정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을 여지가 있을 것이라 예상됨
교육체육부	– 현지 조사 당시, 교육체육부는 초등 수준의 교육을 끝내지 못하고 자퇴하는 학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 이러한 부분에서 치료로 인해서 교육을 지속하지 못한 환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이라 여겨짐 – 또한 환아/환아가족에게 제공할 위생 교육 혹은 문해 교육 등에 있어서 제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짐
국가건설종무국	– 현지 조사 당시, 한국이 가진 보건 분야에 있어서의 강점과 재단의 사업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재단의 병원 내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음. – 이후 정부로부터 쉼터를 구하기 위한 부지 확보시, 부지를 구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 같이 조사해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었음.
보건부	– 현지 조사 당시, 건강이나 영양제에 대한 브소류어나 책자 제작 및 배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높았음 (이에 따른 교육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언급함) 그러므로 이후에 유사 사업 진행시 행정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짐 – 또한 이와 함께 쉼터 규모에를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 병원 자체에서 수용인원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였음 – 또한 부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비엔티안시의 라오스국립아동병원은 부지가 현재 부족하나 비엔티안 근방에 새로운 병원이 생기게 된다면 부지를 얻을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 정부와 같이 논의하여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짐
외교부	– 이후 사업 MOU체결 혹은 사무실 등록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부서라고 여겨짐;

◎ (정부 부처 협조)

예상 문제점	문제의 원인	대응책
쉼터 증축 혹은 이동에 따른 병원과의 접근성 저하	병원 근처에 쉼터 증축 부지 협소 혹은 부재 혹은 임대에 따른 쉼터 이동	차량 셔틀 제공 방안 모색
공동 생활로 인한 쉼터 내 위생 문제	몇몇 이용자들의 생활 방식	생활 규칙 교육 및 쉼터 입소 계약서 작성 예정

◎ (위험 요인)

다. 사업대상 분야(Target Area)의 지표 및 기초선

사업 대상 분야	지표	지표 정의	기초선
병원 환아 쉼터 중축 및 쉼터 제공	1.1. 쉼터 임대 일 수 (혹은 건축시 쉼터 증축률) 1.2. 쉼터 이용일 수	1.1. 쉼터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위한 쉼터의 총 계약 임대일 수 (혹은 건축시, 쉼터 증축 진행률) 1.2. 병원 환자 중 쉼터 이용하는 이의 쉼터 이용일 수	-
쉼터 내 환아 대상 기초 교육	2.1 환아 중 초등학교 졸업률 2.2 환아 중/고등 학교 진학률 2.3 환아 기초 문해 시험 점수	2.1 병원 장기간 입원 환자 중 (1년 이상) 초등학교 졸업자 수 2.2 병원 장기간 입원 환자 중 (1년 이상) 중/고등학교 진학자 수 2.3. 병원 장기간 입원 환자 기초 문해 시험 점수	-
환아 가족(부모) 대상 쉼터 내 성인 문해 교육	3.1 환아 가족 기초 문해 시험 점수	3.1 병원 환자 가족 대상 기초 문해 시험 점수	-
환아 및 환아 가족 대상 쉼터 내 위생 교육	4.1 병원 환자 및 가족 대상 위생/질병 인식도	4.1 병원 환자 및 가족 대상 위생/질병 인식 시험 점수 4.2 병원 환자 및 가족 대상 위생/질병 인식	-

라. 단체의 특성과의 연계

- (특징) 본 재단은 2012년 싸이롬 유치원 준공 및 운영을 시작으로 라오스에서 해외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13년 의료/보건 사업의 일환으로 라오스 무료 개안 수술을 시작하였음. 이를 기점으로 2014년도 라오스 무료 개안수술, 난치병 아동 수술 및 치료 지원 사업, 수술 의료진 파견, 난치병 아동을 위한 쉼터지원, 영유아 건강 지원 사업 등 의료/보건 사업을 확대하였음. 2015년도부터는 2014년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난치병 환아의 초기 치료 지원을 위한 환아 키트 제공 사업, 보건 및 정서 안정 프로그램, 장난감 도서관 운영, 붓다트리 도서관 및 이동도서관 운영 사업을 진행하였음. 이와 함께 지방 내의 보건 사업을 위해 깜무안주 영유아 건강 지원 사업 및 보자보건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였음. 2016년도에 있어서도 지난 사업들의 골자는 유지하면서 SK건설 지정기탁 사업의 일환으로 깜무안주 내에 영유아 영양제 지원사업을 진행하기도 하였음
- (장점) 기존에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라오스'라는 한 국가 내에서 기본 골자인 보건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보건 사업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대부분의 현지주민들이 불교를 종교로 삼는 국가인 라오스의 경우 불교재단인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국가 내에서 자연스럽게 융화되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재단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될 수 있음. 또한 마지막으로 기존의 사업 진행을 통해 쌓아온 라오스 내 인적 자원 및 네트워크와 물적 자원을 갖추고 이를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단이 타 단체에 비하여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짐
- (비교 우위) 타 기관에 비해 장기간 동안 라오스 내에서 현재 계획 중인 사업과 유사한 보건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해온 것과 동시에 보건 사업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은 타 단체에 비해 라오스 보건 분야에 있어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을 것이라 여겨짐.

05 자료 출처

- KOICA 라오스 사무소. KOICA 라오스 사무소 NGO길라잡이. 2013.11월
- 외교부 남아시아태평양국 동남아과.라오스개황. 2016.7월
- 라오스 사무소. 라오스 보건 분야 현황 보고 2015년 종료 보고서. 2015.7월
- 채재은,김철우. 라오스의 교육분야 개발협력 분야. 2014.4월
- 홍석표 외. 아시아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2011.12월
- KOTRA(Lao Law&Consultancy Group), 라오스 병원환경 보고서, 2013.1월
- KOBE university. Education and Earnings in Lao PDR: Regional and Gender Differences. July 2006
- ADB(Asisan Development Bank). Challengs and Opportunities for Social Protection in Lao people's Demoratic republic
- EFA 2015 review group and secretariat group. National EFA 2015 review report. August 2014
- Int.J.Educ.stady. Interan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2014
- World Bank, IMF and ADB, Lao PDR Public Expenditure Review, Integrated Fiduciary Assessment (May 2007), June 2006 draft version.
- WHO, Review of HSS Strategies 2012.
- 8th Five-year national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2016-2020). June 2016
-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peace independence democracy unity prosperity.

national nutrition strategy to 2025 and plan of action 2016–2020. December 2015
- Lao PDR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Welfare and ILO(2012)
-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Laos pilot program for narrowing the development Gap towards ASEAN integration tourism promotion component. March 2012
- Ministry of Health Lao PDR. Success Factors for Women's and Children's Health.
- Unicef etc. Analysis of the social welfare system in Lao PDR. July 2009
- Global economy.com 링크
물가 정보 http://www.theglobaleconomy.com/index_api.php?cid=76#availiableData
인간개발지수 http://www.theglobaleconomy.com/index_api.php?cid=76#availiableData
라오스 GDP대비 교육지출
http://www.theglobaleconomy.com/index_api.php?cid=76#availiableData

06 기타 활동 자료 (사진 등)

01

02

03

04

01 현지조사-직업훈련센터 회의
02 현지조사-비엔티안 시청 회의
03 현지조사 - 교육체육부 회의
04 현지조사 - 마을 방문

05

06

07

08

09

10

11

05 현지조사- 치료&직업훈련센터 방문 및 회의
06 현지조사-책나눔터 방문
07 현지조사-국가건설종무국 회의
08 현지조사-지구촌공생회 방문
09 현지조사-아시아센터 회의
10 현지조사-보건부 회의
11 쉼터환아가족 인터뷰

12

13

14

15

16

12 외교부 회의
13 굿네이버스 회의
14 KCOC코디 회의

15 국내 조사-백혈병어린이재단 방문
16 국내 조사-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방문

향후 계획

chapter 03

- 본 재단의 경우 기존 인큐베이팅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 조사에 있어 사회복지분야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으나, 다양한 정부 부처의 회의 및 문헌조사 결과 사회복지센터 건립을 기획하게 된다면 라오스가 현재 사회복지 부분의 전문가, 예산 등이 없는 상황이므로 사업 철수시 라오스 국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나아가 사회복지센터 건립 초기 단계에 있어서 MOU를 맺어야 할 때도 다양한 하위 사업을 다루다 보니 각 하위사업과 관련된 모든 정부부처와 MOU를 진행하는 것조차도 사업 준비에 있어서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여겨진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위험요소가 있었다.
- 이러한 점과 함께 몇몇 정부 부처는 수혜자층과 분야에 있어서 집중 그리고 재단이 지속적으로 해왔던 보건사업에 대한 긍정적 의견과 함께 보건사업확장에 대한 부분을 제언하였다.
- 그러므 각 정부부처별 제언과 환아부모 인터뷰를 고려하여 기존에 보건분야에 있어 재단이 지속적으로 해왔던 쉼터 사업의 규모 확장과 함께 환아 및 환아가족들의 치료 후 사후관리를 위한 프로그램(환아 및 환아 가족대상의 정서지원프로그램, 영양/위생 교육프로그램, 환아부모 대상의 직업기술 교육,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환아 대상의 기초 교육 프로그램)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 이후에 있어서 사업분야의 변경에 따라 추가적으로 국립아동병원 내에 환아, 환아가족에 대해 추가적으로 초점그룹인터뷰 혹은 설문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해당 자료를 통해 각 공모사업에 참여하고자 한다.

PART 03

[교육] 더라이트핸즈

시행일자	2017년 4월 20일(수) ~ 6월 19일(토) (총 60일)
지역	베트남 홍강 삼각주(하노이) 및 남동부(호치민) 지방

2017년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지역조사(사업형성조사) 결과보고서

기본정보					
단체명	더 라이트 핸즈		작성자	정 희 화	
단체현황	현지 지부			☐ 있음	☑ 없음
	NGO 등록			☐ 있음	☑ 없음
	KOICA 협력사업 수행 경험 유무			☐ 있음	☑ 없음
사업 분야	아동 교육		코드번호	112** 기초교육 113** 중등교육 114** 장학사업	
조사 목적	아동 기초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 및 지역 타당성 조사와 새로운 협력기관 발굴을 본 조사의 목적으로 함				
대상 국가 및 지역	국 가	베트남	지역	홍강 삼각주(하노이) 및 남동부(호치민) 지방	
조사기간	전체 조사 기간	2017년 4월 20일(수) ~ 6월 19일(토) (총 60일)			
	현지 체류기간	2017년 5월 14일~ 5월 23일 (총 9박 10일) 2017년 6월 11일~ 6월 15일 (총 4박 5일)			

조사 목적

chapter 01

본 조사는 현지 지역사회의 필요에 부합하는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해, 베트남 홍강 삼각주(하노이) 및 남동부(호치민)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현지 협력 파트너 단체를 발굴하고 협력 관계를 모색하여 지역주민(취약계층 중심)들과 지역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제적인 수요에 맞는 사업 진행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더 라이트 핸즈는 현지 파트너 NGO와 함께 하노이 바비(Bavi) 지역 푸슨(Phu-son) 마을을 중심으로 가정통합지원, 아동지원(급식 지원 및 친환경 도서관 지원), 지역사회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해 왔음. 보다 지속가능하고 통합적인 지원사업 진행을 위해 현지 지역 사회의 필요를 더욱 면밀히 파악하고 사업 지역과 사업 내용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기존 현지 파트너 단체의 사업 범위 및 역량에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과 새로운 수요처 현황 파악 및 사업 영역/지역 확장이 필요한 상황임.

이러한 상황의 개선을 위해, 본 조사는 하노이 바비 지역 내 기존 사업지역을 넘어 1) 새로운 지역에서의 지원 사업 필요성과 현황을 파악하고, 2) 역량을 갖춘 현지 파트너 NGO를 발굴하여, 3) 새로운 현지 파트너 NGO 및 지역 이해관계자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문헌조사 및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를 통해 기초 자료 수집, 지역 수요 및 현황 확인, 현지 NGO들을 통한 지역사회 사업 내용 발굴 등의 목적을 가지고 조사를 진행하였음.

조사 결과

chapter 02

01 일정별 조사 활동

기 간		활동 내역 약술
국내	2017년 4월 20일 ~ 5월 10일	▪ **베트남 지역조사 [문헌조사]** **1. 국가개요 및 지역현황** 여전히 낮은 인간개발지수 (116위/188개국) 도시화 현상과 도시편중 발전 현상, 노동격차 심화 **2. 빈곤관련 현황** 절대빈곤율의 감소와 빈부격차 증가 현상 농촌지역 빈곤현상 심화 빈곤감소 효과가 일부 지역에 편중 현상 **3. 취약지표 (교육, 보건, 식수 위생 등)** 초등교육 등록율은 100%에 가까움, 졸업률도 평균 90% 이상 상위 교육 졸업률은 지역의 경제발달 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임 (66.9% VS. 93.2%)
		▪ **국내외 관련 기관 조사 [문헌조사]** **1. UN, KOICA, INGOs의 해당 지역 관심사 및 사업 현황, 결과 등 조사** 사업의 규모와 종류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음 그러나 현지수요와 현황 반영 부족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 현지 국가정책관계자 또는 학계관계자 중심 사업 비중 높음 발전 불균형 해소, 낙후 지역 소외계층 지원 등의 수요를 고려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 부족 **2. 현지 NGO의 역량문제** 현지의 높은 사업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역량있는 현지 NGO의 부족 출구전략이 부족했던 국외로 부터의 기존 지원사업 현지 NGO의 사업경험 및 역량강화 기회 부족
현지	2017년 5월 14일~ 5월 23일	▪ **[1차 지역조사]** **1. 조사팀 구성:** 더 라이트 핸즈 김미경 부장 더 라이트 핸즈 정희화 대리 조민지 외부전문가 **2. 현지 수요 및 현황 조사** **1) 이해관계자 조사** ① KOICA 사무소 방문 – 진행중인 지원사업 현황 – 높은 지역 수요와 편중된 지원 사업 – 사업 진행 절차 ② 지역 국가기관 교육담당자/복지담당자, 학교관계자 미팅 [Khan Thoung Commune, Ba Vi District] [Khan Thoung Secondary School, Ba Vi District] [Phuson Primary School, Ba Vi District] [Divis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Da Bac District] [Cho Bo Primary School, Da Bac District] [Vay Nua Commune, Da Bac District] – 지역 교육 현황 조사 – 지역 수요 이해 – 기관별 우선순위 및 필요 파악 **2) 교육관련 현황/수요 조사** ① 학생 직업교육 지원방안 미비 ② 소수민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현황 데이터 미비 ③ 국내 노동이주 가정 아동의 교육 소외 문제 ④ 장애인 학생 교육 소외 문제 ⑤ 고등교육 학비 수요 **3. 현지 NGOs 미팅** **1) Vietnam Intellectual Cooperation Center (VICC)** ① 대학생 리더십 교육 중시 ② 대학생 독서교육 프로그램 **2) Vietnam Association for Education For All (VAEFA)** ① 베트남 교육 NGO 연합 ② Communilty Learning Centre (CLC) 활용방안 논의 ③ 청각장애 학생 교육 소외 문제 논의 (성인지 교육 문제 필요성 등) ④ 현지 NGO들의 교육관련 활동 소개 **3) Humanitarian Services for Children of Vietnam (HSCV)** ① 빈곤가정 학생 고등교육 탈락현상 ② 빈곤가정 소득증대와 학생 교육탈락 방지의 연관성 논의 ③ 도농지역 교육 격차 문제 논의

	2017년 6월 11일~ 6월 15일	**4) Christian Noble Foundation** ① 미등록 아동 교육 이탈 문제 ② 노동 이주자 가정, 아동 소외현상 ③ 빈곤가정 자녀, 미등록 아동 교육이탈 방지 방안 논의 ④ 빈곤가정 자녀, 미등록 아동의 고등교육 수요 **5) 베트남에서 활동중인 한국 국제개발 NGOs 관계자 미팅** ① KCOC 베트남 코디네이터 - 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NGO 현황 - 베트남에서의 사업/활동 진행히 유의할 점 ② 지구촌나눔운동 - 베트남 노동시장 수요 - 낮은 근로형태 유지 비율 - 교육 수준에 따른 임금 수준 - 농촌지역 소득 증대 사업 ③ 선의복지재단 - 장학금 지원 수요 - 현지 인력과의 협력을 통한 개발 사업 - 주민 소득증대, 교육이탈 방지 방안 ④ ReDI - 베트남 노동시장 인력 현황 - 장학금 지원 사업 수요 ▪ **[2차 지역조사]** **1. 조사팀 구성** 더 라이트 핸즈 손정배 상임대표 **2. 현지 수요 집중 조사** **1) 지역 교육기관 방문 및 이해관계자 회의** [Quang Qui High School] [Phoson CLC] [Ngoc Thanh CLC] [Xomta KG] [Phumy KT] ① 학교의 빈곤가정 학생 지원방안 확인 ② 대체 가능한 지원가능 방안의 유무 확인 **2) FGI 인터뷰** ① 빈곤가정 학생 집중 인터뷰 ② 교육이탈 요인 확인 ③ 고등교육 수요 확인 ④ 해당 지원필요성/대체방안 논의

02 조사 항목 및 방법

	조사 항목	조사 방법	조사 기간
1	**정부기관** - 기관의 관련 정책 현황 - 기관의 관련 문제 인식 - 기관의 관련 문제 해결 의지	- 문헌 및 현지조사 - 각 부처 계획파악 - 현지조사를 통해 사업 이해도 및 협력정도 파악	2017.04.20. ~2017.05.30
2	**지역 내 학교관계자** - 지역이해관계자의 교육이슈 인식 - 지역의 교육이슈 및 현황 - 학교 내 교육문제 관련 수요	- 초점그룹인터뷰	2017.05.11. ~2017.06.16
3	**지역주민 (아동, 학생 포함)** - 지역주민의 관련문제 현황인식 - 직업교육 현황 - 고등교육 진학 수요 - 학생들의 교육현황 인식	- 교사, 학부모, 학생 면담 실시 (Orphans and Vulnerable Children(OVC) 파악)	2017.05.11. ~2017.06.16
4	**빈곤가정** - 빈곤가정 교육관련 수요 파악 - 빈곤가정 교육탈락 문제	- 가정방문 및 인터뷰	2017.05.11. ~2017.06.16
5	**현지 NGO** - 지역수요에 대한 현지NGO 대응 - 현지 NGOs의 역량 파악 - 현지 NGOs의 주요이슈 이해	- 기관방문, 관계자 인터뷰	2017.05.11. ~2017.06.16

03 조사 결과 분석

빈부격차로 인한 빈곤층 소외문제 심화와 사각지대 발생

베트남의 국가경제 성장은 베트남의 절대빈곤 상태의 인구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음. 그러나 경제발전과 동시에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빈부격차 문제는 경제발전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빈곤층의 소외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음. 급속한 도시화와 재화의 지역 편중 현상, 미숙련노동인력의 활발한 도시 노동이주 등의 사회·경제적 변화 역시 빈곤층의 소외현상을 가속화 시키고 있음 (Castles et al, 1993; Dang et al, 1997; Gerard Sasges, 2013).

당국의 전반적인 빈곤층 지원책에도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최빈층에 대한 지원 방안이 부족한 상황임. 일예로, 빈곤층 주거지원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주택 개보수 사업의 경우 수혜자 명의의 건축 가능한 토지가 있어야 지원 받을 수 있는 형태임. 토지 마련이 어려운 빈곤층의 경우 혜택을 받기 어려워, 사실상 빈곤 대책 정책에서 최빈층이 소외되고 있는 상황임.

자원이 집중되고 있는 도심지역과 달리, 농촌·산간 지역의 경우 빈곤 가정에 대한 지원책이 부족한 상황임. 빈곤 가정의 위생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화장실 공급율도 매우 낮음. 학교 등의 공공시설 화장실 개선이 시급함 (인터뷰, Da Bac 지역 사회복지담당자; 인터뷰, Vay Nua 지역 사회복지 담당자). 지역 주민의 소득 부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 지원과 외부 후원 모두 부족한 상태임. 베트남에서 주민 소득이 가장 낮은 지역 중 하나인 Da Bac 지역 역시 주민 빈곤 문제와 학교 교육환경 개선 문제 등 시급한 현안들이 많지만 정부 지원 및 외부 지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도시 접근성에 따른 노동이주와 교육격차 문제

상대적으로 도시 접근성이 높은 도심지 주변 농촌지역 주민들의 경우, 부족한 일자리 문제를 도시로의 정기적인 노동이동(labour mobility)을 통해 일부 해소하게 되고 가계 소득을 증대시키는 순기능이 발생함 (Dang et al, 1997). 그러나 도시로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대다수 농촌지역의 경우 도시와 거주지 사이의 당일 왕복 노동이 어려워, 노동인력이 아예 도시로 이주하게 되는 노동이주(labour migration)가 발생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Castle et al, 1993; Gerard Sasges, 2013).

보호자의 노동이주는 아동의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침. 보호자의 이주에 함께 하지 않고 거주지에 남겨지게 되는 아동들의 경우,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하는 등의 소외 문제 발생 확률이 높아짐. 보호자와 함께 도시로 이주하게 되는 아동의 경우, 보호자가 거주이전등록에 실패하게 되면 아동 역시 등록되지 않아,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탈락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인터뷰, Christina Noble Foundation; 인터뷰, VAEFA).

시로의 구직 이동이 많은, 소수인종 분포도가 높은 산간 지역의 경우 학생들의 상급학교 진학률이 낮고 교육 이탈 학생에 대한 인식과 방안이 부족한 상태임 (인터뷰, Vay Nua 지역 교육담당자).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재정상태가 열악한 학교의 경우, 거리 문제와 임금 지불능력 부족으로 인해 일부 과목의 교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인터뷰, Cho Bo 초등학교 교사). 실제로 Da Bac 지역 Vay Nua 마을 Cho Bo 초등학교의 경우 인건비와 거리 문제 등으로 영어교사, 컴퓨터교사, 학교 사서 등의 교원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일부 학교들은 비용 부족 문제로 학생들을 위한 도서 구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시와 농촌·산간 지역 간에 교육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직업교육 부족 문제

ODA사업을 통해 베트남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경우 대부분 대학 재학 이상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인터뷰, 코이카 베트남 사무소; 인터뷰, 지구촌나눔운동).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거나 진학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 교육 사업은 거의 전무한 상황임.

대학 진학을 희망하지 않거나 진학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 학교가 있으나 일부 학교의 경우 학생 거주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마을에서 대략 7~20km) 있어 접근성이 좋지 않으며, 구성 교과목 등이 시장의 기술 수요와 맞지 않아 교육 수료 후 구직을 원하는 학생들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인터뷰, VAEFA).

04 변화의 영역

더 라이트 핸즈는 2017년 4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베트남 하노이 및 호치민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 지역조사를 진행하였음.

조사 기간	팀 구성	주요 활동
1차조사 [9박 10일 진행] (2017년 5월 14일-5월 23일)	**김미경** -더라이트 핸즈 사업부 부장 **정희화** -더 라이트 핸즈 사업부 대리 **조민지** -외부전문가, 전 세이브 더 칠드런 해외 사업부 팀장	-이해관계자 미팅 -전반적인 사업 수요 파악 -빈곤가정 방문 -현지NGO와의 협력관계 모색 -지역 내 유사사업 유무 조사

2차조사 [4박 5일 진행] (2017년 6월 11일-6월 15일)	**손정배** -더 라이트 핸즈 상임대표	-빈곤가정 학생 집중 인터뷰 -이해관계자 미팅 -빈곤가정 방문

가. 주목 분야

소득격차 현상에 따른 교육격차 심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시기에 한정된 자원을 도심지역 발전을 위해 우선 활용하는 경우 종종 심각한 도농지역간 소득격차와, 부익부 빈익빈 심화 등의 소득에 따른 계층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됨. 이는 결과적으로 심각한 학생 교육격차 현상을 유발할 수 있음.

베트남의 경우 1986년 시장 개방 이후 90년대 가파른 경제 성장율을 보이며 빈곤율의 감소 현상이 뚜렷하였으나 여전히 도시·농촌 지역 간의 소득격차 문제, 도시지역 내의 이주 노동자 문제, 여성 근로자 처우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음. 또한 도시로의 자원 집적화와 노동 소득격차 심화 현상은 결과적으로 거주 지역과 가계 소득에 따른 학생 교육접근성 차이를 유발하고 있음.

빈곤 지역의 경우 학교 자체에서 학생들을 위한 최소한의 교육환경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지역조사 과정에서 방문하였던 농촌·산간 지역 학교의 경우, 학교 도서관 및 교실 내에 배치할 도서구입비가 부족한 학교가 대부분이었으며, 재학생들 중 교과서 구입비 마련이 어려워 교과서를 마련하지 못하고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도 있었음. 학교 내 급식 시설 마련을 위한 비용이 모자라거나 지붕 수리 등 기본적인 환경 보수/유지 공사를 위한 자원이 부족하여 외부 후원이 필요한 학교들이 많았으며, 화장실 등의 위생시설 개보수를 위한 시급한 지원이 필요해 보이는 학교도 있었음.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산간지역의 일부 학교의 경우, 인건비 부족과 거리 문제 등으로 인해 영어 등 일부 교과목의 교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Cho Bo 초등학교, Vay Nua 마을, Da Bac 지역). 지역조사 과정에서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구직자의 외국어(한국어, 영어 등) 구사 능력에 따라 임금 격차가 최소 2배에서 최대 5배 까지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 때문에 하노이 등의 도시 지역에서 상위 교육기관 진학과

외국어 습득 등을 위한 사교육 수요가 높은 상태였음 (인터뷰, 지구촌나눔운동; 인터뷰, 코이카 베트남사무소). 이를 고려할 때, 외국어 교과목 교사가 부재하는 농촌·산간 지역 빈곤가정 학생들과 도심 지역 학생들 간에 발생하게 되는 교육 격차가 장기적인 소득격차의 중요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음.

방문하였던 많은 농촌지역 빈곤가정들의 경우 대부분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을 희망하였으나, 자녀의 학비와 기타 비용(교과서 구입비, 교복 구입비, 식비-급식비 등-, 학용품 구입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였음. 빈곤 가정의 경우 집에 전등 자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밤에 전깃불을 사용할 수 없는 곳도 많았으며, 대부분 가정에 자녀들의 학습을 위한 책상이나 의자가 구비되어 있지 않았음. 또한 학생 통학 거리는 대부분 10km 내외로, 등하교를 위해 자전거나 전기자전거 등의 교통수단 지원이 필요한 가정들도 있었음.

대학 등록금, 생활비, 교재 구입비 등의 비용 마련이 어려운 빈곤가정에서는 자녀가 상급 교육기관에 진학할 수 있는 역량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자녀의 대학 진학을 포기시키고 가정의 소득 증대를 위한 노동 인력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음 (빈곤가정 방문조사, 빈곤가정 학생 집중 인터뷰).

당국의 효과적인 지원 부족

지역조사 과정에서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했던 이해관계자들(지역 사회복지 담당자, 지역 관할 공무원, 학교 관계자, 지역 여성 커뮤니티 담당자 등) 역시 전반적인 교육 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관련된 교육문제와 빈곤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 그러나 일부 문제(학생 성 인지 교육, 고등학생 직업 훈련 수요, 대학 미진학자의 취업문제, 빈민층 지원 수요, 빈곤 가정 아동 문제 등)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상태였으며 장기적인 관점의 효과적 지원방안 역시 부족한 상태임.

일부 매우 뛰어난 성적의 학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빈곤 가정 자녀들이 학비를 비롯하여 기타 관련 비용(교과서, 통학용 자전거, 교복, 준비물, 학용품 마련 비용 등)에 대하여 당국의 공식적인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고등학교 진학을 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직업 훈련 교육 과정 역시 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교육 이탈(진학 포기, 중도 이탈 포함) 학생에 대한 인식과 방안 역시 부족하였고, 이탈 사유에 대한 통계 역시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소득격차와 교육격차, 다시 소득격차

자원의 도심 집중과 소득 격차로 인한 농촌·산간 지역 소외현상, 당국의 지원 부족이 빈곤가정 자녀 교육 문제와 연결된다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무엇보다도 이러한 교육 격차 상황이 다시 소득 격차를 유발하는 등 악순환으로 이어져 빈곤 상태 개선과 계층 이동 가능성을 낮추어 결과적으로 빈곤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임.

현재 고졸 취업자(평균 약 USD 200)와 대졸 취업자(평균 약 USD 400)의 임금격차는 약 2배 정도이며, 일반 고등학교 진학 대신 직업 훈련과정을 밟는 경우는 고졸 취업자 평균보다 낮은(약 USD 150 이하)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음 (인터뷰, 지구촌나눔운동; 인터뷰, 코이카 베트남 사무소). 문제는 부실한 직업훈련 커리큘럼과 시장 수요 부응에 실패하고 있는 훈련 내용으로, 직업훈련 과정으로 진학한 학생들이 부실한 교육과정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과정을 중도에 이탈하게 되거나 수료하더라도 취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직업훈련의 효과가 매우 미미함. 이는 결과적으로 직업훈련 과정으로 진학한 학생들의 소득 발생을 저하시켜 계층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대안으로써의 지역학습센터(CLC)의 가능성

지역학습센터(CLC)는 1990년대 지속교육센터(CEC_Continuring Education Centre)를 그 전신으로 함. 지역주민들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미취업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과 지역주민의 인적 자원 개발 등의 취지로 운영되어 왔음. 주민들은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 다만, 좋은 취지에 비해 실제 운영되는 현황은 많이 부족한 상황임. 교육 수요에 부합하지 못하는 프로그램 내용과 부실한 커리큘럼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CLC를 이용하는 경우가 드물었음 (인터뷰, HSCV; 인터뷰, VAEFA; 인터뷰, Christina Noble Foundation). 조사기간 동안 방문하였던 지역 관할 담당자들은 지역학습센터(CLC)에 대한 조사팀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을 주지 못했으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역학습센터 (CLC)운영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취업 학생을 위한 직업교육을 진행하고 지역주민들의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지역학습센터(CLC)의 본래 취지는, 그 자체로 지역학습센터(CLC)가 베트남 농촌·산간지역 빈곤가정의 교육격차와 소득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내포함.

양질의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경우,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주민 인적 자원개발 (성인 직업교육) 기능과 함께 학생직업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훌륭한 대체제 역할을 할 수 있음. 지역학습센터(CLC) 정상화에 대한 관할 지역 관청의 의지가 높다면 성공확률을 매우 높아짐. 이는 장기적으로 교육격차로 인한 소득격차와 계층화를 방지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음.

실제로, 푸슨 지역의 경우 관청 담당자의 지역학습센터(CLC) 정상화에 대하여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음. 푸슨 지역학습센터(CLC)의 경우 비정기적으로 장애인 교육과 미취학 아동교육, 지역주민 문화활동 지원과 함께 재봉이나 가축사육 교육 등의 직업교육을 제공해왔음. 교육을 위한 건물이 따로 없어서 학교 건물이나 관청 등의 공간을 비정기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과 직업훈련 과목이 현재의 구직 수요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으나, 담당 관청의 담당자는 직업학습센터(CLC) 운영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양질의 교육 제공을 위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면 효과적인 지원 사업이 될 것임.

나. 현지의 수요 및 상황

고등교육 장학금 지원사업

조사 대상 지역(하노이 및 인근 농촌·산간 지역)의 빈곤가정 중,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가정 상황과 학부모의 자녀 교육의사 확인함. 또한 빈곤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집중 인터뷰를 진행하여 대학 진학이 가능한 성적의 학생 중 상당수 학생의 대학 진학 수요 확인. 기존 교육 지원 사업의 경우 그 대상이 초중등 교육에 한정되어 있어 고등교육 지원 수요에 대한 지원사업이 필요한 상황임.

고등교육 장학금 지원사업은 가정의 경제적 상황 때문에 고등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빈곤가정 자녀들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의를 가짐. 이는 고등교육을 수료한 빈곤가정 자녀들의 향후 직업 선택지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빈곤의 되물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타 기관의 해당 분야 사업

조사 결과 일부 장학 프로그램이 소수의 성적 우수자를 위해 운영되고 있었으나, 해당

지역 내에서 빈곤가정 학생들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타 기관의 고등교육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은 확인되지 않음. 지역 조사 과정에서 면담을 진행한 지역 관리자, 학교 관계자, 지역 NGO 관계자, 한국 NGO 관계자 모두 빈곤 가정 학생의 고등 교육 지원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단체의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은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함.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를 통해 지원 대상자 선정

기존 빈곤가정지원(Family Assistance Program, FAP)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빈곤가정 자녀 중, 상급학교(대학교) 진학 가능한 성적을 가지고 있고 대학 진학 의사가 분명하고, 학부모의 자녀 교육 지원 의사가 명확한 가정을 대상으로 함. 현지 상황과 빈곤가정 실태 등에 대해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현지의 파트너 단체와 협의를 통해 지원 후보자 중 지원 필요성이 가장 높고 시급한 순서로 대상자 우선순위를 선정함.

파일럿 프로그램 우선 진행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은 기존에 더 라이트 핸즈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비 및 필요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베트남 FAP 가정 학생들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1년에 20명의 지역 빈곤가정 학생들의 고등교육(대학교육) 필요비용 (학비, 교재비,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다만, 정식 사업화 하기 전 사업의 효과성과 지원내용의 적합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요인	발생가능한 변동사항 (예)	대응 방안
1	환율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기존 예산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 (예: 환율의 급격한 상승이 발생하여, 사업의 지속을 위해 단체의 역량을 벗어난 예산 변동이 필요한 경우)	- 환율 변동 사항 확인 - 환율이 낮은 시기에 송금 진행 등 - 대응 불가능한 정도의 급격한 환율 변동 시 현지 파트너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송금 시기 조율
2	수혜자 (학생)	학생의 성적 변동으로 인하여 대학입학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예: 대입시험 불합격 등)	- 기존의 지원 대상 후보자 중,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 고려 - 장학금 지원 1순위 대상자였으나 성적변동으로 인하여 당해에 대학 입학이 불가능한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해당자를 차년도 지원대상 '후보자'로 분류 - 당해 적합자가 없는 경우 지원금은 차년도로 이월
3	현지 파트너 NGO	현지 파트너 NGO의 내부 사정 변화로 인하여 지원 사업 일정과 내용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예: 담당자 이직, 협력관계 변동 등)	- 현지 파트너 NGO와의 지속적인 네트워킹 유지 - 해당사업을 담당하고 있던 기존 파트너 단체와의 협력관계에 변동이 불가피한 경우, 역량을 갖춘 지역 내(또는 인근 지역의) 다른 파트너 단체를 통해 기존 사업의 유지를 위한 협력
4	당국의 정책변화	현지 당국의 정책변화로 인하여 빈민가정 고등교육 장학금 지원 사업의 내용 또는 형식의 변동이 불가피한 경우 (예: 당국의 빈곤가정 자녀 교육 지원책이 개선되어 빈곤가정 고등교육 장학금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 베트남 정부에 의해 빈곤가정 자녀들의 고등교육 지원책이 마련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의 필요성이 소멸되므로 다른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전환함 (예: 장애인 학생, 거주 미등록 학생 등)

다. 사업대상 분야(Target Area)의 지표 및 기초선

	사업활동 (Activities)	지표(indicator)	기초선(Baseline) 값
1	빈곤가정 자녀 대상 고등교육 (대학) 장학금 지원 -대학 등록금 -교재 구입비 -생활비 등	1. 고등교육 장학사업 대상 후보자* 수 *사업 대상 지역의 빈곤가정 자녀 중 2017년 이후 고등교육 장학금 지원을 요청한 학생 *대학입학 가능한 성적을 보유한 학생 *특별한 가정 상황 등에 의해 현지 파트너 NGO의 우선 추천이 있는 학생]	7명
2		2. 1의 대상자 중 고등교육 장학금을 지원받은(또는 받고 있는) 학생 수	0명
3		3. 장학금 지원을 받은 학생의 [대학 입학 후] 한 학기당 평균 출석률	N/A
4		4. 장학금 지원을 받은 학생의 [대학 입학 후] 평균 성적	N/A
5		5. 장학금 지원을 받은 학생의 [대학 입학 후] 교육 완료 비율 (졸업률)	N/A
6		6. 장학금 지원을 받은 학생의 프로그램 만족도	N/A
7		7. 장학금 지원을 받은 학생의 취업률 [졸업 후 6개월 이내]	N/A
8		8. 장학금 지원을 받은 학생의 1년 이상 취업 유지 비율	N/A

라. 단체의 특성과의 연계

베트남의 하노이 및 인근지역은 단체에서 기존에 여러 가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지역임. 해당 지역에서는 교육사업과 함께 빈곤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FAP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빈곤가정 학생들에게 고등교육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육 당국과 NGO과의 기존 네트워크 활용을 통해 지원과정이 보다 용이할 것으로 기대함.

이는 기존에 진행되는 FAP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보완하는 기능을 하는 측면도 있음. 기존의 FAP 프로그램은 빈곤가정의 필요를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수혜가정의 궁극적인 자립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존 프로그램 내의 교육비 지원은 학생의 고등학교 재학 까지의 필요를 위해 제공되어왔음. 고등교육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게 된다면, 기존 FAP 프로그램으로 다 충족시키지 못했던 빈곤가정의 교육 수요 부분을 일정 부분 보완하는 추가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또한 빈곤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등교육 장학지원은 기존 교육지원사업, FAP 프로그램의 기존 네트워크를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추가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그 효율성이 매우 높음. 기존 FAP 프로그램은 지역의 학교와 가정, 관청 담당 관리자와 지역 NG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장학금 지원 역시 이러한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진행 가능함. 장학금 지원을 위한 후보자를 선정하고, 빈곤 가정의 자녀 지원 의사를 확인하며, 대상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 필요성을 파악하는 등의 과정에서 기존 네트워크와 사업경험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05 자료 출처

Castles S., Haas H. and Miller M. (1993), The Age of Migration

Gerard Sasges (2013), It's a Living: Work and Life in Vietnam Today

Dang A., Goldstein S. and McNally J. (1997), Internal Migration and Development in Vietnam, Th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1(2).

Le Thuan Vuong and Bui Thanh Xuan (2011), Situation Analysis of Community Learning Centres (CLCs) in Vietnam

UNESCO (2008), Community Learning Centres (CLCs) Country Report from Asia

06 기타 활동 자료 (사진 등)

01

02

03

04

05

06

07

08

01 1차 지역조사 (빈곤가정 방문)
02 1차 지역조사 (이해관계자 미팅)
03 1차 지역조사 (빈곤가정 방문)
04 1차 지역조사 (현지 NGO 미팅)
05 2차 지역조사 (빈곤가정 방문)
06 2차 지역조사 (빈곤가정 방문)
07 2차 지역조사 (빈곤가정 자녀 인터뷰)
08 2차 지역조사 (이해관계자 미팅)

향후 계획

빈곤가정 학생 중 대학 진학을 희망하고, 진학 목적이 분명하며, 학생의 진학에 대해 가정의 지원 의사가 명확하고, 진학 시험에 통과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비와 생활비, 교재비용 등을 지원 하는 장학금 사업을 진행할 예정임.

기존에 빈곤가정을 대상으로 하던 통합지원 프로그램이 가정의 생계 지원과 함께 자녀의 고등학교 교육까지의 비용을 지원했다면, 이를 대학 진학까지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보다 포괄적인 지원을 수행하게 됨.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고등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인격 함양과 배움을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향후 직업 선택에서 보다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게 되는 효과가 있으며,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가정의 빈곤 계층화 고착을 방지함.

추가적으로 이번 지역조사로 새로 발견된 문제들, 청각장애인의 교육소외 현상과 지역학습센터(CLC)의 활용방안에 대한 후속방문 및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할 예정임.

베트남 청각장애인의 교육권 보장 현실은 매우 열악한 상태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높은 지원사업 수요를 보임. 그러나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는 지원 사업 프로그램은 거의 전무한 상황임. 베트남 청각장애 학생 지원을 위해 현지 단체인 VAEFA와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음. 동시에 국내에서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지원사업을 해온,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기관들 중 베트남 청각장애인 학생 지원 프로그램 구성에 관심을 가

지는 기관을 발굴하여, 베트남 청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임.

베트남의 상당수의 지역학습센터(CLC)가 부실한 교육과정과 부족한 자원, 당국의 무관심 속에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상태임. 더 라이트 핸즈는 베트남 지역학습센터(CLC)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교육권 보장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진행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양질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지역학습센터(CLC)도 활성화 시키고, 동시에 주민들의 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PART 04

[교육] 비소나눔마을

시행일자	2017년 4월 21일(수) ~ 6월 20일(토) (총 60일)
지역	캄보디아 Takeo

2017년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지역조사(사업형성조사) 결과보고서

기본정보				
단체명	비소나눔마을		작성자	김 민 정
단체현황	현지 지부		☑ 있음	☐ 없음
	NGO 등록		☐ 있음	☑ 없음
	KOICA 협력사업 수행 경험 유무		☐ 있음	☑ 없음
사업 분야	전문가 급 직업교육		코드번호	114**
조사 목적	1.Takeo주에서 미디어가 발전함에 따라 구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양질의 전문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증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다. 2.Takeo주 청년들에게 미디어 분야 전문 교육 및 취업에 필요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조사 한다.			
대상 국가 및 지역	국 가	캄보디아	지역	Takeo
	Takeo Province, Cambodia (수도 프놈펜에서 약 70km, 차로 2시간)			
조사기간	전체 조사 기간	2017년 4월 21일(수) ~ 6월 20일(토) (총 60일)		
	현지 체류기간	6월 5일 ~ 6월 14일 (총 10일)		

조사 목적

chapter 01

1.기관에서 기획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캄보디아의 대다수 청년들이 직장이 없어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미디어 분야 전문 교육 및 취업에 필요한 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 적절한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에 목적을 둔다.

2.Takeo주에서 미디어 관련 회사의 수와 구인/구직의 수요, 필요시에는 창업까지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 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의 취업 수준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

3.Build Bright University-Takeo Campus(이하 BBU) 소속 대학생 뿐 아니라 Takeo주에 위치하고 있는 여러 대학교내 미디어 관련 수업 유무와 수준을 파악하고, 학생들의 수요와 만족도까지 함께 조사하여 학생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교육 내용과 수준을 설정한다.

4.전문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수도권 내 미디어 전문 종사자를 찾아가 전문성을 파악하고, 강사로써 초빙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한다.

5.SDGs의 4번, 8번을 목표로 하여, 사업을 기획 및 추진한다. 세부 목표에 따라 직업훈련(4.3)을 통해 전문/직업 기술을 보유(4.4)할 수 있도록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8.5)으로써 실업청년의 비율을 축소(8.6)시키는데 사업 및 조사의 목적을 둔다.

6.영상미디어는 기술과 관련된 직업적 특성으로 남성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는 부분을 감안하여 성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 회사나 기관을 방문하였을 때, 여성이 필요한 분야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조사 결과

chapter 02

01 일정별 조사 활동

	기 간	활동 내역 약술
국내	04.20 – 04.30	· 문헌자료(국가 일반사항, 국가개발전략, Takeo지역 조사 등) 수집
	04.25	· 조사한 자료 토대로 사업 기획안 보강 회의 진행
	04.25 – 04.29	· 현지 협조자 1차 대상집잔 설정 및 협조요청 자료 준비
	05.01 – 05.07	· 현지 코디네이터와 국내 조사자료 결과 토의 및 의견교류 · 사전조사 일정 안내 및 협조 사전 준비 요청
	05.01 – 05.10	· 현지 코디네이터와 사업에 대한 논의 후, 현지조사 일정 변동 · 변동된 일정에 따라 일자별 조사활동 계획 작성 · 현지 코디네이터의 국내 내방 일정 확인 후, 1day 워크샵 준비 · 사업 관련된 전문 기관 및 회사 조사, 방문희망 기관 선정 –전문회사 및 방송국 등의 홈페이지, SNS 등 자료 조사
	05.11	· 1Day 내부 워크샵 진행 –현지 사전조사 일정표 점검 –사전조사 방문 전, 코디네이터 컨텍내역 정리 –국내 조사팀 준비 서류 논의
	05.12 – 05.26	· 현지 협조자 2차 대상집단(미디어분야 전문 회사 및 전문 종사자) 설정및 미팅/자문 요청 메일 발송 –담당자와의 메일 소통을 통해 현지조사 일자별 계획 확정 작업 · 세부 자료 선정하여 심층 자료 조사 진행 · 이해관계자 대상별(2030청년, 지역주민, 전문가) 설문지 제작 –논문 자료들을 통해 설문지 양식 및 구성 참고 –캄보디아 국가개발전략, 통계자료 등 조사/활용 · 미팅/자문 기관 방문 시,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리플렛 제작
	05.27 – 06.02	· 현지 통역가 및 운전기사 섭외 · 설문지 및 리플렛 크메르어 번역 요청 및 인쇄 · BBU학생 간담회 및 기본정보 교육을 위한 PPT자료 준비 · 중요 인터뷰 대상자 수를 고려하여 답례품 구매 · 일자별 사전조사 타임 시뮬레이션
현지	6월 5일~14일	[캄보디아 현지 사전조사]
		6일(화): · 약 9박 10일간의 사전조사 일정을 브리핑 ·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숙지 · 날짜별로 필요한 자료 및 물품 분류/준비 · 날짜별로 잡혀있는 미팅 기관들에 확인 연락
		7일(수): · BBU 학장, 부학장과의 1차 면담 · 학장, 부학장을 포함한 교수진과의 2차 간담회 · BBU 재학생 대상으로 사업 소개 및 서베이 진행 · 사업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짧은 강연 · 서베이자료 기록 및 주관식에 대한 번역 진행
		8일(목): · Takeo 지방 교육청 방문 및 면담 · 사업 소개 및 필요성에 관련한 인터뷰 진행 · 비소나눔마을의 지속적인 Takeo지역 사업 및 KOICA사업 등의 –보장된 진행을 위해 MOU협약 일정 논의 · (국내) MOU협약을 위한 문서 및 현수막 시안 제작 · 주변 탐방 및 지역 청년 대상으로 무작위 서베이 진행
		9일(금): · Takeo에 있는 여러 마을들에 방문 –마을 내 교육자들을 방문하여 의견 조사 · 국가 공인 TVET기관인 RPITST 방문 –사업 소개 및 본 사업에 대한 국가 기관의 견해 인터뷰 협조 요청 · BBU와의 MOU협약식 진행 –MOU협약서 및 사진 참고 –비소나눔마을 사업 및 KOICA 본 사업 등을 지원하며, 협력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서에 양측 동의 서명 진행

	6월 5일~14일	10일 (토)	· Takeo에 있는 여러 마을들의 대표 이장 및 마을 청년리더들과의 간담회 · Takeo에 위치한 한국어 학원(고민학교)에 방문 · 그 동안 진행한 1차 서베이 자료 정리 및 주관식 번역 · 정리된 자료들 토대로 2차 심화 인터뷰 대상자 선별 · 선별된 대상자들에게 2차 심화 인터뷰 일정/장소 안내연락 · 인터뷰 시, 필요한 질문항 논의 · BBU과 2016-8월에 MOU를 맺은 후, 세워진 ·대학청년리더(BYSO-CV)를 대상으로 진행할 사업소개 및 간략한 교육 준비 · 프놈펜에서의 일정 체크 및 미팅/자문 기관들에 연락
		11일 (일)	· BYSO-CV에게 사업 소개 및 영상미디어 강연 워크샵 · 사업에 대한 대학청년리더들의 견해 조사, 서베이 작성 · BBU 2차 심층 인터뷰 대상자들과의 간담회 진행 · 프놈펜에서의 일정 체크 · 익일 미팅/자문 기관에 확인 연락, 필요한 서류 체크
		12일 (월)	· Takeo > Phnom penh으로 이동 · 영상미디어 전문 기관 방문 · 영상미디어에 관련된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교 방문 -사업 소개 및 전문기관 관계자의 의견 청취 -협조 가능여부 확인/요청 · 프놈펜 방송국 My tv 방문답사 -방송국에서 인력이 필요한 분야 -tm튜디오의 규모 및 시설 등 조사
		13일 (화)	
		14일 (수)	

No.	조사팀 인원	소속, 직책	역할
1	이지희	비소나눔마을, 대표	인큐베이팅 사전조사 총괄, 인터뷰 진행
2	이기송	영상미디어 및 PT 전문강사	전문영역 설명 및 간단한 강연 진행
3	최원진	비소나눔마을, 간사	현지조사담당, 서베이 진행, 미팅 기록
4	Nak Pechpiksey		한국어<>크메르어 통역

02 조사 항목 및 방법

	조사 항목	조사 방법	조사 기간
1	캄보디아 국가 전반 사항 및 범 분야 이슈	문헌조사	10일
2	캄보디아 국가개발전략	문헌조사	3일
3	캄보디아 Takeo 지역조사 (행정구역, 교통, 교육수준 등)	문헌조사 및 인터뷰	5일
4	사업수행 지역 내 타 기관 활동현황	문헌조사	3일
5	Takeo지역 청년 취업률	문헌조사 및 인터뷰	5일
6	지역 경제 관련 (주민 소득 수준, 급여 등)	문헌조사 및 서베이	10일
7	Takeo지역 대학교수 및 학생	설문조사 및 포커스그룹 반표준화 인터뷰	9일
8	Takeo지역 마을 주민	설문조사 및 포커스그룹 반표준화 인터뷰	3일
9	Takeo지역 교육청, TVET전문기관	문헌조사 및 인터뷰	14일
10	Takeo지역 영상미디어 수준	문헌조사 및 인터뷰	10일
11	Phnom penh지역 대학기관 (영상미디어학교 有)	문헌조사 및 인터뷰	9일
12	Phnom penh지역 미디어전문기관 (영상미디어 회사, 방송국)	문헌조사 및 인터뷰	14일

03 조사 결과 분석

가. 캄보디아 일반 현황

1) 역사적 배경

- 1431년 이후, 샴과 베트남의 침략 및 간섭으로 인하여 국력은 약해졌고, 1864년 두 이웃국가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진하여 프랑스 보호령으로 편입한다. 1951

년 캄푸치아공산당은 중국 문화대혁명을 따라 극단적인 사회주의 정책을 펼쳐갔고, 전쟁과 내전 속에서 지금의 민주 캄푸치아당이 세워졌다.

- 앙코르 이전시대의 주요 유적지가 많은 Taeko주는 '캄보디아 문명의 요람'이라 불린다. 기원전 500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유적지가 있으며 크메르 문명의 발상지로 보고 있다. 수백 개의 사원들이 있으며 불교 승려들이 종교의례가 있을 때마다 찾아오기 때문에 승려들이 머물 수 있는 거처와 학교가 많이 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캄보디아 문명의 뿌리로 관광객 유치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2) 정치·사회 상황

- 지난 10년간 소득이 크게 증가추세에 있으나 인간개발 성취는 186개국 중 136위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09~2013년까지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과 함께 빈곤퇴치를 목적으로 다각화전략을 재수립하여 실천해왔다.
- 연 강수량이 1,076mm정도이며, 농업이 주된 생계수단으로써 농부 및 관개 기술에 뛰어난 장인들이 대다수 거주하고 있다.[01]
- 세계 많은 나라에서 ODA자금을 원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관료주의의 악습 등으로 인해 빈부격차는 날로 커져가고 교육, 의료 인프라 등 여러면에서 부족한 실정이다.

3) 인구 수[02]

- 캄보디아 총 인구수는 15,417,100명이며, 그 중 Takeo주의 인구수는 924,758명으로 캄보디아 총 인구의 6.4%를 차지하고 있다.

4) 경제 상황(환율, GNI, 월 평균 소득 등)

- 캄보디아의 화폐단위는 리엘이며, 미국 화폐 1달러당 4,000리엘에 해당한다.
- 2011년 기준 캄보디아의 GNI는 약 $838 정도이나[03], 2016년 Unicef의 통계자료 기준에 따르면 Takeo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1,020이다. 이처럼 2011~2015년까지 매년 7%를 상회하는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개발도상국 기준에 따라 하루 평균 소득이 $1.90 정도인 저소득 계층인 약 6%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04].

5) 교육 현황

- 캄보디아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경제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사회개발을 이끌어 오고 있다. 하지만 지역 간 불균형 발전으로 실업, 저임금, 빈곤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적인 개발 계획이 수립되었다. 그 중 인적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으며, 이를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바라보고 있다. 정부는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는 교육발전정책(2003~2015) 아래 열악한 교육환경의 개선을 통한 평등하고 보편적인 교육의 제공을 위한 노력과 기술직업교육훈련(TVET: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ning)에 의한 실질적인 직업훈련으로 숙련인력 양성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고등교육발전정책(2010~2013)은 교육의 공정한 접근성 강화, 고등교육의 질적 개선, 고등교육 기관의 역량강화 등을 목표로하여 과정의 다양화와 커리큘럼 개발 및 인적자원에 대한 지원으로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교육개발 원조가 초등교육에 집중되어 있어 고등교육 체제의 구축이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 초등교육 6년을 마치고 주(州) 단위에서 시행하는 졸업시험을 치룬 후 중학교에 진학하게 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을 마칠 때마다 교육부에서 출제하는 졸업시험을 치룬 후 합격시엔 졸업장을 받게 되지만, 불합격할 경우에는 수료증만을 받게 된다. 졸업시험의 결과에 따라 장학금 수혜의 정도가 정해지고 진학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중학교 졸업시험에 합격할 경우엔 고등학교 진학 대신 TVET을 위한 직업훈련원에 진학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상위교육의 비전문성과TVET이 노동시장으로의 전환에 실패하면서 교육정책의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로인해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장년들이 경제활동 주체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늘어나는 실업률로 인적자원을 낭비·방치하고 있다.

01 Introduction of Takeo province_History of Takeo.pdf

02 캄보디아 인구현황, https://dhsprogram.com/pubs/pdf/FR312/FR312.pdf
http://www.stat.go.jp/info/meetings/cambodia/pdf/rp13_ch20.pdf

03 http://nidm.gov.in/easindia2014/err/pdf/country_profile/cambodia.pdf

04 Unicef statistics about literacy rate_SOWC-2016_all-tables_261.xls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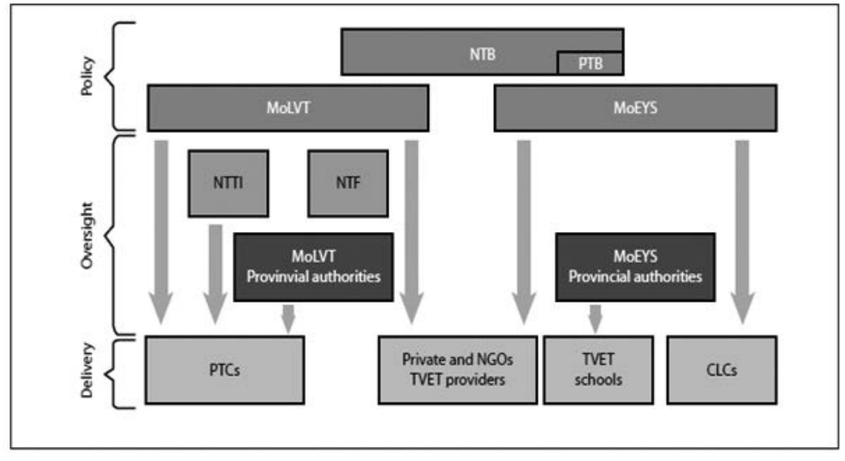
구분		과정	진학여부
유치원		1년	3~5세
초등학교		6년	수료증 부여. 주마다 출제
중등학교		3년	졸업시험에 통과하면 수료증 부여받고 고등학교 진학
고등학교	기술직업 교육훈련 (TVET)	3년	과정이수 후 큰 시험. 우수한 학생은 대학교를 선택, 장학금 수혜, 졸업장 받음
대학교		4년(학사) 2년(석사)	학사과정에서 인문학부 학생은 크메르문학을 반드시 이수 해야 한다. 자연학부 학생은 수학을 이수해야 함. 공립대학교(Royal University of Phnompenh)는 하나임.

◎ [표1] 캄보디아의 교육제도

나. 캄보디아 TVET자격 증명 프로그램

1) 2008년 10월에 부총리가 서명한 Prakas(sub-decree/준포고령)는 DGTVET(Department of Labour Market Information)에서 노동시장관련 정보 및 통계자료를 제공하도록 하여 캄보디아 노동 시장 정보수집 시스템이 운영되기 시작했다. 또한 2009년 NTB는 노동시장 관련 정보 소위원회(sub-committee)를 신설하여 노동시장 정보 체계를 기획하고 실행했다. 추가적인 정보는 MoLVT (Ministry of Labour and Vacational Training)의 Department of Planning, Statistics, and Legislation에서 구축한다. 공식적인 TVET프로그램은 주로 기술전문 학교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총 14개의 담당 학교 및 기관이 있다. 비공식적인 훈련 프로그램은 Provincial Training Centres(PTC), Community Learning Centres(CLC), NGOs, 기업 등이 제공하고 있다. 2005년부터 DGTVET 산하기관인 MoLVT가 TVET을 담당하고 있고, 비공식적인 단기간 직업 훈련은 사회복지부(Ministry of Social Welfare)가 담당한다. 공식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이 현재로써는 없기 때문에 사업체, NGO가 자유롭게 MoEYS 또는 MoLVT에 공식적인 프로그램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05].

05 http://unesdoc.unesco.org/images/0022/002253/225360E.pdf



◎ [그림 1] 캄보디아 TVET기관 구성

2) 위 정보를 토대로 캄보디아에서 TVET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서 NGO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추가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06].

- 캄보디아 학생들이 교육과정에서 진학 방향을 TVET프로그램으로 선택한다. 캄보디아에서는 9학년을 마친 후, 상위 2차교육으로 진학하거나 또는 TVET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12학년(상위 2차 교육)을 마친 후에는 대학진학 EH는 직업교육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직업 교육은 최소 1년에서 3년까지의 기간이 소요된다.
- 비공식(non-formal) TVET프로그램: 이는 단기수업(Short Course)를 지칭한다. 단기수업은 실용적인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며 1년 미만의 기간을 두고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비공식 프로그램을 다양한 단체와 개인이 제공할 수 있으며, NGO가 그 중 하나이다. NGO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공식적인 자격증명을 위해서는 교육청(Ministry of Education, Youth and Sports) 또는 노동청(Ministry of Labour and Vocational Training에서 신청할 수 있다.

06 ILO Report, 2011: A Framework for sustainable TVET Public Private Partnerships in Cambodia

Levels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Higher Education	General Education
8	Doctoral Degree	Doctoral Degree	
7	Master's Degree of Technology/Business	Master's Degree	
6	Bachelor of Technology/Engineering/Business	Bachelor's Degree	
5	Higher Diploma of Technology/Business	Associate Degree	
4	Technical and Vocational Certificate 3		Upper Secondary Certificate
3	Technical and Vocational Certificate 2		
2	Technical and Vocational Certificate 1		
1	Vocational Certificate		Lower Secondary Certificate

◎ [그림 2] Kingdom of Cambodia, Cambodia Qualifications Framework, 2012.

다. 캄보디아 및 Takeo지역 구인/구직 현황

직업의 분야에 상관없이 캄보디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인 수는 3,496명, 구직 수는 5,291명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직난을 겪고 있다[07]. 그 중 Takeo에서의 구인 수는 11명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11명에 해당하는 구인은 어느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캄보디아 청년들 사이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다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Takeo의 구인 자료를 조사해 보았다. Sales, Management, Accounting/Finance, Customer Support, Research/Development, Marketing, NGO 등 총 24개의 회사에서 구인을 하고 있었지만, 영상미디어에 관련된 곳의 구인은 없었다. 미디어 관련 회사나 구인 수요는 프놈펜에 집중되어 있기는 하나[08], 실제로 캄보디아의 국가전략개발계획[09]에 제시되어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개발전략 중 '도시지역의 통신망 확장 및 중소도시, 농촌지역으로의 확대, 정보언론매체(라디오, TV 및 신문) 서비스의 질적 제고 및 효율성 향상, 서비스 영역확대' 등의 내용에 따라 본 사업을 기획했기에 지역의 방송/통신 수준을 좀 더 조사해보았다.

라. 캄보디아 및 Takeo지역 방송/통신 수준

캄보디아에는 TV3, TV Channel 5(TV Fark), TVK(National Television fo Cambodia), CTV9(Ca-mbodian TV Station Channel 9), Aspara TV, CTN(Cambodian Television Network), TV5(TV Cing), Bayon TV, MYTV, SEATV, CNC TV, Heng Meas TV, CTV8, BTV News(Bayon News TV), PPCTV(Phnom Penh Municipal Cable TV), One TV 등 총 16개 정도의 방송을 송출하는 회사가 있다. 각각 여러개의 채널을 소유하여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데 그 수가 약 90개 정도이다. 대부분이 Phnom Penh과 그 주변 주(州)에 밀집되어 있으며, Takeo는 그 중 단 2개만을 차지하고 있다. 방송 채널의 송출은 회사가 다수 분포되어 있는 수도 Phnom Penh에 밀집되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 Takeo에서 2개의 채널이 송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보았을 때, 앞으로 영상(방송) 미디어 분야의 발전을 이루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 영상/미디어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견해

국가전략개발계획이나 Takeo지역의 방송/통신 수준에 대한 정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의 인지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이와 관련된 교육이 있기는 한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등 현지의 상황과 다양한 견해를 얻기위해 사전조사 기간 동안 최대한 많은 집단을 만나기 위한 일정을 세워 조사를 실시하였다.

1) TVET운영에 직접 관련이 있는 기관

가) 조사 방법: 직접 관찰 및 인터뷰

나) 조사 내용

(1) RPITST(Regional Polytechnic Institute Techo Sen Takeo) 총장, 부총장 인터뷰

· 일자: 2017년 06월 09일

· 참석: 이지희 대표, 이기송 강사, 최원진 간사, Nak Pechpiksey 통역사, RPITST 관계자(Pan Nora, Thou Sopheap)

· 내용:

– RPITST는 국가로부터 TVET인증을 받는 노동청의 직속 기관으로 잡센터를 운영.

– 여기에서도 짧게는 3~6개월 단기과정으로, 길게는 2~4년제의 과정으로 8개의 과목(IT, 건축, 자동차정비, 전기, 회계, 영어, 농업, 수의)을 교육하고 있음. 그 중 IT 교육으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래픽디자인, 편집(프로그래밍), 미디어 등을 가르치고 있음.

– 하지만 처음에 비소나눔마을에서 이메일을 통해 간략한 소개를 들었을 때, 이 곳

07 캄보디아 구인/구직 수, http://www.nea.gov.kh/nweb/en/jobshop/jobshop

08 http://camhr.com/pages/jobs/index.jsp?categoryId=10

09 KOTRA 프놈펜 무역관

에서 부족한 교육들을 더 상세히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반갑게 미팅을 하고자 생각하였음.

- 직접 설명과 리플렛 등 소개를 듣고 나니, 이 사업이 꼭 실행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 이유는 비소나눔마을에서 우리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기 때문.
  :Takeo지역에서 영상미디어 분야가 발전할 필요가 있고, 그를 위해 청년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취업률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잡센터도 함께 운영이 되는 것은 교육을 마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거나, 외국 공장 혹은 회사에서 직원 요청이 들어올 경우 연결해주기 위함. 하지만 이곳에서 진행하는 교육은 너무 기초적인 단계라 취업으로 이어지기엔 역부족. 따라서 비소나눔마을에서 말하는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교육이 제공되어지길 희망.
  (잡센터는 TVET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음)
- 여기에는 TVET ISO(인증서)가 있으며, RPITST에서는 두 번의 인증을 받았음. 여기는 Regional이므로 Kandal, Kampong Speu, Kampong Chhnang 등 4~5군데의 학교를 커버.
- TVET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노봉부에서 발행하는 방법도 있으나, RPITST가 TVET의 직속기관이므로 이곳에서 스킬을 발행하는 방법으로도 인증을 받을 수 있음. Short/Long term course 모두 이 곳을 졸업한다면 인증 가능
- NGO가 TVET운영기관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음. 첫째, 노동부에가서 NGO등록을 하는 것. 둘째, 우리와 MOU 혹은 MOA와 같은 협력을 통해 파트너쉽을 형성하여 운영을 하는 것. 우리는 월드비전이나 스위스랑도 함께 일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며, KOICA에서 사업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문서가 있다면 돕겠음.

[***참고자료: From. RPITST - To. KOICA 영문서신]

-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영상미디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음. 따라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교육을 발견하여 제공하고자 장비나 장소를 마련해두었으나 강사의 실력이 제한적이었음. 따라서 비소나눔마을에서 실제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경우, 협력은 물론 장소를 제공해줄 수도 있음

(2) Takeo지방 교육청 관계자

· 일자: 2017년 06월 08일

· 참석: 이지희 대표, 이기송 강사, 최원진 간사, Nak Pechpiksey 통역사, 교육청관계자(Uy.Sam Ath, Chhel sithan, Chan Vannalx, Yon Yong)

· 내용:

- 이전에 KOICA와 함께 미팅을 해봤고, 교육쪽으로 같이 협력한 적이 있었음. 여타 기관들과 협력했던 경험을 토대로 비소나눔마을의 프로그램을 견주어보았을 때,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 생각됨. 요즘 캄보디아 청년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쓰고 있고, ICT도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 이제는 컴퓨터나 미디어 방향으로 기술이 없다면 아세안연합과 같은 곳에 들어갈 수가 없음. 따라서 이와 같은 전문적인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기쁘게 도울 의향이 있음.
- Takeo지역에서 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교육청)와의 관계가 중요하며, MOU를 맺게 된다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생각됨. 이 전부터 MOU협약에 관련한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준비가 진행되고 있던 중이라면 약속하게라도 이번 기간 중에 협약식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함.
- 2017-06-09 오후에 MOU협약식 맺기로 약속.

[***참고자료: MOU협약서 사본]

2) 이해관계자 조사

가. 조사 방법: Survey 및 인터뷰

나. 조사 내용

(1) Takeo지역 소재 대학교 학장 및 교수진

· 일자: 2017년 06월 07일

· 참석: 이지희 대표, 이기송 강사, 최원진 간사, Nak Pechpiksey 통역사, BBU학장 및 교수진(Nhem Samuth, Sar Sohpeak, Mey Viveak, Seng Sarith, Kong Saroeum, Ven Veasna, Dao Chinmongra, Pin. Sopheal, Som Vuthy, Nhem Chanthou, hang Sopha)

· 내용:

- 2016년 8월 MOU협약을 맺은 이후, 여러 가지로 잘 협조해주셔서 학생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BBU청년 리더들이 세워져 계속해서 소통하며 Takeo지

역의 발전을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나누고 있음. 이런 관계의 연장선으로 영상미디어 전문직업훈련 사업에서도 BBU를 중심으로 Takeo지역 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함.

- 캄보디아 및 Takeo지역 조사에 따르면 ICT분야, 컴퓨터 미디어분야가 발전하는 추세에 있고, 국가에서도 발전 방향에 대해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대해 학장 및 부학장님의 견해는 프놈펜에서의 수요가 높고, Takeo지역에서의 수요는 아직까지 높은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 현재는 은행직이나 마케팅 쪽으로 수요가 높은 상태. 그리고 만약 IT쪽으로 인력이 필요할 때에는 프놈펜에서 직원을 구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더욱 발전해 가게 될 방향을 고려했을 때에는 Takeo에서도 수요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생각함.
- Takeo지역에는 사진관, 미디어 촬영 업체 같은 것이 두 군데밖에 없고, 그 두 곳이 매우 크게 자리잡고 있다고 함. 왜냐하면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독점을 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청년들을 교육해주어서 창업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이 곳에서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될것이라 생각함.
- 교육에 필요한 공간이나 PC 등은 BBU에서 지원해줄 수 있음. 약 90대의 컴퓨터가 있는, 컴퓨터 교육실이 따로 있음. 이러한 시설이 갖추어진 지는 약 2년정도 되었고, i5코어의 컴퓨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빔프로젝트도 설치되어 있음. 모두 이용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전기세는 별도로 지출해주기를 부탁.
- 기관: 현재 주로 이용하는 미디어 사이트는 Youtube, Facebook인 것 같은데, 이러한 컨텐츠를 십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알려주고자하는 것도 이 사업의 일부라는 점을 설명.

  BBU: Takeo지방은 인터넷이 너무 느려서 Youtube를 보고 싶어도 보기 힘들고, 어떤 지역에서는 아예 볼 수가 없음. 따라서 주로 라디오를 많이 듣게 됨.

  기관: 미디어교육의 포인트는 미디어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하는 것.

  BBU: 생산의 의미는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것? 그렇다면 이익을 얻을 수도 있는지?

  기관: 올리는 업로드 위치에 따라 다름. Youtube의 경우엔 광고수입을 얻기도 하지만 Face
- book은 광고 수익 시스템이 되어있지 않음.

  BBU: 그런데 Youtube를 통해 돈을 잘 벌면 해킹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음. 해킹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따로 있는지?

- 대화 내용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미 영상미디어에 대한 다양한 관심이 생기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수익 활동을 하는 것까지 연장선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Takeo에서 스마트폰 사용률이 증가하면서 주된 SNS인 Youtube와 Facebook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는 했으나, 그 역시 아직은 초입단계라는 점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요소였음.
-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중에 알 수 있었던 사실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이었음. 이에 대해 BBU 소속 교수는 대화하는 중에도 새롭게 알게 되는 사실들이 많이 있다며, 비소나눔마을에서 기획하는 교육이 제공된다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함.
-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을 촬영해서 Youtube에 올려줄 수 있는지를 문의하며, 이미 교수생활을 하고 있는 교수진들 역시도 영상미디어 교육을 듣고 싶다고 희망함.

(2) Takeo지역 주민(마을 이장, 학부모 등)

· 일자: 2017년 06월 10일

· 참석: 이지희 대표, 이기송 강사, 최원진 간사, Nak Pechpiksey 통역사, 한선종 선교사, 마을이장 12명, 지역 청년리더 7명

· 1차내용: [Survey 자료 분석]

- Takeo의 주민들에게 청년들을 위한 전문적인 직업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러한 교육이 지역 발전으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기대하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마을 이장님들 중, 문맹인 사람을 제외한 9명을 대상으로 설문 실시)

◎ <객관식 문항> _ 일반질문들을 제외, 사업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문항만 추려냄

질문.
① 취업을 위한 전문적인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더욱 제공되길 희망한다.
② Takeo에서 영상미디어가 점차 발전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③ Takeo에서 영상미디어가 발전한다면, 지역 성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④ 영상미디어 분야에서 일하는 것이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또는 개인소득 수준을 높이는 데 기대할만하다고 생각한다.

⑤ 가까운 거리 내에서 영상미디어 분야로 진출하기 위한 전문직업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그것이 잘 정착하고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의향이 있다.
⑥ Takeo에서 영상미디어 관련 회사를 창업한다는 것은 새로운 도전이며, 해볼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 모든 문항에 대해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답변으로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음.

◎ <주관식 문항>

질문.
① Takeo지역의 영상미디어 발전에 대해 기대하는바
답변.
◦ 캄보디아 Takeo 영상미디어가 순조롭게 발전되었으면 좋겠음 ◦ Takeo 영상미디어가 발전해서 나라 개발 및 일자리가 생겨, 가족을 키울 수 있 기를 기대 ◦ 앞으로 이 영상미디어 교육을 통해서 청년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람 ◦ 차세대 청년들과 아이들이 많이 발전되었으면 좋겠음

질문.
② 영상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것이 있다면
답변.
◦ 청년들이 취직을 통해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람 ◦ 캄보디아 청소년들에게도 전문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줄 수 있으면 좋겠음 ◦ 국가 개발에 기여하기 위한 지식을 얻을 수 있길 ◦ Takeo의 영상미디어 분야가 더욱 커졌으면 좋겠음

· 2차내용: [그룹 인터뷰]

– 캄보디아에 미디어 교육 시장, 미디어를 통한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는지, 이에 대한 교육을 진행함에 있어서 청년 자녀들을 적극 지원해줄 수 있는지 등을 논의

– 마을 주민들 역시도 Youtube에 대해 관심이 많았으며, 영상미디어 소재를 통해 수익 활동을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와 같은 문의를 많이 주었음.

– 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을 소개하자 아래와 같은 문의들을 주었음

•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서 신청비가 필요한지
• 프로그램은 무슨 요일, 몇 시에 진행될 예정인지
• 교육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 연령에 제한이 있는 것인지
• 교육에 참여하려면 컴퓨터, 영어에 능통해야 하는지
• 교육이 진행되는 위치가 어디인지, 혹시 교통비 지원이 있는지

– 마을 주민들의 걱정 중 대부분이 주된 생계 수단인 농업과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었음. 청년 자녀들을 적극 지원해주고자하나, 일손이 필요한 것도 현실이기에 걱정을 안 할 수는 없다고 함. 하지만 자녀가 원하고, 정말 도움이 된다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협조하기로 함.

3) 수혜 대상 조사

가. 조사 방법: Survey 및 인터뷰

나. 조사 내용

(1) Takeo지역 청년 세대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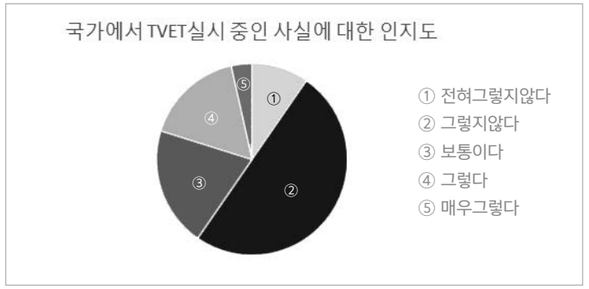
· 일자: 2017년 06월 07일

· 참석: 이지희 대표, 이기송 강사, 최원진 간사, Nak Pechpiksey 통역사, BBU학장, 학생 85명 (2차에서는 이 중 11명 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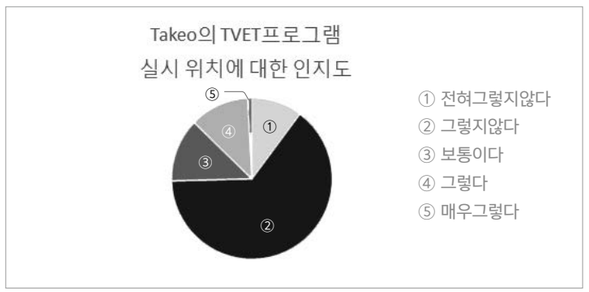
· 1차내용: [Survey 자료 분석]

– TVET에 대한 관심/인지도

설문 항목 중, '국가에서 직업훈련(TVET)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는 문항에 청년 114명이 답을 했고, 그 중 50%인 57명이 잘 모르고 있다는 답변을 주었음.



- Takeo에서 TVET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기관이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대한 인지도



설문 항목 중, 'TVET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기관이 Takeo 어디에 위치하는지 안다.'는 문항에 청년 118명이 답을 했고, 그 중 약 64.4%인 76명이 잘 모르고 있다는 답변을 주었음.

◎ <객관식 문항> _ 일반질문들을 제외, 사업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문항만 추려냄

질문. 영상미디어 발전에 대한 기대
① 캄보디아 국가개발전략 중, 지방 영상(방송)·미디어 발전에 대한 전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② Takeo에서 영상미디어가 점차 발전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③ Takeo에서 영상미디어가 발전한다면, 지역 성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④ 영상미디어 분야에서 일하는 것이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또는 개인소득 수준을 높이는 데 기대할만하다고 생각한다.
⑤ 가까운 거리 내에서 영상미디어 분야로 진출하기 위한 전문직업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그것이 잘 정착하고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의향이 있다.

- 국가 및 Takeo지역에서의 영상미디어 발전에 대해 청년들 역시 인지하고 있었으며, 모든질문에 대해 90% 이상이 긍정적인 답변을 주었음. 특히 질문③에 대한 답변은 약 99%가 그렇다 혹은 매우그렇다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보아, Takeo지역의 영상미디어 발전이 지역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됨.

질문. 교육을 통한 취업/창업에 대한 열의
① 제공될 전문직업교육 프로그램이 유료로 실시된다 하더라도, 나에게 필요하다면 얼 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
② 만약 영상미디어 분야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타지역으로 이동이 필요하다면, 그 렇게 해서라도 취업을 시도하려는 마음이 있다.
③ 취업을 위해 타지역으로 이동하기는 어렵고, 주면의 도움이 있다면 지역 내에서 창 업을 시도해 볼 의향이 있다.

- 교육은 현재로써 KOICA 본 사업에 선정되는 것을 통해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으나, 청년들의 열의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유료실시'에 대한 질문을 제시하였음. 금액을 지출해야한다는 점에서 주춤하는 경향이 더러 있었으나 115명의 답변 중, 3보통이다~5매우그렇다까지가 약 86%로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기대하는 것을 알수 있었음.

- 또한 영상미디어 분야로 취업 진출을 위해 타지역으로 이동을 감내하거나, 가능하다면 Takeo지역 내에 창업도 시도해볼 수 있겠다는 답변이 모두 약 96%로 동일한 결과를 보였음. 이를 통해 단순 관심/취미를 넘어, 전문가로써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주관식 문항

질문.
① Takeo지역의 영상미디어 발전에 대해 기대하는바
답변.
◦ 다른 SNS를 통해서 사람들이 지식을 얻고, 앞으로의 Takeo 영상미디어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 ◦ 홍보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고, 사람들이 필요한 지식을 얻고 성장할 수 있을 것 ◦ Takeo 사람들도 영상미디어를 이용하는 방법을 많이 알게될 것을 기대함 ◦ 모든 지역에 홍보가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Takeo를 알 수 있게 되기를 ◦ Takeo 청년과 NGO를 통해 Takeo의 영상미디서 수준이 순조롭게 성장해가길 ◦ Takeo의 영상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정보가 시민들에게 전달되어지길 ◦ 영상미디어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차세대 청년들에게도 교육해줄 수 있기를 ◦ 사람과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으로 발전될 거라고 생각함. 가능성 있는 방송미디어 인의 전문 기술로까지 발전할 수 있게 되길 ◦ 수입이 증가하고, 지역의 상황이 더욱 나아질 수 있게 되길 ◦ Takeo에 지식인이 많이 늘어나길 바라며, 영상미디어 분야의 발전을 기대 ◦ 전문직업을 얻게됨으로써 돈을 잘 벌 수 있게되길 ◦ 선진국처럼 많이 성장하길 바람
질문.
② 영상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것이 있다면
답변.
◦ 광고 분야의 일을 해보고 싶음 ◦ 우리마을에서도 이 영상미디어 전문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홍보해주었으면 함 ◦ 개인적으로 돈을 잘 벌 수 있게 되기를 ◦ Facebook, Youtube 등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실력을 가질 수 있게 되길 ◦ 가족을 도와줄 수 있도록 앞으로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되길 ◦ 사진 촬영 전문가가 될 수 있기를 ◦ 전문적인 직업을 갖거나 취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람 ◦ 전문적인 직업을 얻어서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싶고, 급여도 많이 받고 싶음 ◦ 촬영 및 편집에 대한 전문 지식을 얻을 수 있길 ◦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을 알고 싶고,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볼 수 있길 ◦ 컨텍하기 쉽게 Takeo에서 방송/미디어 오피스가 오픈되기를 기대 ◦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게 되길 ◦ 업무에 필요한 진정한 능력이 갖추어질 수 있기를 ◦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여 자기개발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되길 ◦ 나만의 회사를 창업하거나 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회사에 취직하기를 희망 ◦ 앞으로 뛰어난 방송엔지니어 / 미이더 제작 전문가 등이 되고 싶음

· 2차내용: [심층 인터뷰]

-1차에서 진행한 서베이 중, 영상미디어 전문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 11명을 선발하여 왜 배우고 싶은지, 배워서 무엇을 하고자하는지 등 포커스 그룹 인터뷰.

-A: 영상(방송)미디어 분야의 직업을 갖고 싶음. 배워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싶음.

-B: 촬영에 관련된 전문적인 직업을 갖고 싶음. 사회에 관련된 영상을 찍어서 공유하고 싶음

-C: 이 전에 편집 관련된 공부를 했던 경험이 있음. 공부를 한 후에 사진을 촬영했을 때, 예쁘게 나와서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다고 생각하게 됨.

-D: 어려서부터 영상 촬영하는 것을 좋아했음. 촬영한 영상들을 잘 편집하고 다듬어서 나만의 영상물을 만들어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음. 따라서 전문적인 촬영/편집 기술을 배우고싶음.

-E: 사진사, 촬영기사에 관심이 있음. 현재 NGO에서 일하고 있는 촬영 엔지니어로부터 배우고 있기는 하지만, 비소나눔마을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를 희망.

4) 사업 관련 전문기관 조사

가. 조사 방법: 인터뷰 또는 자문

나. 조사 내용

(1) The Comzone(Directions)

· 일자: 2017년 06월 12일

· 참석: 이지희 대표, 이기송 강사, 최원진 간사, Nak Pechpiksey 통역사, Lundy so(CEO), Pisey Lim, Socheat kong, Seng onn

· 내용

-Comzone과 Directions는 자매회사로,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움직이게 됨. Comzone은2010년도에 설립되어 모든 광고를 커버하고 있으며, 100% 자립회사로써 국제 대회에서 상을 15개를 받기도 함.

-그룹 내 멤버가 현지있도 있고, 외국인도 있어서 모든 일을 작업할 때에는 모두의 아이디어를 모아 creative하게 구상하고 진행함. 광고, 디지털,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디자인, 지방홍보도 진행하고 있음. 최근에는 갤럭시 S8을 캄보디아에서 광고하기도 했음.

-캄보디아 미디어의 종류는 Traditional / Digital로 나눌 수 있음. Traditional에는

Tv, 신문,잡지, 빌보드, 라디오 등의 광고를 말하고, Digital은 말 그대로 온라인, 소셜미디어 등에 광고를 넣는 것을 말함. 지금은 Traditional에서 Digital로 넘어가는 과도기로써, 4~5년쯤 후에는Digital 시기가 올 것으로 예상함.

-비소나눔마을의 사업 소개를 들은 후:

- Comzone: Phnom penh은 캄보디아 미디어의 No.1이지만, Takeo지역을 대상으로 교육한다는 것이 조금 의외인 듯 함. 하지만 캄보디아 미디어 시장의 발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인적자원의 개발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영상미디어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려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함. 그런데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마치고 취직을 못하는 사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Comzone에서는 인턴을받기도 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다면 직원으로 채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해도 좋을 듯 함.
  기관: 우리도 그냥 가르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TVET인증 과정을 거치고, 취업이나 창업까지 연계해주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조사하는 중에 있음. 하지만 먼저는 제대로 된 커리큘럼으로 청년들에게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혹시 추천해줄만한 강사가 있는지
  Comzone: 촬영/편집 분야의 강사라면 후에 일정이 세워졌을 때 구해보도록 하겠음
  기관: 인턴의 근무시간 및 월급은 대략 얼마정도 인지
  Comzone: 하루 8시간 정해져있지만, 프로젝트에 따라 그 이상으로 일하는 경우도 더러 있음. 주말에는 쉬고, 12~1시는 점심시간으로 정해져 있음. 급여는 많이는 못 주고실력에 따라 주는데 보통 $200~400 정도이나, 1년마다 급여를 상향조정함.
- 메일로 컨텍왔을 때도 생각했으나, 리플렛을 보면서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었음. 이런 직업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함.

(2) Studio4 Production

· 일자: 2017년 06월 13일

· 참석: 이지희 대표, 이기송 강사, 최원진 간사, Nak Pechpiksey 통역사, Meas Raksmey

· 내용

-왕립프놈펜대학 DMC(Department of Media Communicatio)전공으로 학사를 나와서 독일에서 MASTER 학위를 받으며 미디어를 전공함.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2년 전에 Studio4 Production을 설립하게 되었음. 왕립대학에서는 기사 작성에 집중 교육을 받았고, 촬영/편집관련된 전문 교육은 주로 독일에서 배웠음.

-Studio4에서는 미디어 포토그래프, 오디오 등을 운영하고 있음. 건물 내에 촬영 스튜디오가있고, 범위가 클 경우에는 외부 스튜디오를 이용하기도 함.

-직원 구성

직책	인원수(명)	직책	인원수(명)
Cofounder	5	Administrator	1
Finance	1	Editor	4
Writter(Tv Drama)	3	Director of photography	3
Director	1	Producer	1
Production assistance	2	Project staff	10

-회사가 설립된 지는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프리랜서로 활동할 때 강의를 진행하기도 했고,cofounder들과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진행하기도 했던 경험을 살려서 많은 작업들을 진행 중.

-캄보디아에서 영향력있는 방송국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1순위 CBS / 2순위 BOYON TV / 3순위 Heng meas / 4순위 PNN

-비소나눔마을 사업 소개를 듣고난 후: 자문가 역시 Takeo에서 Phnom penh으로 진출한 사람으로써 Takeo청년들이 영상미디어 분야로 취업 혹은 창업을 하기 위한 조언을 많이 줌.

- 현재 Studio4 Production의 경우는 아래와 같은 인적 자원을 필요로 하고 있음
  촬영 2명 / 편집 3명 / Assistance 2명 / 인턴 2명
  하지만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음. 따라서 비소나눔마을에서 기획하고 있는 전문 직업교육을 통해 많은 인재가 배출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함.
- 혹시 추가로 Make Up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생각은 없는지. 촬영/편집은 남자들에게 적절한 분야이지만, Make up은 여자들이 종사하기에 적절한 분야가 될 수 있음. 성별의 균형도 필요하고, 영상미디어에 있어서 분장은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해보면 좋을것 같음.
- 교육기간이 6-9개월 정도라면 충분히 기본적인 것부터 전문적인 부분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에 비소나눔마을로부터 메일 컨텍을 받았을 때 매우 반가웠었음. 따라서 이런 아이디어는 회사 입장에서 5-6개월만 교육받고 오더라

도 인턴쉽을 제공할 수 있을 만한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기관:** Takeo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교육을 진행한다면 잘 할 수 있을지

Studio4: 본인도 Takeo가 고향임.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 어디를 가야할지 몰라 Phnompenh으로 오게 되었음. Takeo에서 졸업하더라도 그 곳에는 일자리 자체가 별로없음. 따라서 Takeo에서 청년들에게 전문적인 직업교육이 제공된다면 기회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함. 만약 필요하다면, Studio4에서도 인턴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음.

기관: Takeo에는 방송국이나 영상관련 회사가 없는 것 같은데, 맞는지

Studio4: 없음. 만약 Takeo 쪽에 인적 자원이나, 장비 등이 준비된다면 일의 범위가 충분히 확장될 가능성이 있음. Studio4만해도 일을 분할하여 Takeo에 나누어 줄 수 도있고, Editor 편집은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없음. 회사들 대부분이 프로젝트를 받아서 작업하기 때문에 Takeo 역시도 교육을 받아 일하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함.

기관: Takeo를 벗어나지 않고, 취업/창업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거라 생각함. 만약 학생들이 창업을 하고자 한다면 멘토로서 도와줄 수 있는지

Studio4: 물론임. 이 곳을 세울 때,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서로 협력하자'라는 생각으로설립했음. 따라서 창업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멘토가 되어줄 수 있고, 실제로창업하게 된다면 우리의 프로젝트 일부를 Takeo로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winwin하는 전략이라 생각함.

기관: 세부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진행하기 위한 강사도 함께 알아보는 중

Studio4: 이쪽에 촬영, 편집 등 전문 staff 들이 있음. 스케줄을 알려준다면 보낼 수 있음.

Studio4를 처음 설립했을 때에도 트리이닝 프로그램을 2~3주 정도 운영했었고,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사람들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했으며, 잘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고용하기도 했음. 만약 커리큘럼에 대한 의견도 필요하면 제공해줄 수 있음.

수준에 맞게 함께 커리큘럼을 고민해줄 의향도 있고, 강사도 어떤 조건으로 필요한지 이야기해주면 그에 맞는 사람으로 보내줄 수 있도록 하겠음

(3) Blue Media Films

· 일자: 2017년 06월 14일

· 참석: 이지희 대표, 이기송 강사, 최원진 간사, Nak Pechpiksey 통역사,

Lim Chanphirun, Oum Sokkhoeun

· 내용

-블루미디어는 신호등의 파란불처럼 멈추지 않고 성장한다는 의미로, 5명의 co-founder가 힘을 합쳐 2014년에 설립하여 활동하고 있음.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본 기업은 사기업 형태이기는 하나 사장님의 마인드가 사회공헌에도 있어서 CSR(Cooperate Social Responsibility)로 블루미디어의 매출 중 일부인 5%는 아이들이나 소외계층을 위해 자선활동을 하고 있음. 클라이언트 중에는 월드비전이 포함되어 있기도하고 정부, NGO, 사기업 등등 다양한 대상으로 학교나 커뮤니티와 같은 곳을 찾아가사회공헌을 진행하고 있음. 2015년에는 고아들을 Phnom penh에 모아서 책, 가방, 옷, 음식을제공하며 CSR활동을 엄청 크게 진해하기도 했었음.

-캄보디아는 CSR활동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써 당연시 여겨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장님의가치관이 그쪽에 많이 쏠려있음. 따라서 Local에 있는 인적 자원을 고용하고자 하기도 함. 알다시피 캄보디아에는 인적자원이 별로 없음. 관련 학과 졸업생이라고 해도, 25~30명/year 정도밖에 안됨.

-자문가는 Limkokwing 대학교의 패션학과를 졸업했음. 이후 Pannasastra에도 학과가 생성됨.불과 5년 전만해도 이와 같은 학과가 없었으나, 캄보디아의 미디어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이쪽분야의 발전도 점차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90년도쯤에는 미디어는 물론 영어도없었기 때문에, 미디어 시장의 발전 속도를 인적자원 개발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봄

-비소나눔마을의 사업소개를 들은 후: 프로그램의 목적이나 취지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함. 하지만 세부적인 커리큘럼이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 아직까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후에 커리큘럼을 세울 때에는 청년들의 현재 실력을 감안하면 좋을 것 같음. 미디어 쪽은 이론 뿐 아니라 스킬이 중요하기도 하므로 조화로운 구성으로 커리큘럼이 세워지면 더욱 좋을거라 생각함.

- **기관:** 만약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받은 학생들이 이곳에서 인턴 경험을 할 수 있을지

Blue: 물론. 인턴을 받을 수 있음. 인턴으로 하면서도 경험을 쌓게 되면 후에 Quality Test를 통해 실력을 확인하고 직원으로 채용까지도 가능할 수 있음. 우선은 기초적인 것만이라도 배울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함. 기초가 있으면, 이곳에서 인턴으로근무하는 동안 실무적인 것을 가르쳐줄 수 있기 때문에 준비만 된다

면 받아들일 수 있음.

⑷ MYTV _ 방송국

· 일자: 2017년 06월 14일

· 참석: 이지희 대표, 이기송 강사, 최원진 간사, Nak Pechpiksey 통역사, Yin Visak, Kim Rothen

· 내용

-MYTV는 CBN 밑에 있는 방송국으로 청소년 및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제작하는 회사이며, 때문에 그 연령층으로부터 인기가 많음. MYTV에서는 뉴스 방송을 제외하고 교육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등을 많이 송출함

-캄보디아에서는 현재 태국 1위, 인도 2위, 한국 3위의 드라마 인기순위를 보이고 있음. MYTV에서는 국가별 드라마를 방영하고 있으며, 한국 드라마의 경우 전쟁 드라마가 인기가 많음.

-MYTV내에서도 프로덕션팀 TMS(Talent Managment Service)가 존재함. 아직 캄보디아에는연예인 Agency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로, TMS를 생성한지도 2~3개월 정도밖에 안됨.하지만 TMS를 만들게 된 이유는 청소년들이 '캄보디아 사람이 직접 만든 노래'를 많이 듣기때문. 또한 관광 인적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만들게 되었는데, 예상하기로는 빠른 성장을 이루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함.

-캄보디아 미디어 산업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는 추세이고, 젊은 세대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여러 SNS매체를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중요한 과도기에 접어들었으나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함.

-비소나눔마을의 사업소개를 듣고난 후: 소개한 프로그램 및 교육을 받게 된다면, 방송국에서일할 수도 있고 Agency(영상을 만들어서 기업에 주는 회사)와 같은 곳에서도 일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음. 현재 캄보디아 미디어산업이 많이 성장하고 있는 반면 인적 자원이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이 필요함.

- 자문가(Visak)는 지난 5월에 BCM의 초청을 통해 한국 부산으로 디지털 트레이닝을 받기 위해 출장을 갔고, 영화 컨텐츠 박람회도 다녀왔음. 한국은 미디어 소비가 상당히 많은 것 같고,국가적인 사업으로 크게 생각됨. 캄보디아도 국가적인 사업으로 점차 성장 중이기 때문에 발전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임.
- **기관:** 문헌 조사를 통해 Takeo청년들에게 영상미디어 전문 교육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강 사를 여기저기 찾아보고는 있지만, 관련된 학교가 Limkokwing, Pannasatra, RoyalUniversity 외에는 관련 학과를 가진 곳이 없는 것 같음.

MYTV: 맞음. 캄보디아 프놈펜이라고 하더라도 미디어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음.트레이닝 프로그램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직원 하나가 그만두게 되면 새 직원을 구하기가 그만큼 힘듦.

기관: 혹시 Phnom penh에 있는 강사를 섭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MYTV: Production Agency에서 구할 수 있을 것 같음.

- 비소나눔마을의 사업을 통해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관련된 직업으로의 진출 기회 또한 생기길 바라며 MYTV에서 인턴을 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을 때, 직원이든 인턴이든 가능하니 요청하라고 함

04 변화의 영역

가. 주목 분야

1) 캄보디아의 국가전략개발계획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을 농촌지역으로까지 확대하고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ICT(정보통신기술)분야가 구직 시장의 70.8%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업의 1/3이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각 분야들 중에서도 ICT분야가 인재를 구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인재를 구할 때 요구되는 능력, 자격, 경험에 대하여 필요를 갖추고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뿐더러 기본적인 컴퓨터 사용 능력의 부족에 의해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 이러한 구인/구직난의 상황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주어진 시간이 넉넉지 않아 다소 단편적인 부분이 있을 수는 있으나, 사업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 했기에 신뢰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의 문헌자료 조사를 통해 1차 조사 대상지역인 Takeo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로부터 TVET 인증을 받은 하위 운영기관(이하 RPITST)을 방문하게 되었고 관계자들에게 본 기관에서 기획하고 있는 영상미디어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소개했을 때,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RPITST에서도 IT를 교육하고는 있지만 기초적인 것에 그치나, 비소나눔마을의 프로그램은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는 전문 프

로그램이라는 점에서 협력하여 운영할 수 있다면 지역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업 실행을 위해 적극 도울 것을 어필하였다. 이 외에 Takeo에 위치하고 있는 지방 교육청 담당자, 대학교 학장 및 교수진들또한 본 기관의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심을 보이며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3) 2차 조사대상 지역인 Phnom penh에서는 실제 구인활동을 할 회사 및 방송국 관계자와의 미팅을 가졌다. 영상미디어 분야에서 드라마, 영화, 광고 등을 제작하는 회사와 그것을 방송으로 내보내는 방송국에 방문하여 실제 구인/구직 실태와 본 기관의 사업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다. 총 4개의 관련 기관을 방문하였고, 모두 적극적인 지지를 보여주었다. 그 중 한 회사는 Takeo출신의 자수성가한CEO로써 청년들의 기술력 부족과 같은 이유로 구인난을 겪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서도 Takeo를 위해 이와 같은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에 감 사하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뿐만 아니라 본 기관의 프로그램의 교육을 수료한 학생들에게 인턴의기회는 물론, 성장 가능성을 보아 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창업을 원할 시에는 Takeo지역에서 새로운 회사를 세우고 배운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일거리를 분배하여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 돕겠다는 지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4) BBU 및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방송(영상)미디어 분야로의 진출을 고민한 적이 있는지, 현재생각하고 있는 직업은 무엇이고 그 꿈을 꾸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미디어 분야의 진출을 꿈 꾸었던 학생들이 다수 있었으나 적절한 교육이 제공되고 있지 않았고, 제공되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학과를 정하여 교육을 받은 분야에 따라 자연스레 취업 방향을 정하게 되었다고 했다. 기관에서 사업에 대한 소개와 함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참여형 강연을 진행했을때,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영상미디어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를 희망하였다.

나. 현지의 수요 및 상황

1) 캄보디아 국가적 차원으로도 IT계열 교육의 필요성을 알고 그에 관련한 국가전략개발계획을 세웠으며,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공식/비공식적 방법들로써 TVET 교육을 진행하고자 시도하고 있음. Takeo지역에도 TVET전문 기관이 운영되고는 있었으나, 청년들 대부분이 그런 곳이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도 인지하지 못할만큼 홍보가 되지 않은 상황임. 또한 TVET 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기초적인 교육에 그치기 때문에 취업으로 이어지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2) 실제로 청년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RPITST, 교육청, 대학 등의 관계자들 모두 영상미디어의발전을 인지하고 있고, 필요성 또한 느끼고 있으나 필요한 전문 교육을 제공해줄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없어서 인지하는 것에만 그치고 있는 상황임. 청년들 사이에 스마트폰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인터넷 이메일 단계를 넘어 벌써 소셜미디어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나, 미디어의 성장 속도를 인적 자원 개발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3) 근처 NGO인 NOC, CHD Cambodia 등에서 컴퓨터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기초 지식선에 그치고 있었으며, TVET 기관인 RPITST에서 비교적 전문적인 하드/소프트웨어, 그래픽, 편집 등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 또한 너무 기초적인 단계라고 관계자 스스로 더욱 전문적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함. RPITST에서는 본 기관에서 꼭 이 사업을 진행하기를 희망한다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KOICA에 제출하기 위한 공식적인 영문 서신을 작성해 주는 등 적극적인 지지의 태도를 보임.

4) 영상미디어에 관련된 전문 기관들의 자문에 따르면 실제로 인적 자원의 부족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으며, 가장 큰 문제는 필요한 교육이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음. 캄보디아 영상미디어의 발전 속도에 대해서는 Phnom penh의 전문가들이 가장 잘 느끼고 있었고, 수요와 공급의 차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써 비소나눔마을의 사업이 진행되기를 희망함

5) 수혜대상 지역의 이해관계자인 주민들은 교육 참여 비용과 시간, 교통에 대해서 염려함. 농업이 주된 생계 수단으로, 청년들의 일손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참여율이 가장 높은 시간에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또한 마을마다의 거리가 매우 다양함. 각 마을마다의 필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으나 가장 적당한 거리로 위치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하되,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교통수단 및 비용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함.

다. 사업대상 분야(Target Area)의 지표 및 기초선

프로젝트 요약	지표	지표증명수단	기초선
▪ **목표(Goal)** Takeo청년의 영상미디어 분야 취업률 향상 및 지역 발전 도모	영상미디어 분야의 취업/창업률		
▪ **목적(Purpose/Outcome)** 1. 이론 및 실습을 동반한 전문 교육 제공 2. Takeo청년의 영상미디어 전문 직업교육을 통한 취업/창업 연계	1. 이론/실습 교육제공 –교육장소 적극 이용률 –이력서/포트폴리오 제작 2. 취업률 향상 –인턴쉽 이수 –정규직/창업 준비율	1.교육장소 이용 대장 기록 –실습 결과물 2.교육 참여자 중 인턴쉽/취업/창업 리스트	RPITST의 IT교육 참여자 수
▪ **산출물(Output)** 1. 영상미디어 전문 직업교육 홍보 2. TVET 인증 기관 등록 3. 영상미디어 전문교육 실시 4. 관련 분야 취업/창업 시도	1.홍보 및 브로셔 결과물 2.TVET 인증기관 –RPITST와 MOU협약서 –ISO(인증서) 발행 3.교육 실시 –강사 리스트 –커리큘럼 –신청자 리스트 –교육 횟수 –교육전/후 테스트 4.취업/창업 시도 –개별 이력서/포트폴리오 –희망분야 조사	1.제작된 브로셔 2.MOU협약서 ISO인증서 3.출석부 교육커리큘럼 Test 결과 강사보고서 4.참석자리스트 설문지	
▪ **개별활동(Activity)** 1.1 전문강사 섭외 1.2 영상미디어 전문교육 커리큘럼 구축 1.3 청년/주민 홍보 및 브로셔 제작 2.1 RPITST와 MOU협약식 진행 2.2 RPITST와 프로그램 진행 역할 분담 2.3 교육청 및 대학관계자와 내용 공유및 협조 요청 3.1 교육장소 선정 및 기초시스템 정비 3.2 교재 및 교육기자재 마련 3.3 참여 희망자 모집 및 교육 실시 4.1 이력서 및 포트폴리오 제작 4.2 취업/창업 희망률 조사 4.3 희망사항에 따른 멘토링 서비스 제공			

라. 단체의 특성과의 연계

1) Takeo지역에 위치한 타 NGO기관이나, TVET기관에서도 제공되지 않고 있는 영상미디어에 관련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희소가치를 발휘한다. 본 기관에서 기획한 사업은 영상미디어 분야로의 취업 진출을 위해 필요한 기본 지식 및 기술을 익히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므로, 단순 컴퓨터 교육의 차원을 넘어 전문적이고 집중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SDGs의 4, 8번을 목표한바를 성취하는 과정으로써 직업훈련(4.3)을 통해 전문/직업 기술을 보유(4.4)할 수 있도록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8.5)으로써 청년의 취업률을 향상(8.6)시키는데 기여하며, 수요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업이다.
2)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기관의 인증과 협력이다. 본 기관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우선순위에 두어 국내 문헌조사를 통해 Takeo에서 운영되고 있는 TVET기관들을 조사했으며, 그 중에서도 영상미디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을 집중적으로 찾아본 결과 RPITST라는 기관을 컨택하게 되었다. RPITST는 Regional Polytechnic Institute Techo Sen Takeo의 약자이며, 캄보디아 노동청의 직속기관으로써 국가의 인증을 받은 TVET기관의 하위기관이자, TVET기관에서 운영 되고 있는 잡센터를 관리하고 있다. 짧게는 3~6개월, 길게는 2~4년제 과정의 8개 과목을 교육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IT교육도 포함되어 있다.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듯해도, 이 곳에서의 교육은 기초적인 단계에 그치기 때문에 취업으로 이어지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한다. 실제로 청년들의 서베이자료를 통해 TVET기관이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어떠한 교육을 하고 있고, 그것이 취업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조사된 바 1(매우 아니다), 2(아니다)의 답변이 가장 많았다. RPITST는 본 기관의 사업소개를 듣고 난 후 그들이 목표하는 바와 기관의 목표가 동일하다는 점에 높은 만족을 보였다. 또한 실제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사업이 진행 될 경우 MOU협약을 맺어 비소나눔 마을 역시 국가로부터 인증받는 TVET기관으로써 등록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등의 적극적인 지지의의사를 밝혀왔다.
3) 2차 문헌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따르면, Takeo에는 영상미디어 관련 회사가 없고 대부분 Phnom penh에 밀집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홈페이지 및 SNS운영이 활발한 회사 3곳과 방송국을 컨택해 방문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었다. 사업 설명을 들은 후, 전문가들은 모두 하나같이 필요한 교육이라 동의했다. 이유인 즉, 영상미디어에는 인력이 곧 자산인데 사람을 한 명 구하더라도 필요한 조건을 갖춘 인재를 찾

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었다. 조건과 실력을 100% 갖춘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자격과 발전 가능성을 지닌 사람을 찾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주었다. 만약 사전조사를 마치고 사업 기획/진행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강사를 파견 혹은 추천해 줄 수 있는지, 사업에 참여하여 교육을 수료한 청년 취업준비생들에게 인턴의 기회를 부여해 줄 수 있는지 등을 인터뷰 하였는데,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서라도 도울 것이며 언제든 연락을 주어도 좋다는 답변을 통해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였다. 또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참고할 수 있었으며, 사업을 기획해 갈 방향에대한 도움을 얻었다.

05 자료 출처

-Introduction of Takeo province_History of Takeo.pdf
-캄보디아 인구현황, https://dhsprogram.com/pubs/pdf/FR312/FR312.pdf
-http://www.stat.go.jp/info/meetings/cambodia/pdf/rp13_ch20.pdf
-http://nidm.gov.in/easindia2014/err/pdf/country_profile/cambodia.pdf
-http://www.bongthom.com
-Radio Station World 사이트
-National Emplyment Agency 사이트
-http://camhr.com/pages/jobs/index.jsp?categoryId=10
-KOTRA 프놈펜 무역관
-htto://www.asiawaves.net/cambodia-tv
-Cambodia Radio. http://radiostationworld.com/lacations/cambodia/radio_websites.asp
-통신사 CELLCARD 홈페이지. http://www.cellcard.com.kh/en/
-통신사 Smart Axiata 홈페이지. https://www.smart.com.kh/#
-통신사 Metfone 홈페이지. http://www.metfone.com.kh
-https://www.cambodiadaily.com/news/
-대표적인 캄보디아 노동청 운영사이트 http://www.nea.gov.kr
-국가별 방송통신 현황 2010. 아시아·태평양 II 캄보디아
-NGO 'Neighbor of Cambodia(NOC)' 홈페이지 참고. http://www.cambodianeighbor.org/
-유니세프 https://www.unicef.org/evaldatabase/files/BLI_Evaluation_report_2012_FINAL_Eng.pdf
-http://unesdoc.unesco.org/images/0022/002253/225360E.pdf
-Unicef statistics about literacy rate_SOWC-2016_all-tables_261.xlsx
-ILO Report, 2011: A Framework for sustainable TVET Public Private Partnerships inCambodia
-http://ntb.gov.kh/
-유니세프 홈페이지. www.unicef.or.kr/education/outline_01.asp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원칙과 절차 해외사업 실무자를 위한 가이드」 p.48
-National Employment Agency(May 2015)_Report by Somean Kuoch
-캄보디아 구인/구직 수, http://www.nea.gov.kh/nweb/en/jobshop/jobshop
-http://camhr.com/pages/jobs/index.jsp?categoryId=10

06 기타 활동 자료 (사진 등)

01

02

03

04

01 Build Bright University 학장 및 부학장 면담
02 Build Bright University 대학청년l
03 Build Bright University 청년 Survey
04 Build Bright University 영상미디어 소개강의09 HVP Build

05

06

07

08

09

10

11

12

13 Takeo마을 이해관계자(이장님, 지역 청년) 모임
14 Build Bright University 2차 심층인터뷰
15 BYSO-CV 대학청년리더 간담회1
16 BYSO-CV 대학청년리더 간담회2

17 영상미디어 전문회사_The Comzone
18 영상미디어 관련학과 운영_Pannasastra University
19 영상미디어 전문회사_Studio4 Production
20 영상미디어 전문회사_Studio4 Production 편집실

21

22

23

24

25

26

21 영상미디어 관련학과 운영_Limkokwing University
22 영상미디어 활동가_Brunch TV
23 방송국_MYTV 스튜디오 세팅장
24 방송국_MYTV
25 영상미디어 전문회사_Blue Media Films
26 영상미디어 전문회사_Blue Media Films 편집실

향후 계획

01 지역조사 이후 계획

가. 프로그램 세부기획

-PD, 촬영/편집, 엔지니어링으로 구성했던 교육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Phnom penh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PD, 촬영/편집, 작가, Make up 으로 구성 변경예정

나. 컴퓨터를 활용한 기초 능력 평가

-Takeo청년들의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미디어 관련 활용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여 기초 능력을 확인
-기초선에 맞추어 기본이론부터 전문기술까지의 커리큘럼을 구상
-대상자 수준에 맞는 전문 강사 채용을 위한 제안 작업 준비

다. TVET인증 기관 등록을 위한 작업

-RPITST와 MOU협약 준비: 협약내용, 날짜 및 장소 등 논의 필요

라. 컨텍 기관의 인턴 인재상 조사

-사전조사 기간 동안 방문했던 Phnom penh의 영상미디어 전문 회사 및 방송국에서 희망하는 인턴인재상이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문서 요청
-실제 필요로하는 이론 및 기술에 포커스를 맞추어 커리큘럼을 구성할 수 있도록 준비

02 본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가. 사전조사를 통해 Takeo뿐 아니라 Phnom penh에서도 영상미디어의 국가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음. 컴퓨터를 활용한 인터넷, 이메일 수준을 한 단계 건너 뛰어 벌써부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나 소셜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 실제로 영상미디어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과 욕구가 급증하고는 있으나, 필요 적절한 교육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따라 Takeo청년 수준에 맞는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기획/진행 예정

나. 전문가의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Phnom penh으로부터 강사를 섭외할 예정. Takeo청년들에게 영상미디어 직업전문교육을 제공함을 통해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여 취업률 향상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함. 교육을 통해 산출될 결과물들(이력서, 포트폴리오 등)을 가지고 취업/창업을 시도. 실제로 교육을 통해 영상미디어 분야로 진출한 청년들의 전문가로써의 성장을 통해, 이 후에도 지속적인 교육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함

다. 국가전략개발계획에 따르면 지방의 ICT발전을 도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현재로써는 그런 필요에 대한 대책이나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본 기관의 사업에 참여한 Takeo청년들이 시발점이 되어 지역 발전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

PART 05

[교육] 아프리카아시아난민교육후원회

시행일자	2017년 4월 25일(화) ~ 6월 24일(토) (총 60일)
지역	캄보디아 프놈펜

2017년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지역조사(사업형성조사) 결과보고서

기본정보				
단체명	아프리카아시아난민교육후원회		**작성자**	강 수 옥
단체현황	현지 지부			☑ 있음 ☐ 없음
	NGO 등록			☑ 있음 ☐ 없음
	KOICA 협력사업 수행 경험 유무			☑ 있음 ☐ 없음
사업 분야	교육/직업교육		**코드번호**	113
조사 목적	캄보디아 프놈펜 근교 학교 밖 아동(청소년) 및 여성들을 위한 직업교육센터 설립사업 타당성 조사			
대상 국가 및 지역	**국 가**	캄보디아	**지 역**	프놈펜
	1) 스와이빡 지역(프놈펜 시내에서 차로 40분거리)- Svaypark Vilage, Svaypark Commune, Russey Keo District, Phnom Penh, Cambodia. 2) 스나오 지역(프놈펜 시내에서 차로 1시간 거리)- Snao Village, Snao Commune, Sen Sok District, Phnom Penh, Cambodia.			
조사기간	**전체 조사 기간**	2017년 4월 25일(화) ~ 6월 24일(토) (총 60일)		
	현지 체류기간	5월 21일 ~ 6월 6일 (총 17박 18일)		

조사 목적

chapter 01

- 본 지역조사의 목적은 학교 밖 아동과 여성들을 위한 캄보디아 프놈펜의 직업교육센터 설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파악하고자 함에 있다.

  사업지역과 사업대상자의 특성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파악하고, 직업교육의 필요성과 그 분야에 대해 조사를 통하여 본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했다. 이뿐 아니라 캄보디아 정부부처,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타 단체 방문 및 인터뷰를 통하여 캄보디아의 현 직업교육 상황에 대하여 알아보는 동시에 본 단체에서 선택한 직업교육 분야인 미용시장에 대하여 조사하고, 사업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 직접적인 현지 조사를 통해 현지상황을 파악하고 현지 요구사항의 수렴을 통하여 사업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서베이, FGD, KII를 통해 사업대상지와 잠재적 수혜대상자들의 문제파악 및 현 상황파악에 따른 니즈를 확인한 뒤, 이들의 의견을 사업실행 시에 적극 반영하고자 한다.

- 사업현장 실사 및 현지 시장 조사, 관련 업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학교 밖 아동과 여성을 위한 직업교육의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과 효율적인 사업 실행 방법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본 사업을 실행하고자 하는 후보 사업지역(Snao, Svaypark)을 직접 방문 관찰하고, 현지의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 방문을 통해 본 사업에 대하여 논의함으로써, 본 사업의 효율적인 실행방법을 모색하고 직업기술교육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파트너십 단체를 발굴하여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보다 높이고자 하는데 있다.

조사 결과

01 일정별 조사 활동

기 간		활동 내역 약술
국내 조사	4월25일-5월21일	**현지조사 스케줄 조정, 방문기관 및 인터뷰 대상자 리스트업 문헌조사, 현지조사시에 필요한 서베이, KII, FGD질문 준비** 5/1 고려직업전문학교 직업교육 자문미팅 5/2 로터스월드 방문 인터뷰,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 방문 인터뷰 5/4 ADRF 조사단 사전 미팅 5/8 ADRF 조사단 PDM작성 및 공유, 문헌조사 자료 공유 5/11 서베이 질문지 작성사항 공유, 현지 매니저 대상 사업조사 계획 공유 5/15 현지조사팀원 미팅(현지 스케줄 공유 및 역할분담) 미용기술교육 커리큘럼 조사 5/18 서베이 프리테스팅 5/19 고려직업전문학교 미용예술부미팅
	5월30일-6월24일	**조사결과 조합 및 추가 문헌조사, 파트너십대상 물색 및 협의사항 미팅** 5/30 이가자헤어비스 미팅 6/9 전문가(윤에리카교수)미팅 6/12 현지조사 결과보고/ ADRF 내부미팅 6/13 이가자 헤어비스 및 HLCC PLUS 협의사항미팅 6/23 고려직업전문학교와 MOU

현지 조사	5월22일-6월6일	**현지 기관 방문 미팅** 5/22 현지 조사팀원 및 조사원 전체 미팅, 서베이 교육 5/23 크리스티나 헤어뷰티 아카데미 견학 및 미팅 캄보디아 한인회 방문 미팅, 크리스티나 헤어뷰티 아카데미 임원미팅 5/24 스와이빡지역 직접관찰, 캄보디아 코트라 방문미팅 김재형 무역관 5/25 UYFC 실무자 미팅 스나오 지역 직접관찰 노동부 관계자 미팅 서베이 추가교육 5/26 ADB 미팅 5/27 로터스월드 방문 미팅 및 미용기술학교, 사회적기업 견학
	5월29일-6월6일	**가정방문 서베이, KII, FGD 진행** 5/29-6/6 Householding survey KII(마을이장, 학교장, 여성, 아동 등), FGD(+문제나무 그리기) 진행

○조사팀구성

구분	이름	소속 및 직위	주요 임무
국내 조사팀원	이두수	ADRF Korea/국장	조사 단장 현지 방문기관 협의 총괄, 현지 조사 및 관련 사업 점검
	강수옥	ADRF Korea/팀장	현지조사책임, 사전조사일정 및 활동 주관 현지 요구사항 수렴 및 사업 추진 방안 협의, 현지조사 및 사업 계획 수립
	김남희	ADRF Korea/간사	서베이 질문지 작성, 설문 조사 및 인터뷰
	윤에리카	삼육보건대학교 미용전문가 과정 교수, 국제 미용가 연합회 교수 협의회 회장	교육 시스템 및 커리큘럼 요구사항 분석, 사회적기업 운영가능성 조사, 컨설팅
ADRF 캄보디아 지부 조사팀원	Ean Sotara	ADRF Cambodia/ genaral manager	현장 지역조사 총괄, 지역조사 후보지 정보 조사 및 정리, 지역조사 사전 세팅, KII 및 FGD 책임 사업관련 주요 협력 인사(정부부처, 관련 기관 등) 및 이해 관계자 미팅 담당, 주요 미팅 현지어-영어 통역
	Chho Ratana	ADRF Cambodia/staff	서베이 총괄, 지역조사 후보지 정보 조사 및 정리, 지역조사 사전 세팅, 사업관련 주요 협력 인사 및 이해 관계자 연락 및 미팅 스케줄 세팅, 시장조사, 잠정적 직업교육대상 인터뷰 및 수혜대상 리스트업
캄보디아 현지조사단	Oeun Sophal	단기고용인력	서베이를 위한 질문지 테스팅, 가정방문 및 인터뷰
	Seam Srun	단기고용인력	

02 조사 항목 및 방법

조사항목	조사방법	조사기간
캄보디아 개황	문헌조사	4월25일-6월24일
지역정보	문헌조사	4월25일-6월24일
분야별이슈	KII	5월29일-6월6일
이해관계자분석	KII, 직접관찰	5월29일-6월6일
대상자 현황, 욕구 및 실태조사	서베이(표준화 인터뷰_목적표본추출/ 비무작위 표본추출), KII, FGD, 문제나무그리기	5월29일-6월6일
범분야이슈	문헌조사	4월25일-6월24일
지역내 타기관 활동현황	문헌조사, 직접관찰, 서베이, KII	4월25일-6월24일

○ 1차 자료 수집

본 사업 수행 시, 직접적인 수혜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 ADRF의 기존 교육지원사업의 대상아동 중 부모가 무직이거나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있는 경우, 혹은 아동이 이미 학업을 중도 포기한 경우를 파악하여 중점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추가로 마을이장님의 추천과 서베이를 진행한 가정의 추천으로 대상자(여성과 아동 총 78명/목적표본추출)를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서베이 질문지의 경우 질문대상자의 수준을 참고하여 알아내고자하는 정보에 맞게 간

단하게 작성하였으며, 두 차례의 프리테스팅과, 두 차례 현지조사팀원 대상 서베이 교육을 거쳐 진행되었다.

-Key Informant Interview

정보원인터뷰의 경우 지역, 여성과 아동, 사업분야에 대한 정보를 보다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 마을 이장님, 초중고교 교장선생님, 미용과 네일아트 종사자, 그리고 잠재적 수혜대상자인 학업을 중단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Focus Group Discussion과 문제나무 그리기 (직접참여조사)

FGD는 잠재적 수혜자로 판단되는 여성과 아동, 빈곤아동대상 보육교사(ADRF CAMBODIA)로 4그룹을 형성하였고 스나오지역 여성1그룹, 스와이빡지역 여성1그룹, 그리고 양쪽지역의 아동들을 1그룹, ADRF 보육교사 1그룹으로 묶어 진행하였다.

여성대상 문제나무그리기의 경우 FGD 시작 전 참여자의 긴장감해소 및 문제점 파악을 위해 진행되었으나, 두 그룹 모두 문해력이 좋지 않아 직접 글을 쓸 수 없기에, 여성들이 아이디어를 주면, 이를 조합하여 현지조사원이 그림(글)을 대신 그려주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 2차 자료수집

문헌조사의 경우, 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캄보디아 통계청, 월드뱅크, UNDP 등의 주요 사이트에서 통계적 정보를 얻는 한편 기사를 통해 조사하고자 하는 분야의 현황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추가로 이와 관련된 KOICA의 기존 사업 보고서 및 국제개발과 연관된 유명도서를 참고하여 범분야이슈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했다.[01]

01 자료출처란에 정확한 사이트와 보고서 및 도서명 기입

조사 결과 분석

01 사업 대상국 일반 현황[02]

*일반사항	o 수 도 : 프놈펜(Phnom Penh)
	o 인 구 : 1,595만명(2016.7월 추정치) ※US CIA World Factbook
	o 면 적 : 181,035㎢(남한의 약 1.8배)
	o 민족구성 : 말레크메르족(90%), 소수민족 (베트남, 중국, 참족, 고산족)
	o 종 교 : 불교(95%), 기타(5%)
	o 기 후 : 열대몬순, 고온다습
	o 언 어 : 크메르어, 불어(50대이상)
	o 시 차 : 한국시간 -2

02 캄보디아 통계청 자료로는 시 단위까지의 정보만 얻을 수 있어 사업 대상지가 되는 프놈펜의 스나오, 스와이빡 지역의 경우 통계적 자료에 취약한 캄보디아에서는 문헌자료를 통한 정확한 정보파악이 어려웠다. 게다가 지난 6월 4일은 캄보디아에서 중요한 선거가 진행되어 지역 동사무소 등의 방문이 어려웠을 뿐 아니라(거의 모든 직원들이 선거운동에 투입되었다) 어렵게 만난 담당자들은 지역 해당자료가 없다고 하여 추후 지역정부 재방문을 통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치현황	o 정 체 : 입헌군주제, 내각제
	o 주요인사 - 국 왕 : 시하모니(Sihamoni) - 총 리 : 훈 센(Hun Sen) (CPP) ※ Cambodia People's Party - 국회의장 : 헹삼린(Heng Samrin)(CPP) - 상원의장 : 사이춤(Say Chhum) (CPP) - 외교장관 : 쁘락 소콘(Prak Sokhonn)
	o 의 회 - 양원제 : 국회 123석(임기 5년), 상원 61석(임기 6년) *경제현황(2016년) ※National Bank of Cambodia
	o GDP : 202억 달러
	o 1인당 GDP : 1,330달러
	o 경제성장률 : 7%
	o 물가상승률 : 1.2%
	o 교역 (2016 추정치) ※KOTRA 국가정보 - 수출 : 90억 달러 - 수입 : 114억 달러
	o 외환보유고 : 65억 달러
	o 환율 1$≒4,060 Riel(15년 평균)

02 캄보디아 교육 체제 현황[03]

가. 캄보디아의 학제(School system)

- 캄보디아의 학제(School system)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 학제를 가진 프랑스의 학제와 유사한 학제로 운영되고 있음
  일반교육은 교육청소년체육부(MoEYS)에서 담당하고, 직업훈련은 노동직업훈련부(MoLVT)에서 담당하고 있음.
- 캄보디아의 유치원은 3~5세의 연령이 주로 다니는 학제이고 Low -Medium-High 로 3단계로 나뉨
- 일반교육은 6년간의 초등교육과 3년간의 중등교육으로 총 9년간에 걸쳐 이루어짐
- 초등과 중등단계 일반교육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연간 38주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상위 중등교육인 고등학교에서는 과정이수 후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치러야지만 졸업 증서를 획득할 수 있음
- 고등교육기관은 종합대학인 프놈펜왕립대학과 단과대학 성격의 대학 등 16개 대학교를 교육청소년체육부(MoEYS)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폴리텍대학은 노동직업훈련부(MoLVT)에서 담당하고 있음[04]
- 기술·직업 교육 및 훈련은 공공 기술이나 민간 기술, 직업 교육 및 훈련 기관, 기업, 지역 사회, 가족이나 기업 또는 지역 사회와 가족 간의 협력에 제공된 모든 직업과 기술을 포함함

03 캄보디아의 국가수준 교육과정 현황

가. 캄보디아의 국가수준 교육과정

○캄보디아 교육과정의 목표

기본 교육과정의 목표 중등교육 교육과정의 목표

- 캄보디아 언어와 수학에 관한 지식
- 국가 정체성에 대한 지식
- 도덕성과 시민 책임의 이해
- 지역 사회 생활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일상생활 능력
- 자연 세계와 과학 원리의 기본적 이해
-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
- 캄보디아 문학, 수학과 관련한 고도의 지식
- 국가 정체성과 관련한 깊은 지식
- 심도 깊은 도덕성과 시민의 책임

03 캄보디아 기술교육 고등학교 개발사업 실시협의 결과보고서2013 한국국제협력단

04 ADB BANK와 캄보디아 노동부(직업훈련인허가 실무자)와의 미팅을 통하여 현재 캄보디아의 폴리텍 대학에 미용과 뷰티관련 학과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지역 사회 생활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일상생활 능력
- 자연 세계와 과학 원리의 포괄적 이해
- 외국어 영역에서의 높은 의사소통 능력

○캄보디아 교육과정의 목표는 크게 기본 교육과정과 중등교육 교육과정의 목표로 2가지의 단계 수준별로 구분되어 있음.

- 기본 교육과정은 캄보디아 언어인 크메르어와 수학, 국가 정체성에 대한 기본 지식 습득과 도덕성을 포함한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책임에 대한 이해, 지역 및 일상적인 생활 능력, 자연과 과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그리고 영어 프랑스어 등에 대한 기본적인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중등교육의 교육과정 목표는 기본 교육과정을 통하여 함양한 기본 능력을 기반으로 이 단계의 교육과정과 유사한 영역에 대한 심도 깊고 고도의 지식과 이해 능력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그러나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는 기술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목표를 비롯한 학생들의 진로개발 관련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주로 교양적인 측면에서의 학습 대상에 대한 지식 및 이해와 관련한 내용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 1~3학년(초등학교) 교육과정

- **교육과정의 목적:** 모든 어린이들이 읽기 및 쓰기와 수학의 기반을 가지 며, 건강, 신체적 외모, 도덕적 이해, 학습 기술과 생명 기술과 관련한 능력을 개발하는 것

2) 4~6학년(초등학교) 교육과정

- **교육 과정 목적:** 캄보디아어, 수학, 학습 기술, 생명 기술, 도덕적, 개인 적인 개발을 확장하고 통합해 평생 학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과학 및 사회 영역 콘텐츠를 소개

3) 7~9학년(중학교) 교육과정

- **교육과정 목적:** 지식, 기술, 캄보디아어, 수학, 과학, 사회 연구, 생명 기술, 학습 기술, 생명 기술, 직업 교육의 광범위한 범위를 모든 학생에 게 제공하도록 구성되어 있음. 그리고 크메르어의 활용으로 사회의 발전에 생산적 구성원으로 기여하고 상위 등급에서 추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추구하도록 하고 있음. 다른 직업 교육에 참여하거나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덕 교육과 개인 개발을 강조하고 있음
- 모든 학생들에게 필수 과목으로 외국어를 포함하고 있고 사전 직업 생활 능력은 사회의 일부로 LLSP를 통해 가르치도록 하고 있음

4) 10학년(고등학교) 교육과정

- **교육 과정 목적:** 중학교 단계에서 얻은 학생들의 지식을 확장하고 통합 하는 데 목적이 있음. 구체적인 교육과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주제로 구성됨

5) 11~12학년(고등학교) 교육과정

- **교육과정 목적:** 특정 과목에 대한 지식의 깊이 개발, 고등교육 단계 진 학 시 연구의 계속, 또는 교육 기반의 선택 과목을 통해 특성화를 위한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데 있음. 또한 직업 과목을 공부하거나 사회생활에 참가하도록 하는 데 교육과정의 목적이 있음
-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아래에 제시된 과목의 지정된 영역에 따라 공부 시간 배분과 그들의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음
- 캄보디아 EFA정책의 주요 내용은 ① 노동시장에 기초한 교육과 훈련의 제공, ② 여학생에 대한 교육 투자 확대, ③ EFA 정책의 모니터링을 통한 성과 관리 체계 구축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캄보디아 교육열은 매우 높은 편이며, 특히 외국어 학습 요구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외국어 구사 능력이 높을수록 외국계 기업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하여 고소득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프놈펜 시내에서는 사립외국어학교와 국제학교를 너무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05]
- 2015년 기준으로 캄보디아 문해율은 성인 80.5%(여자75%, 남자86.5%)[06], 청소년 78%로 나타났고, 초등교육은 60.5%, 중등교육 20.1%, 고등교육 10.3%의 출석률을 보였지만, 최근 캄보디아 정부의 EFA(Educational For All) 정책으로 문해율은 낮아지고 출석률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05 실제로 캄보디아의 공교육에서는 외국어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본 조사대상지의 경우 이 지역에 위치한 학교에는 영어과목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정형편이 나쁘지 않은 가정에서는 학생들을 사립국제학교 혹은 외국어학교에 보낸다.

06 본조사의 사업대상지역인 스나오 지역과 스와이빡 지역에서 진행한 여성대상 FGD 및 문제나무 그리기 활동에서 스나오 지역은 10명중 1명, 스와이빡 지역은 10명중 2명만이 글을 읽고 쓸 수 있었다.

-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는 직업훈련분야와 관련하여 ① 노동시장 반영을 위한 연구, ② 국가 기술직업 교육훈련 업무, ③ 직업훈련 개선을 위한 타 부처와의 조정 업무, ④ 국가표준 개발 업무, ⑤ 평가와 자격 연계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
  - 노동직업훈련부 산하에 24개의 지방훈련원을 포함하여 39개 기관과 직업훈련센터가 있지만, 대부분 시설, 규모 면에서 매우 영세한 실정임
- 캄보디아 교육체제가 당면한 문제점을 제시하면, 인문사회 관련 대학 졸업자는 과잉 양성되고 있으며, 경제적 사정으로 대학에 가지 못하는 고졸자의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과 기초 과학 학습 능력이 부족한 고졸 학생의 배출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캄보디아의 교육에 대하여 정리하자면, 초등교육부터 중등교육(9년간)까지 보편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중등교육 등록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아울러 고등교육의 낮은 수준[07]과 높은 실업률로 대학 진학보다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경향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중등교육 등록률은 초등교육 대비 25~30% 낮은 수준이며 초등교육 등록자중 절반 미만만이 중등교육까지 수료한다.

04 캄보디아 직업교육의 타당성 분석

먼저 캄보디아의 2014-2018 국가전략개발계획(NSDP)는 2018년까지 빈곤률 15%까지 감축을 주요 목표로, 사각전략 실행을 지원하는 5개년 전략목표를 제시하였는데, 이 주요 목표 중 인적자원 개발 및 역량개발(교육, 과학기술, 기술교육강화, 보건 및 영양 촉진, 사회적 보호발전, 인구정책 및 성평등 실행) 달성에 본 직업교육 사업이 도움이 될 것이며, 민간부문 발전 및 고용(민간부문 강화와 투자 및 비니니스 촉진, 산업 및 중소기업 발전, 노동시장 강화, 금융부문 증진) 달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사료되어 본 사업이 캄보디아 국가전략과 일치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캄보디아 교육청소년체육부(ministry of MoEYS)는 2007년 Education law 제정을 통해 정규 교육의 범위에 기술교육(technical education)을 포함하는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09년 부처 내 관련 부서를 신설(Vocational Orientation Department)하는 등 사업

07 국제사회의 많은 교육개발 원조가 초등교육에 집중되어 캄보디아의 전문적인 고등교육체제의 구축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_캄보디아 국가협력전략

추진에 필요한 법과 조직 차원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캄보디아 공교육에서 제공되고 있는 기술교육 뿐 아니라 시장의 수요에 맞는 기술교육의 공급은 한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 본 지역조사의 대상지인 스나오지역 및 스와이빡 지역의 여성 78명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조사, FGD 결과 모두가 동지역에 직업교육이 존재하지 않으며 직업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고 답변했다.[08] KII를 진행한 미용뷰티업계 종사자의 경우 유명한 시장의 소규모 미용실에서 한 달 동안 일정의 교육비를 지급하고 간단한 기술을 배웠다[09]. 실제 두 지역의 관찰조사를 통해서도 해당지역에는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어떠한 단체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캄보디아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의 인력 수요에 부응 하는 전문기술 인력 공급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따라 학력 수준별 산업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할 수 있는 교육제도와 학교가 절실한 상황이며, 캄보디아 정부에서 폴리텍 대학 등을 통해 공교육을 통한 직업교육을 제공한다면, ADRF와 같은 NGO단체에서는 이러한 공교육으로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빈곤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직업교육에 중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10]

취약계층 중에서도 학교 밖 아동(청소년)의 문제는 심각하다. 17세 이하의 아동과 청소년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자신의 꿈과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개발도상국 아동 및 청소년들은 가난한 가정환경으로 학교교육보다는 아동노동에 종사하며 가족의 생계를 돕고 있다, 특히 여성 청소년에게는 기초적인 학습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되지 않은 열악한 노동시장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캄보디아에서도 중학교 등록생 중에서 단 35%만이 졸업을 하고 있다. 이처럼 중학교 졸업자가 저조한 이유는 빈곤과 노동시장에서 중학교 등록생들의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학교를 떠나 진입하는 노동시장은 지속가능하기는커녕 위험이 감수되는 일이 많다. 특히 직업교육을 받고자 하는 이들의 다수가 일반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교

08 스나오지역의 경우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폴리텍대학이 반경 3Km에 존재하나, 본 폴리텍대학은 고등교육과정에서의 직업교육이기 때문에 본 사업대상인 여성과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진입 불가한 형태의 교육이다.

09 짧은 기간, 장사 중인 사업장에서 받는 교육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을 습득하기에는 부족했다. 미용 종사자의 경우 펌이나 올림머리 등을 제외하고 염색, 드라이 등 쉬운 것 위주로 배워 기술의 한계가 있었다.

10 실제 이러한 직업교육을 필요로 하는 빈곤층, 취약계층은 생계 때문에 학업을 중도포기한 계층이므로 공교육으로서의 직업교육을 받을 여력이 되지 않는다. 때문에 이들을 위한 포용적 교육으로써의 직업교육이 필요하다.

대신 직업훈련원을 찾는 학교 밖 청소년, 혹은 가정형편 때문에 교육의 혜택을 평등하게 받지 못한 여성들이기 때문에 직업교육을 통해 기술능력을 습득하고 취업에 성공하면 취약계층의 빈곤감소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게 된다.[11]

때문에 본 사업은 SDGs목표 중 하나인 '비형식 교육(non-formal education)'인 직업훈련과 관련된 목표8: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제공'과 일맥상통한다. 게다가 본 사업이 학교 밖 청소년 및 여성에 보다 집중적으로 투입하고자 하는 점에서 이는 코이카 전략목표 중 '2.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교육 필요성'으로도 뒷받침 된다.

05 서베이결과를 통한 대상지역 분석(key findings)

○svey pak 지역 서베이 결과[12]

스와이빡 지역에서 서베이에 참여한 39명의 대상자 중 97.4%가 여성, 38.5%가 청소년 17.9%가 20대 초반 20.5%가 20대 중후반 12.8%가 30대 초중반 10.3%가 30대 후반 이상 20.5%가 2~3명, 48.7%가 4명~6명의 가족수를 부양, 그리고 30.8%가 7명 이상의 가족 수를 부양하고 있었다.

이들 중 17.9%의 여성들이 한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이였고. 33.3%가 배우자, 41%가 그들의 자녀로 있으며 조카로는 5.1%, 이모는 2.6%이다.

69.2%의 아동과 여성들이 학교에 입학을 했었고, 46.2%가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었으나 경제적인(48.7%) 부분 등 기타 이유때문에 다수(76.5%) 참여자들이 초중교육에서 공부를 마칠 수밖에 없었고 아직까지 재학 중인 청소년들은 23.1%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를 다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직인 여성과 자녀들이 35.3%를 차지하였고, 나머지 중 69.2%가 지난 1년 동안 일한 경험이 있다. 이 중 44.4%가 2번 이상 이직한 경험이 있다.

11 2015년 캄보디아 통계자료 기준, 학업을 중도포기 한 이들의 38.4%(여성 41.9%, 남성 35.2%)가 가정생계를 위해 학업포기

12 스와이빡 지역을 사업적격지역으로 판단하여 서베이결과를 이 지역만 넣었다. snao지역 결과는 첨부파일 중 설문조사결과 확인 요망.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 캄보디아 평균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20.8%이며 41.7%가 최저임금인 153USD 이하, 29.2%가 100불 이하, 8.3%가 50불 이하를 받고 일하고 있다.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나가는 비용은 23.1%가 70불에서 130불정도, 25.6%가 130불에서 200불, 그리고 41%가 200불에서 300불이라 답하였다. 이외에 다른 가족들의 수익을 합한 가정의 수입은 200불 이하(35.9%), 200불~500불 이하(61.5%)로 보아 부양하는 가족 수를 따져 보았을 때 대부분이 평균 이하의 수입을 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적은 수입에 비해 들어가는 자녀들이나 동생들의 교육비는 10불 이하 (2.6%), 10불~20불(23.1%), 20불~30불(23.1%), 30~40불(5.1%), 40불 이상(10.3%)으로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설문조사 대상자들의 빚 또한 없는 이들은 28.2%에 달하지 않으며, 나머지는 50불 이하(17.9%), 50불~150불(12.8%), 150~300불(12.8%), 500불~1000불(30.8%)로 수입에 대비 큰 빚이 있다. 대상자들 중 매월 일정한 월급을 받는 이들은 35.9%, 투잡을 하는 사람들은 12.8%이며, 이 외에 12.8%가 사업(시장에서 생선을 팔거나 꽃을 파는 일)을 하고, 12.8%가 주부, 그리고 15.4%가 아직 학교를 재학 중이다.

직장을 구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대상자들의 답변은 낮은 교육이수 (58.9%), 능력이나 기술이 없어서(25.6%), 집안일 때문(2.6%), 자신이 여성이기 때문(5.1%), 임신/육아교육/결혼 때문에(5.1%) 으로 낮은 교육이수와 기술 부족이라는 이유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일했던 직장에서의 퇴사 이유를 물었을때 낮은 급여(25.6%)과 건강문제(15.4%)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더 나은 직장을 구하고 싶은지에 대한 의사를 물어보았을 때 예라고 답한 대상자들은 97.4% 거의 모든 대상자들이 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싶어 하는 이들이 많았다. 왜 그런지에 대해 물어 보았을 때, 생활비를 벌기 위해(55.3%), 저축하기 위해(28.9%), 그리고 자녀나 동생들의 교육비를 보태주기 위해(21.1%)서라는 답들이 있었다.

직장을 구할 때 방해 되는 점에 대해 대다수의 대상자들이 나이(25.6%)와 낮은 교육이수(58.9%)라고 답하였다.

만일 기술학교 과정을 거쳤을 경우 남성들과 비슷한 월급을 받고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물어 보았을 때 89.7%가 예라고 답하였다.

대상자들에게 직장을 구할 때 가장 중요시 보는 두 가지는 대다수의 대상자들이 안전성(20.5%)과 근무 환경(25.6%)라고 답하였다.

대상자들 중 94.9%가 급여를 올리고 싶다고 답하였는데 그 이유는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함(64.1%)과 튼튼하고 안전한 집을 짓고(7.7%) 빚을 갚기 위함(7.7%)이 있다.

대상자들에게 알맞은 기술을 제공해 주기 위해 그들의 관심분야를 조사 하였는데, 79.5%가 미용이라 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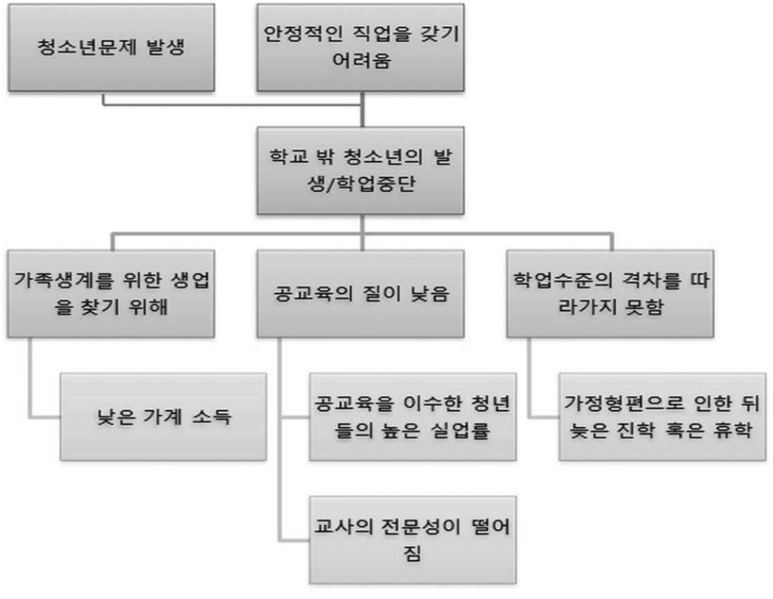
캄보디아 사람들이 미용실을 자주 찾아간다에 84.6%사람들이 답하였고 4.6%대상자가 미용사업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답했으며 3.8%가 미용분야 쪽으로 일을 하고 싶어한다.

대상자들 중 25.6%가 미용관련 단기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이들 중 적성에 알맞은 직장은 찾은 이는 50%이고 나머지는 전 보다는 나은 직장을 가졌다(10%), 전 직장에 비해 별 다른 점이 없다(10%),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10%), 모르겠다(20%)라고 답변했다.

대상자들 중 82.1%가 직업학교를 다닐 의향이 있다고 말하였다. 학교에서 듣고 싶은 과목에 대해서는 헤어와 화장(75%)과 네일 아트(25%)가 가장 많이 뽑혔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던던 34.4%가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교육을 이수받고 싶다고 하였다. 대상자들이 선호하는 학교까지의 거리는 500m~1.2km (46.9%)이며, 오토바이로 등교하고 싶다는 의견(56.3%)이다.

대상자들 중 82.1%가 직업학교를 다닐 의향이 있다고 말하였다. 학교에서 듣고 싶은 과목에 대해서는 헤어와 화장(75%)과 네일 아트(25%)가 가장 많이 뽑혔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34.4%가 3개월에서 6개월동안 교육을 이수받고 싶다고 하였다. 61.5%가 자녀/동생들도 직업훈련학교에 다니도록 지원하고 싶다 답하였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37.5%가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그리고 25%가 같이 일하기 위함이라 답하였다. 92.3%는 직업훈련학교를 통해 더 나은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전문적인 기술을 갖추고 있기 때문(38.9%)과 질이 높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13.9%)이라고 답하였다. 반면에 남은 47.2%는 돈을 더 구할 수 있다 등의 무관한 답변을 주었다. 직업학교가 사회에 주는 영향력에 대해 물어 보았을 때 82.1%의 대상자들이 학생들과 젊은 여성들에게 공부에 있어서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라 답하였다.

06 포커스 그룹 및 문제나무 그리기 결과분석



○가족생계를 위한 생업을 찾기 위해

캄보디아는 진학률이 낮은 국가로 2015년 캄보디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5-24세 청소년 중 학업을 지속하고 있는 이는 26.7%에 불과하여 중학교부터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함을 알 수 있음. 캄보디아는 초등교육부터 중등교육(9년간)까지 보편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중등교육 등록률이 매우 낮은 상황으로 초등교육 대비 25~30% 낮은 수준이며 초등교육 등록자중 절반 미만만이 중등교육까지 수료함.[13] 게다가 6세 이상의 인구 중 단 한 번도 학교에 다녀보지 않은 이는 13.8%에 달함. 스와이빡 지역의 가정방문 서베이, KII, FGD를 통해 학업을 중도 포기한 청소년들의 경우 학업중단의 이유는 명백히 생업을 찾기 위함으로 파악됨. 이는 통계청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캄보디아인의 학업중단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가계소득에 보탬이 되기 위함(38.4%)으로 조사됨. 이들은 학업을 잠정중단한 뒤 가계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직업을 찾고 있음. 문제

13 캄보디아 기술교육 고등학교 개발사업 실시협의 결과보고서2013 한국국제협력단

는 이들이 학업을 중단했고, 특별한 기술이 없는데다,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지속가능하지 않은 위험한 직업군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음.[14]

○공교육의 질이 낮음

- 공교육을 이수한 청년들의 높은 실업률, 가계소득수준과는 관계없이 캄보디아의 낮은 교육수준으로 인해, 공교육을 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높은 실업률에 따라, 교육에 대한 중요성인식이 낮음. 때문에 보다 빨리 노동시장에 뛰어 들려 하는 견해가 강함.
- 공교육의 질이 낮다고 판단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로 교사의 낮은 전문성을 들 수 있는데, 캄보디아 공교육은 판서와 이론위주의 수업으로 구성될 뿐만 아니라, 특별한 교과서가 보급되지 않아, 모든 교육의 수준은 교사의 역량에 따라 좌우됨. 특히나 공무원의 낮은 급여에 따라 교사의 질도 낮아지고, 이러한 교사들은 추가수입을 얻을 요량으로 학생들에게 무리한 수업비용을 요구하거나, 수업시간에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여력이 있는 학생들에게만 과외수업을 따로 운영하여 추가수당을 받고 있음.

○학업수준의 격차를 따라가지 못함

가정형편으로 인한 뒤늦은 진학 혹은 휴학을 한 학생들의 경우 결국 학업수준의 격차를 따라가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함. 이렇듯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은 기초문해능력이 떨어져 모국어인 크메르어를 잘 읽고 쓸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본 지식수준이 낮기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짐. 실제로 스와이빡 지역에서 진행한 여성그룹대상 FGD 및 문제나무그리기 활동의 경우 총 10명중 단 2명만 글을 읽고 쓸 수 있어 진행이 어려웠음.(15세이상 캄보디아인의 문해력은 여성 75%, 남성 86.5%로 나타나며 문해력이 낮은 사람들은 빈곤층에 집중됨)

14 CAMBODIA Socio-Economic Survey 2015

04 변화의 영역

가. 주목 분야

○캄보디아 아동노동실태

국립통계청과 국제노동기구(ILO)가 공동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2012년 기준으로 캄보디아에서 아동 및 미성년자로 분류되는 5~17세 사이 인구는 395만명(전체 인구 대비 26.6%)에 이른다. 이 가운데 19.1%에 해당하는 75만명이 아동 노동자에 해당이 되는 수준이며, 이중에서도 31.3%인 24만명은 위험한 직종에서 노동을 하고 있다. 아동 노동자들의 임금은 월 25~125달러 수준인데 매년 최저임금이 상향조정(2017년 현재 153달러)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미성년자인 아동들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기는 어렵다.[15] 이들 가운데 55%가 학교를 그만두었거나 학교에 다닌 적이 없다. 현재 캄보디아 정부는 열악한 환경에서 종사하는 아동 노동을 근절시키고 이들을 학교나 직업훈련센터에 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이를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학교 밖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생산적인 교육

캄보디아의 초, 중, 고등학교 등록률이 단계별로 편차가 큰데 (초등학교: 94.8%, 중학교: 31.9%, 고등학교: 19.4%) 이는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빈곤층 아동과 그 부모들이 현재 교과서에 의존한 이론 중심의 캄보디아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회의감을 느끼고, 진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생산적인 활동을 찾아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에게는 생산적인 교육인 직업교육과정이 효과적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생산적인 직업교육을 통해 학교 밖 아동들에게 중등교육을 제공하고,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직업교육과정 수료생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여, 가계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15 실제로 FII를 진행한 잠재적 수혜대상자인 16세 소녀(찬 띠아라)의 경우, 캄보디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섬유공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으나 직업훈련의 기회가 전무하여 공장에서 불량생산 된 옷을 검품하는 일을 한다. 캄보디아에서도 법적으로 아동노동은 금지되어 있어 실제로 캄보디아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이 되는 미성년자들의 최저임금을 단속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때문에 2017년 현재 최저임금인 153불 대비 이 소녀가 주6일 종일 근무를 통해 받는 현재의 월급은 100불이 채 되지 않는다.

나. 현지의 수요 및 상황

○선정분야에 대한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

- 직업교육의 필요성과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간극

현재 캄보디아에서 생계 때문에 공교육을 받고 있지 않는 이들 중, 기타 교육을 받고 있는 이들을 조사한 결과, 실질적인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캄보디아인들은 평균 3.1%(여성 1.8%, 남성4.3%_2015년 캄보디아 통계청)로 외국어교육 93.5% 대비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을 중도 포기한 이들이 보다 나은 직업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포용적이며 생산적인 교육인 직업교육을 선택하나, 이 경우 수요에 반해 캄보디아 직업교육의 공급과 그 질이 현저히 낮은데다 비용이 높기 때문이며, 외국어 교육의 경우 보다 나은 직업을 찾을 수 있다는 사람들의 생각과 함께 외국어교육공급이 많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반면, 공교육 이수율이 낮은 캄보디아인들의 외국어습득 능력과, 외국어교육으로 집중되는 서비스 때문에 이를 통한 전문적인 노동시장 진입은 쉽지 않다.

-취업과 창업 접근성이 좋은 미용뷰티교육

과거 캄보디아의 유망산업은 섬유 봉제 산업이라고 언급되어 왔으나, 우리나라 섬유봉제 관련 기업들 또한, 급격한 인건비 인상 대비 높지 않은 생산성으로 인해 이웃 국가인 베트남 등 제3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일부 공장을 폐쇄하거나, 추가투자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다. 섬유산업은 과거 유망산업으로 주목되었기에 봉제 관련 직업교육은 타 기관에서 집중해왔고, 취약계층인 아동과 여성이 임금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데다 섬유시장의 전망도 긍정적이지 않아 레드오션이라고 판단된다.[16]

최근 몇 년간의 동향을 살펴 볼 때 캄보디아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빠른 편이기 때문에 단순히 저임금 제조업에 의존하기 보다는 생산성을 높이고, 서비스업과 같이 부가가치가 큰 다른 업종으로 진출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서비스업 중에서도 캄보디아 특성상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며 수요가 높은 미용뷰티분야의 직업기술교육이 필요하다.[17]

16 각주 6번 참고. ADRF가 진행하고자 하는 본 사업의 대상은 여성 뿐 아니라 학교 밖 아동이 주가 되며, 이러한 학교 밖 아동들은 취약계층으로서 섬유공장에서 기술교육은커녕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했다. 또한 기술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창업에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것으로 판단된다. 캄보디아의 섬유산업은 OEM에 집중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해외의 투자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이 뚜렷하지 않으며 캄보디아 자체적으로 디자인이나 마케팅을 통해 자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17 캄보디아의 미용실은 1.5평정도의 소규모 미용실이 많다. 시장의 한 부분은 미용뷰티 관련 사업장이 다수 차지하고 있고, 손님이 끊이질 않으며 손님을 찾아가는 이동식 사업장 운영도 가능하다. 또한 보통 마을에 위치한 대부분의 미용실은 주거공간의 한 부분을 사업장으로 활용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소규모 창업에도 무리가 없다. 최근 중산층과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헤어뷰티 사업장도 급증하나, 기술력을 갖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미용기술을 습득한 인력은 동분야 취업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현지조사결과, 캄보디아의 미용수요와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선진미용기술을 배운다기보다는 소규모의 자본을 들여 간단한 기술을 배우고 시장에 사업장을 운영하며 수익을 얻는 것이 중점적이다. 미용뷰티 아카데미는 크리스티나 아카데미와 같이 소수 존재하나 연 3000불정도의 수강료가 발생하여 캄보디아 임금대비 수강료가 너무 높다. 그리하여 보통은 소규모 사업장에 약 20만원의 수업비용을 지불하고 단기간 염색, 드라이 등의 간단한 기술만 배워 창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기술은 부족하다.[18] 하지만 캄보디아 경제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부유층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급 현지 디자이너 샵(신디)이 생기고 있으며, 해외 유명브랜드 샵(토니앤가이 등) 또한 증가하는 추세인데다 캄보디아 결혼식 및 파티 문화에 의해 빈부에 상관없이 미용뷰티(파티메이크업, 전통의상, 헤어, 네일)에 관심과 투자가 많은 바, 해당분야의 전문기술을 갖춘 인력의 취업과 창업에 대하여 긍정적인 전망이다.

○해당분야 타 기관 활동 내역

캄보디아 내에서 직업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아래 8개 단체가 대표적으로 파악되나, 본 단체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대상지역뿐 아니라 프놈펜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같은 분야의 미용교육에 대하여는 대표적으로 로터스월드가 씨엠립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내에서 문헌조사결과 모델케이스라고 생각되는 로터스월드의 사업에 대하여 참고하고자, 광화문에 위치한 로터스월드 한국 사무국과, 캄보디아 씨엠립에 위치한 로터스월드 미용아카데미 및 L-Beauty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견학하고, 사업운영에 대한 미팅을 진행하였다.

또한 ADB 및 노동부와 미팅 결과, 현재 캄보디아 노동부 산하 39개의 기술학교와 트레이닝 센터가 등록되어 있으나 미용과정은 흔치 않고, 일반 미용아카데미의 교육비는 캄보디아의 일반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또한 다양한 엔지오가 직업기술을 최소한의 수강료로 혹은 무료로도 제공하고 있으나 수요대비 부족하기만 한 실정이며, 서베이(78명) 및 FGD, KII 결과 ADRF가 본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지역(스나오 및 스와이빡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직업교육이 제공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18 실제 KII를 진행하기 위해 방문했던 현지조사원의 단골 미용실에서 인터뷰도중,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기술교육을 받고 있는 사례를 직접 확인하였으나, 미용교육을 위한 교보재가 있거나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론적인 이야기를 듣고 어깨너머 배우는 정도이고, 관련 자격증이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캄보디아 대부분의 로컬 미용관련 인력들은 전문성이 부족하다.

1. 돈보스코 센터 기술학교 (technical center)	기술학교는 총 3개과 컴퓨터과(1년과정), 자동차과(2년과정), 전기과(2년과정)로 나뉘어져 있고, 현재 100여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다. 기숙사에는 40여명의 학생들이 살고 있다.
2. 로터스월드 캄보디아 지부 (Lotus World Cambodia)	시엠립 지역 1만 2천여 평의 부지에 캄보디아 아동센터를 설립. 운영해 왔으며 빈곤 아동의 복지와 교육사업, 초등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시설 지원사업, 빈곤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사업, 빈곤지역 주민들에 대한 무료 개안수술 및 지역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직업교육으로는 미용교육을 진행 중
3. 반티에이 쁘리업 (Banteay Prieb)	전쟁, 소아마비, 사고 등으로 인한 신체적 장애와 그에 따른 빈곤,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전인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JSC(Jesuit Service Cambodia)에서 설립한 장애인 직업기술교육센터. 전자, 기계, 농업, 재봉, 목공예, 제화 등 6개 과목 운영 중
4, 월드투게더 캄보디아 (World Together Cambodia)	KOICA 지역주민센터 깜뽕츠낭주 시내에 근처에 지역주민센터를 개원하여 지역주민의 자립을 위한 기술 교육 실시. 용접, 미싱, 컴퓨터, 요리, 제과제빵, 문맹퇴치, 영어, 한국어 교육문화교실 등의 수업. 한국어를 제외한 모든 수업에 현지인들을 고용과 지역 내에 있는 건물 중 좋은 환경이 되어있는 곳을 선정하여 더욱 나은 교육의 질과 교육환경 제공.
5. 캄보디아 기아대책기구 (Cambodia Food for the Hungry)	KRT IT 직업훈련 센터사업 (KRT IT Vocational Training Center)컴퓨터 기초과정, 그래픽 전문과정 등을 가르쳐 취업 및 창업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사업
6. 코미소 직업학교 (한국외방선교회)	코미소 직업학교는 메리놀, 언롱껑안에서 남자는 오토바이 수리, 여자는 미용과 재봉교육 진행 중
7. 태화복지재단	캄보디아 바탐방 지역에서 다양한 교육문화 서비스 기회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역량을 증진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저소득가정 여성들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봉교실과 미용교실로 구성된 직업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

○이해관계자 분석

	이해관계자	위치	위치선정이유	강점 및 약점	위치변화전략
1	학교 밖 아동 (청소년), 여성_수혜자	+	부모 혹은 자신의 의지로 가정에 도움이 되고자 학업을 포기하였으나 특별한 기술이 없고, 취약계층이기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가 없었다.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의지는 강하나 가정 형편 때문에 당장 수익창출이 가능한 생업이 없다면 교육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음	학습참여장려를 위한 방안으로 교육기간동안 기초생활비, 식비와 교통비등을 지원해야 함
2	학교 밖 아동의 가족/잠재 및 간접 수혜자	0	직업교육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득증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음	교육기간동안 아동 혹은 여성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할 가능성을 염두. 장의 수입 때문에 수혜자에게 직업교육을 중단 요구할 수 도 있음. 하지만 장기적인 시야로 새로운 기술습득을 옹호	수혜자가 교육을 받는 동안 가정에 기초생활비를 지원해야함.
3	정부부처_ 노동부	+	현재 39개의 직업훈련센터가 노동부산하에 등록되어 있으나 다양성이 부족하여 보다 다양한 직업훈련의 필요성을 느낌	미용교육센터에 필요한 요건(건물, 기자재 등)을 갖춘다면 노동부 등록이 빨라질 수 있음. 노동부 등록을 마치면 학생들은 교육인증서류를 받을 수 있음.	센터구축에 필요한 요건을 사전에 꼼꼼히 체크하고 준비하여 등록 서류 및 답사를 도운다.
4	지역 내 학교	0	학업을 중도포기하는 사례를 실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	아동들을 학교 밖으로 내모는 학부모들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만 내놓을 뿐 해결방안 모색에 대한 의지 없음	학업을 중도포기 해야 하는 학생들을 직접 추천하여 본 사업에 참여토록 함
5	주변지역 뷰티, 미용 관련업자	-	본 사업 수혜자가 동지역에서 창업을 할 경우 경쟁 상대가 될 수 있음	전문기술이 부족함 대부분 1인 사업자이기에 사업장이 가깝지만 않다면 경쟁의식도 크게 없음	특별교육 초청을 통해 새로운 미용 기술을 공유하고 트렌드를 공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6	ADRF CAMBODIA	+	ADRF의 교육지원에도 불구하고 학업을 중도포기하는 사례를 실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음	사업수혜자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사업수행의지가 높음 본래 운영하는 교육지원 사업에 의하여 새로운 사업에 모든 인력이 투입할 수 없음	본 사업에 특화된 새로운 인재추가 고용
7	지역주민_ 여성_ 최종수혜자	+	미용 뷰티에 대한 관심이 높고 수요가 많음. 보다 많은 미용 종사자와 선진기술이 도입되어 보다 많은 혜택을 받고 싶어함.	특히 KTV 종사자가 많은 스와이빡의 경우 미용사업장에 대한 부족을 느끼고 있으며, 매일 메이크업서비스를 받는 여성이 많음.	직업교육센터 학생들의 실습대상으로 초청시도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사업의 위험요소	발생가능성	중요성	위험관리 접근방법/해결방안
1. ADRF의 INGO 재등록, 노동부 인가의 어려움	낮음	상	노동부 인가조건(시설구축)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맞추어 직업교육센터를 구축한다.
2. 미용교육을 위한 파견인력 확보의 어려움	보통	상	고려직업전문학교, 이가자헤어비스, HLCC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인력 확보
3. 수혜자들의 중도탈락	높음	상	중도탈락의 이유가 되는 생계비 지원, 식비 및 차비 지원, 기숙사 지원.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기 위한 교육.
4. 취업과 창업의 기회확보 어려움	높음	상	현지 미용 사업장과의 연계를 통해 취업설명회, 졸업작품전을 열고, 취업 연계 창업킷트 지원

1. 노동부의 인가 조건(직업교육센터 시설구축) 및 ADRF의 INGO 기한 만료

직업교육에 대한 인허가를 담당하는 노동부 담당자 미팅결과 노동부와의 MOU를 위해서는 먼저 직업교육센터를 위한 시설을 구축해야 함을 알게 되었다.[19] 때문에 본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먼저 노동부와의 MOU를 진행하기가 어렵다. 먼저 사업을 시작하고, 노동부에서 요구하는 직업교육을 위한 기본 시설 및 기자재를 갖춘 후 노동부 인가를 진행해야 하겠다.

또한 ADRF의 INGO등록 연장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ADRF는 외교부 및 교육부와 MOU가 되어있으나 이 기한이 올해 7월로 만료되어 본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INGO 재등록이 우선시 된다. 이에 관하여 현재 ADRF CAMOBODIA에서 등록연장을 위한 모든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교육부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그동안 ADRF가 진행해온 사업과 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NGO등록에 대하여는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미용교육을 위한 파견인력 확보

국내 미용분야 인력의 경우 인건비가 비싼데다 한국의 업무환경이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고, 업무환경이 불편한 캄보디아로 파견하는 인력을 충원하기에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이 많다. 때문에 미용자격은 있으나 아직 미용시장 진출경력이 많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장기유급봉사자를 고용하여 미용교육센터에 항시 기본교육을 보조하도록 하고, 국내 전문 인력을 위한 충분한 복지 및 인건비 확보를 통해 전문 인력이 캄보디아에서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캄보디아 내 미용뷰티사업자인 HLCC PLUS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미용아카데미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이가자헤어비스와 논의하여 이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미용교육 전문 인력확보를 위한 차선책을 준비하려 하며, 고려직업전문학교를 통하여 인력확보 뿐 아니라 캄보디아 교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MOU를 진행하였다.

3. 수혜자들의 중도탈락

사업의 수혜자가 될 대상자들은 모두 학교 밖 아동(청소년) 혹은 그들의 가족인 빈곤층 여성이 주가 된다. 때문에 당장의 생계가 어려워 생업에 뛰어든 이들이 교육기간동안 생계의 어려움을 다시 느끼게 될 경우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직업교육에 있어서도 본인의 의지 혹은 가족의 강압에 의해 중도 탈락의 확률이 높아진다.

이를 고려할 때, 교육대상자들이 교육기간 동안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교육에 참가하는데 필요한 식비, 교통비뿐만 아니라 기초 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재정적 지원뿐과 함께 앞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노동시장에 진출하고 가계생계를 책임질 취약계층인 이들을 위해 기초문해교육, 진로직업교육, 성인지교육 및 인성교육 뿐만 아니라 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인지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이들이 본 직업교육을 중도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후에 아동들의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지변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4. 취업과 창업의 기회

직업교육을 이수했다고 해서 모두가 취업을 할 수 있거나, 혹은 자본금을 가지고 창업을 할 수는 없다. 본 사업이 단순한 직업기술 전파가 아니라 취약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는 바, 직업교육만으로 지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에 선뜻 뛰어들기 힘든 취약계층인 이들이 취업과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만 한다. 때문에 현지 미용관련 사업장과의 연계를 통해 취업을 보다 쉽게 연계할 수 있도록 취업설명회, 졸업작품전 등을 기획하여 교육을 이수한 이들의 실력을 미용업체에 소개하고 섭외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아이들을 돌봐야 하거나, 몸이 불편한, 혹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한 이들을 위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들이 보다 쉽게 창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기본 미용용품들이 포함된 창업킷트를 지원함으로써 모두가 교육이수 후 바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19 인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로, 노동부에서 직접 직업교육센터를 답사하여 직업교육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를 잘 갖추었는지 체크하여 평가한다.

다. 사업대상 분야(Target Area)의 지표 및 기초선

사업활동	지표	기초선
미용뷰티 관련 직업교육	미용뷰티 관련 직업교육횟수	0
기초/문해교육 및 인성교육, 성인지교육, 진로교육	기초/문해교육 및 인성교육, 성인지교육, 진로교육 횟수	0
교육시설 지원	지원 혹은 개선된 교육시설 수	0
교사양성 및 관리자 역량강화	교사 및 관리자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샵 횟수, 교육받은 교사 및 관리자 수	0
기초생활지원	기초생활지원을 받은 수혜자의 수	0
취업 및 창업지원	취업 및 창업을 한 수료생의 수	0

라. 단체의 특성과의 연계

○동지역에서 다년간 진행해 온 교육지원사업

ADRF는 본 KCOC 인큐베이팅 사업을 통해 사전조사를 진행한 캄보디아 프놈펜 외곽의 스나오 지역에서 2011년 11월부터 프닛 심리 초등학교와 협약을 맺고 초등교육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스와이빡 지역의 경우 2015년 5월부터 쩜로은랏 학교와 협약을 맺고 교육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지역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알아보려 했던 이번 캄보디아 직업교육센터 프로젝트에서 기초문해교육과 교육센터 운영 건에 대하여는 다년간의 사업경력으로 인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다년간의 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정부(교육부, 외교부, CDC)와 마을 주민, 학교와도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중이기에 사업진행이 수월하리라 판단된다.

현재 캄보디아 정부에 INGO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로, 올 7월 등록 만기가 되어 현재 INGO재등록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직업교육 경험

직업교육의 경우 캄보디아에서 처음 진행하는 사업이지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코이카민관협력사업으로 길거리아동 지원 직업교육(ICT, 목공)을 진행하고 있어, 이의 진로직업교육 우수사례를 캄보디아에 적용가능하다.

05 자료 출처

캄보디아 기본정보	캄보디아 가이드북 정수원지음
	론리플래닛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북부
	캄보디아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CIA 보고서)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cb.html
	캄보디아 경제 현황 (월드뱅크) The World Bank 2016, 'Cambodia Overview', September 2016, The World Bank.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MInistry of Planing Cambodia Socio-Economic Survey-2015, mbodia Socio-Economis Survey 2014,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UN Data 2017, Country Profile: Cambodia,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The World Factbook 2017, East & Southeast Asia: Cambodia, 12 January 2017, Central Intelligence Agency.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World Statistics Pocketbook 2016 Edition, United Nations.
	Unicef 2013, Cambodia: Statistics, 24 December 2013.

사업분야 및 범분야이슈	국제개발협력 심화편_KOICA ODA 교육원 엮음
	캄보디아 기술교육 고등학교 개발사업 실시협의 결과보고서2013 한국국제협력단
	절망너머 희망으로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셰릴 우던 지음
	캄보디아 국가협력전략 2016.12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젠더프로파일
	캄보디아 여성의 무직업 현황에 대한 기사 (캄보디아 데일리 뉴스) Alex Willemyns 2016, ‘Cambodia’s Low Jobless Rate Hides Harsh Reality’, 29 January 2016, The Cambodia Daily.
	Alicia Neil 2016, ‘I quit school to support my family’, 10 June 2016, Child Fund Australia.
	캄보디아 여성 인권에 대한 문제와 여성의 역할 The Asia Foundation 2013, ‘The Role of Women in Cambodia’, August 2013.
	Donald J. Brewster 2015, ‘The fight against child sex trafficking in Cambodia is far from over’, 21 May 2015, The Washington Post.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06 기타 활동 자료 (사진 등)

01

02

03

04

05

06

01 조사팀 현지조사 사전미팅
02 ADB Cambodia 자문 미팅
03 코트라 자문 미팅
04 크리스티나 뷰티아카데미 견학
05 가정방문 서베이
06 스나오지역 여성 FGD, 문제나무그리기

07

08

09

10

07 아동(청소년) FGD, 문제나무그리기
08 나오지역 여성 FGD, 문제나무그리기
09 KII 쩜로은랏 중학교장
10 이가자헤어비스와의 파트너십 논의 미팅

향후 계획

chapter 03

지역조사결과, 조사 대상지역이었던 스나오지역과 스와이빡지역 모두 학교 밖 아동과 여성들이 보다 생산적인 교육인 직업교육을 원하고 있음을 알았다. 서베이 결과를 분석한 결과 두 지역의 수요가 크게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본 사업을 통해 취직 또는 창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역의 미용뷰티 관련 수요 분석을 통해, 스나오지역보다는 KTV 종사자가 많고,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보다 좋으며, 학교 밖 아동의 루트가 보다 위험하지만(인신매매, 성매매 등) 직업교육 및 기초문해교육을 통한 효과가 보다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스와이빡지역에 미용관련 직업교육센터가 보다 필요로 한다고 판단하였다. 때문에 KII를 진행하였던 쩜로은랏 중고교의 교장선생님과의 협의를 통해 직업교육센터 설립을 위한 학교부지 무상렌트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협의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 ADRF는 2018년도 KOICA 민관협력사업에 지원하여 본 사업을 구체화하고, 조사를 통해 파악한 취약계층인 학교 밖 아동과 여성들에게 직업교육과 기초문해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스와이빡으로의 사업대상지 선정

캄보디아 프놈펜에 위치한 스나오 및 스와이빡 지역 두 곳의 지역조사 결과, 두 지역 모두 가정형편 때문에 학업을 포기한 학교 밖 아동이 많았으며 아동(청소년) 외에도 이 지역의 많은 여성들이 새로운 직업기술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이들의 수요에 대한 공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때문에 두 지역의 서베이 분석 결과는 특별히 다르지 않았으나, 두 사업대상지의 특성을 조사한 결과, 농촌빈민지역인 스나오 지역보다는 한때 성매매, 아동 인신매매 등으로 유명한 지역이었던 도시빈민지역인 스와이빡 지역이

보다 대상자들의 직업교육필요성이 절실하다 판단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미용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수요, 직업교육 이후의 취업 및 창업 가능성(도시로의 접근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에 스와이빡 지역에 사업진행가능성이 보다 높게 판단되었다.

때문에 본 사업이 실현된다면 스나오지역보다는 스와이빡 지역에 초점을 두고, 해당 지역에서 직업교육센터를 설립할 가능성이 있는 토지를 알아보는 중, 쩜로은랏 중학교 교장선생님과의 KII를 통해 해당 학교에서 토지를 무상렌트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 때문에 코이카 사업으로 연결하기 전, 쩜로은랏 중학교 및 교육부와의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토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현지 사무국 INGO연장

본 사전조사를 통해 대상지역 주민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본 사업의 타당성을 정확히 인지하였다. 하지만, 현재 ADRF 캄보디아 사무소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INGO등록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MOU연장을 진행 중에 있다. 때문에 현지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코이카 사업 지원하기에 앞서 현지 ADRF 사무국의 INGO등록을 정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외교부 MOU 2017.06.17. 만료되어 재등록중, 교육부 MOU 2017.07.25. 만료되어 연장 완료)

○직업기술교육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캄보디아의 미용시장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현지에는 숙련된 미용기술전문가가 많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때문에 현지에서는 직업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인력을 충족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상자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직업기술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직업기술전문가가 필요로 하기에, 한국 전문가를 파견하려고 한다. 하지만 현지언어로 보다 친근하게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현지 기술자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ADRF는 현지 기업인 HLCC PLUS와 한국의 기업인 이가자 헤어비스와의 파트너십 구축을 생각하고 있다. 이가자헤어비스는 코트라를 통해 HLCC를 소개받아 캄보디아에 미용아카데미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ADRF가 이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2차례 미팅을 진행하였으나 보다 자세한 협의사항 논의가 필요하다.

○대상자 특성 파악에 따른 프로젝트 추가사항 고려_기초문해교육, 성인지교육, 기숙사 시설확보, 기초생계지원 등

현지조사를 통해 본 사업의 대상자인 학교 밖 청소년과 여성, 즉 취약계층인 대상자들의 특성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였다. 때문에 본 사업을 실행할 시에는 대상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본 사업의 효과를 보다 극대화하기 위하여 프로젝트에 추가로 포함시켜야 할 사항들을 보다 심도 깊게 고민하여 사업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 Project Design Matrix

프로젝트 요약	지표	지표 증명수단	가정
· **목표(Goal)*** 캄보디아 학교 밖 청소년과 여성들이 직업 기술교육과 문해교육 등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자립적이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여 더 나은 삶을 영위하도록 한다.	SDGs Goal 1,4,5,8의 부분적 향상	SDGs 연간보고서	
· **목적(Purpose/Outcome)**** 1. 적절한 직업기술 및기초문해능력을 향상한다. 2. 직업기술습득을 통한 경제활동 영역확장으로 소득을 증대시킨다.	1.1 미용직업기술교육에 등록한 수혜자의 수, 직업기술교육을 수료한 학생의 수 2.1 취업 혹은 창업을 한 사람의 수, 졸업생 추적조사 건수	1.1 미용교육실기평가, 학업 성취도기록, 직업교육센터 수료증 목록 2.1 월급명세서, 고용계약서, 졸업생 추적조사 보고서	1.1 수혜자와 ADRF의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었고, 수혜자가 이 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교육에 협력하였다. 2.1 취업과 창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장경쟁력이 있는 미용기술 및 문해교육을 보급하였다. 2.2 미용뷰티기술을 이용해 취업 혹은 창업을 한 이들이 소득을 창출하였다.
· **산출물(Outputs)*** 1.1 미용뷰티 관련 직업교육 1.2 기초문해교육 및 인성교육, 성인지교육, 진로교육 1.3 교육시설구축 1.4 교사양성 및 관리자 역량강화 1.5 기초생활지원 2.1 취업 및 창업지원	1.1 미용뷰티 관련 직업교육횟수 1.2 기초/문해교육 및 인성교육, 성인지교육, 진로교육 횟수 1.3 지원된 교육시설 수 1.4 교사 및 관리자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샵횟수, 교육받은 교사 및 관리자 수, 기초생활지원을 받은 수혜자의 수 2.1 취업 및 창업 프로그램에 참석한 학생의 수	1. 출석부, 강의 사진 및 강의 자료, 학생상담카드, 영수증 혹은 현금인수증 2. 학생상담카드, 취업 및 창업프로그램 참가자 명단	1.1 수혜자들의 교육 의지가 강하여 자발적으로 교육에 참가하고, 의욕적으로 기술 향상에 힘쓴다. 1.2 수혜자 그룹이 자주적으로 교육에 참여하였다. 1.3 직업교육을 위한 교육시설이 잘 구축되었고 유지관리도 잘 되었다. 1.4 역량강화프로그램을 통해 교사와 관리자들의 역량이 강화되었다. 1.5 기초생활을 위한 물질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수혜자 그룹이 교육을 중도포기하지 않았다. 2.1. 캄보디아 내 해당분야의 시장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을 하여 수료생들을 위한 취업을 알선하였으며 수혜자 그룹이 적극적으로 취업 및 창업 활동에 나섰다.
· **개별활동(Activities)** 1.1.1 헤어컷팅, 네일아트 등의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진로교육 운영, 실기대회 운영 1.1.2 캄보디아 미용, 뷰티종사자 초청 진로 교육 1.1.3 네일 및 헤어실기대회 운영 및 시상 1.2.1 필요한 기초교육(크메르어, 영어 등) 프로그램 및 인성, 성인지 프로그램 운영 1.3.1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교실, 도서실) 및 실습 공간 확보 1.4.1 교사역량강화를 위한 미용교육 프로그램운영 1.4.2 우수학생을 위한 교사양성 특훈 운영 1.4.3 직업훈련센터 관리자 역량강화를 위한 인식 교육, 센터 운영 교육 1.5.1 교육대상자의 기초생활보전을 위한 차비 및 식비 지원 1.5.2 교육생을 위한 기숙사 운영 1.5.3 매달 교육참석률 에 따른 식료품 지원 2.1.1 창업을 위한 이동식 사업장 운영지원, 창업자를 위한 이동 킷트(헤어컷팅, 네일) 보급 2.1.2 네트워크 형성 및 취업정보 제공 2.1.3 사업장 내 미용실 시범운영과 이를 위한 우수학생 자체 채용 2.1.4 졸업시연회를 통한 수료생 소개 및 취업알선 2.1.5 스와이빡 미용인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지원	· **투입물(Inputs)** 1.1.1 직업 교육 전문 강사진(윤에리카 교수)직업교육을 위한 미용, 뷰티 기자재 및 재료(책상, 의자, 샴푸대, 헤어드라이기, 셋팅기, 펌기계, 가발, 염색약, 가위, 바리깡 등), 관련분야 진로교육 프로그램 1.1.2 기초 문해교육을 위한 강사, 자원봉사자 확보, 기초문해교육 대상자/학생 1.2.1 기초교육 및 인성교육 및 성인지 교육 등 특별교육 강사 투입 1.3.1 미용뷰티 교육센터 1개 확보, 실습공간 확보, 직업교육 실습/자습공간 및 교육공간 관리할 학생자치단체/학생, 기초문해교육을 위한 교실/도서실 운영,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기자재: 검색용 PC, 책상, 의자, 책장, 프로젝터, 관련도서 등 1.4.1 교사 및 관리자교육을 위한 워크샵, 교사 및 관리자 정기 미팅 및 교육지원, 교육과정 연구회의 및 평가회의 기획, 교사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현장답사(타 미용실, 뷰티살롱 등)비용, 초빙강사료 1.5.1 빈곤학생들을 위한 교육기간 내 차비 및 식비 지원, 학교 밖 길거리 아동을 위한 직업교육센터 내 숙소(기숙사) 마련 2.1.1 이동식 상점 운영 설명회 기획 및 홍보, 창업지원자 교육프로그램 및 인력, 이동킷트 제작 비용 및 인력, 프놈펜 내 미용실, 뷰티살롱 등의 네트워크 확보, 홍보활동, 기업 인사담당자 혹은 사업자 섭외 및 강의 비용, 사업장내 미용실 시범운영 가능한 공간 및 시설/인력/기자재		1. 미용기술교육에 적합한 한국전문가 및 현지 기술자가 고용되었다. 시설건축 및 기자재 조달에 어려움이 없었다. 2. 프놈펜 내의 미용뷰티 사업장을 파악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수료생들이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을 확보하였다. 졸업생들이 활용하기 좋은 창업킷트가 전달되었다.

PART 06

[교육] 온해피

시행일자	2017년 4월 20일(목) ~ 6월 16일(금) (총 60일)
지역	에티오피아 아카코, 오로미아

2017년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지역조사(사업형성조사) 결과보고서

기본정보					
단체명	사단법인 온해피		작성자	손 재 민	
단체현황	현지 지부			☑ 있음	☐ 없음
	NGO 등록			☐ 있음	☑ 없음
	KOICA 협력사업 수행 경험 유무			☐ 있음	☑ 없음
사업 분야	초등교육		코드번호	11220	
조사 목적	에티오피아의 산골 초등학교에 도서 보급 및 컴퓨터 교육의 필요성 및 타당성 조사				
대상 국가 및 지역	국 가	에티오피아	지 역	아카코, 오로미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약 10km 떨어진 산골마을(차량으로 약 25분 소요)				
조사기간	전체 조사 기간	2017년 4월 20일(목) ~ 6월 16일(금) (총 60일)			
	현지 체류기간	5월 21일 ~ 5월 29일 (총 9일)			

조사 목적

chapter 01

- 본 조사의 목적은 전 세계 유엔회원국가가 표명하고 있는‘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면서 오늘날의 필요도 충족시키는’개념의 맥락에서 에티오피아의 산골 소외지역에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SDGs의 4번째 목표)’적 측면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에티오피아 학교성과수준 향상을 위해 아카코[01] 마을 아동에 대한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적 취약계층의 교육접근성 강화 등 이 지역에서 요구하는 수요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타당성 조사를 목적으로 함

01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

- 에티오피아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무상교육제도를 실시, 하지만 정부의 자금력 한계로 공평하고 보편적인 무상교육제도 실시의 어려움, 그중에서도 아카코의 빈곤 가정들은 생업을 위하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다수
- 아카코 산골마을의 아카코 초등학교(학생 수 440여 명)를 중심으로 주변 7km이내 학교라곤 카토 초등학교(학생 수 240여 명, 1학년~4학년까지 수업)외 어떠한 학교도 없으며, 중·고등학교를 다녀야하는 아이들을 포함하면 대략 1,200여 명의 아이들

01 마을 영문 표기 : Oromia Region Suluta Woreda Chancho Town Akako Kebele(오로미아주 술루타 워레다 짠쵸타운 아카코 케벨레)

이 기준보다 못한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으로 정부 정책으로는 해당 지역의 아동들은 교육 균등, 양질의 교육은 물론, 삶을 개선시킬 여지 기대 거의 불가능

- 에티오피아 교육부가 2014/15년에 조사한 초등학교 학교성과수준(School performance levels in 2014/15)에 의하면, 학교수준이 〈기준보다 훨씬 위〉가 3%, 〈기준충족〉 18%, 〈개선필요〉 53%, 〈기준보다 훨씬 아래〉가 26%로 나타나 79%의 초등학교가 교육의 질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조사
- 따라서 정부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아카코 지역에 도서 및 운영프로그램 제공과 컴퓨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공평하고 보편적인 양질의 교육여건으로 교육 환경을 개선하여 아동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부모들에게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에티오피아의 학교성과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조사하였음.

02 취약계층의 교육접근성 강화

- 에티오피아는 83개 부족, 100개 이상의 언어 사용으로 부족 간의 언어 소통 부재 및 낙후된 교육환경으로부터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 필요
  - 공용어로 암하라어와 영어를 지정하고 있으나 아카코의 경우 오로미아어 사용으로 해당 언어로 된 도서구입 및 보급이 어려워 다양한 도서 수량 확보 필요
  - 오로미아어 도서 및 공용어(암하라어, 영어) 도서 구입과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문해력 향상 및 취약 계층의 교육 접근성 강화
- 지역 내 아동교육에 대한 관심과 기초교육 수준, 학교 및 지역의 도서보유량, 도서 접근 방법 등의 현황과 도서의 수요 등의 기초선 파악 및 교육 접근성 강화 방법을 모색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모델 제시
  - 최근 아디스아바바에서 밀려난 인구의 유입으로 새로운 마을들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들 인구의 대다수가 오로미아어(토착민 사용 언어)가 아닌 암하라어를 사용으로 토착민들과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음.
-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에서 필수적인 컴퓨터의 활용에 대한 아동들의 요구와 관심을 파악하고 어떤 수준의 교육이 필요한지 확인
- 지역주민들의 컴퓨터 이용에 대한 필요성과 욕구 및 활용방안 모색
- 부모세대와 지역주민 생활에 컴퓨터 활용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
- 향후 직업 선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역 직업군 조사 및 활용 방안 모색

조사 결과

chapter 02

01 일정별 조사 활동

	기간	활동내역 약술
국내조사	2/20(월) ~ 3/10(금)	▪ **현지조사를 위한 에티오피아 지부와 1차 사전회의** – 현지조사에 대한 지부의 의견 및 타당성 논의 ▪ **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1차 문헌 조사** – 에티오피아 인구학적 통계자료 및 교육정책에 대한 보고서 등 기초 정보 및 정부 주요 전략 및 계획을 포함 한 보고서 및 지표 수집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관련 자료 및 에티오피아관련 UN 등의 국제기구 자료 수집 – 아카코 마을의 교육 환경 등을 포함한 기본 정보 수집 ▪ **현지조사 수행에 필요한 자문** – 도서 전문가 및 현지 교육 전문가의 의견 공유 ▪ **조사계획서 작성** – 조사방법(설문조사, FGD, KI[02] 등)과 그에 따른 조사대상, 조사내용, 분석방법, 진행상의 유의사항[03] – 조사방법에 따른 설문지, FGD, KII 설문 내용 개발 ·설문지 :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일반적 사항, 교육, 도서, 컴퓨터 관련 사항 ·FGD : 교사, 마을 주민(학부모) 대상 교육 환경관련 사항 ·KII : 지역교육청 및 지역 담당 공무원, 교장, 도서 및 컴퓨터 관련 학교 담당자 및 주변 이해관계자 대상 지역 교육관련 지역 현안 및 도서 및 컴퓨터 교육관련 전반적인 의견 요구
현지조사	3/2(목) ~ 3/3(금)	▪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신청을 위한 담당자 기초교육 실시** –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SDGs의 이해, 민관협력의 이해, 사업수행의 이해,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공모 안내 등
	3/13(월) ~ 4/28(금)	▪ **2차 사전회의 : 국내 도서전문가, 에티오피아 현지지부장(유선통화), 실무자** – 조사계획서 공유 및 검토 : 설문문항 검토 및 수정, 현지 피드백 결과 공유, 일정 타당성 검토 등 회의 및 공유 – 조사계획서 및 설문 문항 현지어 번역 및 현지 조사원 공유(한국어 → 영어 → 오로미아어)
	4/11(화) ~ 4/14(금)	▪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작성을 위한 담당자 기본 교육 실시** – 사업기획, 조사,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의 개발사업 수행관리(PCM) 집중 워크숍
	5/1(월) ~ 5/18(목)	▪ **3차 사전회의 : 국내 도서전문가, 에티오피아 현지지부장(국내입국), 실무자** – 최종 조사계획 확정회의 : 최종 변경사항 점검 및 확정, 준비사항 및 현지 조사일정 점검 – 조사일정에 따른 세부 회의 : 조사원 교육방법, 현지 돌발상황에 따른 대책 논의
	5/19(금)	▪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실무자 분야별 심화 과정 교육**
	6/5(월) ~	▪ **조사내용 분석 및 결과보고서 작성** – 인터뷰 및 FGD, KII 결과 분석 및 정리 – 분석 결과에 따른 결과보고서 작성 및 향후 계획 논의
현지조사	5/21(일)	▪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현지 도착** ▪ **현지 1차 관계자 회의** – 본부 3명, 도서전문가 1명, 에티오피아 지부장 1명, 조사원 2명, 현지 컴퓨터 전문가 1명, 통역사 1명 등 9명 참석 – 전체 일정에 따른 조사내용 및 방법, 조사원 사전 교육 실시
	5/22(월)	▪ **아카코 마을 및 학교 방문 : FGD, KII, 설문지 등 조사 실시** – 대상자 : 교장(KII), 도서관 담당교사(KII), 교사(FGD, 설문조사), 학생(설문조사), 학부모(설문조사, FGD), 마을 주민(FGD)[04] – 장소 : 아카코 학교, 아카코 내 킬레(Kile), 케자(Kecha) 마을 등 – 내용 ·주요 정보원 인터뷰 : Dawit Abebe Gutema(교장), Belete Gelan(도서관 담당교사) 등 ·표적집단면접법 : 교사, 학부모, 마을 주민 등(교사 : 문제나무/목표나무그리기 실시, 학부모 및 마을 주민 : 조약돌 투표 실시) ·설문조사 : 선생 10명, 학생 170명, 학부모 50명 ▪ **현지 2차 관계자 회의** – 본부 인원 및 조사원 등 – 회의록 작성 및 조사 진행 피드백, 추후 일정 논의

02 FGD : Focus Group Discussion, 표적그룹토의 , KII : Key Information Interview, 주요 정보원 인터뷰

03 별첨_1 : 조사계획서 첨부

04 별첨_2 : 설문조사, FGD, KII 국문자료 첨부

	5/23(화)	▪ **Oromia (region) special zone surrounding finfine Sululta Education office 교육지원청 방문, 인터뷰(KII) 및 협조 요청** – 대상자 : Tashomaa Tasfaa(매니저) ▪ **Oromia (region) special zone surrounding finfine sululta Wereda 행정청 대표 인터뷰(KII) 및 협조 요청** – 대상자 : Getu Regosa(행정청 대표) ▪ **아카코 케벨레 내 카토 학교(교장 : Derej Girma) 및 kattoo 마을 방문** – FGD : 선생 4명 및 마을 주민 10명 – 설문조사 : 선생 4명, 학생 30명 ▪ **현지 3차 관계자 회의** – 본부 인원 및 조사원 등 – 조사 내용 정리 및 피드백, 추후 일정 논의
	5/24(수)	▪ **아카코 마을 지역 Office 방문, 인터뷰(KII) 및 지역 현안 및 문제점 파악** – 대상자 : Habtamu(매니저) ▪ **아카코 내 Dire, Dhamota 마을 방문** – 대상자 : 마을 원로 및 학부모 20명(마을 당 10명씩) – FGD : 조약돌 투표 실시 ▪ **현지 4차 관계자 회의** – 본부 인원 및 조사원 등 – 회의록 작성 및 조사 진행 피드백, 추후 일정 공유
	5/25(목)	▪ **아디스아바바 시립도서관 방문, 도서관장 인터뷰(KII)** – 대상자 : Fikiryessus 도서관장 – 장소 : 아디스아바바 시립도서관 내 ▪ **히브렛 프레 초등학교 내 도서관 방문, 교장 인터뷰(KII)** – 대상자 : Getinet Mekonnen 교장 – 장소 : 교내 교장실 및 도서관 ▪ **카마라 방문 취소에 따른 에티오피아 교육부 ICT 분야 자문 이종갑 공학박사 인터뷰(KII)** – NGO 카마라 내부 사정으로 방문일정 당일 취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속 에티오피아 파견 이종갑 공학박사 인터뷰 ▪ **현지 컴퓨터 전문가 인터뷰(KII)** – 대상자 : Gemmachuu Teffaraa Alamuu – Adama Science and Technology University 기술대학 컴퓨터 엔지니어링 분야 학사 ▪ **회의록 작성 및 추후 일정 공유**
	5/26(금)	▪ **에티오피아 KOICA 사무소 방문** – 도영아 소장 면담 및 에티오피아 내 교육개발 사업에 대한 조언요청 ▪ **코카베츠바 학교 방문 및 컴퓨터실 현장 조사** – Camara NGO 사업기반 컴퓨터 시설 보유 – Camara NGO 기반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확인 ▪ **현지 5차 관계자 회의 및 평가회의** – 본부 인원 및 조사원 등 – 회의록 작성 및 조사진행 피드백
	5/27(토) ~ 5/28(일)	▪ **자료 취합 및 점검** ▪ **최종 의견 취합 및 보완 사항 협의** ▪ **향후 협력 방안 협의**

02 조사 항목 및 방법

- 본 조사는 주로 질적 조사방법인 문헌조사(Document Review), 설문조사(Survey), 포커스 그룹 토론(Focus Group Discussion), 주요 정보제공자 면담(Key Informant Interview)으로 이루어졌으며, 관계분석을 위해 교사의 포커스 그룹 토론(FGD) 진행 시 문제나무와 목표나무그리기와 문제에 대한 순위를 정하기 위해 마을주민의 포커스 그룹 토론(FGD) 시 조약돌 투표 등의 순위 정하기를 통해 정성적 지표를 정량적 지표화하는 참여적 평가 조사(PRA, Participatory Rural Appraisal) 방식 실시
- 본 지역조사의 경우 에티오피아 오로미아주 술루타 웨레다 짠쵸타운 아카코 케벨레지역의 아카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5개의 마을(Kile, Kecha, Kattoo, Dire, Dhamota)의 주민과 학부모 그리고 아카코 초등학교와 카토 초등학교의 교장, 교사, 학생, 도서관관리자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도서와 관련해서 국내 전문가의 의견과 아디스아바바 시립도서관 관장(Fikiryessus), KOICA의 지원을 받고 있는 히브레 프레초등학교 내 도서관을 방문을 통한 직접관찰과 인터뷰.
- 또한 컴퓨터와 관련해서 현지 컴퓨터 전문가 겜메츄(Gemmachuu Teffaraa Alamuu)가 조사원으로서 동행하였으며, 아일랜드 NGO Camara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코카베츠바 학교 컴퓨터랩 교실 방문. 카마라의 교사 역량 개발, 학습 개발 프로그램을 조사할 수 있었음.

	조사 항목	조사 방법	조사 기간
1	**1. 지역 정보** 1-1. 에티오피아 기초정보 : 국가 기초자료, 인구학적 통계자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배경, 국가 정책 등 1-2. 오로미아주 아카코 마을의 전반적 정보 : 인구, 언어, 소득, 직업, 교육 등 1-3. 타겟 학교 정보 : 학생수, 남/여 비율, 문해력, 교사수준 등	1. 문헌조사 : 에티오피아 개황 (2016.05)_코리아정책브리핑 싸이트 1-1. 문헌조사 : KOICA, KCOC, 국제기구, NGO자료 등 정보 조사 1-2. 현지 1차 조사 : 설문조사, KII (학부모, 지역관계자 등) 1-3. 현지 1차 조사 : 설문조사, FGD, KII(학생, 교사, 학교관계자 및 지역 교육청 관계자)	1. 2/20(월) ~ 3/10(금) 1-1. 2/20(월) ~ 3/10(금) 1-2. 5/22(월) ~ 5/26(금) 1-3. 5/22(월) ~ 5/24(수)

2	**2. 분야별 이슈(교육, 도서, 컴퓨터 등)** 2-1. 교육관련 현황 및 조사 2-1-1. 초등교과 커리큘럼 자료 수집 및 교사 수준 파악 2-1-2. 등교율, 출석률, 유급률, 진학률 등의 교육통계자료 수집 2-1-3. 학생들의 학습 습득 능력 및 진학률 저하 이유 파악 2-1-4. 제도권/비제도권 아동의 언어 문해력 조사 및 비교 분석 및 인원 파악 2-2 도서실 운영 및 조사 2-2-1. 수용성 파악 2-2-2. 지역 도서 및 도서관 운영 실태 파악 및 현황 2-2-3. 도서지원 활용방안 및 향후 발전 방향 구상 2-3. 컴퓨터 운영 및 조사 2-3-1. 수용성 파악 2-3-2. 지역 내 시설 및 운영 현황 파악 2-3-3. 운영 프로그램 및 인력확보 조사 2-3-4. 발전적 예상 수요 파악	2-1. 문헌조사 : 에티오피아 개황 (2016.05)_코리아정책브리핑 사이트, 국내외 국제기구, NGO 자료 및 사이트 검색 현지 1차 조사 : 설문조사, KII, FGD, 현지문헌자료 수집 등 2-1-1. 현지문헌자료 수집, KII(교장, 교사), FGD(교사, 마을주민, 학부모) 2-1-2. 현지문헌자료 수집, 설문조사(학생, 선생) 2-1=3. 현지문헌자료, KII(교장), FGD(교사), 설문조사(학생, 교사) 2-1-4. KII(교장, 교육관계자), FGD(교사, 마을주민), 설문조사(학생) 2-2. 직접관찰, KII(관계자 인터뷰), 현지문헌 자료 수집 2-3. 직접관찰, KII(관계자 인터뷰), 현지문헌 자료 수집	2. 문헌조사 2/20(월) ~ 3/10(금) 현지조사 5/22(월) ~ 5/26(금)
3	**3. 지역 내 타 기관의 활동 현황** 3-1. Camara Ethiopia 3-2. Hibrat Firre 도서관 3-3. 코카베츠바 학교 내 컴퓨터실	3. 문헌조사 : 에티오피아 내 NGO, 도서관 및 컴퓨터실 관련 단체 KII(관계자 인터뷰), 직접 관찰	3. 문헌조사 2/20(월) ~ 3/10(금) 현지조사 5/22(월) ~ 5/26(금)
4	**4. 이해관계자 정보** 4-1. 아카코 학교 내 교장, 선생, 학생 및 지역민(학부모, 지역관계자 등)의 역할 및 개선점 4-2. 지역 Office 매니저 및 교육청 매니저 등 정부 기관의 역할 및 개선점 4-3. 사업관련 단체(NGO, KOICA, 관련 단체 등)의 역할, 태도, 관심 및 개선점	4-1. 설문조사(학생, 교사, 학부모), KII(교장, 도서관 담당자, 컴퓨터 전문가), FGD(교사, 지역주민) 4-2. KII(지역관계자), 직접 관찰 4-3. KII(단체관계자), 직접 관찰	4. 현지조사 5/22(월) ~ 5/26(금)
5	**5. 범분야 이슈** 5-1. 지역 내 비제도권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제도권 진입 방안 파악 5-2. 지역 내 비제도권 및 제도권의 여성, 장애자, 문맹자에 대한 교육권 확장 방안 조사	5. 문헌조사 : 국내외 인권 및 사회통합 관련 단체의 자료 등 정보 조사 인터뷰 시 본 주제 관련 질의	5. 문헌조사 2/20(월) ~ 3/10(금) 현지조사 5/22(월) ~ 5/26(금)

03 조사 결과 분석

가. 에티오피아 개황

1) 에티오피아 일반 현황[05]

- 국명 : 에티오피아 연방민주공화국(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 수도 : 아디스아바바(Addis Ababa)
  - 평균해발고도 : 약 2,500M
  - 연평균 기온 : 20℃
- 면적 : 1,104,300㎢(한반도의 5배, 한국의 11배)
- 기후 : 고원지대는 Afro-Alpine 고산기후로 연중 기온변화가 적은 편(평균 16℃ ~ 22℃)이나, 저지대는 열대기후로 고온다습, 최근 이상 기후로 우기와 건기 간 전환 시점에 다소 편차 발생
- 인구 : 약 9,946만명(2015년, CIA 추정)으로 연 평균 2.89%의 높은 인구 증가율을 보이며, 가임 여성 1인당 평균 5.15명 출산
  - 인구의 절반이 절대빈곤 상태로 5세 이하 어린이 25.2%가 저체중(2014년 기준)이며, 유아사망률(2015년 기준)은 5.3%
- 종족 : 셈족(Semites)계와 햄족(Hamitic)계 후예로서 오로모족 35%, 암하라족 27%, 티그레이족 6% 등 약 80여개 종족으로 구성
- 언어 : 암하라어(공용어), 영어
- 역법 : Julian Solar Calendar 사용(보편적인 Gregorian 역법보다 7년이 늦음)하며, 1년은 13개월, 1개월은 30일, 13월(Pagume)은 5~6일로 구성
- 시간 : G M T + 3
  - 1일 24시간제가 아닌 낮과 밤으로 구분 각 12시간제 사용하며, 일출시인 06시를 0시로 일몰시인 18시를 12시로 하며, 다시 일몰시 18시를 0시가 되고 일출시가 12시가 됨
- 화폐단위는 Ethiopian Birr(환율 : 1US$ = 23.01Birr, 2017. 3월)
- 경제성장률(2015년, EIU) : 8.7%
- 경제성장률(2015년, EIU) : 26억불

05 주에티오피아 대사관(http://eth.mofa.go.kr)

2) 에티오피아 주요 현황

- 현 정부 및 정세
  - 에티오피아는 민족 단위를 기초로 9개의 주(region)와 2개의 특별자치시(Addis Ababa, Dire Dawa)로 구성, 각 주지사(Regional President)는 민족 및 지역정당의 대표로서 자치 권한 보유
  - 현 정부는 2015. 5월 제5차 총선이 평화롭게 실시되어 집권당인 EPRDF(500석) 및 연합정당(47석)이 하원의 전 의석(547석)을 차지하였고, 하일레마리암 총리가 재선출됨(2015. 10월)
  - 하지만 총선은 불공정하고 비민주적인 선거였다는 비판과 집권당의 강력한 언론 통제력, 경쟁력 있는 야당의 부재,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기대감으로 승리가 가능했다 봄.
  - 현재 근 25년 이내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시위 제압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8개월의 국가 비상사태 지속, 사회적 불안은 2015년 가장 큰 민족 집단인 오로모가 더 많은 권리 요구하며 처음 발생하며 암하라 지역까지 퍼짐
  - 그로 인해 통금, 소셜 미디어 차단, 야당 활동 제한을 포함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
- 경제 정세
  - 인구대국(약 1억명)으로 잠재 내수시장 보유, 최근 12년간 높은 경제성장률 기록, 정부 주도 중소득국 진입을 위한 경제개발 계획 추진 중으로 2025년까지 중소득국 진입을 위한 '성장과 변화 계획'(GTP : Growth & Transformation Plan, 2011 – 2015)을 완료하고 제2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GTP Ⅱ) 실시 중
  - 다만, 서민층의 빈곤,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 및 열악한 무역시스템으로 인한 만성적 무역적자 등 지속
  - 1인당 GDP 702불(2015년 추정, IMF)의 세계 최빈국, 최근 10년간 연 평균 약 8 ~ 10%의 높은 경제성장률 기록,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성장세 유지
- 전력 현황
  - 2010년 인구 대비 전력 접근성은 23%, 아프리카 대륙 평균 전력 접근성 31.8%, 세계 평균 전력 접근성 83.1%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수력, 지열, 풍력발전의 전력 발전 가능성에 비해 이용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
- 통신 현황
  - 통신시설은 매우 열악한 편, 2015년 유선전화 가입자 83만명(인구의 1% 미만)수준, 인터넷선 가입자는 940만 명 수준이며,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2015년 기준 3,880만명으로 급증하는 추세

3) 에티오피아 교육 현황[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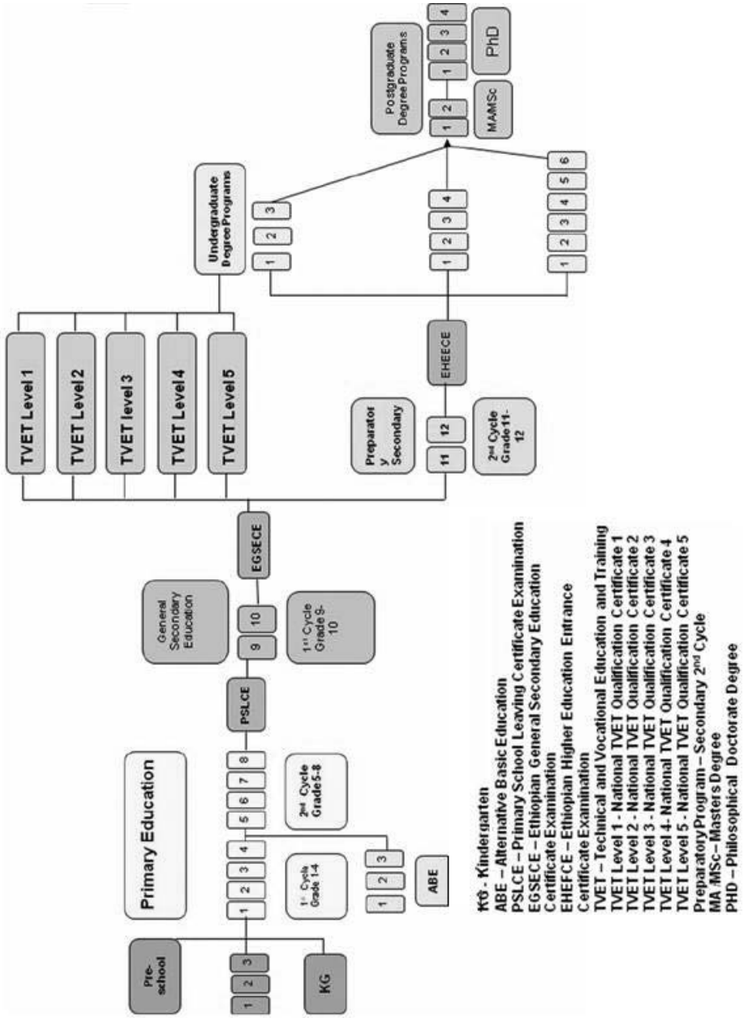
- 성인문맹률(2015년 기준) : 50.9%(여성문맹률 : 58,9%)
- 초등학교 취학률(2015년 기준) : 90%
- 교육관련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육시설의 부족으로 학교당 평균 학생수가 7,000명으로 평균 적정 인원 1,500명에 비교하면 매우 큰 차이를 나타냄
- 교육기관
  - 대학교는 아디스아바바 대학교를 포함한 23개, 대학 및 전문학교는 24개, 직업 및 기술 학교 17개, 교원 양성소 13개 등의 기관이 있음.
  - 초중고등학교 및 직업교육, 고등교육 학제

구 분	학제 년수	해당 나이	비 고
초중등학교	8년제	8 ~ 15세	
고등학교 Ⅰ	2년제	16 ~ 17세	
고등학교 Ⅱ	2년제	18 ~ 19세	
기술 및 전문대학교	3년제	18 ~ 20세	
직업 및 전문대학교	3년제	18 ~ 20세	
전문대학교 과정[07]	2 ~ 3년제		
일반 대학 학사	3 ~ 4년제		※의학 및 수의학 : 5년제

06 에티오피아 개황(2016.5)_코리아정책브리핑(http://www.korea.kr/archive/mainList.do)

07 고등 직업 및 기술 교육(농업, 교원 양성, 공학 및 기술 교육, 보건과 상업 분야 등)

– 에티오피아 교육 체계의 구조[08]



08 KG(유치원), Primary Education(초등교육), Secondary Education(고등교육), TVET(직원훈련학교), ABE(대안기초교육), PSLCE(초등학교 졸업고사), EGSECE(중학교 졸업고사), EHEECE(고등학교 졸업고사)

4) 아카코 초등학교 현황

● 설립 및 현황

– 2002년도 설립·운영 중 2009년 일본의 일본국제협력단(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이 총 7개동(교실건물 5개동, 화장실 2개동)으로 학교 시설 증축

– 교실 총 10개, 학년별 1학급으로 총 8개 학급 운영

– 도서관 공간 별도로 있으나 공간이 부족하여 프로그램을 별로로 운영하기 어려우며 책이 전혀 없어 도서관 운영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임.

– 교사 부족으로 오전, 오후 2부제 수업 실시

– 학생 현황 : 유치원생 56명, 384명 등 총 인원 440명

학년 구분	여	남	총
유치원	29	27	56
1학년	33	27	60
2학년	22	20	42
3학년	32	25	57
4학년	28	23	51
5학년	38	21	59
6학년	27	25	52
7학년	16	16	32
8학년	17	14	31
총	242	198	440

나. 설문조사

본 설문조사는 아카코 초등학교 및 카토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학생(200명) 및 교사(14명) 그리고 해당 학교 학생의 학부모(50명)를 대상으로 실시, 설문문항은 크게 개인정보, 도서관련, 컴퓨터 관련 질문들로 작성하였음.

1) 학생 설문조사

학생 설문조사의 경우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무작위 추출로 작성자 200명 중 남자 117명, 여자 83명이며 아카코 초등학교 170명, 카토 초등학교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기본 정보, 문해력 수준, 보유 도서 수와 도서관 이용관련 질문 그리고 컴퓨터관련 분

야에 대하여 조사함.

● 개인정보 결과 분석

아카코 마을 내 교육기관이 아카코 초등학교 외 카토 초등학교(1학년 ~ 4학년)외 존재하지 않아 상당한 거리에서 통학을 하고 있으며, 오로모어 외 타언어 구사능력도 상당히 떨어지는 편으로 조사되었고 학생의 자체 문해력 평가는 긍정적으로 표출되었으나 신뢰도 면에서 다소 떨어질 것이라 판단됨, 하지만 문해력이 낮은 이유에 대한 설문에는 90%가 교과서와 도서 부족을 문제라 인식.

- 학생 설문 대상자는 남자 117명(58.5%), 여자 83명(41.5%)로 사는 지역은 대부분 아카코(150명)와 그 경계지역(50명)에 거주하며 설문 연령대는 10세 ~ 15세가 170명으로 85%, 학년은 1학년(15, 7.5%), 2학년(20명, 10%), 3학년(35명, 17.5%), 4학년(55명, 27.5%), 5학년(40명, 20%), 6학년15명, 7.5%), 7, 8학년 각각 10명으로 5%로를 차지하고 있음.
- 등교시간은 대체적으로 30분미만 100명으로 50%, 30분 ~ 1시간 미만과 1시간 이상이 각각 50명씩 25%를 차지, 언어의 경우 95%가 오로모어를 구사하며 타 언어(암하라어, 영어)의 구사능력은 암하라어 구사가능 학생이 50명으로 25%를 차지
- 학교 성적에 대한 설문에 대한 70%(140명)의 학생이 스스로 뛰어나다 판단하고 문해력 또한 매우 뛰어남과 뛰어남으로 작성한 학생이 75%(150명)이나 됨
- 문해력이 낮은 이유로 학생들은 학교문제 5%, 부모문제 5% 외 180명(90%)의 학생이 교과서와 도서 부족문제를 뽑았음

<표2. 학생 수준>		빈도	비율
낮은 문해력의 원인	학교 문제	10	5%
	부모 문제	10	5%
	본인 역량 문제		
	교과서와 도서 부족 문제	180	90%
	기타		

- 소장도서관련해서는 180명(90%)의 학생이 없음을 응답, 그 이유로는 비싼 책 가격으로 나옴, 하지만 독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조사에 대한 응답은 200명 모두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

<표3. 학생 도서 실태 파악>		빈도	비율
소장 도서 수	없음	180	90%
	2권 이하	10	5%
	5권 미만	10	5%
	5권 이상		
소장 도서 적은 이유	비싼 책 가격	190	95%
	관리의 어려움		
	관심 부재		
	구입 경로 모름	10	5%
독서의 중요성	매우 그렇다	200	100%
	약간 그렇다		
	모른다		

● 도서관련 설문 결과 분석

- 아카코 초등학교 내 도서관이 있으나 유명무실하여 학생들조차 그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 도서관 방문 횟수에 대한 설문에 75%의 학생이 가지 않으며 그 이유로는 읽고 싶은 책이 없음으로 조사되었지만 교육과정으로 도서교육의 필요성과 학습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설문에는 100% '매우 그렇다'로 조사됨.
- 도서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편으로 하루 1회 50%, 주 1회 50%로 운영하길 원한다고 조사됨.

<표4. 학생 도서관 이용실태와 인식>		빈도	비율
인근 도서관 유무	네	50	25%
	아니오	150	75%
방문 빈도	1주일에 1회		
	1달에1회	50	25%
	1년에1회		
	가지 않는다	150	75%
	기타		

방문 어려운 이유	도서관이 없다	100	50%
	읽고 싶은 책이 없음	100	50%
	관심이 없음		
	시간이 없음(일)		
	기타		
독서교육의 필요성	매우 그렇다	200	100%
	약간 그렇다		
	모른다		
	약간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독서교육의 중요성	매우 그렇다	200	100%
	약간 그렇다		
	모른다		
	약간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 컴퓨터관련 설문 결과 분석

- 컴퓨터관련해서는 사실 설문대상자들 100%가 다뤄본 적도 없었으나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었으며 컴퓨터랩실이나 교육프로그램관련 시설과 프로그램이 실시된다면 200명 모두 적극 참여하길 원함.
- 그 이유로는 컴퓨터 교육이 취업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어 주요 직업군(정부기관, 은행, 행정원, 교사 등) 취업에 큰 도움이 된다 생각함.

2) 학부모 설문조사

아카코 초등학교 학부모를 포함한 지역의 대다수의 주민이 교육과는 동떨어진 환경 속에 있어 설문 조사에 큰 어려움이 많았으며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글을 읽고 쓰는 문해율이 매우 낮아 학생을 포함한 주변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점, 하지만 교육에 중요성과 도서부족에서 오는 교육의 질 저하를 인지하고 있었고 도서관 운영과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면 적극 동참하여 학생들을 독려할 것으로 판단되었음.

<표1. 학부모 일반 정보>		빈도	비율
성별	남자	30	60%
	여자	20	40%
최종학력	초등학교	5	10%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	45	90%
월 소득	500 birr 이하	20	40%
	500 – 1,000birr	20	40%
	1,000 – 1,500birr	10	20%
	2,000 birr 이상		
가족 구성원 수	3명 미만	15	30%
	3-5명	25	50%
	5명 이상	10	20%
읽고 쓰기 가능한 다른 언어 (중복선택 가능)	영어		
	암하라어	20	40%
	오로모어	50	100%
	기타		
본인의 문해력 수준	매우 뛰어남		
	뛰어남	10	20%
	보통	10	20%
	떨어짐	10	20%
	매우 떨어짐	20	40%
낮은 문해력 원인	낮은 교육의 질	25	50%
	가정 환경 문제	20	40%
	역량문제		
	도서 부족	5	10%
	기타		

● 개인정보 결과 분석

- 50명의 학부모 모두 아카코 거주, 최종학력은 10%(5명)만이 초등학교를 나왔으며 95%(45명)의 학부모의 경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실정
- 월수입의 경우 500Birr 이하 20명(40%), 500 ~ 1,000Birr 이하 20명(40%), 1,500Birr 10명(20%)로 80%의 학부모가 절대빈곤의 기준이 되는 $ 1.25(에티오

피아 환율 : $ 1 = 22Birr)와 대동소이한 것으로 판단

- 학부모가 생각하는 낮은 문해율의 원인으로는 낮은 교육의 질 50%(25명), 가정 환경문제 40%(20명), 도서 부족 10%(5명)으로 조사됨.

● 자녀 및 교육관련 결과 분석

자녀 및 교육관련 설문조사의 경우 부모의 교육수준과 교육환경에 대한 수준이 낮아 자녀에

- 자녀의 문해력 수준을 10명(20%)이 뛰어남, 보통 15명(30%), 떨어짐 25명(50%)로 평가, 자녀의 문해력이 낮은 원인으로는 35명(70%)의 학부모가 학교 문제 및 도서 부족이 원인이라 판단, 그 외 부모의 문제를 15명(30%)이 응답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자녀 교육에 주요 문제점으로는 20명(40%)의 학부모가 도서 및 교재 부족, 15명(30%)의 학부모가 교육비, 나머지 15명은 등교 이동거리를 원인으로 주목.
- 자녀에 대한 진학 계획에 대한 설문의 경우 60%(30명)의 학부모가 초등학교 졸업을 13명(26%)의 학부모가 중학교 졸업으로 계획
- 학부모 50명 모두 교육의 효과성과 독서에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으며 책이 비싸 구입은 못하지만 가정 내에서 학생들이 책을 읽는다 응답

● 도서관관련 결과 분석

아카코 학교 내에 도서관이 있으나 운영되지 않아 있다는 사실도 몰랐으며, 그 필요성과 자녀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서관 운영과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참여시키고자 함.

● 컴퓨터관련 결과 분석

학생 설문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교육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고 컴퓨터 교육을 한다면 교육의 질 향상과 학생들의 취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음.

3) 교사 설문조사

● 개인 정보 설문 결과

성별 남자 10명, 여자 4명으로 아카코 초등학교 10명, 카토 초등학교 4명 등 총 14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 교사의 최종 학력은 2년제 대학 13명, 4년제 대학 1명, 모국어의 경우 1명의 교사만이 암하라어를 사용했으며 13명은 오로미아어 사용하지만 읽고 쓸 수 있는 언어의 경우 영어와 모국어 100%, 암하라어 12명의 교사가 읽고 쓸 수 있는 것으로 조사, 월 소득의 경우 2명의 교사만 1,000 ~1,500 Birr 이며 나머지 12명은 2,000Birr 이상으로 조사됨.

<표1. 교사 일반정보>		빈도	비율
교직 경력	1년 미만		
	1-3년	4	28%
	3-10년	10	71%
	10년 이상		
최종학력	2년제 대학	13	85%
	4년제 대학	1	7%
	석박사 이상		
모국어	영어		
	암하라어	1	7%
	오로모어	13	92%
	기타		
읽고 쓸 수 있는 다른 언어 (중복선택가능)	영어	14	100%
	암하라어	12	85%
	오로모어	14	100%
	기타		
월 소득(수입)	500비르 이하		
	500-1,000비르		
	1,000-1,500비르	2	15%
	2,000비르 이상	12	85%
	기타		

● 학생 정보관련 설문 결과

교사(14명)를 대상으로 학생 정보관련 설문 결과 학생의 문해력 수준을 보통과 뛰어남으로 각각 50% 교사가 판단하였으나 문해력이 낮은 이유로는 10명의 교사가 도서 부족 문제로 판단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문해력 향상을 위해 도서관 운영과 도서 프로그램이 매우 필요하고 학생들의 관심도 많다고 모든 교사(14명)가 응답함. 학생들의 결석 이유로는 학교에 흥미가 없고 집안일을 해야 하며 학교가 멀다라 조사됨.

- 도서관 정보관련 설문 결과

  교사들은 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그 필수 요소로 다양한 책, 독서 프로그램, 전문 사서, 좋은 시설 등 모든 부문에 공감하고 현재 도서관이 그 필수 요소들이 부족하고 없음을 문제점이라 응답.

  - 책 관련해서 교과서, 참고서, 이야기책, 교양도서 등 다양한 책을 원하며, 지역적 특성상 영어, 오로미아어, 암하라어로 된 책이 구입되길 희망함.
  - 도서관 운영을 위한 전문 사서의 필요성과 그 사서의 역량을 통한 도서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그렇다'는 공통된 의견이 교사 14명 모두에게 나왔음.
  - 학생을 위한 도서와 더불어 교사를 위한 도서가 구비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도 모든 교사가 '매우 그렇다'란 의견.

- 컴퓨터 정보관련 설문 결과

  교사 14명의 경우 7명은 컴퓨터를 접해본 경험은 있으나 사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으며,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컴퓨터 시설과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매우 필요하고 양질의 교육적 측면과 학생 취업의 선택의 폭과 관련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조사됨.

다. 표적 그룹 토의(FGD, Focus Group Discussion)

본 조사에서는 아카코 초등학교 내 10명의 교사와 5개 마을의 각각의 10명의 학부모 및 마을 원로를 대상으로 실시, 조사 과정에서 언어적인 이유로 소통의 문제가 부각되었으나 현지 교사들이 서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찾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각자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했으나 마을의 학부모와 마을 원로의 경우 대체적으로 광범위한 마을의 문제부터 조사와는 별개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옴. 또한 오후에 찾아가는 마을의 경우 음주로 인해 횡설수설하는 마을원로들도 있어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음.

1) 아카코 초등학교 교사 대상 FGD 결과

토의 순서는 온해피 단체소개 → 현지조사관련 설명 → 학교 차원에서 아동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논의 → 아카코 초등학교의 교육과 관련된 문제점(문제나무 그리기) 논의 →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목표나무 그리기) 논의 순으로 진행

- 문제점

  ① 모든 수업은 영어 한 과목을 제외한 오로모어로 진행, 수업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을 못하여 수업에 방해를 주기도 함.

  ② 교내에 적절한 참고 도서(교과서, 참고서)가 구비되어 있지 않으며, 컴퓨터도 없는 실정, 그 결과 학생들의 학습 능률 및 문맹률이 매우 열악한 상황

  ③ 학생들의 결석원인에 대해서 학습의 흥미 유발 동기 부족, 참고서적과 교재 등의 학습용 도서 부족, 가정에서의 적절한 대우를 못 받음, 학교의 재정 상태, 가정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한 학습보단 일, 학교와 가정 사이의 소통 부족 등으로 논의 됨.

  ④ 대부분의 학생은 초등학교 졸업 후 상위의 교육과정에 진학하지 못하며 그 이유로는 교육의 질이 악화되고 가정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진학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 해결방안

  ①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사들은 교사와 학부모간의 정기 회의 기획, 도서관 운영 및 도서 프로그램 운영, 컴퓨터랩 운영을 통한 교육과 같은 교육 환경 개선

  ②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로 양질의 학습 환경 조성 등으로 학생의 관심과 학부모와의 소통을 통한 가정 내의 협조를 구한 다면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거라 논의 됨

2) 아카코 5개 마을 학부모 및 마을 원로 대상 FGD 결과

아카코 지역은 현재 아디스아바바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인구의 유입으로 우후죽순으로 마을이 형성되는 중, 토착민의 경우 오로미아 주민으로 오로모어를 구사하지만 새로 유입되는 인구의 경우 암하라어를 구사하여 이번 조사 대상의 마을의 경우 주로 기존 토착민을 대상으로 진행, 마을당 10명의 주민(학부모, 원로)으로 구성하여 그들이 생각하는 교육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논의 하여 이를 조약돌 투표[09]를 이용해 정성적 지표를 정량적 지표화 함, 하지만 대다수의 마을 주민이 기본적인 초등교육을 받지 못해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고 이해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진행하다 보니 수월한 진행이 어려웠음.

09 논의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들을 대상으로 마을주민(학부모, 원로)이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조약돌을 통해 알아보는 방법

마을명	문제점	조약돌 투표결과	비고
Kile	1. 교과서가 없다보니 아이들이 배우는 것이 없고 그러다 보니 2 ~ 3과목만 배우고 돌아옴 2. 가정교육 부재와 가정 내 식수를 아이들이 떠오기 때문에 학교 갈 시간이 없음 3. 학교와 부모간의 소통 부재 4. 교과서 외의 도서 부재 5. 교사 부족과 학교 운영 재정 문제 6. 교사의 질 문제	도서 부족이 가장 큰 문제	
Kecha	1. 교육에 대한 부모의 의식 문제 2. 다양한 도서와 관련 프로그램 부재	도서 부족이 가장 큰 문제	부모의 교육에 대한 경험이 없고 무지하고, 아이들이 공부해야 할 책이 부족하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관련 사업이 진행된다면 적극적으로 돕겠음.
Kattoo	1. 5학년부터 아카코 초등학교로 등하교를 하는 데 여학생의 경우 매우 위험하여 보낼 수 없음. 2. 카토 초등학교 개보수 및 도서관 설립을 해야 하지만 예산이 없음. 3. 교사의 부족 4. 교과서 부족으로 1권당 3명이 함께 이용, 참고서 부재		조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했으나 그와는 상관없는 의견들이 많아 논의에 어려움이 많았음.
Dire	1. 교사의 역량 문제 2. 가정의 경제적 문제 3.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부재 4. 학생의 중퇴율이 높음 5. 언어적 문제로 타지역 학교로 등교 6. 등하교 등 거리의 문제 7. 여자보다 남자의 교육기회 많음	도서 부족이 가장 큰 문제	교사의 역량과 도서 부족, 언어의 문제로 인해 타 지역 학교로 보냄
Dhamota	1. 도서와 컴퓨터가 없는 것이 문제 2.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소통 부재 3. 가정교육의 부재와 경제적 형편 문제	도서 부족이 가장 큰 문제	교육은 못 받았지만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며, 무엇이든 최대한 돕고 싶음.

라. 주요정보원 인터뷰(KII, Key Information Interview)

본 조사에서는 총 11명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진행, 국내 도서전문가의 의견을 함께 기재함.

1) 대상자 : Dawit Abebe Gutema 아카코 교장

- 일시 : 2017. 05. 22(월), 10:30~11:00
- 장소 : 아카코 초등학교 내 교장실
- 주요 내용
  - 학교 현황 : 초등학생 340명(남학생 184명, 여학생 156명)으로 8개 학급 평균 40명 수업, 그 외 유치원 60명 등 총 400명
  - 학생의 중퇴 및 유급에 대한 이유
    중퇴의 경우 가정의 경제적 문제, 학습 도서 부족, 아랍국가로의 이주 등을 들수 있으며, 유급의 경우 선생의 지도 방법 및 관심 부족, 학교 예산 부족, 가정의 경제적 문제로 인한 결석 등을 이유로 들었음.
  - 학생의 교육 수준과 학부모의 교육열
    학부모의 경우 대다수가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최근 들어 학생 몇몇이 고등학교나 대학교까지 진학하기 시작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과 학부모는 교육에 대해 무지하고 관심이 없음.
  - 학교의 진행 중인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없으나 이번 조사로 도서와 컴퓨터가 보급되어 좋은 프로그램이 생기길 희망함.
  - 도서관 및 컴퓨터 관련 질문
    도서관 공간은 있지만 100여권의 오래된 책만 있을 뿐이며, 참고도서와 사전, 이

야기책 등이 필요함.

- 아동의 교육의 질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가?
  만약 학생들이 책을 읽을 수 있다면, 다른 곳에 가지 않아도 되며 도서를 통해 아이들 마음이 변화할거라 생각함.
- 이번 조사를 통해 사업이 진행 된다면 도서관 및 컴퓨터랩 운영을 위한 예산과 직원 채용이 가능한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며 가능하다 믿음.

2) 대상자 : Belete Gelan (5 ~8학년 사회, 지리 담당)

- 일시 : 2017. 05. 22(월), 13:40~14:00
- 장소 : 아카코 초등학교 내 도서관
- 주요 내용
  - 도서관 현황 : 보유 장서 100여권, 보유 장서의 종류 참고서 및 이야기책, 보유 장서의 주 언어 오로모어 〉 영어 〉 암하라어 순
  - 도서 장서의 목록을 작성하지 않아 도서 현황파악도 안되어 있는 상황
  - 기존의 도서 너무 오래되어 현재 커리큘럼과 맞지 않으나 책이 없는 학생들이 오래된 것이라도 빌려감
  - 오로미아주의 경우 5학년부터 암하라어를 배우고 1학년부터 영어를 배움

3) 대상자 : Tashomaa Tasfaa (Suluta Education Office Manager)

- 일시 : 2017. 05. 23(화), 10:20~11:00
- 장소 : Oromia (region) special zone surrounding finfine Sululta Education office
- 주요 내용
  - 학교는 정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NGO, 지역사회가 함께 도와주고 함께 프로젝트로 해야 함.
  - 시와 지방 교육지원청은 도서와 컴퓨터의 기자재 보급 및 프로그램 보급과 관련된 계획은 있으나 올해 예산이 없음
  - 현재 시급한 도서는 각 학교마다 참고서가 없다는 것이며, 아직까지 교육지원청까지 찾아온 NGO는 없음.
  - 아카코 초등학교를 도서 및 컴퓨터 교육 시범학교로 운영한다면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마을 주민이 책의 소중함과 그 필요성을 인지해야함.

  - 본 사업이 진행된다면 언제든지 도와줄 것이며 책과 컴퓨터가 있으면 미래를 바꿀 것
  - 지역의 장애우, 여성 등의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이나 계획은 있으나 예산이 없어 포기, 교육정책 중 여성만을 위한 계획은 없고 성별 관계없이 동등하게 계획, 하지만 지역사회의 여성에 대한 차별적 관습은 존재.

4) 대상자 : Getu Regosa (행정청 Manager)

- 일시 : 2017. 05. 23(화), 10:20~11:00
- 장소 : Oromia (region) special zone surrounding finfine sululta Wereda 행정청
- 주요 내용
  - 교육을 위한 도서보급과 관련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컴퓨터 교육은 필요하고 관련 협조사항은 교육지원청에 요구, 커뮤니티를 만들어 협업하고 책임을 분담해야 함

5) 대상자 : Habtamu (아카코 마을 지역 Office Manager)

- 일시 : 2017. 05. 24(수), 10:10~10:40
- 장소 : 아카코 마을 내 Office
- 주요 내용
  - 지역 공동체가 아직 시민화(계몽)가 안 되어 있으나 아카코 초등학교가 생긴 이후 학교를 보내기 시작.
  - 컴퓨터랩의 경우 중등교육을 받은 학생들도 어떠한 경험이 없어 관련 시설이 생긴다면 지역공동체의 젊은이들도 학교에서 시간을 보낼 것으로 예상
  - 마을 사무소의 역할은 더 많은 지역 학생들이 학교에 가도록 독려하는 것이지만 정기적인 예산이 없어 힘들고 가정 내 부모들이 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없다 보니 그 중요성에 대한 인지 부족.
  - 현재 전기사정은 학교지역의 전기시설이 끊어져 보수해야 하며, 지역의 특성상 전기사정은 좋은 편은 아님.
  - 현재 아카코 내 9~10학년이 없어 타 지역으로 학교를 보내야 하지만 너무 멀어 학교에 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며 그 중 여학생 경우 특히 어려움이 많고 장애우의 경우도 많지는 않지만 교육적으로 가르칠 방법은 없음.

6) 대상자 : Fikiryessus(아디스아바바 시립도서관 관장)

- 일시 : 2017. 05. 25(목), 10:00~10:30
- 장소 : 아디스아바바 시립도서관 내
- 주요 내용
  - 도서관 현황 : 도서의 경우 암하라어 〉 영어 〉 불어 순으로 기부 받은 책과 정부 예산으로 구입한 도서가 약 25,000권 보유, 전문 사서 없음. 하루 1,000명 ~ 2,000명이용
  - 시립도서관 관장으로 근무한지 1년 되었으며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지만 예산이 적어 잘 운영되지 않는 부분이 많음.
  - 전문 사서가 없어 정확한 보유 도서 현황 파악이 힘들며 분류체계(DDC)도 없음.
  - 도서 구입비는 1년에 약 50,000 USD(약 1,200,000 ETB)나 교과서 및 도서가 비싸며, 총 800권에서 900권정도 구입
  - 전문도서가 비싸고 도서 훼손율이 높아 오래 사용하지 못함.
  - 학교마다 도서관은 있지만 유명무실하고 전문 사서도 없어 관련 프로그램 계획이나 운영하지 못함
  - 현재 사서의 평균 임금의 경우 2,000 ~ 3,000Birr로 적은 편이라 정부차원에서 임금 인상을 논의 중
  - 도서관 건물이 오래되 다른 지역에 신축 계획이고 일부는 내부 리모델링 계획 중
  - 아이들을 위한 필수 도서는 교과서, 스토리북(영어, 암하라어, 오로미아어), 역사책, 문학책이라 생각함.

7) 대상자 : Getinet Mekonnen(히브레 프레 초등학교 교장)

- 일시 : 2017. 05. 25(목), 10:50~11:30
- 장소 : 히브레 프레 초등학교 내 도서관
- 주요 내용
  - 도서관 현황 : 약 5,000여 권 보유, 일반 교사가 관리, 책의 언어 비율(암하라어 66%, 영어 34%), 올해 정부 예산으로 도서 200권 구입
  - 5년간 선생으로 일하다 교장이 됨.
  - 아디스아바바의 경우 어느 정도 정부 예산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 교육의 질이 향상되고 있으며, NGO의 지원이 많음.
  - 하지만 지방의 학교의 경우 도서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

  - 아카코가 수도와 가깝다고 해도 수도의 도서관을 이용하기에는 이용자의 어려움이 많음
  - 전문사서의 월급이 적어 지원자가 없어 현재 학교에는 전문 사서가 없고 일반 교사가 배정되어 관리

8) 대상자 : 이종갑(에티오피아 교육부 ICT 분야 자문, 공학박사)

- 일시 : 2017. 05. 25(목), 14:30~15:00
- 장소 : 아디스아바바 내 교육방송센터 부근 카페
- 주요 내용
  - 에티오피아 교육부와 카마라 NGO간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카마라 NGO의 갑작스러운 연락두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속 에티오피아 파견 이종갑 공학박사를 인터뷰(방송국 견학을 못했으며, 그 이유는 카마라와 연관된 사람 출입 제한)
  - 많은 개도국이 교육과 관련해서 똑같은 원인으로 고민하고 있고 선생은 가장 할 일이 없는 사람이 함. 그러다 보니 공교육보단 사교육(사립학교)이 활성화
  - 현재 라디오 방송을 통해 초등학교 지원, 고학년의 경우 비디오교육을 지원하여 교육의 평준화를 시도하며 모든 방송은 영어 교육.
  - 초등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차순교육이 이루워지기 때문에 중요
  - 교사의 처우개선이 되지 않아 이직률이 높음

9) 대상자 : Gemmachuu Teffaraa Alamuu(Adama Science & Technology University 기술대학 컴퓨터 엔지니어링 분야학사, 조사원)

- 일시 : 2017. 05. 25(목), 16:30~17:00
- 장소 : 아카코 초등학교 교실
- 주요 내용
  -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컴퓨터 사용 능력을 증진하고 이를 통해 교육의 질 향상시키고 에티오피아도 국가적으로 IT사업 발전을 위해 ICT교육이 필요함
  - 에티오피아의 경우 IT 산업과 관련 주요 직업군은 전기통신, 은행, 사무실, 학교 등이 있으며, ICT 클럽과 같은 IT 교육기관도 있음(ICT 클럽은 사회, 경제 발전을 위해 통신 기술 쪽에 더 집중)
  - 컴퓨터 교육은 컴퓨터에 대한 이론적 학습과 함께 교육적 프로그램을 진행해야함
  - 교육사업 진행시 연 예산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유지를 위한 비용과 전문가 인

건비에 따라 달라짐.
- 학교 내 컴퓨터가 있는 곳도 있으나 많은 교사가 사용방법을 몰라 관련 전문 교사를 통한 교육이 필요하며 관련 사용 지침서도 있어야 함.
- 컴퓨터 교육을 통해 국제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고 전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10) 대상자 : 도영아(에티오피아 KOICA 소장), 성지은 부소장

- 일시 : 2017. 05. 26(목), 10:50~11:30
- 장소 : 에티오피아 KOICA 사무소
- 주요 내용
  - 기관의 전문분야를 만들어 특화시켜야 함. 온해피는 도서 사업에 집중하는 것도 방법
  - 도서관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이벤트 등을 통해 독서습관을 형성하게 하고 글쓰기 대회, 독서대회, 성인문해교육(주부, 여성 대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가능
  - 기관 특화 사업으로 도서 사업의 전문성을 개발하고 독서 지도사 등을 통해 교사 연수도 가능
  - 에티오피아는 조혼으로 인해 어린 부모(여성)가 많아 성인 문해율이 낮아 여성을 대상으로 점증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면 좋음
  - 에티오피아의 경우 창작 동화가 없으니 참고하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길 바람
  - 대부분의 개도국의 경우 교사 급여가 낮고 인식도 좋지 않으며 정부 예산 자체도 적음. 그러다 보니 사교육(사립학교 진학)이 많음
  - 현재 라디오 방송을 통한 초등교육 역량강화 사업 진행
  - 현지 사업기반 출구전략과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
  - 지표에 기반 한 성과 관리, 예산 규모의 현실성, 집행의 세분화된 계획 필요
  - 현지에 맞는 콘텐츠와 프로그램이 중요

11) 대상자 : 코카베 츠바 학교 컴퓨터랩 관리자

- 일시 : 2017. 05. 26(목), 14:20~14:50
- 장소 : 코카베 츠바 학교 컴퓨터랩실
- 주요 내용
  - 교육부와 카마라 NGO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교과과정을 컨텐츠로 다양한 언어(영어, 암하라어, 오로모어 등)로 운영, 교과서 및 참고서 소프트웨어와 고등학교, 대학교 내용관련 컨텐츠도 있음.
  - 일주일에 1회 랩 클래스 운영, 다른 과목의 예습이 가능
  - 현재 코카베 츠바 학교를 관련 프로그램 모델학교로 선정, 다른 학교 교사교육도 함
  - 문제는 현재 파일럿으로 프로그램이 운영중이라 파일럿이 끝나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 대금 지불해야 하고, 카마라가 기증하는 컴퓨터 관련 기자재가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많아 현재는 좋은 평을 받지 못함.

12) 한국 도서전문가 의견

- 소속 : 바람숲그림책도서관[10]
- 이름 : 최지혜 관장
- 도서관 현황 : 장서수 5,400여권, 개관일 2014년 2월, 운영일 수요일 ~ 일요일(10:00 ~ 18:30), 사립 운영, 주말 북스테이 가능
- 의견
  - 과거를 알려면 박물관으로 가고 현재를 알려면 시장에 가며, 미래를 알려면 도서관에 가봐야 함
  - 기존 도서관 활용.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도서관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조건
  - 교과서도 없는 상황으로 교과서 및 참고서를 기본으로 마련, 아이들의 창의력 향상과 즐거움을 위한 재미있는 이야기책 중심 도서마련
  - 학생을 포함한 아동뿐만 아닌 성인들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도서 마련, 이용자의 동향파악. 점증적으로 장서의 종류 및 양 확대, 현재는 어려운 전문 서적을 필요치 않음.
  - 조사과정에서 단순 '컴퓨터'라는 말에 무조건 열광하고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로 판단
  - 운영에 있어 프로그램과 함께 정확한 운영매뉴얼 기획, 전담인력(전문사서) 배치를 통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중요
  - 현지의 실정과 대상에 맞는 도서 프로그램운영은 전담 인력인 사서의 몫으로 그들의 역량이 중요

10 바람숲그림책도서관 : 인천 강화군 불은면 덕진로 159번길 66-34(http://blog.naver.com/baramsupai)

● 도서프로그램(안)[11]

구 분	프로그램	내 용
아이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책 읽어주기	일정 시간을 정해서 학생을 대상으로 책을 재미있게 읽어주기
	독후 감상화 그리기	책에 대한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
	스토링텔링 수업	책을 다 읽은 후 이야기를 더 전개하여 이야기 만들기
	시청각교육	시청각 기자재를 활용한 다양한 시청각 교육
	독서 통장	통장을 만들어 날짜와 읽은 책 목록을 기입, 책을 많이 읽은 학생을 대상으로 보상
	독서 퀴즈	같은 책을 읽고 퀴즈를 준비하여 퀴즈 맞추기
	책 만들기	주제를 정해서 간단한 책 만들어 보기 (다양한 북아트 기법 활용) / 방학특강
	느낌 표현하기	하나의 책을 읽고 주제를 끌어내어 표현하기(종이접기, 부채 만들기, 가방 꾸미기 등) / 방학특강
마을 주민 프로그램	문해교실	여성을 중심으로 한 문해 교실 운영
	상영	마을주민을 위한 영상 상영
	낭송대회	시나 짧을 글 낭송 이벤트를 통한 주민 관심 촉구

04 변화의 영역

가. 주목 분야

조사 기획 당시 아카코 초등학교를 교육의 중심으로 도서를 통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과 도서를 보급하고 그와 더불어 컴퓨터랩실 운영 및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현지 문헌조사와 설문조사, FGD, KII, 직접관찰 등을 통해 컴퓨터관련 랩실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의 경우 아카코 마을의 불안정한 전기사정과 하고자 하는 의욕과 막연한 기대심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

11 본 프로그램은 전문가의 입장에서 단순 예시(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현지 실정에 맞게 현지 사서가 재구성해야 함

본 사업을 시행할 경우 도서 보급과 도서프로그램 운영을 중점으로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를 보급하고 운영하며, 보급된 컴퓨터를 통해 점증적으로 교사 기초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교육, 기본 프로그램 활용 교육 등을 시작한 후 평가를 통해 차후 컴퓨터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아카코 교장, 교사, 학생, 학부모의 경우 도서 보급과 관련 프로그램 운영이 가장 중요하고 컴퓨터 활용 프로그램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지 사정과 주요 정보원들의 인터뷰(KIIs) 및 현지 직접관찰 등을 통해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한다면 컴퓨터랩실과 관련 프로그램 운영의 경우는 점증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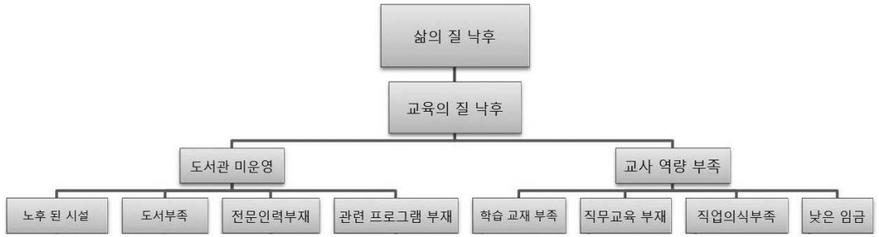
본 조사를 통해 문제분석(Problem Analysis)과 목표분석(Objective Analysis)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음.

1) 문제분석(Problem Analysis)

문제분석을 통해 아카코 마을의 아카코 초등학교 교육의 질 향상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분석해 본 결과 크게 도서관을 운영과 교사의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이 중 본 조사를 통해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을 도서 보급을 통한 도서관 운영과 관련 프로그램 진행으로 그와 관련된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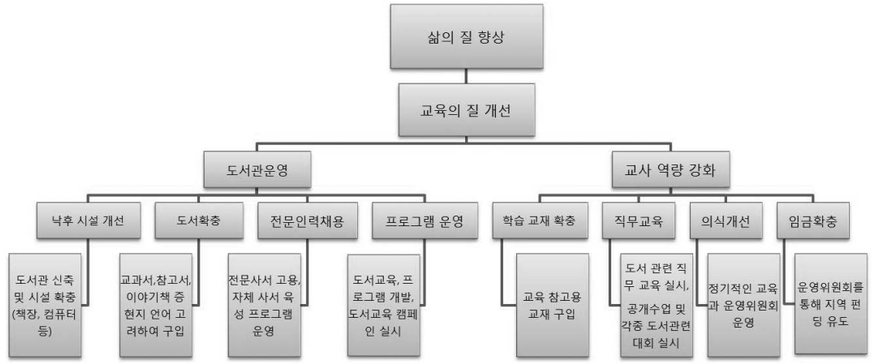
-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노후된 시설 : 아카코 초등학교의 경우 2009년도 일본의 국제협력단(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에서 총 7동(교실건물 5동, 화장실 2동)설립 후 2017년 5월 학교 상태 확인 후 재정지원이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아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가 없었음. 별도의 프로그램실이 없어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움.
- 도서 부족 : 아카코 학교 내 도서는 100여권으로 전문사서가 아닌 교사가 관리하다 보니 도서의 관리 상태, 개정된 교육과정과는 다른 오래된 도서들로 이루어짐.
- 전문 인력 부재 : 전문사서는 존재하지만 에티오피아 현지 사서의 평균 임금이 2,000 ~ 3,000Birr지만 현실적으로 금액이 적어 비인기 직종임. 각 학교마다 도서관은 명목상 존재하지만, 사서를 별도로 채용하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 각 학교에 있는 도서관은 유명무실한 경우가 대부분임.
- 관련 프로그램 부재 : 다양한 도서를 보급 한 후 이를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

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현재는 도서자체가 부족하고 교사의 역량 또한 부족하다.



2) 목표분석(Objective Analysis)

- 노후 시설 개선 : 책장, 책상, 컴퓨터등 기자재를 구비하여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최소 시설 확충, 도서관 프로그램실의 신축으로 부족한 공간을 확장
- 도서 확충 : 일차적으로 필요한 교과서 및 참고서를 포함한 학습 도서(교사용, 학생용)를 중심으로 학생 및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스토리북, 역사책, 문학책, 전문도서 등 점차적으로 확충, 책모으기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영문책 보강
- 전문 인력 양성 : 아디스아바바출신의 현지 전문사서 채용, 한국의 전문 사서를 봉사단 형식으로 1년 ~ 2년간 파견을 매칭하여 교육하여 롤모델 제시. 현지 사서와 교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멘토링 실시, 사업 완료 후 학교 내 교사를 활용한 인력 확충 내지는 현지 인력 채용에 있어 현지 측 재정 사용 촉구
- 관련 프로그램 운영 : 한국 도서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현지에 맞는 도서 프로그램 운영과 도서 전문 사서 양성 프로그램 개발 운영
- 교사 역량 강화 : 낮은 임금과 직업의식의 부족에서 오는 낮은 자존감을 정기적인 교육(세미나)를 통해 해소, 교습용 교재 보강
- 주민 역량 강화 :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교육 캠페인을 통해 도서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도서관 상시 개방으로 마을주민의 자유로운 이용 확대.



3) 사업 논리 모형(PDM, Project Design Matrix)

프로젝트 요약	지표	지표 증명수단	가정
◦ **목표(Goal)** 교육의 질 개선을 통한 모두의 교육 목표 달성			
◦ **목적(Outcome/ Purpose)** 학습성과를 위한 양질의 교육	성적향상	1. 성적 향상 명단, 성적표 2. 도서관이용자 명단	
◦ **산출물(Output)** 1. 낙후된 시설 개선 2. 도서 관련 프로그램 운영	1-1 구입한 물품 수 1-2 보유 도서 수 1-3 보유 도서의 종류 1-4 구입한 도서의 번역 언어 수	1-1 도서실 물품 대장 1-2 도서구입 명세서, 도서 관리 대장 1-3 도서 목록 1-4 도서 관리 대장	- 천재지변이나 강탈이 없다. - 원하는 도서의 구입이 가능하고 구입한 도서의 훼손과 분실이 없다.
	2-1 개발된 프로그램 수 2-2 월 평균 프로그램 참여자 수 2-3 일 평균 도서관 방문자수 2-4 캠페인 참여자수	2-1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활동지, 발표회, 참여자 확인서 등) 2-2 이용자 명단 2-3 도서관 운영 대장 2-4 캠페인 안내문, 홍보문, 계획서	- 학생의 학교 출석률 유지 - 학교 측의 홍보와 관심
	3-1 고용된 인력의 수 3-2 교육받은 대상의 수	3-1 근로계약서, 이력서 3-2 교육 참여 확인대장	- 전문 인력 채용 - 교육 참여

▪ **개별활동(Activity) 1** 1-1 도서관 기자재 보충 1-2 도서관신축 1-3 도서 구입 2-1 도서 열람 운영 2-2 도서 프로그램 운영 2-3 도서관 이용 홍보 3-1 전담인력 채용 3-2 사서 실무 교육 3-3 교사의 도서관 이용 교육	**투입물(INPUTS)** 1-1. 현재 거의 비어 있는 도서관에 기자재 구비 ☞ 도서관 정상 가동 기대 1-2. 독서관련 프로그램실의 별도 마련 (1개동 신축) ☞ 부족한 프로그램실 마련으로 이용확대 기대 1-3. 도서 3,000권 이상 구비 ☞ 도서 열람 및 이용자 증가 기대 2-1 도서관 상시 운영 ☞아동~지역주민까지 확대이용 기대 2-2 도서관 별도 프로그램(교육) 매일 2회(오전,오후) 진행 ☞ 성적 향상 기대 2-3 마을 전체 대상 연 1회 정기 캠페인 실시 ☞ 이용확대 3-1 사업 전담 인력 2명 투입 ☞ 현지인 고용으로 고용창출 및 전문가 양성 기대 3-2. 한국 파견 봉사 전문 인력이 최소 1년간 사서 실무 전담교육 실시 3-3 교사 및 주민 역량강화 교육 년 1회 이상 실시 ☞ 교사는 물론 주민교육을 통해 마을 전체 역량강화 기대	- 현지 학교와 교육청의 관심 지속 - 양질의 한국 사서를 현지에 파견 하여 롤모델 확보 - 전교사 의무 교육 - 교사의 이직 없음 - 교육 수당의 안정적인 지급

나. 현지의 수요 및 상황

1) 선정 분야 서비스 지원 필요성

- 에티오피아는 1인당 GDP 619불(2015년, IMF)의 세계최빈국이며 명목 GDP는 2013년부터 꾸준한 증가추세이나 실질 GDP 성장률은 2013년 10.5% ~ 2015년 약 8.7%로 다소간의 하락세 시현[12]
- ODA 규모는 2014년 약 38억불로 에티오피아 국가 예산 89억불의 42%에 달하는 규모
- 농업이 전체 GDP의 약 46%, 노동력의 약 85%를 차지할 정도로 농업의 비중 높음
- 에티오피아 인구의 과반수가 빈곤상태로 만성적인 식량부족,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으로 다양한 질병에 노출
- 에티오피아는 문헌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세계 최빈국으로서 국가경제, 사회경제, 교육문화 등 많은 부문에서 개선이 필요하며 많은 부문에서 국제사회의 ODA자금이나 민간의 도움이 필요한 나라. 그 중 UN이 2015년 선정한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중 4번째 목표인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교육 기회 증진'차원에서 접근한 이번 조사는 에티오피아의 소외지역 아카코 마을의 아카코 학교를 대상으로 한 도서 보급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은 지속가능한 교육적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아카코 학교의 학생을 포함한 마을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12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IMF 2016.2(2014-2015 잠정치)

2) 타 기관 활동 및 정부의 협조 현황

해당 지역의 경우 농업과 목축업을 기반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역인구의 대다수(80%) 정도가 일일 최저 생계비용 1.25불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인구의 약 10%만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주 열악한 지역.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기본 지식이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만 가정 형편과 사회 기반 시설 및 교육 인프라의 부족으로 기초적인 초등학교를 다니는 것조차 어려움이 많음.

현재 아디스아바바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꾸준한 유입으로 인구가 늘어가고 있으나 해당 지역을 위한 지방 정부(오로미아주)의 노력은 계획만 있을 뿐 턱없는 예산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고 외부 단체(국내외 NGO)의 지원 또한 없는 실정이며, 온해피 현지 지부장((Local NGO, HaPo Korea Charity Association, 하포코리아)가 2016년부터 아카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 기자재 지원 및 프로그램을 운영.

지역 조사기간 중 인터뷰를 통해 만난 지방정부 Oromia (region) special zone surrounding finfine sululta Wereda의 행정청 매니저의 경우 교육관련 된 사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모르며 교육지원청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것을 조언. 교육지원청 Oromia (region) special zone surrounding finfine Sululta Education office의 매니저(Tashomaa Tasfaa)의 경우 많은 부분에서 아카코 마을과 학교의 사정에 동감하며 이번 조사를 통해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서로 협조하며 돕길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문제로 어려움이 많음을 피력. 또한 마을을 담당하는 공무원인 Habtamu씨는 지역의 많은 어려운 현안이 있으며 그 중 교육이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로 뽑으며 이번 조사를 통해 사업이 진행되길 희망함.

그 외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에티오피아의 실정과 아카코 마을주민과 학교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FGD를 통해 아카코 마을과 학교에 대한 실정과 현안을 알게 됨. 현지 마을 주민의 경우 교육을 포함한 많은 것이 부족하고 열악함, 그리고 이번 조사 방문을 통해 마을 교육의 발전을 향한 간절함과 기대감을 보임.

3) 이해관계자 분석

	이해관계자	위치 (+ 0 −)	위치설정이유	강점 및 약점	위치변화 전략
1	아카코 학생	+	본 사업의 프로그램을 직접 이용할 대상자	강 : 교육에 대한 의지와 관심이 높음 약 : 빈곤한 가정환경	- 도서보급을 통한 교육의 관심도 증가 - 문해율 상승을 통한 성적 향상 기대
2	아카코 초등학교 교장	+	본 사업의 주최 학교의 교장 교장의 승인과 개입 없이 본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 함.	강 : 적극적 의지표출 약 : 외부지원 없음	- 빈 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보급으로 제반 시설 및 교육 여건 개선 - 학교장으로서의 명예 향상
3	아카코 초등학교 도서관 담당	+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 운영 시 개인 역량 향상	강 : 현재 도서담당 약 : 사서에 대한 전문 지식 없음	- 실무 역량 강화 - 직업 영역 확대 제고기회
4	아카코 주민	+	최대 직접 수혜자인 학생들의 부모 집단으로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음.	강 : 교육에 대한 의지 약 : 경제적 형편	- 자녀 교육 문제 일부 해소 - 점증적으로 모두를 위한 교육의 기회 확대
5	교육지원청 매니저	+	지역담당 교육지원청으로 행정기관의로서의 역할 수행	강 : 지역 교육 책임자 약 : 부족한 예산	-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지원가능 탐색
6	지방 행정청 매니저	0	지역 담당 행정청	교육관련사항이라 행정청에서는 무관심함	-
7	아카코 마을 매니저	+	마을사람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의 중간 역할을 함	강 : 지역인프라 활용 가능 약 : 부족한 예산	- 현지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정치적 입지 강화
8	현지 컴퓨터 전문가	+	컴퓨터관련 프로그램 운영 시 소득 발생 가능성이 농후함.	강 : 관심이 많음 약 : 현시점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여부는 확실하지 않으나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음.	- 실무 역량 강화 - 직업 영역 확대 제고기회

다. 사업대상 분야(Target Area)의 지표 및 기초선

	개별활동 (Activities)	지표 (Indicator)	기초선
도서관 운영	1. 낙후시설 개선	1. 구입 물품 수 2. 물품 구입 대장 3. 물품 관리 대장	0
	2. 도서 확충	1. 도서 관리 대장(도서 수, 종류, 언어의 종류)	1. 보유 도서 수 100권 2. 보유 보서 종류 : 미파악 3. 도서 언어수 현황 0
	3. 전문 인력 채용	1. 고용 인력 인력의 수(근로계약서, 이력서 등) 2. 교육받은 대상의 수(교육 참여 확인대장, 설문지, 교육 프로그램 등)	1. 인력 인원 0명 2. 교육 대상자 0명 3. 교육 만족도 0%
	4. 도서 프로그램 운영	1.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활동일지, 발표회, 참여자 확인서, 설문지, 캠페인 안내문, 홍보문 등	1. 참여자수 0 2. 참여 만족도 0%

라. 단체의 특성과의 연계

국제교육개발NGO 온해피는 현재 에티오피아, 케냐, 몽골, 필리핀 및 국내에서 교육 기자재 및 물품 지원, 도서 지원 및 학교 건립 등의 해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사업으로는 따뜻한 그림책 다문화 도서관 운영 및 아프리카 그림 그리기 대회 등 도서 지원 사업과 아동 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 최근 주요 사업 내용

01

02

03

04

05

06

01 케냐 소웨토 책걸상 및 학습물품 지원(2016.10)
02 케냐 취약계층 대상으로 영양제, 의약품지원(2016.10)
03 에티오피아 아카코 마을 아동 대상 학습물품지원, 영양제 지원 (2016.10)
04 탄자니아 잔지바르 초등학교에 교육기자재 컨테이너 발송 (2015.02)
05 필리핀 팔라완'Global Summit School'개관(2016.01)
06 에티오피아 아카코 소녀에게 여성용품 지원(2017.05), 유치원 아동에게 담요지원(2017.06)

또한 에티오피아 Hapo Korea 와 함께 도서관 건립사업을 논의 중이며 지속 가능모델이 되기 위하여 현지 역량 강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지 협력 NGO Hapo Korea 김희중 대표는 현재 산골마을 역량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Vision Care Ethiopia 지부장 역임 시 실명예방사업 운영시 직원 총괄을 경험한바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와의 협업을 통해 사업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여 진행한다면 교육의 기회를 상실한 아카코지역의 학생에게 을 포함한 지역민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를 통해 공평한 교육의 기회와 양질의 교육 제공을 통해 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05 자료 출처

이번 조사의 2차 자료는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한 검색, 문헌, 학술 논문 및 현지 기관 방문을 통해 이루어짐.

- 외교부. www.mofa.go.kr
- 한국국제협력단(KOICA). www.koica.go.kr
-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www.koica.go.kr
- 주에티오피아 대사관(http://eth.mofa.go.kr)
- 에티오피아 개황(2016.5)_코리아정책브리핑(http://www.korea.kr/archive/mainList.do)
- 한유진(2013). 아프리카 고등교육 ODA 정책방향 제안-한·에티오피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아프리카 학회지
- 이미지(2013). 한국의 교육분야 공적개발원조(ODA)에서의 교사 활용 방안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
- 에티오피아 교육부 교육통계자료

06 기타 활동 자료 (사진 등)

01

02

03

04

05

06

01 조사원 미팅 및 사전 회의
02 아카코 교사 토론(FGD) 및 문제/목표나무그리기
03 마을주민 대상 FGD 및 조약돌 투표
04 탄마을주민 대상 FGD
05 학생 설문조사
06 학생 설문조사

07

08

09

10

11

12

07 아디스아바바 시립도서관장 KII
08 히브렛프레교장 인터뷰(KII) 및 도서관 방문
09 아카코 마을사무소 방문 및 인터뷰(KII)
10 현지 컴퓨터 전문가 인터뷰(KII)
11 아카코 학생 대상 도서 프로그램 운영
12 관계자 및 조사원 회의(피드백 진행)

13

14

15

16

17

18

13 아카코 초등학교 도서관 현장 실사
14 짠초 교육지원청 방문 및 인터뷰
15 한국 컴퓨터(이러닝) 전문가 인터뷰
16 아카코 학생 대상 도서프로그램 운영
17 아카코 학생 대상 도서프로그램 운영
18 아카코 학생 대상 도서프로그램 운영

향후 계획

chapter 03

- 현지 조사를 통해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SDGs의 4번째 목표)'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외부 단체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며 시급하다 판단되나 현재 정부에 대한 어떠한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 에티오피아 오로미아주 아카코 마을과 아카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초기 도서 보급과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컴퓨터랩실 운영을 통해 초등학생의 교육의 질 개선은 물론 주민의 교육접근성 강화를 위한 목표를 가지고 현지 조사를 임하였으나 현지 조사를 하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점증적으로 추진
- 당초 구상했던 사업 기획안을 수정하여 1차적으로 도서 보급과 보급을 통한 도서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 사서 운영을 통해 학교 및 교사 그리고 학생의 역량강화 및 교육의 질 향상. 2차적으로 컴퓨터를 점증적으로 보급하여 교사의 역량 확대와 이를 통한 학생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양질의 교육 및 삶의 질 향상, 교육에 대한 접근성 강화에 기여
- 현지 실정은 계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인구는 당분간 계속 늘어날 전망이며 그중 대다수가 극빈층과 그 상한선인 1.25불을 못 벗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교육적 측면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본 사업을 진행하면서 교육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접근강화 프로그램 및 계몽 운동 전개
- 90%의 마을 주민이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실정으로 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인지하나 가정의 경제적 형편과 지역의 교육적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
- 현지를 조사하기 위해 2차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한계가 있음. 현지 교육지원청, 행정청, 마을 사무소 등 관련 데이터나 자료부재. 직접관찰의 한계 존재

- 향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추가적인 지역조사가 필요하며, 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관계자(학생, 교사, 지역주민 등)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홍보를 통한 피드백 필요
- 구체적으로 시설관리 주무 부서를 학교장으로 의무화하고 도사관 운영위원회를 두어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학생과 교사,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학교와 도서관은 모두의 재산이라는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어 주고 시설물을 잘 관리하여 도난이나 파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설물을 유지할 계획이다.
- (사)온해피에서는 사업 지원이 완료된 후에도 영문 도서들이 지속적으로 지원 될 수 있도록 책모으기, 기자재 수집, 학습도구 모집을 지속할 예정이다.

PART 07

[교육] 위드

시행일자	2017년 4월 19일(수) ~ 6월 18일(목) (총 60일)
지역	미얀마 양곤 쉐비다/흘랑따야

2017년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지역조사(사업형성조사) 결과보고서

기본정보				
단체명	(사)위드		**작성자**	고 은 경
단체현황	현지 지부		☑ 있음	☐ 없음
	NGO 등록		☐ 있음	☑ 없음
	KOICA 협력사업 수행 경험 유무		☑ 있음	☐ 없음
사업 분야	교육		**코드번호**	전문교육(114**)
조사 목적	미얀마 양곤지역 도시빈민 청소년 대상 식음료 전문가 교육을 포함한 통합적 직업훈련교육사업 수행을 위한 타당성 조사			
대상 국가 및 지역	**국 가**	미얀마	**지 역**	양곤 쉐비다/흘랑따야
	* Shwephyithar Township/ Hlaingtharyar Township, Yangon City, Yangon Region, Myanmar (수도 Nay Pyi Daw에서 차량으로 5시간 30분 소요)			
조사기간	**전체 조사 기간**	2017년 4월 19일(수) ~ 6월 18일(목) (총 60일)		
	현지 체류기간	5월 14일 ~ 5월 24일 (총11일)		

조사 목적

chapter 01

본 조사는 미얀마 양곤의 도시빈민 밀집 지역인 쉐비다 타운쉽과 흘랑따야 타운쉽 지역에 거주하는 빈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식음료 분야 직업훈련교육사업의 수요 정도를 조사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업 발굴 및 기획의 근거로 삼고자 진행하였다. 특히 직업훈련교육에 소외되어 있는 중퇴청소년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점점 팽창되고 있는 식음료시장에로 전문성 있는 인재를 공급한다는 사업의 취지를 관련기관들과 공유함으로써 사업 협력기관을 발굴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세부적으로는 2차 자료 수집, 중퇴청소년에 대한 설문과 부모 포커스그룹 토의를 통한 지역 내 수요 조사(needs assessment), 직업훈련 교육기관 견학 및 정부기관과의 인터뷰로 조사 사업을 시행하였다. 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향후 사업 계획은 다음과 같다.

- 1단계: 사업발굴을 위한 표본 대상자 수요 조사 및 사업 타당성 평가
- 2단계: 사업발굴 지역 대상 식음료 전문가 교육을 포함한 통합적직업훈련교육 사업 (본사업, CPP) 계획 수립, 수행 및 평가
- 3단계: 사회적 기업 형태의 복합식문화공간을 통한 실습 및 직업 기회 제공
- 4단계 (장기계획): 미얀마 식생활영양 전문인력 양성 및 복합식문화공간을 통한 수익 및 생산물의 사회 환원

조사 결과

chapter 02

01 일정별 조사 활동

기 간		활동 내역 약술
국내	2017.04.06.(목)	- 미얀미 지역조사 설문내용 기획관련 논의 및 국내 문헌조사 업무분장 회의 (14:00-15:30) (참석) 우지성, 서연경, 김인송, 한상희, 윤미희, 임다정
	2017.04.06(목) -21(금)	- 미얀마 문헌조사(2차자료) ·미얀마 일반정보 및 교육관련 기본 정보 / 국가의 교육 정책 및 동향 / 수혜대상지역 교육기관 / 직업훈련기관정보 ·식음료관련 시장조사 / 식음료 관련 분야 고등 교육기관 ·지역정부 / 지역 내 활동 중인 국제기구 및 NGO정보 / 범분야 이슈
	2017.04.06(목) -10(월)	- 설문내용 기획 ·교육현황 및 희망진로관련 / 학습능력관련 / 설문대상자의 정서관련 / 식품안보 및 영양관련 / 심층인터뷰 관련
	2017.04.10(월)	- 미얀마 조사 설문내용 파트별 1차 검토 및 피드백 (15:00-17:30) (참석) 우지성, 서연경, 김인송, 한상희, 윤미희, 임다정
	2017.05.11(목)	- 미얀마 조사 설문내용 2차 검토 및 현지 조사 일정 브리핑(17:00-19:30) (참석) 서연경, 김인송, 한상희, 윤미희, 임다정, 곽미란
	2017.06.09(목)	- 전략분석을 위한 설문지 분석 회의(10:40-11:30) (참석) 서연경, 김인송, 한상희, 윤미희, 임다정, 곽미란
	2017.06.19(목)	- 미얀마사업 진행사항 내부 관계자 공유 회의(13:00-14:00) (참석) 서연경, 김인송, 한상희, 김윤희, 임희진, 손주희, 김강철, 박가희, 윤미희, 임다정, 곽미란, 우지성
현지	2017.04.28. - 05.02	- CVT, world Visiton에 인터뷰 요청 공문 이메일 발송 및 전화 통화 - 쉐비다와 흘랑따야 내 설문 조사 장소 섭외 - WTC, 소비코, KOICA, KCOC 인터뷰 요청 전화통화 - 차량, 도시락 예약
	2017.05.02(화) -12(금)	- 설문지 번역 작업 - 설문지 복사
	2017.05.03.(수)	- 10:00 인터뷰 섭외를 위한 양곤 교육청 방문
	2017.05.04.(목)	- 10.00 인터뷰 섭외를 위한 쉐비다 지역 교육청 방문
	2017.05.05.(금)	- 10.00 인터뷰 섭외를 위한 흘랑따야 지역 교육청 방문
	2017.05.09.(수)	- 10:00 인터뷰 및 견학 섭외를 위한 사회복지부 양곤지청 방문
	2017.05.11.-13	- 답례품 및 필요 문구 구입
	2017.05.14(일)	- 18:45 서울 인천공항 출국 및 22:25 미얀마 양곤 입국 (조사팀) 곽미란, 김인송, 윤미희, 임다정
	2017.05.15(월)	10:00-11:00 KOICA 사무소 방문 및 인터뷰 (참석) 문상원(KOICA 미얀마 사무소 선임 부소장), 양희선, 고은경, 곽미란, 김인송, 임다정, 윤미희 13:20-14:45 CVT 직업훈련교육기관 방문 및 인터뷰 (참석) Nan Cherry Kyaw (PR&Communication Executive), 양희선, 고은경, 곽미란, 김인송, 임다정, 윤미희 15:40-16:50 KCOC NGO 코디네이터 미얀마담당자 인터뷰 (참석) 전미선(NGO 코디네이터 미얀마 담당자), 양희선, 고은경, 곽미란, 김인송, 임다정, 윤미희
	2017.05.16(화)	9:50-11:30 WTC(World Training Center) 사장님 인터뷰 (참석) 조병규 사장, 양희선, 고은경, 곽미란, 김인송, 임다정, 윤미희 12:00-13:00 사회복지부 기관 방문 및 양곤 지역 디렉터 인터뷰 (참석) Myo Set Aung(Director Yangon Region), 양희선, 고은경, 곽미란, 김인송, 임다정, 윤미희, 통역자 15:10-18:00 조사방향성 회의 및 내일 일정 브리핑 (참석) 양희선, 고은경, 곽미란, 김인송, 임다정, 윤미희
	2017.5.17(수)	9:45-12:00 현지 조사원 설문지 교육 및 설문 실습 (참석) 조사원4, 통역자1, 양희선, 고은경, 김인송, 임다정, 윤미희 15:30-16:10 카페'소비코'현지 매니저 인터뷰 (참석) 도찌찌(소비코 현지 매니저), 양희선, 고은경, 곽미란, 김인송, 임다정, 윤미희 18:00-19:00 흘랑따야 내 교육장소 방문 (참석) 최훈재(프라미스 국제학교 이사), 양희선, 고은경, 곽미란, 김인송, 임다정, 윤미희

	2017.5.18(목)	10:00-11:40 흘랑따야 지역 교육청장 인터뷰 (참석) 우카잉윙(흘랑따야지역 교육청장), 양희선, 고은경, 곽미란, 김인송, 임다정, 윤미희, 통역자 11:00-11:30 흘랑따야 12번 학교 방문 (참석) 흘랑따야 12번 학교 교사, 양희선, 고은경, 곽미란, 김인송, 임다정, 윤미희, 통역자 12:10-13:00 '글로벌 호프'미얀마 지부장 미팅 (참석) 글로벌 호프 최재형 지부장, 글로벌호프 단원 1, 양희선, 고은경, 곽미란, 김인송, 임다정, 윤미희, 통역자, 조사원4 13:40-16:10 흘랑따야 기숙사(대조군) 설문조사 (참석) 설문대상자 19명, 조사원4명, 양희선, 고은경, 곽미란, 김인송, 임다정, 윤미희 17:30-19:40 현지NGO 미따얼린 대표와 프라미스 국제학교 이사 1차 미팅 (참석) 현지NGO 미따얼린 대표 '우 까웅산'과 프라미스 국제학교 이사 '최훈재', 양희선, 고은경, 곽미란, 김인송, 임다정, 윤미희 20:30-21:00 내일 일정 회의 및 준비물 준비 (참석) 곽미란, 김인송, 임다정, 윤미희
	2017.5.19(금)	9:10-9:30 프라미스 국제학교 방문 (참석) 양희선, 고은경, 곽미란, 김인송, 임다정, 윤미희, 통역자 10:00-10:25 쉐비다 타운쉽 교육청장 인터뷰 (참석) 쉐비다 교육청장, 양희선, 고은경, 곽미란, 김인송, 임다정, 윤미희, 통역자 12:41-14:30 설문조사 / 장소: 쉐비다 또봐 (참석) 설문조사 대상자10명, 조사원4명, 양희선, 고은경, 곽미란, 김인송, 임다정, 윤미희, 통역자 15:15-17:10 쉐비다 봉실공 설문조사 및 봉실공 지역 어머니 Focus Group Discussion (7명) (참석) 설문조사 대상자, 어머니들(7명),조사원4명, 양희선, 고은경, 곽미란, 김인송, 임다정, 윤미희, 통역자 20:30-21:00 사업 셋팅 관련 회의 및 내일 일정 브리핑 (참석) 양희선, 고은경, 곽미란, 김인송, 임다정, 윤미희 21:30-22:00 미얀마 양곤 공항으로 이동 (곽미란 23:30 비행기)

	2017.5.20(토)	*7:50 한국 입국 및 인천공항 도착 (곽미란) 12:00-14:50 설문조사 / 장소: 흘랑따야 엘레유아교회 (참석) 설문조사 대상자, 조사원4명, 양희선, 고은경, 김인송, 임다정, 윤미희 16:00-18:00 설문조사 / 장소: 실롱징교회 (참석) 설문조사 대상자, 조사원4명, 양희선, 고은경, 김인송, 임다정, 윤미희
	2017.5.22(월)	10:00-11:00 현지NGO 미따얼린대표와 프리미스국제학교 이사 2차 미팅 (참석) 현지NGO 미따얼린 대표 '우 까웅잔'과 프라미스 국제학교 이사 '최훈재', 양희선, 고은경, 김인송, 임다정, 윤미희 13:00-18:00 설문내용 번역 및 코딩작업 (담당) 양희선, 김인송, 임다정, 윤미희
	2017.5.23(화)	9:00-10:16 쉐공다잉 보육원 원장 미팅 (참석) 도킨유다리(쉐공다니 보육원 원장), 양희선, 고은경, 김인송, 윤미희 11:00-11:30 스쿨 포 홈 싸이언스 교장선생님 인터뷰 (참석) 도 뗀뗀우(스쿨 포 홈사이언스 교장), 사회복지청 가이드 직원 2명, 양희선, 고은경, 김인송, 윤미희 11:40-12:40 여성 개발 센터 실무 담당자 인터뷰 (참석) 도 뗀뗀윈(여성개발센터 실무 담당자), 김보라(WFK Volunteer), 양희선, 고은경, 김인송, 윤미희 14:50-15:40 서점방문 및 미얀마 통계관련 책 외 서적들 구입 16:00-17:30 식음료 관련 시장조사 (담당) 양희선, 고은경, 김인송, 윤미희
	2017.5.24(수)	14:00-15:45 설문지 수정 및 정리 (담당) 고은경, 김인송, 임다정, 김인송 18:00-21:00 문제나무 만들기 및 분석 (참석) 양희선, 고은경, 김인송, 윤미희, 임다정 21:30-22:00 미얀마 양곤 공항으로 이동 (김인송,임다정,윤미희 23:30 비행기)
	2017.5.25(목)	*7:50 한국 입국 및 인천공항 도착 (김인송, 임다정, 윤미희)

02 조사 항목 및 방법

	조사 항목	조사 방법	조사 기간
1	[지역정보] 미얀마 국가 수준의 일반 정보	간접조사/문헌조사	4.6-4.21
2	[지역정보] 미얀마 국가 수준의 교육 관련 기본 정보	간접조사/문헌조사 간접조사/기관 방문 시 2차 자료 수집 직접조사/기관 방문 및 관계자 인터뷰	4.6-4.21 5.18-5.19
3	[지역정보] 미얀마 쉐비다 · 흘랑따야 지역 교육 기관 정보	간접조사/문헌조사 간접 조사/기관 방문 시 2차 자료 수집 직접 조사/기관 방문 및 정부 관계자 미팅	4.6-4.21 5.18-5.19
4	[지역정보] 미얀마 쉐비다 · 흘랑따야 지역 직업 훈련 기관 정보	직접 조사/기관 방문 및 관계자 인터뷰	5.15-16,23
5	[분야별이슈] 국가의 교육 정책 및 동향	간접조사/문헌조사 직접조사/기관 방문 및 관계자 인터뷰	5.15
6	[분야별이슈] 수혜대상자인 중퇴 청소년의 교육현황 및 정서 관련 상태	직접조사/ 설문조사(survey), 기관 방문 및 관계자 인터뷰, 몽실공 지역 어머니 Focus Group Discussion	5.17-20
7	[분야별 이슈] 식음료 관련 분야 직업훈련교육기관과 관련 수요도	직접조사/ 직접관찰(시장조사), 식음료 관련 직업훈련교육 기관 방문 및 관계자 인터뷰, 식음료 사업장 방문 및 관계자 인터뷰	5.15-16,23
8	[지역 내 타 기관 활동 현황] 국제 기구, 정부 기관, 타 NGO의 직업훈련교육	간접조사/문헌조사 직접조사/정부 관계자 미팅, 타 NGO 기관 방문 및 미팅	5.15-16,18,19,23
9	[이해관계자 정보] 현지NGO, 정부 관계자, 타 NGO	직접조사/ 정부관계자 인터뷰, 기관 방문 및 미팅	5.15-16,18,23
10	[범분야 이슈] 청소년 연령별 노동현황 조사, 여성 취업률 조사, 식음료 관련 시장 및 수요도 조사	간접조사/ILO 보고서, 통계서적 직접조사/기관 방문 및 미팅, 정부 관계자 미팅	4.6-4.21 5.16,19,23

03 조사 결과 분석

가. 문헌조사

(1) 개관[01]

미얀마는 1885년부터 영국 식민지였다가 1948년 1월 독립하며 국호를 버마연방(Union of Burma)으로 했다. 1989년 미얀마연방(Union of Myanmar)으로 개칭했다가, 2010년 11월 다시 개칭하여 현재 미얀마연방공화국(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이 공식 명칭이다.

① 정치 및 행정

독립 후 의회민주주의를 도입했으나 1962년 쿠데타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군사정권이 들어섰고, 1988년 민주화 요구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한 신군부가 등장했다. 1990년 총선에서 아웅산수치가 이끄는 국민민주연합(NLD)이 압승했지만, 군사정부가 정권 이양을 거부하고 군부독재 체제를 유지해오다 2011년 문민정부가 출범하였다.

행정구역은 버마족이 거주하는 7개 구획(divison, taing)과 소수종족이 거주하는 7개 주(state, pyine)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5년 11월부터 행정부가 이전한 새로운 행정수도인 네피도(Nay Pyi Taw)와, 경제 중심지(교역의 80% 수행)로 경제수도에 해당하는 양곤이 있다.

② 인구

인구는 5,148만 명(2015년 5월 정부 발표), 가용 노동인구(3,298만 명)으로, 버마족(70%), 소수족(샨, 카렌, 카친, 몬, 친족 등) 130여 종족(25%), 기타(중국계(3%), 인도계(2%)로 구성되어 있다.

01 KOTRA국가정보 국가개요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57 정치사회동향, 경제동향 및 전망, 주요산업동향, 시장특성, 투자환경 자료원: 미얀마 중앙통계청(CSO),
외교부 국가별 기본정보 http://www.0404.go.kr/dev/country_view.mofa?idx=75 기본정보, 기타
두산백과 미얀마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96489&cid=40942&categoryId=34040 역사,정치,경제,사회
위키백과 미얀마 https://ko.wikipedia.org/wiki/%EB%AF%B8%EC%96%80%EB%A7%88 국명,역사,지리,정치,경제,인구
KCOC 국별 정보_NGO 길라잡이(미얀마) / KOICA & KCOC p31,37

③ 기후

대체적으로 3월부터 5월까지 덥고 건조한 여름, 6월부터 10월까지 덥고 비가 많이 오는 우기(Monsoon),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비교적 서늘하고 청명한 날씨(Cool season)를 보인다. 산악 지역은 서늘한 아열대기후, 중부 내륙지방은 건조기후, 남부지방은 열대 몬순기후(연평균 기온 27.08℃, 연평균 강우량 2,513mm)를 보이고, 남북 및 동서로 다양한 기후대가 나타나 미얀마 특유의 농업생태환경이 조성됐다.

④ 지역적 특성

미얀마는 지리적 위치상 왼쪽으로는 방글라데시와 인도, 오른쪽으로는 태국 및 중국과 인 접하며, 북쪽으로는 히말라야 산맥, 남쪽으로는 벵골만 및 안다만을 끼고 있어 산악, 고원, 협곡, 강, 평야 및 해안선 등 지리적 다양성을 띠고 있다.

남부는 열대성 고온다우 지역에 속해 세계적인 쌀 생산지로 유명하며, 중북부는 비교적 온난한 건조지역으로 콩, 잡곡 등 각종 농산물이 풍부해 1800년대 영국 식민지시대부터 지금까지 세계적인 농산물 수출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반도의 약 3.5배(남한의 6.8배)에 달하는 넓은 국토를 갖고 있으며, 복잡한 지질학적 구조 덕분에 전국에 각종 에너지자원과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비옥한 토질로 인해 제1의 티크 목재 생산국이라는 위상에 맞게 산림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어 동남아의 자원부국으로 불린다.

⑤ 사회·경제적 특성

막대한 규모의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2011년까지 49년간 지속된 군부의 지배로 인한 쇄국정책과 2003년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경제제재로 인해 세계로부터 고립된 채, 자본력이 극히 취약한 상태로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과 높은 인플레이션의 경기침체를 겪어왔다.

그러나 2011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개혁 및 개방화와 서방세계의 경제재제 해제·완화되고, 단기간 내 국제사회의 관심과 투자 증가로 단기 압축 성장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상승되어 부동산 가격 및 임대료 급등, 임금상승 압박, 소비자 물가 상승, 전기료 인상, 전문인력 부족, 행정처리 지연 등 부작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외환유입 급증, 수입급

증으로 인한 무역적자 확대, 낮은 외환보유고, 중앙은행의 외환관리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환율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외국인의 신규 투자 및 미얀마와의 금융거래가 가능해지고,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급증해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신규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가스 등 천연자원 생산 증가, 교통 및 통신 분야의 투자 확대, 외국인투자 증가 등의 요인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또한, 거대 소비시장인 중국, 인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중국, 인도 시장을 겨냥한 생산기지로서 활용도가 높고, 동·서남아를 잇는 물류기지로서의 잠재성을 보유하고 있어, 중국 본토와 인도양을 직접 잇는 도로와 항만 개설 등 건설 중인 도로망('중국-미얀마-인도', '태국-미얀마-인도')으로, 세계 최대의 인구집중지역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역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⑥ 산업적 특성

미얀마는 산업은 농업(37.1%), 산업(21.3%), 서비스업(41.6%)(2015년, CIA)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제조업은 농림수산업에 기반을 둔 제조업이 대부분이며, 식음료산업이 제조업 생산의 약 80%를 차지한다.

대부분의 산업 시장 규모가 작다보니 아직까지 기업이 특정 분야에 특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UN이 지정한 동남아 최빈국 중 하나인 미얀마는 낮은 국민소득으로 인해 절대적인 가격 위주의 시장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제조업 발달 수준이 낮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비재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일반 소비재의 경우 값싼 중국산이 시장을 점령하고 있으며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제품이 중국산보다 고급으로 인식된다. 최근 물자공급이 풍족해짐에 따라 저가, 저급한 품질의 중국산 제품보다는 한국, 일본, 유럽 등 고가이지만 품질이 좋은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

양곤 시내 약30만 명(양곤 인구의 5%)으로 추산되는 고급 소비층은 고급 브랜드 선호층이며, 외국식당을 주로 애용한다. 양곤에서 성업 중인 한국계 프랜차이즈인 '롯데리아'의 경우, 현지의 소득 수준 대비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지만, 13호점까지 확장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프랜차이즈인 KFC가 처음으로 진출해, 미얀마 국민

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 미얀마 고급 소비층을 타깃으로 할 경우, 서구인 이상의 고급취향과 소비수준을 갖추고 있어 품질이 뒷받침돼야 하며, 대중을 타깃으로 할 경우 저렴한 중국산, 인도산 제품이 시장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가격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

⑦ 노동 생산성 및 임금 수준

미얀마의 생산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90~110달러 정도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에 비해 매우 저렴한 수준이며, 노동 생산성은 임금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현지 봉제업체에 따르면, 미얀마의 임금수준은 베트남의 절반 정도인데 반해 노동생산성은 베트남의 80% 수준으로 임금대비 노동생산성은 베트남의 1.6배에 이른다. 2015년 8월에 확정된 최저임금법(Minimum Wage Law)에 최저 임금은 1시간당 450차트, 하루 근무시간(8시간) 3,600차트으로 되어 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문제 및 노동법의 개정으로 국제노동기구(ILO)와 고용주 대표단, 고용자 대표단이 논의 중이지만 아직까지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해 저렴한 임금수준이다.

⑧ 교육 정책과 문제점[02]

교육 제도는 1-4-4-2-4년제(15학년제)로 유치원 1년(만 5세), 초등학교 4년, 중학교 4년, 고등학교 2년, 대학교 4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취학아동은 3살부터 2년 남짓 사설유치원에 다니며, 공식적으로 초등학교까지 5년간(유치원과정 1년 포함) 의무교육이며, 기본 과목 승급 시험을 봐야만 학년이 올라갈 수 있고, 전 교육과정의 학비는 거의 무료인 의무교육은 수용능력 부족 등으로 실시에 어려움이 많다.

중학교(5~8학년) 기간에 기초교육 8학년 시험을 통과해야 고등학교(9~10학년)로 진급할 수 있고, 기초교육 10학년 시험을 통과해야만 증서를 받아 시험 감독위가 주관하는 대학입학시험을 볼 수 있다.

02 위키백과 미얀마의 교육
http://ko.wikipedia.org/wiki/%EB%AF%B8%EC%96%80%EB%A7%88%EC%9D%98_%EA%B5%90%EC%9C%A1

미얀마 교육의 문제점으로 교육의 질, 교육시스템 등으로 인해 파생된 기초교육 중도포기자 발생을 들 수 있다.

고등학교 졸업 증서는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결정하는 척도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보통 아이들은 4~5세가 되면 유치원에 들어가서 10살 전후에 학교를 그만두는데, 초등학교 과정부터 고등학교 10학년 졸업하기까지 승급 시험과 졸업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학교 수업 외에도 과외를 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가정 경제 상황이 힘든 가정에서는 교육과 관련된 비용(교복, 문구류, 책, 과외비 등)을 감당할 수 없어, 아이들이 노동현장으로 보내지는 경우가 많다.

⑨ 아동·청소년 노동 현황[03]

아동노동에 대한 국제적 기준은 ILO 협약에 아동노동 철폐를 위해 제138조 최저연령 협약(1973년)에서 고용 최저연령을 15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고, 1999년 제182조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금지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노예제, 매춘, 마약 밀매, 무력 분쟁 등)을 금지한다고 말하고 있다.

미얀마의 아동노동 기준은 미얀마 공장법(1951) 제75조에 13세 미만 청소년 근로를 금지하고 있고, 제76조, 제77조에서 13~15세 청소년은 책임자의 추천서(유효기간 1년)가 있어야 근무 가능하다고 말하며, 제79조에서는 미성년 근로자의 근무시간 하루 4시간,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 금지,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을 합하여 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는 등 13세 미만의 아동은 공장이나 업소에서 일을 할 수 없고, 13~15살은 하루 4시간 이상 또는 야근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 놓았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미얀마 노동부 노동법 세미나 발표자료 2014)

양곤, Ayeyarwady 지역 및 Mon State의 아동 노동에 관한 지식, 태도 및 관행 (KAP) 연

03 KOTRA 해외시장뉴스 미얀마 노동법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6/globalBbsDataView.do?setIdx=322&dataIdx=132047
국제노동기구(ILO)
http://www.ilo.org/Search5/search.do?sitelang=en&locale=en_EN&consumercode=ILOHQ_STELLENT_PUBLIC&searchWhat=Ayeyarwady&searchLanguage=en
GP3 KOREA 국제노동기구(ILO) 2010 년 아동노동 보고서 http://blog.naver.com/gp3project/101835002O1

구에 따르면 최근 미얀마 정부가 발표한 노동인구조사 결과 10~17살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이 일터로 내몰리는 실정이며, 평균적으로 13세 전후의 남아들이 처음 일을 시작함으로 여아들보다 더 일찍 일을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동 노동자들은 대부분 낮은 기술이 요구되는 직장에 취직되는데 남아의 경우 보통 13~15세는 경식당(teashop)에서 일하고, 16세 이상이 되면 공사현장에서 벽돌을 나르거나 건물 짓는 일을 한다. 여아의 경우 보통 13~15세에는 식당에서 많이 일하고, 16세 이상이면 의류공장이나 신발공장에서 일한다.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은 연령과 맡은 일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16세 이상의 남아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돌을 운반하는 직업의 임금이 가장 높았고, 의류공장에서 받는 임금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노동자들이 학교를 그만 두는 가장 큰 원인으로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었지만,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부모님들도 아동이 일하는 것을 막지 않고 있어, 가족경제 활동 지원을 위해서도 아동이 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⑩ 대상 지역의 특성

쉐비다 지역은 양곤의 대표적 빈민지역 중 하나로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며, 흘랑따야 지역은 버마족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서민 40만 명이 살고 있는 최대 인구밀집지역으로 시내 중심가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주거 지역으로 1998년 '미얀마 방문의 해'에 슬럼 강제 이주정책으로 형성된 위성타운십으로 지역 주민 대부분이 시장 상인, 노점상, 막노동, 날품팔이, 공장 노무자 등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2) 일반/경제/교육 지표

① 국가 일반 및 대내·외 경제 현황[04]

구분	지표	단위	2016년					
국가 일반	인구	명	5,148만(2015년 5월 정부 발표), 가용 노동인구(3,298만)					
	면적	㎢	67만 6,563					
	한반도 대비면적	배	약 3.5배, 남한의 약 6.8배					
	산업 구조	%	농업(37.1%) 산업(21.3%) 서비스업(41.6%)					
	보유 자원		에너지 자원 (원유, 천연가스,오일세일) 광물 자원 (석탄,구리,아연,주석,텡스텐,니켈,납,철,동,은,금, 우라늄,페그마타아트, 알래스카이트 등) 산림 자원 (루비,사파이어 등 보석류, 티크 등)					
	최저 임금	차트 (US$)	시간당 450차트(US$ 0.4) 1일 3,600차트(US$ 3)					
	월평균 임금	US$	생산직 노동자 US$ 90~110					
지표		단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대내 경제	실질경제성장률	%	5.59	7.33	8.43	8.7	7.03	8.07
	1인당 GDP (IMF)	US$	1,196.92	1,181.92	1,179.58	1,278.71	1,212.77	1,306.65
	명목 GDP	US$ 십억	59.977	59.731	60.134	65.751	62.877	68.277
	소비자물가상승률	%	2.766	2.829	5.711	5.908	11.446	9.835
	실업률	%	4.00	4.00	4.00	4.00	4.00	4.00
대외 경제	외국인투자금액 (당해분)	US$ 백만	4,644.46	1,419.46	4,107.05	8,010	9,481	3,293
	총외채	US$ 백만	8,192	7,840	7,251	6,351	7,444	9,114
	외환보유고	US$ 백만	7,017	6,977	8,277	8,728	8,463	8,913
	환율	US$	815.0	852.4	933.6	984.4	1,163	1,230

자료원: IMF, 미얀마 중앙 통계청, 기타(EIU Country Report 2016년 12월호), KOTRA(무역의존도)
주*: 예상 수치

04 KOTRA 미얀마 양곤 무역관 국가정보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57

② 교육 현황[05]

– 미얀마 및 양곤의 학생·교사·학교 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14~2015	2015~2016	2014~2015	2015~2016	2014~2015	2015~2016
미얀마	학생(명)	5,102,925	5,079,135	2,687,983	2,736,252	793,345	840,706
	교사(명)	196,817	234,605	80,248	95,636	33,988	37,771
	학교(개)	37,662	38,017	2,438	2,625	1,743	1,924
양곤	학생(명)	527,303	520,059	359,392	357,202	127,342	126,369
	교사(명)	17,288	19,785	10,875	10,275	4,828	4,948
	학교(개)	2,222	2,221	283	285	226	233

2016 MYANMAR STATIISTICAL YEARBOOK / MYNAMAR CSO

– 교사 당 평균 학생 수

구분 \ 년도	2011~2012	2012~2013	2013~2014	2014~2015	2015~2016
초등학교	28	28	28	26	22
중학교	34	35	37	33	29
고등학교	24	25	25	23	22

2016 MYANMAR STATIISTICAL YEARBOOK / MYNAMAR CSO

나. 설문조사 결과

양곤 빈민지역인 흘랑따야와 쉐비다의 5개 지역에서 중퇴 경험이 있는 청소년 (13~25세) 총 57 명과 대조군으로 학교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21명의 청소년 (13~18 세)을 대상으로 교육, 진로, 생활 환경 (위생 포함)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사항

중퇴청소년 총 57명 중 13~18세에 해당하는 대상은 33명(58%)이었고, 19세 이상의 대상자는 24명(42%)였으며, 13~18세 중퇴청소년의 경우 대조군보다 나이가 평균 1세 정도 많았다(Table 1). 성별은 중퇴청소년과 대조군 모두 남자 청소년의 비율이 높았으며 (각각 56%, 57%), 중퇴청소년과 대조군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평균 나이가 적은 경향을 보였다.

중퇴청소년의 경우, 58% 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32% 가 한 부모 가정이며, 8.8% 가 부모님이 아닌 다른 가족과 살거나 혼자 살고 있는 반면, 대조군은 모두 적어도 부모님 중 한 분과는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중퇴청소년 (n=57)					대조군 (n=21)		
	13세 ~ 18세		19세 ~ 25세		총 (n=57)	13세 ~ 18세		총 (n=21)
	남 (n=17)	여 (n=16)	남 (n=17)	여(n=7)		남 (n=12)	여 (n=9)	
나이(평균±SD)								
	15.7±.5	15.8±.9	21.2±.6	20.9±.6	18.0±.1	14.7±.2	14.3±.9	14.5±.1
동거인 현황, n(%)								
부모	11(64.7)	9(56.3)	10(58.8)	3(42.9)	33(57.9)	9(75.0)	7(77.8)	16(76.2)
한 부모	5(29.4)	5(31.3)	5(29.4)	3(42.9)	18(31.6)	3(25.0)	2(22.2)	5(23.8)
기타 가족	0(0.0)	2(12.5)	0(0.0)	1(14.3)	3(5.3)	0(0.0)	0(0.0)	0(0.0)
없음	1(5.9)	0(0.0)	1(5.9)	0(0.0)	2(3.5)	0(0.0)	0(0.0)	0(0.0)
무응답	0(0.0)	0(0.0)	1(5.9)	0(0.0)	1(1.8)	0(0.0)	0(0.0)	0(0.0)
아버지 학력, n(%)								
무학	0(0.0)	0(0.0)	0(0.0)	0(0.0)	0(0.0)	1(8.3)	0(0.0)	1(4.8)
~초등졸업	2(11.8)	5(31.3)	5(29.4)	0(0.0)	12(21.1)	5(41.7)	5(55.6)	10(47.6)
~중등졸업	6(35.3)	1(6.3)	5(29.4)	1(14.3)	13(22.8)	2(16.7)	2(22.2)	4(19.0)
고등중퇴이상	3(17.6)	4(25.0)	1(5.9)	0(0.0)	8(14.0)	1(8.3)	1(11.1)	2(9.5)
이혼/사별	3(17.6)	5(31.3)	3(17.6)	4(57.1)	15(26.3)	1(8.3)	1(11.1)	2(9.5)
모름	3(17.6)	1(6.3)	3(17.6)	2(28.6)	9(15.8)	2(16.7)	0(0.0)	2(9.5)
어머니 학력, n(%)								
무학	2(11.8)	2(12.5)	0(0.0)	0(0.0)	4(7.0)	1(8.3)	2(22.2)	3(14.3)
~초등졸업	10(58.8)	6(37.5)	6(35.3)	3(42.9)	25(43.9)	4(33.3)	4(44.4)	8(38.1)
~중등졸업	3(17.6)	3(18.8)	2(11.8)	1(14.3)	9(15.8)	3(25.0)	2(22.2)	5(23.8)
고등중퇴이상	0(0.0)	5(31.3)	3(17.6)	2(28.6)	10(17.5)	2(16.7)	1(11.1)	3(14.3)
이혼/사별	0(0.0)	0(0.0)	1(5.9)	1(14.3)	2(3.5)	1(8.3)	0(0.0)	1(4.8)
모름	2(11.8)	0(0.0)	5(29.4)	0(0.0)	7(12.3)	1(8.3)	0(0.0)	1(4.8)

◎ <Table 1> 미얀마 양곤 지역의 중퇴청소년 및 대조군의 일반 사항

05 2016 MYANMAR STATIISTICAL YEARBOOK / MYNAMAR CSO p127~128, 131

부모님의 학력은 아버지의 경우, 고등학교 이상 교육을 받은 경우는 중퇴청소년 14%, 대조군 10% 로 비슷하였으나,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경우는 중퇴청소년 21%, 대조군 52%로 큰 차이를 보였다. 어머니의 학력의 경우, 중퇴청소년과 대조군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학습 능력

읽기와 이해력을 바탕으로 한 학습 능력 평가(Table 2)에서는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조군 모두 중급 이상의 학습 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86% 가 '상'등급 임), 중퇴청소년의 경우는 상급은 65%, 중급은 25%, 하급은 10%로 대조군보다 학습 능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학습능력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중퇴청소년과 대조군 모두 남자에 비해 여자에서 학습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대조군보다 중퇴청소년에서 그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대부분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으나, 대조군은 학교에 다니고 있음에도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경험(48%)이 중퇴청소년보다(32%) 높아 진학을 하기위해 사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미얀마 상황을 반영하였고, 중퇴청소년의 경우 68%가 이러한 학교 이외의 교육에 있어 소외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변수	중퇴청소년 (n=57)							대조군 (n=21)		
	13세 ~ 18세		19세 ~ 25세		전체			13세 ~ 18세		총 (n=21)
	남(n=17)	여(n=16)	남(n=17)	여(n=7)	남(n=34)	여(n=23)	총(n=57)	남(n=12)	여(n=9)	
학습 능력, n(%)										
상	9(52.9)	15(93.8)	8(47.1)	5(71.4)	17(50.0)	20(87.0)	37(64.9)	9(75.0)	9(100.0)	18(85.7)
중	6(35.3)	1(6.3)	7(41.2)	0(0.0)	13(38.2)	1(4.3)	14(24.6)	3(25.0)	0(0.0)	3(14.3)
하	2(11.8)	0(0.0)	2(11.8)	2(28.6)	4(11.8)	2(8.7)	6(10.5)	0(0.0)	0(0.0)	0(0.0)
글을 읽을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받은 곳, n(%)										
학교	16(94.1)	16(100)	17(100.0)	5(71.4)	33(97.1)	21(82.8)	18(31.6)	12(100.0)	9(100.0)	21(100)
기타	1(5.9)	0(0.0)	0(0.0)	2(28.6)	1(2.9)	2(14.3)	39(68.4)	0(0.0)	0(0.0)	0(0.0)
글을 쓸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받은 곳, n(%)										
학교	16(94.1)	16(100)	17(100)	5(71.4)	33(97.1)	21(85.7)	18(31.6)	12(100.0)	9(100.0)	21(100)
기타	1(5.9)	0(0.0)	0(0.0)	2(28.6)	1(2.9)	2(14.3)	39(68.4)	0(0.0)	0(0.0)	0(0.0)

학교 이외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은 여부, n(%)										
예	4(23.5)	3(18.8)	8(47.1)	3(42.9)	12(35.3)	6(26.1)	18(31.6)	6(50.0)	4(44.4)	10(47.6)
아니오	13(76.5)	13(81.3)	9(52.9)	4(57.1)	22(64.7)	17(73.9)	39(68.4)	6(50.0)	5(55.6)	11(52.4)

◎ <Table 2> 미얀마 양곤 지역의 중퇴청소년 및 대조군의 학습능력 및 교육받은 기관

(3) 중퇴청소년의 교육 수준

중퇴청소년의 교육 수준을 살펴본 결과(Table 3), 32%는 중학교 중퇴, 35%는 고등학교 중퇴의 학력을 가졌으며, 25%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졸업 이후 진학을 하지 않은 경우로 나타났다. 13~18세 중퇴청소년의 경우는 고등학교 중퇴자(24%)보다 중학교 중퇴자(52%)의 비율이 더 높았고, 전체적으로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중퇴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하게 된 주요 요인은 경제적 어려움 (58%) 때문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학업 의지 부족 (19%) 이었는데, 이러한 요인은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의 경우가 다르게 나타나, 여자 청소년 (83%)의 경우 남자 청소년 (41%)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중퇴청소년 (n=57)						
	13세 ~ 18세		19세 ~ 25세		전체		
	남(n=17)	여(n=16)	남(n=17)	여(n=7)	남(n=34)	여(n=23)	총(n=57)
최종학력, n(%)							
초등학교중퇴	1(5.9)	0(0.0)	1(5.9)	3(42.9)	2(5.9)	3(13.0)	5(8.8)
초등학교졸업	1(5.9)	2(12.5)	2(11.8)	0(0.0)	3(8.8)	2(8.7)	5(8.8)
중학교중퇴	10(58.8)	7(43.8)	1(5.9)	0(0.0)	11(32.4)	7(30.4)	18(31.6)
중학교졸업	1(5.9)	3(18.8)	5(29.4)	0(0.0)	6(17.6)	3(13.0)	9(15.8)
고등학교중퇴	4(23.5)	4(25.0)	8(47.1)	4(57.1)	12(35.3)	8(34.8)	20(35.1)
학업 중단 이유, n(%)							
경제적 어려움	7(41.2)	14(87.5)	7(41.2)	5(71.4)	14(41.2)	19(82.6)	33(57.9)
가정일손부족	2(11.8)	1(6.3)	2(11.8)	0(0.0)	4(11.8)	1(4.3)	5(8.8)
진로탐색어려움	0(0.0)	0(0.0)	1(5.9)	0(0.0)	1(2.9)	0(0.0)	1(1.8)
학업능력부족	3(17.6)	0(0.0)	2(11.8)	1(14.3)	5(14.7)	1(4.3)	6(10.5)
학업의지부족	4(23.5)	1(6.3)	5(29.4)	1(14.3)	9(26.5)	2(8.7)	11(19.3)
기타	1(5.9)	0(0.0)	0(0.0)	0(0.0)	1(2.9)	0(0.0)	1(1.8)

◎ <Table 3> 미얀마 양곤 지역의 중퇴청소년 및 대조군의 교육 수준

(4) 중퇴청소년의 진로 관련 현황

중퇴청소년의 진로 관련 사항을 살펴보면(Table 4), '자신의 진로를 확실하게 결정한 상태이다'에 대해 보통이거나 그렇다 수준으로 대조군과 응답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진로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와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중퇴청소년들(각각 3.1점, 3.6점)이 대조군(각각 2.5점, 2.4점)에 비해 유의미하게 더 부족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서 요구되는 능력이나 기술을 갖추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 대조군이 더 열심히 준비하는 경향을 보였다. 중퇴청소년 중 남녀를 비교해 보면, 여자 청소년의 경우는 남자 청소년에 비해 진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컸고, 남자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진로를 위해 기술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중퇴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직업훈련 및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 및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더욱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을 해 본 경험은 중퇴청소년 84%가 그렇다고 대답한 반면, 대조군은 19%만이 일을 해본 경험이 있었고, 중퇴한 남자 청소년 대부분이 일을 해본 것에 반해 중퇴한 여자 청소년 중 30%는 일을 해 본 경험이 없었다. 일의 종류에 있어서는 절반에 가까운 중퇴청소년들이 3가지 종류 이상의 일을 해본 것으로 응답하였다. 일을 해 본 중퇴청소년이 한 달에 받는 임금은 평균적으로 13만 짯이었고, 18세 이하의 경우 평균 11만 짯의 월급을 받은 반면, 19세 이상의 중퇴청소년들은 평균 15만 짯의 월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만 짯 이상 받은 경우가 18세 이하 4.2%, 19세 이상 16.7%로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중퇴청소년의 65%가 가족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였고, 남자 중퇴 청소년의 경우는 용돈을 마련하거나 취업 경험을 쌓거나 개인적인 관심과 흥미 때문에 일을 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된 이유로는 남자 중퇴청소년의 경우는 근무여건이 나쁘거나 육체적으로 힘들기 때문인 경우가 많았고, 여자 중퇴청소년의 경우는 낮은 보수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 중퇴청소년들이 일한 만큼 경제적 및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조사 시점까지도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경우는 남자 (12%)보다는 여자 중퇴청소년 (26%)에서 더 많았다.

변수	중퇴청소년 (n=57)							대조군 (n=21)		
	13세 ~ 18세		19세 ~ 25세		전체			13세 ~ 18세		총
	남 (n=17)	여 (n=16)	남 (n=17)	여 (n=7)	남 (n=34)	여 (n=23)	총 (n=57)	남 (n=12)	여(n=9)	(n=21)
진로관련 사항										
진로결정확실	3.0±.5	3.2±.0	3.8±.3	3.9±.0	3.4±.5	3.4±.0	3.4±.3	3.3±.7	3.9±.9	3.5±.4
관련정보부족	3.3±.4	3.0±.0	3.0±.4	3.4±.5	3.2±.3	3.1±.9	3.1±.2	2.6±.3	2.4±.9	2.5±.1
프로그램부족	3.4±.3	4.1±.0	2.9±.1	4.8±.4	3.2±.2	4.3±.9	3.6±.2	2.8±.5	1.9±.9	2.4±.3
상담시설부족	2.9±.2	3.0±.0	2.9±.2	3.1±.7	2.9±.2	3.0±.9	2.9±.1	3.0±.2	2.1±.3	2.6±.3
가족과의대화	3.6±.4	3.6±.0	3.5±.3	3.9±.7	3.6±.3	3.7±.9	3.6±.2	2.8±.3	3.6±.1	3.1±.3
요구기술준비	3.4±.4	3.3±.1	4.4±.7	3.4±.1	3.9±.2	3.3±.1	3.7±.2	3.8±.4	4.8±.4	4.2±.2
일을 해 본 경험, n(%)										
YES	15(88.2)	9(56.3)	17(100.0)	7(100.0)	32(94.1)	16(69.6)	48(84.2)	4(33.3)	0(0.0)	4(19.0)
NO	2(11.8)	7(43.8)	0(0.0)	0(0.0)	2(5.9)	7(30.4)	9(15.8)	8(66.7)	9(100.0)	17(81.0)
일을 해 본 경험이 있는 대상자 중 1) 해본 일의 종류의 수, n(%)										
1종	3(20.0)	5(55.6)	3(17.6)	4(57.1)	6(18.8)	9(56.3)	15(31.3)	2(50.0)	0(0.0)	2(50.0)
2종	6(40.0)	1(11.1)	1(5.9)	2(28.2)	7(21.9)	3(18.8)	10(20.8)	1(25.0)	0(0.0)	1(25.0)
3종 이상	6(40.0)	3(33.3)	13(76.5)	1(14.3)	19(59.4)	4(25.0)	23(47.9)	1(25.0)	0(0.0)	1(25.0)
2) 월급 수준(단위: 짯), n(%)										
mean±SD	96,000±51,485	130,375±,795	145,188±,674	151,429±,929	121,387±,997	140,200±,820	127,522±,931	180,000	0	180,000
X≤10만	11(73.3)	2(22.2)	2(11.8)	2(28.6)	13(40.6)	4(25.0)	7(14.6)	0(0.0)	0(0.0)	0(0.0)
10만<X≤15만	3(20.0)	6(66.7)	10(58.8)	2(28.6)	13(40.6)	8(50.0)	21(43.8)	0(0.0)	0(0.0)	0(0.0)
15만<X≤20만	0(0.0)	0(0.0)	3(17.6)	2(28.6)	3(9.4)	2(12.5)	5(10.4)	1(25.0)	0(0.0)	1(25.0)
20만<X	1(6.7)	0(0.0)	1(5.9)	1(14.3)	2(6.3)	1(6.3)	3(6.3)	0(0.0)	0(0.0)	0(0.0)
무응답	0(0.0)	1(11.1)	1(5.9)	0(0.0)	1(3.1)	1(6.3)	2(4.2)	3(75.0)	0(0.0)	3(75.0)
3) 일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n(%)										
가족의생활비	9(52.9)	7(43.8)	8(47.1)	7(100.0)	17(50.0)	14(60.9)	31(64.6)	1(25.0)	0(0.0)	1(25.0)
부모독립	0(0.0)	1(6.3)	0(0.0)	0(0.0)	0(0.0)	1(4.3)	1(2.1)	0(0.0)	0(0.0)	0(0.0)
용돈마련	0(0.0)	0(0.0)	3(17.6)	0(0.0)	3(8.8)	0(0.0)	3(6.3)	1(25.0)	0(0.0)	1(25.0)
취업경험	2(11.8)	0(0.0)	1(5.9)	0(0.0)	3(8.8)	0(0.0)	3(6.3)	0(0.0)	0(0.0)	0(0.0)
관심,흥미	2(11.8)	1(6.3)	3(17.6)	0(0.0)	5(14.7)	1(4.3)	6(12.5)	2(50.0)	0(0.0)	2(50.0)
지인권유	2(11.8)	0(0.0)	1(5.9)	0(0.0)	3(8.8)	0(0.0)	3(6.3)	0(0.0)	0(0.0)	0(0.0)
물품구매목적	0(0.0)	0(0.0)	1(5.9)	0(0.0)	1(2.9)	0(0.0)	1(2.1)	0(0.0)	0(0.0)	0(0.0)

4) 전에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된 가장 큰 이유, n(%)										
적성과다름	0(0.0)	1(6.3)	3(17.6)	0(0.0)	3(8.8)	1(4.3)	4(8.3)	1(25.0)	0(0.0)	1(25.0)
보수가적음	1(5.9)	3(18.8)	4(23.5)	2(28.6)	5(14.7)	5(21.7)	10(20.8)	0(0.0)	0(0.0)	0(0.0)
직장에서불화	2(11.8)	0(0.0)	3(17.6)	2(28.6)	5(14.7)	2(8.7)	7(14.6)	0(0.0)	0(0.0)	0(0.0)
근무여건나쁨	4(23.5)	0(0.0)	3(17.6)	0(0.0)	7(20.6)	0(0.0)	7(14.6)	1(25.0)	0(0.0)	1(25.0)
집안반대	0(0.0)	0(0.0)	0(0.0)	1(14.3)	0(0.0)	1(4.3)	1(2.1)	0(0.0)	0(0.0)	0(0.0)
육체적힘듦	3(17.6)	1(6.3)	4(23.5)	0(0.0)	7(20.6)	1(4.3)	8(16.7)	0(0.0)	0(0.0)	0(0.0)
일하고있음	4(23.5)	4(25.0)	0(0.0)	2(28.6)	4(11.8)	6(26.1)	10(20.8)	0(0.0)	0(0.0)	0(0.0)
잘모름	1(5.9)	0(0.0)	0(0.0)	0(0.0)	1(2.9)	0(0.0)	1(2.1)	0(0.0)	0(0.0)	0(0.0)

◎ <Table 4> 미얀마 양곤 지역의 중퇴청소년 및 대조군의 진로 및 일을 해본 경험

(5) 중퇴청소년의 희망 진로

중퇴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직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Table 5), 잘 모르겠다(28%)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공장·봉재·건축(22%), 미용·패션·사진(10%), 개업 및 창업(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조군이 희망하는 직업은 교사(31.6%)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의사·간호사(10.5%), 엔지니어·정비(10.5%), 회사원(10.5%), 공장·봉재·건축(10.5%) 등으로 응답하여 보다 전문직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ata not shown). 중퇴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초기자본 및 직업에서 요구되는 기술이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고, 이러한 경향은 남자 중퇴청소년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나 기술과 함께 이러한 요구를 채울 수 있는 직업교육의 기회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여자 중퇴청소년의 경우는 희망하는 직업을 갖기 위한 준비로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대답해 남자 중퇴청소년과 차이를 보였다. 이에 비해 대조군의 청소년은 근면함과 성실성, 학벌, 기술이나 능력을 미래의 직업을 위한 준비로 인식하고 있어 중퇴청소년과의 인식 차이를 보였다.

희망 직업을 갖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중퇴청소년의 경우 재정적 어려움과 자신감 부족, 접근성 부족 등으로 답한 경우가 많아 미래의 직업을 준비하려는 중퇴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상황과 수요에 맞게 제공될 수 있는 직업훈련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중퇴청소년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식음료 분야 직업교육 (조리, 제과제빵, 바리스타 분야)에 대한 참여 의사를 타진한 결과 91%가 참여 의사를 밝혔고, 참여 의향이 없는 중퇴청소년의 경우 그 이유가 흥미가 없거나, 적성에 맞지 않거나 부모님 동의가 힘들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중퇴청소년의 식음료 분야에 대한 직업훈련교육의 수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식음료 분야 외에 중퇴청소년들이 희망하는 다른 분야의 직업훈련으로는 봉제 (여자 중퇴청소년), 자동차 정비 (남자 중퇴청소년), 컴퓨터관련, 영어 관련, 한국어 등이 언급되기도 하였다.

변수	중퇴청소년 (n=57)						대조군 (n=21)	
	13세 ~ 18세		19세 ~ 25세		전체		13세 ~ 18세	
	남(n=17)	여(n=16)	남(n=17)	여(n=7)	남(n=34)	여(n=23)	남(n=12)	여(n=9)
희망직업을 위한 사전준비, n(%)								
돈	2(11.8)	2(12.5)	5(29.4)	0(0.0)	7(20.6)	2(8.7)	0(0.0)	0(0.0)
근면성실	1(5.9)	1(6.3)	3(17.6)	1(14.3)	4(11.8)	2(8.7)	4(33.3)	4(44.4)
대인관계	0(0.0)	0(0.0)	1(5.9)	0(0.0)	1(2.9)	0(0.0)	0(0.0)	0(0.0)
가정배경	0(0.0)	1(6.3)	1(5.9)	1(14.3)	1(2.9)	2(8.7)	0(0.0)	0(0.0)
학벌	2(11.8)	1(6.3)	1(5.9)	0(0.0)	3(8.8)	1(4.3)	3(25.0)	3(33.3)
기술능력	3(17.6)	1(6.3)	5(29.4)	0(0.0)	8(23.5)	1(4.3)	2(16.7)	2(22.2)
목표의식	1(5.9)	4(25.0)	0(0.0)	0(0.0)	1(2.9)	4(17.4)	0(0.0)	0(0.0)
잘모름	3(17.6)	5(31.3)	0(0.0)	5(71.4)	3(8.8)	10(43.5)	1(8.3)	0(0.0)
무응답	5(29.4)	1(6.3)	1(5.9)	0(0.0)	6(17.6)	1(4.3)	2(16.7)	0(0.0)
희망직업 갖기 어려운 이유, n(%)								
자신감부족	2(11.8)	3(18.8)	5(29.4)	1(14.3)	7(20.6)	4(17.4)	2(16.7)	4(44.4)
접근성부족	0(0.0)	1(6.3)	1(5.9)	1(14.3)	1(2.9)	2(8.7)	1(8.3)	0(0.0)
자격부족	1(5.9)	0(0.0)	1(5.9)	0(0.0)	2(5.9)	0(0.0)	3(25.0)	2(22.2)
가족반대	1(5.9)	0(0.0)	1(5.9)	0(0.0)	2(5.9)	0(0.0)	0(0.0)	0(0.0)
재정적어려움	4(23.5)	4(25.0)	6(35.3)	0(0.0)	10(29.4)	4(17.4)	2(16.7)	3(33.3)
잘모름	3(17.6)	6(37.5)	2(11.8)	5(71.4)	5(14.7)	11(47.8)	1(8.3)	0(0.0)
무응답	6(35.3)	2(12.5)	1(5.9)	0(0.0)	7(20.6)	2(8.7)	3(25.0)	0(0.0)
조리, 제과제빵, 바리스타 무료교육 받을 의향, n(%)								
받는다	14(82.4)	12(75.0)	11(64.7)	6(85.7)	25(73.5)	18(78.3)	9(75.0)	5(55.6)
아마받는다	2(11.8)	2(12.5)	4(23.5)	1(14.3)	6(17.6)	3(13.0)	3(25.0)	4(44.4)
아마안받는다	0(0.0)	1(6.3)	0(0.0)	0(0.0)	0(0.0)	1(4.3)	0(0.0)	0(0.0)
안받는다	1(5.9)	0(0.0)	2(11.8)	0(0.0)	3(8.8)	0(0.0)	0(0.0)	0(0.0)
잘모름	0(0.0)	1(6.3)	0(0.0)	0(0.0)	0(0.0)	1(4.3)	0(0.0)	0(0.0)

받을 의향이 없는 이유, n(%)								
흥미가없음	1(5.9)	0(0.0)	0(0.0)	0(0.0)	1(2.9)	0(0.0)	0(0.0)	0(0.0)
적성맞지않음	0(0.0)	0(0.0)	2(11.8)	0(0.0)	2(5.9)	0(0.0)	0(0.0)	0(0.0)
부모동의힘듦	0(0.0)	1(6.3)	0(0.0)	0(0.0)	0(0.0)	1(4.3)	0(0.0)	0(0.0)
무응답	0(0.0)	1(6.3)	0(0.0)	0(0.0)	0(0.0)	1(4.3)	0(0.0)	0(0.0)
해당없음	16(94.1)	14(87.5)	15(88.2)	7(100.0)	31(91.2)	21(91.3)	12(100.0)	9(100.0)
희망하는 다른 직업훈련, n(%) – 중복								
봉제	3(17.6)	9(56.3)	2(11.8)	2(28.6)	5(14.7)	11(47.8)	0(0.0)	1(11.1)
컴퓨터관련	9(52.9)	6(37.5)	8(47.1)	2(28.6)	17(50.0)	8(34.8)	6(50.0)	3(33.3)
영어	6(35.3)	8(50.0)	4(23.5)	2(28.6)	10(29.4)	10(43.5)	6(50.0)	6(66.7)
자동차정비	11(64.7)	0(0.0)	9(52.9)	0(0.0)	20(58.8)	0(0.0)	4(33.3)	0(0.0)
한국어	4(23.5)	4(25.0)	2(11.8)	3(42.9)	6(17.6)	7(30.4)	2(16.7)	4(44.4)
목공,건축기술	1(5.9)	0(0.0)	2(11.8)	0(0.0)	3(8.8)	0(0.0)	1(8.3)	0(0.0)
기타	1(5.9)	1(6.3)	1(5.9)	0(0.0)	2(5.9)	1(4.3)	2(16.7)	0(0.0)
잘모름	0(0.0)	0(0.0)	0(0.0)	1(14.3)	0(0.0)	1(4.3)	0(0.0)	0(0.0)
무응답	0(0.0)	1(6.3)	0(0.0)	0(0.0)	0(0.0)	1(4.3)	2(16.7)	0(0.0)

◎ <Table 5> 미얀마 양곤 지역의 중퇴청소년 및 대조군의 희망 진로 관련 현황

(6) 중퇴청소년의 정서 상태

중퇴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장래에 대해 어느 정도 생각을 하는지, 자신에 대한 가치와 만족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지 등의 자존감을 바탕으로 한 정서 상태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결과(Table 6), 대부분 자신에 대해 아주 많지도 적지도 않게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54점), 대조군(56점)과도 많은 차이가 나지 않음을 볼 수 있었다. 반면, 양육자 (주로 부모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13~18세의 중퇴청소년(76점)의 경우, 같은 연령대의 대조군(82점)보다 양육자와 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경향은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한 행복지수에서 대조군(61점)보다 중퇴청소년(48점)에서 유의적으로 낮게 보고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중퇴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19~25세 중퇴청소년의 경우(53점)에는 정서 상태가 좀 더 개선되는 경향을 보여주었으므로, 13~18세의 중퇴청소년들의 경우 불안정한 정서를 개선하기 위한 돌봄이 더 필요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변수	중퇴청소년 (n=57)							대조군 (n=21)		
	13세 ~ 18세		19세 ~ 25세		전 체			13세 ~ 18세		
	남(n=17)	여(n=16)	남(n=17)	여(n=7)	남(n=34)	여(n=23)	총(n=57)	남(n=12)	여(n=9)	총(n=21)
정서_자존감(평균±SD)										
	51.8±.6	52.3±.0	59.0±.8	53.2±.6	55.4±.5	52.5±.5	54.2±.7	53.8±.6	59.1±.7	55.9±.6
양육자 관계(평균±SD)										
	74.7±.5	76.9±.0	84.5±.4	85.6±.9	79.6±.8	79.5±.8	79.6±.7	80.3±.7	83.3±.6	81.6±.9
사다리로 보는 행복지수(평균±SD)										
	46.3±.6	49.2±.6	51.5±.4	58.3±.2	48.9±.0	51.7±.4	50.0±.8	58.3±.3	65.3± 16.3	61.3±.2

◎ <Table 6> 미얀마 양곤 지역의 중퇴청소년 및 대조군의 정서, 양육자 관계 및 행복 지수

(7) 중퇴청소년의 보건위생영양 상태

1) 신체계측 결과 및 외모에 대한 만족도

중퇴청소년들 및 대조군의 신체지수(키, 체중)을 측정한 결과(Table 7), 두 군에서 모두 허약(체질량지수, BMI<18.5)한 경우가 거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되었고(중퇴청소년 43.9%, 대조군 42.9%), 18세 이하의 청소년들(50.0%)이 19세 이상의 청소년들(29.2%)보다 허약한 비율이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자 청소년보다 남자 청소년에서 허약한 비율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대조군의 경우 남자 청소년의 허약 비율(58.3%)이 여자 청소년(22.2%)에 비해 2.6배 이상 큰 차이를 보였다. 외모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두 집단 모두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만족하는 비율이 2-4배 이상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신체계측을 통한 영양상태 평가 결과, 13-18세 중퇴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영양상태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변수	중퇴청소년 (n=57)							대조군 (n=21)		
	13세 ~ 18세		19세 ~ 25세		전체			13세 ~ 18세		
	남 (n=17)	여 (n=16)	남 (n=17)	여(n=7)	남 (n=34)	여 (n=23)	총 (n=57)	남 (n=12)	여(n=9)	총 (n=21)
BMI (Body Mass Index), n(%)										
허약(<18.5)	10(58.8)	8(50.0)	5(29.4)	2(28.6)	15(44.1)	10(43.5)	25(43.9)	7(58.3)	2(22.2)	9(42.9)
정상 (18.5~<23)	7(41.2)	7(43.8)	11(64.7)	4(57.1)	18(52.9)	11(47.8)	29(50.9)	5(41.7)	7(77.8)	12(57.1)
과체중 (23~<25)	0(0.0)	0(0.0)	1(5.9)	1(14.3)	1(2.9)	1(4.3)	2(3.5)	0(0.0)	0(0.0)	0(0.0)
비만1도 (25~30)	0(0.0)	1(6.3)	0(0.0)	0(0.0)	0(0.0)	1(4.3)	1(1.8)	0(0.0)	0(0.0)	0(0.0)
mean±SD	17.4±.8	18.9±.6	19.4±.7	20.2±.7	18.3±.0	19.3±.4	18.8±.3	18.0±.2	19.2±.5	18.5±.0
외모에 대한 만족도, n(%)										
매우불만족	1(5.9)	0(0.0)	0(0.0)	0(0.0)	1(2.9)	0(0.0)	1(1.8)	0(0.0)	0(0.0)	0(0.0)
불만족	1(5.9)	1(6.3)	4(23.5)	1(14.3)	5(14.7)	2(8.7)	7(12.3)	2(16.7)	0(0.0)	2(9.5)
보통	7(41.2)	10(62.5)	6(35.3)	5(71.4)	13(38.2)	15(65.2)	28(49.1)	5(41.7)	8(88.9)	13(61.9)
만족	6(35.3)	3(18.8)	7(41.2)	0(0.0)	13(38.2)	3(13.0)	16(28.1)	4(33.3)	1(11.1)	5(23.8)
매우만족	2(11.8)	2(12.5)	0(0.0)	1(14.3)	2(5.9)	3(13.0)	5(8.8)	1(8.3)	0(0.0)	1(4.8)

◎ <Table 7> 미얀마 양곤 지역의 중퇴청소년 및 대조군의 신체계측 결과 및 외모 만족도

2) 식품 섭취 상태

변수	중퇴청소년 (n=57)							대조군 (n=21)		
	13세 ~ 18세		19세 ~ 25세		전체			13세 ~ 18세		
	남 (n=17)	여 (n=16)	남 (n=17)	여(n=7)	남 (n=34)	여 (n=23)	총 (n=57)	남 (n=12)	여(n=9)	총 (n=21)
식품다양성, n(%)										
곡류	17(100)	16(100)	17(100)	7(100)	34(100)	23(100)	57(100)	12(100)	9(100)	21(100)
구근류	7(41.2)	6(37.5)	7(41.2)	2(28.6)	14(41.2)	8(34.8)	22(38.6)	3(25.0)	1(11.1)	4(19.0)
과일류	7(41.2)	7(43.8)	8(47.1)	2(28.6)	15(44.1)	9(39.1)	24(42.1)	1(8.3)	1(11.1)	2(9.5)
내장류	11(64.7)	10(62.5)	12(70.6)	1(14.3)	23(67.6)	11(47.8)	34(59.6)	2(18.2)	0(0.0)	2(9.5)
알류	9(68.8)	11(68.8)	11(64.7)	4(57.1)	20(58.8)	15(65.2)	35(61.4)	2(16.7)	0(0.0)	2(9.5)
생선,갑각류	10(58.8)	6(37.5)	8(47.1)	5(71.4)	18(52.9)	11(47.8)	29(50.9)	3(25.0)	0(0.0)	3(14.3)
콩류	6(35.3)	4(25.0)	9(52.9)	2(28.6)	15(44.1)	6(26.1)	21(36.8)	8(66.7)	6(66.7)	14(66.7)

유제품	3(17.6)	2(12.5)	1(5.9)	1(14.3)	4(11.8)	3(13.0)	7(12.3)	0(0.0)	0(0.0)	0(0.0)
기름,지방류	8(47.1)	12(75.0)	13(76.5)	7(100)	21(61.8)	19(82.6)	40(70.2)	3(25.0)	4(44.4)	7(33.3)
당류	15(88.2)	10(62.5)	14(82.4)	3(42.9)	29(85.3)	13(56.5)	42(73.7)	3(25.0)	1(11.1)	4(19.0)
커피,차	10(58.8)	6(37.5)	8(47.1)	3(42.9)	18(52.9)	9(39.1)	27(47.4)	2(16.7)	1(11.1)	3(14.3)
젓갈,조미료류	14(82.4)	15(93.8)	17(100)	7(100)	31(91.2)	22(95.7)	53(93.0)	9(75.0)	5(55.6)	14(66.7)
식품 다양성 점수, Mean±SD	4.9±.4	4.7±.4	5.2±.5	4.4±.0	5.0±.4	4.6±.2	4.9±.4	3.6±.6	2.9±.6	3.3±.3
일주일동안 3번 이상 식사를 거른 인원 수, n(%)										
아침	1(5.9)	3(18.8)	1(5.9)	1(14.3)	2(5.9)	4(17.4)	6(10.5)	0(0.0)	1(11.1)	1(4.8)
점심	1(5.9)	0(0.0)	1(5.9)	1(14.3)	2(5.9)	1(4.3)	3(5.3)	0(0.0)	1(11.1)	1(4.8)
저녁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11.1)	1(4.8)

◎ <Table 8> 미얀마 양곤 지역의 중퇴청소년 및 대조군의 식품 다양성 평가

중퇴청소년 및 대조군의 식품 다양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4시간동안 8개 식품군(곡류, 구근류, 과일류, 내장류, 알류, 생선 및 갑각류, 콩류, 유제품)의 섭취 여부와 과잉섭취시 문제가 될 수 있는 4가지 기호식품군(기름 및 지방류, 당류, 커피 및 차류, 젓갈 및 조미료류)의 섭취 여부를 조사하였고, 총 8개 식품군 섭취에 대해 8점 만점으로 합산하여 식품다양성 점수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Table 8), 중퇴청소년의 경우 절반 이상이 지난 24시간 동안 곡류, 알류, 내장류, 생선 및 갑각류를, 대조군의 경우 절반 이상이 곡류, 콩류를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섭취를 보인 식품군은 유제품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식품 다양성 점수를 비교한 결과, 중퇴청소년(4.9점)이 대조군(3.3점)에 비해 더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과잉 섭취시 문제가 되는 기호식품의 경우에서도 중퇴청소년이 대조군에 비해 1.5~4배 더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나 올바른 식품 섭취를 통한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 교육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주었다. 또한 일주일에 3번 이상 식사를 거르는 경우는 중퇴청소년에서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생활습관_활동량, 음주 및 흡연

중퇴청소년 및 대조군의 생활습관을 조사한 결과(Table 9), 먼저 활동량의 경우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일주일 동안 10분 이상 걷기, 자전거타기, 공차기, 칫롱 등의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하루 10분 이상 일주일의 4일 이상 하는 경우는 중퇴청소년(89.5%)이

대조군(61.9%)보다 높게 나타났다. 흡연의 경험은 대조군(14.3%)보다 중퇴청소년(31.6%)이 2배 이상 높았고, 흡연 경험이 있는 중퇴청소년 중 2/3은 매일 흡연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음주의 경험은 흡연보다 낮지만 대조군(4.8%)보다 중퇴청소년(10.5%)이 2배 이상 높았고, 그 빈도도 흡연보다 훨씬 낮았다.

변수	중퇴청소년 (n=57)						대조군 (n=21)	
	13세 ~ 18세		19세 ~ 25세		총		13세 ~ 18세	
	남(n=17)	여(n=16)	남(n=17)	여(n=7)	남(n=34)	여(n=23)	남(n=12)	여(n=9)
우기동안 마시는 식수, n(%)								
생수	12(70.6)	11(68.8)	12(70.6)	5(71.4)	24(70.6)	16(69.6)	10(83.3)	8(88.9)
빗물	3(17.6)	2(12.5)	1(5.9)	0(0.0)	4(11.8)	2(8.7)	1(8.3)	1(11.1)
저수지물	0(0.0)	1(6.3)	0(0.0)	0(0.0)	0(0.0)	1(4.3)	0(0.0)	0(0.0)
지하수	2(11.8)	2(12.5)	4(23.5)	2(28.6)	6(17.6)	4(17.4)	1(8.3)	0(0.0)
건기동안 마시는 식수, n(%)								
생수	14(82.4)	12(75.0)	13(76.5)	5(71.4)	27(79.4)	17(73.4)	11(91.7)	9(100.0)
저수지물	1(5.9)	2(12.5)	1(5.9)	0(0.0)	2(5.9)	2(8.7)	0(0.0)	0(0.0)
지하수	2911.8)	2(12.5)	3(17.6)	2(28.6)	5(14.7)	4(17.4)	1(8.3)	0(0.0)
식수 보관 방법, n(%)								
플라스틱병	12(70.6)	11(68.8)	11(64.7)	4(57.1)	23(67.6)	15(65.2)	11(91.7)	8(88.9)
뚜껑있는항아리	3(17.6)	5(31.3)	6(35.3)	3(42.9)	9(26.5)	8(34.8)	1(8.3)	1(11.1)
뚜껑있는물탱크	2(11.8)	0(0.0)	0(0.0)	0(0.0)	2(5.9)	0(0.0)	0(0.0)	0(0.0)
사용하는 화장실 종류, n(%)								
수세식	17(100.0)	15(93.8)	17(100.0)	7(100.0)	34(100.0)	22(95.7)	12(100.0)	9(100.0)
변기뚜껑있는 재래식화장실	0(0.0)	1(6.3)	0(0.0)	0(0.0)	0(0.0)	1(4.3)	0(0.0)	0(0.0)
손을 씻는 경우(상황 등), n(%) – 중복								
씻거나 목욕시	11(64.7)	14(87.5)	15(88.2)	7(100.0)	26(76.5)	21(91.3)	9(75.0)	6(66.7)
화장실다녀온후	13(76.5)	13(81.3)	15(88.2)	7(100.0)	28(82.4)	20(87.0)	10(83.3)	8(88.9)
음식 먹은 후	15(88.2)	13(81.3)	12(70.6)	7(100.0)	27(79.4)	20(87.0)	7(58.3)	4(44.4)
음식 먹기 전	13(76.5)	11(68.8)	12(70.6)	7(100.0)	25(73.5)	18(78.3)	7(58.3)	3(33.3)
동생 먹이기전	2(11.8)	0(0.0)	2(11.8)	0(0.0)	4(11.8)	0(0.0)	0(0.0)	0(0.0)
동물 만진 후	5(29.4)	2(12.5)	3(17.6)	1(14.3)	8(23.5)	3(13.0)	2(16.7)	2(22.2)

◎ <Table 9> 미얀마 양곤 지역의 중퇴청소년 및 대조군의 생활 습관(활동량, 음주 및 흡연)

4) 식수 및 위생습관

대부분 빈곤한 가정 경제 상태를 가진 중퇴청소년들의 식수 및 위생습관 상황을 보면(Table 10), 우기나 건기에 안전하지 않은 식수 (빗물, 저수지물 및 지하수)를 음용하는 경우가 23~30%에 달하였고 이는 80% 이상 안전한 식수를 섭취하는 대조군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비해 식수를 보관하는 방법이나 위생적인 화장실을 사용하는 비율 혹은 손을 씻는 습관 등은 대조군과 비슷하거나 더 나은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대조군 역시 양곤시 근처의 빈민 지역에 위치한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임을 감안할 때 직업훈련교육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건강한 습관을 가지고 성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빈민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기초 보건위생 교육도 필요함을 나타냈다.

변수	중퇴청소년 (n=57)							대조군 (n=21)		
	13세 ~ 18세		19세 ~ 25세		전체			13세 ~ 18세		
	남(n=17)	여 (n=16)	남 (n=17)	여 (n=7)	남 (n=34)	여 (n=23)	총 (n=57)	남 (n=12)	여 (n=9)	총 (n=21)
일주일동안 10분 이상 걷기, 자전거타기, 공차기, 칫롱 등의 활동한 여부, n(%)										
예	15(88.2)	16(100.0)	17(100.0)	7(100.0)	32(94.1)	23(100.0)	55(96.5)	12(100.0)	5(55.6)	17(81.0)
아니오	2(11.8)	0(0.0)	0(0.0)	0(0.0)	2(5.9)	0(0.0)	2(3.5)	0(0.0)	4(44.4)	4(19.0)
하루 10분 이상 위의 활동을 일주일에 4일 이상 한 여부, n(%)										
예	12(70.6)	16(100.0)	16(94.1)	7(100.0)	28(82.4)	23(100.0)	51(89.5)	8(66.7)	5(55.6)	13(61.9)
아니오	4(2.9)	0(0.0)	1(5.9)	0(0.0)	5(14.7)	0(0.0)	5(8.8)	3(25.0)	2(22.2)	5(23.8)
잘 모름	1(5.9)	0(0.0)	0(0.0)	0(0.0)	1(2.9)	0(0.0)	1(1.8)	1(8.3)	1(11.1)	2(9.5)
무응답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11.1)	1(4.8)
흡연 경험, n(%)										
있다	6(35.3)	1(6.3)	10(58.8)	1(14.3)	16(47.1)	2(8.7)	18(31.6)	3(25.0)	0(0.0)	3(14.3)
없다	11(64.7)	15(93.8)	7(41.2)	6(85.7)	18(52.9)	21(91.3)	39(68.4)	9(75.0)	9(100.0)	18(85.7)
흡연 경험 있는 경우 지난 4주 동안 흡연 빈도, n(%)										
매일	3(50.0)	0(0.0)	8(80.0)	1(100.0)	11(68.8)	1(50.0)	12(66.7)	0(0.0)	0(0.0)	0(0.0)
일주일 적어도 한번	0(0.0)	0(0.0)	2(20.0)	0(0.0)	2(12.5)	0(0.0)	2(11.1)	0(0.0)	0(0.0)	0(0.0)
일주일 한번미만	1(16.7)	1(100.0)	0(0.0)	0(0.0)	1(6.3)	1(50.0)	2(11.1)	1(33.3)	0(0.0)	1(33.3)
전혀	1(16.7)	0(0.0)	0(0.0)	0(0.0)	1(6.3)	0(0.0)	1(5.6)	2(66.7)	0(0.0)	2(66.7)
잘모름	1(16.7)	0(0.0)	0(0.0)	0(0.0)	1(6.3)	0(0.0)	1(5.6)	0(0.0)	0(0.0)	0(0.0)

음주 경험, n(%)										
예	0(0.0)	0(0.0)	6(35.3)	0(0.0)	6(17.6)	0(0.0)	6(10.5)	1(8.3)	0(0.0)	1(4.8)
아니오	17(100.0)	16(100.0)	11(64.7)	7(100.0)	28(82.4)	23(100.0)	51(89.5)	11(91.7)	9(100.0)	20(95.2)
음주 경험 있는 경우 지난 4주 동안 음주 빈도, n(%)										
일주일 한번미만	0(0.0)	0(0.0)	3(50.0)	0(0.0)	3(50.0)	0(0.0)	3(50.0)	0(0.0)	0(0.0)	0(0.0)
전혀	0(0.0)	0(0.0)	3(50.0)	0(0.0)	3(50.0)	0(0.0)	3(50.0)	1(100.0)	0(0.0)	1(100.0)

◎ <Table 10> 미얀마 양곤 지역의 중퇴청소년 및 대조군의 식수 및 위생습관

5) 성생식 관련 상태

중퇴청소년 및 대조군의 성생식관련 상태를 조사한 결과(Table 11), 피임교육을 받아본 경험은 중퇴 청소년이 50%가 있는 반면 대조군에서는 42.9%가 있다고 답변하여 미얀마에서 공식적 또는 비공식인적인 방법으로 성생식교육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피임방법을 사용한 경험은 대조군은 전무한 반면 중퇴청소년에서 10.5%가 있다고 답변하여 중퇴청소년이 성경험이 더 일찍 시작됨을 보여주었다. 이는 중퇴 청소년의 이른 결혼과 출산의 문제를 반영하는 답변으로 사료된다. 여자 청소년의 생리 시작 나이는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12~13세에 절반 이상 (중퇴청소년 56.3%, 대조군 66.7%) 생리를 시작한 것으로 응답하였고 19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16~18세에 절반 이상(57.2%) 생리를 시작한 것으로 응답하여 다른 경향을 보였는데, 중퇴여자청소년의 대부분이 성생식에서 가임기에 속하게 되므로 가임기 여자청소년 뿐 만 아니라 남자 청소년들을 포함하여 자신의 소중함, 10대 임신 문제 등 성인지 교육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변수	중퇴청소년 (n=57)							대조군 (n=21)		
	13세 ~ 18세		19세 ~ 25세		전체			13세 ~ 18세		
	남 (n=17)	여 (n=16)	남 (n=17)	여(n=7)	남 (n=34)	여 (n=23)	총 (n=57)	남 (n=12)	여(n=9)	총 (n=21)
피임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n(%)										
예	6(35.3)	7(43.8)	10(58.8)	6(85.7)	16(47.1)	13(56.5)	29(50.9)	4(33.3)	5(55.6)	9(42.9)
아니오	11(64.7)	9(56.3)	7(41.2)	1(14.3)	18(52.9)	10(43.5)	28(49.1)	8(66.7)	4(44.4)	12(57.1)
피임 방법을 사용한 경험, n(%)										
있다	1(5.9)	1(6.3)	2(11.8)	2(28.6)	3(8.8)	3(13.0)	6(10.5)	0(0.0)	0(0.0)	0(0.0)
없다	16(94.1)	15(93.8)	15(88.2)	5(71.4)	31(91.2)	20(87.0)	51(89.5)	12(100)	9(100.0)	21(100)

생리 시작 나이, n(%)										
12-13세		9(56.3)		1(14.3)		10(43.5)			6(66.7)	
14-15세		5(31.3)		2(28.6)		7(30.4)			2(22.2)	
16-18세		1(6.3)		4(57.2)		5(21.7)			0(0.0)	
아직안함		1(6.3)		0(0.0)		1(4.3)			1(11.1)	
생리용품 사용, n(%)										
일회용생리대		15(93.8)		7(100.0)		22(95.7)			8(88.9)	
해당없음		1(6.3)		0(0.0)		1(4.3)			1(11.1)	

◎ <Table 11> 미얀마 양곤 지역의 중퇴청소년 및 대조군의 성생식 관련 현황

다. 심층인터뷰 및 초점그룹토의 결과

미얀마 양곤의 도시빈민 밀집지역인 쉐비다 타운쉽과 흘랑따야 타운쉽에 거주하는 빈곤 청소년을 대상으로 식음료 분야 직업훈련교육사업의 수요를 조사하고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견해를 조사하기 위해 현지정부관계자, 지역교육청 관계자, 타 NGO 관계자 및 유관사업기관 관련자들에 대한 심층인터뷰(in-depth interviews), 중퇴청소년의 어머니 초점그룹토의 (focus group discussions), 및 관찰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정부기관 방문 관계자 인터뷰

사회복지부 양곤지역 디렉터 인터뷰를 통해 사회복지부산하 직업교육 현황을 파악함. 대부분의 필요가 취약계층 여성들을 위한 봉제, 미용기술 등의 직업교육이었으며 중퇴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직업기술교육 프로그램은 제한적이었음.

사업 조사지역인 교육부 산하 흘랑따야 교육청장, 쉐비다 교육청장 인터뷰에서는 중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기술교육과정을 따로 둘 수 있는 여유 교실 공간, 시설 및 교사 확보가 어려운 형편임을 알게 됨. 기존 공교육 학교에서 중퇴청소년을 위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한 곳도 없었음. 기존 학교시설을 활용하여 방과후 교육 형태로 중퇴청소년 대상 직업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할 경우 모든 활동이 상부 주무부서인 교육부의 승인 절차가 있어야만 사업 활동이 가능하며 상부 하달 방식의 정부체계이기 때문에 지역정부의 자율적 권한이 많지 않음을 고려해야 함. 그러므로 교육부 주정부를 방문하여 직업기술교육기관과 이와 관련한 현황 특히, 식음료분야 직업교육 현황을 알아보

아할 필요가 있음.

(2) 기관방문 (기관관계자 및 유관사업기관)

코이카 미얀마 사업소 방문을 통하여 인프라구축, 농촌개발, 일자리창출이 미얀마 정부 주요 3대 핵심사업이며 직업훈련사업의 요구가 다양한 분야로 확대 되고 있기에 중퇴 청소년 직업 기술교육을 전문인력인 교사양성을 겸하여 기업, 코이카봉사단, CSO가 협업해서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사업방향을 고려해야 함을 확인 함

CVT, WTC (World Training Center), 카페 소비코, 청소년 기숙사(글로벌호프) 방문조사를 통하여 최근 성장세가 두드러진 식음료 관련 시장에 종사할 인력들의 직업 교육 수요가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함. 식음료분야 사설 학원 업체인 WTC에서 제과제빵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고가의 교육비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일부 상류 계층 자녀들에게만 교육 기회가 주어지는 현실임. CSO 단체의 CVT직업 기술학교는 학교과정을 대신할 수 있는 정부인가형 교과과정을 가지고 분야별 직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계속 교육 실현이 가능하고 취직을 원할 경우 기업과 연계하여 취직이 될 수 있는 산학협력교육 체계를 갖추고 있는 이상적인 직업훈련 교육 기관 모델로 보여 지며 향후 위드 사업 방향에도 고려할 부분임

(3) 중퇴청소년의 어머니 초점그룹토의 (Focus group discussions)

자녀들의 중퇴하는 학년은 6학년~ 7학년부터가 가장 많았고 이유는 학비는 무료이지만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직장에 취직하여 생계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며, 또한 단계별 승급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중퇴하는 경우도 많았음

청소년의 중퇴 후 진로에 관하여는 직업 기술 교육에 하나로 여자들을 대상으로는 봉제, 미용, 조리기술을 선호 하였고 남자들을 대상으로는 제빵 , 바라스타, 건축 직업 기술 교육을 선호하였음

학교를 중퇴한 자녀의 학업에 대해서는 계속 교육을 희망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가정 생계를 위해 경제 활동을 해야 하나 단순 노무직밖에는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고 고용이 불안정하여 잦은 이직을 하므로 취직을 위한 무상 전문 기술직업교육을 희망함

학업을 다 마치지 못한 중퇴청소년 들에게 계속 교육이 제공되기 위해서 직업 기술교육이 단순히 취업 기술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중퇴청소년 성장단계를 고려하여 정서적, 사회적, 인성적, 기초생활관련 교육은 물론 식문화를 선도할 인재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통합적 교육을 실시하여 장·단기적 식음료분야 기술전문 교육이 계속교육의 형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 장치를 기반 하는 지속 가능한 통합적 교육 방안을 고려해야 함.

(4) 현지 로컬 교육 사업 NGO 실행파트너

현지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로컬 교육 NGO 미따얼린 대표 인터뷰를 통해 미얀마 공교육이 의무 교육 이긴 하나 교육 시설, 공간 ,교사 부족으로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10~17세 미얀마 청소년 중 1/5에 해당하는 170 만 여명은 학교를 중퇴하고 있음을 볼 때 이들을 위한 교육 및 직업 기술을 교육이 절실히 필요함을 확인함. 현재 미얀마에서 학교를 세우고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미따얼린 기관의 경험을 살려 정부기관시설을 이용한 미얀마 직업훈련 학교사업에 실행 파트너로서 협력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라. 이해관계자 분석

이해관계자		위치**			위치 설정 이유	강점 및 약점	위치변화전략***
		+	0	-			
1	중퇴청소년 (교육생)	+			직접수혜자	-학교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많음 -대부분 빈곤가정 자녀로 무료교육훈련에 대한 열의가 있음 -중퇴정도에 따라 교육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음	-
2	정부직업훈련 기관(GTI)	+			직접수혜자	-정부기관으로 안정적으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운영 -식음료분야 직업훈련과정이 개설되어있지 않아 본 사업으로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기관 내 시설에 대한 일부 시설의 개보수를 통해 교육 및 실습실구축가능 -운영 및 홍보 등에 협력	-
3	강사진	+			직접수혜자	-정부공무원으로 사업이양시 강사료에 대한 추가부담이 없음 -식음료분야관심자로 강사양성교육 및 연수를 통해 역량강화 가능	-
4	식음료관련기업 종업원		0		직접수혜자	-식음료 분야 종사자로 경험 보유 -타 기업 소속이므로 기업 정책 및 결정의 영향을 많이 받음	직무교육을 통해 전문성의 심화가 가능함을 인식시켜 적극적 참여를 유도 동 사업의 직업훈련의 성과를 공유함으로 교육과정 및 졸업생에 대한 인식 제고
5	관계부처 (교육부, DTVE)	+			- 중퇴청소년 대상의 직업훈련교육이 미비한 상황이어서 동 사업을 매우 긍정적으로 기대함	-사업시행에 적합한 직업훈련기관 지정권한이 있음	
6	MTAL		0		- 현지 협력 교육전문 NGO - 공동 수행기관	-현지 네트워크 보유 -풍부한 교육기관 운영경험 -직업훈련 교육기관 운영 및 ODA사업에 대한 전문성 부족	동 사업을 통해 직업훈련 교육운영 역량강화 및 공익추구에 대한 기관의 목표추구 가능
7	KOICA	+			재원 지원 및 협력 그룹	-직업훈련에 대한 사업경험이 있음 -사업재원 지원가능 -민간단체역량강화를 위한 기회제공 -미얀마 내 관련 NGO 및 기관들과 네트워킹 및 정보 공유	
8	WITH	+			수행기관	-사업담당자가 미얀마에 5 년 이상 된 영양 전문가로 현지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언어 소통이 가능함 -식음료분야 전문성과 한국인 전문강사풀(pool) 보유	
9	식음료교육 훈련학원			-	- 잠재적 수강생 공유로 인한 수입 감소 우려	-식음료분야의 전문성보유 -장비의 낙후와 부족	동사업의 강사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수입 감소 경감
10	식음료관련기업		0		- 간접수혜자 - 현장실습을 원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제공 후에도 암묵적인 고용에 대한 부담존재	-훈련생들에게 고용을 제공할 권한 보유	식음료산업이 팽창 중이며 훈련된 직원채용 가능 무료 직원연수를 실시하여 사업 적극 참여유도

04 변화의 영역

가. 주목 분야

- 중퇴청소년 대상 직업훈련교육을 통한 기술 전문성과 숙련도 향상
- 식음료분야 전문 기술 함양 및 고등교육기관으로 계속 교육 유도
- 정부 관계자 및 기업 네트워크 관계자들의 중퇴청소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인식 변화 개선
- 지속가능한 사업 수익모델 창출로 자립방안 마련

나. 현지의 수요 및 상황

- 미얀마 양곤 빈민지역의 중퇴청소년들은 대부분 사회적 안전망이 없이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교육이나 직업훈련이라도 필요한 상황임. 특히 13~16세의 청소년의 경우 직업을 가질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해당 행정기관 (township)에서는 이러한 청소년들에 대한 파악도 되지 않는 상황임.
- 조사 지역에서 가장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중퇴청소년을 위한 개선은 직업 훈련 교육임. 중퇴청소년의 직업은 단순 노동 집약적이어서 빈곤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직업 훈련 교육 요구와 수요가 증가 하고 있음.
- 더욱이 미얀마 개방화 이후에 관광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특히 식음료 분야의 수요는 계속 증가 하고 있음.
- 현재 식음료분야 직업훈련기관은 교육 기간도 길고, 등록비가 비싸 중퇴청소년이 쉽게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관의 실습 시설도 열악하고, 학생들의 이탈율도 50%에 달함. 따라서 중퇴청소년들에게 특화된 커리큘럼으로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별도의 교육 기관이 필요하며, 교육 내용도 직업교육만이 아닌 청소년기 성장과 관련한 기초 교육 및 인지 발달의 내용도 포함해야 함.
- 미얀마는 식품이 많으나 사용이 매우 단조롭고, 기름을 많이 사용하고 염분 함량이 많은 절임 식품과 젓갈의 섭취가 높으며, 노점상 중심으로 영세하게 운영되고 있는 외식서비스 분야도 교육이 수반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풍부한 과일 및 채소의 활용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할 수 있는 식음료 분야 전문가 양성을 통해 미얀마 식생활 전반의 개선을 도모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식음료 분야 교육 사업이 필요함.
- 교육사업 수행을 위해 정부 상부 하달 방식의 권위 체계가 있으므로 교육 사업에 있어서교육부 승인이 중요하며 정부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이에 정부 관계자 인식 교육을 병행한 긴밀한 협조는 반드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임. 또한 중퇴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바라보는 정부, 학교, 가정, 기업, 지역 사회의 사회적 협조와 인식개선에 대한 노력을 반드시 필요함.

다. 사업대상 분야(Target Area)의 지표 및 기초선

사업대상 분야	지표	기초선
중퇴청소년 학력 현황	중학교 미진학률	9%
	중학교 중퇴율	32%
	고등학교 미진학률	16%
	고등학교 중퇴율	35%
중퇴청소년 취업 현황	중퇴청소년 취업률	84%
	중퇴청소년 취업 유지율	18%
	취업을 위해 기술을 습득하는 청소년 비율	16%
	식음료 무료직업교육에 대한 관심도	75%
중퇴청소년 진로 관련 환경 현황	진로에 대한 결정을 한 중퇴청소년 비율	51%
	진로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는 중퇴청소년 비율	46%
	진로관련 프로그램을 제공 받는 중퇴청소년 비율	65%

라. 단체의 특성과의 연계

본 기관은 탄자니아 모로고로 지역에서 탄자니아 직업훈련 기관인 VETA(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uthority)와 함께 제빵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VETA Baking Unit을 통해 제과제빵 분야의 직업을 원하는 대상자들에게 현지의 수요를 채울

수 있는 기본적인 레시피 뿐만 아니라 탄자니아 지역의 작물을 활용하여 영양적으로 강화된 제과제빵 레시피를 개발하고 이를 교육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였다. 이를 통해 미얀마에 필요한 직업훈련학교의 커리큘럼과 레시피 개발에 충분한 역량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별히 기존 레시피의 교육뿐만 아니라 현지의 상황에 맞는 제과제빵 레시피를 개발함으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여성자활능력개선 프로그램인 '마마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마마스쿨'은 빈곤 지역 어머니 대상 조리 교육을 통해 직업 교육 훈련 등을 실시하면서 현지 작물이나 상용 식품을 이용하여 제한된 환경에서도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음식이나 식단을 개발하고 교육, 보급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영양 상태 개선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자활능력 개선과 이를 위한 지속적인 멘토링의 노하우는 정규 교육에서 소외된 빈민지역의 중퇴 청소년들을 정서적으로 케어하고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 및 자활능력을 개선하고 계발하는데 많은 적용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몽골에서는 2013년부터 몽골 과학기술대학교(Mongolia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MUST)와 협력하여 학생식당, 매점, 커피숍 등 복합식문화공간을 학교 내에 형성하고 운영하고 있다. 공간계획, 레시피 개발, 식자재 유통 및 관리, 직원 교육 등 운영의 모든 부분을 직접 관리하면서 사업의 수익적인 면과 함께 몽골의 식문화 형성의 부분에서 몽골 과학기술대학교와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식음료 분야 직업훈련학교의 교육 및 실습실 설계, 시공, 인테리어 등 하드웨어의 세팅에 있어 원활한 진행을 기대할 뿐 만 아니라 추후 직업훈련학교의 자립을 위한 사업 모델의 발굴 및 운영에도 충분한 역량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05 자료 출처

* 국내 및 현지조사 시 참고한 자료의 출처 기술

[국내 조사]

· KOTRA 국가정보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17/globalBbsDataView.do?setIdx=302&datal

· KOTRA 미얀마 양곤 무역관 국가정보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57

· 외교부 국가정보
http://www.0404.go.kr/dev/country_view.mofa?idx=75

· [네이버 지식백과] 미얀마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緬甸]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96489&cid=40942&categoryId=34040

· 미얀마 중앙통계청(CSO)

· 미얀마 투자진출 실무가이드 2013, 미얀마 노동부 세미나 발표자료

· ILO 전문가위원회 보고서 2012

· 위키백과 미얀마 https://ko.wikipedia.org/wiki/%EB%AF%B8%EC%96%80%EB%A7%88

· 미얀마의 교육 https://ko.wikipedia.org/wiki/%EB%AF%B8%EC%96%80%EB%A7%88%EC%9D%98_%EA%B5%90%EC%9C%A1

· KCOC 국별 정보_NGO 길라잡이(미얀마) / KOICA & KCOC p31,37

· 2016 MYANMAR STATIISTICAL YEARBOOK / MYNAMAR CSO p127~128, 131

· Quarterly Statistics Bulletin_Quarterly Time Series, 2015~2017(Q1) / MYANMAR CSO

· KOTRA 해외시장뉴스 미얀마 노동법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6/globalBbsDataView.do?setIdx=322dataIdx=132047

· 국제노동기구(ILO)
http://www.ilo.org/Search5/search.do?sitelang=en&locale=en_EN&consumercode=ILOHQ_STELLENT_PUBLIC&searchWhat=Ayeyarwady&searchLanguage=en

· GP3 KOREA 국제노동기구(ILO) 2010 년 아동노동 보고서
http://blog.naver.com/gp3project/10183500201

06 기타 활동 자료 (사진 등)

01

02

03

04

05

06

01 현지 KOICA 사무소 방문
02 CVT 직업훈련 교육기관 방문
03 WTC 방문 및 인터뷰
04 사회복지부 양곤지청 기관 방문
05 흘랑따야 지방 교육청 관계자 인터뷰
06 쉐비다 지방 교육청 담당자 인터뷰

07

08

09

10

11

12

07 현지 협력 NGO (미따얼린) 미팅
08 사회복지부 산하 여성직업훈련원 방문
09 설문지 조사원 훈련
10 설문조사 (대조군, 흘랑따야)
11 설문조사 (중퇴청소년, 쉐비다)
12 중퇴청소년 어머니 초점그룹토의

향후 계획

chapter 03

본 지역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양곤지역 중퇴청소년 대상 식음료분야 (제과 및 제빵, 바리스타, 외식서비스 및 품질관리 과정) 직업교육제공을 위한 직업훈련학교 사업을 시행할 예정임. 이를 위해 2018년 코이카 민관협력사업에 지원하였음.

PART 08

[교육] 카야

시행일자	2017년 4월 19일 ~ 6월 27일 (총 70일)
지역	Myanmar 69 ward, Dagon Seikkan, Yangon

2017년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지역조사(사업형성조사) 결과보고서

기본정보				
단체명	카야		작성자	최 순 태
단체현황	현지 지부		☑ 있음	☐ 없음
	NGO 등록		☐ 있음	☑ 없음
	KOICA 협력사업 수행 경험 유무		☐ 있음	☑ 없음
사업 분야	중등교육(직업교육)		코드번호	113*
조사 목적	미얀마 양곤 더공 세이컨 도시빈민지역 직업훈련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기초 조사			
대상 국가 및 지역	국 가	Myanmar	지 역	69 ward, Dagon Seikkan, Yangon
	미얀마 양곤 도심에서 동쪽으로 30 km 거리 위치한 도시빈민지역			
조사기간	전체 조사 기간	2017년 4월 19일 ~ 6월 27일 (총 70일) (사업비 집행기간 연장 10일 포함)		
	현지 체류기간	2017월 5월 4일 ~ 5월 17일 (총 14일)		

조사 목적

chapter 01

본 지역조사는 미얀마 양곤 더공 세이컨 도시빈민지역 직업훈련센터 운영을 통해 해당 지역 청년 및 여성들의 고용확대와 이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시스템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조사와 본 사업의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음.

지역조사 세부 목표

- 미얀마 및 양곤 더공 세이컨 지역 일반 현황 및 사회적·지리적·경제적 현황 파악
- 미얀마 및 사업 대상 지역 관련 분야 현황 파악 : 고용률, 실업률, 고용형태, 소득형태 등
- 지역 직업훈련센터에 대한 타당성 및 요구도 조사
- 직업훈련센터와 미얀마 내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 직업훈련센터 인프라 구축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사
- 직업훈련 관련 유사 사업장 및 기관 탐방을 통한 사례분석
- 직업훈련센터 운영을 위한 이해관계자 식별 및 미얀마 지역 정부 또는 유관기관과의 협의체계 구축

본 사업 세부 목표

- 직업훈련센터 운영을 통한 청년 및 여성 고용 확대
- 직업훈련센터에서의 기술 습득을 통한 구직 능력 강화

- 직업훈련센터와 현지 한국 기업들과의 인턴십 연계 및 향후 일자리 제공
- 정규 교과 과정 내의 부실한 직업 관련 교육의 맹점을 보완, 청년들에게 직업 교육의 장 제공
- 지역 정부 및 미얀마 노동부, 교육부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모델 제시

조사 결과

01 일정별 조사 활동

기 간		활동 내역 약술
국내	4.19 ~ 4.25	· 문헌 조사를 통한 지역 현황 파악(지리적, 인구사회학적, 경제적, 지역 이슈 등) · 노동 및 고용,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현황 조사 · 범분야 이슈, 지역 내 타 기관 활동현황 자료, 이해관계자 정보조사
	4.26	· 1차 전문가 컨설팅 진행: 지역조사 및 설문 계획에 대한 컨설팅 진행
	4.27 ~ 5. 3	· 지역조사 진행 매뉴얼 및 설문지 검토
	5.18 ~ 6.18	· 지역조사 내용 정리 및 추가내용 현지 조사 진행 · 2차 전문가 컨설팅 진행: 사업 형성
현지	5. 4 ~ 5.17	· 더공세이칸 지역정부, 구청(묘네) 방문, 구청장 면담 · 69약궤 리더 면담/ 이해관계자 FGI 진행 · 69약궤 기초선 조사(설문 400명) / 69약궤 내 랜덤 가정 방문 및 인터뷰 · 지역 교육기관 방문 (초중고) 및 학교 관계자 인터뷰 · KOICA 미얀마 사무소 방문 및 문상원 부소장 면담 · 굿네이버스 미얀마 지부장 면담 · 미얀마 KOTRA 방문 및 관계자 면담 · 파트너 기업체(봉제/가발/바리스타·제빵) 방문 및 협력 방안 논의, MOU 체결 · 양곤 시내 사회적 기업(Yangon Bakery) 및 타 직업훈련센터 방문 · 마을 리더 및 지역주민에게 조사 내용 공유 미팅

02 조사 항목 및 방법

조사 항목		조사 방법	조사 기간
지역 정보	· 지역 현황 파악 (지리적·인구사회학적·경제적), 지역 자원 파악 · 지역 이슈 분석	· 문헌조사 : 국제기구 및 국내 정부 산하기관 국별 문헌 수집 및 분석 · 현지조사 : 지역시찰, 지역정부 기관방문 및 인터뷰	4.19 ~ 4.25 5. 4 ~ 5.17
분야별 이슈 (사업 분야)	· 국가 및 지역 고용 현황 (해당 지역 주요 업종 분석) · 교육 현황 (일반교육/직업훈련) · 취업 관련 요구도 조사 · 수혜자 선별 점검 및 기준 설정을 위한 조사 · 유사 사업 사례 분석 · 직업훈련센터 요구도 및 타당도 파악 · 직업훈련센터 훈련과목선정에 대한 조사 · 전반적인 현지 한국기업 현황 파악 · 현지 한국기업 또는 훈련과목 연계기관 인턴십 제공 가능성 및 기타 협력 여부 타진 · 훈련 이후 취업 확보에 대한 계획 조사 · 센터 장소 확보 방향 설정 및 장비 소요 조사 · 훈련 커리큘럼 및 훈련 강사 확보 조사 · 기타 운영 매뉴얼 기획을 위한 조사	· 문헌조사 : 미얀마 정부, 국제기구, 국내 정부 산하기관, NGO, 기타 연구기관의 자료 수집 및 분석 · 현지조사 : 방문조사, FGI, 워크숍	4.19 ~ 5.17
지역 내 타 기관 활동현황	· 더공 세이컨 지역 내 정부, 국제기구 및 NGO 현황 조사 : 활동 여부 및 현황 파악	· 문헌조사 : NGO 및 국제기구 활동 보고서, 정부 및 연구기고나 보고서 분석 · 현지조사 : 방문조사	4.19 ~ 4.25 5. 4 ~ 5.17
이해 관계자 정보조사	· 더공 세이컨 지역 정부 부처 · 69번 약궤 리더 및 핵심 인물 · 수혜자 그룹 · 미얀마 내 한국 기업 및 연계기관과의 이해관계자 파악 · 본 사업 운영 위원회 및 자문 위원회 등의 조직 구성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 현지조사 : 지역 현황 조사, 인터뷰, 설문조사 등의 지역 조사 결과자료 분석	4.19 ~ 4.25 5. 4 ~ 5.17
범분야 이슈 조사	· 여성, 인권, 노동환경에 대한 조사	· 문헌조사 : 정부, 국제기구, NGO의 정책 분석 보고서 분석, 인권 및 여성 전문가 자문 회의 · 현지조사 : 지역 시찰 또는 가정 방문조사	4.19 ~ 4.25 5. 4 ~ 5.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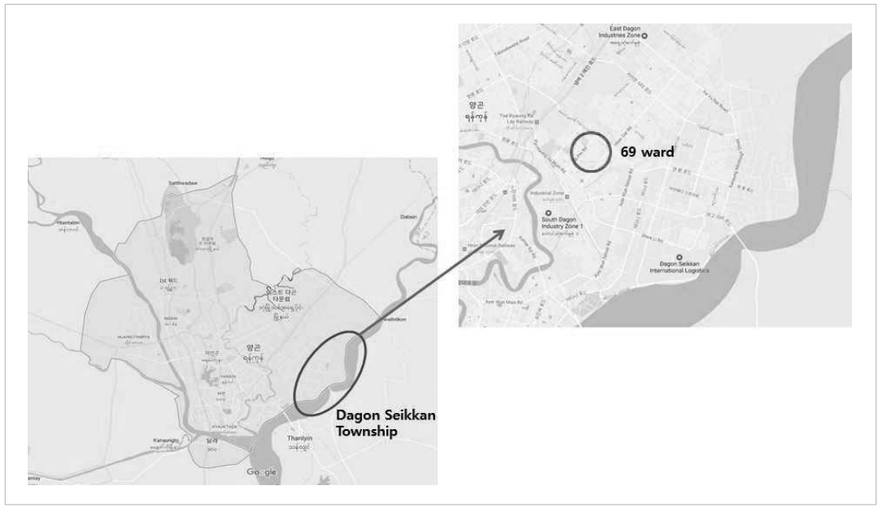
03 조사 결과 분석

1) 지역 정보

지역시찰을 통한 직접관찰, 구청, 마을 리더십과의 면담, 지역 내 NGO의 자료 분석, 지역주민과의 면담 등을 통해 도출된 지역의 지리적, 인구사회학적 정보 및 기타 일반적 특성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지리적 현황

- 본 사업 지역은 양곤시 더공 세이컨 묘네 69약궤(69 Ward, Dagon Seikkan Township, Yangon)으로 양곤의 타운십 중 하나이며, 동쪽 외곽 끝에 위치하고 있음.
- 69약궤에는 최근 6-7년 사이, 양곤의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도시로 몰려든 이주민으로 구성된 도시 빈민들이 거주하고 있음.
- 양곤은 미얀마의 14개 지역 중 가장 작은 곳이지만, 나라 전체 인구의 14~15%가 거주하고, 국가 경제의 1/4~1/3이 발생되는 곳으로 10개 이상의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으며 교통과 산업의 요충지임. 제조업, 특히 봉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양곤 외곽지역에는 80여 개의 한국 봉제 공장들이 들어서 있음.



◎ <더공 세이컨 묘네 / 69 약궤, Google Map>

(2)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경제 현황

양곤시 더공 세이컨 묘네 69번 약궤 (Yangon Region, Dagon Seikkan Township, 69 Ward)				
면 적	60.99 Km^2			
인 구[01] (2017년 4월 기준)	10,095명 (남성: 4,958명, 여성: 5,137명) / 2,166 가구			
연령별 인구 비율[02] (2017년 4월 기준)	0~10대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20%	40%	30%	10%
지 표[03]	일용직 노동자 비율	전체 실업률	청년 실업률	여성 가장 비율
	약 70%	66%	58%	37%
지역 기관 현황	- 유치원 1개 (본 단체 운영) / 초등학교 1개 (굿네이버스 운영) - 사찰 1개소 / 약국 1개 - 인근 거리에 한인 운영 봉제 공장 다수 (양곤 전체 한인 봉제 기업 80 여개)[04]			

- 더공 세이컨 타운십(묘네)의 경제 수준은 양곤의 33개 타운십 중 최하위권에 속하며, 69약궤는 더공 세이컨의 20개 약궤 중 중하위권에 속함.
- 69약궤는 최근 미얀마의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시골에서 도시로 이주해온 사람들과, 양곤 시내의 비정상적인 물가 및 집값 상승으로 인해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는 사람들까지 더해 급속도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음.
- 일반적인 이주민 마을 특성처럼 69약궤도 마을 주민들의 신분과 주거 환경이 매우 불안정 하며, 마을의 주거형태는 대부분 합판, 간이 목재 등을 사용한 판자촌의 형태임. 마을 사람들은 수질이 형편없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음. 마을 주민의 절반 정도는 집에 전기가 없으며 상하수도, 도로, 학교(지역 내 중고등학교 부재), 보건소 등의 기본 인프라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음.
- 약궤 리더의 정보와 설문 조사 결과에 의해 파악된 69약궤의 인구구조는 20-30대의 젊은 인구 비율이 약 30%로 높게 나타나는 것이 주요 특징이며, 이는 생산층 인구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음.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은 7세 미만의 미취학 어린이들까지 포함하면, 10대까지의 누적인구 비율은 20%를 훨씬 초과될 것으로 예상

01 2017 KOICA 인큐베이팅 사업, 양곤 더공세이컨 도시빈민지역 직업훈련센터 운영을 위한 설문조사분석결과
02 위의 결과
03 위의 결과
04 2016 미얀마 진출 기업 정보, KOTRA 양곤

됨. 이에 따라 69약궤의 인구구조는 도시형(별형)[05]으로 전형적인 이주민 마을의 인구구조 특성을 보임.

(3) 일반교육현황

○ 기본 학제[06]

구 분	2016년 이전	2016년 이후
초등교육	- 기초과정 1년 (6세) - 1~4학년 (7-10세)	- 1~6학년(5-10세), (KG 1년, 기초과정 1년 포함)
중등교육	- 중학교 5~8학년 (11-14세) - 고등학교 9~10학년 (15-16세)	- 중학교 7~10학년 (11-14세) - 고등학교 11~12학년 (15-16세)
고등교육	- 대학교 (17세 이상)	- 대학교(17세 이상)

미얀마의 기본교육 시스템은 '초등교육 6년(KG(유치원) 1년, 기초 과정 1년, 초등 4년)', '중등교육 6년(중학교 4년, 고등학교 2년)'으로 총 12학년으로 구성되며, 고등교육 (대학 과정)은 전공 분야에 따라 3-6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음. 2016년 이전 기본교육 학제는 기초 1년, 초등-중등 10년으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2016년 KG 과정을 추가 개설하였음.

○ 대상 지역 교육 현황

구분	내 용
지역	양곤 더공세이컨 묘네 69약궤 (Yangon Dagon Seikkan Township 69 Ward)
학생 수	800여명 (2017년 기준)
중·고등학교	없음
초등학교	1개 (굿네이버스 지구촌 희망학교 사업, 2014), 300여 명, 교사 수 6명
진학률[07]	- 초등학교 진학률 : 70.5% - 중등학교 진학률 : 43.4% - 고등교육(대학) 진학률 : 15.8%

05 별형은 생산연령층인 청장년층의 전입이 많은 도시나 신개발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인구구조이다. 이 유형은 비생산연령층의 인구에 비해 생산연령층이 평균 이상으로 많아 부양비가 낮게 나타난다. 노동력이 풍부하고 소비시장이 형성되며,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도시의 소득이 높아지고, 인구 재생산 연령층의 전입이기에 출산율도 높아져 인구의 사회적 증가와 함께 자연적 증가도 나타나 전체적으로 인구의 증가가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인구 증가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 시설이 필요한 반면 주택 부족, 교통 혼잡, 실업 증가, 범죄 증가, 주거 환경의 악화 등 인구 과밀화에 따른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난다.

06 2016년 12월 기준, 미얀마 교육부

07 굿네이버스 Report, 2014

지역 정보 결론

- 이주민의 증가로, 도시 외곽에 형성된 이주민 집단 거주촌
- 계획되지 않은 도시로 상하수도, 교육 및 의료시설 등 기본 인프라가 절대 부족함.
- 생산층 인구가 다량으로 유입되었으나, 미숙련 인구 증가로 실업 문제가 대두됨.
- 군부 독재 하의 오랜 우민화 정책으로 교육 수준이 매우 낮으며, 교육 인프라 또한 매우 열악함.

2) 더공세이컨(69번약궤) 경제 및 취업 관련 이슈

(1) 문헌 조사를 통해 도출된 미얀마 경제, 산업 및 기술 교육 현황

○ 국가 경제/산업 현황[08]

GDP($)	1인당 GDP($)	경제성장률	실업률[09]	청년실업률(15-29세)
680억	1,307	7%	4.8%	7.7%
산업구조	농업(50%) 제조업(16%) 서비스업(35%)			
무역규모	수출 : $104억 9,000만 (천연가스, 원목, 콩류, 쌀, 의류, 광석) 수입 : $139억 6,000만 (섬유, 석유제품, 기계 및 운송장비, 전자제품, 식료품)			
주요산업	농림·수산업, 제조업, 천연가스, 전력			

○ 미얀마 과학기술부(MOST) 산하 TVET 기관 현황(2015)[10]

구분	입학가능자	과정	개수	학생 수
국립기술고등학교 (Government Technical High SchooL: GTHS)	중학교 졸업	2년	36	2,106
국립기술전문대학 (Government Technical Institute: GTI)	고등학교 졸업	2-3년	18	4,062
기술대학교 (Technical University: TU)	고등학교 졸업	6년	29	74,000
기술교원연수센터 (Technical Promotion and Training Center: TPTC)	MOST 교원	3개월	1	-

08 The World Fact book, CIA, 2016

09 ILO 기준 (1주일 노동시간 1시간 미만. 학생, 주부, 군인 등을 제외한 15세 이상의 일할 능력과 취업 의사가 있는 사람 가운데 일자리가 없는 사람)

10 미얀마 기술교사 양성센터 설립 지원, KOICA, 2015

(개도국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기술교육훈련 추이) 직업교육훈련은 개도국의 산업발전, 국민소득 증대 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주로 국가 개발전략과 연결되어 국가 주도로 이루어져 왔으며, ODA 부분에 있어서도 그 수혜 대상은 국공립 기술전문대학, 기술고등학교 등 국가 기관인 경우가 많았음. 국가 주도 하의 체계적인 직업기술교육훈련 시스템이 갖추어지기 전까지의 상당한 기간,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은 개발의 영역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음.

직업기술교육 훈련 이슈 결론

미얀마의 직업기술교육훈련은 현재 주로 고등교육기관(대학/전문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음. 농업에 중점을 둔 국립기술고등학교(GTHS)가 36개소 2,000여 명의 학생을 교육하고 있긴 하지만, 90년대 후반부터 10여 년간 이어진 우민화정책에 의해 현재 이들을 교육해야하는 전문 기술 교원들의 수가 매우 부족하고, 대부분의 국공립 학교에서는 대학 입학시험인 10학년 졸업시험에 초점을 맞춘 커리큘럼을 운영하며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 정보 및 직업관, 기술 교육 등을 전혀 실시하지 않아 많은 청년들이 단순 일용직에 종사하는 등, 현재의 미얀마 직업기술교육은 상위 레벨 학생들에게만 편향된 경향이 있음.

(2) 지역 정부 및 마을 리더들의 면담과 지역자료를 통해 도출된 지역 경제 및 고용노동 현황

- 약궤 리더(우띵 마웅인, 57)에 따르면 약궤 내 노동 인구의 약 70%가 일정한 일자리가 없는 일용직 노동자이며, 전체 약 2,000여 가구 중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가구 역시 7~80%에 이른다고 함. 청년들의 경우, 정규 교육 과정을 마친 인원이 70%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소수 여성만이 인근 봉제공장에 출근하고 있고, 대부분의 남성들은 폐품 수거, 건설 일용직 등을 전전하나 이 또한 매우 일정치 못하며, 최소 60% 이상이 실업 상태라고 하는 등 노동 인구의 잉여 현상이 매우 심각함.

(3) 코트라 및 주요기관 방문을 통해 도출된 한국 기업 현황

- 현재 미얀마에는 한인 기업들이 약 200여개 정도 진출하였으며, 그중 봉제 기업이 80여개로 가장 비율이 높음. 공장들은 주로 양곤 외곽에 위치하고 있음.
- KOTRA 미얀마의 협조로 10여개의 한인 봉제 기업들의 책임자 및 관리자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결과 정리는 봉제기업을 위주로 정리하였음.

인터뷰 질문	기업 인터뷰 결과 내용
기업의 인력 수요 (가장 인력 변동이 많고 숙련도가 필요한 부분)	· 미싱 파트가 인력 수요도 많으며 인력 이동도 매우 잦음. · 큐시(검수)는 숙련도가 많이 요구되는 부분임. 미싱 경력과 기술 숙련도에 따라 큐시로 채용함(급여가 높음).
직원 채용 시 필요 직업 능력	· 기술 능력 및 경험 · 직원들의 인성, 직업태도 및 직업윤리 · 한국어 구사 능력 또는 소프트웨어 사용 능력이 있을 경우 높은 임금으로 채용
인력 조달 방법	· 회사 공장 문에 공고문 부착(인터넷 등의 인프라가 전무하여, 채용 공고 및 홍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1차 채용 : 현지인 / 2차 채용 : 한국인 관리자
직원 이동 관련	· 미싱파트의 직원 이동이 가장 많은 이유는 급여 관련 처우 문제임. 타 기업에서 1,000 짯(825원)[11]만 올려 주어도 그만두고 이직을 함. 그러기 때문에 직원 자체도 직업에 대한 소명이나 태도가 중요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운영진들의 태도 역시 매우 중요하나, 일반 직원 및 관리 직원에 대한 교육 여건 조성이 쉽지 않음.

(4)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 FGI 및 설문 결과 분석

(Focus Group Interview) FGI는 기혼여성 그룹, 청년 남성 그룹, 청년 여성 그룹, 청소년 그룹 총 4그룹을 진행하였음. 수혜자 그룹 점검 및 선정 기준에 대한 조사, 구직관련 요구도 조사, 훈련프로그램 직종 선정에 대한 요구도 파악 등을 진행함.

참여자 그룹	FGI 내용
기혼여성 San San Aye 외 7인	· 기혼 여성들은 경제 활동에 대한 욕구는 있으나 가사 및 육아 문제로 인해 기업이나 공장 등에 취업하기가 어려움. · 남성들의 책임감 부재 만연으로, 마을 내 여성 가장 비율(37%) 매우 높음. · 만약 아이들을 돌보는데 지장이 없으면 경제 활동을 통해 소득 증대를 원함. · 공장에 취업을 하기 위한 시골에서의 인구 유입 높으나, 기술이 없어 취업이 쉽지 않고, 취업이 되어도 매우 낮은 임금을 받음. · 지역 남성들의 노동 현황 : 남성들은 정해진 일자리가 없으며 대부분 일용직으로 일함. 대다수의 남자들은 건축 현장에서 노동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 경우도 마을 내 건축 전문가가 일거리를 가져와야 함. 남성들의 정규 일자리로는 용접, 커피믹스 공장 또는 과자 공장 등으로 특정 기술이 있거나, 오랜 경력이 필요함.

11 1,000 짯(MMK) = 825 원(KRW), 2017-08-01 06:21 UTC 기준

청년 남성 |Naing Naing (16세) 외 6인	· 청년들의 과거 직업 또는 노동 경험 – 공사장 노동(모래 또는 돌 줍고 나르는 일, 4,000-5,000짯/일) – 양곤 시내 소규모 건축 작업장 (천정 공사, 10,000짯/일) – 천 염색: 부모님 가게 (염색일, 5,000짯/일) – 철 관련 보조 (5,000짯/일) – 어선 (생선 선별 작업, 한달 15만짯) · 대부분 일용직으로 하루 9시간 정도 노동으로 일 평균 5,000짯 정도 임금을 받음) · 학교에서 직업교육 받아 본 적 없음. 대학교 진학 위주의 수업 진행. · 배우고 싶은 기술로는 기계 수리 또는 운전면허 취득을 통한 택시 운전을 하고 싶어함. · 바리스타 및 제빵에 대한 관심도 : 새로운 기술에 대한 도전을 하고 싶어함.
청년 여성 Ma NyiNyi Lwin(18세) 외 6인	· 18세부터 취업 가능하나 시골지역에서는 부모 및 보호자 동의하에 17세부터 취업 가능. · 과거 직업 또는 노동 경험 – 농사일 및 집안일 – 빵 공장 팩킹라인 · 봉제 공장 취직을 위해 시골에서 69번 약궤로 옴 · 봉제공장 취직 시 바로 기술직으로 가려면 사전 교육이 필요함 · 배우고 싶은 기술 : 미용실, 메이크업, 봉제 등
청소년	· 꿈 또는 향후 직업에 대해서 고민 해본 적이 많이 없음 · 가족들 또는 주변에서 많이 하는 일이 본인의 꿈이라 생각함. · 학교 교육에서는 초·중·고등학교 진학 시험 패스와 대학 진학을 매우 중시하나, 최종 졸업 시험 합격률 및 대학 진학률 매우 낮음 · 졸업 후 희망 직업 : 엔지니어, 건축 기술사, 운전사, 공무원, 의사 등

(설문 진행 및 분석 결과)

- 학교 교사,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지역 외부인 6명을 선발
- 사전 워크숍을 통해 설문에 대한 이해와 실습, 짧은 Pilot Test 등을 진행 후 현장 투입
- 69약궤의 4개 행정 구역을 4일 동안 진행
- 설문 목표 수 : 청년 및 기혼여성 400명
- 응답자 수는 기혼여성 198명, 청년 여성 109명, 청년 남성 89명으로 응답률 99%이상
- 연령층 별 설문 응답자 수:

기혼 여성	청년 여성 (16세 이상)	청년 남성 (16세 이상)
· 10대-20대 : 41명 · 30대 : 65명 · 40대 : 58명 · 50대 이상 : 34명	· 10대 : 82명 · 20대 : 24명 · 30대 : 3명	· 10대 : 62명 · 20대 : 21명 · 30대 : 6명

① 주거 및 생활환경

세부내용	응답	비율	조사 내용
주거형태	자가	45.4%	· 설문 요청 시 무허가 주민들은 설문은 거부 하는 경우가 많았음. 지역 정부와 미팅 시 불법체류 가정이 2,100가구 중 700가정 정도로 전체의 35% 수준임을 알아냄.
	임대	28.2%	
	무허가	26.2%	
가족 등록 여부	등록	61.3%	· 정부에 미등록 된 가족 비율이 38.1%로 지역 정부가 공유한 불법체류 가정의 비율과 결과 값이 비슷함.
	미등록	38.1%	
전기 공급 여부	공급	47.9%	· 마을 가구의 50% 이상은 전기 미공급 상태
	미공급	52.1%	
물 공급	공급	99%	· 마을 전체가 지하수를 사용 하고 있음. 물 부족은 없으나 수질 관리는 전혀 되고 있지 않음.
	미공급	–	

② 가정 경제 현황

세부내용	응답	비율	조사 내용
지난 1개월 간, 16세 이상 가족 구성원의 경제 활동 참여 여부	참여	38.6%	· 16세 이상 가족 구성원의 경제 활동 참여율은 38.6%로 다소 낮고, 나머지 60%이상의 가정들이 1개월 간 소득이 없었음. 높은 실업률을 반영함.
	참여자 없음	61.3%	
가족의 평균 월 소득	10만짯 이하	21.0%	· 절반이 넘는 가정의 월 소득이 20만짯[12]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 하고 있음. 10만짯 이하 소득자도 21%로 높음.
	10-20만짯	39.1%	
	20-30만짯	26.2%	
	40만짯 이상	13.6%	
가족의 한 달 평균 지출	10만짯 이하	25.2%	· 소득 대비 지출 비율이 비슷함. 지역 내 5평 정도의 판자집 월 렌트비가 7만짯 정도임.
	10-20만짯	36.8%	
	20-30만짯	24.7%	
	30-40만짯	11.6%	
	50만짯 이상	0.1%	

12 1만 짯(MMK) = 8,250 원(KRW) 2017-08-01 06:21 UTC 기준

가족의 주 소득원	운전기사	10.0%	• 가족들의 주 소득원으로는 다양한 자영업이 32.2% 가장 높았으며, 그 외 월급직, 건축 관련, 운전기사 순으로 종사 하고 있음. 기타 비율이 26.2%로 기타 업종에 대한 분석도 필요해 보임.
	건축 관련	11.0%	
	월급	19.1%	
	자영업	32.3%	
	기타	26.2%	
기혼여성들이 과거 직업을 그만 둔 이유	일용직	2.5%	• FGI에서 나타난 기혼여성들의 노동단절 원인이 결혼과 육아라는 결과와 동일하게, 설문 결과에서도 건강상의 이유 외에 결혼과 육아 문제가 노동 단절의 주요 원인임을 보여 주고 있음.
	건강상	17.1%	
	거리	3.5%	
	비즈니스가 안되서	7.5%	
	결혼	16.6%	
	육아문제	15.1	

③ 지역 내 사업 요구도 및 직업훈련사업 참여도

세부내용	응답	비율	조사 내용
지역 내 사업 요구도	자녀 양육	10.1%	• 지역 내 사업 요구도 조사 결과, 문화 및 여가에 대한 배움 또는 활동 비율이 36.3%로 가장 높게 나왔음. 그 다음으로 직업훈련 및 구직 활동이 20.7%, 경제 활동 증가 16.1%로 직업 및 경제에 대한 부분 역시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임을 알 수 있음.
	문화 및 여가	36.3%	
	질병 예방 및 관리	15.1%	
	경제 활동 증가	16.1%	
	직업훈련 및 구직	20.7%	
직업훈련 받은 경험 여부	있음	8.8%	• 응답자의 90%이상이 직업훈련 경험 없음.
	없음	90.9%	
과거 직업훈련을 받지 못한 이유	거리상	4.2%	•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없는 이유로는 직업훈련정보 부재가 40.0%, 시간상의 이유가 30%로 나타남.
	시간 없음	30.0%	
	교육비	7.3%	
	원하는 훈련 과목 부재	2.5%	
	직훈 정보 부재	40.0%	
	기타	4.5%	

현재 희망하는 직업 교육	농업	-	• 희망 직업 교육으로는 기술파트가 69.9%로 매우 높으며, 현재 미얀마의 경제 및 산업 활동에 따른 선호도 높은 직종을 추론 할 수 있음.
	가축	5.5%	
	목공	-	
	언어	7.3%	
	기술	69.9%	
	컴퓨터	4.0%	
	기타	6.8%	
직업훈련 참여 여부	적극 참여	50.0%	• 직업훈련프로그램이 제공 된다며 참석여부에 대한 응답은 50%가 적극 참여 할 의향이 있으며, 31%의 사람들도 여건이 되면 참여 의사가 있다고 함.
	여건 되면	31.0%	
	별로	4.0%	

결론

66%에 달하는 69약궤 주민의 높은 실업률[13]은 크게 세 가지 위험요인으로부터 기인함.

(취약한 지역 경제 구조) 오랜 군부 독재로 인한 경직된 국가산업구조는, 2011년 첫 민선 정부 이후 많은 외국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심과 외곽, 지역과 지역 간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양곤 외곽지역에 많은 해외 기업 공장들이 들어서고 있고 그에 따른 인력수요는 많으나 기업이 원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인력은 많지 않음. 공장에 취업을 하더라도, 올바른 직업의식 부재 및 기술 부재로 인한 적은 임금을 이유로 이직 현상이 잦으며, 기업 역시 이러한 문제로 인력수급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음. 69약궤의 경우, 교육 및 경제 수준이 매우 낮아 직업 정보에 대한 접근성 또한 매우 낮았으며, 생활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용직을 전전하는 사이 고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놓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현상을 보임.

(불안정한 사회적 지위 및 남성들의 책임감 부재) 전통적으로 남성들의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높지 않고, 여성들이 경제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음. 69약궤 내 37%에 달하는 높은 여성 가장 비율은 이러한 현실을 잘 나타내고 있음. 하지만 여성들의 경우 결혼 후에는 가사와 육아에 대한 책임까지 지게 되어 정기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하기는 어려운 현실임. 마을 구성원들이 대부분 이주민이고, 특정 소유 재산 없이 일자리를 찾아 자주 이동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미등록 신분, 주거 불안정, 불완전가족 등의 불안정한 사회적 지위 또한 높은 실업률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추정됨.

13 지역 정부 및 지역 리더 인터뷰 조사 결과

(정규 교육 내 직업기술교육 부재) 독재 기간 우민화 정책으로 미얀마의 교육 수준은 현재 평균 이하로 측정되고 있음. 69약궤 인근 약궤에 소재한 중등학교 2곳의 교사들과의 면담에서 알아낸 바에 의하면, 미얀마의 모든 정규 교육은 고등교육(대학) 입학 자격이 주어지는 10학년 졸업시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사회 내 팽배한 권위주의 및 관료주의로 인해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과 국가기관으로의 취업을 매우 중시함. 학생들의 장래희망을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 역시 의사, 경찰 간부, 교사, 엔지니어 등이 있었으나, 20%가 채 안되는 대학 진학률을 고려하였을 때, 직업에 대한 목표와 현실과의 괴리는 매우 큼을 알 수 있음. 또한 직업기술교육은 특수한 직군에 속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 고등교육기관(전문대 이상)에서만 받을 수 있는 교육으로 알려져 있음.[14]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술을 배워야만 하고, 각종 기술을 교육하는 사립 학원들이 양곤 시내 소규모로 존재하나, 교육비용이 일반 노동자의 6개월 치 평균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열악한 경제 수준의 69약궤 주민들에게는 쉽게 시도하기 어려운 현황임.

3) 지역 내 타 기관 활동 현황

굿네이버스 미얀마가 69번 약궤 지역 내 활동 하고 있음. 69번 초등학교 건립 사업을 진행 하였으며, 현 카야 지부장이 자문으로 사전 조사에 참여함. 현재 지역 내 굿네이버스 사업은 비누공예, 영어, 여름방학, 병원비 지원 등이 있으며, 본 기관과는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협업하고 있음.

4) 이해관계자 정보 조사

방문기관	조사 결과
지역 교육기관 (중·고등학교)	· 교육 현황, 학교 내 직업에 관한 교육 제공 되지 않음. 주로 졸업과 대학교 입시 위주의 공부를 하고 있음.
타 직업훈련센터 (Yangon Bakery, 미혼모 대상 제빵 학원)	· 양곤 시내 미혼모들을 위한 제빵 학원 방문. · 직업훈련센터 운영 및 교육방법, 인턴십 등에 대한 정보 수집. · 학원 외 사회적 기업 형태의 카페를 운영하고 있음. 학원에서의 교육이 끝나면 훈련생들은 카페에서 인턴십을 진행하며 향후 취업으로도 연계 하고 있음. · 카페 운영으로 나오는 이익금은 다시 학원으로 투자 되어 또 다른 수혜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함.
미얀마 내 한국 기업	· 본 사업을 위한 MOU 체결 기업은 다음과 같음. – 봉제 : Bright Juan – 가발 : Star Hair – 바리스타 및 제빵 : World Training Center(WTC) ·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센터 사업을 위해 협업 방안 논의함. – 기업 대표들은 직접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며, 기업 내 채용되어 있는 강사 제공, 커리큘럼 개발 참여, 훈련생 우선 고용 – 직업훈련센터는 숙련 기술 뿐 아니라 직업 기초능력 및 직업윤리, 한국어 등의 교육을 진행하여 기업이 원하는 직무 능력 및 태도를 겸비 할 수 있도록 함.
지역 정부 및 마을 리더	· 직업훈련센터사업 형성에 대한 목적 및 사업세부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눔. · 사업에 필요한 지역 자료 및 정보 수집 함. · 수혜자그룹 선정 관련 의견을 나눔. · 기타 관련 네트워크 형성
미얀마 KOICA	· 본 사업에 대한 타당성 논의, 사전조사결과에 대한 feedback

5) 범분야 이슈 조사

- (젠더에 대한 고려) 본 사업은 성평등 증진이 사업 목표는 아니나, 사업대상지역의 남녀 성비, 가정 경제 구조, 이로 인한 직업훈련 선정 직종 등의 현황에 따라, 여성 수혜자가 70% 이상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성주류화된 접근 및 해당 지역 여성의 역량강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분류 될 수 있음.
- (환경에 대한 고려) 본 사업을 통해 예상되는 환경에 대한 영향 없음.

04 변화의 영역

가. 주목 분야

- (인력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현상) 69약궤 인근에 많은 해외 기업 및 공장들이 존재하고, 기업 설문 결과 인력에 대한 수요는 끊임없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9약궤 지역의 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이들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진 숙련된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임.
- (취업과 직접 연계된 직업훈련 필요) 직업훈련은 취업 및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14 미얀마의 직업기술교육훈련은 현재 주로 고등교육기관(대학/전문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음. 농업에 중점을 둔 국립기술고등학교(GTHS)가 36개소 2,000여 명의 학생을 교육하고 있지만, 국립기술전문대학(GTI), 기술대학교(TU) 78,000여 명의 학생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만 혜택을 받고 있고, 기술교육 분야 및 내용 또한 매우 협소함.

때문에 단순히 기술 자체를 배우기 위한 직업훈련이 아닌,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 맞춤형 기술을 훈련시키는 것이 경쟁력에 있어 매우 중요함. 특히 미얀마와 같이 국가 차원에서의 직업훈련 서비스 체제가 갖추어져 있지 못하고, 인력들의 수요와 공급의 흐름이 원활치 못한 곳에서의 직업훈련은 그저 훈련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음. 이는 직업훈련 자체가 기업들과 연계되어 시작되고 기업들과 함께 운영되어야 하는 이유지만, 미얀마에는 아직까지 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직업훈련을 시행하는 케이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현지의 수요 및 상황

위와 같은 이유로 발생하고 있는 69약궤의 높은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변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지역 내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센터를 운영함.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기업이 원하는 기술 훈련을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력을 공급할 수 있음.

-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 개발 및 제공) 파트너 기업과 win-win 협업 전략을 통해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센터를 운영함. 기업이 커리큘럼 및 교재 개발에 참여하고, 직접 강사들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며, 양성된 훈련생들은 파트너 기업들이 우선 고용함. 또한 기술교육과 함께 직업기초교육(Generic Skill), 직업윤리,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여 올바른 직업의식과 태도를 갖춘 인력을 양성함. 현재 가장 기업의 수요가 많은 봉제, 가발, 바리스타, 제빵 4개 직종의 과정을 운영함.

다. 사업대상 분야(Target Area)의 지표 및 기초선

목적	산출 시기	지표	기준치 (Baseline)	목표치 (Target)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 방법
1. 기업수요에 부합한 맞춤형 숙련기능 인력 양성	매 훈련 기수별	1. 훈련생 등록자 수, 등록률 2. 훈련생 졸업자 수, 졸업률 3. MOU 체결 기업을 통해 취업한 훈련생 수 4. 취업인력에 대한 기업 만족도	0	1. 80% 2. 70% 3. 80% 4. 80%	1. 사업계획 2. 사업계획 3. 사전조사 결과 4. 기업의 기존 인력에 대한 만족도 점수	1. 센터 훈련생 등록 현황 자료 2. 센터 졸업생 현황 자료 3. 졸업생 추적 조사 및 센터 모니터링 자료 4. 파트너 기업 설문조사 및 인터뷰

라. 단체의 특성과의 연계

본 단체는 사업대상지역에서 2009년부터 빈민지역 미취학 아동을 위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음. 해당 지역에 대한 10여 년간의 정보 및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 및 인근으로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음. 학교[15], 의료 시설 등 기본 인프라가 전무한 지역에서 유일하게 오랜 기간 마을 주민들을 위한 기관을 운영하고 있어 본 기관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신뢰는 상당한 수준이며, 본 사업의 수혜 대상자 절반이 기혼여성임을 고려할 때, 현재 유치원은 이들의 직업훈련 시 어린 자녀들을 위한 Day-Care 센터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또한 직업훈련센터를 위한 부지 및 건물 등의 지역 정부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유치원이 보유하고 잇는 건물의 간단한 개보수를 통해 사업부지 및 훈련 장소를 제공할 수 있음.

05 자료 출처

- The World Fact Book(2016), CIA
- KOICA(2015), 미얀마 기술교사 양성센터 설립 지원 사업 실시협의 결과보고서, 한국국제협력단
- 문상원(2015), KOICA 사업사례에서 본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직업교육훈련 사업 추진 방안,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한국국제협력단
- 유성상, 장은정(2015), 효과적인 SDGs 이행을 위한 KOICA 중장기 전략 수립 논의,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한국국제협력단
- The 2014 Myanmar Population and Housing Ceusus(2015), Department of Popualtion, Ministry of Immigration and Population
- 미얀마 국가 신용도 평가 리포트(2014),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Human Development Report(2014), UNDP
- 아시아 국가별 환경사업 분석서(2014), 환경재단
- 김성규(2013), 개도국 청년고용정책과 ODA : '노동시장 연계형' 직업교육훈련 시스템 형성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국제협력단 ODA 연구팀
- 미얀마 경제 특별보고서(2012), ADB

15 2014년 굿네이버스의 '지구촌 희망학교 사업'으로 69약궤 외곽에 초등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나, 사업기간 종료 후 약속됐던 정부 지원이 매우 열악하여 운영난을 겪고 있으며, 교사 및 수업 내용의 질이 저하되고 있어 마을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음

- KOICA(2010), 미얀마 자동차정비 기술훈련원 지원사업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 한국국제협력단
- Integrated Household Living Conditions Assessment(2010), UNDP

06 기타 활동 자료 (사진 등)

01 기혼여성 FGI
02 청년 남성 FGI
03 청년 여성 FGI
04 주민 400명 설문을 위한 설문조사 요원 훈련
05 설문요원/마을리더
06 설문 진행

향후 계획

본 직업훈련사업은 이러한 미얀마의 국가개발정책, 공여국인 대한민국의 국가협력전략 및 KOICA의 중점사업과 그 방향을 같이 하며, 보통의 개발과정의 1차 수혜 대상에서 배제되었던 이들을 주 수혜자로 하고 있어, 국가 주도의 직업기술교육훈련에서 나타나던 공백을 채울 수 있음. 또한 단순한 직업교육훈련이 아닌 현지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노동시장 연계형 직업교육훈련 모델을 제안함으로써 그간 개도국의 직업교육훈련 분야에서 많이 언급되었던 '교육'과 '경제', '수요'와 '공급'의 미스 매칭이라는 일반적인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될 수 있음.

PART 09

[교육] 하나를위한음악재단

시행일자	2017년 4월 24일 ~ 6월 23일(목) (총 60일)
지역	미얀마 양곤

2017년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지역조사(사업형성조사) 결과보고서

기본정보				
단체명	(사)하나를위한음악재단	**작성자**	양 동 권	
단체현황	현지 지부		☐ 있음	☑ 없음
	NGO 등록		☐ 있음	☑ 없음
	KOICA 협력사업 수행 경험 유무		☑ 있음	☐ 없음
사업 분야	문화예술교육	**코드번호**	11420	
조사 목적	미얀마 양곤 지역에 위치한 문화예술기관과 대학 및 초중등(primary or secondary school)학교를 대상으로 “문화예술영역의 개발협력사업을 통한 양질의 예술교육 접근성 증진”을 목표(Goal)로 설정하며, “음악교육확대, 전문 음악교사 양성과 커뮤니티 음악회 지원 및 개발”을 목적(Purpose)으로 한다.			
대상 국가 및 지역	**국 가**	미얀마	**지 역**	양곤
	양곤은 미얀마의 가장 큰 도시이자 옛 수도. 양곤 공항에서 차량으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음악 교육 센터 Gitameit를 중심으로 지역조사 예정 Gitameit Music Center 주소: Karyathuka Lane,Kanbe Station Street, Thitsar Road,Yankin Township, Yangon			
조사기간	**전체 조사 기간**	2017년 4월 24일 ~ 6월 23일(목) (총 60일)		
	현지 체류기간	6월 11일 ~ 6월 22 (총 12일)		

조사 목적

chapter 01

가. 미얀마 양곤 지역에 위치한 문화예술기관과 대학 및 초중등(primary or secondary school)학교를 대상으로 “문화예술영역의 개발협력사업을 통한 양질의 예술교육 접근성 증진”을 목표(Goal)로 설정하며, “음악교육확대, 전문 음악교사 양성과 커뮤니티 음악회 지원 및 개발”을 목적(Purpose)으로 한다.

나. KOICA의 민관협력 보조금 지원사업 준비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내용의 설정 적합 여부를 조사하고자 한다.

1) 초중등음악교육 매뉴얼 개발, 음악 대학교 학생 역량 강화 그리고 음악회 개최 등의 활동을 진행
2) 한국의 전문예술교육자 파견, 현지강사대상 교수법 교육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3) 문화 ODA와 문화예술을 통한 개발협력 사업 수행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
4) 현지 사업수행간 필요한 음악교육시스템과 다양한 교육소스를 제공하고 교육

=> 현지 초중등교육 시스템에 아직 체계화 되어 있지 않은 음악교육 교재 개발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분석과 악보화 및 성문화 작업을 진행

다. 이러한 필요성을 모두 충족시키고 선순환구조를 이루어 그로 인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고안이 필요하다. 전문 음악강사를 파견하여 최고교육기관에서의 전문인 양성과 문화산업 기반 조성, 초등교육의 동기 부여, 커뮤니티 내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이를 통해 지역문화예술을 산업과 연계하는

01 문화예술영역의 개발협력 사업 필요성 및 근거

가. 국제사회에서의 문화관련 정책 흐름

1) 유네스코는 2001년 파리에서 열린 총회에서 “세계문화다양성 선언”의 채택을 통해 각 회원국가들의 문화정책에 큰 방향성을 제시(UNESCO 2001)
   - 큰 틀에서 국가들의 문화정책 방향성을 제시
   - 문화 다원주의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실천하는 의미에서 문화가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어야 한다고 여김
2) 유네스코는 2005년 총회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채택을 통해 문화가 인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새로운 국제개발 패러다임으로서 문화와 인권의 필요성을 강조(UNESCO 2005)
3) 2013년 항저우에서 ‘문화: 지속가능발전의 열쇠’국제회의 개최를 통해 Post-2015 지속가능발전 의제에서의 문화’, ‘평화와 화해: 어떻게 문화가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빈곤의 문화적 접근,’‘환경적 지속가능성의 촉매로써의 문화,’‘지속가능발전 논쟁과 문화유산,’‘지속가능발전에의 창의성,’‘지속 가능한 도시화를 위한 문화의 기여,’‘문화 분야의 민관협력’등이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항저우 선언문을 채택(UNESCO 2013)
4) 2015년 UN 총회에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채택을 통해 문화의 중요성 평가(UNESCO 2015)
   - SDGs의 목표인 양질의 교육,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환경, 경제 성장,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평화와 성평등(gender equality) 등의 사안들은 문화를 배제하고는 결코 이룰 수 없음
   - 문화는 빈곤퇴치와 경제발전에 활용될 수 있는 자본이자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기후 변화 대처에도 적용할 수 있는 도구로 주목
5) 유네스코는 Myanmar Unesco Country Programming Document 2013-2015에서 미얀마 문화부와의 협력을 통해 미얀마의 유형/무형 문화 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당시 세계문화유산에 등록 문화유산이 전무한 상황에서 국제기구들과 정부의 노력으로 2014년 피우 왕조의 고대

나. 미얀마의 문화관련 정책 흐름

1) 대부분의 미얀마 학교들은 교육부 산하로 운영되는 공립기관들이지만 매해 교육에 할당되는 예산은 전체의 약 1.2%로 매우 적은 편이다.[02] 미얀마 공교육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음악을 비롯한 예술 교육은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반적인 체계가 매우 미흡한 상황
2) 현지 청소년층 및 젊은층의 문화예술 접근 요구가 상승하는 추세이며, 정보통신의 발달로 미디어에 대한 접근성과 관심 및 관련분야 종사에의 욕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공교육의 기본체계 부재의 상태는 향후 자체 문화예술 발전의 한계와 상업중심에 치중되는 사회적 문제를 가져 옴
3) 공공교육에서의 음악교육 부재로 인해 일부 상위계층만이 문화를 향유하는 문화적 양극화 현상이 일어남에 따라 문화의 불평등한 보급에 따라 보편적 문화 활동 지원이 필요
4) 문화예술교육에 특화된 고등학교가 미얀마 문화부 소속에 존재하나 그 수가 지극히 제한적이고 (전국 4 곳), 국립 문화예술 대학교도 전국을 통틀어 양곤과 만다레이에 각각 1곳이 있을 뿐임(Ministry of Culture)
5) 문화예술은 각 나라, 지역, 민족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산물이며 그 활동은 개인 및 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상호간의 소통과 이해를 시키는 중요한 매개체이며, 가난과 재난지역의 외상 후 스트레스(정신적 트라우마) 심각성에 대해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치료/복구 필요

다. 미얀마 음악교육에 관한 현황 및 수요

1) 문화예술교육관련해서 현지학교나 기관내에는 전문인력 부족하기 때문에 NGO나 외국 자원봉사자들이 현지교육기간의 음악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전문 교육인력인 경우 선진국으로부터 온 단기자원 봉사자가 다수임. 음악교육인

01 자세한 내용은 유네스코 Centre, U. W. http://whc.unesco.org/en/statesparties/MM/, 검색일 2017년 5월 27일

02 자세한 내용은 위키피디아 Education in Myanmar, https://en.wikipedia.org/wiki/Education_in_Myanmar 검색일 2017년 5월 27일

경우 강사경험 위주의 교수법 방식으로 진행됨으로 강사가 교체될 시에 지속가능한 음악교육체계가 어려운 상황임

- 음악교육의 특성상 강사 경험위주의 교수법은 자신의 연주 및 교육경험을 토대로 강의하기 때문에 강사가 교체될 시 다시 새로운 교육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현실임

2) 현지 학교, 기관내 악기 및 악보부족, 전문 음악교육 교실 및 시청각실 등 부재하며, 예술전문 고등교육기관인 국립예술대학교(National University of Culture and Art)에도 무대운영, 음반 프로듀싱, 문화예술 산업화 개발 등 예술기획 및 경영 교육체계가 전무한 상황임. 이는 공공교육의 문화예술 분야의 부재 및 관련 업종의 한계로 전공생들의 취업으로의 연계가 제한적임

조사 결과

01 일정별 조사 활동

기 간		활동 내역 약술	조사 팀원
국내	2017.4.24. ~ 6.10	▪ **문헌조사 시행** – 국가 일반정보 – 문화예술관련 교육기관 및 교육현황 – 문화예술과 교육 컨텐츠 산업 현황	▪ **국내** – 프로젝트 매니저: 양동권 (사무국장) – 전략기획 : 임미정(대표) – 연구조사원: 조민정, 곽동진 – 운영지원: 김은진 ▪ **현지** – 현지조사팀: Moe Nying, Zany Zin Thuzar – 코디네이터/통역: Naw Khin Myat Mon
현지	2017.6.11.~ 6.22.	▪ **개별인터뷰 / Focus Group Interview(FGI) / 설문조사/ 간담회 시행** – 국공립/사립/NGO 형태의 문화예술관련 교육기관 및 교육현황 – 문화예술과 교육 컨텐츠 산업 현황 – 코이카 현지 사무소, 국립예술대학·고등학교 교장/학장/학생, 문화예술관련 사립과 NGO 기관장/활동가/학생/학부모 등의 이해관계자 조사 – 교육 예상지역내 교사, 대학생, 학부모 및 예술가 등을 대상으로 음악교육필요성 인식도 조사	

02 조사 항목 및 방법

	조사 항목	조사 방법	조사 기간
1	문헌자료	간접조사: 도서, 인터넷 검색	5월1주~4주
2	현지지역 정보	간접조사: 도서, 인터넷 검색	
3	현지지역 문화예술 기관	간접조사: 인터넷 검색 직접조사: 방문, 면담, 인터뷰	6월 1주
4	사업지역 학교	직접조사: 방문, 면담, 인터뷰	6월 2주 ~ 3주
5	사업지역 학부모 및 주민	직접조사: 설문조사	

03 조사결과 분석

가. 문화예술교육기관의 음악교육 현황

1) 미얀마의 학제[03]

- 유치원부터 중등교육은 초등교육청에서 관할
- 유치원: 미취학 아동 대상 만 5세 이상
- 초등교육: 의무교육, 5년제, 기본 과목 승급 시험을 봐야 한다.
- 중등교육: 6-9학년이 중학교, 9-10학년이 고등학교이다.
- 기초교육 8학년 시험을 통과해야 고등학교로 진급할 수 있다.
- 10학년 마지막에는 기초교육 10학년 시험을 통과해야 증서를 받는다. 졸업 시험을 통과하면 학위 A나 학위B를 받게 된다. A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대학 입학 자격이 주어진다.
- 고등학교 학생은 입학 시 2개의 트랙을 고르게 되는데 과학이나 예술 중 택일. 모든 고등학생은 미얀마어, 영어, 수학을 필수로 공부하지만 과학을 선택한 학생의 경우 화학, 물리, 생물학이 추가되고 예술을 고른 학생은 지리학, 역사, 경제를 공부해야 함. 어떤 과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학교의 분야와 시험 과목이 달라짐
- 국공립학교 기준 학기 기간은 다음과 같음
  - 초,중,고의 학기는 매년 6월 1일에 시작하고 2월 말(9개월)에 마침, 방학은 3월부터 5월말(2개월)까지임
  - 대학교의 1학기는 12월에서 3월(4개월 과정), 방학은 4~5월(2개월), 2학기는 6월에서 9월 (4개월과정), 방학은 10월~11월(2개월)임

03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미얀마의_교육 검색일: 2017년 6월 3일

2) 협력 예상 기관별 개요 및 특징

연번	기관명	구분	기관특징
1	ThanLwin School	사립 학교	-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운영 - 교육은 정부의 공교육 커리큘럼을 따르고 있음 - 전통음악 중심의 음악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 방과 후 교육과 같은 방식으로 재능있는 학생들에게 악기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나 음악교사의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제공하지 못함.
2	Lumbini Academy	사립 학교	-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운영 - 자체 커리큘럼을 적용하고 있음 - 600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2명의 음악교사가 재직 중임 - 정규교과 과정에 서양식 음악교육을 주 1회 포함하고 있음
3	International Language and Business Center (ILBC)	사립 학교	-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운영 - 미얀마에서 가장 큰 사립학교로 미얀마 전역에 걸쳐 24개의 캠퍼스를 보유하고 있는 사립학교 - 양곤지역에 8개의 캠퍼스를 보유하고 있음 - 전체 학생수가 약 1만명 정도 됨 - 전체 교사는 1700명 정도 이며 그 중에서 음악교사는 50명이라고 함 - 영국과 싱가폴의 교육과정을 참조하여 자체적인 커리큘럼을 활용하고 있음. - 주 1시간의 정규 음악교육과정을 포함하고 있음
4	Pantra School	국립 학교/ 고등	- 양곤 내에 위치한 유일의 전통음악 고등학교 - 학교 내에 전통음악/전통회화/전통조소 등의 3개의 분과가 있음. - 음악 분과의 경우 다시 전통피아노/전통무용/전통악기/전통가창의 전공이 존재 - 음악분과의 경우 학생수는 90명 정도, 교사는 13명이 재직 중 - 학생들은 졸업 후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않고 정부산하 음악기관이나 독립 예술가로 활동 - 국립학교로써 전액 학비가 무료이며, 학생들은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음 - 인터뷰를 했던 6명의 학생들 모두 부모 중 한명이 전통음악을 하는 음악가 였음. 교사와의 인터뷰에서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통음악을 하는 가정에서 왔다고 함.

3) 개별 심층면접 결과

연번	신분/직책	연령	성별	태도	주요내용
1	사립학교/교장	50대	남	- 유창한 영어구사 - 방문목적에 대해 설명하자 인터뷰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임 - 학교 및 교육환경에 대한 자부심이 강함	- 근래에 설립된 사립학교로 정부의 커리큘럼을 따르고 있음 - 상당한 수준의 시설을 갖춘 사립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설립자의 설립의도에 따라 무료에 가까운 학비를 받고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함 - 주 1 시간 정규 음악수업을 포함하고 있지만 주로 미얀마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한 음악교육을 실시 - 서양음악 교육을 실시하고 싶지만 음악교육 필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과 적정한 음악교사의 구인의 어려움을 언급
2	공립학교/교사	50대	남	- 영어를 거의 하지 못함 - 현직 전통음악 음악가이자, 부장교사 - 인터뷰에 상당히 적극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관련된 언급이나 확정적 언어를 구사하는 것을 회피함	- 자신이 최종 결정자가 아님을 강조하면서 외부지원이나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위해서는 상부 정부기관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열악한 학교의 시설 및 교육환경에 대한 투자 필요성 및 외부지원의 필요성을 언급 - 음악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만, 전통음악 교사의 관점에서 그 필요성을 인지할 뿐, 일반 학교에서의 정규 음악교육의 필요성 및 활용방안에 대한 인식은 부족 - 학교 교육시설의 개선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음.
3	사립학교/교장	50대	남	- 영어를 제한적으로 아용함 - 인터뷰 초기에 인터뷰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였으나 인터뷰가 진행되면서 자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경우에 따라 역으로 질문을 던지는 경우도 있었음 - 외부기관과의 협력에 대해 상당히 적극적임	- 정규음악교육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있음. - 음악교육인 전인교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지만, 지식교육에 치중되어 있는 미얀마의 인식부재 속에서 음악교육이 제한되고 있다고 평가함. - 음악은 단순히 음악을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음악을 통해 학생들이 합창대회와 같은 외부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과 교류하고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함 - 교장은 학생들의 학교에 대해 보통 수준으로 만족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실제 이 학교의 학생들은 교장의 인식과 달리 상당히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학교가 슬럼가에 위치하고 있는 열악한 사립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수업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인식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임) - 음악교사를 고용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교사를 더 고용할 수 없는 재정상황 때문에 현재에도 음악수업을 외부의 지원으로 파견된 파트타임 강사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함.

4	오케스트라/단원	45	여	- 오케스트라 단원이자 임시 지휘자 - 바이올린 연주자 -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의식해서 발언에서 상당히 조심하였음	- 전문 음악시장에 대해 여전히 전통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서양음악을 전공한 사람보다 전문 직업을 갖기가 더 쉽다고 말함 - 서양 음악을 향유하는 상위계층이 있지만 수요가 상당히 적어서 서양 음악에 대한 지원이나 개발이 부족하다고 평가 - 현재 미얀마 국립 오케스트라의 경우에는 일본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함. 악기 및 지도를 일본의 Japan Foundation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부분 개선하고 있다고 함. - 일본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오케스트라의 수준이 낮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 - 공무원 신분으로 정규 일과시간에서는 다른 외부활동이 제한적이라고 함. - 단원들이 개인 레슨이나 협연을 하기도 하지만 일과 시간 이후에 가능
5	사립학교/교장	48	여	- 영어를 상당히 구사함 - 정규 음악수업을 제공하는 학교 교장으로 음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임. - 인터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임	- 전인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음악교육이 필요하지만 미얀마에서 현실적으로 음악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있는 것은 낮은 음악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적절한 음악교사의 부재를 꼽고 있음 - 실제로 자신의 학교에 음악교사를 고용하고 싶지만 생각보다 음악을 교육할 수 있는 교사가 적어서 음악교사 고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표출 - 본인의 학교가 음악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커리큘럼이 아니라 영국과 미국의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만든 자체적인 커리큘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음악교육을 정규 교과과정에 편성하고 있다고 말함. 이와 더불어 공립학교에서 음악교육을 제공하는 학교가 거의 전무할 정도로 없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6	사립학교/학생	15	남	- 영어를 유창하고 구사 - 인터뷰에 자발적이지 않음.	-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된 음악수업에 내용에 대해 기초적인 음악이론과 노래 배우기 등을 소개하고 있음 - 음악 수업이 재미는 있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음악 수업을 듣는 것이 부담된다고 함.
7	사립학교/교장	60	남	- 상당한 영어를 구사 - 인터뷰에 적극적임. 질문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섞어 이야기하며 답변함 - 자신의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강함	- 미얀마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과정보다는 결과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 자신의 학교가 음악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러한 배경에는 정부의 커리큘럼이 아닌 자체적인 커리큘럼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함 - 음악교사를 고용하는 쉽지 않다고 말함

8	사립학교/ 교사	32	남	- 영어를 완벽히 구사 - 음악을 전공한 음악교사로 음악교육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 중이며, 음악 부장교사로 재직 - 인터뷰에 적극적임	- 자신들의 음악교사를 채용할 때 음악교사가 부족해서, 다른 교과목에서 교사를 채용하는 경우 음악을 전공하거나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응시자가 있으면 자기 부서에 연락을 해 줄 정도로 음악 교사를 찾기가 어려움. - 미얀마의 음악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실제로 음악교육에 대한 교육과정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음악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노력이 부족하고 현실적인 여건도 좋지 않다고 평가함. 음악교육에 대한 낮은 인식, 부족한 교사, 정부의 예산 부족 등이 총체적으로 음악교육이 정규 교육으로 편성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 - 자격을 갖춘 음악교사의 양성이 사립과 공립의 구분없이 가장 절실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말함
9	사립학교/ 교사	35	남	- 영어교사로 영어를 상당히 구사함 - 짧은 답변이기는 하지만 인터뷰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로 참여	- 미얀마의 교육환경 전반에 대해 열악함을 강조. 부족한 시설, 낮은 교사 임금, 부족한 커리큘럼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함. - 음악교사가 아니지만, 음악교육이 전인교육의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으며, 음악교육이 다른 교과과목의 수업과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하지만 현실적으로 음악교육의 낮은 우선 순위로 인해서 음악교육이 미얀마에서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적 -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음악교육은 합창대회의 참여 등과 활동을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음악교육이 가지는 효과가 더 크다고 봄.
10	사립학교/ 교사	28	여	- 영어로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음 - 피아노 전공자이자 현재는 사립학교에서 음악교사로 일하고 있음 - 인터뷰에 적극적임	- 음악도 하나의 언어로써 누구나 쉽게 배우고 소통할 수 있는 언어라는 점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음 - 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지만, 전문적으로 음악교육의 방법론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수업을 하는 동안 많은 부족함을 느낀다고 말함. - 일부 사립학교에서 음악교육을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공립학교에서는 음악교육을 정규교과로 제공하지 않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 현재 음악교육과 관련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이라고 평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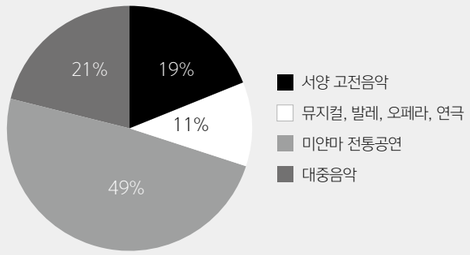
11	NGO 활동가	28	여	-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 - 대학에서 석사까지 플룻을 전공한 음악가로 NGO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음악교육을 하고 있음 - 인터뷰에 적극적이며 자신의 의견을 조리있게 잘 설명함. 모르는 질문에 대해서는 반문하며 인터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임	- 현재 초/중/고에서 음악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평가함 - 특히 이러한 문제의 근본은 정규교과로서 음악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음악교사가 부족하기 때문 - 예술 관련 NGO에서 활동하면서 다양한 해외의 개별협력 사업 및 주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문제점으로 전혀 현지를 고려하지 않고 외부인의 시선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말하고 있음. 따라서 해외 개발협력 주체가 현지의 문제점을 우선으로 접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
12	NGO 활동가	32	여	- 음악을 전공하고 음악관련 NGO에서 활동하는 음악가 -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응함. 자신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표명함	- 현재 사립학교에서 정규 음악수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학교에서도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함. - 현재 미얀마 교육대학에서 음악교육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음악교사의 수요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부족하다고 함. 이로 인해 음악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악교육이 잘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함.
13	국립예술 대학교 교수	38	여	- 일본에서 음악연주학 박사 학위를 받은 국립예술대학교 교수 - 영어를 유창하게 하며 현재 JICA와 음악교재 개발을 담당하고 있음 -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응하며, 하나를 위한음악재단의 협력의사에 호의적임	- JICA의 지원을 받은 미얀마 정부는 2014년부터 미얀마 공립 초등학교 커리큘럼을 개발 및 재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음악과 예술(Music and Art) ”과목 교재 또한 개발 함. “음악과 예술”교재는 2017. 6월 1일부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점차적으로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진행할 수 있는 교사가 없으므로 Yangon Institute of Education을 통해 교사양성 프로그램을 모색 중 - 하지만 새로 편성된 교재가 실전 교육에 있어 여러 기술적인 문제와 교육을 시킬 교사양성에 대한 예산이 없음에 따라 본 사업 담당자는 하나를위한음악재단과 해결점을 모색하자고 요청 함

4) 집단 심층면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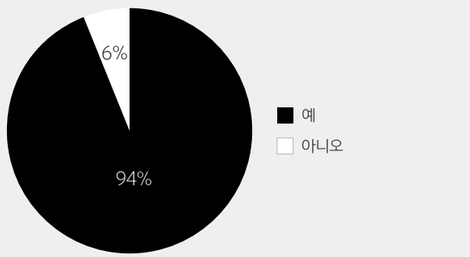
연번	구분	인원	구성	특징	주요내용
1	사립학교/학생	8	여 (12) 여 (13) 여 (12) 여 (13) 여 (13) 남 (14) 남 (12) 남 (10) 남 (15)	- 현재 재학 중이 초등/중등 학교 학생이 참여 - 서로 다른 학년 및 학급에서 1~2명의 학생을 참여시켰음 - 영어가 미숙하여 영어로 질문하여 현지 통역을 통해 인터뷰를 실시	- 교과과정 중에서 음악 수업을 가장 좋아하는 수업으로 선택 - 슬럼가에 위치한 사립학교이지만 다른 사립학교와 다르게 학비가 무료이고, 공립에 비해 좋은 질의 수업을 제공하기 때문에서 인지 재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학생들의 학교와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악한 학교시설, 교보재 등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 - 가장 선호하는 수업에 대한 질문에 대해 대다수 (6명) 학생이 음악수업을 좋아하는 수업으로 선택 - 왜 음악수업을 좋아하냐는 질문에 “수업이 재미있다”"음악이 좋다“와 같은 답변을 주로 하였음.
2	사립학교/교사	3	남 (35) 남 (41) 여 (33)	- 음악교사 (남, 35)를 포함하여 다른 교과의 선생이 인터뷰에 참여 - 영어가 미숙하여 영어로 질문하여 현지 통역을 통해 인터뷰를 실시	- 음악수업이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점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학생들이 음악을 통해 여러 학생들과 소통하고 공유하는 것을 배우며 음악수업이 다른 수업과 달리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 다른 수업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함 - 음악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음악교육을 제공할 수 없는 현실 (부족한 예산, 교사, 시설) 때문에 음악을 가르치지만 한계가 있음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음. - 대부분의 공립학교, 다수의 사립학교가 여전히 음악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에도, 자신들의 학교에서 음악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다른 교과과목 교사의 경우에도 음악교육이 자신들의 수업의 분위기나 집중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을 말함.
3	공립학교/학생	6	남 (19) 남 (19) 여 (19) 여 (18) 여 (17) 여 (19)	- 전통예술고등학교 학생들로 각각의 전공 및 학년의 학생을 면접대상으로 선정 - 인터뷰시 교사가 배석하였음.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인터뷰에 대한 답변이 전반적으로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있었음. - 영어가 미숙하여 영어로 질문하여 현지 통역을 통해 인터뷰를 실시	- 전통음악학교의 학생들로 한명의 학생을 제외하고는 5명의 학생의 부모 중 한명 이상이 전통음악가 였음. - 국가의 지원을 받는 국립전통예술 고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낙후된 시설을 가지고 있었음. 학생들의 대부분이 학교 시설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 - 모든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 하기보다는 바로 정부기관의 전통오케스트라와 같은 정부쪽 직업을 선호함. - 모든 학생이 일반적인 음악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으며, 전통음악에 대한 이해만 가지고 있음. - 수업은 선생님에 의한 직접적 사사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재나 악보와 같은 것을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고 함..
4	공립대학/학생	10	여 (19) 여 (22) 여 (21) 여 (19) 남 (19) 여 (19) 여 (18) 남 (20) 남 (22) 남 (22)	- 예술대학 내 음악대학을 방문하여 학생들과 인터뷰. - 모두 재학 중인 학생들로, 바이올린 등 현악기를 전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 교수나 조교가 참석하지 않고 학생만 참석하여 인터뷰를 진행 - 일부학생은 영어로 소통이 가능하나 대부분이 영어가 미숙하여 현지 통역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	- 대다수의 학생이 음악대학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학으로 오기 전까지 바이올린을 배워본 적이 없음 - 인터뷰에 응한 모든 학생이 공립학교 출신으로 고등학교 때까지 정규 음악수업을 받아 본 적이 없음. 모두가 단지 전통음악에 대한 내용을 다른 교과 수업 시간에 부분적으로 배워 본 것이 전부라고 답함. - 모든 학생이 국립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는 것이 목표이지만, 오케스트라 단원이 못될 경우 음악가나 음악에 관련된 일을 하기 보다는 일반회사에 취직하고 싶어 함. - 다수의 학생들이 음악대학의 학생으로서 졸업 이후의 직업에 대해 상당한 고민과 걱정을 가지고 있음 - 대학을 와서 악기를 배우기 시작한 학생들이 대부분이 때문에 학생들의 악기를 연주한 기간이 3~5년 정도 밖에 되지 않음. - 바라는 직업 (오케스트라 단원)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음악교사로 활동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음악교사가 되는 것보다는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아 음악교사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며, 자신의 경험에 기초했을 때 음악교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직업인지 모르고 있음 - 졸업 후 기대 월급에 대한 첫 시작점을 150~200달러 정도로 답변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공무원의 초봉 수준에 해당함 - 수업이 주로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것보다 (미얀마 전통음악의 전수 방법처럼) 악보보다는 청음을 통한 교수법에 더 익숙함

5) 문화예술에 대한 주민의 인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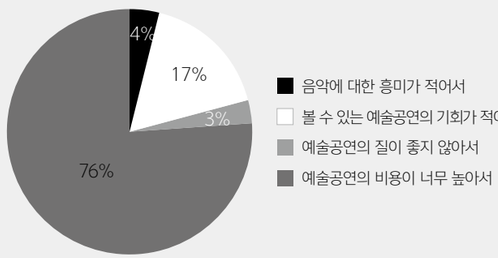
- 일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교사,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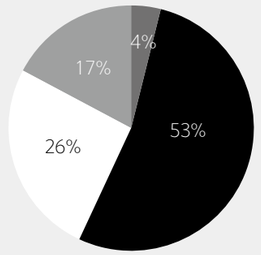
"예술공연"에 대한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절반에 가까운 49%의응답자가 미얀마 전통공연이라고 답함. 전통예술에 대한 접근성이 여전히 높으며, 한편으로 현대예술 및 대중문화의 전근성이 낮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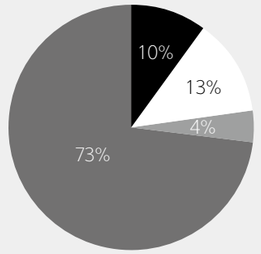
94%의 응답자가 예술공연을 한번이라도 본적이 있다고 답하고 있음.예술공연에 대한 접근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주로 접하는 예술공연이 전통예술에 국한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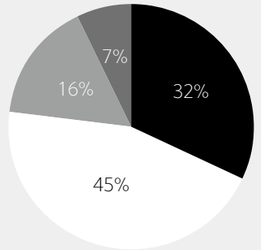
예술공연을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2/3 이상의 응답자가 (76%)예술공연의 비용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일부 중상위 계층만 향유할 수 있는 취미 또는여가 생활임을 알 수 있음. 문화와 예술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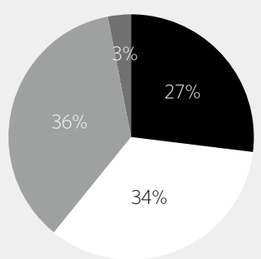
절반이상 (53%)의응답자가 전통예술공연을 관람할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음. 이러한 지표는 미얀마에서 여전히 전통예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음을 알수 있음. 이는 한편으로 현대 예술이 보급되지 않았음을 유추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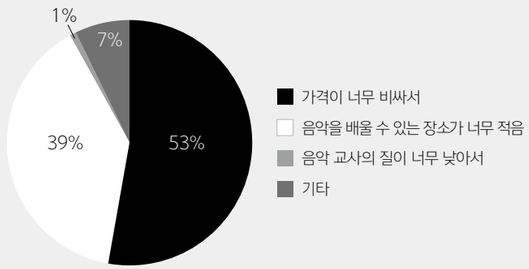
경제적인이유를 예술공연을 보지 않은 가장 큰 이유 (73%)로 답하고 있음.예술에 대한 흥미나 예술공연에 대한 접근성보다는 경제적인 이유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 것으로 보아,여전히 예술공연의 가격이 비싸고, 일부 경제적 상층만이 향유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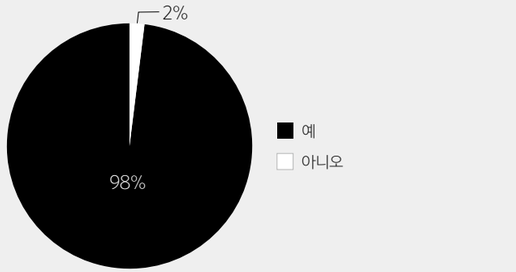
문화와예술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문화와 예술을 국가적 상징의 도구로 생각하는 경향이 가장 큼을 알 수있음. 응답자의 대부분이 문화와 예술을 정치도 도구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고평가됨. 하지만 한편으로 1/3의가까운 응답자는 예술을 개인의 미적 취미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도 인상적임. 문화와 예술을 집단과 개인의 혼재된 영역으로 바라보는 상충적인 시선이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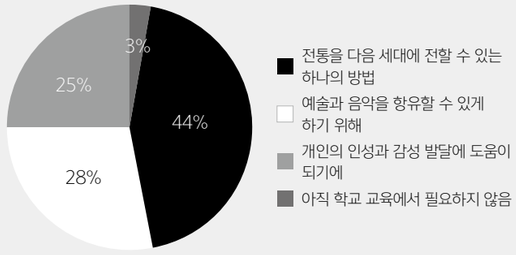
응답자들은 음악이론과, 악기, 보컬 등에 대해 비슷한 비율로 수업에 대한 욕구를 골고루 가지고 있음.특정 분야에 편중된 교육보다는 보편적인 음악교육이 필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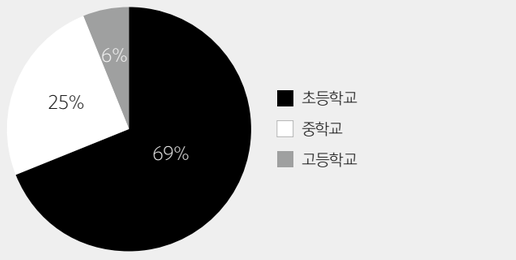
음악교육에 대해 경제적인 이유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음 (53%). 그 다음으로 음악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교습소나 교사의 부족을 이유로들고 있음(39%). 즉, 합리적인 가격에 음악교육의 기회가 제공된다면 대중의 음악에 대한 접근성이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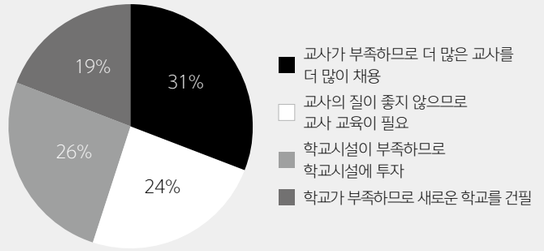
대부분의응답자(98%)가학교에서 음악이 정규교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음악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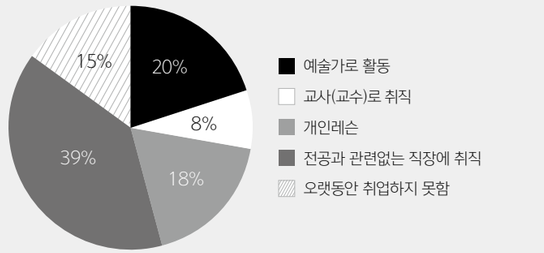
음악교육이왜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해 전통음악의 전수방안 (44%)으로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이는 전통음악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다는 사실과 음악교육을 전통의 보전이라는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하지만 절반 이상의 응답자 (53%)가 음악교육을 예술에 대한 취미와 인성발달에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점에서 음악교육을 전인교육의 한 방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음악교육이 초등학교 (69%)에서 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절반이상 (55%)의응답자가 미얀마 교육의 문제점으로 교사의 부족과 그 질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음. 즉, 양질의 교사의 확충이 교육개선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임을 알 수 있음.



예술전공자의취업과 관련하여 절반 이상 (57%)의 응답자가 예술과 관련된 업종에 취직하거나 실업상태에 머물 것으로예상하고 있음. 일반대중의 인식에서도 예술과 관련된 취업시장이 열악하다는 인식이 강함.따라서 예술전공자가 전공과 관련된 직업에 취직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 또는 보조가 필요함.

나. 이해관계자 식별 및 분석

이해관계자		위치	위치 설정 이유	강점 및 약점	위치변화전략
		+ 0 −			
1	국립 예술대학/ 고등학교 교사	++	직업인으로서 음악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미얀마 음악교육에 대한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필요성을 잘 파악하고 있고, 전문적인 음악교수법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대상임	• **강점:** 1. 교수법 개발 및 교육의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강하며 음악교육 보편화에 대한 중요성을 가장 잘 알고 있음 2. 현실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잘 제공해줄 수 있음 • **약점:** 1. 학교에서 지정하고 있는 음악교육방식 및 커리큘럼을 따라야 함으로 새로운 방식이나 다양한 교육방식 적용이 어려움 2. 공무원 신분으로 교사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업무시간내에 개별활동이 어려우며, 업무외의 활동에 대한 의지가 제한적일 수 있음	1. 교사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장르 및 방법을 중심한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자발적 참여를 독려 2. 음악교사간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교육 노하우 및 정보 교류의 장 구축 3. 본 프로그램 참여에 필요한 제반비용 지원 및 경진대회 등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 유도
2	국립 예술대학 음악전공생	+++	본 사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대상이며 학습능력 및 활동이 가장 활발할 것으로 예상됨	• **강점:** 1. 음악 연주 능력을 겸비하고 있으며, 음악교육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음 2. 전공과 관계있는 직업인 국립오케스트라에 취업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함 • **약점:** 1. 연주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음악교사나 음악교육이라는 분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음악회 및 캠프를 통해 음악 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연수프로그램 및 실습을 통해 교사활동과 교사의 직업 기회 확대
3	사립학교/ NGO 음악가 또는 음악교사	+++	소속하고 있는 초중등 교육기관에 이미 음악교육을 진행하고 있거나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본 사업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판단	• **강점:** 1. 음악 연주 능력 및 음악교육에 대한 이해가 있음 2. 좋은 교육 프로그램 적용 시 유동성 있게 커리큘럼수정이 가능하므로 효율성 있는 음악교육 프로그램시행이 용이 함 • **약점:** 1. 기존 음악교육교수법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그램 적응에 필요한 시간적, 물리적 투자가 필요	음악교육교수법 연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음악교육 능력 강화
4	양곤 국립 사범대학교 학생	0	전문교사양성기관에 수학하고 있는 학생들로 공립학교 교육의 수준과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강점:** 1. 교사로서 전문적인 지식과 교수법을 위해 수학하고 있음 2. 미얀마 공립학교에 전문교사로 활동하게 될 대상임 • **약점:** 1. 음악교육에 지식과 필요성 대한 이해가 부족함 2. 교내 음악교육에 대한 교과과정이 없음	1. 음악회 및 캠프를 통해 음악 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연수프로그램 및 실습을 통해 교사활동과 교사의 직업 기회 확대 2. 세미나 및 워크샵을 통해 음악교육관련의 정규과정 필요성을 인지시키고 향후 전공의 신설을 위한 방안 모색
5	국립 예술대학 학장/ 고등학교 교장	+	학장 또는 교장의 관심과 독려는 교사, 학생들의 참여, 교내 음악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활성화에 절대적인 역할을 함	• **강점:** 1. 개별 학교 변화에 가장 영향력이 큼 2. 사업운영에 있어 핵심 협력자 역할을 함 • **약점:** 1. 음악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상부 지시사항 및 결정범위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대한 견제가 있음	1. 음악회 초청을 통해 음악교육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2. 음악교사연수프로그램 등 주요 활동에 대한 세부사항을 이해시킴으로써 적극적인 지지를 유도
6	사립학교/NGO 음악교육 시행 교육기관 기관장	++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양질의 교사를 요청하고 있음	• **강점:** 전문성 있는 음악교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음 • **약점:** 음악수업을 정규과정으로 편성해 놓고 있으나 음악교사의 부족 또는 부재로 음악교육을 폐강하거나 영상수업으로 대체하고 있음	음악교사연수프로그램을 통해 음악교사 역량 강화 및 전문적인 음악교육 내용 제공
7	초/중등 예술교육 교재 개발 담당자	++	국립예술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국외원조기관을 통해 예술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있음	• **강점:** 음악교육 개발의 종사자로서 현지의 음악교육 체계와 문제점을 잘 알고 있으며 교사의 필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음 • **약점:** 교내 정책결정권한이 없으므로 필요성은 강조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정책의 운영이 매우 제한적임	교사양성을 위한 커리큘럼 개발과 연수프로그램 운영시 함께 협력하며, 내부 정책결정자간의 다리 역할을 유도
8	교육청 (초/중등교육 교재개발 책임자)	−	예술교육관련 비전문가인 공무원으로 예술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활용방법에 대한 인식 저조	• **강점:** 교육교재 개발 및 방향성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정책결정에 있어 핵심적인 인물임 • **약점:** 1. 예술교육관련 비전문가인 공무원으로 예술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활용 방법에 대한 인식 저조 2. 외부인 지원에 대한 견제가 심함	커뮤니티 음악회, 워크샵 및 본 사업의 다양한 행사 개최시 초청하여 음악교육 중요성의 인식 제고

다. 사업 대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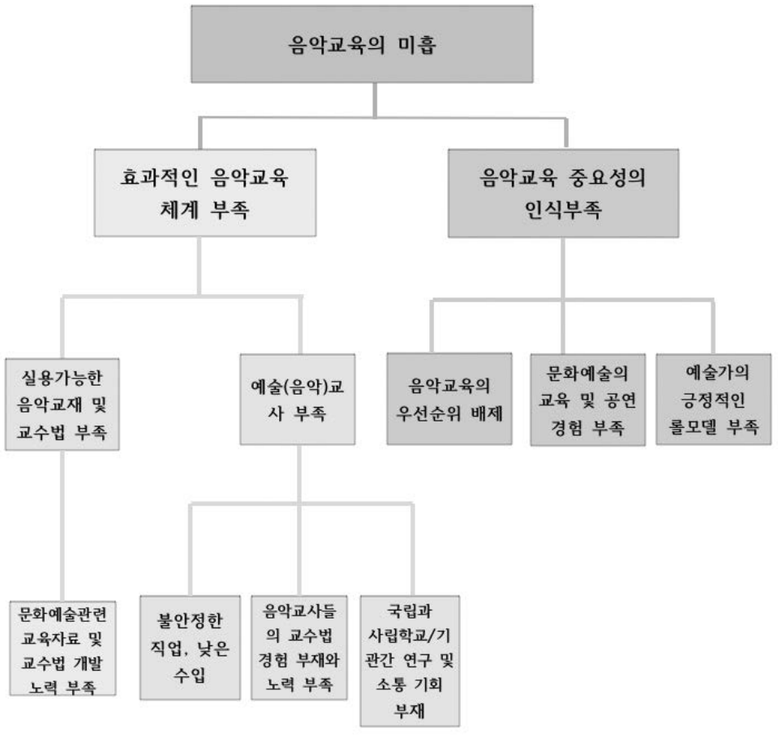
사업 대상 (Target Group)	관심, 동기 및 태도 (Interests, Motives, Attitudes)	특 성 (Characteristics)	잠재성 (Potentials)	결론 (Conclusion)
국립예술대학교 음악학부 학생	1. 대다수의 학생이 음악대학에서 전공별 전통악기와 서양악기 중 피아노 또는 바이올린을 선택하여 두 개의 악기를 전공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학으로 오기 전까지 정식으로 악기를 배워본 적이 없음. 대다수가 전통음악에 대한 내용을 다른 교과 수업 시간에 부분적으로 배워 본 것이 전부임 2. 장래 희망에 대해 학생들의 대부분은 국립오케스트라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장래희망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음악가로 활동하기 보다는 다른 직업을 갖기를 희망하고 있음	1. 양곤에 위치한 유일한 예술대학으로 국립고등교육 기관임 2. 음악대학에서는 전통음악과 서양음악 (현악/관악) 연주에 대한 교육을 전공생들에게 동시에 제공하고 있음 3. 음악학부는 50명의 재학생과 4-6명의 교수가 활동 중임 4.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에 오기 전까지 정규 음악교육을 학교에서 받은 경험이 없었음.	1. 학생들은 음악에 대한 학습과 성장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가 있음 2. 다양한 음악교육학습에 대한 기회를 요구하고 있음 3.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이 있다면 종사할 의지가 있음 4. 학장은 음악교육 활성에 대한 강한 개혁 의지가 있음	졸업반 학생들을 중심으로 양질의 음악교육 및 체계적인 교사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에서 요구하고 있는 전문음악교사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음
국립예술고등학교 (State School of Drama and Music) 음악부 교사	1. 예산의 한계로 열악한 학교의 시설 및 교육환경에 대한 투자 필요성 및 외부지원의 필요성을 언급 2. 음악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인지하지만, 전통음악 교사의 관점에서 그 필요성을 인지할 뿐, 일반 학교에서의 정규 음악교육 실행 방안이나 현실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임 3. 학교 교육시설의 개선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음 4. 교사들은 교내 정책결정자 단위가 아님을 강조하면서 외부지원이나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위해서는 상부 정부기관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음	1. 양곤 내에 위치한 유일의 전통음악 고등학교임 2. 교내에 전통음악/전통희화/전통조소 등의 3개의 분과가 있으며, 음악부인 경우 다시 전통피아노/전통무용/전통악기/전통가창의 전공이 있음 3. 음악부의 경우 학생수는 90명 정도, 교사는 13명이 재직 중 4. 국립학교로서 전액 학비가 무료이며, 학생들은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음	1. 미얀마내에서는 비교적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예술가 양성 기관이므로 음악교육의 중요성과 음악교육의 보편화에 대한 현실 가능안을 제시한다면 긍정적인 반응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교내 안에 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 과정이 미얀마 관료체제의 현실상 위협 요소가 많음	1. 교내 음악교사들을 대상으로 외부에서 음악전문교사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성을 양성 시킨 후 교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음악교육을 시행 2. 전통음악과 체계적인 음악교육 시스템을 접목 시켜 대안적인 음악교육 시스템을 개발
국립예술고등학교 (State School of Drama and Music) 음악부 학생	학생들은 졸업 후 대다수가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않고 정부산하 음악기관이나 독립 예술가로 활동하기 원함			
Myanmar National Orchestra 단원	1. 악기 및 음악교육을 일본의 Japan Foundation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부분 개선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오케스트라의 수준이 낮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 2. 대부분의 단원들이 입단전 음악교육의 경험이 적기 때문에 좋은 오케스트라의 성장에 한계가 있음 3. 공무원 신분으로 정규 일과시간에서는 다른 외부활동이 제한적이라고 함. 이는 연습시간외에는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게 함	1. 미얀마 유일의 국립 오케스트라로 공영방송국인 MRTV 산하에 소속되어 있음 2. 2001년에 처음으로 결성되었으며, 오케스트라 단원 모두가 공무원 신분 임 3. 현재 Japan Foundation의 지원으로 일본인 지휘자의 지휘를 받고 있음 4. 기존의 전통음악 오케스트라를 서양식 오케스트라로 전환하면서 공무원 신분인 단원을 그대로 활용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일부 단원은 서양식 악기를 전공한 경험이 없음 5. 단원들은 정규 근무시간에는 외부활동을 할 수 없으며, 퇴근 후 또는 휴일에는 개인레슨 등과 같은 추가활동을 개인적으로 한다고 함	1. 연주능력향상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으며 공무원 특성상 음악을 통한 사회활동과 공공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명감이 많음 2. 비효율적인 관료체제의 한계성 때문에 정책결정자의 의지나 정책의 변화가 없이는 근본적인 개혁추진이 어려움	1. 외부에서 음악전문교사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성을 양성 시킨 후 부근지역에 방과 후 학교를 개설하여 음악교육을 활성하 시킴 2. 음악캠프를 통해 연주실력과 음악인의 소양을 성장 시킴

ThanLwin School	1. 미얀마내에 상당한 수준의 시설을 갖춘 사립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설립자의 설립의도에 따라 저렴한 학비와 저소득층에게는 무료 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2. 본 학교는 정부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 공교육 커리큘럼을 기반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교육 모델을 만들어 정부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음 3. 체계적인 음악교육을 실시하고 싶지만 음악교육 필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과 적정한 음악교사의 구인의 어려움을 언급	1. 사립학교로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공교육의 커리큘럼을 따르고 있음 2. 현재 전통음악을 통해 음악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나 좀 더 체계적이고 보편적인 음악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음 3. 방과 후 교육과 같은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음악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나 음악교사의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1. 교장부터 교사 및 학생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예상 됨 2. 전문음악교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미얀마 공교육에 적합하고 체계적인 음악교육 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음	1. 방과 후 음악교실을 통해 교사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사들이 음악교육을 제공할 수 있음 2. 본 프로젝트를 통해 훈련된 국립예술대학의 음악전공 학생 및 수료생들이 본 학교에 취업과 연계될 것으로 봄 3. 향후 공교육의 음악교육 발전을 위한 좋은 협력 파트너로 판단
International Language and Business Center (ILBC)	1. 교사를 채용할 때 응시자 중 음악교사 응시율이 상대적으로 부족함. 다른 교과목에서 교사를 채용하는 경우 음악을 전공하거나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응시자가 있으면 음악 교사로 활동할 것을 권고하는 경우가 많음 2. 자격을 갖춘 음악교사의 양성이 사립과 공립의 구분없이 가장 절실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주장	1. 사립학교로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과 싱가폴의 교육과정을 참조하여 자체적인 커리큘럼을 활용하고 있음 2. 미얀마에서 가장 큰 사립학교로 미얀마 전역에 걸쳐 24개의 캠퍼스와 1만여명의 학생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교사는 1700명 정도 이며 그 중에서 음악교사는 50명을 보유하고 있음(양곤지역에 8개의 캠퍼스를 보유하고 있음) 3. 주 1시간의 정규 음악교육과정을 포함하고 있음	1. 대표부터 임직원 그리고 교사들은 음악교육에 필요성에 크게 인지하고 있으며 본 프로젝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의지를 표명하고 있음 2. 미얀마내 가장 큰 사립학교 규모를 갖고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전문 음악교사의 수요가 있음	1. 방과 후 음악교실을 통해 교사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사들이 음악교육을 제공할 수 있음 2. 본 프로젝트를 통해 훈련된 국립예술대학의 음악전공 학생 및 수료생들이 본 학교에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 봄

Sadayama School	1. 음악교육인 전인교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지만, 지식교육에 치중되어 있는 미얀마의 인식부재 속에서 음악교육이 제한되고 있다고 평가함. 2. 음악은 단순히 음악을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음악을 통해 학생들이 합창대회와 같은 외부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과 교류하고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함 3. 음악교사를 고용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교사를 더 고용할 수 없는 재정상황 때문에 현재에도 음악수업을 외부의 지원으로 파견된 파트타임 강사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함	1. 양곤의 공업지역 슬럼가에 위치한 사립학교로서 불교재단이 운영하는 사립학교 2. 초등교육부터 중등교육까지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비가 무료이고, 후원자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음 3. 전체 학생수는 500명 정도이며, 20명의 교사가 재직 중임 4. 주 1시간 정규 음악교육과정을 Gitameit의 후원으로 제공받고 있음 5. 음악수업은 기타와 같은 간단한 악기를 선생이 연주하며 노래를 가르치는 정도임	1. 교장과 교사들의 강한 음악교육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 2.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지속적인 음악교육에 대한 욕구가 있음	방과 후 음악교실을 통해 다양하고 체계적인 음악교육을 지원
Gitameit Music Censter	1. 다양한 해외의 개별협력 기관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2. 해외기관으로부터의 지원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때로는 전혀 현지를 고려하지 않고 외부인의 시선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인식. 따라서 해외 개발협력 주체가 현지의 문제점을 우선으로 접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	1. 2003년 피아니스트 Kit Young과 그의 동료들이 설립한 음악교육센터이며, 음악교육, 음악가들의 국제교류 워크샵 등을 통해 미얀마 양곤에서 음악가를 양성하고 있음 2. 13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과 서양음악 (클래식, 재즈, 팝, 현대음악) 교육프로그램 및 전통 음악 교육 프로그램이 모두 존재함. 지역 커뮤니티와 아티스트들을 위한 콘서트 기획도 정기적으로 진행	1. 비교적 전문성을 갖춘 음악가와 전문성을 갖춘 음악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음 2. 본 단체와 2011년부터 교류를 해왔던 기관으로 상호간의 이해가 깊음	1. 풍부한 해외기간과의 협력의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하에 사업을 추진 2. 음악캠프를 통해 연주자들의 능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 3. 음악교사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적인 음악교육을 실행할 수 있음

라. 문제 분석

- 민주화와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현지 청소년층 및 젊은층의 문화예술 접근 요구가 상승하는 추세이며, 정보통신의 발달로 미디어에 대한 접근성과 관심 및 관련분야 종사에의 욕구는 증가하고 있음
- 하지만 예술교육의 무경험과 공연 또는 작품등과 함께 소통하는 체험의 제한은 자신의 문화정체성 발굴과 보호 및 개발이 어려운 상황임. 이는 공교육에서 미흡한 음악교육 체계가 가장 중요한 문제임
- 이 핵심문제에 대한 원인으로는 미얀마의 공교육기관의 효과적인 음악교육 체계의 부족과 정책결정자와 교육관련 지도자들의 음악교육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임



1) 효과적인 음악교육 체계 부족:

- 그동안 미얀마 공립학교 정규 커리큘럼내에는 예술수업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음악교육과 같은 문화예술에 대한 체계적인 수업을 접할 수가 없었음
  - 국립예술대학교나 국립사범대학교내에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교육자료 개발이나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재학생과 졸업생 또는 교사들은 예술교육관련 교수 학습 방법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음
  - 미얀마 정부는 2014년부터 JICA의 지원을 초등학교 커리큘럼 개편사업을 진행하였고 그 중 음악교육도 포함됨.[04] 2017년 6월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점차적으로 새로 개설된 음악교육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교육할 교사가 부족하여 실질적 본 교과서를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임. 또한 새로 개발된 음악교과서가 현장에 사용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게 구성되어 수정이 필요한 상황임[05]
- 교장 또는 기관장의 음악교육에 대한 의지가 있을지라도 전문성 있는 음악교사가 부족함에 따라 수업을 개설하기가 어려움
  - 음악전공 종사자의 활동 인프라가 제한되어 있는 현실임에 따라 음악가 또는 음악교사라는 직업은 불안정하고 낮은 수입의 직업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음악 전공자들의 교수법 경험 부재와 발전하려고 하는 노력 부족이 전문성 있는 음악가나 음악교사로 성장하기 어려운 현실임
  - 사립학교에서는 음악교육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양질의 음악교사를 찾기가 어려워 수업 개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교육부는 최근 몇 년간 JICA의 지원을 받아 초중등 교과과정 커리큘럼 전면 개정하고 있으며, 음악수업 또한 정규커리큘럼을 만들어 2018년 6월부터 초등학교 1학년에게 교육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하지만 음악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교사인력이 부족하고 음악교육을 위한 교수훈련 프로그램이 없음
  - 정부산하 교육부 정책을 따르는 공립학교와 좀 더 자율적이고 예산 활용능력이 있는 사립학교간의 소통이나 상호교류를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

04 자세한 내용은 https://www.jica.go.jp/english/news/press/2017/170612_01.html 참조. 검색일 2017.6.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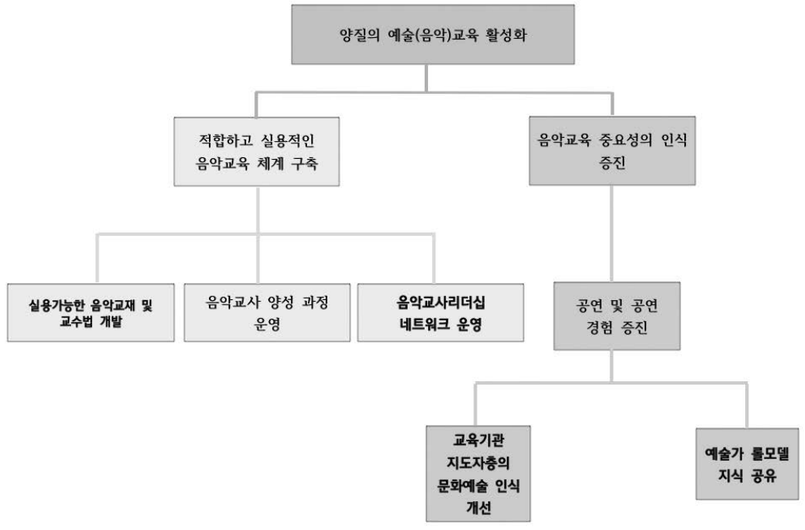
05 현지조사 관련업무 담당자 Ms. Su Zar Zar 인터뷰 발췌

2) 음악교육 중요성의 인식부족

- 정부가 교육에 배당하는 예산은 상당이 낮은 수준이고 이러한 가운데 음악교육에 대한 낮은 인식과 필요성은 현실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뒤처지게 됨
- 예술가가 활동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예술과 예술가가 사회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평가하거나 좋은 모델의 출현은 한계가 있음
- 미얀마 사회가 개방되면서 선진국가 문화 중심의 선호와 수용이 향후 전통문화 보존, 발전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음

마. 목표 분석

- 미얀마내 양질의 음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합하고 실용적인 음악체계를 구축하고 음악교육 중요성의 인식 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1) 적합하고 실용적인 음악교육 체계 구축

- 공립학교와 같은 경우 별도의 음악수업이 없거나 다른 과목수업때 해당 수업의 목표를 위해 노래나 음악을 사용하는 정도였음. 또한 음악수업을 진행하는 사립학교인 경우 체계적인 음악교육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음악교육의 목적과 의미를 간과하는 경우가 다수임. 이에 따라 현지 전통음악과 서양음악 그리고 과학적 교육기반의 감성교육, 전인 교육 및 예술적 기능을 달성할 수 있는 음악교수법 시스템과 매뉴얼을 개발 할 필요가 있음.
- 음악전공자, 초중등교사 그리고 현 음악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음악교사를 대상으로 연수프로그램 형태의 음악교사양성과정을 운영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음악교수법을 겸비하게 하며 협력학교 및 지역사회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음악교실 수업을 통해 음악교육의 모듈화를 시행
- 음악교사양성과정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방과후 음악교실 활동 연수생이나 각 소속 학교(기관)으로 복귀하여 음악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교사들이 주간소모임, 월간 세미나, 그리고 반기 워크샵을 통해 교육 피드백과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교사들의 오너십 역량을 강화 시킴. 또한 우수활동교사를 중심으로 본 사업의 자립화와 지속가능을 위해 음악교육전문학습공동체(HarmonyNation Center)를 구성하여 자체 연구회 활동을 활성화 함

2) 음악교육 중요성의 인식 증진

- 분기별 연수생, 방과후 학교 참여 학생 그리고 음악교사양성과정 강사들이 함께 협력학교(기관) 및 지역사회를 방문하여 공연을 개최. 이를 통해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음악교육의 중요성을 알림
- 청소년과 젊은층들 사이에 선진국가 문화 중심의 선호와 수용이 향후 전통문화 보존, 발전에 있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 따라 서구 및 선진 문화와 전통문화간 균형잡힌 예술교육체계 중요성의 인식이 필요

04 변화의 영역

가. 미얀마 양곤 지역내 예술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국공립 대학교 및 예술고등학교와 사립 초·중등학교 음악교사를 대상으로 음악교사연수프로그램(Music Teacher

Training Program)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음악 교수 능력을 강화하고, 협력기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음악교실을 개설하여 음악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교수학습 역량 제고 및 음악교육을 시행

나. 음악교사리더십네트워크(Music Teacher's Leadership Network) 운영을 통해 단위학교/기관에 문제해결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 모임을 활성화하고, 사업 3년차에는 본 네트워크의 진화형태인 음악교육전문학습공동체(HarmonyNation Center)를 조성하여, 각종 연구와 교육과정 분석 및 수업모형 개발을 지원하고, 이를 양곤지역 및 부근의 음악교육시행 학교에 공유

다. 커뮤니티 음악회 개최를 통해 지역 주민과 주요인사, 관련 교육기관 교직원과 학생 및 학부모, 그리고 지역중심의 다양한 계층의 인사를 초청하여 음악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킴

05 자료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2008. "아시아 공연예술 실태조사 2007."예술경영지원센터. pp.1-279.

이태주 외. 2014.『한눈에 보는 유네스코 2014 문화와 발전 문화 개발협력의 사례와 시사점』. 서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정정숙. 2013.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 (ODA) 사업개발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_____. 2010. "문화 영역 공적개발원조 (ODA) 활성화 방안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

UNESCO. 2001. "UNESCO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UNESCO. 2 November 2001.

UNESCO. 2005. "Convention on the Protectiono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UNESCO. 20 October 2005.

UNESCO. 2015. "PREPARATION OF THE DRAFT PROGRAMME AND BUDGET FOR 2018-2021."General Conference, 39 C/5.

UNESCO

http://whc.unesco.org/en/statesparties/MM/. 검색일 2017년 5월 27일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Education_in_Myanmar. 검색일 2017년 5월 27일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미얀마의_교육 검색일 2017년 6월 3일

Ministry of Culture

http://www.culture.gov.mm/Universities/default.asp. 검색일 2017년 5월 27일

JICA

https://www.jica.go.jp/english/news/press/2017/170612_01.html. 검색일 2017년 6월 19일

06 기타 활동 자료 (사진 등)

01 국내조사팀 지역조사방법 교육
02 미얀마 양곤 현지 조사팀과 합류 및 조사 사무실 구축
03 문제나무 분석 및 목표나무 설정
04 국립예술대학교 재학생 대상 Focus Group Interview 진행
05 현지 기관장 개별 인터뷰 진행
06 현지 학교 및 기관장 대상 조사결과보고 및 간담회 시행

가. 사업대상 분야(Target Area)의 지표 및 기초선

목표 (Goal)	지표	지표 정의	기준치 (Baseline)	목표치 (Target)	목표치 산출근거	성과 입증수단	지표 측정시기
양질의 음악교육 활성화	• 협력 교육기관 음악교육 개설 및 운영 수 • 음악교사 자기평가(자아효능감, 직업만족도, 수업 태도 변화) • 수업 관찰 평가(교사의 수업 능력, 학습 목표 도달 여부) • 교장/기관장의 음악교육 지원 태도	• 협력기관의 음악교육 전년도 대비 개설 비교 • 교사의 자기평가 설문조사 • 수업 관찰 모니터링 • 교장/기관장 대상 인터뷰	0	• 협력기관 음악교육 개설, 수료생의 음악 교사 활동, 교장/기관장의 음악교육 지지	• 협력기관 음악교육 개설, 수료생의 음악 교사 활동, 교장/기관장의 음악교육 요청율 3% 상승	• 설문조사, FGI • 수시 방문 및 평가	연 1회
목적 (Purpose/Outcome)	지표	지표 정의	기준치 (Baseline)	목표치 (Target)	목표치 산출근거	성과 입증수단	지표 측정시기
1. 적합한 음악교육 체계 구축 2. 음악교육 중요성의 인식 증진	• 교수법 매뉴얼 만족도 • 연수 참여도 • 교육 수료생 음악교사 활동 여부 • 교사 자기평가 점수 변화율 • 교사 다면 평가 점수변화율 • 방과후 음악교실 참여 학생 학업성취도 • 참여 관객 분포도(교육관련 정부인사, 교장/기관장, 학부모, 학생, 주민 등) • 음악교사 및 방과후 음악교실 학생들의 연주 참여 만족도	• 수료생의 교수법 매뉴얼 만족도 설문조사 • 음악교육연수프로그램 출석율 및 수료율 • 교사의 자기평가, 다면평가 설문조사 • 수료생 중 음악교사로의 활동수 • 방과후 음악교실 학생 만조도 설문조사	0	• 전체 수료생*음악교사 활동 비율 • 전체 참여 연수생 수 / 80% 이상의 출석 및 과제 수행 정도 • 5점 척도에 의한 사전, 사후 태도 및 인식 변화 • 음악회 연주자 참여 수, 음악회 참여 관객수, 음악회 만족도 조사 결과	• 교수법 매뉴얼 만족도 설문조사, FGI 보고서 • 연수 참여 출석부 • 음악교사의 근태 기록지 (사전사후) • 교사 자기 평가지 (사전사후) • 교장/기관장, 학생 다면 평가지(사전사후) • 학업 성취도(사전사후) • 연주 참여자 설문조사 및 음악회 보고서	연 1회

나. 단체의 특성과의 연계

1) 과거 사업경험을 기반으로 한 미얀마 사업 접근 방향

- 탄자니아 Kilimanjaro, Arusha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2013년 – 2016년)
  - KOICA 민간단체지원 사업의 일환인 2013년 사업발굴지원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다년도 사업으로 대학내 음악전공자 전문성 강화 및 초등학교 음악교육 지원사업을 시행하였음
  - 국내의 음악가가 현지 대학으로 파견되어 현지 음악 전공자에게 교육을 시행하고, 현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방과후 음악교실을 운영
  -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와 마을을 중심으로 음악회를 개최하여 음악교육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학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들의 음악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
- 해외단기음악교육봉사 Gift of Music(2011년 – 현재)
  - 한국의 전문음악가, 일반 봉사자 및 스태프로 해외단기음악봉사단을 기획하여 파견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지 음악교육 NGO나 대학들과 협력하여 현지 학생들에게 1:1 마스터클래스를 제공하고 협동 공연을 하는 등 음악적 교류를 하는 문화개발협력 사업이다. 현재까지 미얀마에서는 총 3회 Gift of Music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 Korea·ASEAN Exchange of Cultural Arts and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2014년 – 2015년)
  -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와 상호존중을 목표로 한 프로젝트로서 2015년 1월부터 2월까지 팀별로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문화예술전문가 및 일반인 10인, 총 4팀을 결성해 미얀마, 캄보디아, 필리핀, 라오스에 1주일 방문
  - 방문국에서 음악교육, 사진영상기술 교육, 의복 제작기술 교육 등 문화예술분야 교육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각국의 문화 콘텐츠를 교류하고 동시에 세계시민교육을 실시
- 캄보디아 프놈펜지역 음악교사 파견을 통한 음악교육지원 사업(2011년 – 2014년)
  - 한국 파견 강사 왕립예술대학에 초빙교수로 파견 및 음악교육지원 활동
- 기존 사업의 경험을 기반으로 본 사업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 및 보완하고자 함
  - 캄보디아(2011년 ~ 2015년)와 탄자니아의 음악강사 파견(2013년~2016년) 후 사

업운영에 있어 보통 연주 연습 중심과 무대 중심으로 살아온 예술가들에게는 개도국이라는 새로운 환경이 개인이 살아온 환경과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장기 파견에 있어 많은 스트레스와 예민한 정서로 인해 본부의 과도한 행정소요가 발생
  - ⇨ 음악가의 장기파견은 지양하며, 음악교육 및 교수법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과 단기 방문을 통해 현지인에게 전문 지식과 시스템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수정
- 음악부분에 있어서 연주자, 작곡, 음악교육 그리고 음악치료 등 여러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분야로 구분되어 있어 개발도상국에서 음악교육 활동 시 기존 한국이나 선진국 시스템으로 접근하기에는 효과성이 저하
  - ⇨ 교육공학, 음악교육 및 연주학 그리고 개발학 분야의 전문가로 된 융합형태의 팀을 구축하여 개발도상국 현지에 적합한 교재나 매뉴얼을 구축하고 현지인을 대상으로 전문화 교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정
- 커뮤니티 음악시행 시 사회적 경제 수준 또는 지위 수준을 막론하고 대부분 좋은 호응을 얻고 있음
  - ⇨ 공연은 현지 주민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음악이나 음악교육의 필요성 인식 증진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한 층 더 나아가 현지 전통 및 다양한 문화를 접목한 공연의 내용에 개발이 필요함. 이를 통해 개도국 주민들로 하여금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존중할 수 있는 문화다양성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겠음

PART 10

[교육] 한국해비타트

시행일자	2017년 5월 1일(목) ~ 6월 10일(금) (총 40일)
지역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2017년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지역조사(사업형성조사) 결과보고서

기본정보				
단체명	(사) 한국해비타트		작성자	김 유 식
단체현황	현지 지부		☑ 있음	☐ 없음
	NGO 등록		☑ 있음	☐ 없음
	KOICA 협력사업 수행 경험 유무		☑ 있음	☐ 없음
사업 분야	교육		코드번호	111
조사 목적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취약여성 자립을 위한 <인쇄기술학교> 설립 타당성 조사			
대상 국가 및 지역	국 가	탄자니아	지 역	다르에스살람
	탄자니아 여성의 경제적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여성의 경제, 사회적 환경을 조사하고 이들의 금융 지식수준을 파악하여 맞춤금융 지식정보 및 재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함			
조사기간	전체 조사 기간	2017년 5월 1일(목) ~ 6월 10일(금) (총 40일)		
	현지 체류기간	5월 14일 ~ 5월 20일 (총 7일) *입출국 여정 포함기간 : 5/13 - 5/21(총 9일)		

조사 목적

chapter 01

본 사업은 탄자니아 다레살람, 프와니 지역 여성 맞춤형 금융지식 교육 및 재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을 목표로 한다. 이에 본 지역 조사는 여성들의 경제, 사회적 환경을 조사하고 이들의 금융 지식 정도를 파악하여 여성들이 보다 자신감 있게 스스로 금융결정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필요한 금융지식 교육 및 재무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아울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본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적 추진방안 또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지역조사의 대상자는 기존 탄자니아 해비타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소액주택금융사업 수혜대상가정의 여성 구성원들이며 효과적인 지역조사 목적 달성을 위한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다레살람, 프와니 지역 여성들의 금융 지식 수준 파악 및 선호도 조사
- 정부/국제기구/타 NGO의 동일지역 유사 사업 진행 여부 및 연계가능성 조사
- 이해관계자 파악 및 분석
- 사업수행기관 탄자니아 해비타트의 역량 조사
- 다레살람, 프와니 지역의 소액 금융사업/소액주택금융사업 성공사례 및 실패사례 분석
- 관련 탄자니아 정부 정책 조사
- (National Micro-finance Policy 및 National Ecnomic Empowerment Policy 등)
- 탄자니아 정부 및 다레살람 지역 정부와의 협력 가능성 조사
- 다레살람 지역의 금융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조사

조사 결과

chapter 02

01 일정별 조사 활동

기 간		활동 내역 약술
국내	2017.05.01.-10	- 탄자니아 일반 현황 조사 (문헌조사)
		- 탄자니아 해비타트 고용 (Research Team Leader / Research Assistants)
		- 탄자니아 내 유관기관 (KOICA, Korea Exim Bank, BRAC Tanzania) 미팅일정 조율
		- 탄자니아 현지 사업 수행기관 (글로벌 투게더) 사업 담당자 미팅 (5/10)
현지	2017.05.15	- 탄자니아 해비타트 방문 및 사업 목적, 사업 가이드라인 소개 - 리서치 팀 미팅 및 조사 방법론 논의
	2017.05.16	- 탄자니아 해비타트 현 진행 프로젝트 방문 및 여성 홈파트너 인터뷰
	2017.05.17	- 관련 전문기관 미팅 BRAC Tanzania - KOICA 탄자니아 사무소 미팅
	2017.05.18	- 저소득 여성 설문과정 모니터링 - 지역정부 미팅 (Temeke Municipal Council)
	2017.05.19	- 저소득 여성 설문과정 모니터링 - 한국 수출입은행 탄자니아 사무소 방문
	2017.05.01.~06.10	- 설문조사 준비 및 자료 수집, 보고서 작성

02 조사 항목 및 방법

	조사 항목	조사 방법	조사 기간
1	탄자니아 국가 및 지역 개황	문헌조사	2017.05.01.~
2	탄자니아 국가 및 지역 소액금융 및 금융교육 관련 정책	문헌조사	2017.05.01.~
3	기관 (국제기구, 정부, NGO등) 활동현황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설문조사, 초점그룹 인터뷰, 사례조사, 전문가 인터뷰 등)	2017.05.19.~06.10
4	대상 여성들의 금융지식 수준 점검 및 필요 교육 조사	현지조사 (스와힐리어로 작성된 설문지 활용 (추후 영어로 번역예정))	2017.05.19.~06.10
5	이해관계자 정보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설문조사, 초점그룹 인터뷰, 사례조사, 전문가 인터뷰 등)	2017.05.01.-6.10

○ 사업 대상 조사의 목적

- 금번 조사는 저소득 여성의 금융 지식에 대한 정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해비타트가 저소득 여성을 대상으로 어떠한 금융교육을 제공해야 그들의 금융접근성이 향상될 것인지 가늠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조사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1. 재정/금융과 관련한 개념의 인식 정도
2. 저축과 부채에 대한 긍정적 태도
3. 개인의 예산, 소득, 소비에 대해 계산하고 추적할 수 있는지 여부
4. 재정문제에 대한 자신감있는 의사결정 및 금융기관의 이용
5. 일별 개인 소비에 대한 관리
6.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계획
7. 장기적 재정계획이 있는지
8. 예측하지 못한 거대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9. 더 많이 저축하고 자산을 증식하려는 목적이 있는지
10. 생산성향상을 위해 부채를 더 많이 감당하려고 하는지
11. 교육 훈련에 대한 니즈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지

○ 설문조사

- 총 5단계로 진행되며, 초기 미팅, 서류 검토, 자료 수집 및 최종 결과물 작성의 단계로 진행됨

[1단계 : 초기 미팅]

본 단계에서는 조사 실행의 로드맵을 구성하고 조사의 목적 및 범위를 구성원들과 함께 공유함. 해비타트 탄자니아 직원의 참여하에 설문조사를 위한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현실성을 판단함

[2단계 : 문헌정보 분석 및 조사 방법론 준비]

본 단계에서는 하버드 젠더 분석 프레임 워크를 사용하여 여성의 생산활동 및 생활양식 등을 분석하고 그들의 역할과 관계, 정보 및 자원에의 접근성을 분석함. 사전준비된 설문조사지를 통해 조사 대상 여성에게 배포되며, 본 조사목적과 관련하여 Rapid Rural Appraisal (RRA) 나 Participatory Rural Appraisal (PRA) 보다 설문조사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음. 그 이유는 커뮤니티 내 성별, 부의 정도, 사회적 지위, 종교적 색채에 따른 구분이 용이하며, 설문조사 방법론을 통해 정성적 결과물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었음.

설문 문항들은 open-ended로 총 6개의 파트로 구성하였으며, 아래와 같음(별첨 참조)

Part A : 응답자의 일반정보
Part B : 가정의 재정현황
Part C : 고용현황
Part D : 비즈니스 환경
Part E : 은행 전반
Part F : 교육/훈련의 필요성

[3단계 : 자료수집, 분석 및 보고서 작업]

파일럿 스터디를 통해 조사 방법론을 가다듬었으며, 설문을 시작하기 전 타겟지역을 선정함. 조사원들에 대한 사전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설문은 스와힐리와 영어를 사용하여 응답자가 편히 답변하고 필요시 질문이 가능하도록 함. 자료 분석은 양적, 질적 연구방법을 모두 사용하였으며 양적분석에서는 SPSS와 엑셀을 사용하였음. 질적 분석내용은 표, 그래프, 등과 결합하여 기술하였음

[4단계 : 이해관계자 Workshop 및 최종 보고서 작업]

보고서의 초안은 탄자니아 해비타트에 송부하여 1차 의견을 받은 후 수정 작성함

[5단계 : 교육훈련 방법 제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제언

○ 유관기관 미팅

- 본 조사와 유관한 기관, 유사 사업 수행기관 및 이해관계자와의 현지 미팅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 분석실시

미팅 실시 기관	설명	논의주제
KOICA 탄자니아 사무소	KOICA 지역사무소	KOICA ODA 사업 방향성 부합여부 및 사업 지역 적정성 논의
한국수출입은행 탄자니아사무소	유상원조 (EDCF) 총괄기관	탄자니아 내 유상원조 프로젝트 현황 및 사업설명
BRAC Tanzania	INGO, Microfinance 전문기관	BRAC의 사업영역 및 금융교육, 훈련자 훈련 등 시스템 현황 파악
Temeke Municipal Council	다르에스살람 지역정부	정부, 지역정부 차원의 금융/재정교육 지원 유무 확인
글로벌투게더 한국본부	탄자니아 내 소액대출사업 수행	사업 방향 및 성과, 탄자니아 국가적 특수성 확인

03 조사 결과 분석

[문헌 및 관련자료 조사]

- 사전 조사에 의해 탄자니아의 재정 역량은 낮은 수준으로 일반적으로 대다수 저소득 가정의 금융 기관의 서비스 이용 비율이 낮음
- 재정 및 경제 용어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인지하고 관련 지식을 알고 있음
  - 예산 (88%) / 은행 (86%) / M-pesa (80%) / 임대 (79%) / 물가상승 (77%) / 이자

율 (66%) / 세금 (62%) / SACCOS (57%) 등

- 일상 비용 지출 및 예산계획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는 반면, 보험증서 취득 및 보험이 어떠한 원리로 작동하는지 (6%),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 (7%), 자신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방법 (8%), 노후 대책법 (25%) 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지함을 보임
- 또한 사칙 연산능력과 관련하여는 뺄셈(72%), 덧셈(83%)은 대부분 가능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나눗셈(54%)과 곱셉(58%)에 대해서는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었음
- Tanzania Financial Capability Baseline Survey에 따르면, 사람들은 재정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금융기관의 서비스를 사용하는것보다 더 자신있어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밝힘
- 2008년 10월 워싱턴에서 진행된 재정 문해율을 위한 National Research Symposium의 자료에 따르면 재정 금융교육이 저소득 가정의 재정적 의사결정, 금융 행동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금융 지식과 행동과의 긍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자료들이 상당수 있음

[설문조사 결과분석 요약]

- 총 637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지역별 분포 및 기본정보는 아래와 같음

ILALA	KINONDONI	UBUNGO	KIGAMBONI	TEMEKE	KIBAHA TOWN	TOTAL
201	138	122	42	101	33	637

항목	명	비율
나이		
18-30	200	36
31-50	326	58.7
51이상	29	5.3
성별		
여성	637	100
혼인여부		
미혼	159	27.5
기혼	366	63.2
이혼	10	1.7
미망인	44	7.6
교육 수준		
무학	26	4.4
초등학교	225	38.6
중등학교	208	35.7
고등학교	87	14.9
학사/석사/박사	37	6.4
거주지		
Ilala	201	31.6
Kinondoni	138	21.7
Ubungo	122	19.2
Temeke	101	15.9
Kigamboni	42	6.6
Kibaha	33	5

1) 기본정보

- 설문조사 응답자의 상당수는 31-50세로 총 응답자의 절반이상에 해당하여 그중 63.2%는 소득 창출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 중등학교 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진 응답자의 대부분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음
-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5%가 가정 내에서 여성이 재정적 의사결정을 한다고 답하였고, 33%는 아버지가, 나머지 31%는 가정 구성원 모두 의사결정에 참여한다고 답변

2) 재정현황

- 가정의 재정적 현황에 대해 응답자의 대부분인 342명이 만족한다고 답변하였으며, 생필품 구매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한 반면 TV나 냉장고 등의 기자재를 구입하는데는 문제가 많다고 답변
- 35%가 저축을 한다고 답변하였지만 그들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는다고 응답
- 일반적으로 저축을 한다는 응답자의 42%는 직접 은행을 이용하고, 30%는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22%는 집에, 6%는 SACOS 나 VICOBA와 같은 크레딧 회사를 활용한다고 답변
- 저축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은행은 상대적으로 널리 분포되지 않아, 각 은행별 제공상품 및 적합한 기관을 찾는 교육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Akiba	CRDB	NMB	NBC	BOA	Access	DCB	women bank	TPB	Barclays	Equity	CBA	Efata	Exim
14	67	68	19	2	3	6	1	8	4	3	1	1	1

- 응답자의 65%는 예측하지 못한 비용에 대한 사전 적립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으나, 실제 행동에 옮길 수 없는 이유는 소득 수준이 낮아서 (79%) 였다. 반면에 현 소득에 추가적으로 50만-100만 탄자니아 실링이 지급될 경우 58%는 현재 비즈니스 활동에 투자할 것이라고 답변

3) 고용현황

- 응답자의 70%가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21%만이 공식적인 직업에 종사
- 소득활동의 종류에는, 미용실, 가축 사육, 식자재 가공, 까페, 술집, 약국, 재단, 문방구, 주방기구 판매, 공구상, 농사, 아동용품점, 가정용품점, 케이터링, 위생용품 판매, 운송, 미니마트, 교육, 모바일 업계 종사 등 다양하며 이는 모든 조사지역에 고르게 분포함

4) 교육훈련의 필요성

- 응답자의 84%가 재정과 관련한 교육을 받은적이 없다고 밝혔음
- 교육을 받아본적이 있는 응답자는 Dr Didasi Lunyungu, TFDA, HFHT, Osmond Mtunga, Women scattering group, Veta, George Warioba, Mwl madaha, CRDB bank, Jonas Jackson, Dr Masaburi and Wanawake Live 등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한 훈련을 받았다고 답변
- 해당교육기관에서의 교육 내용은 은행 전반적인 업무 뿐 아니라, 비즈니스, 기업가 정신, 비누 제작 방법, 경영관리, 영양, 벌 양봉 및 가축 사육 등 다양함

5) 재정 문해율

- 가정에서 여성이 갖고 있는 책임에 비해 응답자의 76%가 재정적으로 지식이 없는 상태였음 게다가 지식이 있다고 답변한 24% 역시 자신의 재정 인식 수준에 대해 불만족 한다고 답변함

[Focus group interview]

- 포커스 그룹 토의를 통해 참여자들은 탄자니아 해비타트의 프로그램으로 인해 자신들의 주거 상황이 상당히 향상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Commercial Loan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실제 해비타트의 프로그램은 주거환경개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비즈니스에 소액대출하는 프로그램은 다루고 있지 않음.
- 비즈니스 소액대출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해비타트에 요구하는 이유에 대한 질의에는 1) 타기관보다 저렴한 이자율 (월 2%), 2) 해비타트가 가진 신뢰도, 3) 추가적인 신원보증기간의 단축이 있었음

[이해관계자 분석]

- 재정/금융교육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는 Municipal과 Town Council로 총 예산의 5%를 여성 기업가의 역량강화에 투자하게끔 되어있음. 또한 National Economic Empowerment Council은 지역내 중소 규모의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훈련을 제공하고 있음
- SACCOS, VIICOBA와 같은 지역사회기반 단체들 역시 재정역량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 시장에서의 비즈니스 컨설턴트 역시 주요 이해관계자일 수 있음. 그들은 상업적인 부분에서의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교육비를 낼 여력이 없고, 이는 많은 여성이 교육 받지 못한 상태로 전락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임

[유관기관 미팅 및 회의결과]

- BRAC Tanzania는 2017년 INGO 브랜드 파워 1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탄자니아 내에서 사업규모 및 사업 영역 측면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
- BRAC Tanzania의 주 사업영역은 소액금융프로그램으로 약 175,000명의 저소득층이 해당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으며 약 2,000명의 직원이 있고 총 사업규모는 탄자니아 내 23개지역 30백만 달러 규모임
- 이와는 별개로 LEAD라고 명명하는 프로그램은 농업기술을 훈련을 돕는 프로그램이 있으며, 저소득 아동을 위한 Grant 프로그램 또한 병행하여 아이들의 교육 접근

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

- KOICA의 미팅 시, 해비타트가 수행중인 Microfinance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진행함과 동시에, 대다수 소액금융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프로그램과의 차이점을 설명하였음
- 한국기관인 글로벌 투게더가 성공적으로 소액금융 사업을 3년째 진행한 바, 금번 해비타트 조사지역과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음. 글로벌 투게더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음
- 탄자니아 여성의 금융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였으며, 향후 Grant와 Loan이 결합된 형태의 사업을 통해 재정적 여력이 되지 않아 접근이 불가한 최저 소득계층에게도 사업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이 좋겠음
- Temeke Municipal Council에서도 Financial literacy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여성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별고 Women and Youth fund를 운영중임.
- 하지만 지방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역시 연 10%의 이자율을 적용한 상환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방정부에서도 상환능력이 없는 최저 극빈층에는 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황임

04 변화의 영역

가. 주목 분야

- 금번 설문조사를 통해 여성이 가정내에서 사회적으로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으며, 여성이 가정 내에서 재정적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매일의 수입은 생필품을 구입하는데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입과 지출의 현금흐름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 않음
- 현재 수입원 외에 추가적인 수입이 발생했을 경우, 예측 불가능한 비용에 투자하기보다는 현재 비즈니스 영역에 투자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음
- 가족 구성원은 대부분 소득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대개 허가받지 못한 활동들임. 대부분의 비즈니스는 10만 탄자니아 실링 이하의 자본금 내에서 운영되며 하루에 버는 수입은 대개 5천 – 10만 탄자니아 실링 임

- 가정 내 여성이 재정적 의사결정에 참여 (응답자의 76%)하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은 재정적으로 무지한 상황으로 나타남, 극소수의 여성만이 양질의 교육을 접할 수 있었음. 하지만, 교육과정에 참여한 여성역시 상당히 낮은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이와 같은 조사를 바탕으로 재정/금융교육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1. 소규모 비즈니스를 위한 재정관리법
  2. 소규모 비즈니스를 위한 재정기록관리
  3. 금융/재정 원칙
  4. 부기법
  5. 소규모 비즈니스를 위한 자금조달법
  6. 개개인의 재정목표 설정과 달성을 위한 계획 수립
  7. 예산 수립 및 통제법
- 추가적으로 응답자 대부분이 재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수강하기위한 돈을 지불할 수 없는 저소득 층임. 응답자 중 56%가 지불여력이 전혀 없다고 답변하였음
- 나머지 44%는 교육과정이 5만 탄자니아 실링 이하일 경우 지불의사가 있음을 피력.결과적으로 해당 교육이 저소득층에 전달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함을 의미

나. 현지의 수요 및 상황

이해관계자	설명	강점 및 약점	비고
소액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여성	직접수혜자	(S) 사업 지원 (S) 적절한 지식 갖춤 (W) 수혜자로 선정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	
소액금융을 이용할 계획인 여성	직접수혜자	(S) 사업 지원 (S) 금융교육의 선호도 강함 (W) 수혜자로 선정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	
Local Government	협력	(S) 기술 지원 (S) 연계 프로그램 보유 (W) 정책, 지침, 요청 및 요구	

탄자니아 해비타트	실행기관	(S) 자원 (S) 사업장 내 현지 사무소 (S) 명성과 헌신 (S) 지도력 갖춤	
지역사회 기반단체 (SACCOS)	협력	(S) 기관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관리 및 유지 (S)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영향력 지속 가능성 보장 (S) 사업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 (S) 지역 사회 사람들을 조직하고 통제하는 데 역량을 갖춤	
KOICA	잠재후원자	(S) 자원 (S) 탄자니아 내 KOICA 사무소 (S) 명성과 헌신 (S) 경험 풍부 (S) 지도력 갖춤	
International NGO	협력	(S) 자원 (S) 경험 풍부 (S) 유사사업 실행 경험	

다. 사업대상 분야(Target Area)의 지표 및 기초선

지표	설명	기초선
경제, 재정 관련 용어에 대한 이해도	주요 경제 및 재정 개념 인지여부	24%
교육훈련 만족도	제공하는 교육훈련의 만족도	70%
교육훈련 참여인원	제공하게 될 교육훈련의 참여 인원	0
재정/금융 문해력 상승	저축, 부채에 대한 개념 이해, 가계 예산수립, 현금흐름 분석, 긴급지출비용에 대한 대책 등	24%
신규 Housing microfinance 실행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Loan 실행	0
신규 Housing Grant 사업실행	최저빈곤층을 위한 주택 지원	0
부기교육 참여자 수	회계 기본에 대한 인지	0
소상공 재정 교육 참여자 수	비즈니스 지속가능성을 위한 교육 참여	0
Microfinance 상환율	실행한 Loan에 대한 월별 상환율	80%
금융교육 ToT	지역 내 교육을 지속할 수 있는 훈련자양성	0

라. 단체의 특성과의 연계

- 탄자니아 해비타트는 다르에스살람, 프와니 지역에서 1986년부터 주거 신축활동을 진행해 왔으며, 2009년부터는 주력사업으로 Housing Microfinance 프로그램을 실시해왔음
- 해비타트의 Microfinance는 안정된 주거향상을 위한 분야만 국한하여 Loan을 실행하여 저소득 가정이 안정된 주거 속에서 소득창출 활동 등을 영위 하려는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중임
- Microfinance 사업의 특성상 대부분 저소득 여성이 대상이 되며, 이는 탄자니아 해비타트가 재정교육의 필요가 있는 여성들에게 접근이 용이한 프로그램 및 역량향상을 위한 지역적 신뢰가 구축되어 있음을 의미함
- Microfinance를 통한 주거환경개선 및 최저 빈곤층을 위한 Housing Grant 사업과 재정교육을 병행하여 시너지 창출

05 자료 출처

1. Melissa A. Donohue, 2011, Financial Literacy And Women: Overcoming The Barriers
2. V.Mathivathani And Dr M Velumani, Dec 2014, A Study On Financial Literacy Among Rural Women
3. Dr.Garima Baluja , Oct 2016, Financial Literacy Among Women In India, Volume 9 Issue 4.
4. Alan L. Gustman, Thomas L. Steinmeier And Nahid Tabatabai, 2010, Financial Knowledge And Financial Literacy At The Household Level , Working Paper WP –223
5. Sonia Marcolin, Anne Abraham, 2006, Financial Literacy Research: Current Literature And Future Opportunities
6. Harsha Vijaykumar Jariwala, September – 2013, The Level Of Financial Literacy And Its Impact On Investment Decision.
7. Barbara Amponsah, October, 2015, Assessing The Effect Of Financial Literacy On Saving Behaviour.
8. United Republic Of Tanzania (URT), (2012). Human Population And Housing

Development Census Report, Government Printer, Dar Es Salaam.
9. Townsley, P. 1996. Rapid Rural Appraisal, Participatory Rural Appraisal And Aquacultur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Fisheries Technical Paper 358. FAO, Rome. 109 Pp.

06 기타 활동 자료 (사진 등)

01 탄자니아 해비타트 사무소 회의
02 리서치 팀 리더 및 팀원과 회의
03 BRAC 탄자니아 방문 및 회의
04 KOICA 탄자니아 사무소 방문 및 회의

05 설문 조사 현장 모니터링
06 Temeke Municipal Council 미팅
07 Temeke Municipal Council 사회복지과 미팅
08 설문 조사 현장 모니터링
09 한국 수출입은행 방문 및 회의
10 탄자니아 해비타트 Credit officer 미팅

향후 계획

chapter 03

- 금번 조사를 통해 저소득 여성의 재정/ 금융 인식도에 대한 1차적 조사 및 잠재 수혜자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었음
- 소액금융 프로그램이 탄자니아 전반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고, 상환능력을 보유한 가정에는 소득 증진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일부 Local Microfinance 기관의 경우 고리(월 8-10%)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등 저소득 가계에 부담을 주는 프로그램들이 상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또한 상환능력이 없는 최저 빈곤층에 대한 프로그램은 MFIs, 지역정부 내에 극소수로 존재하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재정역량, 소득창출 프로그램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 해비타트의 전문 영역과 결합하여 향후 추가적인 조사, 준비를 통해 1) 최저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Housing Grant 2) 상환능력이 있는 저소득 가계를 대상으로 한 Housing Microfinance 3) 이들의 상환능력 제고 및 소득증진을 위한 전문 재정교육을 병행한 사업을 구상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정부 및 CBO와의 협력을 통해 재정교육의 커리큘럼을 디자인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 훈련과정을 희망하는 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예상 됨. 대부분 이 과정을 위해 재정을 지출할 여력이 없는 것을 조사결과 확인하였으므로,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PART 11

[교육] 한코리아

시행일자	2017년 4월 10일(월) ~ 6월 9일(금) (총 60일)
지역	인도네시아 아체주

2017년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지역조사(사업형성조사) 결과보고서

기본정보				
단체명	한코리아		**작성자**	정 현 준
단체현황	현지 지부		☑ 있음	☐ 없음
	NGO 등록		☐ 있음	☑ 없음
	KOICA 협력사업 수행 경험 유무		☑ 있음	☐ 없음
사업 분야	직업교육		**코드번호**	113**
조사 목적	인도네시아 아체주 삐디자야군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직업교육 기초조사			
대상 국가 및 지역	**국 가**	인도네시아	**지 역**	아체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체주 반다아체까지 국내항공편 3시간, 아체주 반다아체에서 남동쪽 약 200km방향, 차량으로 3시간 소요			
조사기간	**전체 조사 기간**	2017년 4월 10일(월) ~ 6월 9일(금) (총 60일)		
	현지 체류기간	2017년 4월 29일(토) ~ 5월 5일(금) (총 7일)		

조사 목적

chapter 01

- 인도네시아 및 아체주 삐디자야군 지역 주민들의 저소득 문제 이해 및 직업교육 연구
- 마을 주민의 직업적 특성과 소득수준, 지리적 여건 및 인프라 파악
- 봉제, 목공, 오토바이 수리, 영어 등 직업교육을 통한 주민 소득증대 가능성 확인
- 지역 주민의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 파악 및 수요조사
- 직업교육을 통한 가계 소득증대 효과 및 예상소득 파악
- 기존의 유사한 직업교육 유무와 타 기관의 현지 사업 및 활동상황 파악
- 직업교육과 연계한 사업장 개설, 운영방법 및 판매경로, 수익창출 및 분배 방안에 대한 연구
- 직업교육센터 운영에 대한 현지 니즈(needs)와 가능성 연구
- 직업교육센터 설립 시 마을 청년 및 부녀자들의 직업교육 참여 의사 및 호응도 예비 조사
- 예상되는 교육 대상자의 직업교육 습득 역량 유무 및 수준 평가
- 직업교육센터 설립을 위한 현지 물적·인적 자원 동원방법 및 조달 가능성 분석
- 직업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의 효과성과 타당성 확인 시 추진 계획 모색

조사 결과

chapter 02

01 일정별 조사 활동

	기 간	활동 내역 약술
국내	4/10~4/28	- 국내 및 현지조사 계획 수립, 현지조사 일정 조율, 조사방법 연구
	4/17~4/20	- 코이카 인도네시아 선행 사업 자료 검토
	4/21~4/28	- 설문 및 인터뷰 문항 작성, 수정 및 보완, 현지어 번역, 1차 문헌조사
	5/10~5/12	- 설문지 조사 결과 분석
	5/22	- 현지 파트너기관(재단법인 야라빠) 유재정 대표(한국 방문)와 지역 조사 보강 협의
	6/1	- 사업 컨설팅 및 자문 : 허요 박사(국제인적자원개발전문가협회장),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글로벌HRD협력팀 김운덕 팀장
	6/2~6/9	- 2차 문헌 조사(관련 자료 및 단행본 활용한 추가 조사)
	6/8	- 직업교육 사업 타당성 검토 및 논의를 위한 오찬회의
현지	4/21~4/29	- 현지 지역정부 관계자 및 관계기관 연락을 통해 인터뷰와 미팅 일정 계획 - 설문지 사전 보사 및 수정 보완
	4/30	- 조사팀 미팅 : 현지조사 전체 일정 조율, 마을주민 설문조사 및 직업교육 교사 인터뷰 준비
	5/1	- 타노바로 마을 주민 200여명, 아동, 지역지도자 초청 오찬 - 마을 종교지도자, 이장, 반장, 지역정부 관계자 등 마을지도자 미팅 - 타노바로 마을 주민 111명 설문조사 - 영어, 목공, 봉제 직업교육 교사 인터뷰 - 봉제교육장 방문, 봉제교육 수강생 인터뷰
	5/2	- 삐디자야군 지역발전부, 사회복지국, 지역사회개발국 등을 방문하여 부서 책임자, 실무자, 인도네시아청년위원회 아체지부장과 인터뷰 - 삐디자야군 주민 설문조사 실시(타노바로 마을을 제외한 타 지역) - 카카오 가공사업 육성을 위한 직업훈련원 및 생산 공장 방문
	5/3	- SMK 1 직업고등학교 방문, 재학생 54명 대상 설문조사 - 공예품 가내수공업장 방문 인터뷰 - 삐디자야군 시장조사 - 설문지 취합 및 설문조사 답변내용 현지어→한국어 번역
	5/4	- 휴대폰 수리 및 오토바이 수리 직업교육 교사 인터뷰 - 휴대폰 수리점, 오토바이 수리점 방문 및 기술자 인터뷰 - 삐디자야 노동부 관계자 인터뷰
	5/5	- 반다아체주 직업훈련센터(BLK) 방문 인터뷰 - 침구클리닉 방문 인터뷰 - 쓰나미 박물관 방문
	5/6~5/18	- 현지 스탭들에 의한 추가 조사 시행(지진으로 손상된 삐디자야군 직업훈련원 방문 및 리뉴얼, 활용 가능성 논의, SMK 1 직업고등학교 세부 협력방안 모색 및 관계 구축, 메단 도시에서의 사업화 전략회의 등) - 마을 종교지도자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조사 및 향후 지원방안 모색

02 조사 항목 및 방법

	조사 항목	조사 방법	조사 기간
1	인도네시아 아체주 삐디자야군 직업교육 현황 이해 및 문제점 연구	인터뷰, 직접관찰	4/10~6/9
2	주민 생활 및 소득 수준 파악	설문지, 인터뷰	5/1~5/4
3	직업교육 경험 및 수요 파악	설문지, 인터뷰	5/1~5/4
4	봉제교육 현황과 교육 needs, 사업화 가능성 분석	설문지, FGD, 인터뷰	5/1~5/4
5	오토바이 수리 교육 현황과 교육 needs, 사업화 가능성 분석	설문지, FGD, 인터뷰	5/1~5/4
6	휴대폰 수리 교육 현황과 교육 needs, 사업화 가능성 분석	FGD, 인터뷰	5/1~5/4
7	직업교육으로써의 영어 교육 필요성과 영어교육 수준, 영어교육에 대한 인식 파악	인터뷰	5/1~5/4
8	직업교육으로써의 목공 교육 필요성과 가능성, 목공 일자리에 대한 인식 파악	인터뷰	5/1~5/4
9	직업교육에 대한 정부지원 상황과 주민들의 인식 조사	FGD, 인터뷰	5/1~5/5
10	직업교육을 통한 수익창출 및 취업 가능성 연구	FGD, 인터뷰	5/1~5/5
11	종교지도자의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 파악, 한국 기관과의 협력에 대한 지역사회 호응, 지도자의 협력 필요성 인식 파악	인터뷰	5/1~5/4
12	직업교육 유관기관(직업고등학교) 운영 상황 및 시스템 파악, 직업교육 지원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분석	문헌조사, 설문지, 인터뷰	5/1~6/9
13	장애인에 대한 직업교육 필요성과 인식 파악	인터뷰	5/2
14	지역 산업 및 상권과 소비 규모 파악	문헌조사, 직접관찰	5/2
15	빈곤 현황 및 산업 발전상황, ODA지원 현황 조사	문헌조사, 사례연구	5/1~6/9
16	직업교육 타당성 및 사업화 가능성 조사	인터뷰, 사례연구	5/1~6/9

03 조사 결과 분석

가. 지역정보

1) 인도네시아 국가현황

(1) 인구 : 2억 3,764만 명(2010년 기준, 세계 4위)

(2) 언어 : 인도네시아어

(3) 민족 : 자바족(35%), 순다족(13.6%), 아체족, 바딱족, 발리족 등 300여 종족

(4) 기후 : 열대성 몬순기후, 고온 무풍다습

(5) 종교 : 이슬람(87%), 기독교(10%), 가톨릭, 힌두교, 불교

(6) 경제현황

① GDP : 1조 205억$ 세계15위 (2016 IMF 기준)

② 1인당 GDP : 3,895$ 세계115위 (2016 IMF 기준)

③ 교역규모 : 수출 139억 달러, 수입 157억 달러, 총 교역액 296억 달러(2012년)

④ 화폐단위 : Rupiah(Rp), 1$=13,288Rp

⑤ 인도네시아의 최저임금 :

인도네시아 최저 임금 변동 추이(주요지역, 2013~2015년)

(단위: 루피아, %)

지방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자카르타	1,529,150	2,200,000	2,441,300	3,100,000
남부 술라웨시	1,200,000	1,440,000	1,800,000	2,250,000
서부 자바	780,000	850,000	-	2,250,000
동부 칼리만탄	1,177,000	1,752,073	1,886,300	2,161,253
중앙 칼리만탄	1,327,459	1,553,127	1,724,000	2,057,550
발리	967,500	1,181,000	1,321,000	1,807,600
중앙 술라웨시	885,000	995,000	1,250,000	1,670,000
반튼	1,042,000	1,170,000	1,325,000	1,484,000
동부 자바	745,000	866,250	-	1,150,000
욕 자카르타	892,660	947,114	-	1,108,249
중부 자바	765,000	830,000	-	1,1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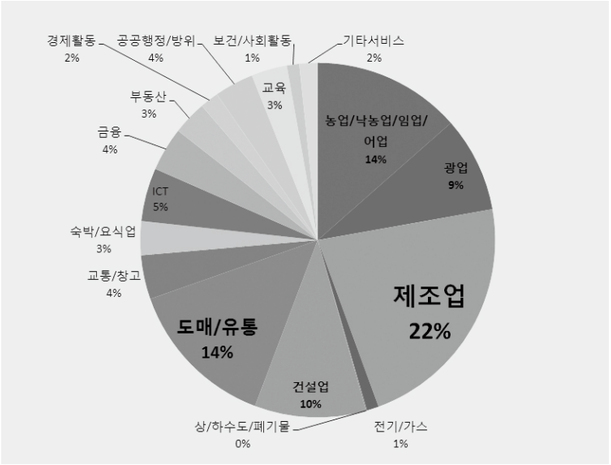
주: 일부 지역은 최저임금 미발표

자료원: WageIndicator.org, 인도네시아 통계청

(7) 산업현황

인도네시아의 산업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제조업으로, 2015년 기준으로 전

체 GDP의 22%를 차지함. 도매/유통 분야와 농업/낙농업/임업/어업 분야가 각 14%를 차지하며, 건설업이 10%, 광업이 9% 순임.



◎ < 인도네시아 GDP 산업별 비중(2015년 기준) >

자료원: 인도네시아 통계청

제조업에서 섬유/봉제 산업의 경우 인도네시아의 대표적 산업이나, 최근 임금 상승, 설비 노후화 및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전자산업은 텔레비전, 컴퓨터, 핸드폰, 냉장고 분야가 주종으로 삼성, LG, 도시바, 파나소닉, 샤프 등 한·일 기업 외 Polytron, Maspion, Sanken 등 인도네시아 독자브랜드와 중국 Midea 등이 선전하고 있음.

자동차는 인도네시아 국내 조립 일본차가 시장점유율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후 및 도로사정, 정부 조세제도에 따라 승합차 부문이 집중 성장했고, 구매력을 보유한 중산층의 증가에 따라 자동차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농업 분야의 주요 농산물로 팜, 고무, 카카오, 커피, 쌀, 옥수수 등이 있으며 팜 오일은 세계 1위, 고무와 카카오는 세계 2위, 커피는 세계 4위 생산국임.

건설 분야는 2014년 신정부 수립 이후 크게 성장했으며, 특히 해외 기업들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는 산업임. 최근 추진 및 예정된 인프라 프로젝트가 많아, 향후 관련 기업의 수요도 크게 확대될 전망임.

최근 분야별 성장률을 확인해보면, 세계 경기침체로 인한 원자재 수요 하락으로 광업 생산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음. 이외 제조업, 무역 부문 등에서 성장률 둔화가 나타났으나, 현지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수요 확대로 서비스업과 금융업은 성장세를 이어갔음.

(단위: %)

산업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9월
농업/낙농업/임업/어업	3.44	3.29	4.02	2.67
광업	1.41	-0.22	-5.08	-0.24
제조업	5.56	4.86	4.25	4.61
전기가스수도	5.78	5.50	1.21	6.20
건설업	6.57	6.58	6.65	6.56
무역호텔요식업	5.89	4.64	2.47	5.03
교통 창고	9.80	9.31	6.68	7.68
금융	7.57	5.96	8.53	10.53
서비스	5.47	5.92	8.08	7.83

◎ < 인도네시아 GDP 산업별 성장률(2013~2016년 3분기)

자료원: 인도네시아 통계청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시장에서 서비스산업 규모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로 손꼽히며, 규모면에서도 독보적으로 잠재력이 큰 시장임.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 업종의 비중은 아직 낮은 수준이며 향후 유통, ICT, 물류서비스 등이 유망할 것으로 기대됨.

(8) 현지 고용시장 현황

인니 고용대상 인구 1억 2,200만 명 중 취업자는 1억 1,500만 명으로 실업률은 약 6% 내외이며, 취업자 중 47.7%(5천 4백만 명)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이며, 대졸은 7.21%에 불과해 전반적인 인적자원 경쟁력은 낮은 편임. 취업자 중 7886만 명(68.8%)가 40시간 이상의 풀타임 고용직임.

분야	농업	무역·유통	서비스	제조	건설	운송	금융	기타
인원(백만 명)	38.29	28.49	19.78	15.97	7.71	5.19	3.48	3.09
비중(%)	31.38	23.35	16.21	13.09	6.31	4.25	2.85	2.53

◎ < 인도네시아 분야별 취업 현황 >

자료원: 인도네시아 통계청(2016년 12월 기준 최신자료)

인도네시아의 실업률은 최근의 높은 경제성장률로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2013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등락세를 보이고 있음. 2015년 8월 기준으로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1억 2,238만 명, 취업자 수는 1억 1,482만 명을 기록했음.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월	8월	2월	8월	2월	8월	2월	8월	2월	8월
경제활동 인구 (백만 명)	119.4	117.4	120.4	118.4	121.2	118.2	125.32	121.87	128.30	122.38
취업자수 (백만 명)	111.3	109.7	112.8	110.8	114.0	110.8	118.17	114.62	120.85	114.82
실업자수 (백만 명)	8.1	7.7	7.6	7.2	7.2	7.4	7.15	7.24	7.45	7.56
실업률 (%)	6.8	6.6	6.3	6.1	5.9	6.3	5.7	5.94	5.81	6.18

◎ <인도네시아 경제활동인구 및 실업률 >

- 주: 실업률 통계치는 매년 5월과 11월에 2월과 8월 기준으로 발표(2016년 자료 미발표)
- 자료원: 인도네시아 통계청(2016년 12월 기준 최신자료)

(9) 취업가능 유망 분야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으로의 취업이 유망하다고 볼 수 있음. 현지에 다수 진출한 일본, 중국, 유럽, 미국 등 글로벌 기업은 급여, 의사소통 등의 사유로 자국어 구사가 가능한 인도네시아인 또는 자국민을 선호함. 이러한 글로벌 기업들이 제3국인을 채용할 경우는 해당 업종, 직무 관련 전문자격, 교육이력, 최소 2~3년 이상 경력, 영어 또는 자국어, 인니어 구사자에 한정됨. 반면, 한국계 기업은 기술 전문직을 제외한 경우 일정 수준의 인도네시아어 능력과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의지만 갖춘 인재면 환영하는 추세임.

채용 수요가 가장 큰 분야는 봉제(의류, 신발)업이며 무역/유통, 일반제조, 건설업도 채용을 확대하는 추세임. 2015년 자카르타 무역관에서 실시한 업종별 인력수요 조사 결과, 210개사 대상 응답기업 127개사 중 봉제업이 54개사로 1위로 나타났으며, 유망 직무는 관리직(비율 37%), 총무 및 마케팅/영업(비율 30%) 순으로 나타났음. 채용 포인트로는 인도네시아 구사능력이 가장 중요하며, 관련 유사업종 경험자나 영어 등 제2외국어 구사 시 우대함. 제조업을 비롯한 구인기업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인도네시아 생활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인내력과 적응력 등 인성과 장기간 근무 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함.

(10) 한국 기업의 대인도네시아 투자 동향

연도	투자 실현	
	건수	금액(백만 달러)
2011	456	1,219
2012	421	1,950
2013	807	2,206
2014	1,336	1,127
2015	2,329	1,213
2016 / 3Q	1,944	7,438

◎ <연도별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 동향>

자료원: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원(BKPM)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의 특징은 타 국가 대비 투자건수가 많고 투자액이 적은 소형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는 점임. 포스코, 한국 타이어 등의 진출로 2013년에는 22억 달러를 투자해 정점을 기록했으나, 2014년의 경우 대형 투자가 마무리되면서 투자금액이 감소했음. 한편, 투자건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서 우리 기업의 높은 관심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2016년 3분기 누적기준 외국인 투자 8위국인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는 지역별로는 서부 자바, 자카르타, 동부 자바 순으로 이뤄졌으며, 개별 산업군별로는 금속/기계/전자업, 고무/플라스틱업, 운송/창고/통신업에 많이 투자된 것으로 집계됐음.

순위	투자 산업 및 업종 세부	투자 지역 세부
1	금속/기계/전자(1억 3,332만 달러)	서부자바주(2억 4,002만 달러)
2	고무/플라스틱(1억 195만 달러)	자카르타주(1억 1,266만 달러)
3	운송/창고/통신(6,990만 달러)	동부자바주(6,612만 달러)
대인도네시아 투자액 총계	7억 4,380만 달러(대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 8위)	
전체 투자액 대비 주요 업종 비중	41%	56%

◎ <2016년 3분기 누적 산업별, 지역별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 현황>

(단위: 천 달러)

구분	2013		2014		2015		2016	
산업분야	투자건수	투자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1차 산업 소계	51	188,484	43	314,601	97	442,105	91	64,299
농업/농장업	14	59,528	7	35,471	15	7,548	16	2,032
축산업	-	-	3	718	15	1,524	12	3,015
임업	4	23,526	7	5,080	24	1,688	28	29,420
수산업	3	-	3	5,500	2	115	2	-
광업	30	105,431	23	267,833	41	431,230	33	29,832
2차 산업 소계	329	1,778,776	490	640,478	1,225	597,808	1,010	470,949
식품	13	7,739	21	50,451	63	28,354	82	54,669
섬유	85	69,540	122	95,159	325	100,154	246	36,693
가죽제품 및 신발	27	35,294	51	95,767	130	50,662	86	66,631
목재	8	3,015	10	9,731	28	9,719	32	17,010
제지 및 인쇄	6	116	15	3,940	60	7,207	54	20,276
화학 및 제약	36	41,127	39	28,492	82	18,070	62	21,074
고무 및 플라스틱	37	44,582	59	140,172	120	165,307	114	101,948
비철금속	7	3,000	2	300	14	5,063	12	200
금속, 기계 전자	64	1,512,645	122	175,737	269	174,023	202	133,324
의료 및 정밀광학기계	4	2,571	2	7,016	4	270	3	724
자동차 및 수송장비	3	1,524	3	615	10	9,028	13	9,928
기타 산업	39	57,623	44	33,097	120	29,952	104	8,472
3차 산업 소계	291	238,220	521	171,539	1,007	173,555	843	208,559
건설	17	3,914	32	26,052	83	14,430	45	4,018
무역/수선	191	59,520	320	69,846	589	49,426	477	28,464
호텔/레스토랑	12	3,510	28	3,842	75	11,068	60	11,475
운송 및 창고/통신	10	26,389	25	12,625	40	33,137	26	69,903
부동산 및 산업단지	2	1,355	9	12,542	46	52,244	43	16,448
전기/가스/수도	3	133,385	8	29,261	7	0	18	44,944
기타 서비스	56	10,147	99	17,371	167	13,250	174	33,307
전체	671	2,205,480	1,054	1,126,619	2,329	1,213,469	1,944	743,807

◎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업종별 투자 추이>

주: 세부 산업별 투자금액 소계와 총 투자금액 차이는 반올림 차이임.

자료원: 인도

2016년 3분기 누적투자로 본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의 특징은 산림/임업, 목재/목가공업, 제지/인쇄업에 대한 투자가 전년 총 투자액 대비 작게는 2배에서 크게는 10배 가까이 증가한 경향을 보임. 전반적으로는 2차 산업에 대한 투자가 늘었지만, 3차 산업 투자는 3분기 누적이 2015년 전체 투자액보다 많을 정도로 3차 산업 중 운송/창고/통신업에 대한 투자와 전기/가스/수도업 투자, 기타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뚜렷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출처: KOTRA)

2) 삐디자야군 지역현황

(1) 인구 : 15만 8,546명

NO	면 이름	가구 수	주민등록 인구	남성	여성	총인구수
1	Meureudu	6,804	13,122	11,233	11,625	22,858
2	Ulim	4,437	8,882	8,089	7,946	16,032
3	Jangka Buya	2,777	5,856	5,170	4,982	10,152
4	Bandar Dua	7,723	15,732	13,673	13,758	27,431
5	Meurah Dua	3,565	7,180	6,154	6,201	12,355
6	Bandar Baru	10,684	20,506	18,343	18,372	36,715
7	Pante Raja	2,660	5,043	4,539	4,551	9,090
8	Tienggadeng	7,291	13,307	11,755	12,158	23,913
합계		45,941	89,628	78,953	79,593	158,546

(2) 언어 : 아체어, 인도네시아어

(3) 민족 : 아체족, 바딱족, 발리족 등 300여 종족

(4) 기후 : 열대성 몬순기후, 고온 무풍다습

(5) 종교 : 이슬람교 155,521명(99.99%), 기독교 8명, 가톨릭 1명, 불교 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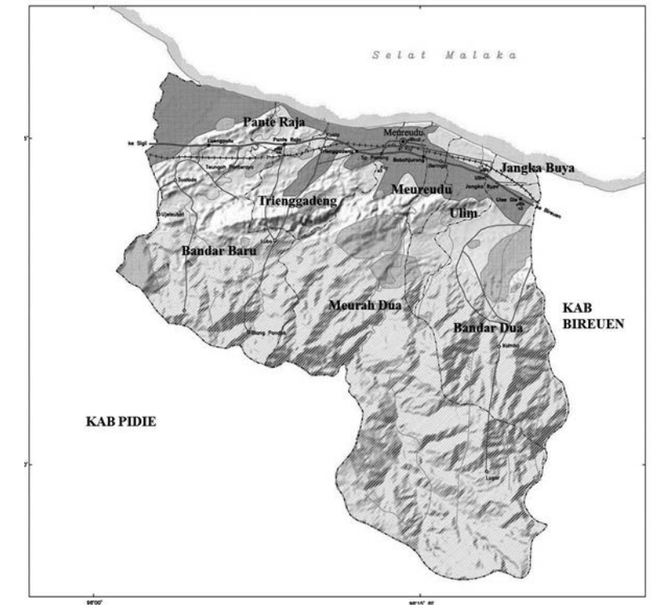
(6) 지리적 특성 : 아체주에 속한 18개 군 중의 하나

(7) 행정구역 : 삐디자야 군은 2007년 삐디 군(Kabupaten Pidie)에서 분리되었음. 군 전체 면적은 1163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며, 북쪽으로는 높은 산지이고 남쪽으로는 해안을 끼고 있음. 모두 8개 면(Kecamatan)과 34리(Mukim) 그리고 222개의 마을(Gampong)로 구성되어 있으며 8개 면의 이름은 다음과 같음.

- Bandar Baru : 43개 마을
- Pante Raja : 10개 마을
- Trienggadeng : 27개 마을
- Meureudu : 19개 마을
- Meurah Dua : 19개 마을
- Ulim : 30개 마을
- Jangka Buya : 18개 마을
- Bandar Dua : 45개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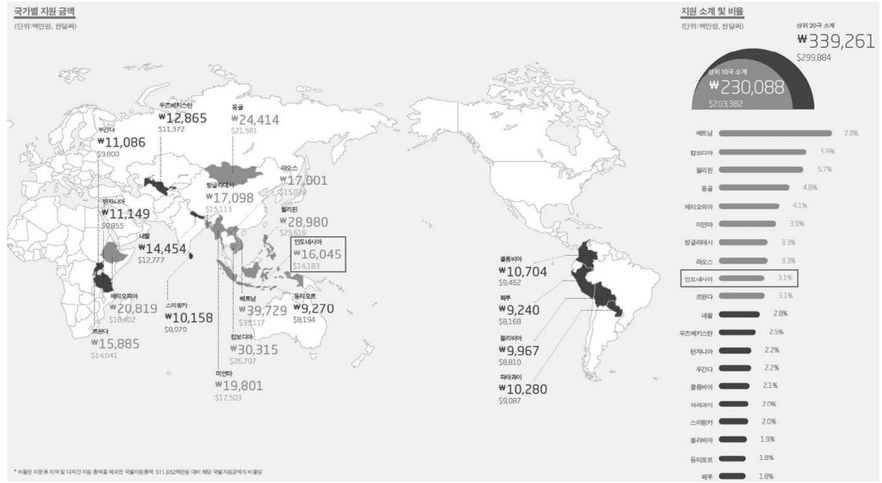
● 삐디 자야 군 경계선

- 북쪽: 말라카 해협
- 동쪽: Bireuen군 Samalanga면과 접경
- 남쪽: Pidie군 Tangse면, Mane면, Geumpang면과 접경
- 서쪽: Pidie군 Glumpang Tiga면, Glumpang Baro면, Kembang Tanjong면과 접경



(8) 우리 정부 및 국별 ODA 현황

① 한국은 양국 간의 우호적 관계 증진 및 인도네시아 전자정부 발전을 위해 건설적인 대안을 제공할 목적으로 인도네시아에 전자정부 ODA를 제공하게 되었음. 한국은 전자정부 ODA사업을 위해 행정안전부(한국정보화진흥원), 외교통상부(KOICA),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와 같은 중앙행정기관들과 그 산하단체들로 하여금 IT봉사단, 전문가 파견, 정보화 자재 지원 등을 진행해 왔음.



◎ 2015 KOICA 대외무상원조실적 통계

파트너명	금액 (₩)	금액 ($)	사업명
CJ CGV	187	166	인도네시아 청소년 영화창작교육('14-'16/총 699,960불/KOICA 349,980불)
대우증권	161	142	인도네시아 티모르 텡가 셀라탄 세이프 스쿨 지원 ('15-'17/총 844백만원/KOICA 422백만원)
두산인프라코어	89	79	인도네시아 중소 제조기업 공작기계 중급 숙련인력양성 지원 ('15/총 145백만원KOICA 73백만원)
삼익악기	115	101	인도네시아 취약계층 청소년 직업훈련('15/총 267백만원/KOICA 134백만원)
성공회대학	331	293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주 대학 기반 지역개발 역량강화 ('15/300백만원/APP1-2/성공회대학교)
신한은행	245	217	인도네시아 길거리 아동과 어머니를 중심으로 한 취약계층의 건강한 자립 역량 기반조성 ('15/총 400백만원/KOICA 200백만원)
아프리카아시아난민교육후원회	33	29	인도네시아, "ADRF 드림센터: PC 기술교육에 기반 한 길거리 청소년 역량강화"
코너스톤즈	136	120	상황인지 기반 실시간 대피안내 시스템 시제품 제작 및 실용화
한국건강관리협회	110	98	인도네시아 초등학생 건강증진 지원 ('15-'17/422백만원/CPP/한국건강관리협회)

◎ 2015 KOICA 민관협력 현황(인도네시아)

나. 분야별 이슈(사업 분야)

1) 삐디자야군 직업교육 현황

(1) 직업교육 현황

– 삐디자야군 직업고등학교 졸업생 수(2014~2015)

지역 구분	남학생(명)	여학생(명)	합계(명)
Meureudu	–	4	4
Meurah Dua	–	–	0
Bandar Dua	45	21	66
Jangka Buya	–	–	0
Ulim	10	5	15
Trienggadeng	21	14	35
Panteraja	–	–	0
Bandar Baru	36	21	57
삐디자야군 총계	112	65	177

출처: Dinas Pendidikan Kabupaten Pidie Jaya

– 삐디자야군 직업고등학교 학생 및 교사 수(2015)

지역 구분	학교 수	학생 수(명)	교사 수(명)	학생-교사 비율
Meureudu	1	11	9	1.22
Meurah Dua	–	–	–	–
Bandar Dua	1	303	48	6.31
Jangka Buya	–	–	–	–
Ulim	1	60	34	1.76
Trienggadeng	1	130	34	3.82
Panteraja	–	–	–	–
Bandar Baru	1	315	45	7.00
삐디자야군 총계	5	819	170	4.82

출처: Dinas Pendidikan Kabupaten Pidie Jaya

(2) 직업교육 정책 및 전망, 관련 문제점

- 직업교육으로 가장 욕구가 높은 분야는 오토바이 수리, 봉제, 휴대폰 수리였으며 그 다음으로 욕구가 높은 분야는 축산업이나 양계임. 그러나 과거에는 직업훈련센터에서 이러한 욕구와 전혀 무관한 분야를 교육시켰음.
- 직업훈련센터가 과거에는 있었으나, 2005년 쓰나미로 인해 파괴되었고, 최근에 다시 건축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작년에 발생된 지진으로 역시 큰 손상을 입어 아직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 부족한 재원으로 어렵게 추진된 사업들이 재해로 인해 중단되면서 그나마 갖고 있던 추진 동기가 약화되고, 이렇다 할 대안 마련을 못하고 있음. 본 재단에 손상된 기존 시설의 리뉴얼 가능성과 재건, 또는 새로운 부지에의 신축 등을 타진해 오기도 하였으나 손상된 시설은 안전문제로 리뉴얼과 재사용이 어려운 상황이고 신축을 추진할 경우에도 내진설계 등 안전설계를 거치지 않으면 반복적인 어려움에 빠질 우려가 있음.
- 직업교육에 대한 욕구가 주민과 지역정부 책임자 모두에게 높은 편이나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고, 중앙정부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다가 그 지원조차 비정기적으로 이뤄지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
- 직업교육을 공공기관 주도로 실시하는 것이 있기는 하나 재료비 부족, 실습 기자재부족 등으로 교육이 실제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단기 교육으로 그치는데다가 후속 교육 및 사후 관리가 전무하고, 취업연계를 사실상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 어서 지역정부의 직업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임. 담당 공무원이 직업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 인원수에 비례한 수당을 받게 되는 관계로 사실상 수당을 받기 위한 직업교육 실시라는 형식적인 형태로 직업교육이 진행되는 안타까운 상황.
- 직업교육의 주 대상은 젊은 여성과 직업이 없는 청년들이나 특히 젊은 여성들의 경우 이미 다양한 근로 형태로 근로시간이 높고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까지 갖고 있으면서 다시 추가적인 직업교육으로 근로시간이 더욱 높아지는 상황이어서 실직상태에 있는 중년 남성에 대한 직업교육과 장년, 노년층의 근로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직업교육이 함께 모색될 필요가 있음.

2) 직업교육 지원 사업 타당성

(1) 직업교육에 대한 현지 수요(욕구)

a. 봉제

- 봉제를 가르치는 디아미카 교사의 경우(경력 30년) 이 지역에서 12년 교육 경력을 갖고 있으며 처음에는 무료로 가르쳤으나, 이후에는 교육생들이 재료비만 부담하고 있고, 교육비는 계속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음. 주 교육대상은 20~30대 기혼 여성들이며, 직업학교의 봉제교육 교사나 졸업생 중에서 좀 더 수준 높은 실력을 갖추기 위해 배우러 오기도 함. 교육기간은 3개월 기본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옷을 만드는 수준의 실력으로 제대로 배우려면 1년 이상 배워야 함(기본교육, 심화교육, 마스터 과정 등). 교육을 진행함에 있어서 교육생들의 개인적인 소질이나 습득하는 능력에 따라 수준 차이가 있음. 교육 후 봉제공장에 취직하여 일할 경우 하루 10만 루피아(9,000원) 정도를 받을 수 있음. 이 지역은 옷가게가 많지 않은 상황이고 시장이 크지 않아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메단'이라는 대도시에 가서 판로를 개척해야 함. 교육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으나 교육을 희망하는 인원에 비해 교육 장소가 협소하고, 다른 교육과 함께 병행하는 장소이다 보니 추가 작업과 상품생산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아쉬움이 있음. 초보 교육생들의 경우 재봉틀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서 고장을 내거나 손가락을 다치는 경우도 있음. 봉제교육으로 배출된 교육생은 꼭 가게를 창업하거나 취업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가정에서 상품을 만들거나 마을 단위의 공동작업장에서 공동으로 물건을 생산해 판매하는 등 가내수공업 형태로도 충분히 사업화할 수 있고 수익 창출이 가능함. 특히 이 지역은 강성 무슬림 지역으로 라마단을 앞두고 모든 사람이 새 옷을 만들어 입거나 집안 내 커텐 등 소품을 새로 장만하는 관습이 있어서 특정 시기에 수요가 몰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시기를 적극 활용하면 수익 창출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음.
- 현재 한코리아에서 지원한 교육비로 1기 교육생을 모아 교육하고 있는데 처음 계획하였던 3개월보다 최소한 3개월 더 교육할 수 있기를 희망함. 이전에 공공기관에서 교육을 추진할 때는 수료 시에 한 명당 재봉틀 1대를 지원해줘서 가정에서도 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준 적이 있는데 이런 지원도 함께 병행된다면 더욱 좋겠음. 아울러 현재 재료비가 예상보다 초과된 상황인데 추가 재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면 숙련된 교육생을 중심으로 제품을 만들어 삐디자야 시장과 메단 대도시로 나가 판매하여 이후 교육을 지속시키고 공동사업장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 싶음.

b. 오토바이 수리

- 오토바이 수리 교육을 받았던 교육생의 경우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엔진 연결하는 부분의 스타팅 모터였으며, 교육 기간 동안 실습용 오토바이 한 대를 두고 여러 교육생이 부문별로 그룹을 나누어 배우느라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웠음. 교육기간이 짧은 데다 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다보니 실력이 부족해 수리점을 열어도 손님이 많지 않고, 수입이 적어 다시 농업이나 어업으로 되돌아가는 경우도 많음. 함께 교육받은 오토바이 수리 교육생 20명 중 2명은 오토바이 수리를 가르쳤던 교사의 사업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으며, 9명은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일하고 있으나, 소득은 가게마다, 수리 건수마다 모두 상이하며 사실상 기술을 배우면서 무급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오래 일하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음.

c. 휴대폰 수리

- 휴대폰 수리교육은 2016년에 인도네시아 청년위원회 아체지부의 사업으로 정부 지원 예산을 받아 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음. 이 가운데 7명이 수리점에서 일하고 있으며 보통 휴대폰을 판매하는 대리점 내부에 소규모 수리점을 두고 일하기도하고 수리만 전담하는 가게를 창업하는 경우도 있음. 휴대폰 수리는 1개월 교육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주로 신호문제, AC Power문제, 배터리 충전 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에 대하여 수리를 진행함. 다른 직종에 비해 소득이 높으나 휴대폰이 빠른 시기로 교체되고, 관련 기술이 빠르게 진보하면서 난이도가 높거나 중요한 결함은 사실상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간단한 수리 수준만 취급하고 있음.

d. 목공

- 삐디자야군 내에는 목공을 교육하는 곳이 아예 없어서 관련 기술자가 희소함.
- 이 지역에서 목공일을 하는 사람은 대략 50명 정도 되지만 그 중에 지역주민은 한 명도 없고 모두 외지에서 들어온 인력임.
- 목공교육은 단기간으로는 교육하기 어렵고 1년 커리큘럼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나, 실습에 따른 재료비가 높고 다수의 교육생을 한꺼번에 교육할 수 없는 어려움 이 있음(최대 5명까지 단체교육 가능)
- 초급 목공 기술자는 보통 하루 10~20만 루피아 정도 일당을 받고 일함. 숙련 인력이 워낙 희소하기 때문에 꾸준히 일하고 숙련 기술자가 되면 상당히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건축업자와 갑을 관계로 영향을 받거나 별도의 비용을 요구받는 등 어려움도 있으나 목공 기술을 자녀들에게 전수하여 가업으로 넘겨줄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지역의 수요는 다양하며, 가구 제작, 건축 재료 공급 등 규모가 큰 단위부터 생활소품까지 제작함.
- 목공 직업교육을 진행할 경우 교사에 대한 교통비, 식비, 강사비가 필요하며, 본인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협조할 의향이 있음. 교육기간이 긴 관계로 교육기간 중 별도의 직업훈련비라든지 소요 비용을 소액이라도 지원해준다면 교육생들이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교육을 이수하고 자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봄.

e. 영어

- 이 지역 사람들은 모두 영어를 제대로 배운 경험이 없음. 젊은 층에 영어를 교육시키고 전문용어를 가르쳐 주는 등 직업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 면 훨씬 더 많은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소득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특히 봉제교육생들이 영어를 배워서 외국 기업에 취업하기를 원함. 외국 또는 타 지역으로 가서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얻는데 영어가 꼭 필요하며 근로 조건이 압도적 으로 차이 나기 때문에 미혼자들은 국내에 들어온 외국기업이나 말레이시아 등 인근 에 있는 외국으로 나가 취업하기를 원함.
- 인접지역인 시글리 마을에 위치한 국제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으나 교육의 질이 낮음.
- 마을 종교지도자의 요청으로 최근 본 재단에서 영어 교육을 시작했음. 현지 주민과 지도자들의 관심이 높으며 지속적인 교육 실시를 희망하고 있음.
- 정식 영어 교사들의 경우 월 25~3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음.
- 직업교육 수강생들에게 영어 교육을 진행할 경우 일반적인 직업교육과는 다르기 때문에 1~2년 정도 가르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함.
- 영어교사로 인터뷰를 진행한 메리의 경우 현재 영어를 전공한 대학생으로 졸업논 문을 작성하는 중이며 현재는 교통비, 식비만 받고 자원봉사 교사로 활동하는 중임.

f. 기타

- 이외에도 중장비 운전, 생선 가공, 제빵, 용접 등의 직업 교육이 진행되었음. 중장

비 운전 교육의 경우 정부로부터 중장비를 빌려서 진행하였고, 실습재료비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받았으나 부족했음.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단기교육으로 인한 지속성 부 족, 재료비와 실습 기회 제한, 후속관리 부족에서 오는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음.

(2) 활용 가능한 인적 물적 자원 유무

- 한코리아는 2005년부터 아체주 대지진 및 쓰나미 피해지역을 위한 구호사업 현장업무를 수행해온 재단법인 야라빠를 현지 파트너 기관으로 선정하여 2016년 12월 발생한 아체주 대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삐디자야군 지역 긴급구호 사업으로 피해가옥 보수, 공동화장실 설치, 옷장 제작 등의 재난구호 활동을 진행하면서 협력관계를 맺음. 이후 아체주 삐디자야군 주민들의 소득 증대 및 빈곤 완화를 위한 직업교육 필요성이제기됨에 따라 자체 기금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으며 보다 체계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이번 지역조사를 함께 진행하게 되었음. 이 지역조사를 계기로 향후 직업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위해 지역정부와 원할히 협력해 온 재단법인 야라빠 유재정 대표를 포함한 모든 현지인 스텝을 활용할 수 인적 인프라를 마련하였고, 사업 확대 시 협력할 수 있는 주요 지역 관계자와의 협력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코이카 민관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INGO 등록을 추진하고 있음(현재는 지역정부에 등록된 재단법인 형태임).
- 삐디자야군 내에 위치한 SMK1 직업고등학교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청소년 및 청년층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지원하고 학교시설과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마쳤음. 특히 마을 종교지도자가 직업고등학교 발전위원회 이사로 일하고 있어 학교시설과 공간을 활용하고 직업교육 교사와의 연계로 향후 직업교육 사업에 활용 가능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함.
- 또한 작년 12월 발생한 지진 피해로 인해 복구하고 있는 군청 산하 건물이 수리가 완료 되면 삐디자야군 노동부를 통해 공간 활용을 협조받을 수 있는 협력관계를 마련함.

(3) 지역 주민들의 인식 및 역량 조사

- 설문조사 및 FGI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과 역량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설문조사 응답자의 83%가 직업교육이 본인과 가족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73%의 응답자가 직업교육 수료 후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음. 지역정부 관계자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대다수의 주민들 역시 직업교육을 희망하고있고 정부부처에서도 직업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원에 대한 의지가 많으나, 중앙정부로부터 전달받는 예산이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수준이라서 외부지원 없이는 효과적인 직업교육을 진행하기는 어려워 보임. 다만, 주민들 스스로 가내수공업을 통해 돗자리나 방석, 지갑 등의 전통공예품을 만들거나 봉제를 통해 옷감을 활용해 만든 상품을 판매하는 등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의지가 보임.

(4) 지지적 환경요소

- 지역주민들의 직업교육 욕구가 높음.
- 지역정부와 종교지도자의 적극적, 지속적 협력 의사가 높음.
- 현지 파트너 기관이 지역정부 및 마을주민들과 충분한 신뢰관계를 갖고 있고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무엇보다 직업교육을 맡아 진행할 수 있는 우수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사업 추진 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한국 기관에 대한 종교지도자와 정부관계자의 긍정적 태도. 적극적인 협력 의지.

(5) 저해적 환경요소

- 잦은 지진으로 인한 시설 피해의 우려로 지역 내 입주한 기업이 전무할 정도이며, 낮은 경제 인프라로 인해 지역시장의 규모가 상당히 낮음.
- 지역 내 소비가 제한적인 경우 타 지역으로의 운송비용이 높음.
- 낮은 시장경제 규모로 인해 직업교육 후 판로개척 및 수익창출 구조를 함께 개선해주지 않으면 직업교육을 진행하더라도 효과성을 높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봉제, 공예품 제작 등의 직업교육은 주로 여성들이 배울 수 있는 직업교육인데, 모계중심 사회 속에서 여성들이 육아와 경제권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관습이 있기 때문에상대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남성들이 많음. 따라서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일자리 창출도 고려하여 직업교육 분야를 고민해야 함.

(6) 직업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방안 모색

- 직업교육에 대해 주민들과 정부 모두 높은 욕구를 보이고 있으며 교육 시설과 인프라구축도 필요해보이나, 지역정부의 협조를 통해 기존에 만들어진 건물의 잉여공간을 활용하거나 공간 임대를 통해 간단한 구조의 교육장을 마련함으로써, 사업 초기부터 큰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직업교육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모색함.

다. 지역 내 타 기관(NGO, 정부, 국제기구)의 활동 현황

1) 인도네시아 및 아체주, 삐디자야군에서의 타 기관 직업교육 활동과 사업 현황

(1) 아체주 내 타 기관 직업교육 활동

a. 반다아체 직업훈련센터(BMK)

- 봉제, 오토바이 수리, 용접, 냉방시스템 등의 직업교육을 진행해왔으며, 고등학교를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함. 봉제의 경우 아체 전통무늬를 활용하여 교육시켰음. 반다아체의 경우 도심지역인 관계로 에어컨과 냉장고가 많이 설치되어있어 냉방시스템 교육이 가능한 것임.
- 직업교육 프로그램은 정부의 예산을 받으면 진행하고, 지원받지 못하면 교육을 진행하지 않고, 직업교육을 진행할 교사는 진행이 필요할 때마다 외부섭외를 통해 진행했음. 작년 한 해 동안 직업교육을 받은 인원은 약 200명 정도이며, 작년에 장애인 20명을 대상으로 봉제교육 진행한 경험이 있음.
- 2004년 쓰나미 이후 시설이 세워졌으며, 오토바이 수리와 봉제 교육을 가장 많이 진행해왔고 반다아체 시에서 관할하는 센터이며, 아체주 관할 직업훈련센터는 다른지역에 있고 아체주 전체에 군 단위로 한 곳씩 설립되어있음. 주 사업대상지역인 삐디자야군도 한 곳 설치되어 있음.
  마땅히 교육시설이 없는 다른 사립 직업훈련센터에서도 이곳의 시설과 공간을 빌려서 직업교육을 진행하기도 함.
- 사실상 교육 기자재들이 노후화되어 있고,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으며 교육시설을 무료로 대관하는 제한적 기능에 머물러 있고, 후원을 희망함.
- 아체주에서 주관하는 직업훈련센터 직원들을 위한 국내외 교육 프로그램도 있으나,길게는 몇 개월에 걸쳐서 진행되기도 하고 해당 기간 동안 보수가 없으며, 교육비용을 본인이 직접 충당하는 상황으로 별로 반가지 않는 분위기임. 또한 연수 후 재정의 부족으로 본인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는 것도 담당자들이 역량을 키우는데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음.

b. SUKE ACEH 가내수공업 사업장

- 삐디자야군 내 위치해 있으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쓰나미이후 복구지원의 일환으로 이 사업장을 지원해주었음.
- 2006년부터 실제 사업자 등록을 하여 공예품 가내수공업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삐디자야군 정부를 통해 자카르타 전시회에 출품하여 판매하기도 함.
- 이 사업장에서는 쓰나미 당시 교육을 받은 현재의 대표자가 중심이 되어 마을 주민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데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함.
- 이 사업장에서는 피낭 나무를 활용하여 공예품을 만들고 있으며, 주민의 70%가 아체를 대표하는 전통공예품을 만들어 팔고 있으나 아직까지 다른 NGO의 지원은 없고 대표자가 전적으로 운영을 책임지고 있음. 전시회 출품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렇다할 대형 판매루트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농사일을 하면서 이 일을병행하기 때문에 특정 시기에 일이 몰리면 인력 수급이 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음.
- 작년에 연 1회 수도 자카르타에서 4월에 개최되는 전통문화 전시회에서 네 가지 공예품 200여개를 전부 판매하는 등 호응이 좋고, 이후에도 꾸준히 주문이 들어오고 있으나 인도네시아 국가의 특성상 주로 섬지역으로 제품 운송에 제한이 많아 사업을 확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2) 인도네시아 내 타 기관 직업교육 활동

a. 삼익악기

삼익악기의 경우, 자카르타 인근 농촌지역인 칠릉시 지역의 청소년 직업훈련을 통하여 대도시 우범지대 유입을 막고 기술 인력을 양성하여, 직업교육 실시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였음. 인도네시아 노동부와 MOU 체결완료, 간담회 개최, 졸업증명서 공식인증협조 및 지방관청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구축하였음. 인근 칠릉시 지역은 대다수 인구가 농촌에 거주하며 낮은 소득수준으로 빈곤에 처해 있는 BOP 지 역으로, 지역사회의 일자리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청년들의 일 자리와 소득에 기여하면서 삼익악기가 필요로 하는 목공예와 피아노 조율 전문인력의 양성으로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비즈니스 전략을 추구해 CSV 모델에 근 접하고 있음. 지난 20년간 현지인을 90% 이상 고용하며 현지 생산도 기타 100%, 피 아노 90%로 칠릉시 향토기업으로 현지화되어 있음. 이 지역의 청소년들은 중학교 졸 업 후 진학률 및 취업률이 낮아 도시 저소득층으로 유입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들에 게 지속적으로 직업훈련을 시켜 청소년 탈선을 감소시키고 현지 고급 기술인력을 양성 하여 지역의 고용 증대 및 경제발전에 기여함.

이 학교 설립의 목표는 빈곤지역의 고용 및 지역가게 소득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청소년들에게 기업이 원하는 기술교육을 제공하며,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원활한 기술인력 확보, 한국 국가이미지 및 삼익의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임.
2012년부터 악기제조와 직접 관련이 있는 피아노 조율 1개반, 목공예 2개반(기타, 피아노) 등 교육과정 3개를 개설하였고, 이어 제빵 및 봉제반이 마련됨. 우수 학생 들은 삼익악기 현지공장 취업 연계 프로그램도 진행하며 학생 수는 1기 50명에서 500여 명까지 점차 확대할 계획임. 향후 삼익 인도네시아 및 유럽, 미주의 바이어 기 업이 매칭 펀드로 운영기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이 학교를 운영할 계획임(200,000 달러 소요).

피아노조율반, 목공예반, 제빵, 봉제 과정 수료생을 중심으로 실무에 투입하여 실무적 응 훈련을 하여 고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수강생들에게 실무경험을 쌓도록 함.

- 훈련기간: 1개월
- 훈련 장소: 삼익 인도네시아 공장
- 훈련 내용: 악기 제작 및 검수 실무

〈우수졸업생 고용프로그램〉

- 직무적응 훈련을 통과한 수료생들 중 본인이 희망하고 직업훈련 교사 및 실무적응 훈련 슈퍼바이저가 추천한 졸업생에 대하여 삼익인도네시아에서 고용하도록 함.
- 직업훈련 성적표 및 추천서 수령(교사 및 슈퍼바이저) → 지원서 제출 → 회사 측 검토 및 면접전형 → 채용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160명, 160가구가 수혜를 받을 예정임. 2011년부터 KOICA의 지원을 받았으며, 삼익악기, 사단법인 코피온, PT Samick Indonesia, Yayasan Sakolah Teknik Samick Indonesia의 협력으로 추진.

〈개발협력의 성과〉

삼익악기는 이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청소년의 직업능력이 향상되고, 직업훈련생의 고용이 점차 확대되어 사회일원으로서 책임과 실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함. 연간 160명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취업률 70%, 고용 지속률 50%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이 사업은 저소득층 남. 여 청소년에게 기술 직업훈련을 시키고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남성, 여성 구분 없이 취약계층의 고용을 창출하여 청소년 탈선을 감소시켜 청소년 인권의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또한 단순한 봉사활동에서 출발해 공급사슬이 형성될 가능성을 보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음. 기업의 비즈니스와 CSR의 연계성이 높으며, 직업훈련 대상자들의 일부를 고용할 계획이 마련되어 있음. 다국적 기업으로서 국제 악기시장과 인도네시아 현지의 수요에 따라 고용범위와 효과는 크게 달라질 것임. 단순기술을 획득한 저소득층이 구체적인 금융,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BOP 창업에 있어서는 큰 기대를 하기 어려울 것임. 또한 고용창출로 인한 빈곤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훈련기간 1개월의 단순기술자가 안정된 소득을 가진 직업을 얻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임.

2) Networking 가능성 및 협력방안 모색

– 현지조사를 위한 파트너 기관으로서의 재단법인 아라빠 유재정 대표는 2005년부터 인 도네시아에서 현지주민들을 진료하고 있는 침구의사로서, 2005년부터 아체주 대지진 및 쓰나미 피해지역을 위한 구호사업 현장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새싹유치원과 컴퓨터 교 실 등 교육 사업도 진행한 바 있음. 본 재단은 2016년 12월 발생한 아체주 대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삐디자야군 지역 긴급구호 사업을 위해 재단법인 야라빠를 파트너 기관으로 선정하여 피해가옥 보수, 공동화장실 설치, 옷장 제작 등의 재난구호 활동을 진행하면서 현지 지원 사업을 위한 파트너기관으로 협력관계를 맺었으며 이후 지역 주 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직업 교육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현지의 요구를 받아들여 봉 제 등 시범사업으로 직업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라. 이해관계자 정보

	이해관계자	위치			위치한 이유	강점 및 약점	위치변화전략
		0	−	+			
1	사업대상자 선정 그룹			+	교육대상자 선정으로 인한 기대감	교육 참여에 대한 강한 욕구 vs 취업 등의 후속대책 요청	
2	교육대상자 탈락 그룹		−		교육대상자 탈락에 대한 좌절감	후속 사업 추진 시 대상자 선정에 대한 기대 vs 탈락 이후 대안 부족	추가 모집에 대한 방안 모색
3	직업교육 관련 사업장 그룹		−		경쟁자로 인식할 가능성	직업 전문성 vs 전문 인력 수급	운영 노하우 공유, 교육 강사로 사업 참여 유도
4	직업고등학교			+	청소년 직업교육 지원에 대한 기대감	청소년 대상자 및 교육시설 보유 vs 예산 부족	직업고등학교 교사 역량강화, 졸업생 심화 교육 등으로 연계방안 마련
5	마을지도자			+	마을 발전을 주도한다는 자긍심을 갖고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보임	마을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주도적으로 설득할 수 있음 vs 사업성과에 따라 비협조적 태도를 보일 수도 있음	
6	종교지도자			+	마을 발전을 주도한다는 자긍심을 갖고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보임	모든 의사결정을 주도하거나 결정할 수 있음 vs 사업성과에 따라 비협조적 태도를 보일 수도 있음	
7	지역정부 관계자			+	주민소득증대를 통한 지역정부 재정의 안정성 확보, 지역 발전에 필요한 파트너기관 확보에 따른 기대감	지역정부 책임자로서의 권한과 지위 vs 임기만료(재선이나 재임명에 실패할 경우 권한 축소)	
8	수행기관	0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과 현지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의 기회	현지 파트너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vs 직업교육 경험 부족과 사업 목적 달성에 대한 부담감 공존	사업기간과 현지 여건에 맞는 실현 가능한 목표 설정, 주민 참여기회 확대, 수행기관만의 사업이 아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동의 사업으로 인식

◎ <이해관계자 식별 및 분석>

마. 범분야 이슈

1) 인권 증진 : 본 사업으로 빈곤층과 취약층(어린이 및 여성)의 인권이 증진되는데 긍정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종교 및 문화, 관습 : 삐디자야군 주민 155,531명 중에서 극소수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 가 이슬람교도임. 특히 라마단 기간이라든가 매일 정해진 기도 시간을 고려하여 교육기 간과 사업운영시간을 편성하도록 해야 함.
3) 교육기회 확대 : 직업교육을 통해 빈곤층 가정의 부녀자,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에게 직 업교육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취업 또는 사업장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 율을 낮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4) 빈곤감소 및 소득증대 : 삐디자야군 지역정부 및 유관기관, 해당 마을지도자의 협조를 통 해 빈곤층 가정 위주로 교육 대상자를 선발하여 직업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취업 또는 가 내수공업으로 이어 지게 하여 소득을 발생시켜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5) 공동체 의식 강화 : 삐디자야군 내 여러 마을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늘리고 빈곤가정 또는 소외계층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순차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역사회 단결과 협력 강 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됨.
6) 지역개발 활성화 :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 화에 기여하고 교육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측됨.

04 변화의 영역

가. 주목 분야

1) 아체주는 인도네시아에서도 이슬람 종교성이 강한 지역에 속해 있으며, 삐디자야군은 아 체주 중에서도 소득이 매우 낮고 빈곤층 인구가 높은 지역임. 2004년 쓰나미와 작년 12월 지진을 포함하여 잦은 지진으로 인해 산업과 시장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부실한 편임. 주 민들 대부분이 봉제나 오토바이 수리 등 기술기반의 직업교육을 원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도 직업교육 및 취업 지원에 대해 상당히 호의적이나 전문성과 예산이 부족한 상황임. 주 민들이 원하는 직업교육을 지원하고 실제 취업 또는

창업, 제품 및 서비스 판매 등으로 연계하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빈곤 감소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으로 전망됨.

2) 이를 위해 먼저 봉제교육이나 오토바이 수리 등 1차적으로 진행 가능한 시범사업을 통해 직업교육 가능성을 검증하고 이를 확대하여 지역 주민들이 빈곤에서 벗어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과제로 함.

나. 현지의 수요 및 상황

1) 직업교육 수요 파악

(1) 지역조사 후 봉제, 목공, 오토바이 수리, 영어교육 이외에도 휴대폰 수리, 수공예를 통한 전통공예품 가내수공업, 자동차 정비, 컴퓨터 프로그램 등 추가적으로 수요가 있는 직업교육 분야가 파악되었음.

(2) 봉제교육의 경우 30년 이상 가르친 경험이 있는 교사가 지역주민(마을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봉제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 수준을 높여가면서 판매 가능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마을 사업장을 함께 운영하여 봉제교육을 받은 교육생들이 교육 후 그룹별 제품생산으로 소득을 창출 할 수 있는 사업화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범사업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2) 지역 발전에 대한 견해 차이

(1) 인도네시아 청년위원회 아체지부장

- 삐디자야군은 토양이 비옥하여 야자열매가 잘 자랄 수 있으며, 야자수 재배와 함께 가 공공장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하여 각 마을마다 3,000평 크기의 야자수 농장을 조성하고 각 가정마다 야자수를 심는 운동을 계획하고 있고, 현재 45 가구에서 시범적으로 야자수를 재배하고 있음. 야자수 묘목 1그루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은 약 15 만 루피아(한화 15만원)정도임. 야자수 물을 판매하거나 오일을 추출할 수도 있으며 줄 기를 활용하여 끈을 만들고 껍질은 숯을, 잎은 빗자루를 만들기도 하는 등 버릴 부분이 없음. 향후에는 오일 공장도 세워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싶음. 오토바이 수리나 휴대폰 수리 직업교육을 진행해본 적이 있으나 자본이 없고 이미 자리를 잡은 경쟁자들이 있어 서 초기 진입이 어렵다고 생각함. 특히 가게를 열어도 수입이 많지 않음. 올해 5 만 그루의 야자수를 심을 계획을 갖고 있으나 이를 추진할만한 예산이 없어서 진행이 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음.

※ 이 의견에 대해 지역 주민들, 특히 직업교육 수료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현실과는 동떨어진 의견이며 주민들은 공감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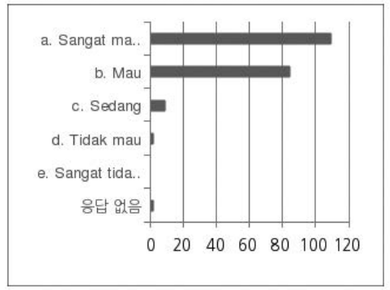
(2) 삐디자야군 주민 설문조사

- 삐디자야군 주민들 2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92%에 달하는 주민들이 직업교율 프로그램이 개설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지역정부 및 유관기관 인터뷰에서도 직업교육의 필요성과 주민들의 욕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다만 사후 관리와 취업 연계 에 대한 불신이 높고, 실망감이 높음.

〈직업교육 프로그램 참여 희망여부 설문조사〉

- a. 매우 그렇다, b. 그렇다, c. 보통이다, d. 그렇지 않다, e. 매우 그렇지 않다

2. Jikalau Pelatihan pekerjaan sudah di buka atau dimulai, apakah anda mau mengikutinya?



a. Sangat mau	109	52%
b. Mau	84	40%
c. Sedang	9	4%
d. Tidak mau	2	0%
e. Sangat tidak mau	0	0%
응답 없음	2	0%

3) 가내수공업 가능성

-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조사한 결과 봉제와 공예품 제작을 활용하는 가내수공업도 직업교육으로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주민 206명 설문조사 결과, 봉제, 목공, 오토바이 수리, 영어, 침구 등의 직업교육 중에 선호하는 직업교육으로 봉제교육을 가장 많은 사람들이 1순위로 선택하였음(봉제교육을 택한 사람 109명, 52%).
- 현지 파트너기관인 야라빠 재단에서 봉제교육을 원하는 지역주민 24명을 우선 선발하 여 2월부터 교육을 진행해왔으며, 현재 베개나 담요 등을 제작할 수 있는 수준임.

몇 개월에 걸쳐 심화교육 단계를 이수한 후, 가내수공업으로 사업화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 으며, 이를 기반으로 봉제교육을 통한 소득창출로 연계가 가능한지를 판단하고자 함.

4) 종교위원회의 중요성

- 마을 종교지도자와 삐디자야군 종교위원회에서도 이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소득 증대, 빈곤 감소를 위해 직업교육이 필요하며, 그중에서도 봉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주민들이 모두 강력한 이슬람교도이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아체주가 상대적으로 이 슬람 종교성이 매우 강한 지역이므로 이슬람 종교를 존중하고 종교지도자와 협력하는 것 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10년 이상 아체주에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펼쳐온 현지 파트너 기관에 따르면 이슬람 종교지도자와 종교위원회의 협력이 각 정부부처의 협력보다도 우위에 있 으며 심지어 중앙정부조차도 이 지역의 종교적 분위기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음.

5) 직업교육 전문가 의견

- 인도네시아는 국민적 자존심이 상당히 강한 국가인 만큼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지원해주고 도와준다는 개념으로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단체의 역량과 현지에서 진행 가능한 인프라, 지역적인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업교육의 분야와 규모, 교육 후속대책 등을 계획하는 것이 좋음.
- 아체주의 경우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슬람 종교성이 강한 지역인 만큼 기업과 공장이 쉽게 위치하기 어려운 곳이라고 판단됨. 반면에 주민들 중 여성들의 경우 나무줄기를 활용하여 돗자리, 방석, 수납함과 같은 전통 수공예품을 가내수공업 형태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어 이러한 가내수공업을 활용한 직업교육이 가능한지 검토해 볼 필요 성이 있음. 다만 가내수공업이라 할지라도 지역경제 수준이 낮고 판로개척이 전제되어야 만 소득창출이 연계될 수 있다고 판단됨.

다. 사업대상 분야(Target Area)의 지표 및 기초선

⑴ 지표 : 빈곤층 인원 10% 감소

⑵ 기초선 : 380,371루피아(문헌조사 인용, 2015년)

년도	빈곤선(Rp)	인원(명)	비율(%)
2010	337,211	34,800	26.08
2011	365,477	34,800	25.43
2012	369,440	34,200	24.35
2013	373,497	32,590	22.70
2014	376,795	31,870	21.78
2015	380,371	31,810	21.40

◎ 삐디자야군 빈곤선(빈곤층 인구수와 비율)

출처: National socio Economic Survey

라. 단체의 특성과의 연계

⑴ 현지정부와의 협력 관계 구축 : 한코리아는 작년 12월 발생했던 아체주 지진 피해복 구를 위해 현지법인 야라빠 재단과 협력하여 피해가옥 시설 복구 및 가구 지원활동을 펼쳤고, 봉제교육 시범사업 등으로 현지정부와 신뢰를 쌓아왔음. 본 지역조사 사업을 통해 현지 각 정부 부처와 유관기관과 보다 구체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되었으며 현지 욕구에 기반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사업화의 초기 단계를 시작하는데 큰 도 움을 받게 됨. 각종 재난 발생이 상대적으로 빈번히 일어나는 현지 특성을 고려하여 현 재의 직업교육으로 구축된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이후 긴급구호 사업의 협력 기반을 동시에 구축하고 지역조사와 시범사업의 결과를 활용하여 재해 지역 주민들이 보다 중 장기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⑵ 세상을바꾸는착한장난감 사업 연계 : 현재 재단이 추진하고 있고 다수의 후원자, 봉사 자가 참여하고 있는 핸즈온봉사활동, 참여형 기부활동인 ‘세상을바꾸는착한장난감사업’ 과 본 사업을 연계하여 현지의 문화에 기반한 활동 키트를 개발, 사업을 확장해 나감으로써 제한적인 판로를 개척하고 상호 윈윈하는 기회를 모색해 보고자 함.

05 자료 출처

가. 참고문헌

- Kabupaten PIDIE JAYA DALAM ANGKA – Pidie Jaya Regency in Figures 2016, BAPPEDAKAB. PIDIE JAYA
- 황윤원 외 9명, 『인도네시아의 행정과 공공정책』, 대영문화사, 2013.05.30
- 김상술, 『아빠까바르 인도네시아』, 그린누리, 2012.0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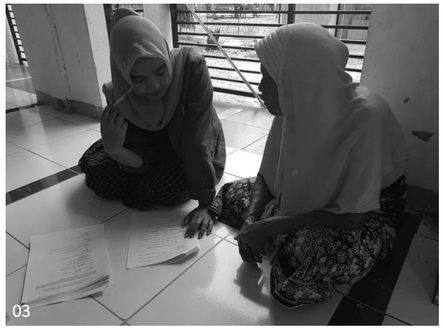
나. 인터넷 자료 출처

- KOICA ODA도서관 lib.koica.go.kr
- 코트라 www.kotra.or.kr
- 외교부 www.mofa.go.kr

06 기타 활동 자료 (사진 등)

01

02


03

04

05

06

01 마을 종교지도자 인터뷰
02 마을지도자 간담회
03 타노바로마을 주민 설문조사
04 삐디자야군 주민 설문조사
05 봉제교육 사업장 방문 인터뷰
06 삐디자야군 지역발전부 방문 인터뷰

07

08

09

10

11

12

07 정부부처 관계자 간담회
08 사회복지국 방문 인터뷰
09 삐디자야군 종교위원회 지도자 미팅

10 직업고등학교 시설 현장방문
11 가내수공업장 방문 인터뷰
12 시장조사 (삐디자야군 시내 위치)

13

14

15

16

17

18

13 봉제사업장 교육생들이 직접 만든 제품
14 삐디자야군 노동부 국장 및 부국장 인터뷰
15 휴대폰수리 사업장 방문 인터뷰

16 오토바이수리 사업장 방문 인터뷰
17 현지조사원과 평가회의뷰
18 반다아체 직업교육센터(BLK) 방문뷰

향후 계획

chapter 03

1. 현지 파트너기관 및 지역정부 주요 관계자와 지역조사 결과 및 향후 사업 계획 공유

2. 시범사업 확대

1) 봉제교육 현 3개월 → 6개월로 교육 기간 연장
2) 봉제교육 인원 현 24명, 1기 운영 계획 → 2기 운영으로 확대
3) 봉제교육 수료생의 제품 생산을 위한 공동작업장 신설, 전문작업용 기자재 추가 지원
4) 영어교육, 침구교육 추가 인건비 및 교육재료비(9개월분) 지원

3. 삐디자야군 SMK1 직업고등학교 지진피해 지원 및 교육 지원

1) 치어 생산 양어장 시설 보수
2) 손상된 교육기자재 지원
3) 극빈학생 중 학업포기위기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 지원
4) 한코리아 청소년서포터즈와 서신 교환, 인적 교류, 교사연수 기회 제공

4. 코이카 민관협력사업 및 각종 사업 확대에 대비한 INGO 등록 추진

5. 한국산업인력공단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글로벌 HRD협력사업 개발, 인도네시아 사업을 기반으로 타 국가 지부 사업 개발 검토 및 적용 모색

PART 12

[보건] 부산YMCA

시행일자	2017년 4월 20일(목) ~ 6월 23일(금) (총 60일)
지역	미얀마 양곤

2017년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지역조사(사업형성조사) 결과보고서

기본정보				
단체명	재단법인 부산기독교청년회 (부산YMCA)	작성자	오 문 범	
단체현황	현지 지부		☑ 있음	☐ 없음
	NGO 등록		☑ 있음	☐ 없음
	KOICA 협력사업 수행 경험 유무		☐ 있음	☑ 없음
사업 분야	산업에너지	코드번호	4230**	
조사 목적	・도시화에 따른 집단 강제 이주지역 주민들의 물과 위생환경 개선을 통한 건강권 회복, 그리고 이를 위한 지역 인프라 조사를 통한 사업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함 ・3개 대상지역의 구체적 수요 조사를 통해 유엔SDGs 목표 중 신재생에너지에 연동한 정수 패키지(모바일형)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조사하고자 함			
대상 국가 및 지역	국 가	미얀마	지 역	양곤
	Hlaingtharya, Yangon, Yangon Region, Myanmar 양곤 시내로부터 차량으로 1시간 Shwepyithar Yangon, Yangon Region, Myanmar 양곤 시내로부터 차량으로 1시간 Maubin, Myanmar 양곤 시내로부터 차량으로 3시간			
조사기간	전체 조사 기간	2017년 4월 20일(목) ~ 6월 23일(금) (총 60일)		
	현지 체류기간	5월 24일 ~ 5월 30일 (총 7일)		

결과보고서 요약

● 본 조사에서는 미얀마 양곤 인근 집단이주지역인 흘랑타이야와 쉐이피타 지역 물 이용 현황과 식수 음용실태, 지역 내 물 관련 인프라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하였다. 양곤YMCA 관계자와 현지 주민대표 들을 만나 실제 활용되는 물 이용현황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였고, 공동우물이라 할 수 있는 외부에 노출된 파이프 형태의 공동물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흘랑타이야지역 병원 관계자와의 인터뷰와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수인성 질병 감염사례는 70%에 육박하여 10명 중 7명이 감염된 적이 있음도 확인했다. 특히 흘랑타이야지역은 나르기스 태풍 피해로 집단이주를 했고 당시에도 독일 국제NGO를 통해 정수시스템을 기증 받았으나 불안한 전력상황 및 추가 필터 구매비용 마련, 유지관리 부재로 인해 전혀 활용되고 있지 못했다. 양 지역 모두 주민대표들은 물 이용에 대한 불안감과 유료로 구입해 먹는 식수에 대해 안정성 불신과 경제적 부담감을 안고 있었으며, 정수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유료로라도 구입해 음용하겠다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FGI를 통해 확인한 주민대표들 역시 기존 유아보육사업과 양곤YMCA 클리닉센터 및 YMCA소자본금융사업과 지속가능한 생계지원사업에 대한 수 십년 축적된 신뢰와 보건지원에 만족감을 보였으나, 가장 중요한 물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에 대한 높은 관심도 확인할 수 있었다.

● 기존에 주로 사용하는 식수용 우물은 개별과 공동우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음용수의 경우는 자연정화형 정수방법으로 빗물활용의 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생활용수는 더욱 심각하여 쉐이피타지역은 공동저수지 물은 식수로, 집주변 물이나 빗물을 모아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현지 사정을 고려할 때, 안

전한 식수공급과 정수체계는 매우 시급해 보였으며, 주민들 역시 이에 대한 필요성을 조사단에 보여주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다. 다만 불안한 전력공급이 문제인데, 이를 위해 본 조사팀이 구상한 태양광을 기반으로 한 정수시스템이 매우 유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당초 정수시스템의 설치가 하드웨어 중심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현지 상황은 전혀 다른 분위기였으며, 양곤YMCA가 진행하고 있는 무상 클리닉센터운영, 유아보육사업, 그리고 소자본 금융사업을 바탕으로 한 주민조직 및 연대활동의 기반이 탄탄하여 가장 욕구가 큰 식수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덧붙여 양곤YMCA가 가진 양곤시정부 및 관련기관과의 유대관계 등은 본 사업의 현지화 및 관계 구축에 매우 유용한 자원이 될 것이다.
- 마지막으로 본 사업을 하나의 단위사업이 아닌 부산시와 시 산하 국제교류재단이 진행하는 양곤지역 교류 및 국제개발협력사업과 일정 부분 연계하여 진행함으로써 다년간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것은 본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지자체와의 협업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조사 목적

chapter 01

- 도시화에 따른 집단 이주지역 주민들의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특별히 유엔SDGs의 목표 중 물과 위생, 건강권 회복의 관점에서 해당지역의 구체적인 관련 인프라 조사를 통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함
- 2개 대상지역의 지역리더, 주민 대표, 현지YMCA 지도자, 정부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및 타당성 조사를 통해 유엔SDGs 목표 중 신재생에너지와 부합하는 태양광 기반 정수 패키지(모바일형)사업의 실행 가능성과 효과성을 확인하고 조사하고자 함
- 당초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현지조사 과정에서 흘랑타이야지역과 쉐이피타 지역의 식수 사정이 사전 조사시 보다 매우 좋지 않았음. 또한 마우빈 지역의 경우, 현지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지조사 대상지에서 제외함

조사 결과

chapter 02

- 조사대상지역은 미얀마 양곤 인근 흘랑타이야, 쉐이피타 지역임
- 조사원 소개 및 역할

이름		소속	직책	지역조사 내 역할
1	송진호	부산YMCA	사무총장	현지조사팀 교육훈련, 전체 총괄, 현지기관 연계 FGI 총괄
2	오문범	기획조정실	실장	국내문헌조사, 국내 기관 협업조율, 조사 총괄 관리, 설문조사 분석 의뢰 및 최종작성
3	전병훈	기획조정실	간사	국내문헌조사, 예산 집행 및 관리, 최종보고서 작성 현지조사서 작성
4	최 건	부산YMCA	이사	기술자문, FGI 진행, 현지실태 점검 및 조사
5	허성용	(주)SABANG POWER	대표이사	기상데이타 수집분석 사업의 적용가능성 판단 원수천수 실태조사 설문 및 인터뷰 진행 현지실태 점검 및 조사

01 일정별 조사 활동

기 간		활동 내역 약술
국내	4/20-23	조사원 업무 세분화
	4/24-26	부산국제교류재단 협업 미팅 (홍순범 국제교류재단 교류협력팀장) (양곤 공동방문 협의 및 업무 협업관련 조율)
	4/27	서병수 부산시장 예방 (부산시 협업 관련 보고 및 지원 방안 협의) (부산국제교류재단 이종철 차장/ 홍순범 팀장 배석)
	4/28-5/8	양곤YMCA 설문조사 관련 협의 설문항목 구성 작업 완료 (현지어 번역 작업) - 문항구성 : 15개 문항 ・물 조달방법 ・식수의 유료구입 ・식수의 만족도/ 유병률 ・생활용수의 물 수급방법 ・깨끗한 물의 욕구/ 식수 구매 이유 ・정수시설 도입에 대한 의사 ・정수물의 유료판매/ 시설관리 주체/ 효과성 - 인적사항 기본질문 : 3개 문항 (성/연령/거주지역)
	5/8-10	조사대상지 현황 조사
	5/12	조사대상지 지역현황 교육
	5/15-17	현지 FGI 대상 그룹 조정 및 확정 - 조사대상 2개 지역 : 마을주민대표, 소자본 금융사업 참여자, 현지YMCA 관계자, 유아보육사업 관계자, 현지 종합병원 및 무료 클리닉 의사, 관계 기관 대표 등 지역별 각각 그룹 대상

현지	5/24	양곤YMCA 관계자 미팅 (현지조사계획 협의, 일정 조율 등)
	5/25	흘랑타이야, 쉐이피타 1차 지역 방문 (현지 양곤Y 주민조직 현황 파악, 흘랑타이야 종합병원 미팅-보건체계 조사, 클리닉 센터, 보육시설, 수질일반현황조사 등)
	5/26	양곤시장 면담, KOIKA 사무소 방문, 양곤Y/부산국제교류재단 업무 협의
	5/27	흘랑타이야 2차 현지조사 (주민설문조사, 주민대표 FGI, 마을 전체 식수원 및 식수상황 모니터링 식수 샘플 채취 등)
	5/28	양곤Y 실무진 흘랑타이아지역조사 분석 및 쉐이피타 지역조사 협의
	5/29	쉐이피타 2차 현지조사 (주민설문조사, 주민대표 FGI, 마을 전체 식수원 및 식수상황 모니터링 식수 샘플 채취 등)
	5/30	현지조사 전체 평가 / 국내 분석 및 조사 일정 협의
국내	6/5-19	수질 검사 (부산보건환경연구원) 결과 취합 (6/19)
	6/7-14	지역주민 설문조사 결과 분석 의뢰 (총 88부, 흘랑타이야지역 43부, 쉐이피타지역 39부, 기타 3부)
	6/20-30	결과에 따른 타당성 분석 회의 (총 4회) 6/20, 6/23, 6/27, 6/30
	7/3-15	- 각 분야별 보고서 작성 - 온/오프라인 미팅을 통한 사업 적정성 협의 - 최종보고서 작성

02 조사 항목 및 방법

	조사 항목	조사 방법	조사 기간
1	흘랑타이야 지역현황 쉐이피타 지역현황 물이용 현황 지역 인구 양곤Y 해당지역 주민지원현황 및 시설 운영 방법	문헌조사/ 해당지역 조사보고서 검토	4/20-5/12
1	대상지역 (흘랑타이야, 쉐이피타지역) 주민 물이용 실태조사	직접 면접조사/ 주민인터뷰 및 설문조사	5/25, 5/27, 5/29
2	FGI	직접조사/ 대상지역 주민대표 그룹	5/25-5/29
3	수질조사	식수원수 (3개소)	6/5-6/19
4	FGD	그룹미팅 (조사단, 양곤YMCA 관계자, 현지 기관 등)	5/25-5/30
5	미얀마 양곤 정책 검토	직접조사/ 양곤시장 및 관계자 미팅	5/26

03 조사 결과 분석

1) 문헌 및 사전 조사

가) 미얀마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

- 군부정권 민간 이양 후 개방정책이 진행 중임. 특히 경제 분야의 급속한 변화가 목도됨. 과거 해외자본(비즈니스, ODA, 해외 개발협력 펀딩소스 등) 유입되는 경우 정부의 과도한 간섭(감시, 보고, 10% 커미션 시스템 등)은 종료되었다. 참고로 양곤YMCA도 독자 은행계좌를 통한 자유로운 송금이 가능하다(단 국외자본 유출은 여전히 통제대상이다.).
- 과거와 같은 전화, 인터넷 검열 통제체제는 표면적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자발적 보고체계 (특히 외국인 입국 및 활동에 따른 해당 정부부처의 보고체계)는 지속 되고 있다.
- 이민국 고위 공무원(익명, 양곤YMCA 사무총장 지인)에 따르면 과도한 한국계 선교사

유입에 대한 경계가 시작되었다. 국외 자본 및 기업 유입에 대한 경계 수준은 높은 반면에 INGO 등 민간 영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여력이 부족하다고 한다. 참고로 120년 역사의 양곤YMCA는 2개의 법적 실체로 정부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하나는 Club Organization, 또 하나는 Religious NGO로 각각 사회복지국 및 종교국에 등록되어 있다.). 과거 군부 철권통치 하에서부터 YMCA, World Vision Intl, Save the Children, Red Cross 등 거대 국제 민간기구들에 대한 우호적 협력관계가 유지되어 오고 있다.

- 반면에 외국인의 구역 외 이동관리(숙박처 명부로 관리되고 있음)는 엄격하여 외국인 지정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 외에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홈스테이 또한 불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의 경범죄처럼 정부가 모두 관리 통제 불가능한 상태에서 무분별적으로 외국인의 토지/주택 소유 및 주택 임대(현지인 중계를 통하거나 현지인과 위장결혼 등 수법도 다양함.)가 벌어지고 있다. 유사시에는 모두 불법 처리될 리스크가 있다.
- 순식간에 너무 많은 국제자본과 과도한 원조, INGO의 유입과 러브콜 등이 또 다른 사회적 경제적 부작용을 표출하고 있다. 로컬NGO의 역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개발협력 유혹이 마치 나르기스 태풍 이후의 상황(밀물처럼 몰려들었다가 6개월 후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상황)과 유사하다.
- 개방정책과 더불어 급격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가속화, 토지 및 주택 소유권 및 도심의 난개발 재개발 관련 갈등 증폭 등 도시 전체가 토목 중심의 개발 홍역을 앓고 있으며 이미 도시 외곽 신개발지역의 토지 소유권은 거대 다국적 자본과 결탁한 군부 및 관료 주변세력들에 의하여 장악당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과거 군부정권 하에서 강제 이주 경험을 앓았던 도시 빈민가의 재 정착촌 주변토지들이 모두 거대 투기자본에 의한 공단, 뉴타운, 골프장 등 리조트 건설 계획이 완성되어 2차 강제철거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대상지역인 흘랑타이야 및 쉐이피타 지역 또한 나르기스 태풍 이재민 강제이주마을(흘랑타이야) 및 도심 슬럼가의 원인미상 방화사건으로 집단 이주마을(쉐이피타)로서 재정착 후 다시 2차 철거위협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이 수많은 농지들이 거대자본 토지 소유주의 횡포로 일체의 경작행위가 금지되어 유휴지로 남아있다.
- 표면적 민주화는 진행 중이나 30년 이상 지속된 군부와 버마족 중심의 관료집단, 그리고 유입된 해외자본(특히 중국계 자본)이 결탁한 단단한 부패 고리는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특히 천연가스 및 원유 채굴권 관련 부패 고리 및 30년 경제봉쇄정책으로 산유국이면서도 LDC 최빈국임).

- 30년 경제봉쇄정책의 후유증으로 여전히 세계 10대 LDC(least development country, 최빈국) 중 하나로 1인당 GDP는 US$850 정도이다. 특히 군부정권 하의 통계 신뢰도 떨어진다.
- 135개 인종 소수민족이 공존하고 있다. 여전히 6대 메이저 인종그룹, 특히 버마족이 정치 경제의 중심이며, 친족. 까친, 카렌족 관련 민족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 영국 식민의 영향으로 반영국 정서(anti-British sentiments)가 팽배하지만 인도와는 우호적이다. 중국과의 경제적 연대도 공고하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 한류, 김치 및 한국어에 대한 호감도가 매우 높다.
- 도시 전체의 인프라는 미약하여 도로상태, 대중교통체계, 식수 관련 수인성 질병, 보건위생상태 등은 매우 열악하다. 일부 말라리아 보고는 있으나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댕기에 대한 경고는 여전히 높은 상태이다. 그 외의 HIV 에이즈 등의 국가통계는 신뢰할 수 없는 수준으로 국민들의 의심과 경계는 상당하다.

나) 파트너 기관 소개 - 양곤YMCA 현황

- 120년 역사(1894년 창립) 매트로폴리탄YMCA로서의 장점과 단점; 동전의 양면(본 사업 추진 단위에서 보면 장점으로는 대상 2개 지역에 유아보육센터, 클리닉센터, 소자본금융을 통한 주민조직 등으로 지속적 사업 추진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 군부정권 시절부터 쌓아온 광폭의 접촉면, 교섭력을 확인하였다. 39년 양곤Y 실무경력의 Sonny사무총장이 보유한 장점들을 확인하였다.
- 개신교회 전도와 선교정책에 대한 정권 경계수준(특히 친족 등 소수민족 문제와 연계한 기독교 선교 전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YMCA에 대한 우호적인 정부 관료들의 입장을 확인하였다.

2) 대상지역 상·하수도 현황

가) 상수도 현황

- 양곤시는 상수도보급률은 2010년 기준 42% 정도로 절반이상인 52%의 인구는 아직까지 개인이 개발한 우물, 연못, 빗물 등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곤시의 상수도시설은 식민지시절인 1800년대 중반 지하수 개발을 통해 상수원 공급을 시작하여 이후 도시에 인접한 호수에서 취수한 원수를 공급하였으나 1900년대에 들어 호수의 수질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1906년 호수에서의 취수를 중단하였고 현재는 양곤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류수 취수원인 총 4개소의 저수지는 급수구역과 거리가 멀고 사용량이 한계에 도달하여 향후 양곤시 급수구역 인근의 하천을 취수원으로 활용하는 대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 인근하천의 오염물질 및 염분농도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정수처리공법 등의 대책이 필요하며 하천수 외 하상여과, 강변여과 등의 대체 수자원 개발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부족한 용수공급량은 표류수 외에 지하수로 보충하고 있는데 취수시설은 양곤시에서 직접운영 하는 관정과 민간이 직접 개발하여 운영하는 관정 및 굴착정의 2가지 형태로 구분되며 향후 하천수 및 대체수자원 개발을 통한 신규 취수원 확보와 연계하여 지하수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 양곤시의 정수장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호수를 원수로 하는 정수장은 나웅나핀(Nyaunghnapin) 및 교부(Gyobyu) 정수장 2개소로 현대적인 개념의 정수장은 나묘익(Ngamoeyeik) 저수지를 취수원으로 하는 나웅나핀 정수장이 유일하다. 동 시설의 용량은 총 400,000㎥/일으로 양곤시 수요량을 고려할 때 정수장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교부 정수장의 경우 교부 저수지의 일부 원수만을 취수하여 정수처리를 수행하나 처리된 정수가 다시 원수와 혼합된 후 소독과정을 거쳐 공급되는 실정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관로의 경우도 식민지시절 매설되어 설치년도 100년을 초과하고 환경적으로 부적합한 회주철관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 교체가 시급한 실정이다.
- 사업 대상지내 상수도 보급률은 0%이며 개별 심정 지하수를 이용하거나 우수를 저류하여 공동우물로써 일정 비용을 지불하며 식수로 사용하며 그나마 형편이 나은 사람들은 공동우물을 지역에서 간단하게 정수하여 판매하는 음용수를 구입하여 식수로 사용하는 형편이다.

나) 하수도 현황

- 미얀마내 하수처리장은 양곤시와 수도인 네피도시의 일부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데 수자원의 가치보존과 수계 환경질 개선에 의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향후 양곤시와 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 양곤시의 하수도보급률은 2011년 기준 5% 정도로 중심업무지구 일부에만 하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1888년에 처음 설치된 후 1963년에 일부 증설된 관로와 에어 컴프레셔를 사용해 하수를 배제하고 있어 시설 노후화로 인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 사업 대상지인 흘랑타이야와 쉐이피타 지역은 급격한 도시 확장으로 생겨난 빈민촌으로 아직까지 하수도 시설이 미치지 못하며 골목길에 형성된 도랑에 하수 및 오수가 배출되어 악취 및 해충들로부터 무방비한 상태이여 조금만 비가 와도 도랑이 넘쳐 역류하며 개별 우물이나 공동우물인 저류지에 침투 되어 다시 식수로 활용되고 있다.

3) 대상지역 현황

가) Main Activity 1: 흘랑타이야 지역 YMCA 지역사회개발사업

(Yangon YMCA Hleingthaya Clinic, Y Day Care Center, Y After School & Y Micro Cred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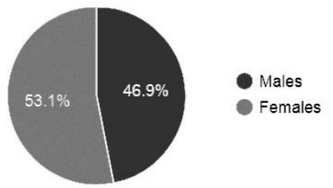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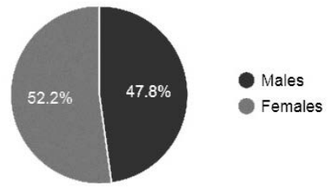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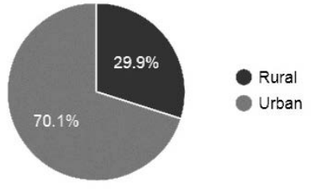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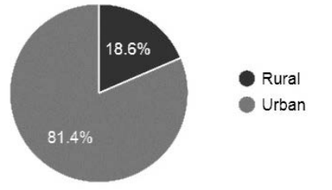
- 양곤강 서쪽 흘랑타이야 지역은 Cyclone Nargis affected area로 국제사회에 알려져 있다. 2008년 당시 독일정부의 인도주의 지원 원조예산으로 Humadica라는 독일 NGO가 들어와서 의료봉사활동을 하였으나 체계적인 지원을 마무리하지 못한 지역이다.
- 인근의 의료시설 부족으로 양곤YMCA가 이를 인수하여 2층 건물의 clinic을 건축하고 현재까지 주3회(월수금 오후 2:30-4:30) 무상 mobile clinic을 운영하고 있다. 현 양곤YMCA 이사장(현 연맹 부이사장)인 Dr. Tin Hla(전 국립종합병원장 은퇴, 79세, 양곤Y medical service group 책임, 한국의 장로교회 의료봉사단, 그린닥터스, 와이즈맨 의료봉사단 방문 시에도 현지 컨텍 역할을 하였고, 마치 70년대 학사단 활동 시 의대생을 이끌었던 이성행, 김윤수 전 연맹 이사장이 연상될 정도로 개인적 사명감과 헌신, 참여하고 계신다.)박사가 직접 진료 중이다. 본관에 clinic 사무국 두고 1명의 유급 간호사가 매번 동행하고 있다. 현지 원무 행정직원 두고 있다. 문진과 촉진 수준의 기본적인 진찰과 기초의약품 처방이 되고 있으며, 심각한 수준의 환자는 공립병원 등으로 이송하고 있다. 과거 독일 의료팀, 그리고 이벤트성 의료봉사단체들이 남기고 간 기초의약품으로 운영해오다가 최근 들어서는 자체 모금과 후원에 의한 기초의약품구입하고 있는 수준이다. 현지 의사들 의견으로는 읽지도 못하는 한국 일본 약품들 가지고 들어와서 남기고 가는 의약품 보다는 차라리 미얀마 현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검증을 받은 자국 내 의약품을 구매하여 남기고 가면 훨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 독일, 일본, 한국 의료팀은 여전히 약품을 통관(사실은 불법통관이나, Sonny와 세관의 협력(결탁)으로 약품 들여오고 있다.)시켜 들여오고 있으나 이미 싱가폴YMCA 및 교회 의료팀들은 미얀마 국내 의약품을 구입하여 의료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 클리닉 바로 앞에는 45명의 영유아와 4명의 교사가 운영하는 YMCA Day Care Center(또는 Pre School이라고도 칭함. 보육원 또는 유치원)가 매우 낡은 시설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바로 옆 건물에는 YMCA After School(방과후학교)가 진행되고 있다. 교육시설 및 기자재 모두 형편없는 수준이다.
- YMCA클리닉과 교육시설이 있는 커뮤니티는 직접 나르기스 영향을 받은 곳으로부터는 조금 떨어진 후방지역으로 모든 지역주민들이 과거 양곤 도심의 무허가 빈민가 주민들이었으나 정부의 강제철거 및 강제이주정책으로 쫓겨 나서 만들어진 재 정착촌으로 주민과 청년 대부분은 도심의 일용직 노동자 또는 인근 공장 근로자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흘랑타이야 지역 전체가 이러한 도시빈민 강제이주 재 정착촌과 바로 길 하나 건너편의 대규모 신도시 개발지역이 공존하는 빈부격차가 직접 목도되었다.

나) Main Activity 2: 쉐이피타 지역 YMCA 지역사회개발사업

(Shwephyta Monastic School, Yangon YMCA Mobile Clinic & Y Micro Credit)

- 쉐이피타 지역은 15년 전 양곤 도심의 빈민가에서 일어난 원인불명의 대형화재(개도국 도시 재개발지역에서 자주 일어나는 화재사건이다. 방화 배후가 의심된다.) 사건 직후 정부에 의하여 강제로 외곽으로 이주당한 집단 강제이주지역이다. 양곤YMCA는 15년 전부터 스님들과 함께 전기 수도 공급이 없던 초기 난민캠프 운영에서부터 현재(아직도 상하수도 시설은 없다.)까지 개입해온 현장으로 현재에 이르러서도 스님들이 운영하는 불교학교(K-5학년), 운영지원(교사 급여지원활동) 및 인근의 유일한 클리닉을 주1회씩 순회진료(mobile clinic)형태로 운영해오고 있다.
- 지역주민들의 스님과 사찰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YMCA도 현지 지역사회와 매우 깊은 유대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동시에 스님만큼의 존경과 인정을 Dr. Tin Hla(양곤Y 이사장)이 받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 사찰에는 47명의 동자승들도 집단 거주하고 있으며 동자승 및 지역 어린이들의 초등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 대부분 주민들은 도시 일용직 근로자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주변 대부분의 토지는 공단 건설, 재개발을 위한 거대투기자본에 의하여 매각 당하였다. 빈 농지임에도 토지 소유주의 횡포로 일체의 경작행위는 금지당하고 있다. 주민들은 재개발이 시작되면 또 쫓겨 날 수 있다는 미래에 대한 위기의식들이 있다.
- 마을 전체의 대다수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은 공동저수지로부터 공급받고 있으며, 일반 생활용수는 빗물이나 집 앞 도랑 등에 흐르는 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식수와 관련해서는 일부 유료로 구입 후 활용하고 있으나 매우 한정된 수준이다.

도시	Hlaingtharya	Shwepyithar
면적	83.33 km²	55.86 km²
인구 수	687,867	343,526
인구 밀집도	8,254.9 inh./km²	6,150.3 inh./km²
남녀 성비		
	Gender (C 2014): Males 322,862; Females 365,005	Gender (C 2014): Males 164,264; Females 179,262
도시화		
	Urbanization (C 2014): Rural 205,739; Urban 482,128	Urbanization (C 2014): Rural 63,731; Urban 279,795

다) 현지 지역주민 설문조사 결과 분석

- 본 조사는 미얀마 흘랑타이야지역과 쉐이피타지역 주민들의 식수를 비롯한 물이용 실태와 본 사업 추진시 이용의사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였다.
- 주요 설문문항은 “물조달 방법“, ”물이용만족도”, “물사용실태”, “정수물 유료사용의사”, “정수시설관리주체” 등이다. 조사방식은 직접 면접조사의 방식으로 문항을 설명하고, 응답토록 하였다.
- 조사대상자는 성별로는 남자 32명(40.5%), 여성 47명(59.5%), 연령별로는 20대 5명(6.0%), 30대 12명(14.5%), 40대 27명(32.5%), 50대 22명(26.5%), 60대 이상 17명(20.5%), 지역별로는 흘랑타이야 43명(50.6%), 쉐이피타 39명(45.9%), 기타 3명(3.5%)이다.
- 설문척도는 명목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설문자료는 코딩과 검색과정을 거쳐 SPSS PC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수별 교차 분석하였고, 오차한계는 95%신뢰수준에서 ±3.45%P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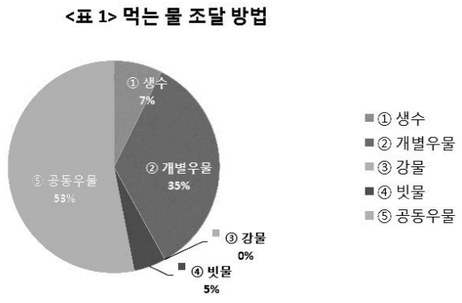
1. 먹는 물 이용현황

- 먹는물 상수도와 개별, 공동우물물 주로 이용
  - 현재 조사대상 지역주민들의 먹는 물 조달 방법은 주로 공동우물 53.1%, 개별세대 우물 35%, 생수 7.4%, 빗물 4.9%, 펌프 3.7%의 순으로 나타나 공동우물과 개별세대 우물로서 먹는 물을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먹는 물 조달 방법

항 목	빈도	유효 %
① 생수	6	7.4
② 개별 우물	28	34.6
③ 강물	0	0.0
④ 빗물	4	4.9
⑤ 공동 우물	43	53.1
합 계	81	100%

무응답 7



  - 먹는물 조달 방법에서 일반적으로 공동우물을 먹는다는 응답이 대부분의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지만, 60대이상의 연령(53.3%)에서는 개별우물물을 먹는다는 응답이 높았고, 지역별로도 차이를 보이는데 흘랑타이야 지역은 공동우물 물을 먹는다는 응답(53.7%)이 높은 반면, 쉐이피타 지역은 개별우물을 먹는다는 응답(52.9%)이 가장 높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식수 공급시설의 설치상태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 세면, 세탁, 청소, 화장실 물 공동 우물 사용
  - 조사대상 지역주민들의 먹는 물 이외의 세탁 등에 사용하는 물은 공동우물 97.4%, 개별우물 1.3%, 강물 1.3%의 순으로 나타나 먹는 물은 공동 또는 개별 우물물로서 해결하고 세면, 세탁, 청소, 화장실 등 생활용수는 대부분 공동우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세면, 세탁, 청소, 화장실 물 이용현황

항 목	빈 도	유효 %
① 개별우물	1	1.3
② 공동우물	75	97.4
③ 강물	1	1.3
④ 빗물	0	0.0
합 계	7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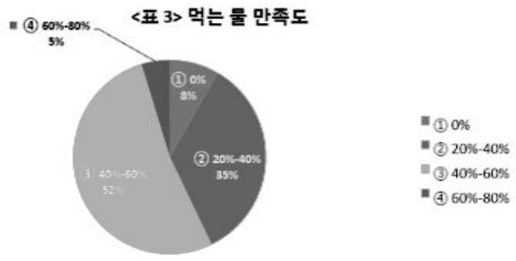
무응답 11

- 먹는 물 만족도 낮은 편
  - 현재 먹고 있는 물에 대한 만족도는 40-60%수준이라는 응답(52.4%)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0-40%(34.5%), 0%(8.3%), 60-80%(4.8%)의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수준이 60-80%라는 응답이 4.8%에 불과한 반면, 40%이하라는 응답이 42.8%로 먹는 물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먹는 물 만족도

항 목	빈 도	유효 %
① 0%	7	8.3
② 20%-40%	29	34.5
③ 40%-60%	44	52.4
④ 60%-80%	4	4.8
합 계	84	100%

무응답 4



- 먹는 물에 대한 만족도는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40-60%정도 만족한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 30대는 20-40%정도 만족(63.6%)한다는 응답이 높아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 보면 흘랑타이야 지역은 20-40%정도라는 응답이 높은 반면 쉐이피타지역은 40-60%정도 만족한다는 응답(68.6%)이 높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물 이용형태와 관련된 것으로 여겨진다. 흘랑타이야 지역은 먹는 물로 공동우물을 많이 이용(53.7%)하는 반면, 쉐이피타 지역은 개별우물 물을 많이 이용(52.9%)하는 것과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개별우물 물을 많이 먹는 쉐이피타 지역의 만족 정도가 높다는 것은 지역민들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물보다 개별 우물물에 대한 신뢰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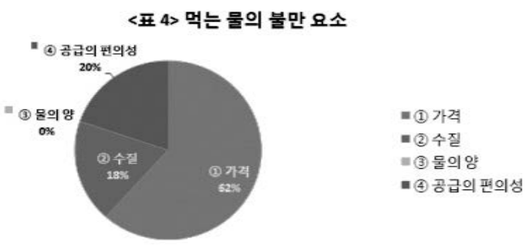
● 먹는 물 가격불만(61.6%)

- 현재 먹고 있는 물에 대한 불만 요소로 가격이라는 응답(61.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공급의 편의성(19.8%), 수질(18.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먹는 물의 불만 요소

항 목	빈도	유효%
① 가격	53	61.6
② 수질	16	18.6
③ 물의 양	0	0.0
④ 공급의 편의성	17	19.8
합 계	86	100%

무응답 2



- 먹는 물에 대한 불만요인으로 가격이라는 응답은 대부분의 계층에서 높았지만 지역별로는 차이를 보인다. 흘랑타이야 지역은 불만요소로 가격이라는 응답이 83.3%로 가장 높은 반면, 쉐이피타 지역은 공급의 편의성이란 응답(36.8%)이 높아 먹는 물의 불만요소가 다름을 알 수 있다. 이 역시 흘랑타이야 지역은 먹는 물로 공동 우물 외에 유료로 이용하는 식수 구입 빈도가 다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쉐이피타 지역은 개별우물 물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 물로 인한 질병 경험 68.7%

- 현재 사용 중인 물로 인한 질병 경험이 있는 주민은 68.7%로 대단히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어, 현지의 물사정이 상당히 열악함을 알 수 있다.

<표 5> 사용중인 물로 인한 질병 경험

항 목	빈도	유효%
① 있다	57	68.7%
② 없다	26	31.3%
합 계	83	100%

무응답 5

- 물로 인한 질병 경험은 흘랑타이야 지역은 60.0%인데 비해 쉐이피타 지역은 81.6%로 더 높았다. 이 역시 공동우물 사용빈도가 높은 흘랑타이야 지역과 개별우물 물의 사용빈도가 높은 쉐이피타 지역 간의 차이로 보여진다. 또 하나는 쉐이피타 지역의 경우, 개별 우물이라고는 하나 기본 수질이 매우 열악하고, 개별로 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수인성 질병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흘랑타이야 지역은 마을 내에 종합병원이 소재하고 있어, 질병에 노출되더라도 빠른 대응이 가능한 부분도 질병에 대한 인식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판단된다.

2. 식수유료 구매 의사

● 식수 유료 구매 경험 92.0%

- 먹는 물을 유료로 구매한 경험이 있는 주민은 92.0%, 없다는 주민은 8.0%로 나타나 대부분의 주민들이 식수를 유료로 구매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 두 지역의 경우, 200짯(한국 약 300원), 400짯, 600짯 등 다양한 형태의 식수가 판매되고 있으나 이 역시 식수의 수질 상태, 관리 상태가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었다. 또한 식수를 유료로 구입해서 마신다는 것은 일반 물의 수질상태가 매우 열악함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표 6> 식수 유료 구입 경험		
항 목	빈 도	유효 %
① 있다	80	92.0%
② 없다	7	8.0%
합 계	87	100%

무응답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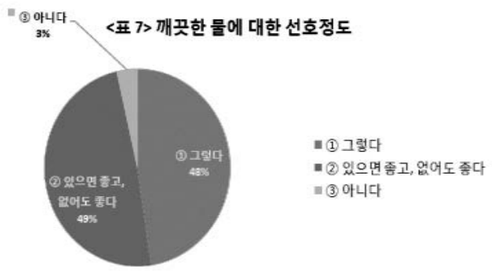
- 식수 유료구매경험은 흘랑타이야 지역은 100.0%인데 반해 쉐이피타 지역은 81.6%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 깨끗한 물을 원한다 47.6%

- 지역주민들은 깨끗한 물을 원한다는 응답은 47.6%, 있으면 좋고, 없어도 좋다는 응답은 48.8%, 아니다 라는 응답은 3.6%로 나타났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는 응답이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가장 높아 비교적 물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도는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지조사에서의 상황을 보면, 두 지역 모두 물의 양에 비해 관리가 체계적이지 않으며,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습관처럼 물을 이용해 온 것이 인식으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7> 깨끗한 물에 대한 선호정도		
항 목	빈도	유효%
① 그렇다	40	47.6%
② 있으면 좋고, 없어도 좋다	41	48.8%
③ 아니다	3	3.6%
합 계	84	100%

무응답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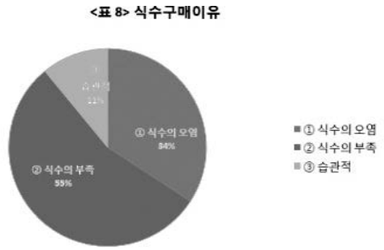
- "깨끗한 물을 원한다"는 응답이 높은 계층은 남성(54.8%), 30대(54.5%), 60대이상(58.8%), 쉐이피타지역(65.8%) 주민 들이며, "있으면 좋고, 없어도 좋다"라는 응답은 여성(56.8%), 20대(60.0%), 40대(53.8%), 50대(50.0%), 흘랑타이야지역 주민(65.9%)에서 높았다.

● 식수구매이유 물부족 54.9%

- 지역주민들은 식수를 구매하는 이유로 식수가 부족해서 54.9%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식수의 오염 34.1%, 습관적 11.0%의 순으로 조사되어 식수의 오염보다 식수부족으로 인한 물구매가 더 높아 지역의 물공급 자체의 열악함을 알 수 있다. 실제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식수를 구매하는 이유는 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깨끗한 물의 공급이 이뤄지고 있지 못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공동우물의 의존도나 개별 세대가 보유한 우물에 의존하는 현상에서 비롯되고 있다. 식수 구입 비용이 우리 기준으로 매우 저렴한 상황이나 해당 지역 주민들의 경제상황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표 8> 식수구매이유		
항 목	빈도	유효%
① 식수의 오염	28	34.1
② 식수의 부족	45	54.9
③ 습관적	9	11.0
합 계	82	100%

무응답 6



- 식수구매의 이유로 남성은 식수오염(45.2%)과 식수부족(45.2%)을 동일하게 응답한 반면, 여성은 식수부족(60.5%)이라는 응답이 식수오염(30.2%)이라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높게 응답하였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식수부족이라는 응답이 높았고, 지역별로는 흘랑타이야 지역은 식수부족(82.1%)이라는 응답이 높은 반면, 쉐이피타 지역은 식수오염(63.2%)이라는 응답이 높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역적 차이는 흘랑타이야 지역은 쉐이피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구 수가 많고, 쉐이피타 지역은 공동저수지를 통한 식수 사용 등으로 오염에 노출빈도가 높은 것이 한 원인으로 볼 수 있겠다.

3. 정수설비에 대한 의견

● 정수설비 설치시 이용하겠다 97.5%

- 지역에 정수설비가 설치된다면 이용할 의사가 있다는 주민은 97.5%로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수설비 이용의사가 없는 주민은 정수 설비자체를 불신해서라는 의견을 표했다. 실제 현지조사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정수시설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았으며, 현재 부분적으로 가동 중인 정수시설은 거의 자연방식을 활용한 노후한 시설이었다.

<표 9> 정수설비 이용 의사

항 목	빈 도	유효 %
① 그렇다	79	97.5%
② 아니다	2	2.5%
합 계	81	100%

무응답 7

● 정수된 물 유료 구매의사 64.4%

– 지역에 정수설비가 설치되어 정수된 물을 유상으로 판매한다면 구매하겠다는 지역주민이 64.4%이며, 구매하지 않겠다 24.1%, 모르겠다 11.5%로 나타나 유료로 구매할 의사가 있는 주민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조사되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판매 중인 식수에 비해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정수된 물을 무상이 아닌 유상판매 의사를 확인한 이유는 정수시설이 가지는 한계(세대수에 비해 공급 부족)에 대한 대비와 더불어 지역주민들이 공동시설로 인식하도록 하는 목적도 있다. 그럼에도 실제 주민들이 구입의사가 높지 않다면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나 상대적으로 높은 구입의사를 보임으로 정책적 검토를 하기에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표 10> 정수된 물 유상 구매 의사

항 목	빈도	유효%
① 그렇다	56	64.4
② 아니다	21	24.1
③ 모르겠다	10	11.5
합 계	87	100%

무응답 1

– 유상구매의사는 남성은 71.9%, 여성은 58.7%로 응답해 남성이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20대는 유상구매의사가 있는 주민과 없는 주민의 응답률이 동률(40.0%)로 조사되었지만,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유상구매의사가 높았다. 지역별로는 유상구매의사가 흘랑타이야 지역은 47.6%, 쉐이피타 지역은 79.5%로 쉐이피타 지역 주민의 유상구매의사가 더 높았다.

● 정수된 물 도움된다 96.5%

<표 11> 정수된 물 도움 정도

항 목	빈 도	유효 %
① 그렇다	82	96.5
② 아니다	3	3.5
③ 모르겠다	0	0.0
합 계	85	100%

무응답 3

– 지역에 정수된 물이 공급된다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96.5%이고, 아니다라는 응답은 3.5%에 불과하여 정수된 물이 지역민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인식이 높았다.

● 정수시설관리는 지원단체 86.1%

– 지역에 정수설비가 설치되면 정수시설은 지원단체가 해야 한다는 의견이 86.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주민(커뮤니티) 12.7%, 정부(지자체) 1.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지 주민들이 시설이 설치된다 하더라도 스스로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 고민과 더불어 지원단체와 협력단체 간의 관계성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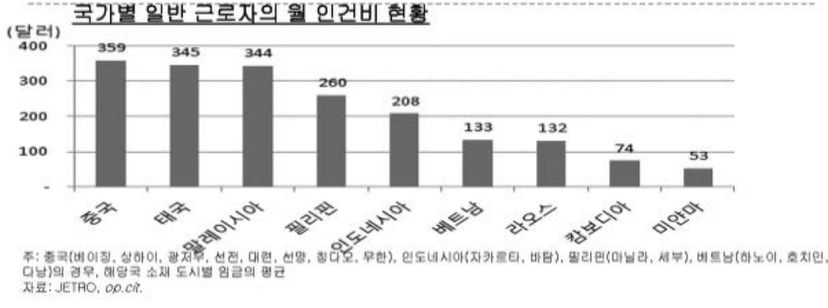
<표 12> 정수시설 관리주체

항 목	빈 도	유효 %
① 주민(커뮤니티)	10	12.7
② 정부(지자체)	1	1.3
③ 지원단체	68	86.1
합 계	79	100%

무응답 9

4. 설문결과에 대한 평가

- 본 조사는 YMCA에서 미얀마 흘랑타이야 지방과 쉐이피타 지방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물이용 현황을 조사하였다.
- 조사대상 지역주민들의 먹는 물 조달 방법은 주로 공동우물(49.4%)와 개별우물(34.6%)이며, 지역별로는 흘랑타이야 지역은 공동우물을 먹는다는 응답(53.7%)이 높은 반면, 쉐이피타 지역은 개별우물을 먹는다는 응답(52.9%)이 높았다.



주: 중국(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대련, 선양, 칭다오, 무한),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바탐), 필리핀(마닐라, 세부),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다낭)의 경우, 해당국 소재 도시별 임금의 평균
자료: JETRO, *op.cit.*

- 현재 먹고 있는 물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는 60-80%라는 응답은 4.8%에 불과한 반면, 40%이하라는 응답이 42.8%로 먹는 물에 대한 만족도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현재 먹고 있는 물에 대한 불만 요소로 가격이라는 응답(61.6%)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차이를 보이는데 흘랑타이야 지역은 불만요소로 가격이라는 응답이 83.3%로 가장 높은 반면, 쉐이피타 지역은 공급의 편의성이란 응답(36.8%)이 높았다.
- 현재 사용 중인 물로 인한 질병 경험이 있는 주민은 68.7%로 대단히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고, 먹는 물을 유료로 구매한 경험이 있는 주민은 92.0%로 깨끗한 물에 대한 욕구가 높을 것으로 보여 지지만, 깨끗한 물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좋다"는 응답 역시 48.8%차지하고 있어 실제 물을 유료로 공급했을 경우 실제 구매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가격이 결정할 것으로 보여 진다.
- 지역주민들은 식수를 구매하는 이유로 식수 부족이라는 응답(54.9%)이 높고, 지역에 정수설비가 설치된다면 이용할 의사가 있다는 주민은 97.5%, 정수된 물을 유상으로 판매한다면 구매하겠다는 지역주민이 64.4%, 정수된 물이 도움된다는 응답은 96.5% 등으로 나타나 정수시설에 대한 욕구는 높으며, 정수시설의 관리주체는 지원단체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4) 기관 방문 및 주민대표 인터뷰를 통한 질적 조사 결과 분석

- 본 조사는 미얀마 흘랑타이야지역과 쉐이피타지역 주민들의 식수를 비롯한 물이용 실태와 본 사업 추진시 이용의사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함.

가. 흘랑타이야 지역 주민들과의 인터뷰

Q1. 어린이 집의 이용은 어떠한가?

- 부부가 모두 일하러 나가기 때문에 누군가 돌봐야 하는 부담이 컸다.
- 양곤YMCA가 아주 적은 비용으로 아이들을 돌봐주고 가르쳐 주어 많은 도움이 된다.

Q2. 어린이 집에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 우선 어둡다.
- 식수를 사서 마시는데 비용이 만만치를 않다.

Q3. 사 먹는 생수 외에 취수할 수 있는 물은?

- 우물 보유 : 약 200~250 ft (약 70미터) 깊이

Q4. 지역 주민들의 거주 형태는?

- 11개 wards(통반 같은 개념), 2,000 가구(약 1만 명) 거주
- 이 중 가까운 2개 wards의 이장님 두 분 참석, 이 2개 워드에 약 150 가구 거주 (700여 명)

Q5. 가구당 식수로 마시는 물의 량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 가구당 1일 현재는 10리터 정도를 마시고 있으나, 부족 실정으로 향후 공급이 풍부해지면 20리터 정도 음용하게 될 전망(⇒ 30톤/일 용량의 설비 규모 추정)

Q6. 현재 마시는 물에 불만이나 문제는 없습니까?

- 이장님 중 한 분 말씀 : 주민들 대부분 면역력이 있어서 이 물을 마시고는 있지만, 우리 조사단 중 누군가 이 물을 마시면 바로 설사, 복통을 일으킬 것입니다.

Q7. 마시는 물의 가격과 이용 상황

1) 정수한 물 20리터 : 400 짯 (어린이집과 조금 여유 있는 가정에서 음용)

2) 우물에서 취수하여 간단한 정수를 한 물을 20리터 용기에 넣어 판매하는 지역 업체 있음.
: 200 짯

3) 주민들 의견 : 우물물에 철분, 비소, 낮은 염분 있음.
물을 끓여도 푸른 빛이 돎. 야채를 씻어도 푸른 빛이 남.

나. 쉐이삐따 지역 주민들과의 인터뷰

- 학교 운영고아는 숙식 제공, 불우 아동 (지역민 전부가 불우함.)을 위한 교육시설 학생 수 200여 명
- 취수 및 급수우물 보유 : 약 130 ft (약 30~40미터) 깊이

Q1. 주민들 수는 얼마나 되는가?

- 약 1만 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나 계속 증가하는 추세
- 엄마, 아빠가 모두 일용직 근로자로 일을 가기 때문에 다수의 아이들 방치

Q2. 주민들이 주로 마시는 물은 어떤 물인가?

- 정수한 물을 사 마실 형편은 못 됨.
- 연못이나 학교의 우물물을 모래흙에 걸러서 음용하는데, 이 진흙 같은 펄은 15일에 한번씩 교체함.

Q3. 마을 이장님이 꼭 하시고 싶었던 말씀

- 당신이 판단하시기에 마실 수 있는 물 같지 않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
-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름의 방식으로 물을 걸러서 먹지만, 그런 모래흙을 구하는 것 조차도 여의하지가 않아 대부분은 가라 앉혀서 먹고 있다.

Q4. 우물물에서 느낄 수 있는 맛은 어떻습니까?

- 특이한 맛은 없으나 가끔 짠 맛이 느껴질 때도 있음.

※ 흘랑타야 지역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
설문 조사에 응하는 주민들의 반응 훨씬 뜨거움.

04 변화의 영역

가. 주목 분야

- 해당지역 물 공급 방식 변화 필요
- 불안정한 전력공급 방식 변화를 통한 안정적 급수체계 구축
- 수인성 질병 감소를 위한 주민대상 보건교육 위생교육 프로그램 수립
- 현지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여부와 협력기관(양곤YMCA) 조직 활용 방안 착안

나. 현지의 수요 및 상황

- 해당지역의 물 문제는 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시 정부 차원의 지원이나 관리가 거의 되고 있지 못한 상황임. 현지지역에서 상수도의 개념은 공동관로를 이용한 공동우물을 의미하며, 세대에 별도로 설치된 개별우물은 관리되지 않는 생활용수와 달리 사용되는 실태임. 식수원(상수도)와 하수도 자체가 분리되지 않아 버려지는 하수 및 오수가 각 각의 집 앞이나 공터등 낮은 곳으로 모이고 또한 각종 오물까지 쌓여 악취 및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 지하수 자체를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많은 지역민들은 식수 오염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수질조사 결과서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같은 간단한 정수설비조차 없는 흘랑타이야 지역은 암모니아성질소, 염소 이온등 식수로써 부적합한 유해한 물질과 심미적 영향물질인 염소이온, 망간 등이 채취되고 정수설비가 설치된 쉐이피타 지역은 적합으로 결과가 나오는 걸로 보면 상당부분 지하수자체도 오염이 되어 빠른 시간내에 새로운 식수 공급과 하수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실제 식수만을 대상으로 현지 기관이 관리하거나 단체가 관리하는 물을 시료로 적합도를 검사한 결과 흘랑타이야 지역 2곳의 식수는 사용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쉐이피타 지역의 보육시설의 자연정수형 시료는 적합 판정을 받기는 했으나 시료 채취 후 일정 시간이 불가피하게 경과하여 미생물에 관한 항목등 질병 요인을 분석하는 데에 이르지는 못했다

항 목		먹는물 기준	훌랑타이야-1	훌랑타이야-2	세이피타
미생물	일반세균	100CFU/mL이하	-	-	-
	총대장균군	불검출/100mL	-	-	-
	분원성대장균군	불검출/100mL	-	-	-
유해영향 무기물질	납(Pb)	0.01mg/L 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소(F)	1.5mg/L 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비소(As)	0.01mg/L 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세레늄(Se)	0.01mg/L 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수은(Hg)	0.001mg/L 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시안(CN)	0.01mg/L 이하	-	-	-
	크롬(Cr)	0.05mg/L 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암모니아성질소	0.5mg/L 이하	불검출	0.27	불검출
	질산성질소	10mg/L 이하	8.8	불검출	0.6
	카드늄(Cd)	0.005mg/L 이하	-	-	-
	붕소(B)	1.0mg/L 이하	-	-	-
심미적 영향물질	경도(Hardness)	1000mg/L 이하	461	53	58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mg/L 이하	4.7	12.6	1.9
	냄새(Odor)	소독냄새외 없을것	-	-	-
	맛(Taste)	소독으로 인한 맛 이외 없을것	-	-	-
	동(Cu)	1mg/L 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색도(Color)	5도 이하	-	-	-
	세제	0.5mg/L 이하	-	-	-
	수소이온농도(pH)	5.8 ~ 8.5	-	-	-
	아연(Zn)	3mg/L 이하	0.021	0.003	0.005
	염소이온	250mg/L 이하	919.4	8.6	23.1
	철(Fe)	0.3mg/L 이하	불검출	불검출	0.21
	망간(Mn)	0.3mg/L 이하	1.676	0.007	0.009
	탁도(Tirbidity)	1.0 NYU이하	-	-	-
	황산이온	200mg/L 이하	-	-	-
	알루미늄(Al)	0.2mg/L 이하	불검출	0.02	0.2
수질판정			부적합	부적합	적합

무응답 11

◎ <표> 지하수 수질검사 측정 결과

다. 사업대상 분야(Target Area)의 지표 및 기초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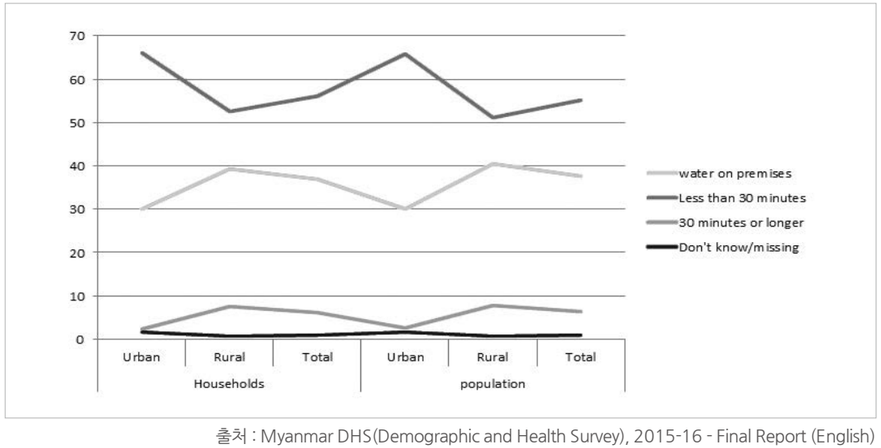
- 사전조사에서는 조사기간이 기초선을 작성하기에 짧아 2차 자료에서 추출한 지표로 식수를 얻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왕복)을 설정함.

Table 2.1 Household drinking water

Percent distribution of households and de jure population by source of drinking water, time to obtain drinking water, and treatment of drinking water, according to residence, Myanmar DHS 2015-16

	Households			Population		
Characteristic	Urban	Rural	Total	Urban	Rural	Total
Source of drinking water						
Improved source	89.2	76.9	80.2	89.5	77.0	80.4
Piped into dwelling/yard plot	8.1	5.7	6.3	8.4	6.1	6.7
Public tap/standpipe	3.2	3.1	3.2	3.0	3.0	3.0
Tubewell/borehole	15.7	32.7	28.1	16.1	32.5	28.1
Protected dug well	12.7	25.8	22.3	13.1	25.7	22.3
Protected spring	0.7	3.5	2.7	0.7	3.5	2.8
Rain water	0.7	2.4	2.0	0.5	2.5	1.9
Bottled water	48.1	3.8	15.5	47.7	3.6	15.5
Non-improved source	10.7	22.9	19.6	10.4	22.8	19.5
Unprotected dug well	4.0	10.2	8.5	3.9	10.5	8.8
Unprotected spring	0.5	2.5	1.9	0.5	2.6	2.0
Tanker truck/cart with drum	4.0	1.6	2.3	3.8	1.7	2.2
Surface water	2.2	8.6	6.9	2.2	8.0	6.4
Other source	0.1	0.2	0.2	0.1	0.2	0.2
Total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Time to obtain drinking water (round trip)						
Water on premises	30.0	39.2	36.8	30.0	40.4	37.6
Less than 30 minutes	66.0	52.5	56.1	65.9	51.1	55.1
30 minutes or longer	2.4	7.6	6.2	2.5	7.8	6.3
Don't know/missing	1.6	0.7	1.0	1.7	0.7	1.0
Total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Water treatment prior to drinking[1]						
Boiled	23.8	25.6	25.1	22.6	25.1	24.4
Bleach/chlorine added	0.3	0.6	0.6	0.3	0.7	0.6
Strained through cloth	39.0	61.5	55.5	39.3	61.3	55.4
Ceramic, sand or other filter	6.6	9.5	8.7	7.3	9.0	8.6
Let it stand and settle	4.8	8.4	7.4	4.3	8.3	7.2
Other	1.3	1.4	1.4	1.1	1.3	1.3
No treatment	44.8	18.6	25.6	44.5	19.3	26.1
Percentage using an appropriate treatment method[2]	29.0	34.1	32.7	28.2	33.3	31.9
Number	3,315	9,185	12,500	14,216	38,581	52,797

[1] Respondents may report multiple treatment methods, so the sum of treatment may exceed 100 percent.
[2] Appropriate water treatment methods include boiling, bleaching, filtering, and solar disinfecting. As only four households used solar disinfection, the category not shown separately.



출처 : Myanmar DHS(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2015-16 - Final Report (English)

- 미얀마 내 도시화가 된 지역에서 왕복 30분 미만이 가장 비율이 높으며, 비도시화 지역에서도 왕복 30분 미만의 시간이 걸리지만 30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비율이 도시화된 지역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 30분 미만의 왕복시간을 뒤이어 가정 혹은 구내에 식수가 있는 경우는 약 30 – 40% 정도임을 알수 있으며 이 또한 비도시화된 지역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 결론적으로 미얀마 내에서 식수를 얻기 위해서는 30 – 40%를 제외하고는 왕복 30분 미만,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림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부산YMCA에서 조사한 현재 먹고 있는 물에 대한 불만 요소로 2번째로 높았던 공급의 편의성을 들 수 있다. 또한 부산YMCA에서 조사한 결과 사용 중인 물로 인한 질병경험(수인성질병)이 있는 주민들은 70퍼센트를 육박할 정도이다. 식수를 얻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식수가 외부에 노출되어 수질의 오염이 있을 수 있기에 식수를 얻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은 수인성 질병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부산YMCA는 이를 토대로 사업 논리모형(Project Design Matrix, PDM)을 작성할 예정이다. 안전하고 접근성이 높은 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주민리더를 양성 및 교육하여 결과적으로 수인성 질병률을 낮추는 것을 하나의 지표로 설정 할 것이다.

라. 단체의 특성과의 연계

- 우리 단체는 국내 뿐 아니라 세계 120여개국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미얀마 양곤YMCA와는 오랜 교류관계에 있다. YMCA는 동티모르 지역에 태양광 기술을 적용한 전기에너지 공급의 경험을 가진 지도력과 양곤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지역의 대학생 자원봉사 프로그램(라온아띠)을 2008년부터 운영해온 지도력의 역량이 그대로 본 회에 축적되어 있다. 따라서 현지조사에서도 이런 연대의 틀 속에서 깊은 이해와 협력의 방안들을 함께 모색했으며, 협력기관인 양곤YMCA의 조직력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전력이 부족한 현지 상황을 고려할 때, 본 회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지도력과 기술력에 현지단체 및 시정부, 지역주민들의 신뢰가 높다는 점도 강점이다.
- 본 회의 또 하나의 강점은 조직화 경험이다. 이미 국내는 물론 국외 YMCA와의 깊은 연대를 통해 주민조직화 및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공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미얀마 양곤지역보다 열악한 동티모르 산간지역의 공정무역 및 주민과의 협업을 통한 사회적 기업모델, 태양광사업 추진과 현지관리까지 철저히 현지화 해온 경험이 있다. 또한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단순히 인프라 구축에 머물지 않고 유엔 SDGs 목표 중 물, 에너지, 건강권을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이는 지역 내에서 가장 선도적인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추진과 활동을 하고 있는 본회의 또 다른 강점이다.
- 마지막으로 본 회는 부산시정부와도 긴밀한 협의를 해오고 있으며, 단순히 하나의 단체 사업이 아닌 협업 모델로서 민관협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05 자료 출처

The 2014 Myanmar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 The Union Report, May 2015 (web)
Myanmar DHS(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2015-16 – Final Report (English)
the world bank group (web)
climate-data (web)
German watch(2015)
신재생 에너지 기술 및 시장분석 김송호 저
훤히 보이는 신재생 에너지 How Renewable Energy Changes Future 주무정, 이규석, 손충열, 최순욱 공저
신재생에너지 LEON FRERIS, DAVID IINFIELD 공저 / 차준민, 국경수, 김진오 공역

06 기타 활동 자료 (사진 등)

01

02

03

04

05

06

01 흘랑타이야 종합병원 FGI
02 흘랑타이야지역 식수행태조사 및 설문조사
03 쉐이피타지역 식수행태조사 및 설문조사
04 흘랑타이야 및 쉐이피타지역 대표자 회의
05 양곤시청 방문 및 회의
06 미얀마 KOICA 방문 및 회의

향후 계획

chapter 03

○ **협력 파트너와 지속적 협업 관계 구축**

: 양곤YMCA와 대상지역 상황에 대한 공유 및 본 사업추진을 위한 소통 강화
: 양곤YMCA 주요 관계자 2017년 중 부산지역 방문 예정
: 부산YMCA 주요 지도자 양곤YMCA 및 대상지 방문 예정

○ **KOICA 민간협력사업 지원 신청**

: 2018년 ~ 2020년 3년간 지속사업으로 사업신청 예정
: 현지와의 협업 파트너십을 통해 주민리더교육, 현장성 강화 프로그램 운영

○ **부산시 등 민관협력사업으로 확대 계획**

: 부산시 국제교류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 프로그램 운영
– 의료지원, 대학생 봉사단, 위생교육 등 운영 계획

PART 13

[보건]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시행일자	2017년 4월 26일(수) ~ 6월 24일(토) (총 60일)
지역	탄자니아 Pwani주 Kibaha, Kilimanjaro주 Moshi

2017년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지역조사(사업형성조사) 결과보고서

기본정보					
단체명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작성자**	성 지 혜	
단체현황	현지 지부			☐ 있음	☑ 없음
	NGO 등록			☐ 있음	☑ 없음
	KOICA 협력사업 수행 경험 유무			☑ 있음	☐ 없음
사업 분야	보건 (보건인력 역량개발)		**코드번호**	122**	
조사 목적	현재 탄자니아는 실명인구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실행된 바가 없어, WHO의 개발도상국 실명인구에 근거하여 실명인구를 전체인구의 약 0.5%에서 1%로 측정하고 있음. 탄자니아 내 모든 안과 진료 서비스를 모니터링하고 조정하는 의무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MoHsW) 산하 국가 안구 치료 프로그램(NECP)을 두고 있으나 사회·문화적 차별로 정책과 서비스는 효과적이지 못함.[01] 이에 실로암 시각장애인복지회에서는 탄자니아 주민들의 안질환 실태 및 치료 필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과 안보건 질환 관련 의료시설 및 의료 인력의 실태를 조사하고, 장애인의 고용확대와 직업훈련 관련하여 커피농장 방문을 통해 장애인들의 노동 및 생산현황 등을 조사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기초선을 측정하고자 함.				
대상 국가 및 지역	**국 가**	탄자니아	**지 역**	Pwani주 Kibaha, Kilimanjaro주 Moshi	
	탄자니아 프와니주 키바하 지역 및 킬리만자로주 모시 지역				
조사기간	**전체 조사 기간**	2017년 4월 26일(수)~6월 24일(토) (총 60일)			
	현지 체류기간	6월 11일 ~ 6월 16일 (총 6일)			

01 National eye care strategic plan 2011-2016,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welfare, 2011.

조사 목적

chapter 01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장애주류화 흐름 대두

2015년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서는 장애포괄적 개념이 중요 의제로 설정되었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2013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장애인을 추가하며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장애인 사업 확대를 향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국제개발 영역에서 장애주류화 흐름이 대두됨.

○탄자니아의 높은 빈곤률과 주요 산업

탄자니아는 MDGs 8개 목표 중 절대빈곤 및 기아퇴치와 모성보건 증진은 2015년까지 목표 달성에 실패함.국가 빈곤선 이하 비율은 35.7%(2001)에서 28.2%(2011/12)로 감소되었으나 빈곤감소 속도는 느리게 진행되고 있어 2015년까지의 목표인 18%에는 도달하지 못함. [02]

경제성장률은 7%대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 대외원조를 통해서 얻은 성장이며 주요 산업은 농업임. 농업은 GDP의 27%와 전체 수출의 30%, 노동인구의 약 80% 이상을 차지함.

02 탄자니아 국가협력전략, 관계부처 합동, 2016.

○탄자니아의 안질환 현황

안질환은 탄자니아의 10대 질환 중 하나이며, WHO에 따르면 탄자니아의 주요 실명 원인은 백내장이 50 %, 각막이 20 %, 녹내장이 10 %, 그 외 기타질환이 20%임. 기후적 요인인 강한 자외선에 의해 높은 백내장 유병률을 보이고 있으며, 세계 3대 트라코마[03]발병국으로써 비위생적인 환경에 기인한 트라코마성 각막혼탁 발병위험에 전국민의 1/3이 노출되어 있음.

탄자니아 지역주민 다수가 안질환 치료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으며, 전문적인 안질환 치료가 가능한 안과 의사 및 수술에 필요한 의료 장비 등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안보건이 매우 취약함.

○탄자니아 장애인 정책 및 현황

탄자니아 정부는 1970년대부터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장애인을 위한 직업교육 및 훈련, 고용활동, 교육, 법규 등을 위해 노력했으나, 장애인을 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로 보는 인식과 사회·문화적 차별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정책은 효과적이지 못한 실정임. 2010년 장애인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탄자니아 장애인의 고용률은 0.7%에 불과함.

○사업 필요성 및 농업 지원의 적절성

탄자니아 내 개선 가능한 안질환을 치료하고, 예방 가능한 실명을 방지하여 지역 내 안보건이 증진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안질환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안질환 및 실명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안과 의사를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안과 수술법 및 의료기기 활용 교육을 통해 의료진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안보건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탄자니아의 경제활동 인구 중 75%는 농업에 종사하고 지방 경제 수입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농업은 탄자니아 국민들의 중요한 경제 활동 수단임. 탄자니아의 농업은 GDP의 24.1%, 총 수출액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커피는 담배에 이어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주요 수출 농작물 품목으로 탄자니아의 경제 산업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음. 따라서 시각장애인이 재배하고 판매하는 커피 농장 운영은 시각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탄자니아 내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 현황을 조사하고 직업훈련 실시와 고용기회 확대, 나아가 빈곤탈출의 기회가 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실로암 시각장애인복지회에서는 탄자니아 주민들의 안질환 실태 및 치료 필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과 안보건 질환 관련 의료시설 및 의료 인력의 실태를 조사함. 이와 더불어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농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커피가 주요 생산물인 킬리만자로주 모시지역의 커피농장을 방문하여 농장과 커피판매협동조합, 현지 장애단체 등의 관계자들을 통해 커피 생산과 판매현황, 장애인의 고용현황 등을 조사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기초선을 측정함.

03 박테리아 감염으로 발생하는 감염 질환의 하나로 세계 7대 소외 열대성 질환 중 하나.

조사 결과

chapter 02

01 일정별 조사 활동

기 간		활동 내역 약술
국내	4.27 ~ 5.17	▪ **문헌조사(1차)** – 지역정보, 분야별이슈, 지역내 타 기관활동, 이해관계자정보, 범분야 이슈 등 항목별 문헌조사 목록 작성 – 발간보고서, 관련 웹사이트, 서적, 온라인문서 등 문헌조사 실시 ▪ **현지협조 사전준비(1차)** – 현지기관 리스트, 사업정보, 위치, 담당자 등 사전 정보 확인 – e-mail과 전화를 통해 방문가능여부, 일정, 방문시 필요사항 등 협의 ▪ **현지활동 세부계획 수립** – 기관간 관련여부, 현지 동선 등을 감안하여 방문일정 조정 – 현지기관과 협의결과 및 현지사정을 고려하여 세부일정 확정 ▪ **아프리카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자문미팅** – (사)아프리카미래재단 박상은(샘병원 의료원장)대표, 김억사무총장을 통해 아프리카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자문 – 글로벌투게더 이명근상임이사(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교수)를 통해 현지 방문시 필요한 제반사항 및 협조인력 요청 등 협의
	5.18	▪ **팀 회의 실시** – 자료 수집내용 공유 – 기획단계에서 조사된 내용과 변동된 점이 있는지 확인 ▪ **현지협조 사전준비상황 공유** – 방문기관 미 확정 등 미흡한 부분 확인하여 추가 조사 결정
국내	5.19 ~ 6.8	▪ **문헌조사(2차)** – 장애인현황 등 추가 확인부분 지속적인 문헌조사 실시 ▪ **현지협조 사전준비(2차) 및 현지활동 준비** – 현지기관과의 연락을 통해 협의일정 및 내용 확정 – 방문기관 최종 확정 – 현지 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 최종 확정 ▪ **제1차 자문회의(6.2) 개최**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서원석교수(국제보건전공) 및 관계자 – 아프리카 국제개발협력 방안 자문 – 탄자니아 국가정책 및 지역정보 수집
	6.19 ~ 6.23	▪ **현지조사내용 정리** – 현지조사 실행여부, 내용, 성과, 평가 등 정리
	6.24	▪ **제2차 자문회의 개최** – 강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이해균이사(前 KOICA 이사) 및 관계자 – 현지조사 내용 공유 및 사업추진 방향 논의
	6.26 ~ 7.14	▪ **현지 선교사 자문미팅** – 현지조사기간에 만났던 배지홍 선교사(경북대 의대, 탄자니아 의료 선교사) 및 실로암 안과병원 의료진과 관계자 – 현지 안과 의료현황과 안질환 환자정보, 안보건사업에 대한 추가 자문 ▪ **장애인 직업재활 분야 전문가 미팅** –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조성재교수를 통해 우리나라의 장애인 직업재활의 성공적인 사례와 탄자니아 현지적용을 위한 타당성 등 논의 ▪ **자료분석** ▪ **결과보고서 작성**
현지	6.10 ~ 6.14	▪ **프와니주 키바하지역 조사** – 툼비병원, 무힘빌리의과대학병원, KOICA, KOTRA, 탄자니아 장애인 단체연합, 탄자니아 시각장애인협회 등 기관방문 및 관계자 미팅 – 키바하지역 현지 선교사 미팅(오종성 선교사, 현지 10년 이상 거주, 스와힐리어 능통) – 기관조사 과정에서 탄자니아 장애인단체연합이 UK Craft 와 함께 커피농장사업 관련 타당성 조사연구중임을 확인
	6.14 ~ 6.15	▪ **킬리만자로주 모시지역 조사** – 탄자니아 장애인단체연합 모시지부, 탄자니아 시각장애인협회 모시지부 등 기관방문 및 관계자 미팅 – 모시지역 현지 선교사, 현지 커피판매협동조합장 미팅

02 조사 항목 및 방법

	조사 항목	조사 방법	조사 기간
1	지역정보	문헌조사(일반적 현황) 현지 인터뷰(현지자원)	4.27~6.15
2	사업분야 이슈	문헌조사(장애 및 안보건 정책) 현지 인터뷰(현지 현황 및 욕구)	4.27~6.15
3	지역 내 타 기관 활동현황	문헌조사	4.27~6.8
4	이해관계자	현지 인터뷰	6.11~6.15
5	범분야 이슈	문헌조사 현지 인터뷰	4.27~6.15

03 조사 결과 분석

☆지역: 킬리만자로 모시, ◇지역: 프와니주 키바하지역

1) 조사 대상지역

2) 안보건사업

- 탄자니아 프와니주 키바하지역 Tumbi병원을 방문하여 2015년도에 실로암에서 기증한 수술장비의 활용여부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장비가 잘 작동함.
- 또한, 병원장의 안보건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태도, 그리고 외래진료실의 확장과 안과의사의 신규 채용 의지 등 병원도 안보건 환경 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어 안보건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인함.

3) 직업재활사업

- 탄자니아 장애인단체들의 중앙기관과 지역(모시)기관 간의 관계구조와 협력정도를 확인하고 사업진행에 필요한 정부승인, 은행업무 등 제반행정 처리의 상호간 협력관계를 구축함.
- 현지 장애단체 지부장과 선교사, 커피판매협동조합장과의 만남 등을 통해 탄자니아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모시지역의 지역환경과 물가현황, 커피재배 관련 정보, 커피농장 운영에 필요한 정보 등을 조사함.
- 커피농장, 커피 로스팅 공장 등의 방문을 통해 커피의 경작과 제품생산의 공정도 확인함으로써 커피재배뿐만 아니라 상품화 및 판로 등 커피농장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함.

04 변화의 영역

가. 주목 분야

1) 안보건사업

- 동아프리카에 위치한 탄자니아는 실명인구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실행된 바 없으나, WHO의 개발도상국 실명인구에 근거하여 전체 인구의 약 1.0%인 53만 5천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음. 실명의 주요 원인으로는 백내장 50%, 각막이상 20%, 녹내장

10%, 그 외 기타질환 20%로 추정함.

- 탄자니아 실명의 가장 큰 원인인 백내장은 자외선이 강하고 고온인 동아프리카의 기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함. 또한 탄자니아는 세계 3대 트라코마 발병국임. 주로 오염된 물을 통해 감염돼 실명까지 이르게 하는 전염병인 트라코마는 세계 7대 소외 열대성 질환임. 탄자니아의 고온다습한 기후적 요인과 공공위생시설 등이 부족한 비위생적인 환경 요인으로 인해 질병이 만연함. WHO에 따르면 트라코마 유행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2억 290만명 중 220만명의 시력이 이미 손상되었으며, 특히 그 중 아프리카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2) 직업재활사업

- 탄자니아는 대외원조를 통한 도로, 항만, 전기 등의 인프라 개선사업, 급속한 서비스 산업 성장, 금과 다이아몬드 등 광업부문의 성장에 힘입어 최근 평균 약 7%대의 높은 경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농업은 GDP의 27%와 전체 수출의 30%, 노동인구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산업임.
- 탄자니아의 농업은 GDP의 24.1%, 총 수출액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커피는 탄자니아의 주요 수출 농작물 품목 중 하나로 탄자니아의 경제 산업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탄자니아의 커피농가는 약 40만 가구 250만명이며 커피 농가는 노령 등으로 인해 줄고 있는 추세이지만 킬리만자로 지역에서는 확대되고 있음.
- 탄자니아의 커피 산업은 국가 전매 제도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커피 재배 및 생산시판로는 충분히 구축하기 용이한 사회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있음. 따라서 커피 산업 분야에서 시각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형태의 커피 농장 사업장을 구축하고 숙련된 시각장애인 근로자를 양성하여 커피 작물을 재배한다면 커피 판매를 통한 시각장애인 근로자의 경제적 자립 기반 구축을 기대할 수 있음. 시각장애인이 재배하고 판매하는 커피 농장 운영은 시각장애인의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권리 옹호에도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나. 현지의 수요 및 상황

1) 안보건사업

(1)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

- 탄자니아는 고온, 강한 자외선으로 인해 백내장 유병률이 높고, 비위생적 환경에 기인한 트라코마 발생이 만연함. 2014년 기준 탄자니아 인구 5000만명 중 트라코마 감염률은 60%로 추정하며, 어린이와 여성의 감염확률이 더욱 높은 상황임. 트라코마는 위생관리를 통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며, 조기발견 및 지속적인 치료 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나 아동의 경우 감염 초기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며, 탄자니아 주민의 위생관리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낮아 발병률이 높고,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탄자니아 전체 인구비율의 45%를 차지하는 유년기 아동 중 약 74%가 안질환을 겪고 있으나, 이 중 9%만 적절한 치료를 받음. 이는 지역주민 대다수가 비위생적인 환경 속 안질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안질환 발생 시 병원 방문 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으며, 비과학적인 민간치료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높고, 안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하기 때문임. 탄자니아는 인구 160만명 당 1명의 비율로 안과 전문의가 존재함. 이는 우리나라 대비 1/80 수준에 불과해 그 수가 매우 부족하며, 전문적인 의료 설비 및 의약품 등 의료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안질환을 치료받기 어려움. 이에 백내장, 트라코마 등 안질환의 조기 발견 및 전문적인 치료가 어려워 실명으로 이어지고 있음.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안질환 발병률 감소를 위해서는 실명예방교육 및 의료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필요가 있음. 또한, 여전히 부족한 의료기구와 의약품 현황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안과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 할 수 있도록 외래진료 및 수술에 필요한 물적 의료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사업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 금번 지역조사에서 방문한 Tumbi 병원은 탄자니아 25개 지역 중 프와니주 키바하지역에 위치함. 키바하지역은 탄자니아의 구 수도인 다르에스살람으로부터 약 40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7개의 병원, 20개의 보건소 그리고 226개의 보건지소가 있음. 툼비병원은 2011년 Regional Referral Hospital 승격 후 탄자니아 프와니주 키바하지

역의 공중 보건의료시설로 기능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건부의 재원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의료기구와 의약품 부족을 겪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의료서비스의 질적 만족도와 적절한 치료가 타 지역에 비해 낮았음.

- 시설 측면에서는 새롭게 신관을 개장하였고, 2015년에 비해 외래진료실이 한 곳에서 두 곳으로 확장되었음. 새로 부임한 현재의 원장(E.Wayi)은 Comprehensive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in Tanzania(CCBRT)에서 16년간 근무한 정형외과 의사이고, 새로 부임할 안과전문의도 CCBRT에서 10년간 안과의사로 근무한 사람임.
- 실로암 시각장애인복지회와 실로암안과병원에서 2015년에 기증한 수술현미경, 슬릿램프 등 모든 수술 장비가 잘 작동하고 있었음. 다만, 안과 전문의가 곧 채용되어 진료를 볼 예정으로 되어있으나, 현재 레지던트 의사만 근무하고 있었음. 2017년 6월 현재 배지홍 선교사와 협력하여 주 1회 무료로 진료 및 수술을 하고 있으나 증류수의 부족으로 그나마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임. 현재까지 녹내장 환자 포함 26명에게 수술을 진행하였음.

(3) 이해관계자 상황

- 현재 새로 부임한 안과병원 원장(E.Wayi)도 안보건 지원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장비설치 점검을 위한 병원라운딩을 직접 안내할 정도로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 또한, 외래진료실의 확장과 안과의사 신규채용 의지 등 병원측도 안보건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2) 직업재활사업

(1)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

- 탄자니아 장애인구는 전체 인구대비 8.4%인 380만 명이며, 이 중 시각장애인이 120만 명임. 다르에스살람에는 인구의 8.2%인 40만 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시각과 지체가 제일 많은 장애유형임. 탄자니아 정부는 1970년대부터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1990년대에는 장애인을 위한 직업교육 및 훈련, 고용활동, 교육, 법규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장애인을 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로 보는 인식과 사회·문화적 차별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정책은 효과적이지 못한 실정임. CCBRT[04] 장애인보고서에 따르면 탄자니아의 장애인 고용률은 0.7%로 극히 낮은 상황이며, 탄자니아 법에 의하면 각 사업장은 3%의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을시 패널티가 없어 적용하는 사업장이 없고 관련 법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업자가 대부분임. 탄자니아에 장애인들에 의해 운영되는 공장이나 농장 등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장애인을 위한 직업센터는 욤보(yombo)지역에 목공, 바느질, 용접 등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 있음. 장애인 미 취업시 생계부양은 대가족중심 문화이므로 가족이 돌보며, 가족부양 불가시 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상황임.
- 장애인의 경우 차별과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직업 활동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직업 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도 직·간접적인 무시와 차별로 재직기간이 매우 짧아 다시 실직자가 되는 경우가 많음. 이와 같은 상황은 가족에게 생존을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로 부담을 주어 빈곤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따라서 빈곤탈출과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 직업재활과 관련한 사업 추진이 필요함.

(2) 사업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 커피는 담배에 이어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주요 수출 농작물 품목으로, 탄자니아 커피의 연간 수출액은 평균 1억 달러로 농작물 수출의 15%, 전체 수출액의 5%를 차지하고 있음.
- 탄자니아에서는 장애인이 커피 밸류체인에 참여하여 직업을 갖는 것이 어려운 실정임. 커피농장은 땅을 구매하고 커피농장을 운영하는 등의 물적□인적 자원이 필요한 분야이어서 장애인들은 상업적 용도로 커피 재배를 하기 보다는 부족의 땅을 통해 가족과 함께 농장을 운영하는 정도임.
- 장애인들이 커피농장사업에 참여하여 생두를 판매하려 해도 법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 공간이나 활로를 별도로 마련해 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커피 판매 및 거래에서도 비장애인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임.
- 더불어 커피농장사업은 장애인들이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며 자본 부족으로 인해 장애인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분야라는 인식이 팽배한 실정임.

(3) 이해관계자 상황

- 탄자니아 정부내에는 커피국이 별도로 있을 정도로 커피는 주요 농업생산물이자 수출품목임. 특히, 커피농장사업과 관련해서는 다르에스살람지역에서 탄자니아 장애

04 Comprehensive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in Tanzania

인단체연합이 현재 UKCraft와 함께 커피농장사업의 타당성을 연구 중이며, 곧 결과도 나올 예정임. 이는 커피농장사업이 장애인의 일자리개발 및 소득지원을 통한 자립생활 실현에 적합한 사업임을 설명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탄자니아 장애인단체연합이나 시각장애인협회 등 장애단체 관계자들도 장애인의 의존적인 삶에서 구직을 통해 긍정적인 삶으로 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하며, 사업추진을 하면 적극 지원과 참여의사를 밝힘.
- 탄자니아 장애인 단체들이 농작사업이나 경제적 자립의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보다는 인권 및 정치적 권리에만 재원이나 기금이 몰리기 때문임. 그러므로 이들 장애인단체연합이나 시각장애인협회 등의 단체들이 인권과 권리향상에서 더 나아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및 농작사업의 적극 참여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 KOICA 탄자니아 지부에서도 탄자니아의 질 좋은 커피와 연관된 사업에 관심이 많지만, 적합한 운영주체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장애인이 커피를 재배하고 원두를 한국의 장애인 채용 카페에서 소비하는 구조는, 양국의 장애인 일자리확보와 소득창출차원에서 지속가능성이 있는 상당히 흥미로운 사업 아이템으로 생각한다고 함.

다. 사업대상 분야(Target Area)의 지표 및 기초선

1) 탄자니아 개안 수술 및 안보건 사업

- 탄자니아 내의 실명의 주요인인 백내장 등의 안질환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2, 3차 병원의 물적, 인적 역량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 전 세계 시각장애 인구의 80%는 사전에 적절한 예방과 치료가 있으면 실명을 막을 수 있음. 2009년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여 유일하게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우리나라는 보건의료 관련 법령 및 제도정비, 의료기술 발전, 국민보건 향상 등 단기간에 세계적으로 뛰어난 보건 인프라 구축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 따라서 대상지역 의료 환경을 감안하고 주민들의 실명예방과 적절한 치료를 통한 안보건 증진을 위하여 수술 장비 지원과 함께 우수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수술 및 진료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며, 현지의료진에 대하여 선진의료기술 전수 등의 교육이 필요함.

2) 킬리만자로지역 커피농장운영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사업

- 커피 농업이 확대되고 있는 킬리만자로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커피 농장을 운영한다면 경제 활동에 참여하여 소득을 창출함으로써 경제적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커피 농장 운영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각장애인이 커피 재배 훈련과 생산에 참여하여 수입을 창출해야 함. 이와 더불어 시각장애인이 생산한 커피 생두에 대한 정부 납품과 판매를 위해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시각장애인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설치를 통해 전 의사결정과정에 시각장애인과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커피 농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시각장애인이 커피 재배 훈련과 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커피 재배 및 수확 주기(초기 3년 개간, 3년 수확, 1년 휴지기)를 고려하여 매년 커피 생두를 수확할 수 있도록 1차년도에 임대하는 커피 농지의 절반은 개간부터 커피 식목, 재배, 수확 전 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빈 농지를 임대하고, 나머지 절반은 기존에 커피가 재배되고 있는 커피 농지를 임대함. 그리고 2차년도와 3차년도에 각각 10에이커씩의 빈 커피 농지를 임대하여 개간하면 매년 커피 생두를 생산할 수 있는 커피 농장 환경을 갖출 수 있음. 농지 임대뿐만 아니라 원거리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근로자가 생활할 수 있는 숙소를 확보하고, 적합한 교육 수준 및 경력을 지닌 커피 교사 및 재활 교사 채용하여 시각장애인 근로자들이 적절하게 커피 재배 기술을 훈련하고 커피 생두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시각장애인이 생산한 커피 생두는 정부 전매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탄자니아의 법에 따라 정부 고시 가격으로 정부에 납품하고 일부는 탄자니아와 한국의 시각장애인 커피 전문점을 통해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 함. 이와 같이 얻은 순수익금은 시각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기존 사업 확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쓸수 있도록 적립하여 필요 시 사업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음.
- 전통적으로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낮은 인식이 존재하는 탄자니아에서 시각장애인이 생산한 커피 생두를 납품하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함. 이를 위해서 수익금의 20%를 탄자니아 시각장애인협회 중앙회 및 모시지부, 탄자니아 장애인단체연합 중앙회 및 모시지부에 각 5%씩 배분하여 지역사회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을 계획하고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의 승인 하에 실시 할 수 있도록 함.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생산한 커피 생두를 로스팅하여 브랜드화하여

판매함으로써 인식개선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를 비롯해 탄자니아의 시각장애인협회, 장애인단체연합 등 다양한 유관기관이 협력하는 사업이므로 장애인 당사자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의 전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운영위원회는 수익금 배분 규정과 숙소 운영 규정 등을 제정하고 다양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협의체 역할을 할 수 있음.

라. 단체의 특성과의 연계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는 국내 최대 시각장애인 복지기관으로써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슬로건에 입각해 장애인의 자립, 의료지원 및 직업재활 사업을 수행해 옴. 2014년부터 국제장애인지원사업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라오스, 몽골,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등 총 11개국을 대상으로 개발도상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특히 국내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직업재활, 교육, 정보접근성 향상 사업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 시각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직업재활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실로암안과병원과 연계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질환 예방 및 개안수술 등의 안보건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1) 안보건사업

	안보건사업 내용
필리핀	· 2014년부터 메리존스톤 병원과 협업하여 대상자를 선정, 안보건 예방교육자료 및 물품을 총 450명에게 배포함. 또한 백내장 수술 현미경 및 의료장비, Instrument 22개 품목 등 의료 소모품을 제공하여 현지 안과수술실 구축을 지원함. 이후 메리존스톤 병원의 현지 의사와 간호사 2명을 국내로 초청하여 의료진의 수술실력 신장을 도모함. · 2016년에는 인공수정체 110안을 지원하여 톤도 지역 빈곤층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안과수술을 진행함.
우즈베키스탄	· 2015년 카라칼팍스탄공과국 누쿠스 지역의 국립안과병원 및 지역보건소와 협업하여 실명률이 높은 누쿠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백내장 수술을 지원하고, 인근 초등학교에 안보건 예방교육자료 1000부를 배포함. 또한 YAG RASER, OCT, 시야계 등 안과 의료 장비를 기증하여 안과수술실을 구축함. · 2016년 카라칼팍스탄 내 안과 의료진 3명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함. 또한 인공수정체 500안을 카라칼팍스탄 병원에 기증하여 빈곤층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안과수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
라오스	· 2016년 라오스국립안과병원, 캄무안주립병원, 참파삭주립병원 등 3곳과 연계하여 빈곤층 안질환 환자 150명을 대상으로 백내장수술을 지원하고, 백내장 수술기기 PAHCO 2대 및 인젝터 100개, 인공수정체 150안을 기증함. 또한 라오스 내 안과 의료진 3명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함. · 2017년에는 라오스 안과의사를 대상으로 실로암안과병원과 협력하여 2주간 백내장 수술기법에 대한 한국초청연수를 실시하고, 백내장 수술장비 PAHCO 1대, 백내장 수술 재료 인공수정체 500안 및 인젝터 500개를 지원함. 또한 실로암안과병원과 협력하여 라오스 비엔티엔 거주 백내장 질환자 30명을 대상으로 무료 개안수술을 지원함.

2) 직업재활사업

	직업재활사업 내용
몽골	· 2017년에 시각장애인 바리스타 직업훈련실을 구축하고, 현지 강사와 시각장애인 훈련생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양성교육을 실시함.
라오스	·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사 양성훈련을 진행하였으며, 한국에서 전문안마강사를 파견하여 현지 안마업에 종사 중인 시각장애인안마사를 대상으로 전문안마사 역량강화교육도 실시함.
키르기스스탄	· 2015년에 시청각장애인협회 산하 단체에 현지 요구에 따라 재봉틀을 비롯한 5종의 직업재활 기기를 지원하였고, 2017년 비쉬켁에 거주하는 여성청각자애인에게 자수로고프린팅 1대를 지원함.
필리핀	· 2016년에 현지 안마사와 안마교사를 대상으로 시각장애인안마사역량강화사업을 진행하였음.
스리랑카	· 2016년에 그래픽디자인을 희망하는 청각장애인학생을 위해 고사양의 그래픽디자인이 가능한 컴퓨터를 지원하여 수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함. 또한, 농업종사를 희망하는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농기구 등을 지원하는 한편, 농업강사를 통해 전문 농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2017년에도 농업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캄보디아	· 2017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축산 교육과 가축 지원을 통한 직업재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등 직업재활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함.
네팔	· 2017년 카트만두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창업교육 및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05 자료 출처

- 국가협력전략 CPS_Tanzania, 관계부처합동(2016.12)
- Tanzania in Figures(2015)
- 탄자니아 통계청(2015)
- 장애인고용보고서(2010)
- 커피인사이드(2012)

06 기타 활동 자료 (사진 등)

01

02

03

04

05

06

01 Tumbi Hospital 검안
02 Tumbi Hospital 백내장 수술
03 Tumbi Hospital 안과장비 점검
04 Tumbi Hospital 안과병원장
05 탄자니아 장애인단체연합 (SHIVYAWATA)
06 탄자니아 시각장애인협회(TLB)

07

08

09

10

11

12

13

14

07 KOICA
08 KOTRA
09 화면확대소프트웨어 소개(TLB)
10 탄자니아 장애인단체연합 (SHIVYAWATA) 모시지부
11 커피농장
12 커피 로스팅공장(모시)
13 모시지역 커피판매 협동조합장
14 탄자니아 시각장애인협회 (TLB) 모시지부

향후 계획

chapter 03

1) 안보건사업

- 2017년 7월 말 백내장 등 안구질환이 있는 탄자니아 현지인들을 위한 개안수술을 실시할 계획이며 각종 수술 장비(PHACO 등)를 지원할 계획임. 이를 위해 안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현지 파견 의료진 수술면허와 수술장비 반입에 대한 승인허가 절차에 대한 점검을 할 예정임.
- 2018년에는 한국의료진이 현지를 방문하여 현지의료진 교육 및 백내장 수술을 시행할 계획이며, 3주에 걸친 현지의료진 국내초청연수를 진행하여 PHACO Machine을 통한 훈련을 진행할 계획임. 또한 백내장 수술을 위한 첨단 수술기자재(PHACO) 및 수술재료 기증하여 50세 이하의 안과질환 환자 100명~200명을 수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수술 재료 지원 후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계획임. 또한 교육을 받은 의사들이 돈을 벌기 위해 다른 나라로 떠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일 계획임.
- 이와같이 탄자니아 안보건사업은 교육받은 의료진과 지원받은 의료장비를 활용하여 현지에서 사업이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의 자체 인력과 예산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임.

2) 직업재활사업

- 2017년 7월 말과 9월 초에 탄자니아 방문이 계획되어 있음. 커피농장사업 진행을 위해 탄자니아 모시지역 시장 등 행정가들과의 미팅을 통해 장애인 커피농장사업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임.
- KOICA 공모사업에 선정 이후 2018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 농지 임대및 숙소 확보 후 커피재배훈련과 생산에 참여하는 시각장애인을 모집하고, 커피생두 판매를 통한 시각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생산 커피의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실로암 시각장애인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모아 모델을 현지에 적용하여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이 때 직접 생산한 원두를 이용해 커피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함. 더불어 시각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 단체, 지역사회 및 정부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권리옹호 활동도 진행함. 시각장애인 커피농장 사업의 수익금 배분 규정 및 숙소 운영 규정 등을 시각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제정할 수 있도록 함.
- 원활한 사업의 진행과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사업 1차년도에는 현지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스와힐리어에 능통한 현지 코디네이터를 채용하여 사업을 관리하고, 차후에는 현지 법인 설립을 고려할 계획임.

PART 14

[보건] 아프리카미래재단

시행일자	2017년 4월 27일(목) ~ 6월 26일(월) (총 60일)
지역	마다가스카르 안자베투룽구

2017년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지역조사(사업형성조사) 결과보고서

기본정보				
단체명	사단법인 아프리카미래재단	**작성자**	양 선 모	
단체현황	현지 지부		☑ 있음	☐ 없음
	NGO 등록		☐ 있음	☑ 없음
	KOICA 협력사업 수행 경험 유무		☑ 있음	☐ 없음
사업 분야	보건: 식수개발사업	**코드번호**	1402* 1403*	
조사 목적	마다가스카르 안자베투룽구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식수 개발의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그리고 실행가능성 등을 조사한다.			
대상 국가 및 지역	**국 가** 마다가스카르	**지 역** 안자베투룽구		
	fokontany (동) Anjabetrongo / commune (시) rural analamisampy / district (도) toliara 2 / region (주) atsimo-andrefana 수도 안타나라리보에서 안자베투룽구까지 거리는 약 1100km이다. 툴레아에서 안자베투룽구까지 거리는 약 140km이다. 안타나라리보에서 안자베투룽구까지는 차로 약 2일이 소요된다.			
조사기간	**전체 조사 기간**	2017년 4월 27일(목) ~ 6월 26일(월) (총 60일)		
	현지 체류기간	5월 14일(일) ~ 5월 27일(토) (총 14일)		

조사 목적

chapter 01

이번 지역조사의 목적은 안자베투룽구의 현황 및 실태조사를 통해 식수개발사업의 타당성 및 실행가능성을 파악하여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세부 목표는 4가지로 다음과 같다.

첫째, 안자베투룽구 지역 정보를 얻는다(지역 개요, 인구, 경제, 보건·위생, 범이슈 분야 등).

둘째, 지역의 수요(Need)를 파악한다(가장 시급한 문제 및 그에 따른 수요와 공급의 간극 파악).

셋째, 식수 문제가 지역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한다.

넷째, 지역의 지질구조 및 대수층 조사를 통한 지하수 개발 가능성을 파악하여 향후 사업의 방향성을 구체화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한다.

※ 이번 지역조사는 짧은 조사기간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목적과 목표 및 조사 내용으로 수정하였다.

조사 결과

chapter 02

01 일정별 조사 활동

기 간			활동 내역 약술
국내	4월 일~ 5월 12일(금)		▪ **문헌 조사** 국가정보 및 주목 분야(식수개발사업) 관련 자료 조사 ▪ **지역 조사 준비** – 현지와 일정 조율 – 지역 조사자료 작성(설문지, FGD, KII) ▪ **KCOC 인큐베이팅 교육 참여**
	5월 29일(월) ~ 7월 24일(월)		▪ **문헌 조사** ▪ **조사 자료 정리 및 보고서 작성** ▪ **정산 자료 정리**
현지	5월 13일(토) –14일(일)		▪ **<이동> 인천 출발 →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나리보 도착(14일 오후)**
		저녁(14일)	▪ **현지 지역조사 사전미팅1** – 협력 파트너 FBDB(현지 NGO)와 미팅 – 인원 점검
	5월 15일(월)	오전	▪ **현지 지역조사 사전미팅2** – 협력 파트너 FBDB(현지 NGO)와 미팅 – 지역조사 목적, 내용, 방법 소개
		오후	▪ **현지 지역조사 사전미팅3** – 지역조사 세부 일정 조율 – 지역조사팀 교육(설문지)
	5월 16일(화)	오전	▪ **현지 지역조사 사전미팅4** – 설문지 실습
		오후	▪ **현지 지역조사 사전미팅5** – 지역조사팀 교육(Focus Group Discussion) – 최종점검
	5월 17일(수)	전일	▪ **<이동> 안타나나리보 출발 → 도착**
	5월 18일(목)	오전	▪ **<이동> 출발 → 툴리아 도착**
		오후	▪ **정부 관계자 면담1** – 툴레아 부시장과의 면담 – 툴레아 수자원공사 직원과의 면담 ▪ **<이동> 출발 → 안자베투룽구 도착**
	5월 19일(금)	오전	▪ **수원지 조사1** – Ampasikibo의 우물 ▪ **정부 관계자 면담2** – 안자베투룽구 지역 시장 면담
		오후	▪ **중국회사 방문** – 안자베투룽구 강수량 자료 요청 ▪ **설문조사**
	5월 20일(토)	오전	▪ **수원지 조사2** – 우기 기간에 이용하는 웅덩이 ▪ **설문조사**
		오후	▪ **설문조사** ▪ **FGD 준비**
	5월 21일(일)	오전	▪ **FGD 조사** – 마을위원회 그룹 ▪ **연못 타임랩스 촬영**
		오후	▪ **설문조사** ▪ **연못 타임랩스 촬영**

	5월 22일(월)	오전	· **FGD 조사** – 여성 그룹 · **설문조사** · **연못 타임랩스 촬영**
		오후	· **설문조사** · **연못 타임랩스 촬영**
	5월 23일(화)	오전	· **설문조사 진행** · **학생대상 수요 및 질병 조사**
		오후	· **설문조사 진행** · **학생대상 수요 및 질병 조사**
	5월 24일(수) 5월 25일(목)	전일	· **<이동> 안자베투룽구 출발 → 안타나나리보 도착**
	5월 26일(금)	전일	· **<조사 및 정산 자료 정리>**
	5월 27일(토)	오전	· **<정산 자료 정리>**
		오후	· **<출국>**

※ 위의 조사활동 내역은 조사1팀의 일정

※ 현지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2팀은 5월 21일부터 5월 30일까지 지하수 개발 가능성과 관련된 지질구조 및 대수층 조사 수행

02 조사 항목 및 방법

	조사 항목	조사 방법	조사 기간
1	국가 및 지역 정보 조사	문헌조사	5월 1일 ~ 7월 25일
2	현지 이해관계자 미팅 (정부 관계자)	면담	5월 18일 ~ 5월 19일
3	현지 수원지 조사	직접 방문	5월 19일 ~ 5월 20일
4	지역 현황 조사	Key Informant Q&A Paper	5월 19일 ~ 5월 23일
5	지역 현황 및 실태 조사	가정방문 설문조사(31가구, 217명) ※ 설문지 양식은 <별지2> 참조	5월 19일 ~ 5월 23일
6	지역 실태 조사 (마을 위원회, 여성 그룹)	Focus Group Discussion(마을위원회, 여성그룹) ※ 조사결과는 <별지3> 참조	5월 21일 ~ 5월 22일
7	연못(Pond) 이용실태 조사	연못 타임랩스(Time-lapse) 촬영	5월 21일 ~ 5월 22일
8	학생 수요(Need) 및 질병 조사	설문 조사	5월 23일

03 조사 결과 분석

가. 마다가스카르 국가 정보

1)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정식 명칭	Republic of Madagascar
수도	안타나나리보(Antananarivo)
면적	587,041㎢ (CIA, 2016)
기후	북부 – 열대 / 내륙 – 온대 / 남부 – 건조 (CIA, 2016)
언어	프랑스어, 말라가시어
인구	약 24,430,325명 (세계 52위, CIA, 2016.07. est.)
종족	Malayo-Indonesian, Cotiers, French, Indian, Creole, Comoran (CIA, 2016)
GDP	전체 10.37억 달러 / 1인당 405달러 (IMF, 2017)
GDP (PPP)	전체 40.05억 달러 / 1인당 1,563달러 (IMF, 2017)
HDI	0.512 (세계 158위, UNDP, 2015)
통화	Malagasy ariary (MGA)
종교	기독교, 토착 종교, 무슬림

※ 마다가스카르 국가 지도는 〈별지1〉 참고

2) 분야별 정보

① 인구

마다가스카르의 인구는 약 2,443만 명(238개국 중 52위)이다. 연령별 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25세 미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60%로 젊은 연령층의 비중이 높다. 인구성장률은 2.54%(235개국 중 세계 19위)이고, 출생률은 인구 1,000명 당 32.1명(226개국 중 34위)이다. 마다가스카르의 인구는 높은 출산율로 인해 가까운 미래에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01]

② 경제

마다가스카르의 전체 GDP는 약 10.37억 달러이고, 전체 PPP는 약 40.05억 달러이다. 1인당 GDP(PPP)는 약 1,500달러(세계 218위)로 최하위에 위치한다.[02] 전체 인구의 약 70%[03]가 절대빈곤선(Poverty Below Line, 하루 1.9달러)[04]아래에 위치하고 있어 국민의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매우 빈곤하다.

주요 산업으로는 서비스 분야가 58.9%이고, 농업은 24.8%이다. 그리고 산업은 16.3%를 차지한다.[05]

③ 교육

마다가스카르의 교육연한(School Life Expectancy)은 약 11년으로 전 세계 평균인 12년보다 1년이 적다. 15세 이상 문해율은 64.7%로 전 세계 평균인 86.1%보다 약 20%가 낮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약 41명으로 전 세계 평균(약 23명)보다 18명이 높다.[06]

마다가스카르에는 우수한 교원을 양성할 수 있는 사범대학이 없다. 이는 우수한 교원의 수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중 네 번째 목표인 교육의 질 제고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④ 보건·위생

마다가스카르의 보건 및 위생 관련 지표들은 매우 열악하다. 인구 10만 명 당 보건소의 수는 약 0.27개로 매우 적다. 또한 인구 1만 명 당 의사 숫자는 약 1.6명으로 전 세계 평균인 13.9명보다 매우 낮으며, 아프리카 평균인 2.7명보다도 적은 수치이다.[07]

현지인의 위생시설(화장실) 접근 비율도 낮다. 전체 인구 중 12%만이 위생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전 세계 평균인 67.7%보다 약 55%나 낮다.[08]

⑤ 수자원

개선된 식수를 이용하는 인구비율은 전체 국민 중 51.5%로, 국민의 절반 가까이는 아직도 비위생적인 식수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시골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도시와 시골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개선된 식수 이용 비율을 살펴보면, 도시에선 81.4%가 시골에선 18.4%만이 안전한 식수를 이용하고 있다. 두 지역 간의 안전한 식수이용률에 대한 격차는 매우 크다. 또한 시골에 거주하는 인구가 64.9%인 점을 고려하면, 시골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식수개선사업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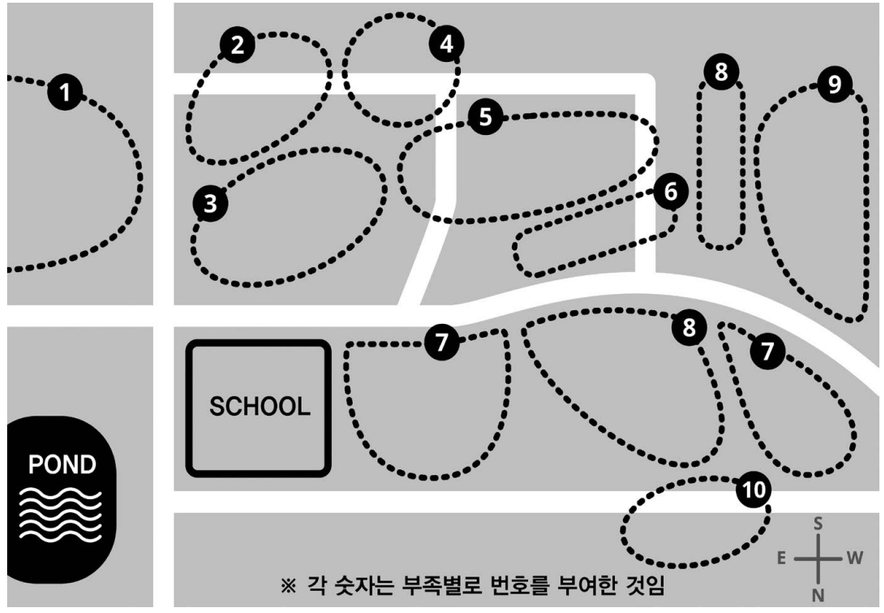
나. 안자베투룽구 지역 정보

1)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지역명칭	안자베투룽구(Anjabetrongo)
행정구역	fokontany (동) Anjabetrongo / commune (시) rural analamisampy / district (도) toliara 2 / region (주) atsimo-andrefana
기후	건기(4월 ~ 9월) / 우기(10월~ 3월) (Tete, 산소망초등학교 교장)
접근성	주 도로에서 약 11km 떨어져 있다. 주 도로에서 안자베투룽까지는 도로 상태는 비포장으로 우기 기간엔 나쁜 도로사정으로 인해 접근성이 매우 떨어짐
언어	남부 오지 말라가시 방언
인구	1,043명 (지방정부통계자료, Oct, 2016)
종족	Masikoro, Mahafaly, Atandroy, Mikea, Vezo, Tanalana

※ 안자베투룽구 지역 위치는 〈별지1〉 참조

01 CIA, 2016,"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ma.html"
02 MF, 2017
03 op.cit 2012
04 World Bank, 2015,"http://www.worldbank.org/en/topic/poverty/brief/global-poverty-line-faq"
05 IMF, 2017
06 World Bank, 2015,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SE.PRM.ENRL.TC.ZS"
07 WHO, 2015,"Atlas of African Health Statistics 2016"
08 op.cit 2015



◎ <그림1. 안자베투룽구 마을 지도>

2) 분야별 정보

①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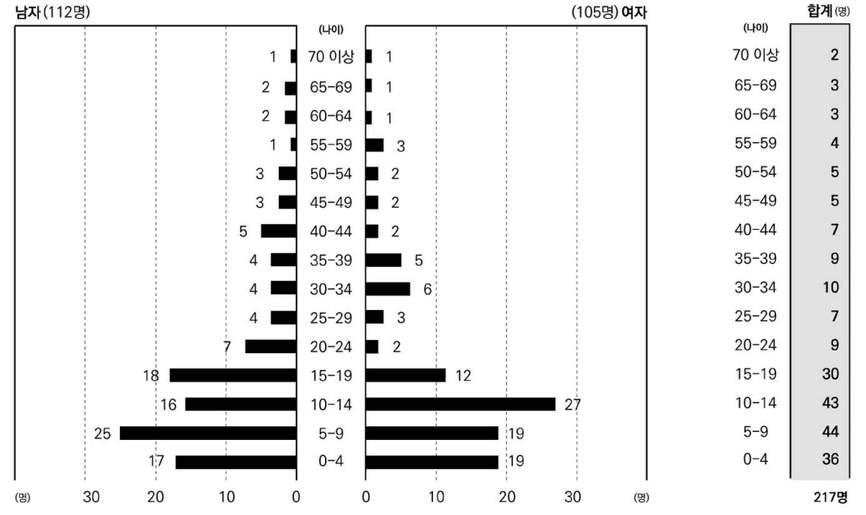
2016년 정부의 인구통계자료에 따르면, 안자베투룽구의 인구는 1,043명이었다.[09] 지역 조사 당시 안자베투룽구의 가구 수는 121가구이다.[10] 가구원 수가 가장 적은 가구는 2명이며 가장 많은 가구는 20명으로 가구별 가구원 수 편차가 크다.[11]

연령별 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25세 미만 인구가 이 지역 전체 인구의 74.7%이다(그림 2. 참조). 이는 마다가스카르의 25세 미만 인구비율(약 60%)보다 14.7%나 높다.

09 지방정부통계자료, Oct, 2016,

10 Tete, 산소망초등학교 교장

11 AFF AJ Household Survey, 2017,"SEC1Q1"



◎ <그림2. 안자베투룽구 인구 피라미드>

안자베투룽구의 인구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현재 이 지역 인구는 10년 전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했다.[12] 조사결과, 인구증가의 주요 요인은 높은 출생률이다. 이 지역의 10세 미만 인구 비율은 약 39%(80명)[13]로 이는 지난 10년 간 이 지역의 출생률이 높았음을 보여준다. 2016년 이 지역의 출생아 수는 인구 1,000명 당 64.7명[14]으로 2016년 마다가스카르 출생아 수 통계(32.1명[15])보다 약 2배나 높다. 이러한 인구변화추이라면, 가까운 미래에도 안자베투룽구 지역의 인구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 인구변화에 영향을 준 또 다른 요인은 인구유입이다. 지난 10년간 다른 지역에서 안자베투룽구로 이주한 가구 수는 7가구(약 22.5%)였다.[16]

12 이재훈 지부장에 따르면, 2016년 이 지역에는 불과 20~30가구 정도만 거주함.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집의 숫자가 점차 늘어, 현재는 이 지역에 121가구가 거주

13 AFF AJ Household Survey, 2017,"SEC1Q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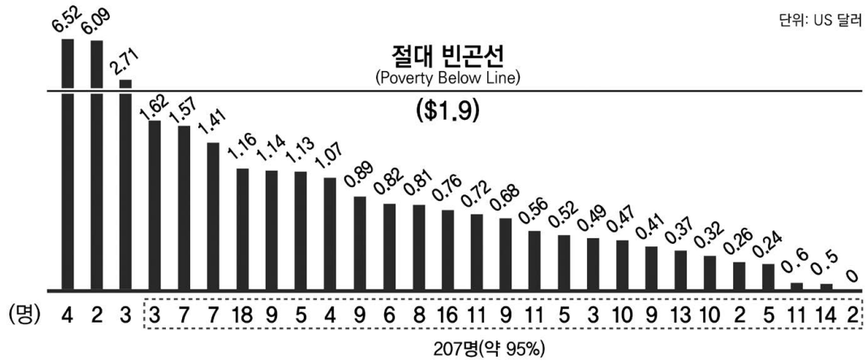
14 산출방법: 13명(2016년 출생아 수)÷(217명-13명(2016년 출생아 수)-3명(2017년 출생아 수)=201명))×1,000=64.7명

15 CIA, 2016,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ma.html"

16 AFF AJ Household Survey, 2017,"SEC1Q9"
"SEC1Q10", 안자베투룽구로 이주 이유에 대해 6가구(약 85.7%)는 '안전'이라고 대답함

② 경제

조사대상 217명 중 207명(약 95%)의 1인당 하루 GDP(PPP)[17]가 절대빈곤선(하루 1.9달러)[18]보다 아래에 위치해 있어, 마을 주민의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빈곤하다. 다른 지역의 절대빈곤비율(전 세계 14.6%, 아프리카 47%[19])과 비교하면, 이 지역의 빈곤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지역의 경제적 빈곤이 몇몇 개개인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즉, 빈곤 문제는 이 지역 전체에 만연해 있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할 것이다.



◎ <그림3. 안자베투룽구 1인당 하루 GDP(PPP, 구매력평가)>

안자베투룽구의 경제활동인구는 37%(217명 중 80명)이다. 이 지역의 주요 산업은 농업과 목축업으로 경제활동인구의 70%(80명 중 56명)가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앞으로 이 지역의 노동인구는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그림2. 인구 피라미드 참조). 노동인구의 증가는 이 지역 농업 생산량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③ 교육

안자베투룽구 지역의 교육시설은 2013년에 세워진 산소망초등학교가 유일하다. 조사결과, 이 지역 학생들의 초등교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먼저, 학교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이 높다. 마을 어디서나 도보 15분 이내면 학교시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 또한 산소망초등학교는 이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등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어[20], 초등교육에 대한 경제적인 접근성이 매우 높다하겠다.

산소망초등학교의 교육시설을 살펴보면, 학생 수 대비 위생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21] 학생들에겐 학용품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학생 수요조사에서 21.9%가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학용품'이라고 응답했다.

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는 240명이고(표1. 참조), 근무 중인 교사 수는 5명이다. 교사 1인당 평균 학생 수는 48명으로 마다가스카르 국가 통계(학생 41명)보다 7명이 높다. 학교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현재 운영되는 학급 수에 비해 교사 수가 부족해 몇몇 반은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학년	유치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중학생	총 인원
학생 수	52명	63명	32명	30명	17명	12명	34명	240명

◎ <표1. 안자베투룽구 산소망초등학교 학생 수>

출처: FBDB 결연아동 자료, 2017. 05

이 지역 주민들의 학력수준을 살펴보면, 주민의 약 23.2%가 학교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 주민의 26%는 과거에 학교교육을 받았지만, 그 중 80%는 초등학교까지만 마쳐 지역주민의 학력 수준은 대체로 낮은 편이다.

안자베투룽구의 교육여건에서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중학입학시험을 치룬 학생 전원이 합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었다고 한다.

④ 보건·위생

안자베투룽구에는 병원·보건소와 같은 의료 시설 및 상주하는 의료진이 없다. 가장 가까운 보건소가 약 11km 떨어져 있어 주민들의 의료·보건 서비스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이 매우 열악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지역 주민들이 의료·보건 서비스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로는 경제적인 요인이 컸다. 지난 한 달 동안 아팠던 경험이 있었던 83명 중

17 산출방식(구매력평가, PPP): 하루에 1인당 사용가능한 소득 × 3.86(이 수치는 전체 PPP ÷ 전체 GDP에 대한 값)

18 IMF, 2015, "http://www.worldbank.org/en/topic/poverty/brief/global-poverty-line-faq"

19 WHO, 2015,"Atlas of African Health Statistics 2016"

20 국내 NGO 기관인 밀알이 산소망초등학교를 후원

21 학교엔 화장실이 2개 있다.

60명(72.2%)이‘돈이 없어서’의료 시설을 이용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22] 반면‘멀어서’라고 응답한 사람은 2명(2.4%)이었다.

이 지역 주민들의 질병 발병률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한 달 동안 아팠던 경험을 묻는 질문에 가정방문 설문조사에선 217명 중 83명(38.2%)이, 산소망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135명 중 57명(42.2%)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안자베투룽구 주민들의 위생시설(화장실)에 대한 접근 비율은 매우 낮다.[23] 위생시설에 대한 이용률이 낮은 주 원인은 문화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더러운 것을 한 곳에 모아놓는 것을 전통적으로 금기시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는다.[24]

⑤ 수자원

안자베투룽구에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식수 공급을 위한 상수도 시설 및 수원지가 없다. 과거 인도계 회사가 약 86m 깊이의 우물[25]을 만들어 주었지만, 현재는 고장이 난 상태이다.

이 지역의 연 강우량은 약 613mm로 세계 평균인 약 807mm[26]보다 낮다. 하지만 이마저도 우기 기간 중 3개월[27] 동안에 강우량이 집중되어 있어 건기 기간엔 식수 및 생활용수로 활용 가능한 지표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건기 기간(4월~9월) 동안 평균 강우량은 약 9.3mm로 매우 낮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 강우량
강우량(mm)	159	111	67	15	11	10	4	5	11	14	66	143	613

◎ **<표2. 안자베투룽구 지역 월별 강우량>**

출처: 조사 2팀 “전문가 보고서 3p”

22 AFF AJ Household Survey, 2017,“SEC4Q3”

23 위생시설 이용에 관한 조사는 수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문화적인 요인으로 인해 위생시설 이용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봄

24 이 지역에 화장실은 2개 밖에 없다. 2개 화장실은 모두 학교 안에 위치

25 “http://ancientpath.com/2013/07/water-in-anjabetrongo”

26 “https://www.kwater.or.kr/info/sub01/sub02/reso07Page.do?s_mid=89”

27 AFF AJ KII, 2017, 10월~3월, Tete, 산소망초등학교 교장

⑥ 여성[28]

이번 지역조사에서 발견한 여성 관련 범이슈는 2가지였다. 첫째, 마을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29] 이것은 이 지역에 성(性)에 따른 불평등과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여성의 인권을 보호할만한 사회적 안전장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다.

조사결과, 여성이 가장인 가구의 비율은 26%(8가구)였다. 이는 여성의 불평등한 참여권 제한이 여성 개개인의 사회적 참여권을 제한하는 문제를 넘어 여성이 가장인 한 가정의 사회적 참여권을 제한하는 문제로 봐야할 것임을 보여준다.

둘째는 여성의 열악한 보건·위생환경에 관한 이슈이다. 여성들은 출산 중 사망하는 것에 대해 매우 두려워했다. 일례로 출산 과정 중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해 산모가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한다. 또한 여성들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출산을 한다.[30] 이는 산모와 아이 모두의 생존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⑦ 아동[31]

아동에게 나타난 주요 이슈 중 하나는 건강 문제였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질병조사 결과에서, 42.2%가 지난 한달 동안 아픈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를 통해 이 지역 학생들은 질병에 대한 취약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의 기본적인 보건·위생 환경 개선을 위해 설치한 화장실을 아이들은 이용하지 않았다. 이유는 더러운 것을 한 곳에 모아두는 것을 금기시하는 마을의 전통문화 때문이었다.

28 범분야 이슈(Cross-cutting issue) ‘여성’

29 AFF AJ FGD 여성, 2017 “Q1.3”

30 Ibid.,“Q1.3”

31 범분야 이슈(ross-cutting issue) ‘아동’

04 변화의 영역

가. 주목 분야

이번 지역조사는 안자베투룽구 지역의 물 문제를 주목했다. 이유는 지난 10년 동안 매년 1~2회씩 안자베투룽구에 방문해 무료의료봉사를 수행한 FBDB가 이 지역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물'을 지목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의 목적 중 하나는 물 분야를 포함해 안자베투룽구 지역의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여, 이 지역의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다. 위의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각 분야별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 조사내용을 분석한 결과, 가장 주목해야할 문제는 '물'분야였다.

나. 현지의 수요 및 상황

1) 현지 수요

조사 결과, 안자베투룽구 주민들의 가장 시급한 수요(Need)는 '물'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수요 조사는 3가지 방식으로 4개 그룹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수요 조사의 내용 및 방법, 그리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tr><th></th><th colspan="3">가정 수요조사</th><th colspan="3">학생 수요조사</th><th colspan="2">소수 그룹대상 인터뷰</th></tr>
<tr><td>조사내용</td><td colspan="3">가정에 직면한 문제
1순위, 2순위</td><td colspan="3">가장 필요한 한 것이 무엇인지</td><td colspan="2">이 마을에 직면한 가장 큰 문제 및 그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td></tr>
<tr><td>조사방법</td><td colspan="6">양적조사</td><td colspan="2">질적조사</td></tr>
<tr><td>조사대상</td><td colspan="3">31가구</td><td colspan="3">초등학생 135명</td><td>마을위원회(남성), 12명</td><td>여성, 17명</td></tr>
<tr><td rowspan="15">조사결과</td><td colspan="3"><수요 1순위>[32]</td><td colspan="3"><수요 1순위></td><td colspan="2" rowspan="15">이 지역에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두 그룹 모두 '물'이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마을에 직면한 문제들이 이 지역 공동체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는 질문에'물로 인한 부정적인 상황'을 주로 이야기 했다.</td></tr>
<tr><td>순위</td><td>항목</td><td>빈도수(가구)</td><td>순위</td><td>항목</td><td>빈도수(명)</td></tr>
<tr><td>1</td><td>물</td><td>22 (71%)</td><td>1</td><td>물</td><td>77 (57%)</td></tr>
<tr><td>2</td><td>음식</td><td>7 (32.6%)</td><td>2</td><td>학용품</td><td>29 (21.5%)</td></tr>
<tr><td>3</td><td>경제</td><td>1 (3.2%)</td><td>3</td><td>음식</td><td>10 (7.4%)</td></tr>
<tr><td>4</td><td>건강</td><td>1 (3.2%)</td><td rowspan="2">4</td><td>옷</td><td>7 (5.2%)</td></tr>
<tr><td>5</td><td>옷</td><td>0 (0%)</td><td>가축</td><td>7 (5.2%)</td></tr>
<tr><td colspan="3" rowspan="2"></td><td rowspan="2">6</td><td>집</td><td>2 (1.5%)</td></tr>
<tr><td colspan="3"><수요 2순위>[33]</td><td>의료진, 약</td><td>2 (1.5%)</td></tr>
<tr><td>1</td><td>음식</td><td>14 (45%)</td><td>8</td><td>학교</td><td>1 (0.7%)</td></tr>
<tr><td>2</td><td>물</td><td>6 (19.4%)</td><td>9</td><td>장난감</td><td>0 (0%)</td></tr>
<tr><td>3</td><td>경제</td><td>3 (10%)</td><td></td><td>전기</td><td>0 (0%)</td></tr>
<tr><td>4</td><td>건강</td><td>2 (6%)</td><td colspan="3" rowspan="3"></td></tr>
<tr><td>5</td><td>옷</td><td>1 (3.2%)</td></tr>
<tr><td>6</td><td>무응답</td><td>5 (16%)</td></tr>
</table>

◎ <표3. 안자베투룽구 주민 대상 수요조사>

2) 현지 상황

① 수원지 정보

건기 동안 안자베투룽구 주민의 주요 식수원은 마을에서 약 11km 떨어진 Ampasikibo 마을의 우물(약 74%)[34]이다. 우기 동안 주요 식수원은 빗물(약 52%)[35]이다. 또한 건기에 마

32 AFF AJ Household Survey, 2017"SEC2Q1"

33 Ibid.,"SEC2Q1"

34 Ibid.,"SEC3Q1, 31가정 중 23가정

35 Ibid.,"SEC3Q11, 31가정 중 16가정

을 주민들은 지리적 접근성이 높은 학교 옆 연못을 다양한 용도로 이용하고 있었다. 다음은 우물과 연못에 대한 접근성, 수질, 수량, 그리고 물 사용 비용에 관한 정보이다.

	우물	연못
접근성	약 11km 떨어진 Ampasikibo 마을에 위치 우기 때는 도로 상태가 나빠서 이동하는데 어려움	학교 바로 옆에 위치 걸어서 15분 이내면 접근 가능
수질	약 87m 깊이의 지하수이다. 정확한 수질 검사 결과는 없지만, 깊이를 고려했을 때 수질이 양호할 것이라고 추측	빗물이 지표면에 고인 것으로, 사람 외에 소, 돼지, 염소 등과 함께 이용하고 있어 수질 오염 정도가 높음
수량	N/A	충분하지 않음 우기 때 비가 내려 물이 고이지만, 자연적인 증발량과 주민들이 이용함에 따라 물의 양이 점점 줄어듦
비용	1 Bidong(20L) = 100 Ariary	×
사진		

◎ <표4. 안자베투룽구 주민 대상 수요조사>

※ Ampasikibo 우물에서 1 Bidong(20L)을 구매할 때 드는 비용은 100 Ariary이다. 하지만 우마차로 안자베투룽구까지 운반된 우물 물은 마을에서 개당 5배가 비싼 500 Ariary에 팔린다.

※ 건기에 지역 주민들은 식수 용도로 Babo를 먹고 있었다. 또한 Babo는 마을 주민들의 식사대용으로도 이용되고 있었는데, 이것들을 얻는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② 수원지 이용실태(건기)

◎ 우물

Ampasikibo 마을의 우물은 안자베투룽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우면서도 안전한 수원지이다. 하지만 우물은 마을에서 약 11km나 떨어져 있어 지리적 접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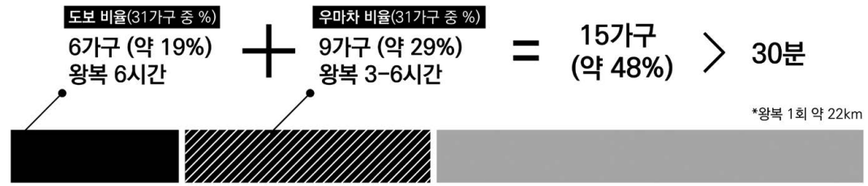
이 매우 낮다. 이는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충분한 물을 확보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WHO는 안전한 식수를 얻는 시간을 30분 이내, 하루에 1인당 물 소비량을 약 40L로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안자베투룽구 주민들의 물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WHO의 기준에 못 미치는 가구가 많았다.

- 물 접근성

  주요 식수원을 우물로 응답한 23가구(약 74%) 중 물을 얻기 위해 도보로 이동하는 가구 수는 1가구(4.3%)였다. 두 번째 식수원을 우물로 응답한 20가구 중 5가구(약 25%)는 모두 도보로 이동했다. 즉, 우물 물을 얻기 위해 왕복 6시간을 걷는 가구 수는 전체 조사가구 중 6가구(약 19%)였다.

  주요 식수원을 우물로 응답한 23가구(약 74%) 중 우마차를 이용해 물을 운반하는 가구 수는 9가구(약 39%)였다. 즉, 우물의 물을 얻기 위해 왕복 3시간에서 6시간을 소요하는 가구 수는 전체 조사 가구 중 9가구(약 29%)였다.[36]



◎ <그림3. 안자베투룽구 우물 물 접근성 실태>

조사대상 31가구 중 15가구(약 48%)가 WHO가 정해놓은 기준인 30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물을 얻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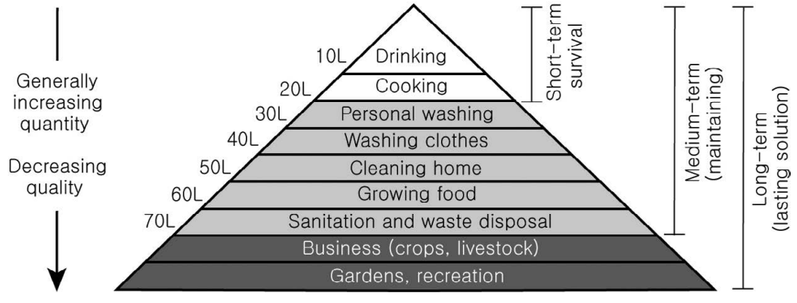
※ 위의 조사결과는 액체 상태의 물을 얻는 가구 수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건기에 주요 식수원을 액체 상태의 물이 아닌 Babo로 대답하기도 했는데, 응답비율은 약 16%(5가구)였다. 5가구 모두 최소 7시간 이상을 할애해 Babo를 모은다고 대답했다. [37]

36 AFF AJ Household Survey, 2017"SEC3Q1, Q4, Q5"

37 Ibid.,"SEC3Q1"

● 물 소비량

WHO는 사람이 단기간 생존을 위해 필요한 물의 양을 1인당 하루 20L로 정해놓고 있다. 또한 1인당 하루 물 소비량을 약 40L이상으로 권장하고 있다(그림4. 참조).



◎ <그림4. 권장 물 사용량>

출처: WHO,"How much water is needed in emergencies"

안자베투룽구 주민들이 하루에 소비하는 물의 양을 얼마일까?

먼저 걸어서 우물의 물을 얻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틀에 한 번 꼴로 물을 길으러 간다고 대답했다. 한 번 물을 길으러 갈 때 남편은 2 Bidong(40L), 부인은 1 Bidong(20L)의 양을 가지고 온다. 이 가구가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은 30L이지만, 가구원 수가 7명이므로 하루에 1인당 사용가능한 물의 양은 약 4.3L이다.[38]

어떤 가구는 하루에 1 Bidong(20L)을 사용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가구의 구성원 수는 20명이다. 즉, 이 가구에서 하루에 1인당 사용가능한 물의 양은 약 1L이다.[39] 두 가구 모두 단기간 생존을 위해 필요한 20L에도 훨씬 못 미치는 양의 물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이 지역에 안전한 식수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이 가장인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여성은 우마차로 운반된 물을 구매하기 위해 한 시간 동안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물이 없어 결국 구하지 못했다고 했다.[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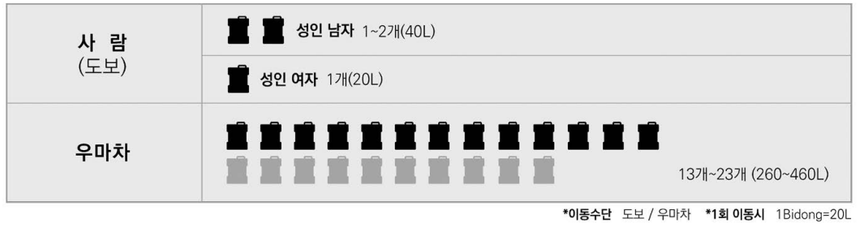
38 AFF AJ Household Survey, 2017"SEC3Q6, Q7"

39 AFF AF FGD 마을위원회(남성), 2017, "Q1.1"

40 op.cit., 2017, 설문조사대상 중 어떤 가정의 이야기

반면 우마차로 물을 운반하는 가구는 한 번에 13 Bidong(260L)에서 23 Bidong(460L)의 양의 물을 가져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도보로 물을 운반하는 가구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양이다. 하지만 우마차로 물을 운반하는 20가구의 1인당 하루 물 소비량은 평균 약 16L[41]으로 단기간 생존을 위해 필요한 20L에 못 미친다.

우마차를 이용해 물을 운반하는 9가구의 수요조사 결과, 7가구(약 78%)가 '물'이라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우마차를 소유한 가구 역시 물이 부족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보여준다.



◎ <그림5. 이동수단에 따른 우물 물 운반 양>

◎ 연못

연못은 안자베투룽구 주민들에게 가장 접근성이 높은 수원지다. 하지만 연못의 수질 오염 정도를 고려했을 때, 사람이 이용 가능한 식수 및 생활용수로 적합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들은 다양한 용도로 연못의 물을 이용하고 있었다. 심지어 식수로 마시기도 한다.[42] 지역 주민들의 이와 같은 부적절한 연못 사용 방식(표5. 참조)은 물 부족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만큼이나 마을 주민들의 건강과 위생에도 매우 위협적이다.

41 Tete, 산소망초등학교 교장,
조사방법 및 내용: 우마차를 이용해 물을 운반하는 20가구를 대상으로 1주일 동안 물을 운반한 횟수 및 1회당 물을 가져오는 양, 그 가구가 실제 사용하는 물의 양, 그리고 다른 가구에 물을 파는 양을 각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함

42 Ibid."Q1.2"

조사방법		타임랩스로 촬영 후 아래 분류에 따라 빈도수 체크	
촬영일		5월 21일(일)	5월 22일(월)
촬영시간		6AM ~ 6PM	6AM ~ 6PM
물 뜨기	아이	28번	41번
	어른	49번	41번
	우마차	1번	4번
씻기		238명	288명
빨래		18명	13명
소떼		16번	18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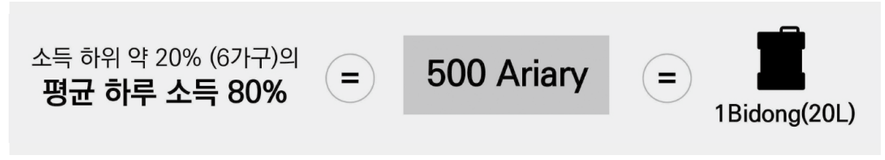
◎ <표5. 안자베투룽구 주민의 연못에 대한 이용 실태>

③ 물 부족 문제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

◎ 경제

안자베투룽구 주민의 약 95%가 절대적 빈곤선(하루 1.9달러)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 마을 주민들의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매우 빈곤한 상황에 놓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자신들의 가정에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물'이라고 22가구(약 71%)가 응답했다. 반면 '경제'는 1가구(약 3.2%)만이 응답했다.

주민의 약 71%가'물'이라고 응답한데에는 경제적인 요인이 컸다. 왜냐하면 물을 얻기 위해 쏟는 재화와 시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매우 컸기 때문이다. 특히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문제의 정도는 심각하다. 소득 하위 20%(6가구)의 1일 평균 소득은 약 625 Ariary이다. 이들 가구가 약 11km 떨어진 우물에서 1 Bidong(20L)의 물을 구매하려면 1일 소득의 16.5%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우마차로 마을까지 운반된 1 Bidong(20L)의 물을 구매할 땐 1일 소득의 약 80%를 사용해야 한다. 우마차로 운반된 물을 구매하는 가구 수는 소득 하위 20%(6가구) 중 약 33%(2가구)이다. 이들 가정은 물을 구매하는데 소득의 대부분을 사용한다.



◎ <그림6. 하위소득 20% 가구의 평균 하루 소득과 물 가격 비교>

또한 물을 얻기 위해 최소 3시간에서 6시간을 사용하는 가구의 비율은 약 48%(15가구)였다. 이들 가정은 경제적 활동 대신 물을 얻기 위한 비(非) 경제적 활동에 많은 시간을 쏟고 있었다. 이는 결국 가구의 소득증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마을 주민이 물을 구매하기 위해 가구 소득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나면, 가구의 가처분 소득[43]에 대한 비중은 그만큼 적어진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을 사고 나면 식량, 옷 등을 살만한 돈이 남지 않는다고 한다.[44] 즉, 물 문제로 인해 마을 주민들은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비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물 부족 문제는 이 지역의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이 지역의 주요 산업은 농업이다. 농업 부분의 생산량증대를 위한 필요조건 중 하나는 충분한 농업용수의 공급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농업용수로 활용가능한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작물의 수확량이 적다고 이야기한다.

물 부족 문제가 마을 주민들의 중요한 경제적 자산을 잃게 만들기도 했다. 우마차로 물을 운반하는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을 운반하는 도중에 소가 죽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소가 죽는 이유는 탈수 증상 때문이었다.

43 소득 중 소비·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

44 AFF AF FGD 마을위원회(남성), 여성 그룹

◎ 보건·위생

물 부족 문제는 이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상황과 농산물 생산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결국 주민들의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주범이었다. 이는 주민들의 충분한 영양섭취를 어렵게 만들어,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피폐화 시킨다. 건강상에 이유로 한 번 약해진 몸은 쉽게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다시금 빈곤의 늪에 빠지기 쉬운 환경에 놓이게 된다. 이처럼 물 문제는 단순히 수분섭취 부족으로 야기되는 건강상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었다.

물 부족 문제로 인한 질병은 특별히 면역력이 약하고, 영양상태가 취약한 아동들에게 매우 위협적이다.[45] 135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지난 한 달간 아픈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수는 57명(약 42%)이였다. 그 중 수인성질병과 상관관계를 가지는 증상[46]을 보이는 학생 수는 약 36명(약 63%)이였다(표6. 참조).

증상	빈도수: 명(비율)
복부 통증(Abd)	24명(약 42%)
두통(Headache)	8명(약 14%)
설사(Diarrhea)	2명(약 3.5%)
열(Fever)	2명(약 3.5%)

◎ <표6. 수인성질병으로 보이는 학생 비율>

또한 물 부족 문제는 해당 지역 학생들의 심장박동 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학생의 심장박동 수는 평균 70~80회/분을 유지한다. 하지만 FBDB의 조사에 따르면, 현지 학생 대부분의 심장박동 수는 100회/분을 넘고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심장박동 수의 원인은 어떤 질병 때문이 아니라 탈수 때문으로 여겨진다.

마을 주민들은 물 부족으로 인한 기본적인 위생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했다.[47] 또한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위생교육을 하고 싶지만, 물이 없어 결국 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한다. 씻을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학교 옆 연못에서 몸을 씻는다. 하지만 연못의 물의 오염정도를 고려했을 때, 이는 또 다른 질병[48]을 유발하는 원인될 수 있다. 학생들을 관찰한 결과, 많은 수의 학생들이 오랫동안 세탁하지 않은 듯 보이는 옷들을 입고 있었다.

45 세브란스 병원, 수인성질병 증상 관련 부분을 참고, "http://sev.iseverance.com/health_info/disease_info/health_focus/view.asp?con_no=2744&page=15&SearchField=&SearchWord=

46 Ibid.

47 AFF AJ FGD 마을위원회(남성), 2017, "Q3.4"

◎ 교육

물 부족 문제는 산소망초등학교의 교육시설을 청결하게 유지·관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주 요인이다. 어린 학생들에게 위생적인 교육환경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교실 안과 밖을 청소하기 위해 물 대신 나뭇가지만을 이용해 먼지를 제거한다(기타 활동 자료(사진) 참조).

물 부족 문제가 학생들의 학교 출석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물을 구하기 어려운 건기에는 학생들이 물을 얻기 위해 결석을 하게 된다. 물 문제 때문에 학생들이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49]

- 인권

  물 부족 문제는 마을 주민들의 인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특히 깨끗이 씻지 못해 더럽다는 이유 때문에 자존감에 낮았다. 예를 들면, 아이들은 자신들이 더럽다고 인식하고 있었다.[50] 또한 마을 주민들은 씻지 못해 자신의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 했다.[51] 아파서 보건소에 갔지만, 몸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의사가 자신을 역겨워 한다고 했다.[52]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가축과 함께 학교 옆 연못의 물을 이용할 때 자신이 동물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 여성

  물 부족 문제는 여성의 기본적인 보건 및 위생 환경을 열악하게 만들어, 여성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고 있었다. 여성들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출산을 한다. 이는 산모와 아이 모두에게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또한 여성들은 주기적으로 생리를 하게 되는데 이를 처리하는 방법은 매우 비위생

48 예를 들면, 피부병, 그리고 상처가 난 상태에서 연못의 물을 이용할 때 상태가 더욱 나빠질 수 있음

49 Ibid.

50 학교에서 만난 아이들은 자신들을 가리켜 '더럽다.'라는 표현을 사용함

51 Ibid.

52 어떤 마을 주민을 통해 전해들은 이야기

적이었다. 조사 결과, 어떤 여성들은 생리 후 조그마한 1컵 정도를 사용한다고 했다. 몇몇 여성들은 버려진 천을 주어다가 사용한다고 했다. 하지만 깨끗한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러운 천을 세탁하지 못한 채로 사용했다.

- 아동

물 문제가 아동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먼저 물 부족 문제는 아동의 건강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원인이다. 앞의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아이들은 물로 인한 수인성 질병에 대한 노출 빈도가 높았다.

물 부족 문제는 아동들이 부모의 보호의 손길로부터 배제되게 만드는 간접적인 원인이었다. 부모들이 물을 얻기 위해 긴 시간 가정을 떠나있는 동안 아동은 자연스레 방치된다. 이는 때때로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아동에겐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실례로 부모가 물을 구하러 간 사이 아이가 죽은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④ 필요성

안자베투룽구 식수개발사업의 필요성은 무엇보다 인권의 측면에서 최우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안전하고 충분한 물과 위생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로서,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이다. 하지만 안자베투룽구 주민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물 부족 문제는 마을 주민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데서 끝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빼앗아가고 있었다. 물 문제의 해결은 마을 주민의 필요를 채워주는 차원을 넘어 그들의 인권을 회복시켜주는 문제로 봐야할 것이다.

둘째, 식수개발사업은 안자베투룽구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물 문제는 단순히 식수의 문제를 넘어 생존, 보건 및 위생, 교육, 영양, 경제 등에 이르러 지역 공동체의 전 영역에 포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물 문제가 미치는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반면, 이러한 열악한 상황은 곧 물 문제 해결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식수개발사업의 효과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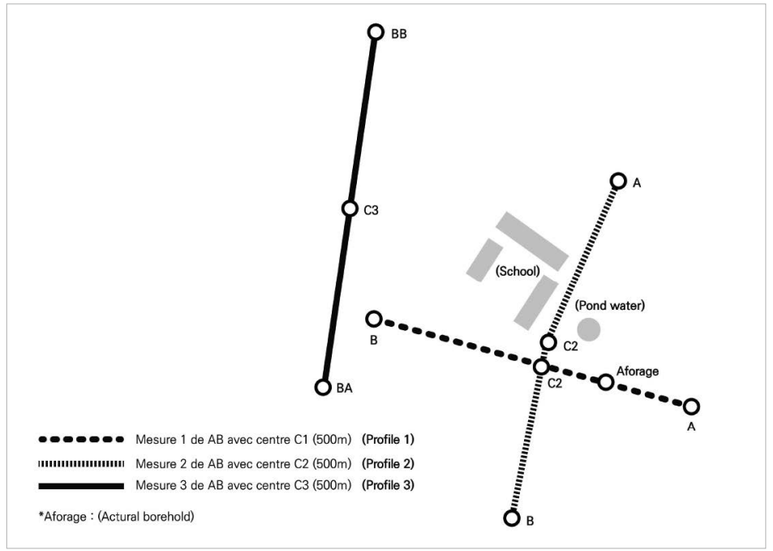
셋째, 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발전을 위해 물 부족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조사결과, 이 지역의 경제적 빈곤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은'물'이었다. 즉,

이 지역의 빈곤의 원인을 한 개인의 문제로만 바라보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한다. 마을 주민들은 생존에 필요한 물을 구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재화를 쏟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빈곤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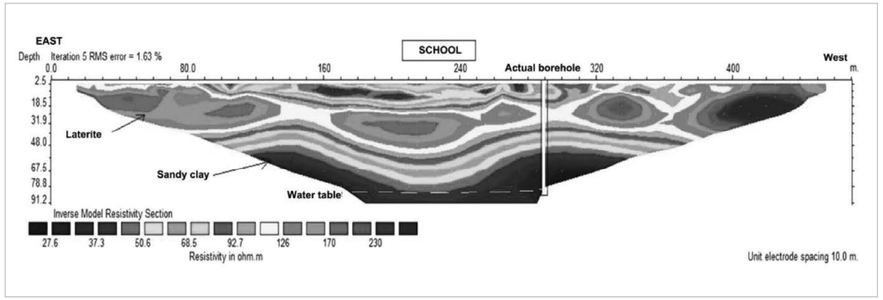
식수개발사업을 통한 물 문제 해결은 물을 얻기 위해 낭비되는 주민들의 시간과 재화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다. 또한 이 지역의 젊은 연령층이 매우 높다는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이 지역의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안자베투룽구의 빈곤 상황을 악화시키는 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발전 가능성의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⑤ 식수개발사업 실행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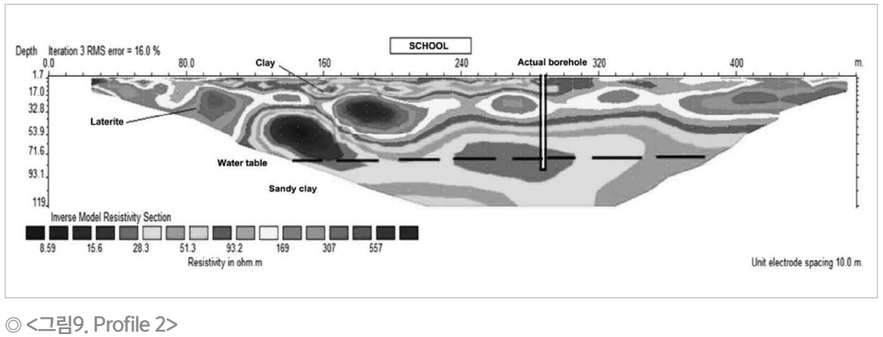
이번 지역조사의 목적 중 하나는 안자베투룽구 지역의 지하수 개발 가능성과 관련된 지질구조, 대수층, 수질 개발 가능 수량 통해 앞으로 식수개발사업의 실행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현지조사 2팀의 보고서(별지4. 참조) 따르면, 학교 아래에 두 개의 지하수면이 존재한다. 하나는 약 10m의 두께로 지표면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고, 다른 하나는 약 30m의 두께로 지하층 아래 약 80m에 위치해 있다. 이 지역 인구 약 1,100명에게 충분한 물 공급을 위해서는 시추공의 깊이가 110m 이상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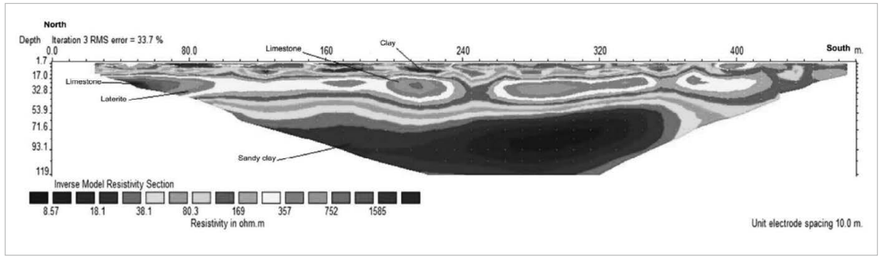
◎ <그림7. 현지조사2팀 전문가의 조사 구역, 3개 Profile을 조사>



◎ <그림8. Profile 1>



◎ <그림9. Profile 2>



◎ <그림10. Profile 4>

⑥ 타 기관 활동 내역

과거 인도계 회사가 약 86m 깊이의 우물[53]을 마을에 만들어 주었지만, 현재는 고장 난 상태이다. 유니세프(Unicef)가 이 지역을 방문하여 식수개발사업 가능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고 한다.[54] 유니세프는 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식수개발사업의 참여도를 평가하였다. 그리고 사업우선순위 대상지를 정하였는데 안자베투룽구는 5순위였다고 한다.

⑦ 이해관계자 분석

이해관계자	위치 + / 0 / −	강점과 약점
안자베투룽구 마을 주민	+	− 식수개발사업의 필요성이 절실함 − 사업에 대한 참여도가 높을 것으로 봄
Analamisampy 시장	+	− 안자베투룽구(동)의 상위 행정구역의 시장 − 안자베투룽구 식수개발사업에 대해 매우 긍정적임, 이유는 시장 당선 공약 중 하나가 안자베투룽구의 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었음
Toliara 부시장	−	− 안자베투룽구를 포함하는 도의 부시장 − 면담 내내 뇌물을 은연 중 요구함
Toliara 지방 수자원공사 직원	+	− 식수개발사업에 대해 긍정적임

다. 사업대상 분야(Target Area)의 지표 및 기초선

사업활동	지표	기초선
식수개발 사업 (우물)	식수원 접근 시간	약 48%가구 > 30분
	식수 이용비용	20L = 100 or 500 Ariary
	식수 및 생활용수 하루 1인당 소비량	우마차 가정 약 16L
	수인성 질병 발병률	질병이 있었던 학생 중 63%
	기본적인 위생관리 횟수(씻기, 빨래 등)	N/A
	결석률	N/A

53 "http://ancientpath.com/2013/07/water-in-anjabetrongo"

54 Analamisampy시 시장과의 면담 내용

05 자료 출처

- CIA, 2016,“http://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ma.html”
- IMF, 2017
- WHO, 2015,“Atlas of African Health Statistics 2016”
- Analamisampy시 정부통계자료, Oct, 2016,
- FBDB 결연아동 자료, 2017. 05
- IMF, 2015,“http://www.worldbank.org/en/topic/poverty/brief/global-poverty-line-faq”
- 현지조사 2팀 “전문가 보고서, HYDROGEOLOGICAL STUDIES AND GEOPHYSICAL PROSPECTING TO LOCATE A WATER WELL IN THE FOKONTANY OF ANJABETRONGG, TOLIARA II MAGADASCAR”
- 세브란스 병원, 수인성질병에 관해
  “http://sev.iseverance.com/health_info/disease_info/health_focus/view.asp?con_no=2744&page=15&SearchField=&SearchWord=
  -“http://ancientpath.com/2013/07/water-in-anjabetrongo”
  -“http://www.kwater.or.kr/info/sub01/sub02/reso07Page.do?s_mid=89”

06 기타 활동 자료 (사진 등)

01

02

03

04

05

06

01 FBDB 스태프와 미팅
02 Toliara 부시장과 면담
03 Ampasikibo 마을의 우물
04 우마차로 물을 운반하는 마을 주민과 면담
05 저녁 식사 후
06 안자베투롱구 마을 전경

07

08

09

10

11

12

07 설문조사
08 학교 옆 연못(Pond)
09 물 대신 나뭇가지로 교실 안을 청소하는 아이들
10 FGD(마을 위원회)
11 수요조사(학생)
12 현지 전문가의 지하수개발가능성 조사

향후 계획

chapter 03

이번 지역조사를 통해 안자베투룽구 지역의 식수개발사업의 필요성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현지 전문가팀의 지질구조, 대수층, 수질 개발 가능 수량에 관한 조사를 통해 이 지역에 지하수개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활동은 지역조사결과와 현지전문가팀의 결과내용을 토대로 향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것이다.

PART 15

[보건] 월드휴먼브리지

시행일자	2017년 4월 26일(수) ~ 6월 25일(일) (총 60일)
지역	캄보디아 시엠립 주 Banteay Srei 군 Preah Dak면 따거 마을, Khun Ream면 뚜얼꾸르어 마을, Varin 군 Lvea Kreang 면 꼭잔, 꼭건달 마을 (총 4개 마을)

2017년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지역조사(사업형성조사) 결과보고서

기본정보					
단체명	월드휴먼브리지		**작성자**	박 현 진	
단체현황	현지 지부			☐ 있음	☑ 없음
	NGO 등록			☑ 있음	☐ 없음
	KOICA 협력사업 수행 경험 유무			☑ 있음	☐ 없음
사업 분야	식수 및 위생		**코드번호**	14030 (기본 식수 및 위생)	
조사 목적	캄보디아 북동부 시엠립 주 농촌 지역의 가구별 모자보건 및 보건 위생 현황 조사를 통한 신규 사업 기획				
대상 국가 및 지역	**국 가**	캄보디아	**지 역**	시엠립 주 Banteay Srei 군 Preah Dak면 따거 마을, Khun Ream면 뚜얼꾸르어 마을, Varin 군 Lvea Kreang 면 꼭잔, 꼭건달 마을 (총 4개 마을)	
	거리: 1) 베이스캠프인 따거 마을은 시엠립 시내에서 약 40km, 자동차로 40분 거리 2) 와린 군 2개 마을은 시엠립 시내에서 차로 2시간 이상 거리				
조사기간	**전체 조사 기간**	2017년 4월 26일(수) ~ 6월 25일(일) (총 60일)			
	현지 체류기간	5월 15일 ~ 5월 26일 (총 12일)			

조사 목적

chapter 01

- (기존 목적) 캄보디아 시엠립 주 농촌 지역 가구 정보 및 모자보건 현황 파악
  - 본 조사는 캄보디아 시엠립 주 농촌 지역인 반띠스라이(Banteay Srei) 군의 2개 마을과 와린(Varin) 군 2개 마을에 거주하는 임신부, (24개월 이내 영아를 출산한) 수유모를 대상으로 가구원 수와 관계, 집에 있는 자산(TV, 자전거, 라디오 등)을 통한 경제적 수준, 보건위생 현황 등 가구 정보를 조사하고 산전/산후관리, 출산 경험을 담은 모자보건 정보를 수집하고자 함.
- (변경 후 목적) 조사 결과에 따른 대상 지역에 적합한 식수보건위생 사업 기획
  - 본 조사를 통해 지역 주거환경 현황과 기본적 필요를 파악하고, 이 자료를 통해 적합한 식수보건위생 사업을 기획하고자 함.

조사 결과

chapter 02

01 일정별 조사 활동

기간			활동 내역 약술
국내	4/10 ~ 5/10		· 문헌조사: 캄보디아 인구보건통계(DHS) 참조, 설문지 초안 작성 · 설문지 번역 요청, 현지 확인 · 홍보 인쇄물(리플렛, 포스터) 제작 및 번역 요청
현지	5/15(월)	저녁	현지 도착, 짐 정리 및 일정 점검
	5/16(화)	오전	· 쁘레아다 면 보건소 방문 – 보건소장 면담(센터 직원 통역), 보건소 시설 탐방 · 오리엔테이션 및 설문조사 진행 교육, 문항 흐름 확인 – 참석자: 본부 직원(한국 조사원) 4명, 김계숙 센터장, 현지 센터 직원 2명, 현지 조사원 3명
		오후	· 회의: 일정 점검 및 공청회 역할 분담 · 시내 이동: 공청회 포스터, 리플렛 추가 인쇄, 크메르어 설문지 복사 · 공청회 물품 구입 및 설문조사 답례품 구입
	5/17(수)	오전	· 반띠스라이 군 공청회 (장소: 따거 센터) – 참석자: 따거, 뚜얼꾸르어 마을 임신부, 아기가 있는 산모 및 가족(어머니, 아동) 30여명 – 내용: 참석자 등록, 기관별 소개, 설문조사 계획 안내, 보건소 사업 소개 및 보건소 이용 권장 – 마을 지도 그리기와 집 위치 표시하기 – 간단한 점심 식사(현지식) 제공
		오후	· 반띠스라이 군 공청회 (1) FGI 2그룹 진행 (현지 스탭) – 15명 내외의 어머니 대상 2개 그룹 · (2) 건강검진 진행 (본부 직원 2명, 센터장) – 키, 몸무게, 혈압 측정, 소변검사, – 폴라로이드 사진 촬영 및 차트 기록 · (3) 임신부 초음파 검사 (의사 1명, 스탭 1, 본부 1) – 임신부 6명 초음파 검진 제공
	5/18(목)	오전	· 김경임 부장: 하트하트재단 캄보디아 지부 방문 · 서정호 의사와 와린 군으로 이동
			· 조사팀: 시내 → 센터 → 와린 군 이동 (2시간) · 와린 군 공청회 진행 (장소: 꼭건달 교회) – 참석자: 꼭건달, 꼭잔 마을 임신부, 아기가 있는 산모 및 가족 60여명 – 내용 동일
		오후	· 와린 군 공청회 – (1) FGI 2그룹 진행 × 2회 · (2) 건강검진 동시진행 – 참석인원이 많은 관계로 FGI 진행 중에 나머지 인원 대상으로 키, 몸무게, 혈압 측정 동시진행 · (3) 임산부 대상 초음파 검사 (서정호 의사) – 임신부 11명 초음파 검진 제공
			· 센터 이동 (1시간 30분) 및 물품 정리, 일정 점검 · 시내 이동 (40분), 저녁식사, 짐 정리 · 본부 직원 1인(김경임 부장) 한국 귀국
	5/19(금)	오전	· 준비 회의: 설문지 질의응답, 설문조사 팀(본부 직원–센터 직원/조사요원) 구성, 팀별 할당 구역 배분 · 따거 마을 설문조사 1차 진행 (4팀, 9가구)
		오후	· 따거 마을 설문조사 2차 진행 (5팀, 9가구) · 센터 이동, 피드백 회의

현지	5/20(토)	오후	· 설문조사 정리 및 번역 회의
	5/21(일)	오후	· 1차 사업비 정산 / 인터뷰 질문 준비
	5/22(월)	오전	· 시내 → 센터 → 와린 군 꼭건달 이동 (2시간) · 준비 회의: 팀별 구역 및 가구 방문 순서 논의, 설문조사 물품 (체중계, 소변검사 키트, 답례품) 배분 · 와린 군 꼭건달 마을 설문조사 1차 진행 (4팀, 8가구)
		오후	· 꼭건달 마을 설문조사 2차 진행 (4팀, 13가구) · 와린 군 → 센터 이동(1시간 반) 중 피드백 회의 · 센터에서 물품 정리, 익일 일정 공유 · 시내 이동, 저녁식사
	5/23(화)	오전	· 시내 → 센터 → 와린 군 꼭잔 이동 (2시간) · 설문조사 준비 회의 및 물품 배분 · 꼭잔 마을 설문조사 진행 (4팀, 14가구)
		오후	· 와린 군 → 뚜얼꾸르어 마을 이동 (40분) · 뚜얼꾸르어 마을 설문조사 진행 (4팀, 4가구) · 센터 이동, 물품 정리, 시내 이동
		저녁	· 꼭건달, 꼭잔 설문지 검토, 응답 오류 확인, 인터뷰 대상 선정 /사업비 정산, 회계 정리
	5/24(수)	오전	· 시내에서 인터뷰 답례품 구매, 센터 이동 · 인터뷰 준비 회의 (장소: 센터) – 기억에 남는 설문조사 응답자 공유, 따거 지역의 산전관리, 식수위생 등 문제점 공유, 인터뷰 공통질문 도출 – 점심식사 및 인터뷰 대상 초청
		오후	· 따거 마을 심화 인터뷰 6명 진행 (3팀 × 2회) – 센터 직원/조사요원 1명과 본부직원 1명이 한 팀으로 산전관리, 가족계획 등 질문 · FGI 필기 내용, 설문지 메모 내용 번역 요청 · 시내 이동, 저녁 식사
	5/25(목)	오전	· 시내 → 센터 → 와린 군 꼭건달 이동 (2시간), 이동 중에 부이장 통해 인터뷰 대상자 초청 · 꼭건달 마을 심화 인터뷰 6명 진행 (3팀 × 2회) · 점심식사, 꼭잔 마을로 이동
		오후	· 꼭잔 마을 심화 인터뷰 6명 진행 (3팀 × 2회) · 와린 군 → 센터 이동 (1시간 반), 물품 정리, 시내 이동
		저녁	· 센터 직원 일비 및 식비, 조사원 인건비 정산 준비
	5/26(금)	오전	· 사업비 정산 및 인건비 정산 준비/설문지 패킹 · 체크아웃, 방 이동 · 센터장님과 시내 점심식사
		오후	· 인터뷰 답례품 추가 구매 및 센터 이동 · 인건비 및 일비, 식비 지급 · 전체 피드백 회의: 조사원, 센터 직원 참여 소감 발표, 앞으로의 계획 공유 · 센터 내 짐 정리, 시내 이동
		저녁	· 사업비 최종 정산/설문지, 인터뷰 패킹 · 짐 정리, 공항 이동
	5/27(토)	오전	· 인천공항 도착
국내	6/5~6/8	전일	· 자원봉사자 설문조사 데이터 입력 · 인터뷰 내용 정리 및 입력
	6/9~6/19	2회	· 통계 자문 회의: 데이터 분석 내용 협의, 입력오류 수정, 데이터 코딩 변경 등 결과 자료 수정 요청

02 조사 항목 및 방법

	조사 항목	조사 방법	조사 기간
1	· **마을 보건소 (쁘레아다면 보건소)** – 보건소의 지역 사업 현황 – 보건소 추가 지원 필요 항목 – 신축 건물 건축 일정	– 핵심 관계자 인터뷰(Key Informant Interview): 보건소장 인터뷰	5/16(화)
2	· **임신부, 산모 대상 건강검진** – 키, 몸무게, 혈압 측정 – 임산부의 경우 초음파 검진 제공	– 직접 측정 (공청회 시 대상자 소집)	5/17(수)~ 18(목)
3	· **임신부, 산모 대상 FGI (40명)** – 지역 내에 건강한 아기 사례 있는지 – 건강하지 않은 경우 왜 그런지 – 일반적 산전, 산후 관리 방법 논의	– 15명 내의 그룹으로 현지인 퍼실리테이터가 진행, 노트테이커 동석 – 4개 그룹, 약 50명 대상 (공청회 이후 진행)	5/17(수)~ 18(목)

4	▪ **임신부, 산모가 있는 가구 정보** – 가구원 수, 성별 – 거주 건물 자재(지붕, 바닥, 외벽), 손 씻는 장소, 화장실 유무/종류 – 전기, 수도 시설 유무 – 자전거, TV 등 자산 유무	– 가구 방문 직접설문조사 (크메르어로 진행) – 주거 형태, 손씻기는 관찰 – 2개 지역 4개 마을 총 67명 진행	5/19(금)~ 23(화)
5	▪ **임신부, 산모 대상 모자보건 정보 (임신/출산/산전, 산후 관리/ 영아 수유 및 이유식 등)** – 어머니의 나이, 교육 수준 – 출산 장소, 출산 교육 받은 도우미 (간호사, 조산사 등) 있었는지 – 유산 경험 여부, 장소 등		
6	▪ **임신부, 산모 대상 심화인터뷰** – 평균 이상 영아 체중 기준에 따라 긍정적 사례 선발하여 가족계획, 식수 처리, 산전관리 경험 등 질문 – 유산 경험이 있는 부정적 사례 선발하여 유산 이유, 보건소 방문 여부, 생활습관 등 질문	– 설문조사 대상자 중 일부 선정하여 심화 인터뷰 – 2개 지역 총 20명 진행	5/24(수)~ 25(목)

03 조사 결과 분석

○공청회 FGI 내용 분석

1) 반띠스라이 군 따거, 선다이 마을, 뚜얼꾸르어 마을

– 본인의 아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어머니가 적었다.

– 마을 내 면 보건소가 활발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 지역주민의 보건 인식 수준이 낮으며, 주관적으로 건강하다는 평가가 적었다.

2) 와른 군 꼭건달, 꼭잔 마을

– 보건소 서비스 활용을 잘하고 있으며, 본인의 아이가 건강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 와른 지역의 공청회 참석자가 2배 정도로 많아, 이장과 부이장의 리더십과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공통 사항

두 지역의 어머니의 키, 몸무게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설문조사 결과 분석: 응답자 정보, 모자보건 관련, 가구 정보(보건위생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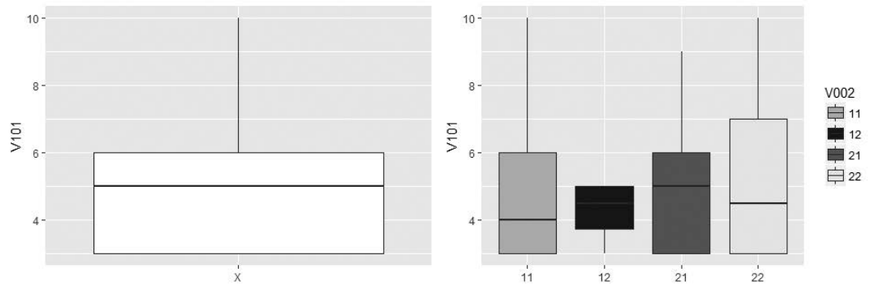
〈응답자(어머니) 정보〉

	Total	따거(11)	뚜얼꾸루어(12)	꼭건달(21)	꼭잔(22)
n	67.00	28.00	4.00	21.00	14.00
nmiss	0.00	0.00	0.00	0.00	0.00
mean	4.96	4.82	4.25	5.05	5.29
sd	1.93	1.85	0.96	1.94	2.37
IQR	3.00	3.00	1.25	3.00	4.00
0%	3.00	3.00	3.00	3.00	3.00
50%	5.00	4.00	4.50	5.00	4.50
100%	10.00	10.00	5.00	9.00	10.00

◎ V101 같이 사는 가구원의 인원 수

※ 용어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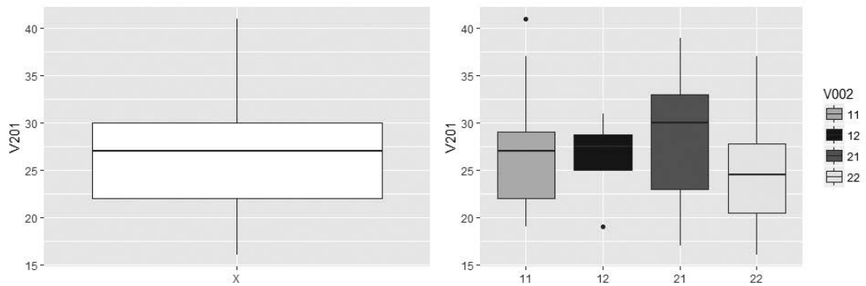
nmiss	missing data, 응답자가 없는 경우
mean	평균값
sd	표준편차
IQR	사분위수(25%~75%의 사이의 값)



해석: 평균 가구원의 수는 4.96명임. 임신 중이거나 24개월 이내 영아가 있는 어머니들의 평균 아동 수는 1.9명이었고, 친정 부모 또는 친척과 같이 사는 경우가 많아서(문항 생략) 가구원이 5명이 됨.

	Total	따거(11)	뚜얼꾸루어(12)	꼭건달(21)	꼭잔(22)
n	67.00	28.0	4.0	21.00	14.00
nmiss	0.00	0.0	0.0	0.00	0.00
mean	26.69	26.8	26.2	27.86	24.79
sd	5.73	5.3	5.1	6.43	5.65
0%	16.00	19.0	19.0	17.00	16.00
50%	27.00	27.0	27.5	30.00	24.50
80%	31.00	29.6	29.2	33.00	29.20
100%	41.00	41.0	31.0	39.00	37.00

◎ V201 여성(응답자)의 나이



해석: 임신 중이거나 24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평균 나이는 26.7세였으며, 가장 나이가 어린 어머니는 꼭잔 마을의 16세이었고 가장 나이가 많은 경우는 39~41세로 큰 폭의 차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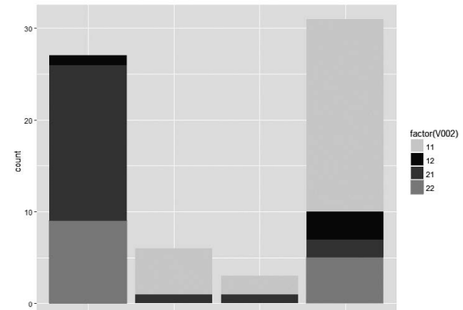
	Total	따거	뚜얼꾸루어	꼭건달	꼭잔
n	67.00	28.00	4.00	21.00	14.00
nmiss	8.00	5.00	0.00	2.00	1.00
mean	5.10	6.52	2.25	3.95	5.15
sd	2.68	2.74	0.96	2.12	2.30
0%	1.00	2.00	1.00	1.00	2.00
50%	5.00	6.00	2.50	4.00	6.00
100%	12.00	12.00	3.00	9.00	9.00

◎ V204 학교를 다닌 연 수(최종 학년)

해석: 캄보디아는 한국과 같은 학제가 있으며(6-3-3),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 8명을 제외하고 대다수(76.7%)가 초등학교까지만 다녔음. 고등학교를 다닌 경우는 따거 마을이 유일했으며(4명), 대학교를 다닌 경우는 없었음.

type	total	따거	꾸얼꾸르어	꼭건달	꼭잔
cnt	67	28	4	21	14
miss	0	0	0	0	0
농사(1)	27	0	1	17	9
개인 사업 (2)	6	5	0	1	0
일용직 (3)	3	2	0	1	0
전업주부 (4)	31	21	3	2	5

◎ V206 무슨 일을 하는지(직업)



해석: 여성의 직업면에서 따거, 뚜얼꾸르어 지역과 와린(꼭건달, 꼭잔) 지역이 확연히 차이를 보임. 따거, 뚜얼꾸르어는 대다수 여성이 전업주부로 생활하고 일부가 개인 사업을 하는 반면, 꼭건달, 꼭잔은 절반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 이는 학력과 자연환경(도시 접근성)과도 연관이 있어 보임.

〈모자보건 관련: 출산 장소〉

type	total	따거	꾸얼꾸르어	꼭건달	꼭잔
cnt	67	28	4	21	14
miss	9	3	0	4	2
주립병원(1)	5	5	0	0	0
면 보건소(3)	33	5	4	15	9
리 보건소(4)	1	0	0	1	0
시내 종합병원(5)	18	15	0	1	2
모르겠음(88)	1	0	0	0	1

◎ V214 마지막 출산 시의 출산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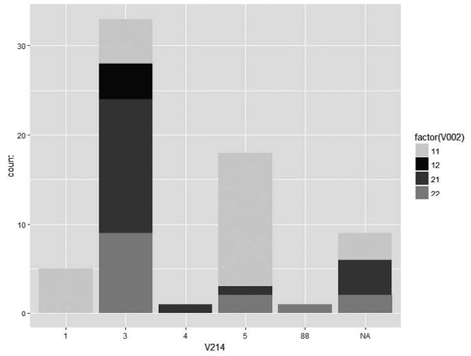
해석: 최근의 출산 장소는 면 보건소(3번)가 49%로 가장 많았음. 반면 따거 마을의 경우, 무료로 이용 가능한 시내 종합병원인 칸타 보파병원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15명, 따거 내 55%), 그 다음으로 시엠립 주

립병원과 쁘레아다 면 보건소로 같은 수(5명)가 응답함. 시내에서 2시간 거리의 꼭건달, 꼭잔의 경우 트랙터, 오토바이로 30분 거리의 면 보건소(옆 면의 스라이노이 보건소) 이용이 가장 많았음(71%, 64%).

〈영아 수유 및 이유식 관련〉

type	total	따거	꾸얼꾸르어	꼭건달	꼭잔
cnt	67	28	4	21	14
miss	47	17	4	19	7
예(1)	14	8	0	1	5
아니오(2)	6	3	0	1	2

◎ V221A (출산한 지 6개월이 안 되는 경우) 완전모유수유를 하고 있는지?



해석: 6개월 이내 영아가 있는 20명 중 70%가 완전모유수유를 하고 있다고 대답함. 그리고 완전모유수유를 안하고 있는 6명 중 3명은 물 또는 미음을 먹이고 있다고 답했고, 남은 3명은 가루우유 또는 분유 탄 물을 먹인다고 답함.

type	total	따거	꾸얼꾸르어	꼭건달	꼭잔
cnt	67	28	4	21	14
miss	35	16	0	8	11
예(1)	27	9	3	13	2
아니오(2)	5	3	1	0	1

◎ V222A (6개월~24개월의 영아인 경우)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지

해석: 6개월에서 24개월 이내 영아의 경우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비율이 84.4%로 높은 편임. 이유식 또한 먹이고 있으며, 밥, 죽, 각종 야채, 소, 돼지 등 고기를 먹인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요구르트, 치즈, 우유 등 유제품 응답은 거의 없었음(문항 생략).

〈유산, 사산 경험 관련〉

type	total	따거	꾸얼꾸르어	꼭건달	꼭잔
cnt	67	28	4	21	14
miss	5	4	0	1	0
있음(1)	14	4(20%)	1(25%)	5(25%)	4(28.6%)
없음(2)	48	20	3	15	10

◎ V223 출산 중에 영아 사망(유산, 사산)의 경험이 있는지

해석: Missing data를 제외한 영아 사망 경험이 있는 응답자 수를 마을간 비교하면 더욱 외진 지역에 있는 꼭건달, 꼭잔의 유산, 사산 경험이 있는 어머니의 비율이 더 많음. 그리고 아래와 같이 임신 초기 3개월 이내 또는 출산 이전 9개월에 해당함.

	Total	따거	뚜얼꾸루어	꼭건달	꼭잔
n	67	28	4	21	14
응답자 수	14	4	1	5	4
mean	3.41	3.80	9	2.60	2.62
sd	2.60	3.80	NA	1.14	0.75
0%	0.20	0.20	9	1.00	1.50
50%	3.00	3.00	9	3.00	3.00
100%	9.00	9.00	9	4.00	3.00

◎ V224 당시에 몇 개월 임신 중이었는지 (위에 경험 "있음"답변한 경우)

type	total	따거	꾸얼꾸르어	꼭건달	꼭잔
cnt	67	28	4	21	14
응답자 수	14	4	1	5	4
1/2	1	0	0	1	0
6/7	1	0	0	1	0
3	3	0	1	1	1
5	1	1	0	0	0
7	8	3	0	2	3

◎ V225 그 당시 어느 곳에서 출산했는지

*** Data code:**

1 – 시엠립 주립병원
2 – 앙코르참 군(郡) 후송병원
3 – 면 보건소
5 – 시내 종합병원(칸타 보파병원)
6 – 개인 클리닉
7 – 가정에서

해석: 두 장소를 기입한 경우에는 유산 경험이 2번 있는 경우임. 총 16개의 유산, 사산 사례 중 병원에서 유산한 경우도 4번 있었으나 집에서 유산한 경우가 총 8건으로 절반(50%)에 해당함.

〈산전관리 관련〉

type	total	따거	꾸얼꾸르어	꼭건달	꼭잔
cnt	67	28	4	21	14
miss	4	1	0	2	1
있음(1)	62	26	4	19	13
없음(2)	1	1	0	0	0

◎ V230 산전관리를 받은 적이 있는지

type	total	따거	꾸얼꾸르어	꼭건달	꼭잔
cnt	67	28	4	21	14
miss	8	5	0	2	1
1/3	3	3	0	0	0
3/5	11	9	1	1	0
3/7	1	1	0	0	0
1	2	1	1	0	0
3	35	8	2	12	13
4	5	0	0	5	0
5	2	1	0	1	0

◎ V231 산전관리를 어디에서 받았는지

*** Data code:**

1 – 시엠립 주립병원 3 – 면 보건소(와린 군 스라이노이 보건소) 4 – 리 보건소(와린 군 꼭건달 보건소)
5 – 시내 종합병원(칸타 보파병원) 7 – 가정에서 7 – 가정에서

해석: 전체적으로는 면 보건소에서 산전관리를 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59.3%), 시내와 가까운 따거 마을의 경우 임신 6~7개월부터 칸타 보파병원에 가면서 두 군데를 이용했다는 응답이 더 많았음. 꼭건달 마을의 경우, 산전관리는 가까운 리 보건소를 이용하고, 출산 시에는 주로 면 보건소를 이용함.

type	total	따거	꾸얼꾸르어	꼭건달	꼭잔
cnt	67	28	4	21	14
miss	11	5	1	4	1
1회	5	1	1	2	1
2회	3	3	0	0	0
3회	5	2	0	3	0
4회 이상	43(77%)	17(74%)	2(67%)	12(71%)	12(92%)

◎ V234 산전관리를 몇 회 받았는지

해석: 긍정적인 점은 4회 이상 산전관리를 받은 경우가 missing 제외 응답자의 76.8%이었음.

type	total	따거	꾸얼꾸르어	꼭건달	꼭잔
cnt	67	28	4	21	14
miss	2	1	0	0	1
예(1)	64(98.4%)	27(100%)	3(75%)	21(100%)	13(100%)
아니오(2)	1	0	1	0	0

◎ V238 임신 중에 철분약을 먹었는지?

해석: 임신 중에는 98% 이상이 철분약을 먹었음(무응답한 missing 수 제외한 비율).

	Total	따거	뚜얼꾸루어	꼭건달	꼭잔
n	67	28	4	21	14
nmiss	2	1	1	0	0
모르겠음	4	1	0	2	1
mean	103.61	94.65	130.00	107.9	10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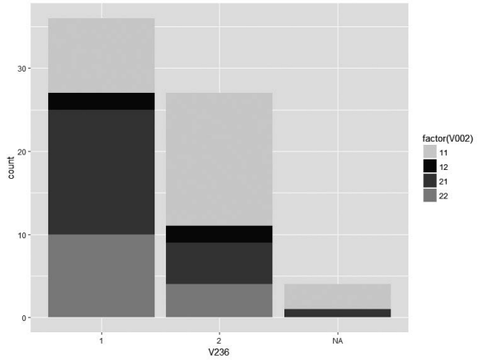
◎ V239 임신 기간 중 몇 일 정도 철분약을 먹었는지

해석: 응답한 대다수가 임신 중에 보건소에서 빨간 색의 철분 알약을 받아서 먹었다고 했으며 대부분 90일간 먹었다고 응답했으며, 180일 먹은 경우가 11명, 270일로 임신 기간 전체 먹은 경우는 1명이었음. 현재 캄보디아의 보건소에서는 임신부에게 무료로 철분 영양제를 나눠주고 있음.

〈가족계획 관련〉

type	total	따거	꾸얼꾸르어	꼭건달	꼭잔
cnt	67	28	4	21	14
miss	4	3	0	1	0
예(1)	36(57%)	9(36%)	2(50%)	15(75%)	10(71%)
아니오(2)	27(43%)	16	2	5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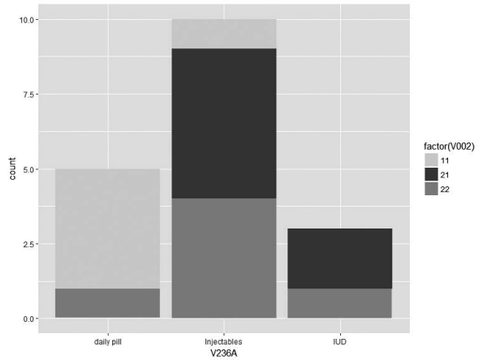
◎ V236 가족계획으로 피임을 하고 있는지



해석: 피임 사용 여부는 지역 간 편차를 크게 볼 수 있음. 꼭건달, 꼭잔은 피임하고 있는 경우(1)가 70% 이상인 반면 따거 마을은 피임하지 않는 경우(2번 막대의 11번, 첫 번째 칸)가 더 많음. 따라서 오히려 농촌 지역인 꼭건달, 꼭잔 마을이 가족계획 인식과 피임 이용이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type	total	따거	꾸얼꾸르어	꼭건달	꼭잔
cnt	67	28	4	21	14
miss	49	23	4	14	8
daily pill	5	4	0	0	1
injectables	10	1	0	5	4
IUD	3	0	0	2	1

◎ V236A 피임을 하는 경우,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해석: 피임방법으로는 전체적으로 주사(injectables)를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10명) 따거 마을의 경우, 직접 구입할 수 있는 피임약을 사용했으며, 꼭건달, 꼭잔 마을의 경우 보건소에서 2달마다 주사를 맞거나 IUD 시술을 받았다고 응답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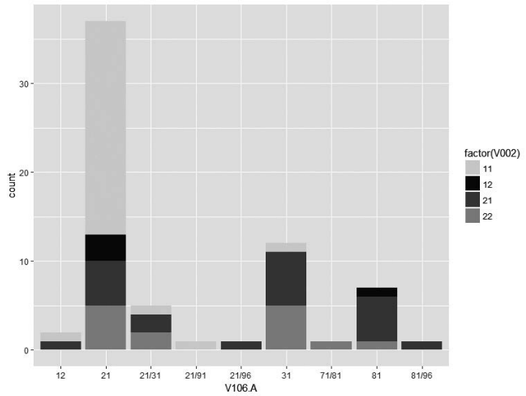
〈가구 정보: 1) 식수〉

type	total	따거	꾸얼꾸르어	꼭건달	꼭잔
cnt	67	28	4	21	14
miss	0	0	0	0	0
12	2	1	0	1	0
21	(55%) 37	24 (85%)	3 (75%)	5 (23%)	5 (35%)
21/31	5	1	0	2	2
21/91	1	1	0	0	0
21/96	1	0	0	1	0
31	(17%) 12	1 (3%)	0	6 (28%)	5 (35%)
71/81	1	0	0	0	1
81	(10%) 7	0	1 (25%)	5 (23%)	1 (7%)
81/96	1	0	0	1	0

◎ V106 건기에 가족이 마시는 물을 구하는 곳

*** Data co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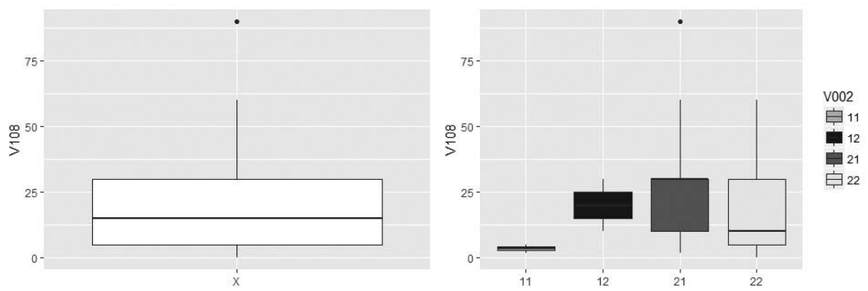
12 – 본인 집 마당/밭에 수도 있음
21 – 펌프(borehole)
31 – 전통적 우물(dug well)
71 – 소형 물탱크
81 – 표면수 (강, 호수, 연못 등)
91– 생수(bottled water)
96 – 기타: 항아리 물을 사서 마심, 옆집의 NGO에서 해준 펌프 이용(꼭건달 마을 응답 내용)



해석: 전반적으로 펌프(21번)가 많으나 대부분 따거 마을에 있고, 꼭건달, 꼭잔 마을에는 전통적 우물을 사용하는 집이 많으며, 표면수(강, 호수) 이용으로 위험 요소가 있음.

	Total	따거	뚜얼꾸루어	꼭건달	꼭잔
n	67.00	28.00	4.00	21.00	14.00
nmiss	37.00	26.00	2.00	7.00	2.00
mean	10.61	3.50	20.00	20.89	20.50
sd	26.22	2.12	14.14	25.34	21.60
0%	0.00	2.00	10.00	2.00	0.00
50%	17.50	3.50	20.00	30.00	10.00
100%	90.00	5.00	30.00	90.00	60.00

◎ V108 (건기에) 물을 구하러 다녀오는데 걸리는 시간 (단위: 분)



※ 본인의 집 안이나 마당 안에 식수원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응답하여 nmiss가 많음.

해석: 따거 마을의 경우 집 안에 수원이 없어서 물을 나르는데 시간이 걸리는 집이 2곳 밖에 없었고, 이 집들도 5분 안에 구할 수 있었음. 반면 와린 지역의 꼭건달, 꼭잔은 대상 가구의 2/3(66.6%)와 85.7%가 집 밖에서 물을 구해야하고 최대 60분에서 1시간 30분까지 소요되는 가구도 있었음.

type	total	따거	꾸얼꾸르어	꼭건달	꼭잔
cnt	67	28	4	21	14
miss	42	27	1	8	6
12/51	1	0	0	1	0
21/31	1	0	0	0	1
21/31/51	2	0	0	0	2
21/51	4	1	0	2	1
31	2	0	0	2	0
31/51	4	0	0	3	1
51	11	0	3	5	3

◎ V108B 우기에 가족이 마시는 물을 구하는 곳 (건기와 다른 경우)

*** Data code:**

12 – 본인 집 마당/밭에 수도 있음
21 – 우물 펌프(borehole)
31 – 전통적 우물(dug well)
51 – 빗물

해석: 따거 마을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절반 이상이 우기에 다른 식수원을 이용했고, 대다수가 빗물을 마시거나 기존 수원에서 추가한 집이었음(응답한 가구 25명 중 22명, 88% 해당).

type	total	따거	꾸얼꾸르어	꼭건달	꼭잔
cnt	67	28	4	21	14
miss	0	0	0	0	0
네, 항상	44	21	3	12	8
네, 가끔	11	3	1	5	2
아니오	12	4	0	4	4
“네, 항상” 응답 비율	66%	75%	75%	57%	57%
“아니오” 응답 비율	18%	14%	0%	19%	29%

◎ V109 물을 안전하게 마시기 위한 노력을 하는지

type	total	따거	꾸얼꾸르어	꼭건달	꼭잔
cnt	67	28	4	21	14
miss	12	4	0	4	4
1/2	1	1	0	0	0
1/3	5	1	1	2	1
1/6	1	0	1	0	0
1	30	11	2	10	7
3	18	11	0	5	2

◎ V110 물을 안전하게 마시기 위해 어떻게 하는지 (109번 "네"응답한 경우)

*** Data code:**

1 – 물을 끓인다　　2 – 소독약/염소를 넣는다

3 – 천/세라믹 필터를 사용한다 (정수기)　　6 – 기타: 빗물은 그냥 먹는다. (뚜얼꾸르어 1명 답변)

해석: 물을 끓인다고 답한 가구가 응답한 가구 수 55개 중 절반이 넘었으나(35 가구, 63.6%), 물을 안전히 마시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는 전체의 66%에 그쳤고, 따거, 뚜얼꾸르어 마을(75%)이 꼭건달, 와린 마을(57%)보다 "항상"이라고 답한 비율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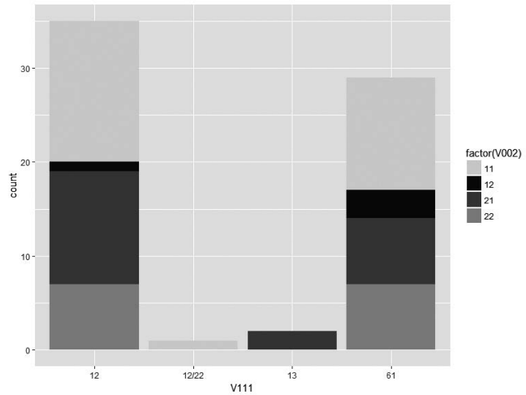
〈가구 정보: 2) 위생 환경〉

type	total	따거	꾸얼꾸르어	꼭건달	꼭잔
cnt	67	28	4	21	14
miss	0	0	0	0	0
수세식, 정화조 (12)*	34	15	1	12	7
수세식(12) & 구덩이 변소(22)	1	1	0	0	0
수세식, 구덩이 (13)	2	0	0	2	0
화장실 없음(61)	29	12	3	7	7
화장실 없음 비율	43.3%	42.9%	75.0%	33.3%	50.0%

◎ V111 가족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의 종류

* 수세식, 정화조 (pour to septic tank)(12): 쭈그려 앉아서 용변을 보고 물 사용.
바닥에 정화조가 있으나 퍼내지 않고 계속 이용한다고 함.

* 구덩이 변소(pit latrine)(22): 바닥에 깊은 구덩이를 파서 사용함, 물 사용 안함.



해석: 화장실이 있는 가구의 경우 대부분 수세식, 정화조 화장실(시멘트로 건축, 바닥은 타일)로 답변했음. 화장실이 없는 마을은 농촌 지역인 와린 군(꼭건달, 꼭잔 마을)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역간 약간의 편차가 있음. 112번 질문에서는 화장실 시설이 없으면 다른 집(옆집의 가까운 가족)과 사용한다고 답하거나 missing data로 응답하지 않았음.

type	total	따거	꾸얼꾸르어	꼭건달	꼭잔
cnt	67	28	4	21	14
miss	26	10	3	6	7
네	15	7	1	6	1
아니오	26	11	0	9	6

◎ V112 이 화장실을 다른 가족과 같이 사용하는지

type	total	따거	꾸얼꾸르어	꼭건달	꼭잔
cnt	67	28	4	21	14
miss	8	6	1	0	1
물이 있음(1)	57	20	3	21	13
물이 없음(2)	2	2	0	0	0

◎ V124 가족들이 손을 씻는 곳을 보여달라고 요청 후 관찰: 물이 있는지

type	total	따거	꾸얼꾸르어	꼭건달	꼭잔
cnt	67	28	4	21	14
miss	8	6	1	0	1
비누, 세제 (1)	48	19	3	15	11
재, 모래 (2)	1	0	0	0	1
없음 (3)	10	3	0	6	1

◎ V125 관찰: 손 씻는 곳에 비누, 세제 등 세정제가 있는지

〈기 타〉

type	total	따거	꾸얼꾸르어	꼭건달	꼭잔
cnt	67	28	4	21	14
miss	0	0	0	0	0
1/2	2	2	0	0	0
1	21	14	3	3	1
2	26	5	1	11	9
3	17	6	0	7	4
4	1	1	0	0	0

◎ V126 요오드 함유 소금이 있는지 확인 (소금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관찰)

*** Data code:**

1 – 요오드 소금 라벨 있음　　2 – 요오드 소금 라벨 없음

3 – 병, 봉지 안에 소금 있음　　4 – 소금 없음

해석: 요오드 함유 소금이 있는 집도 꽤 있었으나(34.3%) 따거, 뚜얼꾸르어 마을이 많았고 와린 지역에서는 찾기 어려웠음. 요오드 라벨이 없는 일반 소금이거나 병 안에 있어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더 많았음.

※ 1/2를 동시에 답한 경우, 요오드 함유 소금은 생선, 고기를 굽는데 사용하고 일반 소금은 국을 끓이는데 사용한다고 답함.

type	total	따거	꾸얼꾸르어	꼭건달	꼭잔
cnt	67	28	4	21	14
miss	1	0	0	1	0
1	14	6	0	5	3
2	7	5	0	1	1
3	(68%) 45	17(61%)	4(100%)	14(70%)	10(71%)

◎ V127 (마을 이장의 추천으로 가난한 가정의 가구원들이 무료로 보건소, 공립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Health Equity Card가 있는지 여부

*** Data code:**

1 – 카드 있음, 확인 함　　2 – 카드 있으나 못 봄　　3 – 카드 없음

해석: 설문조사에 응답한 가구 중 지역별로 Health Equity Card(HEC)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의 비율은 비슷함. HEC는 매년 갱신되어야 하고, 지원 우선순위가 1, 2로 나뉘어 있으며, 우선순위 1인 경우, 보건소에서 $1~4이 드는 피임법 이용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며 시엠립 주립병원에서 당뇨 등 검사도 무료로 받을 수 있음.

04 변화의 영역

가. 주목 분야

기존 모자보건 분야에서의 전환

- 기존의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조사 기획 시에 모자보건 사업 분야를 기획했었으나, 설문조사와 인터뷰 내용을 통해 보건소를 통한 산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64.1%가 4회 이상 산전관리를 받았음을 확인했다.
- 설문조사, 인터뷰와 더불어 24개월 미만 영아와 어머니의 신체 측정을 하였으나 어머니의 BMI와 영아의 성장 그래프(weight-for-age, 개월 수당 몸무게)와 인터뷰 내용으로 긍정적 이탈 사례를 발견할만할 공통점을 찾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임산부를 제외한 산모의 BMI와 영아 개월 수당 체중의 z-score와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나 상관계수가 0.3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은 아니었다.

식수 및 보건위생 분야

- 반면 건기에 식수를 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와린 군의 경우 평균 20분 이상 걸리는 점과 펌프, 우물 및 물 드럼통 구입, 표면수 이용까지 다양한 식수원에서 안전한 식수에 문제가 있음을 주목했다.
- 물을 안전하게 마시기 위한 노력을 하는 지에는 66%가 “항상 그렇다”고 답했고, 와린 군 꼭껀달, 꼭잔 마을은 57%만 응답하여 개선 여지가 있으며 식수위생 습관 개선에는 와린 군에 초점을 둬야함을 알 수 있었다.
- 화장실 종류 문항에서는 수세식, 정화조 화장실 응답 다음으로 43.3%가 화장실이 없다고 응답하여 가구별 화장실에 대한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 현지의 수요 및 상황

식수 시설 현황 및 수요

- 시내에서 가까운 따거 마을의 경우, 집집마다 해외NGO 또는 개인 후원으로 우물이 설치되어 있으나(사진 참조- 각 우물 옆에 현판 설치) 고장으로 이용하지 않는 펌프도 일부 확인하였음. 따거 지역의 경우, 식수 공급을 위한 시설보다는 수질 처리에 필요한 정수기 시설에 더욱 수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 시엠립 시내에서 차로 2시간 정도 떨어진 와린 군은 타 기관의 지원 흔적보다는 자가 설치한 펌프, 페달로 밟는 수동 펌프(나무로 제작), 빗물 집수대(철판 이용), 전통 우물(dug well) 등 다양한 수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옆집 펌프를 이용하거나 강, 연못 등 표면수 물을 마시는 경우도 있었다.

화장실 시설 현황 및 수요

- 설문조사 시 소변검사 진행에도 화장실 시설이 없어서 현지식 긴 치마를 가지고 주변 들판으로 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화장실을 짓고 있다고 답한 가구들도 있어서 화장실의 필요는 느끼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화장실이 없는 가구 외에 화장실을 다른 가족과 같이 쓰는지(공유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15명(36.6%)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보건소 현황

- 군(Province) 아래 면(District) 단위로는 보건소(Health Center)가 있으며, 행정단위와는 보건서비스 단위가 달라서 보건소를 OD(Operational District)로 부른다. 반띠스라이 군에는 따거 리에 쁘레아다 면 보건소가 있으며, 와린 군에는 꼭건달 리에 새로 지은 러위어끄랑 면 보건소가 있고, 옆 면에 스라이노이 면 보건소가 있다.
- 쁘레아다 면 보건소의 경우 진료 및 입원용 침상이 없어서 바깥 마당의 평상, 나무 아래 그늘을 이용하고 있으며, 출산용 의자는 한 개가 있다. 식사 제공이 안되고 직접 환자 식사를 구해야하기 때문에 보건소 주변에 시장 상권이 있는 것을 선호하고 와린 군에서는 산전관리에는 가까운 꼭건달 보건소를, 출산 시에는 주변상권이 있는 스라이노이 보건소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기타 이해관계자 현황

- 타 NGO: 시엠립 주 북쪽 동일 사업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NGO는 확인된 바 없다. 현지NGO는 Banteay Srei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단체들이 있다.
- Joyful NGO: 센터장의 간호 전공 및 보건교사 경력으로 현지에서 비타민 B 등 영양제 보급 및 기초진료 순회 봉사를 하고 있으며, 사업대상 지역의 이장과 마을의 리더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시엠립 보건국의 국장을 만나서 지역 내 응급환자를 상위병원에 이송해 치료받게 했던 사례를 보고하였고, 시엠립 보건국은 단체가 해온 일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 연관 정부 부처: 농촌 지역의 식수위생(식수 시설, 화장실) 분야에서는 농촌개발국(Ministry of Rural Development)이 캄보디아 정부의 담당 부처이다. 농촌개발국의 지도와 교육 하에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으나, 지역 내 화장실 및 식수사업 개발은 마을 이장과의 합의로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 지원가능 기관/단체: 캄보디아 프놈펜에 위치한 적정기술센터인 iWc(innovative Water Center)의 최의소 센터장을 통해 발전된 화장실 모델과 사업 지역에 적합한 식수시설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임산부 초음파 검진을 도와주신 서정호 의사(시엠립주립병원 파견 글로벌협력의료진)가 보건국과의 협조 미팅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다. 사업대상 분야(Target Area)의 지표 및 기초선

구 분	지 표	기초선
- 가구별 화장실이 있음	마을 내 가구별 화장실 설치 개수	- 화장실 없음 43.3%: 본 조사 - 화장실 없음 50.4%: CDHS 2014 (농촌 지역)
- 건기에 식수 구하는 시간 (따거 마을 제외)	건기에 식수 구하는 시간	- 평균 20분: 본 조사
- 물을 안전하게 마시기 위한 노력을 한다.	정수기 이용 가구 수	- 정수기 이용 41.8%: 본 조사 (55명 중 22명) ※ 참조. 물을 끓임 54.5%

※ 본 조사는 4개 마을 67개 가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사업 지역의 전수조사 시에는 기초선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

라. 단체의 특성과의 연계

식수보건위생(WASH) 분야 사업 경험

- 본 기관은 (사)팀앤팀과 2011년도부터 아프리카 식수지원사업을 진행해왔다. 주로 케냐 동부 Tana River 주에 마을별로 공동 펌프 개발을 해왔으며, 현지에서 수리, 유지보수 관리까지 수행하고 있다.
- 2017년부터 팀앤팀과 컨소시엄으로 케냐 북서부 Turkana 주의 난민캠프 인근 칼로예베이 중고등학교에 화장실과 샤워실 2동 건립과 더불어 여학생 대상 면생리대 보급, 위생인식 교육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후원하는 ODA 사업 중 하나이다.

KOICA 민관협력 사업 수행 경험

- 월드휴먼브리지는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볼리비아에서 직업기술학원을 운영하는 민관협력 사업을 운영해왔다. 이를 통해 한국 본부에는 사업 운영을 뒷받침할 행정 능력이 있으며 사업 사이클에 대한 이해가 있다. 캄보디아 현지에는 외부 지원을 받아 사업 운영을 해본 경험이 없어 사업 지도가 필요하다.

05 자료 출처

Centeral Intelligence Agency, 2017. “The World Factbook.” Web. 26 July 2017.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resources/the-world-factbook/geos/cb.html>.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Directorate General for Health, and ICF International, 2015. Cambodia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2014. Phnom Penh, Cambodia, and Rockville, Maryland, USA: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Directorate General for Health, and ICF International.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of Cambodia, 2009. 2008 Cambodia General Population Census. Web. 26 July 2017. <https://www.nis.gov.kh/index.php/15-gpc/14-population-census-2008-final-result>.

USAID, 2014. “Country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CDCS) Cambodia 2014-2018.” Web. 26 July 2017. <https://www.usaid.gov/cambodia/cdcs>.

WHO, 2017. “Child growth standards: Weight-for-age”Web. 7 August 2017. <http://www.who.int/childgrowth/standards/weight_for_age/en/>

대한민국 정부 관계부처 합동, 2016.“캄보디아 국가협력전략”

KCOC, 2015. <NGO 길라잡이- 캄보디아>. 서울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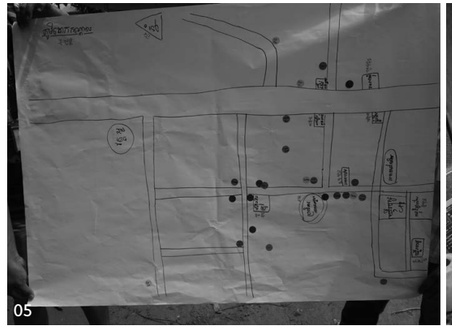
06 기타 활동 자료 (사진 등)

01

02

03

04


05

06

01 05/17 쁘레아다 면 보건소장 미팅
02 05/17 반띠스라이 군 공청회 시 따거 마을 FGI
03 따거 마을 건강 검진: 혈압 측정
04 05/18 와른 군(꼭건달, 꼭잔 마을) 공청회
05 05/18 공청회-마을 지도에 집 위치 표시하기
06 05/18 와린 군 공청회 이후 초음파 검진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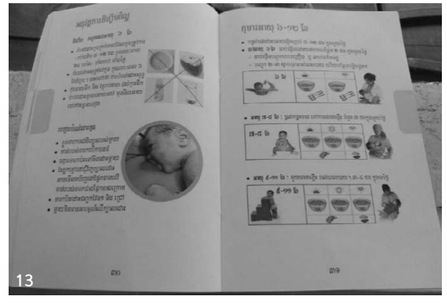
08

09

10

11

12


13

14

07 05/19 따거 마을 가구별 어머니 설문조사
08 따거 마을: 해외NGO에서 설치한 펌프
09 05/21 와린 지역 꼭껀달 마을 설문조사
10 Health Equity Card 사진(이장의 추천을 받은 가난한 가정은 보건서비스 정부 지원을 받음)
11 05/23 와린 지역 일대일인터뷰
12 05/23~24 따거/와린 지역인터뷰 답례품 전달
13 임신, 육아 수첩 (백신 접종 카드 포함, 신규 방식)
14 영아 백신 접종 카드 (이전 방식)

향후 계획

chapter 03

○KOICA 민관협력 보조금 사업 공모 지원

2018년 보조금 사업을 통해 사업지역에 가구별 화장실 보급과 식수 시설 및 정수기 보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마을별 위원회를 조직하여 화장실 건축은 주민들이 직접 하도록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며, 식수 시설과 정수기는 업체에서 직접 설치할 계획이다.

사업 착수 이전에 각 마을마다 식수 및 보건위생 관련 전수 조사를 진행하여 가구별 화장실 유무, 이용하고 있는 수원, 수질 수준을 파악할 예정이다.

○시엠립 보건국 협의 및 기존의 순회진료 사업 지원

시엠립 보건국의 의료 활동 허가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음을 하트하트재단 캄보디아 지부 방문을 통해 확인했다.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순회진료 사업을 계속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시엠립 보건국과 협의를 할 예정이다. 또한 본 조사 결과 보고서를 영문으로 제작하여 협의 과정에 해당 부처와 공유하여 사업 지역의 현황과 필요를 설명하고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 별첨: 일대일 심화인터뷰 13건
- 긍정적 사례 또는 부정적 사례로 설문조사 응답자 중에 선정

◎별첨. 캄보디아 지역조사 심화인터뷰

1. 따거, 선다이 마을

인적사항 (긍정적 사례)						
코드	B-01		**이름**	Sovern Train	**나이**	35
지역 코드/이름	12	선다이	**인터뷰 일자**	17.05.24.	**인터뷰어**	요한, 박현진
임신 유무	X		**영아 성별**	여	**영아 개월수**	12 개월
인터뷰 항목별 정리						
1. 아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지	※ 아기가 건강한 편이고 몸무게가 높은 편임. - 주관적 평가: 감기에 걸린 적이 있으나 열이 난 적은 없음. - 설문조사 당시 토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이후 한 번 토했음.					
2. 음식	- 하루에 2L 정도로 자주 마시는 편임. - 엄마 집에 있는 정수기 필터를 사용하여 물을 마심. -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에는 물을 끓여 먹였는데 이후에는 정수기 물을 먹임. - 아기한테 상한 음식, 쉰 음식은 주지 않음. - 이유식은 양념죽(돼지고기, 양념이 들어가는 죽)을 만들어서 주며 매일 밥도 먹음. - 양념죽은 한달에 1~2번, 생선은 일주일에 5번 이상 먹임. - 본인은 생선(일주일에 3번), 버섯(멀리서 가져와서 볶아 먹음)을 자주 먹음. ※ 야맹증이 없음. 파파야, 망고 익은 거 잘 먹는지 : 파파야는 먹지 않으며, 망고 익은 것은 자주 먹음. 계절에 따라 다르며, 지금이 망고철이라 많이 먹음.					
3. 친구, 가족	- 친척(이모, 고모 등), 자매가 많이 와서 양육을 도와줌. - 아기가 막 태어났을 때는 매일 오고, 현재 일주일에 3번 이상 옴. - 본인은 버섯을 구하러 다니며 파는 사업을 함, 아기가 잘 때 나가는 편임.					
4. 병원 접근성	- 보건소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며 기름값만 내고 감. - 보건소에 혼자 갈 때도 있고 남편과 같이 가기도 함. - 쁘레아다 보건소에서 출산하였으며 1박 2일 머무름.					
5. 위생	- 집 주변에 웅덩이는 없지만 모기가 많음. - 100m 내에 연못이 있음. - 딸 3명 중에 2명은 초등학교를 다니며, 한번씩 뎅기열에 걸린 적 있음. (피검사로 뎅기열을 확인함, 열이 조금 났고, 주사나 링겔을 맞지 않고 보건소에서 약만 받아서 먹음, 무슨 약인지는 모르나 해열제일 것으로 추정함.) - 아기가 태어난 후 3개월까지 기저귀를 사용함. 그 후에는 바지만 입힘. - 소변, 대변을 싸고 난 뒤에 바지를 자주 갈아입힘. - 바닥에 묻으면 이불, 수건으로 닦고, 닦은 수건은 바로 빨래함.					

6. 가족계획	- 가족계획을 안 하고 있는데 하고 싶음. 아기는 지금처럼 3명만 가지고 싶음. - 피임약을 이용한 피임법을 원함. - 남편도 가족계획을 하고 싶으며 동의함. - 가족계획 교육에 참여하고 싶은지, 남편 또한 가능한 지 : 기회가 있으면 본인은 참석이 가능하지만, 남편은 일하느라 바빠서 참석을 못할 수도 있음. 멀리 있는 농장에서 일하며 1~3개월에 한 번씩 집에 옴.
7. 산전/ 산후관리	- 아기 백신 접종 카드가 있는데 출산 후 어디 있는지 모름. - 1살 반까지 접종 기한이 있으며 1번 남음. - 현재까지 9~10회 정도 접종했으며, 1번 보건소에 갔을 때 2~3개씩 맞음. - 울어도 금방 그치며, 백신을 맞고 열나고 아픈 적이 없었음.

인적사항					
코드	B-05	**이름**	Khoeum Savat	**나이**	22
지역 코드/이름	11 따거	**인터뷰 일자**	17.06.02.	**인터뷰어**	요한
임신 유무	X	**영아 성별**	남아	**영아 개월수**	17개월
인터뷰 항목별 정리					
1. 아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지	※ 영아는 17개월에 8.1kg으로 너무 낮게 나옴. z-2 구간에 해당함. 산모도 BMI 17.8로 표준 몸무게 미달 - 아기는 작고 짜증이 많은 편임. - 설사 자주하고 한번씩 토하고 많이 아픈 편임.				
2. 음식	- 아기 모유: 1년 3개월에 끊음. 밥은 하루에 4번. - 엄마는 무엇이든 잘 먹고 많이 먹는 편임. 생선 많이 먹고 야채도 잘 먹음.				
3. 친구, 가족	- 남편이 일용직 잡역부라 일이 없을 때 잘 도와줌				
4. 병원 접근성	- 보건소 갈 때 친정집 오토바이로 남편이 데려다줌. 1.4달러 비용이 듬.				
5. 위생	- 물 끓여마심. - 화장실은 없고 친정집의 화장실 사용. - 아기는 아직 대소변 못가림. - 손씻기 잘하고 있음.				
6. 가족계획	- 가족계획으로 피임약 먹고 있음. 둘 낳고 싶음.				
7. 산전/ 산후관리	- (설문조사 내용) 산전관리: 쁘레아다면 보건소와 보파병원에서 받았음. - 임신 중 파상풍 주사, 철분약 2달 먹었음, 기생충 약은 안먹음. - 보파 병원에서 출산했음 - 산후관리: 남편과 어머니가 도와줬음.				
8. 환경	- 방에 침대 사용, 집 주변은 흙바닥임 - 집 주변에 나무가 많아 모기가 많아서 모기장 사용함.				

인적사항					
코드	C-04	**이름**	Pheung Phy	**나이**	27
지역 코드/이름	11 따거	**인터뷰 일자**	17.05.24.	**인터뷰어**	르은, 강예빈
임신 유무	X	**영아 성별**	여	**영아 개월수**	8.5 개월
인터뷰 항목별 정리					
1. 아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지	※ 아기 몸무게는 z+2로 개월 수 대비 평균 이상임, 결핵에 걸렸었음. -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함. 매일 열이 나고, 감기 기침을 자주해서 거의 매일 약을 먹음.(보건소에서 결핵 진료받았음) - 지금까지 10일 동안 기침이 있음.				
2. 음식	- 아기는 정수된 물, 본인은 끓인 물을 마심. - 주로 수유를 하며, 죽(호박, 고구마, 생선 등을 섞어 만듦)을 먹이나 잘 먹지 않음. - 본인은 채소(호박, 고구마, 오이, 어른 파파야, 어린 팜)을 섞어 만든 요리를 먹거나 생선이나 고기를 먹음. 주로 생선으로 식사함. - 임신했을 때 모닝글로리를 주로 먹음. 호박, 수박, 오이 등의 채소와 생선도 많이 먹음. ※ 야맹증 관련 : 임신 전에도 그런 증상이 있었음.				
3. 친구, 가족	- 바로 주변에 남편의 여동생이 있음. - 출산 후에 남편이 없을 때만 밥 해주는 등으로 도와줌. - 남편이 없을 때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도와줌.				
4. 병원 접근성	- 오토바이로 30분 소요됨. - 옆 동네 가족의 오토바이를 타고 언니와 같이 감.				
5. 위생	- 본인은 샤워 시에 3회 비누를 사용하며 2회는 물만 사용하고, 아기는 6~9번 샤워하며 3번 아기 비누를 사용함. - 본인은 화장실 사용 후 빨래 세제를 사용하여 손을 씻음. - 아기가 소변을 봤을 때 옷을 갈아입히고, 대변을 봤을 때는 구멍을 파서 묻고 덮음. - 본인도 아기와 똑같이 함. - 우기 때 옆집에 웅덩이가 생김. 집 근처에 연못이 있음. - 건기와 우기에 모기가 많음. 본인은 어렸을 때 뎅기열에 걸렸고, 남편과 아이도 뎅기열에 걸린 적이 있음. ※ 뎅기열에 걸렸을 때 보건소에서 3~4일 정도 아기가 링겔을 맞으며 수유함.				
6. 가족계획	- 가족계획을 안 하고 있으나 방법은 알고 있음. - 한 명 더 가지고 싶고, 가족계획도 하고 싶음. 약 먹는 방법을 선호함. - 남편도 긍정적으로 생각함.				
7. 산전/ 산후관리	- 남편이 빨래나 밥을 해줌. - 2개월까지 시어머니와 남편이 도와줌. - 보건소에 3번 방문 하였으며, 한 달 전 파상풍 주사를 맞음. - 임신했을 때 철분제 외에 이가 아파서 약을 처방받음.				

인적사항 (부정적 사례)					
코드	D-02	**이름**	Ri Khhone	**나이**	31
지역 코드/이름	11 따거	**인터뷰 일자**	17.05.24.	**인터뷰어**	요한, 박현진
임신 유무	X	**영아 성별**	남	**영아 개월수**	20 개월

인터뷰 항목별 정리	
1. 아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지	※ 아기 몸무게가 z-3 구간에 해당하는 극성 영양실조 상태. - 아기가 지금 아파서 열이 나고 설사함. - 인터뷰 당일 오전에 보건소에 다녀옴. 체온 38~39도. - 뎅기열에 2번 걸렸었다고 했는데 검사를 받았는지 : 피검사하러 갔는데, 뎅기열은 아니고 폐에 문제가 있고 기관지 염증(빨강)이 있다고 함. - 남편이 집안에서, 아기 옆에서 담배를 피워 간접흡연 문제가 있음.
2. 음식	- 물은 출산 후에 6개월 정도 정수기 물을 받아서 끓여 먹음. 지금은 정수기 물만 먹음. - 아기는 간식을 먹지 않아도 되며, 야채죽을 먹도록 안내해줌.
3. 친구, 가족	
4. 병원 접근성	- 임신했을 때 보파병원에 많이 갔으며, 오토바이를 빌려서 갔음. - 오토바이 기사 또는 남편과 같이 갔으며, 아는 사람일 경우 15,000리엘(4불), 모르는 사람일 경우 25,000리엘(6불)을 지불하였음. - 뎅기열에 걸리면 보건소에서 링겔(1개에 $5)을 맞음. HEC가 있고 Level 2이어도 돈을 내야 함. 약만 받으면 무료임.
5. 위생	- 아침에 물을 사용할 때 물에서 신 냄새가 남 (물에 철 성분 과다로 pH가 높은 편) - 집 주변에 숲이 많아서 모기가 많음. - 물을 버려서 우물 옆에 웅덩이가 있음. - 아기가 기저귀 대신 천을 사용하여 소변과 대변을 보면, 빨래해 줌. - 바닥에 오줌 싸면 바로 닦아 주고, 밤에는 못 닦아주며 다음날 아침에 대변은 바로 닦아줌. - 낮에도 텐트형 모기장을 치고 있음.
6. 가족계획	
7. 산전/ 산후관리	- 임신 시에 철분제만 먹었으며, 건강검진과 피검사를 받았음(칸타보파 병원). - 임신했을 때 한 달에 1번 정도 보파병원을 감. - 출산 시에 보파 병원에서 1박 2일 있었으며 - 산후관리, 예방주사 맞으러 보파병원에 갔음. 45일후(1.5개월), 2.5개월, 3.5개월~9.5개월까지. - 처음에 보파병원을 갔고, 계속 약속을 잡아주어 가게 됨. - 아기 백신카드가 있으며 9.5개월까지 접종을 잘 받았음.

2. 꼭건달 마을

인적사항					
코드	A-11	**이름**	Truck	**나이**	24
지역 코드/이름	21 꼭건달	**인터뷰 일자**	17.05.25.	**인터뷰어**	베드로, 손은경
임신 유무	x	**영아 성별**	여아	**영아 개월수**	14개월

인터뷰 항목별 정리	
1. 아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지	※ 아기 몸무게는 평균임, 산전관리는 보건소, 보파병원 둘다 이용함. -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함. 자주 설사를 하고 토를 함. - 열이 나는 감기는 잘 걸리지 않음.
2. 음식	- 아기 : 죽이나 밥을 먹음. - 본인 : 주로 굽거나 볶아서 먹음. 볶은 야채, 고기 등. - 아기 : 죽을 좋아하나 국물만 먹음. 주로 빵(놈빵)을 많이 먹으며, 봉지에 들어있는 것은 많이 먹지 않음. - 본인 : 다른 가족은 일하러 가고 집에 혼자 있어서 먹고 싶은 것을 못 먹음. 먹고 싶은 음식이 야채와 여러 재료가 필요한 음식이라서 어려움. - 바로 야채, 고기를 사거나 구해서 먹으며, 생선은 아버지가 구해줌. - 기름과 파이프를 구매해서 다른 우물에서 물을 끌어옴. - 우기에는 빗물도 사용함.
3. 친구, 가족	- 옆집에 사는 사람이 자주 오며, 본인이 음식을 못하면 옆집에서 가져다 줌. - 다른 사람이 아기를 돌봐주는 것은 어려움.
4. 병원 접근성	- 걸어서 15분 거리여서 주로 혼자서 감. - 옆집 오토바이를 빌리거나 트랙터를 이용하게 되면 5분 정도 소요됨. - 큰 길가에 있는 개인 클리닉에 가기도 함. - 아기가 설사가 심해서 보건소에 갔는데 낫지 않아서 클리닉에 갔음. 비용은 10불정도 들었음. 약을 주로 많이 주고 보건소보다 시설이 좋으며 피검사가 가능함.
5. 위생	- 본인 : 아침, 저녁 2번 샤워함. - 아기 : 날씨에 따라 다르지만 4번 이상 함. 아침과 저녁에 한 번씩 비누를 사용함. - 화장실에 다녀와서 비누를 사용하여 손을 씻으며 화장실 안에 비누가 있음. - 아기가 소변과 대변을 볼 때 대부분 땅에 바로 할 수 있게 하고 바로 닦아줌. - 어렸을 때는 용변 신호를 보이면 바지를 벗겨 주었음. - 웅덩이가 집 바로 가까이에 있음. 비가 올 때 혹은 항아리 주변에 있음. - 웅덩이에 모기가 있으며 방법을 몰라 그냥 둠.
6. 가족계획	- 피임주사를 맞고 있음. - 3달에 1번, 보건소에서 주사를 맞음.
7. 산전/ 산후관리	- 아기 백신 카드 있음. - 무슨 백신 주사인지는 모르고, 주사를 맞을 때 의사가 알려주었으나 기억이 안남. - 임신 중에 비타민, 영양제 먹음. - 산전관리 : 보건소에서 혈압검사, 아기 심장소리 듣는 장비를 했음. 초음파는 없었으며 피검사를 못함. - 임신 중에 칸타보파병원에 2번 갔음. 1번은 여러 가지 체크하고, 에이즈 검사도 함. 2번째는 에이즈가 아니라는 결과를 알려줬으며, 혈액검사를 한번 더 함.

인적사항(유산 경험 2회, 부정적 사례)						
코드	A-12		**이름**	Preach Prek	**나이**	30
지역 코드/이름	21	꼭건달	**인터뷰 일자**	17.05.25.	**인터뷰어**	요한, 박현진
임신 유무	○		**영아 성별**	-	**영아 개월수**	-

인터뷰 항목별 정리	
1. 아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지	
2. 음식	- 첫째 출산 후 3개월만 물을 끓여 마셨으며, 이후에 필터 없이 그냥 마심. 첫째가 설사를 많이 했음. - 지금은 물을 끓여 먹음. 한약(나무뿌리, 나무 껍질)을 넣어서 끓여 먹음.
3. 친구, 가족	
4. 병원 접근성	- 지난 출산은 보파병원에서 함. 산전관리는 보파병원 1회, 와른 보건소 이용함.(당시 러위어끄랑 면 보건소가 없었음.) - 스라이노이 마을에서 택시(다른 사람들과 봉고 택시 이용)를 타고 감. 1인당 7,000리엘($2)으로 남편과 같이 감. - 오토바이 택시는 2명 이용 시에 약 5,000~8,000리엘($2)임.
5. 위생	- 화장실이 없는 데, 가끔 손을 씻음. 씻을 때도 비누를 안 씀. (아기가 설사할 확률 높음)
6. 가족계획	- 아기를 2명만 가지고 싶어 출산 후에 주사로 가족계획을 하고 싶음.
7. 산전/ 산후관리	- 산전관리 : 러위어끄랑 면보건소에 갔음. - 유산 경험 : 2015년(1개월), 2016년(3개월)에 2회 집에서 유산 경험이 있음. 정확한 이유는 모르고 갑자기 유산됨. 당시에 보건소를 한번 다녀옴. 물 기르는 게 힘들어서 그런 것으로 추정됨. 거리가 멀지 않으나 무겁고 매일 물을 기름. - 현재 9개월로 만삭임. 1~2개월 일 때 피검사를 해줌. 태아가 건강한지 아닌지도 알려주며, 청진기로 아기 심장 소리를 들려 주며 혈압 검사도 함. 7~8개월에는 한달에 4번(1주일에 한번) 보건소에서 약속을 잡아줌.
8. 기타	- 임신 중에는 농사일을 하지 않으며, 임신을 안했을 때 농사일을 함. → 이번에 임신했을 때 7개월까지 농사일을 했음. → 유산한 이유 : 농사일을 하러 가서 많이 걸음. (추측?) - 야맹증 : 저녁 5~6시에 있음. 파파야는 별로 없고 망고는 일주일에 2~3번 먹음. - 도와줬으면 하는 것 : 본인은 잘 생각 안 해보았고, 보건소는 잘 모르겠음. - 식수(우물), 화장실 관련해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 : 옆집에 NGO에서 만들어준 우물이 있는 데 본인 집에 있으면 더 좋음.

인적사항						
코드	B-14		**이름**	Menh En	**나이**	30
지역 코드/이름	21	꼭건달	**인터뷰 일자**	17.05.25.	**인터뷰어**	요한, 박현진
임신 유무	○		**영아 성별**	-	**영아 개월수**	-

인터뷰 항목별 정리	
1. 아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지	
2. 음식	- 본인 : 소고기는 없어서 별로 못 먹고, 돼지고기는 일주일에 3~4번 먹음. 생선은 거의 매일 먹음. - 물은 필터를 사용하거나 끓여먹음. 요즘은 정수기가 깨져서 그냥 먹음. 아이들이 설사를 안함.
3. 친구, 가족	
4. 병원 접근성	- 개인 병원까지 멀어서 얼마나 걸리는지는 모름. 스라이노이 군에 있으며 오토바이를 타고 갔음. 삼촌이 태워줌.
5. 위생	- 화장실에 물과 비누가 있어서 손을 씻을 수 있음.
6. 가족계획	- 안하고 있으나, 앞으로 하고 싶음. - 어떤 방법으로 할지 결정하지 못했으며 생각만 있음. - 남편도 동의하였음. 남편의 정관수술에 대해서는 좋은지 잘 모르겠으며, IUD나 주사 사례만 봤음.
7. 산전/ 산후관리	- 지난 출산은 러위어끄랑 보건소에서 했음. 2~3년 밖에 안 됨. 원래 없었음. - 유산 경험 : 2016년(2개월)에 집에서 유산함. 무거운 것을 들어서라고 생각함. 그 후에 병원에 갔음. - 육아에 어려운 점 : 키우기가 어려우며 먹이는 건 괜찮은 데 2명의 아이들이 아플 때 힘듦.
8. 기타	- (설문지 내용 질문) 임신 안했을 때도 눈이 잘 안보임. 파파야는 없어서 많이 못 먹고, 망고는 계절에만 먹음. - 씨엠립 주립병원에서 시력검사를 했으나 괜찮다고 함. 의사가 안약을 처방해주었고, 알약도 사먹음. 목도 아프고 해서 약을 받았고 도움이 되었으나, 눈이 흐린 것은 도움이 안됨. - 개인 사업하는 분들이 몸 관리도 잘 하는 편임. - 화장실 다녀와서 손 잘 씻고, 비누 사용하고, 물 끓여 마시는 거에 주민들에게 발표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음.

인적사항						
코드	C-11		**이름**	Sokhai	**나이**	38
지역 코드/이름	21	꼭건달	**인터뷰 일자**	17.05.25.	**인터뷰어**	르은, 강예빈
임신 유무	x		**영아 성별**	남아	**영아 개월수**	8개월

인터뷰 항목별 정리	
1. 아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지	※ 아기는 이유식을 먹지 않으나 평균에 가까운 몸무게임. - 건강하지 않음. 자주 감기에 걸리고 열이 남.
2. 음식	※ 건기에 물 구하는데 1시간 걸린다고 답함. 깨끗한 물인지 질문함. - 온 가족이 가끔씩 정수기 물을 먹으며, 어떨 때는 물을 끓여 먹음. - 아기 : 젖을 많이 먹고, 이유식을 안 먹음. 밥을 주는 데 조금씩만 먹음. - 2명의 아이들 다 똑같음. 다른 집 아이들보다 못 먹음. - 아기에게 좋은 음식을 알고 있으나 그대로 요리하면 아이들이 안 먹음. (젖을 주기 때문에 안 먹는다고 생각함.) - 본인 : 채소(모닝글로리, 파파야, 다른 채소), 밥, 생선(거의 매일), 고기(가끔) 먹음.
3. 친구, 가족	- 이웃이 있으며 잘 도와줌. - 출산할 때 남편이 다른 지역에 농사하러 가서 없었는데, 보건소에 이웃이 데려다 줌.
4. 병원 접근성	- 보건소는 백신주사를 맞을 때 가끔 감. 좋은 약이 없음. - 개인 병원을 자주 감. 유료이지만 좋은 약이 있으며 아기가 아플 때마다 감. - equity card(level 2)를 가지고 있어 보건소의 모든 진료가 무료이며, 4년 간 사용이 가능함. - 보건소 : 걸어서 아이들과 같이 가면 30~40분 소요됨, 아이들 없이 혼자 가면 20분 소요됨. - 클리닉 : 스라이노이면에 있으며, 트랙터를 타고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며 남편과 같이 감.
5. 위생	- 비누로 손을 씻으며, 아기도 손을 씻음. - 아기가 용변을 보면 비누로 씻겨줌. - 본인은 3번 샤워하며, 아기는 비누를 사용하여 7~8번 샤워함.
6. 가족계획	- IUD를 하고 있음 : 8개월 전부터 꼭건달 보건소에서 함. equity card가 있어 무료임. - 남편의 태도 : 남편은 모르며, 남편 몰래 받았음. - 딸을 한 명 더 가지고 싶은데, 임신하면 일하러 갈 수 없어서 피임을 함.
7. 산전/산후관리	
8. 기타	- 임신 전에도 야맹증 있었음. - equity card가 없으면 출산하는데 $15, IUD 시술에 $25 필요함.

인적사항						
코드	D-12		**이름**	Houerb Koam	**나이**	18
지역 코드/이름	21	꼭건달	**인터뷰 일자**	17.05.25.	**인터뷰어**	베드로, 손은경
임신 유무	x		**영아 성별**	여아	**영아 개월수**	8개월

인터뷰 항목별 정리	
1. 아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지	※ 아기 몸무게가 z-2에 해당하여 저체중임. - 건강하지 않음. 열이 나고 기침하고 토하며 힘들어함. 자주 아픔. - 보건소에 데려가서 치료함.
2. 음식	- 아기 : 모유수유, 죽만 먹음. - 본인은 신 국과 생선을 많이 먹음. - 본인은 돼지고기, 소고기를 좋아하지만 돈이 없어서 못 먹음. - 음식 보관은 못하고 바로 만들어서 먹는 편임. - 필터를 사용하여 물을 먹으며, 본인과 아기를 포함하여 가족이 모두 먹음. - 필터는 다른 가족(할머니)이 준 것으로, 산 것인지 다른 데서 준 것인지 모름.
3. 친구, 가족	- 친척이 있으나 자기 아기를 돌보느라 못 도와줌. - 같이 사는 어머니가 도와줌.
4. 병원 접근성	- 집에서 가까워서 걸어서 가며 혼자 감. - 보건소만 가며 병원은 안 가봄.
5. 위생	- 본인 : 2번 샤워함. - 아기 : 몇 번인지 기억이 안나고 여러 번 샤워하며, 비누 없이 물만 사용함. 며칠마다 비누를 한 번 사용함. - 목욕은 우물 근처에서 함. - 가끔 물로만 손을 씻음. - 화장실을 짓고 있는 중임. - 집 주변에 웅덩이는 없고 연못이 있음. - 아기가 소변을 봤을 때는 바지를 벗겨 놓거나 바로 씻겨줌, 대변을 봤을 때는 바로 씻겨줌.
6. 가족계획	- 피임주사를 맞고 있음. - 3달에 1번, 면보건소에서 주사 한번에 1달러를 지불함.
7. 산전/산후관리	- 아기 백신 카드 있음. - 무슨 백신 주사를 맞는지는 모름. - 임신 중에 비타민, 영양제, 기생충약을 먹음. - 산전관리 : 면보건소에 갔으며, 몇 번 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며 산전관리 날짜가 있음. - 출산 : 면보건소에서 함. - 산후관리 : 아기 백신을 맞으러 갔으며, 약속한 날짜에 갔음. 8개월 동안 적어도 4번. - 본인은 산후관리를 안함.

3. 꼭잔 마을

인적사항					
코드	A-22	**이름**	Souern Sa	**나이**	16
지역 코드/이름	22 꼭잔	**인터뷰 일자**	17.05.25.	**인터뷰어**	르웃, 손은경
임신 유무	×	**영아 성별**	여아	**영아 개월수**	6개월

인터뷰 항목별 정리	
1. 아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지	- 주관적 평가: 안 건강함, 자주 기침하고 토함. 감기 걸림
2. 음식	- 아기: 엄마 젖만 먹음 - 엄마: 돼지고기로 굽거나 볶아서 음식을 함, 국도 만들어 먹음. - 엄마: 돼지고기를 좋아함, 매일 고기 파는 가게에서 사서 먹음. 자전거로 3분 거리. 가끔 안 익은 바나나 먹음, 국 끓여먹는 야채를 먹음. - 한 끼마다 사서 음식을 만듬
3. 친구, 가족	- 주변에 친척, 옆집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음. 매일 도와줌
4. 병원 접근성	- 꼭건달 보건소보다 스라이노이 면 보건소에 자주 감 - 모토를 타고 가끔 남편이나 아버지가 데려다 줌 - 스라이노이 보건소는 대략 20~30분 걸림, 꼭건달 보건소는 15분 걸림 - 왜 스라이노이 보건소 가는지? 간호사가 보건소에 잘 없어서 스라이노이로 감.
5. 위생	- 엄마가 마시는 물은 한약과 같이 끓여 먹음, 나머지 가족은 그냥 먹음. - 필터는 이제 사용 안함, 아기는 아직 물 안 마심. - 아기는 3번 비누 목욕, 하루에 7번 정도 샤워함. 엄마는 2번, 비누 사용하기도 함. - 집 근처에 물을 그냥 매일 버려서 웅덩이가 있음, 모기는 없음 - 화장실 없음, 사람이 없을 때 소변 보고, 대변은 사람이 없는 데에서 땅을 파고 덮어놓음. - 손 씻고 비누로 손 씻음
6. 가족계획	- 출산 2달 후에 한 달간만 약을 먹음 (남편이 농사일로 멀리 가서 2-3달에 한번 옴) - 보건소에 가서 약을 구함, 1달러 주고 살 수 있음
7. 산전/ 산후관리	- 산후관리: 스라이노이 보건소에 아기 백신 맞으러 감, 아기 다리 아플 때 감/ 어머니 위해서 가지 않음. - 백신접종 카드 있음, 어떤 백신인지는 잘 모름. - 산전관리: 스라이노이 보건소에서 피검사, 아기 심장 소리 들었음. 출산도 스라이노이 보건소에서 했음. - 철분제, 기생충약 먹었음, 출산 예정일 다가왔을 때 비타민 먹었음. ※ 어머니 건강한지: 크게 아픈 것 없고, 두통 정도 있음 수유할 때도 어려움 없음

인적사항					
코드	A-23	**이름**	Yon Peach	**나이**	22
지역 코드/이름	22 꼭잔	**인터뷰 일자**	17.05.25.	**인터뷰어**	베드로, 손은경
임신 유무	×	**영아 성별**	남아	**영아 개월수**	6개월

인터뷰 항목별 정리	
1. 아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지	- 자주 아프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음. - 기침, 설사가 있고 열이 나서 아프면 꼭건달 보건소에 데려감
2. 음식	- 아기 : 모유수유를 하고 미음이나 야채죽을 먹음 - 본인 : 생선으로 끓여먹는 국, 여러 가지 야채를 끓여먹는 국을 주로 먹음 굽거나 볶은 음식은 잘 안 먹음. - 본인은 신 맛이 나는 국을 좋아하며, 아기는 좋아하는 음식이 없음. - 본인과 아기만 물을 끓여 먹으며, 다른 가족은 그냥 먹음. - 음식은 주로 만들어서 바로 먹음. - 생선은 잡아서 먹고, 고기는 가끔 사먹으며 잘 먹지 않음.
3. 친구, 가족	- 같이 사는 가족이 도와줌.
4. 병원 접근성	- 꼭건달 보건소까지 모토를 타고 30분 정도 걸림. 천천히 감. - 항상 남편이랑 같이 가며, 남편이 진료를 기다렸다가 같이 돌아옴.
5. 위생	- 아기 : 비누를 사용하여 10번 이상 샤워함. - 본인 : 비누를 사용하여 낮에 1번, 밤에 1번 샤워함. - 집에 웅덩이가 있으며 모기도 있음. - 모기를 없애려는 생각을 하며 웅덩이를 흙으로 덮으나 비가 와서 다시 웅덩이가 생김. - 화장실이 없어 땅을 파서 용변을 보고, 갔다와서 비누로 손을 가끔 씻음. - 아기가 대변, 소변을 보고자 할 때 미리 알고 땅에다가 용변을 보게 하고 닦아줌. - 가끔 그냥 용변을 보고 닦아주기도 함. ※ 화장실(물로 흘려보내는 방식)을 짓고 있는 중임. - 이유: 위생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어서. - 현황: 아래 변기 부분만 완성되어 현재 벽이 없는 상태임. - 자금: 현재까지 27만리엘($70)가 쓰임, 추가로 돈을 지불해야 함.
6. 가족계획	- 꼭건달 보건소에서 주사를 맞고 있음. - 3달에 1번 주사를 맞으며, 지금까지 2번 맞았고, 다음달에 한 번 맞을 예정임.
7. 산전/ 산후관리	- 영아 백신 카드 있음. - 수족에 근육이 없어지는 병을 방지하는 주사, 목에 혹이 생기는 병을 방지하는 주사를 맞은 것으로 알고 있음. - 임신 중에 비타민, 기생충약을 먹음. - 산전관리 : 꼭건달 보건소에서 3번, 스라이노야 보건소에서 4번, 칸타보파병원에서 초음파검사 1번 진행함. - 산후관리 : 꼭건달 보건소에서 아기 백신을 맞으며, 본인은 피임주사를 맞음.

인적사항 (긍정적 사례)						
코드	B-22		**이름**	Saro Sear	**나이**	22
지역 코드/이름	22	꼭잔	**인터뷰 일자**	17.05.25.	**인터뷰어**	요한, 박현진
임신 유무	×		**영아 성별**	여아	**영아 개월수**	2 mo.

인터뷰 항목별 정리	
1. 아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지	※ 아기가 건강한 편으로 판단됨, 평균 이상 몸무게
2. 음식	- 어머니: 돼지고기, 생선을 일주일에 3-4번 먹음. 어쩔 때는 둘 다 먹음 - 야채는 모닝글로리 많이 먹음 - 아기는 완전모유수유 하고 있음, 물은 안 줌.
3. 친구, 가족	- 친정어머니가 옆집에 살고 있음 - 남편, 본인이 아기 돌보고, 어머니는 가끔 방문하는 편임 - 남편은 농사일하고 일찍 나가서 저녁 5~6시에 들어옴
4. 병원 접근성	- 아기 출산한 보건소는 러위어끄랑 꼭건달 보건소, 트랙터 타고 감. - 트랙터는 친정어머니 소유로 공짜로 이용, 집에서 30분 걸림.
5. 위생	- 물 얻는데 30분 걸리는데 힘들지 않은지 질문, 많이 힘들다고 답함 - 저녁에 남편이 아기 보고, 본인이 물 뜨러 다녀옴. - 샤워는 본인은 하루 1번, 비누로 씻음. 아기는 4번 씻고 아기 샴푸가 있음. - 화장실은 없음, 엄마, 아빠는 땅을 파서 용변 보고 덮음. - 손은 가끔 씻음, 비누 사용 - 아기는 천기저귀 쓰고, 대변 누면 땅에 흙 파서 천기저귀를 버림, 소변이면 빨래함.
6. 가족계획	- 피임 주사도 맞고 있음. 본인이 원해서 하고 있음. - Health Equity Card 있으면 무료, 없으면 4000리엘(1USD)로, 본인은 돈 내고 있음. - 더 출산할 계획은 지금은 없음
7. 산전/ 산후관리	- 산전관리: 철분도 먹고 비타민 A, 구충제도 받았음. - 임신 중에는 물 끓여서 마시고 비누로 손 씻음. - 산후관리: 영아 접종카드 있음, 요새는 카드에서 수첩 모양으로 바뀜, 보건소에서 나눠줌. 한 달에 1번 트랙터 타고 접종 받아야 함. - 출산 후 3개월까지는 물 끓여 마심, 보건소에서 가르친 것은 아니고 어머니에게서 배워서 하는 것.
8. 기타	- 잘하고 계신데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캠페이너) 할 수 있을지 질문. - 크게 웃음, (성격이 밝은 편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음. - 본인의 이야기를 해주면 된다고 설명함. - 가능하다고 답변함.

인적사항						
코드	C-23		**이름**	Phop	**나이**	37
지역 코드/이름	22	꼭잔	**인터뷰 일자**	17.05.23.	**인터뷰어**	룻, 강예빈
임신 유무	×		**영아 성별**	남아 2명	**영아 개월수**	6개월 (2명)

인터뷰 항목별 정리	
1. 아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지	- 건강하지 않음, 한 달에 2-3번 정도 감기 증상 있음 - 쌍둥이 중 리살(동생)이 더 아픈 편임 - 3일 전에 둘 다 설사해서 꼭건달 보건소 방문해서 약 받음. 나았다가 며칠 뒤 재발. - 가끔씩 아이들이 죽 안 먹고 잠도 잘 안잠. ※ 총 7명의 아이들이 있음. 16살의 터울이 있음.
2. 음식	- 아기들: 울 때마다 수유를 자주 하는 편임. - 아기들 이유식: 죽, 익은 망고, 잭프룻, 캄보디아 전통과자: 하루에 1번 또는 안먹임. - 엄마: 집 주변 채소, 파파야, 모닝글로리, 바나나꽃 요리함. - 물고기는 남편이 잡아올 때 끓여서 국수로 먹음, 고기는 한달에 한번.
3. 친구, 가족	- 여동생이 농사를 지어서 많이 도와주지 못함. - 남편이 아기 5개월까지 많이 도와줌 (아기 목욕, 요리) - 아이들이 많이 도와주지는 않음. 큰 아이(16살)이 학교에 안갈 때 가끔 도와줌.
4. 병원 접근성	- Health Equity Card (Level 1)이 있어서 보건소를 자주 가는 편임. - 꼭건달 보건소는 트랙터로 30~40분, 가끔 자전거로 1시간 걸려서 감. - 여동생의 남편과 자주 가는 편임. ※ 본인의 남편, 가족은 가난해서 다른 지역에서 일하러 감. (아이들이 아프면 남편이 집에 옴, 안아플 때는 일주일에 한번 옴)
5. 위생	- 목욕은 아기는 하루에 4번, 비누 사용 엄마는 3번 함. - 화장실 있음, 엄마는 화장실 이용 후 비누 사용해 손 씻음. - 아기들은 기저귀 사용, 집에서도 기저귀 사용하고 소/대변 후에 물로 씻어줌. - 물: 아기들은 정수기 물 마심, 울 때 마다 3~4번 마심 - 엄마는 자주 물 마심, 그냥 dug well
6. 가족계획	- 아기 출산 1개월 후에 IUD 시술 받았음. - 장점으로 아이를 더 이상 갖고 싶지 않음. 비용을 아낄 수 있어서 좋음. - 꼭건달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음.
7. 산전/ 산후관리	- 산전관리: 꼭건달 보건소 이용함 - 출산은 시엠립 보파 병원에 가던 길에 쓰레이노이 보건소에서 출산함. - 산후관리는 아기만 도움 받음.
8. 기타 (유산 경험)	- 2회 유산 경험 있는데 어떻게 유산했는지: 농사 많이 해서 하혈하고 유산됨. - 병원 안가고 집에서 약초를 끓여먹었음 (20세 때, 30세 때 1번씩: 2000년, 2010년) - 왜 병원에 안 갔는지?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보건소가 멀어서 - 유산 이후에 바로 일함. - 자궁, 나팔관 혹이 있어서 수술한 적이 있음.

PART 16

[보건] 전국재해구호협회

시행일자	2017년 4월 24일(목) ~ 6월 23일(금) (총 60일)
지역	방글라데시 하비간즈 지역

2017년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지역조사(사업형성조사) 결과보고서

기본정보					
단체명	전국재해구호협회		작성자	양 수 현	
단체현황	현지 지부			☐ 있음	☑ 없음
	NGO 등록			☐ 있음	☑ 없음
	KOICA 협력사업 수행 경험 유무			☐ 있음	☑ 없음
사업 분야	식수개발		코드번호	140 (식수공급 및 위생)	
조사 목적	방글라데시 하비간즈의 식수공급 및 위생 현황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안전한 식수의 지원방안을 위한 조사를 실시함				
대상 국가 및 지역	국 가	방글라데시	지 역	하비간즈 지역	
	방글라데시 동부 실렛주 하비간즈시 테고리아 마을, 바도이 마을 수도 다카에서 200km, 차량으로 7시간 소요				
조사기간	전체 조사 기간	2017년 4월 24일(목) ~ 6월 23일(금) (총 60일)			
	현지 체류기간	2017년 5월 15일(월) ~ 5월 24일(수) (총 10일)			

조사 목적

chapter 01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방글라데시의 대표적인 취약 지역인 하비간즈의 식수 현황을 파악하고 식수공급 실태와 욕구를 조사하여 대상지역 식수개발 지원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함.

- 방글라데시 하비간즈 지역에 대한 현황 파악
- 가장 취약한 마을의 안전한 식수원 유무 파악 및 주민들의 니즈 파악
- 식수원의 수질 현황 조사 및 식수원 오염원인 조사
- 마을 주민들 및 세대의 수인성 질병 발병률 및 위생 현황 조사
- 식수 및 생활용수 문제(수원부족, 오염, 접근성 등)에서 비롯되는 문제들과 해결 방안 모색
- 대상지역의 식수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사업 확장성 파악과 지원계획 수립

조사 결과

chapter 02

01 일정별 조사 활동

기 간		활동 내역 약술
국내	4월 24일	- 사업개요 및 사업내용 공유
	4월 25일 ~	- 문헌조사 및 필요 자료 목록 작성 - 현지 파트너와 일정 조율 - 현지 파트너에 사전 자료 요청
	5월 8일	- 문헌조사 등 사전 조사 자료 공유 - 현지조사 일정, 업무분장 등 회의
	5월 10일	- 설문지 작성 및 검토
	5월 12일	- 출국 준비 확인 - 현지 파트너 준비사항 확인
	6월 2일	- 설문 결과 분석 - 커뮤니티 토론 및 FGD(지역이해관계자 미팅) 회의록 번역
	6월 7일	- 수질검사결과 분석 및 자문 - 커뮤니티 토론 및 FGD(지역이해관계자 미팅) 결과 분석
	6월 12일	- 지역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관련 회의 - 현지 사업 진행 가능 여부 검토 등 회의
현지	5월 15일~16일	- 한국 출발 및 방글라데시 입국 - 현지 파트너(DCH-T)와 현지조사 관련 일정 논의
	5월 17일	- 하비간즈시로 이동 - 도착 및 휴식
	5월 18일	- 하비간즈시 테고리아 마을 이동 - 마을 보건소(Teghoria Community Clinic) 방문 - 현지조사원 미팅 및 설문 진행 관련 오리엔테이션 - 설문조사 진행(가정방문) 및 설문 리뷰 - 마을 식수원 환경 조사
	5월 19일	- 하비간즈시 테고리아 마을 이동 - 설문조사 진행(가정방문) 및 설문 리뷰 - 커뮤니티 토론 진행 : 식수현황 및 인식, 위생인식 등(남/여 각 20명)
	5월 20일	- 하비간즈시 바도이 마을 이동 - 설문조사 진행(가정방문) 및 설문 리뷰 - 커뮤니티 토론 진행 : 식수현황 및 인식, 위생인식 등(남/여 각 20명) - 마을 식수원 환경 조사
	5월 21일	- 하비간즈시 바도이 마을 이동 - 설문조사 진행(가정방문) 및 설문 리뷰 - 마을 식수원 환경 조사
	5월 22일	- 하비간즈시 테고리아 및 바도이 마을 이동 - 미생물학적 수질검사용 원수 채취(관정, 호수, 강물) - FGD : 지역이해관계자 미팅 (10인) - 하비간즈시 식수공급 프로젝트 정수 및 수도시설 건축 현장 방문
	5월 23일	- 코밀라지역 강물 샌드필터 시설 방문 및 견학 - 인근 지역 식수 현황 조사 및 일부 가구 방문 - 다카로 이동 - 최종회의 및 회계 정리 - 방글라데시 출국
	5월 24일	- 한국 귀국

02 조사 항목 및 방법

	조사 항목	조사 방법	조사 기간
1	일반 지역 현황	문헌조사	4/25~5/8
2	마을 주민들의 식수현황 및 WASH 니즈 파악	Household Survey community discussion	5/18~21 5/21~22
3	수질검사 및 WASH 환경 조사	직접 방문 및 채수, 검사 의뢰	5/18~23
4	지역 지역이해관계자 면담	FGD	5/22
5	수인성질병정보	문헌조사(TCC)	~5/8, 5/20

03 조사 결과 분석

1) 대상지역 현황 [01]

방글라데시는 원래 6개 주(division)가 있었으나, 2010년 랑뿌르가 라샤히에서, 2015년 마이멘싱이 다카에서 각각 분리되어 현재 8개의 주와 64개의 시(district(현지어 zila))로 구성되어있다. 하비간즈는 실렛주에 위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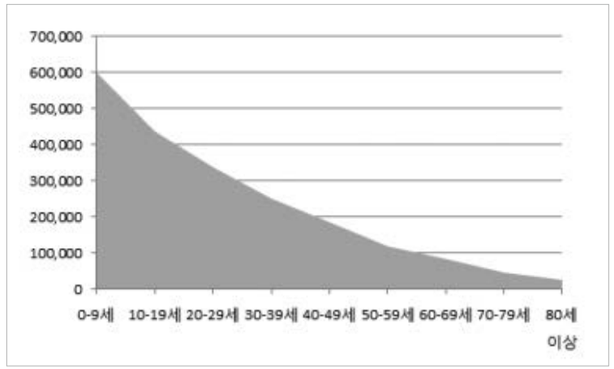
하비간즈는 수도 다카에서 차량으로 약 7시간 정도 떨어진 곳으로 2,637 ㎢의 면적에 약 208만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하비간즈시에는 9개의 읍면(upazila)이 있다.

01 처 : https://www.citypopulation.de/php/bangladesh-admin.php?adm2id=3644

◎ <하비간즈 위치>

◎ <하비간즈 행정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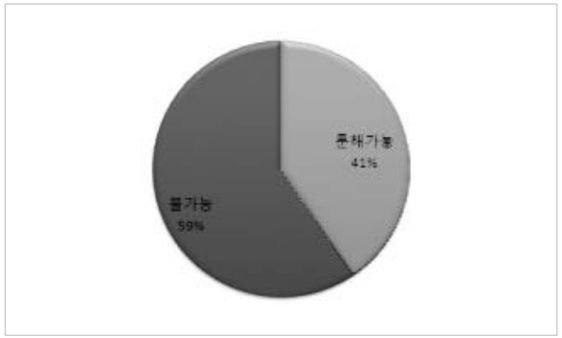
하비간즈의 인구[02]는 208만 9001명에 대한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자는 102만 5591명이며 여자는 106만3410명이다. 연령별 인구분포는 0세에서 9세가 29%로 가장 높으며 10세부터 19세가 21%, 20세에서 29세가 16%를 차지하고 있다.



◎ <연령별 인구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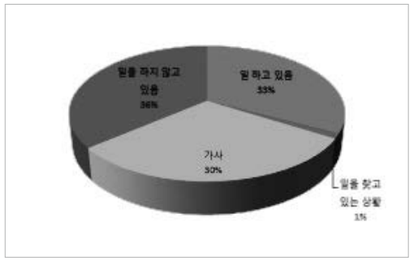
문해가 가능한 인구는 68만 1186명이며 불가능한 인구는 99만 9360명이다.

02 2011년 인구센서스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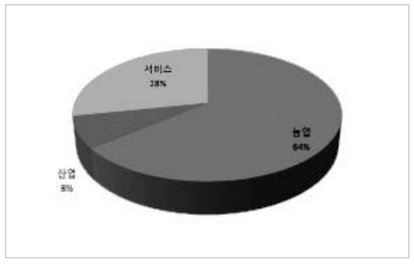


◎ <문해력>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고용상태인 인구는 54만 7770명이며, 일자리를 찾고 있는 인구는 1만 9487명이다. 가사에 종사하는 인구는 50만 8393명이며 일하지 않는 인구는 60만 4896명이다.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54만 7770명에 대한 분야별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농업이 35만 1928명이며, 산업이 4만 1736명이고 서비스가 15만 4106명이다.



◎ <고용현황>



◎ <고용분야>

2) 양적/ 질적 분석 결과

설문지 표본수	100세대
인터뷰 대상	40명(여성 20명, 남성 20명)
대상 일반 정보	설문조사(무작위선정), 인터뷰(여성20명, 남성 20명)
수질분석 표본수	6개(3개 가정용 식수, 2개 연못, 1개 강물)
WASH 정보	하비간즈의 대부분의 세대는 얕은 관정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식수의 수질은 철 함유가 높았고, 대장균 수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생활용수는 대부분 연못을 사용하고 있으나, 화장실의 배수가 연못으로 연결되어 있어 오염물질이 그대로 연못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상황

3) WASH 조사 내용

조사방법	- 조사기간 : 5월18일~22일 - 사전조사 실시 : 설문 항목에 대해 검토하고, 이 지역에 대한 - 인구학적인, 사회경제학적 환경에 대한 사전조사를 거쳤다.
중점 조사내용	- 인구학적인 조사 - 세대 현황 - 보건과 위생 정보 및 인지도 - 사회경제적 정보
조사대상	- 방문설문조사 : 100세대 (테고리아 지역 50세대, 바도이 지역 50세대) - 표적집단심층좌담(FGD) : 4회 개최, 각 지역에서 20명(남녀 각 10명) - 이해관계자 미팅 : 정부기관과 지역 리더들과의 토론

4) 조사결과

테고리아와 바도이의 100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이 세대에 해당하는 인구는 628명이다. 세대 당 인구수를 살펴보면 방글라데시의 평균 인구수는 2016년의 인구조사에 의하면 4.3명이지만 이 두 지역의 평균 가족 수는 6.28명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조사 대상 중에 24%만이 자작농이었고, 33.3%는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 대부분 세대의 월 평균 수입은 3,000~ 5000다카였다.

이 지역의 주요 식수원은 수동 펌프 관정(Hand Pump Tube well)이고, DCH-T가 채취하여 검사한 수질조사에서 5개의 샘플에서 2개가 WHO의 비소 기준을 넘고 있었다. 평균적으로 하나의 관정을 24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70%의 관정이 비소에 오염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관정주변의 환경은 비위생적인 경우가 많았다. 관정과 화장실까지의 거리는 평균 5.57미터로 매우 가깝게 위치하고 있었고 집 밖에 위치한 관정의 경우 대부분 쓰레기가 쌓여 있거나 썩은 물과 진흙이 섞여 있어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다.

조사에 의하면 82%의 사람들이 식수에 대해 안전하고 맛은 보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철 성분이 많은 물의 색깔과 냄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으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수질 검사에서 나온 비소나 대장균 함유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56%의 주민들이 구덩이 화장실(Pit toilet)을 사용하고 있었고, 16%는 개방된 장소를 화장실로 이용하고 있었다. 화장실은 보통 연못 옆에 위치하고 있었고 화장실에서 나온 오염물이 그대로 연못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이 연못은 주민들의 생활용수(식기세척, 목욕, 세탁 등)로 사용되고 있었다. 주민들은 식사 전과 화장실을 다녀온 후 손을 씻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비율은 높지 않았다.

주민들은 대부분 별도의 하수도 시설 및 가축우리가 없어 가축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특히 어린이들이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다.

구 분	기 준		테고리아		바도이		Khowai River
	WHO (2004)	Bangladesh (ECR 訥)	Tube-well	Pond	Tube-well	Pond	
분원성 대장균 (FC,CFU/100ml)	0	0	44	80	18	0	*TNTC
철 (Fe, mg/l)	0.3	0.3-1.0	3.4	-	4	-	-
비소(As, mg/l)	0.01	0.05	0.028	-	0.009	-	-

◎ <수질검사 결과>

구분	PH	Arsenic	Total coliform	Fecal coliform	Turbidity	Conductivity
WHO 가이드라인	6.50~8.50	0.01	0	0	5	0-850
방글라데시 허용수치	6.50~8.50	0.05	10	0	5	0-850
테고리아 (관정)	6.98	0.03	18	11	<5	266
바도이 (관정)	7.01	0.03	14	11	<5	266
테고리아(연못)	7.13		35	28	<5	256
바도이(연못)	7.05		35	22	<5	249
강물	7.43	11	8	<5	244	

◎ (1차) 비소 및 박테리아 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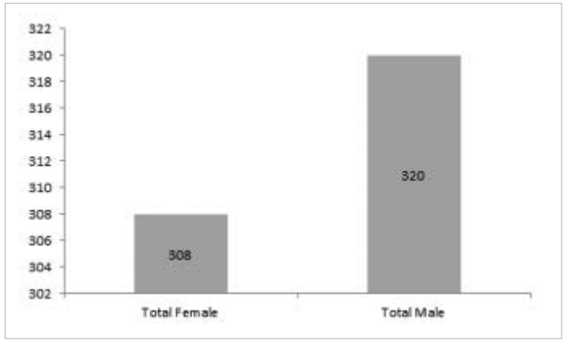
구분	IRON	Arsenic	Total coliform	Fecal coliform	Turbidity	Conductivity
WHO 가이드라인	0.3	0.01	0	0	5	0-850
방글라데시 허용수치	0.3~1.0	0.05	10	0	5	0-850
테고리아 (관정)	3.4	0.028		44		
바도이 (관정)	4	0.009		18		
테고리아 (연못)				80		
강물				TNTC[03]		

◎ (2차) 추가조사 : 철 함유 및 박테리아 추가검사

①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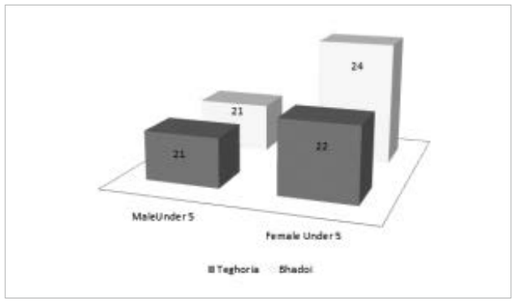
100세대의 가족 수는 628명이다. 그중 308명은 여성이고 320명은 남성이다.

03 Too numerous to count



◎ <조사지역의 성비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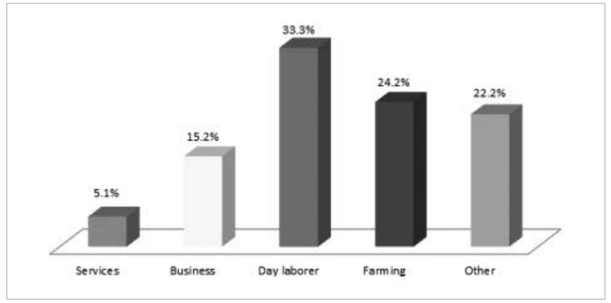
5세 이하의 어린이의 성별구조는 남자는 42명이고 여자는 46명이다. 전체 인구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남자아이는 13.2%이며 여자아이는 14.93%이다. 방글라데시의 평균 세대원은 2016년 통계에 의하면 4.3명이다. 그러나 이 지역의 평균 세대원은 6.28명으로 나타났다.



◎ <5세 이하 어린이들의 성별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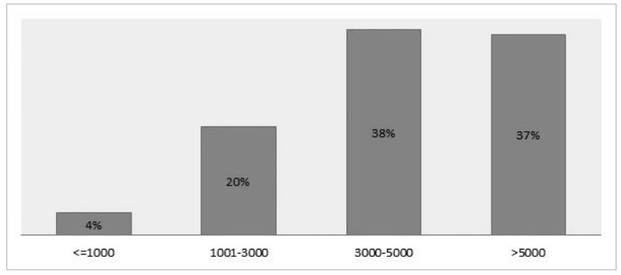
조사대상의 92.4%는 자기 소유의 집에 살고 있다. 주택형태를 살펴보면 68%는 양철집에서 살고 있었고, 15%는 조적조, 10%는 흙집이었고, 나머지 7%는 초가에서 살고 있었다.

세대주의 직업을 살펴보면 세대주의 33.3%는 일용직 소작농으로 일하고 있고, 24.2%는 자작농에 종사하고 있고 나머지는 공무원, 상업, 그리고 석공 등으로 일하고 있다.



◎ <세대주 직업 분포>

월 평균 소득액 분포를 보면 3,000~5,000다카(35.5~62.5 달러)가 38%로 가장 높았고 5,000다카이상이 23%, 1,000~3,000다카가 20%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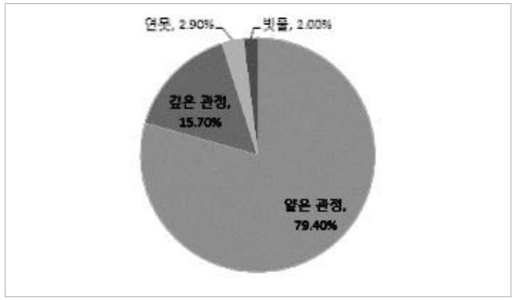


◎ <월 평균 수입>

② 식수 및 보건위생 환경

대부분의 식수원은 얕은 지하수에서 퍼 올리는 관정을 사용하고 있었다. 100명중 24명의 사람들만이 특정한 관정을 사용하고 있었다. 식수원과 화장실과의 거리는 적어도 15미터 이상을 권장하고 있지만 이 지역의 관정과 화장실까지의 평균 거리는 5.57미터였다.

얕은 관정을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세대는 81세대(79.4%)이고, 깊은 관정은 16세대(15.7%) 이며, 연못이 3세대(2,90%), 빗물이 2세대(2%)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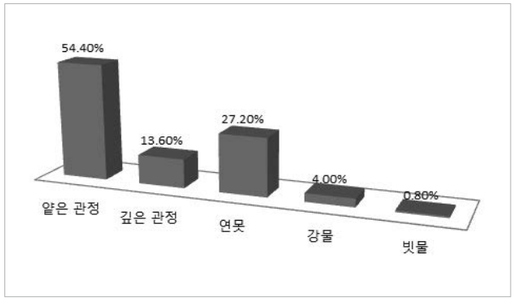


◎ <식수원>

관정 사용용도를 살펴보면 식수로 사용하는 세대는 79.4%이며, 조리에 사용하는 세대는 54.4%이다. 목욕 등에 사용하는 비율은 31.4%이고, 기타 가정에 필요한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비율은 22.2%이다. 농업에 사용하는 비율은 2.8%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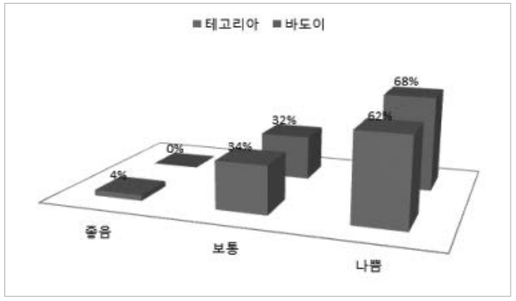
◎ <관정 사용용도>

조리에 필요한 물의 조달현황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조리에 사용하는 물을 얕은 관정에서 얻고 있었다. 54.4%의 응답자가 얕은 관정이었고, 13.6%는 깊은 관정에서 사용하고 있었고, 연못물을 사용하는 응답비율도 27.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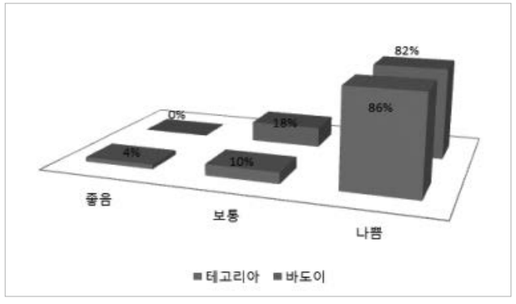
◎ <조리용 물을 얻는 장소>

식수로 사용하는 물의 맛과 색 등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2%가 식수의 맛은 보통이라고 대답했으나 대부분은 냄새와 색깔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FGD에서 주민들은 식수의 철 성분의 수준에 대해 강한 걱정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을 담은 그릇의 색이 변색되고 때로는 철 때문에 물에서 쓴맛이 나거나 금속 맛이 난다고 대답했다.



◎ <식수 맛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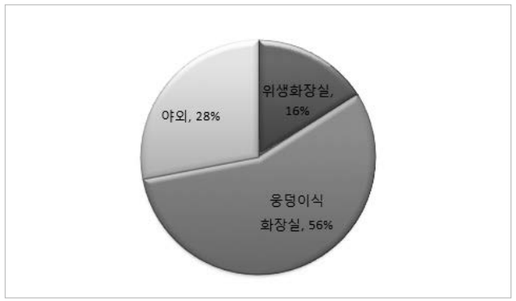
철 성분이 함유된 경우 보통 리터당 0.3 mg이하인 경우에는 특별히 다른 맛이 나지는 않는다. 철 함유 0.3mg 이상인 경우 세탁이나 위생품에 얼룩이 생길 수도 있다. 주민들은 식수로 사용하는 물의 색깔보다는 색에 대한 거부감이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맛에 대해서는 62%(테고리아)와 68%(바도이)가 나쁘다고 평가하였지만, 색에 대해서는 86%(테고리아)와 82%(바도이)가 나쁘다고 응답하였다.



◎ <식수의 색에 대한 평가>

수인성 질병에 관한 경험에 대한 조사에서 지난 6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한명 이상의 가족이 설사나 설사병에 걸린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설사병이 전염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은 낮으며, ORS (경구재수화물)는 사용방법을 아는 세대도 42%에 불과했다.

세대의 화장실의 유형에 대한 조사에서 56%에 해당하는 세대가 웅덩이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28%는 야외에서 해결한다고 응답하고 있는데, 아이들이나 논과 밭에서 일을 하는 남자들의 경우 대부분 화장실을 사용하기 보다는 개방된 장소나 호수 근처에서 해결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배설물들이 주민들이 조리용 물로 사용하는 호수 근처로 흘러들어가곤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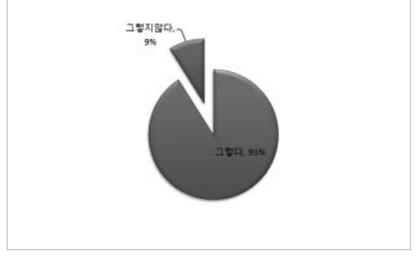


◎ <화장실 유형>

③ 손씻기 등 보건위생에 대한 인지도 및 실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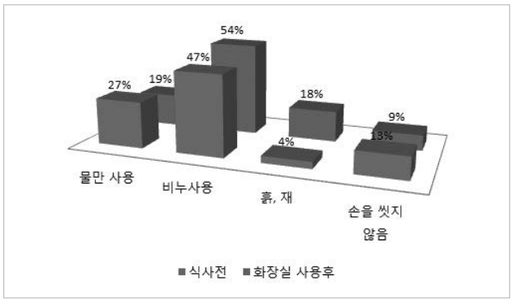
FGD에서 손 씻기에 대한 인지도와 행동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모든 참여자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그리고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 손 씻기가 얼마나 중요한 지는 인지하고 있었다. 식사전 손씻기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85%이며, 용변 후에 손씻기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91%였다.

◎ <식사 전 손 씻기의 중요성>



◎ <용변 후 손 씻기의 중요성>

그러나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손 씻기를 실천하는 비율은 낮았다.
실제로 식사전에 비누를 사용하여 손을 씻는 비율은 47%이며 화장실 사용후 비누를 사용하여 손을 씻는 비율은 54%였다. 물만 사용하여 식사전에 손을 씻는 비율은 27%, 화장실 사용후 물만 사용하여 손을 씻는 비율은 19%였다. 반면 손을 씻지 않는다는 비율도 식사전 13%, 화장실 사용후는 9%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실제 손 씻기를 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응답>

특히 야외활동이 많은 남자들의 경우 논밭이나 야외에서 일할 때 화장실이나 손을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손을 씻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04 변화의 영역

1) 방글라데시의 식수 공급 및 보건위생

2015년에 전 세계 인구의 91퍼센트에 해당하는 66억 명이 개선된 식수원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는 2000년의 82%에 비하면 매우 진전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6억 6천3백만의 사람들은 안전하지 않은 물을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2015년에 전 세계에서 49억 명이 위생적인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나머지 24억의 인구들은 화장실이 없거나 비위생적인 화장실 시설을 사용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식수문제는 지난 20세기의 가장 열악한 환경재앙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전국 64개 지역 중 62개 지역의 지하수가 비소로 오염되어 있으며[04] 이로 인해 총 인구의 23%인 약 3천660만명이 10㎍/L을 초과하는 비소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소 오염지역은 주로 남부 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27.2%가 42.1㎍/L을 초과하였으며, 54%의 지역이 10㎍/L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05]

2) 비소오염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비소의 독성은 크게 만성 독성과 급성 독성으로 나뉠 수 있다. 비소의 만성 독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은 소화불량, 구토, 어지러움, 혈뇨, 쇼크, 경련, 코마, 사망 등이 있으며, 만성 독성으로는 피부암, 폐암, 방광암 및 신장암이 있다. 비소가 몸으로 유입되는 경우 머리카락, 손톱, 손 및 발 등 몸의 말단부로 이동하여 높은 농도로 농축이 되며, 따라서 주로 손과 발에서 피부암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06]

만성적인 비소 노출의 특징으로 대부분 피부질환이 거론되지만 개인들에게 가장 큰 위험은 피부 손상이 아니라 다른 질병에 대한 위험이다. 비소로 인한 가장 많은 사망원인은 암(폐, 간, 신장, 방광, 피부)과 심혈관질환 그리고 폐질환이다. 이러한 질병들은 피부 손상보다 오랜 잠복기를 가지고 있어서 환자들이 오랫동안 그 증상들을 인지하기 어렵다. 또

04 www.carebangladesh.org

05 D.Chakraborti, M.M.Rahman, B.Das, M.Murrill, S. Dey, S.C.Mukherjee, R.K.Dhar, B.K.Biswas, U.K.Chowdhury, S.Roy, S.Sharif, M.Selim, M.Rahman, Q.Quamruzzaman, Status of groundwater arsenic contamination in Bangladesh: A 14-year study report, water research 44(2010) pp.5789-5802,
조을생외(2013), 개도국의 안전한 음용수 확보를 위한 적정기술 이전 및 보급확대(Ⅱ) - 막증류 정수처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재인용 (p.16)

06 조을생외(2013), 개도국의 안전한 음용수 확보를 위한 적정기술 이전 및 보급확대(Ⅱ) - 막증류 정수처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재인용 (p.14)

한 만성적인 비소 노출은 호흡기 질환과도 연결된다. 결핵이나 기관지 확장과 같은 증상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비율을 높인다. 비소오염은 또한 유아 사망비율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연구에서 비소에 오염된 산모들의 자연유산, 사산율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가. 주목 분야

2000년부터 2006년까지의 조사한 방글라데시의 관정에 대한 전국조사에서 전 인구의 14%에 해당하는 2천만 명에게 물을 지급하는 20%의 관정의 비소수치가 50㎍/L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 실시된 식수조사에 관련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 조사는 가정에 설치된 식수시설에 대한 샘플을 조사하였는데 약 12.4%가 방글라데시의 기준인 50㎍/L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약 2천만 명의 인구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The ministry's directorate General of Health Services(DGHS) 는 2012년에 방글라데시의 '비소 환자(arsenic patients)'를 6만 591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다.[07] 방글라데시 정부는 '비소 환자'를 일련의 피부과적인 증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장기적인 노출은 피부 손상 이상의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와같은 비소로 인한 심각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조사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해외에서의 연구에서 다양한 비소 노출에 관련한 경험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방글라데시는 식수 기준을 50㎍/L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10㎍/L에서 50㎍/L 사이의 비소에 노출된 사람들의 사망과 질병에 대한 증거가 증가하고 있다. Flanagan 등의 연구에 의하면 전체 비소와 관련된 사망자 중에서 10㎍/L과 50㎍/L에 노출된 사람들의 비율은 45~65%라고 밝히고 있다.[08]

07 Ministry of Health and Human Welfare, Government of Bangladesh, Health Bulletin 2014 (Dhaka: Government of Bangladesh,2014), p. 83. Human Rights Watch(2016), Nepotism and Neglect - The Failing Response to Arsenic in the Drinking Water of Bangladesh's Rural Poor p33에서 재인용

08 Sara Flanagan, Richard Johnston, and Yan Zheng, "Arsenic in tube well water in Bangladesh: health and economic impacts and implications for arsenic mitigation," p. 841., Human Rights Watch(2016), Nepotism and Neglect - The Failing Response to Arsenic in the Drinking Water of Bangladesh's Rural Poor p35에서 재인용

또한 몇 개의 학술적인 연구에서, 비소로 인한 사망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한 연구에서 방글라데시의 농촌 지역 성인들의 사망률에 대한 고호트 연구에서 10㎍/L을 넘은 비소에 노출된 사람들이 11만 5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구는 10년 동안 1만 1000명에 대한 사망률을 조사한 결과 21%가 10㎍/L을 넘는 비소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 다른 연구는, 방글라데시에서 매년 약 4만 3천명이 비소와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저자는 2000년부터 2030년까지 태어난 9천만 명의 아이들 중 100만 명에서 500만 명의 아이들이 비소 노출에 의해 사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09]

나. 현지의 수요 및 상황

WHO는 방글라데시의 97%의 인구가 물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고 있고 40%만이 적절한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경우 안전한 물과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농촌지역의 식수원은 얕은 지하수를 포함하여 다양하다. 농촌지역의 대부분의 주민들은 지하수를 얕은 관정을 이용하여 식수로 사용한다. 또한 생활용수는 작은 연못이나 강물을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방글라데시에서 한 개의 관정에 평균 1만5100명의 인구가 사용하고 있으며, 인구의 23%가 WHO 수질 기준인 10㎍/L을 넘는 비소오염이 된 물을 마시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방글라데시의 식수와 보건위생문제에서 중요한 이슈는 방글라데시의 식수에서의 세균 병원체, 그리고 염분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이 간과되고 있다는 것이다.

관정에서 사용하는 식수의 수질검사 결과 표본의 대부분은 박테리아에 오염된 물이었다. 대상지역인 하비간즈의 경우 주민들은 자신들이 매일 마시는 식수가 철분 함유가 많아 물의 색깔이나 맛에 대해서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으나 박테리아 오염에 대한 인지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박테리아는 비소처럼 치명적인 위험성을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만성적인 수인성 질병을 야기한다. 이는 식수원인 지하수의 수질과도 관련이 있지만, 관정 주변이 우기에는 쓰레기가 쌓이고, 썩은 물이 고이는 곳도 많은 등, 주변 환경 문제에도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현지에서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6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한명 이상의 가족이 설사와 같은 수인성 질병에 걸린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설사병이 전염될 수 있다는 인식 정도는 낮았으며 비록 ORS (Oral Re-hydrate Salt)는 항상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42%만이 응급 시에 어떻게 ORS 처리를 하는지를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위생환경에 대한 이슈도 중요하다. 대상 지역의 대부분의 화장실은 웅덩이 형태로만 존재하고 있었고, 관정과의 거리가 10미터정도로 근접한 거리에 위치해 있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염물은 그대로 인접한 연못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데, 그 연못물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식기를 씻거나, 목욕, 빨래를 하는 생활용수로 사용되고 있었다.

방문 세대의 대부분은 별도의 하수도 시설이나 가축우리가 없고 마을 주민들은 집안에 가축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위생환경이 좋지 않았으며 또한 주민들의 설문조사 결과 손 씻기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손 씻기를 하는 비율은 인지 현황에 비해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건 위생에 대한 인지의 개선과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보건위생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 사업대상 분야(Target Area)의 지표 및 기초선

Goal	Activity	Indicator
하비간즈 지역 주민들의 식수 및 보건위생 환경의 개선	하비간즈 지역에 식수정화시설 설치	수질 개선 정도
	화장실 개선	관정과 화장실의 거리를 가이드라인으로 개선
	보건위생교육 실시	손 씻기를 비롯한 보건위생에 대한 인식수준 실천의 정도

09 Human Rights Watch(2016), Nepotism and Neglect - The Failing Response to Arsenic in the Drinking Water of Bangladesh's Rural Poor p43

라. 단체의 특성과의 연계

희망브리지는 지금까지 방글라데시, 미얀마, 필리핀 등지에서 식수 및 보건위생 개선 사업을 진행해 온 경험을 가지고 있다. 특히 우물 등 자체 식수원이 전혀 없는 필리핀 다쿠섬, 지비팅길섬, 팡아난섬, 힐루퉁안섬 5개 장소에 각각 18톤 규모의 빗물식수시설을 설치하고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 주민 운영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자체 식수원이 매우 부족하고 빈곤층이 거주하고 있는 미얀마 양곤 달라 지역의 학교학생들을 직접 수혜대상으로 15톤 규모의 빗물식수시설을 설치하고, 현지 협력 NGO단체와 WASH 담당자에게 기술전수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지역 주민 및 학교 관계자, 학부모 위원회 등의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유지보수 운영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대상 지역인 방글라데시에서는 보건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보건소 개축과 지역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하비간즈 지역은 2014년도부터 커뮤니티 보건소를 건립, 지역 취약계층에 의료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희망브리지는 그동안의 이러한 사업경험을 통해 현지의 커뮤니티와의 깊은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현지 파트너 단체인 DCH Trust (Dhaka Community Hospital Trust)는 심장수술을 제외한 모든 외과적 수술이 가능한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내 최대 의료보건 전문 NGO로서 정부와 해외 INGO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방글라데시의 식수 및 보건사업 수행경험이 많은 전문기관이다. 특히 장기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얻은 촘촘한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는데, 특히 지방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속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안정적인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다.

05 자료 출처

- Ahmed et al(2010), Situation Analysis of Arsenic Mitigation 2009, Local Government Division, Government of Bangladesh, Department of Public Health Engineering (DPHE), JICA Bangladesh
- C G Nicholas Mascie et al (2009), Health, Hygiene and Nutrition Approaches and Systems: a thematic study, Health Hygiene and Nutrition CARE, Bangladesh
- Human Rights Watch(2016), Nepotism and Neglect – The Failing Response to Arsenic in the Drinking Water of Bangladesh's Rural Poor
- Mohammad Mahmudur Rahman et al(2002), Effectiveness and Reliability of Arsenic Field Testing Kits: Are the Million Dollar Screening Projects Effective or Not?, American Chemical Society VOL.
- World Health Organization(2011), Guidelines for Drinking-water Quality FOURTH EDITION,
- 다음백과,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b09b0257b#3733595
- https://www.citypopulation.de/php/bangladesh-admin.php?adm2id=3644
- www.carebangladesh.org
- https://www.hrw.org/news/2016/04/06/bangladesh-20-million-drink-arsenic-laced-water
- https://en.wikipedia.org/wiki/Bangladesh
- 손주형(2014), 빗물집수시스템, 한국학술정보
- 손주형(2016), 개발도상국 식수개발, 한국학술정보
- 조을생외(2013), 개도국의 안전한 음용수 확보를 위한 적정기술 이전 및 보급확대(Ⅱ) – 막증류 정수처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06 기타 활동 자료 (사진 등)

01

02

03

04

01 개별 세대 조사 방문 사진
02 커뮤니티 토론 장면
03 관정과 화장실의 거리가 1미터도 되지 않음
04 조사를 마친 후 조사원들과의 기념사진

향후 계획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안전한 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과 보건위생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방글라데시에서 광범위하게 펴져있는 비소로 오염된 지하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안적인 안전한 식수원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대상지역인 경우 비소뿐만 아니라 박테리아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 아이들이 수인성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식수원의 환경과 비위생적인 화장실 환경 및 가축과 함께 생활하는 데서 오는 생활환경의 문제점 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의 개선사업은 지속가능한 물 자원의 공급과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개선된 수질의 식수 확보와 더불어 보건 위생환경의 개선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보건위생환경의 개선은 관정 환경의 개선, 적어도 관정과 1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생적인 화장실의 설치가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보건위생 환경의 개선은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을 실행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주민들, 특히 어린이들과 여성들에 대한 보건교육의 필요성의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연못 모래 필터나 강물 모래 필터와 같은 것들은 지하수의 대안적인 소스로서 매우 좋은 것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들에 대한 적합성과 향후 운영을 어떻게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과 협의가 필요하고 이러한 모든 과정에 적극적인 커뮤니티의 참여가 필요하다. 안전한 물을 확보하기 위한 문제는 정부와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강한 실행과 커뮤니티의 참여에 의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목적	안전한 수질의 식수제공과 위생적인 화장실 설치를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과 복지의 증진	
성과목표	**성과목표**	**측정지표**
	주민들의 식수의 질 개선	식수 수질 기준 개선
	보건위생 환경 개선	**화장실 개선 정도(만족도)**
	보건위생 인식 및 실천 향상	손 씻기 및 ORS 교육 실시
주요사업 내용 요약	**세부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식수정화시설 설치	비소, 박테리아 등으로부터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식수정화시설 설치
	화장실 개선 사업	**식수원(관정)과 안전한 거리에 있는 화장실의 설치 및 환경 개선**
	보건위생교육	손 씻기 및 ORS 등에 대한 보건위생교육의 실시로 보건위생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지원

PART 17

[공공행정] 더프라미스

시행일자	2017년 4월 20일(목) ~ 6월 16일(금) (총 60일)
지역	부탄 팀푸

2017년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지역조사(사업형성조사) 결과보고서

기본정보				
단체명	더프라미스		작성자	강 성 원
단체현황	현지 지부		☑ 있음	☐ 없음
	NGO 등록		☐ 있음	☑ 없음
	KOICA 협력사업 수행 경험 유무		☑ 있음	☐ 없음
사업 분야	공공행정		코드번호	160
조사 목적	청년약물남용 치유와 예방, 장기적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축구 클럽 조직 가능성 조사			
대상 국가 및 지역	국 가	부탄	지 역	팀푸
	* 지역: 수도 팀푸 내, 공항에서 1시간 30분 소요			
조사기간	전체 조사 기간	2017년 4월 20일(목) ~ 6월 16일(금) (총 60일)		
	현지 체류기간	5월 21일 ~ 5월 31일 (총 11일)		

조사 목적

chapter 01

- 부탄은 1인당 국민소득이 $2,380 (2015년 기준)에 불과하지만 2011년 유럽신경제재단(New Economics Foundations, NEF)이 발표한 국가행복조사 자료에서 부탄이 1위를 차지하였다. 부탄은 1972년부터 GNH(국민행복지수)를 만들어 국민의 행복을 국정운영 철학으로 삼고 있어 전세계가 부탄을 주목했다. 국민 100명 중 97명이 행복하다고 할 만큼 부탄 국민의 행복지수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NEF에서 2016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탄의 행복지수는 56위로 떨어졌다. [01]

- 2015년 기준 부탄 노동부에서 발행한 「부탄 고용 통계」 보고서[02]에 따르면 부탄의 실업률이 여성 3.1%, 남성 1.8%인데 반해 청년 실업률은 여성 12.7%, 남성 8.2%로 청년 실업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에 거주하는 청년 실업률은 거의 4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도시의 경우 청년 실업률이 28%, 시골의 경우 4.8%이다. 보고서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자를 찾아 도심으로 이동하지만 농업, 건설 분야 일자리 외에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부탄은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부탄 인구의 48%가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자로 농업이나 건설 분야 일자리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01 The Happiness Planet Index 2016, NEF http://happyplanetindex.org/countries/bhutan
02 Labour Force Survey Report 2015

- 높은 청년실업으로 인해 부탄에서는 마약이나 약물에 중독 사례가 높다. 부탄은 환각제를 사용하거나 소지할 경우 징역 3개월, 판매할 경우 징역 6년~9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음에도 마약·약물 중독사례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유엔 마약 범죄 사무소(UNODC)에 따르면 부탄 남성 60%, 여성 30% 이상이 대마초, 알코올 중독 경험이 있으며 도시에서 이 비율은 더 높게 나타난다고 밝혔다.[03] 부탄 마약 단속국은 지난 몇 년 동안 약 6,300명이 약물중독으로 인해 의료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보고했다.

- 이와 같이 부탄에서의 약물중독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2011년 설립한 현지 단체 CPA Bhutan[04]은 마약 중독 치료 및 사회복귀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CPA Bhutan은 외국문화가 들어오면서 농촌 청년들이 부탄의 전통생활을 지루하게 느껴 새로운 것을 찾아 도시로 이동하고 있으나 도시 인구가 이미 포화상태라 도시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혔다.

-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청년들의 약물남용 문제를 예방하고 장기적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부탄에서 인기 있는 축구 청년클럽을 조직하여 해결책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현지조사를 통해 1) 부탄에서의 청년 실업률과 약물남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부탄 청년들의 2) 축구에 대한 인식과 축구클럽조직에 대한 청년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3) 축구클럽 조직으로 청년 약물남용 문제와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03 http://www.unodc.org/southasia/frontpage/2012/May/bhutan_-safeguarding-youth-from-the-perils-of-drug-use.html

04 http://www.cpabhutan.org/index.php

조사 결과

01 일정별 조사 활동

가. 일정별 조사 활동

기간		활동 내역 약술
국내	4월 26일(수)	▪ **1차 회의, 추후 계획 논의**
	4월 28일(금)	▪ **부탄 정부기관 홈페이지 자료 조사** – 부탄 실업률 자료 조사 – 부탄 청년 실업 관련 자료 조사
	4월 28일	▪ **부탄 문헌 자료 구입** – 부탄 행복의 비밀 : (저자 박진도) / 4월 28일 – 전략사고 저자 가와세 마고토 / 5월 15일 – 부탄 Odyssey world 2 (저자 D, J Singh) / 5월 18일
	5월 4일(목)	· 2차 회의 · 약물 중독 센터 참여자, 풋살 참여자, 청년 실업 청년 설문지 작성 · 현지 활동 계획 준비
	5월 8일(월)	· 약물 중독 센터 조사 준비 회의 및 설문지 수정 (노원구 보건소 윤석민)
	5월 11일(목)	· 부탄 전문가 회의(박진도)
	5월 12일(금)	· KCOC 컨설팅 데이 프로그램 참석(함께 일하는 재단 이명희) · 부탄 전문가 회의(고두환) · 설문지 분석 회의 및 사전 진행
	5월 17일(수)	· 최종 회의 · 설문지 완료

현지	5월 20일(토)	· 인천->방콕 이동
	5월 21일(일)	· 방콕->파로 이동 · Aray Taray Foundation 방문
	5월 22일(월)	· 부탄 올림픽 위원회 방문 · 팀푸 시청 방문 · 부탄 축구 협회 방문 · 청년 조사원 8인 설문 조사 교육
	5월 23일(화)	· Youth Development Fund(이하 YDF) 약물 치료 센터 방문 · 장지지 풋살 그라운드 활동 조사
	5월 24일(수)	· 풋살 프로젝트 기획자 회의
	5월 25일(목)	· 교육부 청소년 스포츠과 방문 · YDF 방문
	5월 26일(금)	· 축구 경기장 관리자 회의
	5월 27일(토)	· 풋살 및 축구 동호회원 설문 조사
	5월 28일(일)	· 청년 실업 그룹 활동 및 설문 조사 · 청년 조사원 8인 평가회의
	5월 29일(월)	· 노동부 방문
	5월 30일(화)	· 전체 평가회의
	5월 31일(수)	· 파로->방콕 이동
	6월 1일(목)	· 방콕->인천 이동

나. 조사팀 구성

이름	소속/직위	역할
강성원 (책임자)	더프라미스 / 국제사업팀	▪ **프로젝트 운영총괄 및 책임** – 지역조사 계획 총괄 및 현지조사 진행 – 정부 및 관계자 인터뷰 – 포커스 그룹 토의 목록 작성 및 조사원과 공유 – 지역조사 계획서 작성 및 현지조사 진행 – 개별 인터뷰 목록 작성 및 진행
주세진 (전문가)	전문가	▪ **부탄 스포츠 관련 지역조사 진행** – 부탄의 스포츠 중 축구 및 풋살에 대한 이해관계자 미팅 – 풋살 클럽 운영에 대한 조사 – 클럽 활동가 인터뷰 진행
린첸 (실무자)	더프라미스 / 부탄 프로젝트 메니저	▪ **프로젝트 운영 실무** – 지역정부 및 관계자 인터뷰 – 포커스 그룹 토의 진행 – 지역조사 계획서 작성 및 현지조사 진행 – 개별 인터뷰 목록 작성 및 진행
조사원	아리야따리야 재단 활동가 8명	▪ **인터뷰, 설문조사, 포커스 그룹 토의 통역 및 조사 진행**

02 조사 항목 및 방법

	조사 항목	조사 방법	조사 기간
1	사전 조사	간접조사 : 도서, 인터넷 검색	4월 28일~5월 5일
2	국내 전문가 회의	직접조사 : 방문, 면담, 인터뷰	5월 8일~12일
3	스포츠 관련 단체 방문	직접조사 : 방문, 면담, 인터뷰	5월 21일~31일
4	약물 중독 센터 방문 및 설문 조사	직접조사 : 방문, 면담, 인터뷰	5월 23일
5	청년 실업 관련 정부, 비정부 단체 방문, 설문 조사	직접조사 : 방문, 면담, 인터뷰	5월 21일~29일
6	풋살 동호회원 설문 조사	직접조사 : 방문, 면담, 인터뷰	5월 27일

03 조사 결과 분석

1) 부탄 국가 및 지역 현황

(1) 부탄 총괄 현황

● 부탄은 입헌군주제를 채택한 왕국이며, 면적은 3만 8394㎢로 우리나라 면적의 약 26배 작음

구분	주요 내용
국명	부탄 왕국(Kingdom of Bhutan)
수도	팀푸(Thimphu/2015/112,622) 남자 5만 3846명 / 여자 5만 8776명
위치	아시아 서남부 히말라야산맥 동부 / 동경 90°30', 북위 27°30'
면적	3만 8394㎢
기후	사계절이 구분되는 온대성 기후
인구	76만 4667명(2015년) 남자 36만 7419명 / 여자 39만 7248명
민족	보태족(50%), 네팔인(35%), 토착부족 및 이주부족(15%)
언어	쫑카어, 네팔어, 영어
정치체계	입헌군주제
GDP	22억 달러
1인당 GDP	2,884달러
대외청책	중도중립
통화단위	눌트럼(BTN) / USD 1$ = 63.75 BTN(2017.5.22.기준환율)

2) 현지 기관 담당자 인터뷰

(1) 스포츠 관련 단체 기관

① 기관명 : 부탄 올림픽 위원회(Bhutan Olympic Committee : 이하 BOC)

- **인터뷰 참여자 :** 올림픽 위원장 1명, 더프라미스 활동가 2명, 아리야따리야 활동가 1명
- **현황**
  - 부탄 엘리트 체육을 담당함
  - 부탄 선수가 참여하는 국내외 스포츠 활동을 관리 감독함
- **인터뷰 내용**
  - 부탄 내 풋살의 열기가 높은 상황임
  - 팀푸 내 2개의 인조잔디 풋살 경기장, 1개의 시멘트 풋살 경기장 있음
  - 풋살 운동장을 건축하기 위한 부지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와 협력이 필요함
  - 제안서 제출 후 다음 논의가 가능할 것임
  - 부지의 경우 시청과 논의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임
  - 스포츠 프로젝트의 경우 타 프로젝트에 비해 선정될 확률이 높음

  - 정부와 MOU 체결 가능하며, 이후 비자 문제 해결 할 수 있음
  - 다른 풋살 경기장과 차별화가 필요함. 예를 들면 음료 판매대, 샤워 시설 등을 설치한다면 더욱 많은 이용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② 기관명 : 부탄 축구 협회(Bhutan Football Federation : 이하 BFF)

- **인터뷰 참여자 :** 부탄 풋살 협회장 1명, 더프라미스 활동가 2명, 아리야따리야 활동가 2명
- **현황**
  - 부탄 풋살과 관련하여 총괄함
  - 부탄에서 풋살은 2005년 시작함
  - 팀푸 내 3개의 풋살 경기장이 있음
- **인터뷰 내용**
  - 풋살 경기장이 수요에 비해 많이 부족한 상황임
  - 풋살 코치 자격증 제도가 있으며, 현재 레벨 1을 이수한 코치가 35명, 레벨 2를 이수한 코치가 14명 있음
  - BFF 교육을 통해 코치 자격을 획득 할 수 있고, 교육 기간은 레벨 1 5일, 레벨 2는 14일이 필요하며 교육은 무료임
  - 신규 풋살 경기장을 건립하게 되면 BOC, BFF() 과정을 거치면서 등록해야함
  - 몇몇의 사립학교에서는 농구장에 풋살 골대를 설치하여, 반 대항 풋살 경기를 진행하고 있다고 함
  - 11명이 한 팀을 이뤄야하는 축구와는 달리, 5명이 한 팀을 이루는 풋살이 인원 확보가 쉬워 선호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
  - 부탄 풋살 협회에서는 2019년 풋살 국가대표팀 조직 -> 2022년 아시아 풋살 대회 참여에 참여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음
  - 현재 풋살 선수가 없어 축구 선수를 선별하여 풋살 국가대표팀을 조직하고자 함
  - 부탄 축구 협회에서도 풋살 경기장을 대여하고 있으며, 시간당 1,000눌트럼(약 17,000원)임. 대부분 2주 전에 마감이 되고 있으며, 월, 금의 경우 국가대표, 아카데미 팀이 사용하여 대여를 하지 않음

③ 축구 경기장 관리자

- **인터뷰 참여자 :** 경기장 관리자 1명, 더프라미스 활동가 2명, 아리야따리야 활동가 1명

- 현황

- 부탄 축구 협회에서 관리 중인 창리미탕, 장지지 운동장을 총괄함
- 현재 1명의 관리자, 창리미탕 환경 관리자 1명, 장지지 환경 관리자 1명, 총 3명이 부탄 축구 협회에서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일하고 있음

- 인터뷰 내용

- 부탄 내에 인조 잔디 경기장을 건축할 수 있는 기술자가 없음. 인도 기술자와 재료를 수입하여 건축해야 함
- 현재 경기장 예약과 관련하여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어 이용자들이 불만이 많은 상황임
- 밤 12시까지 대여를 하고 있지만 새벽까지 연장 요청을 하고 있음
  동절기인 11~2월의 경우 9시 ~ 24시, 하절기인 3~10월의 경우 5시 ~ 24시 운영하고 있음
- 수익금은 부탄 축구 협회에 모두 귀속됨
- 운동장 관리는 트랙터에 청소 도구를 매달아 하며, 수익금으로 화장실 관리를 하고 있음.
  그러나 관리 비용을 협회에서 지급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 월 수입의 경우 150,000(약 2,600,000원) ~ 200,000(약 3,500,000원) 눌트럼이며, 2개의 축구장, 2개의 풋살장 합계임
- 축구장의 경우 2시간 대여 기준이며, 주중 주간 3,500(약 59,500원) 눌트럼, 야간 4,500(약 76,500원) 눌트럼임.
  주말의 경우 주간 4,500(약 76,500원) 눌트럼, 야간 5,500(약 93,500원) 눌트럼이며, 야간 시간 대에는 조명 사용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함
- 풋살장의 경우 주·야간 관계없이 1,000(약 17,000원) 눌트럼이며, 학생의 경우 50% 할인된 가격으로 대여함

(2) 약물중독 치료 센터

① YDF 약물중독 치료 센터

- 인터뷰 참여자 : 센터 매니저 1명, 더프라미스 활동가 2명, 아리야따리야 활동가 10명

- 현황

- YDF에서 운영하는 약물중독 치료 센터임
- 현재 센터 내 남성 19명, 여성 3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3개월 치료 후 가정으로 복귀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음
- 오전 시간은 상담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오후에는 게임을 비롯한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함
- 게임을 통해서 에너지를 집중시키고, 마약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
  게임은 16:30~18:30까지 진행하며, 특히 야외 스포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남자는 공간이 없어서 받기 어려움. 매달 평균적으로 남성은 4~5명, 여성은 1~2명 정도 센터에 오고 연령은 14~64세까지 있음
- 여성의 경우 낙인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남성보다 크기 때문에 약물을 복용하더라도 입소를 원하지 않음
- 약물남용자 발견 시 병원으로 이송 후 치료를 우선 진행하고, 이후 센터로 이동하게 됨.
  센터에서는 주로 상담을 진행함
- 센터 대상자들이 원하는 풋살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신규 센터 부지 내 풋살 경기장을 건축하여, 프로그램 진행 예정임

(3) 청년 실업 관련 기관

① 노동부

- 인터뷰 참여자 : 노동부 매니저 2명, 더프라미스 활동가 2명, 아리야따리야 활동가 1명

- 현황

- 부탄 내 노동 정책, 프로그램 등을 담당함
- 교육을 위해 부탄 회사, 독일, 스리랑카, 영국, 인도 등과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음

- 인터뷰 내용

- 도시가 지방에 비해 실업률이 높은 상황임
- 도시 내 일자리는 있으나, 건축 등의 고강도 노동은 부탄 국민들이 원하지 않음
- 지방의 경우 정부의 지원으로 농업을 장려하고 있어, 청년들이 부모와 함께 일하고 있음
- 팀푸 내에 풋살 경기장이 필요한 상황이고, 청년들이 창업 형태로 진행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② YDF

- **인터뷰 참여자 :** 매니저 1명, 더프라미스 활동가 2명, 아리야따리야 활동가 2명
- **현황**
  - 1998년 부왕이 청년지원을 위해서 설립 준비를 시작하였고, 1999년 설립함
  - 정부에서 100만 달러를 지원하여 설립함
  - 4대왕의 왕비가 대표로 있음
  - 작은 NGO를 지원 하고 성장하면 독립시키는 형태로 진행함
  - 가난한 가정에 장학금지원 사업을 하고 있음
  - 약물 중독 보호센터를 운영 중에 있음
  - 스포츠 체육관이 있음. 농구, 배드민턴, 명상센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음
  - 약물센터를 정부에 요청하여 건축 중에 있음. 인도정부에서 센터를 지원하였음
  - 4~5명으로 시작하여, 현재 약 70명 직원이 있음
- **인터뷰 내용**
  - 현재 센터 내 풋살장의 경우 시작은 테니스 코트였음. 그러나 한 번 이용하는데 2~4명밖에 사용할 수 없어 더 많은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풋살 경기장으로 용도를 전환함
  - YDF에서는 풋살 경기장 운영을 원하는 사람에게 2년간 대여를 해주고 월 $140 를 받음
  - 풋살 경기장은 국제 규격임
  - 풋살 경기장 운영권에 대해 논의하였고, 6월 중 대표자 회의 때 논의를 하고자 함
  - 풋살 경기장 운영 시 시설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함

③ 교육부 스포츠 청소년과

- **인터뷰 참여자 :** 스포츠 청소년과장 1명, 더프라미스 활동가 2명, 아리야따리야 활동가 1명
- **현황**
  - 청년들의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경쟁은 강화되면서 자살, 알코올, 폭력 등 많은 청년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 스포츠 게임, 체육활동지원을 하고, Youth center 11개 있음(유스들이 모여서 이야기 나누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스카우트 프로그램, 학교와 지역사회 프로그램 진행 / 학생과 지역사회에 상담진행
  - 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고, 이후는 그들이 삶을 개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직업교육을 연결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 역할을 함. 스카우트 프로그램도 그러한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음
  - 경쟁에서 뒤쳐진 청년들에게 기술 교육을 제공하여 지원하는 역할을 함
  - 가치와 책임, 존중을 강조하여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진행함
- **인터뷰 내용**
  - 정부가 어떤 직업을 창출하는지가 중요함
  - 농업과 건축 분야에 직업이 있으나, 부탄 청년들이 기피하고 있음. 기피하는 이유는 힘든 일을하고 싶지 않기 때문임
  - 제안서를 통해 청년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정부가 재정을 지원함
  - 청년들의 사회적 문제가 있으나 프로그램과 공간이 없음
  - 정부의 직업창출은 어려운 상황이며, 청년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 하는 것이 필요하고 스포츠를 통해 청년의 사회적 문제를 줄이고 다양한 교육을 통해 지역 활동가가 될 수 있도록 연계해야 함
  - 스포츠를 통해 사회성, 협동성 등을 배워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약물 중독 청년의 경우 스포츠 활동을 통해 음주, 약물 남용 하는 시간을 줄이고 에너지를 전환할 수 있도록 함

④ 팀푸 시청

- **인터뷰 참여자 :** 시청 관계자 2명, 더프라미스 활동가 2명, 아리야따리야 활동가 2명
- **현황**
  - 땅 배분은 시청에서 관할하고 있음
  - 청년 일자리가 중요한 문제이며, 그로 인한 약물중독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지방에서 도심으로 인구 집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인구가 집중되면서 사회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청년들이 농사를 할 수 있도록 땅을 지원하고 있음
  - 땅을 지원하고 활용하여 소득 증대를 하고, 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함

- **인터뷰 내용**
  - 구호단체에게 땅 지원은 어려움. 하지만 제안서 제출 후 논의를 통해 지원 가능함
  - 프로젝트가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야 함
  - 정확한 목적이 필요하고 명확한 지원 대상 선정이 필요함
  - 프로젝트 목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약물남용 방지 등으로 작성한다면 선정 확률이 높아지고, 부탄 청년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함
  -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아리야따리야 청년이 청년일자리를 위해 풋살 경기장을 유치하고, 자본은 더프라미스에 요청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을 추천함
  - 프로젝트 중심은 아리야따리야 청년단체을 중심으로 시청이나 국가기관에 필요한 부지를 요청하고 더프라미스와 협업하는 형태가 중요함
  - 이익보다는 사회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함
  - 첫 프로젝트가 청년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검증될 시 사업 확장이 가능함
  - 제안서 완료 후 시청에서 협조할 것이며, 이후 부지위원장과 논의를 진행할 것임

⑤ 청년 실업자

- **인터뷰 참여자 :** 청년 실업자 40명, 더프라미스 활동가 2명, 아리야따리야 활동가 10명
- **현황**
  - 현재 약 150여명의 청년 활동가가 활동하고 있음
  - 설문 조사 및 활동을 위해 활동가 10명에게 사전 교육을 진행함

3) 당사자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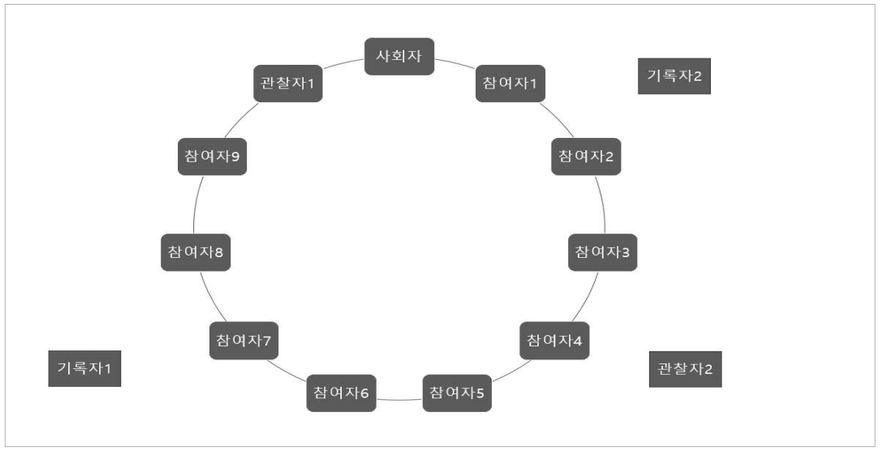
① 약물 치료자

- **인터뷰 내용**
  - 주로 남용되는 약물은 술이며 쉽게 구할 수 있고 축재기간에 특히 많이 마시면서 중독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있음. 약물의 경우 인도에서 쉽게 유입되며, 마리화나는 부탄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어 해결에 어려움이 있음
  -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로 시작 하는 경우가 많음
  - 술과 마리화나 등 쉽게 약물을 구할 수 있어 호기심으로 인해 시작하는 경우가 많음
- FGD 진행
  - 설문 참여자 20명 중 9명을 선정하여 FGD 진행함
  - 선정 방식은 설문지 내용을 분석하여 풋살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참여자를 선정함

  - FGD는 역할을 나눠 진행함
  - 진행자 : 린첸 다와, 기록자 : 쎄뗀 도르지, 도르지 칸투, 관찰자 : 강성원, 주세진
  - 약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친구의 영향, 좋아하는 가수가 복용했기 때문에, 선배들의 영향 등이 있었음
  - 약물 복용 후회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전원 후회한다고 답했음. 가족들과 관계가 악화 되었고, 심지어 폭력 직후까지 행동했으며, 쾌락으로 인해 혼자 힘으로 그만두기 힘들었다고 하였음
  - 치료 센터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 전원 네 라고 답했음. 집에 있었으면 복용을 중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병원 또는 감옥에 갔을 것이라고 대답하였음
  - 좋아하는 축구 클럽과 선수, 그 이유는에 대한 질문은 분위기 전환을 위해 진행함
  - 풋살 경기장 건축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본인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없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 가능한지가 중요하다고 하였고, 접근성도 중요하다고 하였음. 그리고 팀푸 외에 다른 지역에도 생겼으면 하였고, 가능하면 여러 개 지어졌으면 좋겠다고 함.
    장소가 부족하여 농구장, 배구장에서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였음
  - 약물 중독자가 늘어나는 원인에 대해
    ⇨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자유 시간이 많음
    ⇨ 미디어의 영향(영화, 가수 등)
    ⇨ 친구의 영향
    ⇨ 쉽게 구할 수 있어서
    ⇨ 가족문제로 인해 마음이 아파서
    ⇨ 부탄 내에서 규칙이 엄격하지 않음. 화요일은 외부에서 술 판매가 금지되어 있지만 구입이 가능한 상황임
    ⇨ 쾌락을 즐기기 위해
    ⇨ 마리화나만 흡입하려고 하였으나 중독으로 인해 더 이상 자극이 없어 더욱 자극적인 마약이 필요함
  - Dream Mapping 활동을 진행함
  - 약물로 인해 과거 시간들을 반성하고 함께 사는 꿈, 가수를 꿈꾸는 이, 돈을 많이 벌어 가족들을 부양하는 꿈, 대학생들이 약물에 빠지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방 교육을 하고 싶다는 꿈, 대학에 진학 후 공부를 하고 싶다는 꿈, 축구 구단

주가 되고 싶다는 꿈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음

- 소감 나누기를 진행함
  - ⇨ 마음이 많이 편해졌으며,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는데 기회를 제공해 주었음
  - ⇨ 부탄에서는 약물 중독자들을 나쁜 시선으로 봄. 더 이상 마약을 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겼음
  - ⇨ 외국인이 센터 방문 시 우리에게 신경을 써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힘이 됨
  - ⇨ 상담자가 비밀로 두지 말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라는 조언으로 인해 지금은 이야기 함
  - ⇨ 본인이 부탄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느낌이 듬
  - ⇨ 풋살 경기장을 건축을 요청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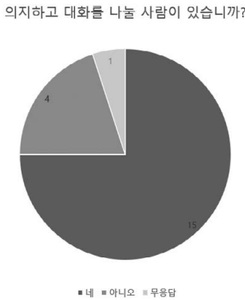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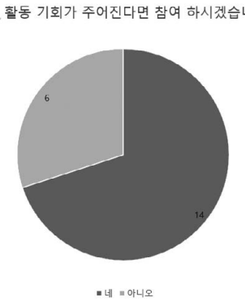
◎ FGD 진행 위치

- 참여자 발언 횟수를 기록함
  - ⇨ 참여자 1(5회), 참여자 2(8회), 참여자 3(6회), 참여자 4(10회), 참여자 5(6회), 참여자 6(5회), 참여자 7(5회), 참여자 8(8회), 참여자 9(5회)

② 약물 치료 참여자 풋살 인식 조사

– 약물 치료 참여자들은 센터 내에서 3개월 간 치료 후 가정으로 돌아간다. 이후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절실한 실정이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의지하고 대화를 나눌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총 20명 중 15명이 네 라고 대답하였고, 대부분 가족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풋살 활동 기회가 주어진다면 응답자의 70%가 참여 의사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이들은 수입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체 프로그램으로 치료 센터와 연계 후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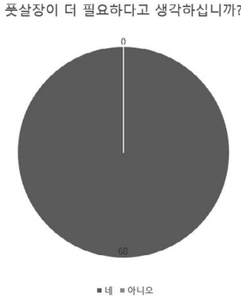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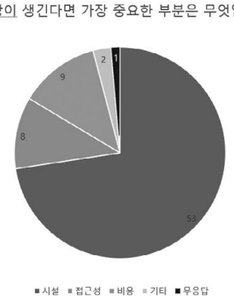


③ 풋살 클럽 활동가

– 풋살 동호회원 인식 조사

- 풋살 동호회원들은 부탄 내 풋살 경기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결과로 모든 응답자가 신규 경기장의 필요성을 공감 하였다. 또한, 현재 시설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풋살 경기장이 생긴다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으로는 시설이라고 대답하였고, 비용,접근성 순으로 조사 결과가 나타났다. 현재 지불하고 있는 시간 당 1,000눌트럼(약 17,000원)은 시설 기반이 갖추어진다면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고 최고 2,500눌트럼(42,500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라고 답하였다.





④ 청년 실업자

- 인터뷰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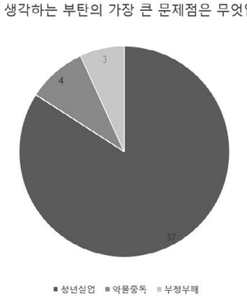
- 그룹 활동으로 문제 나무 그리기를 진행함
- 청년 실업에 대한 원인으로는 기술 부족, 기회 부족, 경험 부족, 부정부패, 원하는 일자리 수 부족, 질 낮은 교육, 창업비용 부족 등의 의견이 있었으며, 파급 효과로는 약물과 알콜 중독, 폭력, 가족 문제, 자살, 행복도 하락 등이 있었음
- 해결책으로는 직업 훈련, 하고자 하는 직업의 기술을 배우고, 정부의 지원, 교육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등이 있었음
- Dream Mapping 활동을 진행함
- 축구 선수, 패션 디자이너, 선생님, 가수, 조각가, 화가, 사업가 등 다양한 꿈이 있었음
- 계절 달력 그리기를 진행함
- 풋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다면 건기와 우기, 고온과 저온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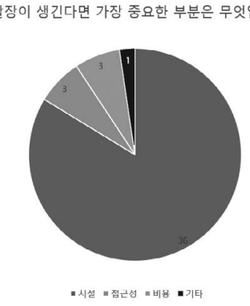
- FGD

- 실업 청년 풋살 인식 조사

- 실업 청년들은 현재 부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청년 실업이라고 답하였고, 이어 약물 중독, 부정부패 순으로 꼽았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현재 도시 내 청년 실업률은 약 28%로 심각한 상황이며,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청년 창업을 하고자 한다. 더프라미스는 청년 창업의 수단으로 풋살 경기장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풋살 경기장 건축 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으로는 시설이라고 대답하였고, 접근성과 비용 순으로 조사 결과가 나타났다.





04 변화의 영역

가. 주목 분야

1) 청년 실업이 높아지고 있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중에 창업지원도 있다.
2) 청년 실업이 높아지면서 약물 남용이 높아지는데 스포츠를 통해 약물재활에 도움이 된다.
3) 풋살에 대한 수요가 아주 높지만 시설 낙후되고 부족하다.
4) 청년 실업팀이 풋살 경기장 창업을 통해 스스로 일자리 창출과 청년 약물남용 해결을 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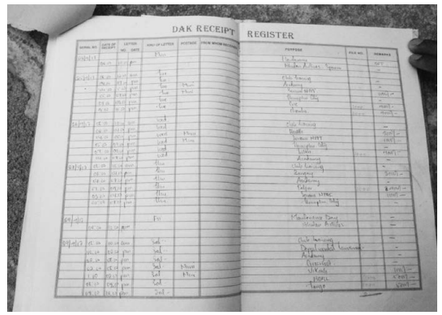
나. 현지의 수요 및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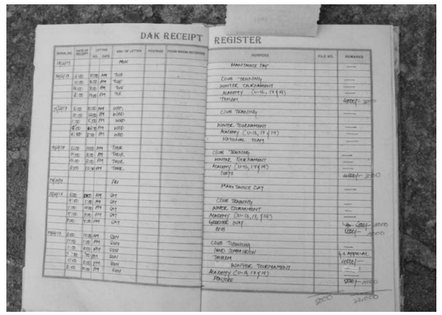
1) 축구 동호회

- 현재 팀푸 내에서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부탄에서 축구와 풋살의 인기는 매우 높은 상황이지만, 풋살 및 축구 경기장 수가 적어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인조 잔디 구장의 경우 국제 규격에 부합하지 않고, 야간 운동 시 조명이 약해 부상 위험이 있다.

  그리고 국제 규격에 부합 하는 한 풋살 경기장은 시멘트 바닥으로 구성되어 있어 매우 위험하다.

현지 조사 당시 풋살 경기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총 68명 중 68명(100%) 모두 네 라고 대답하였다. 덧붙여 안전한 시설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약물 치료 센터

- 시골 지역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 대도시로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대도시에서도 일자리를 얻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며, 그로인해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외부에서 유입되는 대중 매체의 영향으로 인해 약물에 손을 대는 청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부탄 정부에서는 약물 중독 청년들에 대해 염려하고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사회복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스포츠를 장려하고 있고,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한 결과 총 20명 중 14명(70%)이 풋살 활동에 참여 의지를 나타내었다.

3) 청년 실업

- 정부 기관에서 청년 일자리 창업에 대해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도시의 청년 실업률이 28%, 지방이 4.8%로 거의 4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현재 부탄 내에서 일자리가 급속도로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으로 인해 이 문제는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것 이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스스로 주체가 되어 진행하도록 조언하고 있다.

  더프라미스와 연계하고 있는 부탄 청년 그룹이 주체가 되어 진행한다면 정부에서 협조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부탄 축구 협회에서는 땅이 부족하고 생태보호에 대한 남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는 부탄에 큰 규모의 경기장을 짓기보다는 작은 풋살 경기장을 건축하여 보다 나은 시설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스포츠로 청년 약물중독을 치유 및 예방하고 장기적으로 풋살 경기장 운영과 리그 운영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다. 사업대상 분야(Target Area)의 지표 및 기초선

프로젝트 요약	지표	지표 증명수단	가정
▪ **목표** 실업 청년 일자리 창출(SDG8)			
▪ **목적** 1. 실업 청년 그룹 소득 증대 2. 약물 치료자 고용	1. 풋살 운영 청년 그룹 전·후 소득 2. 약물 치료자 고용 여부	풋살 경기장 수익금 고용자 명단	풋살 경기장 유료 이용자 있음 약물 치료자 프로그램 이탈자 없음
▪ **산출물** 1.1 풋살 경기장 지원 및 운영 1.2 풋살 경기장 운영자 역량 강화 1.3 풋살 경기장 이용자 증가 2.1 약물 남용 교육 진행 2.2 스포츠 연계 프로그램 진행	1.1 풋살 경기장 확보 여부 1.2 역량강화 정도 확인 1.3 이용률 증가도 2.1 약물 남용 교육 여부 2.2 스포츠 연계 프로그램 진행 여부	1.1 등록증, 사진 / 현장 실사를 통한 확인 1.2 사전사후 인터뷰 1.3 월별 이용률 2.1 약물 남용 교육 횟수 2.2 스포츠 연계 프로그램 진행 횟수	- 기존 운영자 이탈 없음 - 외부 요인으로 인한 풋살 경기장 파괴 및 손상 없음 - 사업 활동에 대한 저항 없음
▪ **개별 활동** 1.1.1 풋살 경기장 시설 확보 1.1.2 풋살 리그 운영 1.2.1 풋살 경기장 운영자 직원 교육 1.2.2 풋살 경기장 운영자 코치 자격증 획득 1.3.1 풋살 경기장 시설 확보 1.3.2 자체 리그 운영 2.1.1 약물 교육 매뉴얼 개발 2.1.2 강사 섭외 및 참여자 연계 2.2.1 약물남용 경험자 풋살팀 운영	1.1.1 풋살 경기장 수 1.1.2 풋살 리그 운영 횟수 1.2.1 교육 실시 횟수 1.2.2 코치 자격증 획득 수 1.3.1 풋살 경기장 시설 수 1.3.2 리그 운영 횟수 2.1.1 약물 교육 매뉴얼 개발 횟수 2.1.2 강사 섭외 및 참여자 연계 횟수 2.2.1 약물남용 경험자 풋살팀 운영 수		- 풋살 경기장을 방해하는 외부 요소 없음 - 리그 운영을 방해하는 외부 요소 없음 - 자격증 획득 어려움 없음 - 약물 교육 매뉴얼 개발 협력 단체 확보에 어려움 없음 - 풋살팀에 가입하고자 하는 약물 치료자 확보가 수월함

라. 단체의 특성과의 연계

1. 부탄에서의 경험

1) 교육지원사업 :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200여명의 회원들의 협조로 교육지원이 필요한 현장을 추천받아 진행함
2) 긴급구호사업 :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이 지역 내 가난한 가정을 조사 후 데상트로부터 후원을 받은 겨울 재킷 511벌, 운동화 680켤레, 겨울부츠 500켤레를 부탄에 지원함
3) 청년사업공유 : 아리야따리야 재단에서 청년사업(지역 방앗간 사업, 풋살경기장, 데이케어 센터, 수공예 등)을 기획하고 있고 더프라미스와 협력을 모색하고 있음.

〈인력파견〉

- 2016년 12월 부탄 프로젝트 메니저로 린첸다와를 임명 하였고, 현지 파트너 단체인 아리야따리야재단 사무실 공간을 공유하기로 합의

* 사무실 주소 : Arya Taray Foundation, sky building, Babesa, Thimphu, Bhutan

2. 더프라미스 청년 사업의 경험

- 더프라미스는 지역사회 역량을 개발하여 지역사회 주체들이 주인이 되어 변화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역량강화에 중심을 두고 있다. 그 활동의 주체가 역동적인 청년으로 보고 있다. 청년들을 조직하여 Needs 파악하고 그 Needs를 청년이 주체가 되어 풀어갈 수 있도록 협력한다.

1) 동티모르 청년들과 함께 청년배움터 지원

- 동티모르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지역사회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그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공간 마련을 위해 워크숍을 진행했고 워크숍에서 나온 디자인을 가지고 직접 자재도 구입하여 건축을 진행하고 있다. 건축이 완료가 되면 그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기획을 할 것이고 그 활동을 지원해서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변화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2) World와 Human의 it이 되자 (WitH)_더프라미스 청년사업단 WitH

- 국내 국제구호협력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모여 국제구호개발 분야의 여러 강의를 듣고 분야 역량을 함양하여 향후 이 분야의 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5년 네팔 대지진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에 참석한 활동가들로 구성이 되어 1기가 진행되었고 지금은 3기가 진행될 예정이다. 향후 준실무자 코스를 만들어 직접 부탄 청년들과 연대를 하여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자 한다.

05 자료 출처

자료 내용	수집 방법	자료 출처
부탄 인구 조사	인터넷 검색	부탄 노동부
부탄 실업률 조사	노동부 방문	2015년 노동부 통계 책자
부탄 청년실업 현황	노동부 방문	2015년 노동부 통계 책자
부탄 약물 중독 현황	약물 치료 센터 방문	약물 치료 센터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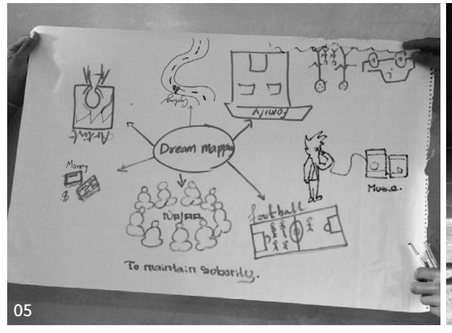
06 기타 활동 자료 (사진 등)

01

02

03

04



05

06

01 부탄 올림픽 위원회 미팅
02 팀푸 시청 미팅
03 부탄 축구 협회 미팅
04 설문 조사 사전 교육
05 약물 치료 센터 활동
06 풋살 경기장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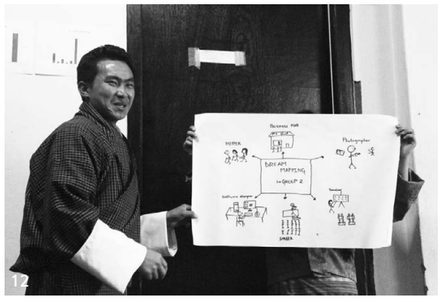
07

08

09

10

11



12

13

14

07 스포츠 청소년과 미팅
08 Youth Development Fund 미팅
09 경기장 관리자 미팅
10 풋살 동호회원 설문 조사
11 실업 청년 활동
12 실업 청년 활동2
13 설문 조사 활동가 평가회의
14 노동부 미팅

향후 계획

chapter 03

1. 더프라미스 : 이번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 제안서를 작성 할 계획임. 제안서 작성 후 프로젝트에 후원자 발굴에 주력하고자 함

2. 실업 청년 그룹 : 기존의 사업 계획서를 수정할 계획임. 또한, YDF 풋살 경기장 장기 대여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 재보수 견적을 확인 후 더프라미스와 논의할 예정임

PART 18

[공공행정] 지구촌나눔운동

시행일자	2017년 4월 25일(화) ~ 6월 24일(토) (총 60일)
지역	케냐 나이로비 / 우아신 기슈 카운티, 엘도렛시

2017년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지역조사(사업형성조사) 결과보고서

기본정보				
단체명	(사)지구촌나눔운동		**작성자**	한 지 혜
단체현황	현지 지부		☑ 있음	☐ 없음
	NGO 등록		☑ 있음	☐ 없음
	KOICA 협력사업 수행 경험 유무		☑ 있음	☐ 없음
사업 분야	공공행정 (기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코드번호**	160**
조사 목적	본 단체가 구상하고 있는 장애인지원사업의 현지 수요 및 사업 타당성 확인			
대상 국가 및 지역	**국 가**	케냐	**지 역**	나이로비 / 우아신 기슈 카운티, 엘도렛시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북서쪽으로 약 263km에 위치, 차량으로 약 6시간 소요			
조사기간	**전체 조사 기간**	2017년 4월 25일(화) ~ 6월 24일(토) (총 60일)		
	현지 체류기간	2017년 5월 30일(화) ~ 6월 10일(토) (총 12일)		

조사 목적

chapter 01

1. 대상 지역 장애인들의 사회 및 경제활동, 생활환경 등 기본 권리 보유 수준 파악

- 케냐의 총인구는 약 4,500만 명으로 케냐 정부조사에 따르면 인구의 약 4.6%인 약 200만 명이 장애 인구로 발표되었으나 이 수치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추정한 장애 비율 15.2%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로 판명됨. 또한 케냐 정부는 국가 단위의 장애 현황 데이터만 있을 뿐 카운티(county) 단위의 장애 현황 데이터가 부재하여 장애인들의 사회 및 경제활동, 생활환경 등에 대해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 케냐 정부는 지난 2003년 장애인법 제정과 시행, 2008년 UN장애인권리협약 비준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복지 및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산 및 인적자원 부족으로 정부의 관심과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의 수는 여전히 많음

- 케냐의 장애 인구 중 66%는 지방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방 거주 장애인들은 교육 수준과 고용률이 케냐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본 조사의 사업예정지인 우아신 기슈(Uasin Gishu)카운티의 엘도렛(Eldoret)은 수도 나이로비에서 서쪽으로 약 6시간 거리에 위치함. 우아신 기슈 카운티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장애 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내 장애인식개선 증진을 발전목표로 설정하였으나 그 결과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장애 현황에 대한 기초조사가 부재하며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처우

에 대한 조사내용과 관련 자료가 태부족한 실정임[01]

- 본 조사는 지구촌나눔운동의 장애인지원사업을 위한 기초조사로써 사업예정지역인 엘도렛(Eldoret) 거주 장애인의 사회 및 경제활동, 생활환경과 더불어 지역 내 장애활동기관 네트워크 파악을 목표로 함

2. 지구촌나눔운동이 구상하고 있는 장애인지원사업에 대한 지역 수요와 사업 타당성 확인

- 현재 케냐 장애인에 관련된 통계자료는 케냐 통계청과 National Coordinating Agency for Population and Development에서 2008년도에 발간한 것이 전부이며 조사 대상 지역인 우아신 기슈의 장애 현황 조사결과는 전혀 없음

- 현재 우아신 기슈 내에서 활동 중인 국내 NGO로는 굿피플이 있으며 국제 NGO로는 SOS International, World Vision 등의 단체가 아동지원사업을 추진 중임. 지구촌나눔운동은 지난 2016년 베트남 중부지역에서 진행한 저소득장애인의 사회참여 지원사업과 다년간 수행한 지역개발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엘도렛(Eldoret) 지역 중심으로 장애 포괄적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진행하고자 함

- 지구촌나눔운동은 우아신 기슈 지방정부와 장애 관련 기관, 장애인 대상의 초점집단면담을 통해 장애지원사업 수요에 대한 정확하고 세밀한 파악을 통해 동지역의 장애 현황을 파악하고 상황에 부합하는 사업을 기획하고자 함

01 본 지역조사 제안서 작성을 위해 우아신 기슈 주 정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장애관련 데이터를 검색한 결과 장애현황에 데이터가 부재하였으며 Uasin Gishu Integrated Development Plan 2013-2018 문서 내 발전목표로 장애인식개선, 장애인 대상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용만을 확인할 수 있었음

조사 결과

chapter 02

01 일정별 조사 활동

기 간		활동 내역 약술
국내	4월 25일 ~ 28일	· 조사항목구성: 지역조사제안서 기반 세부조사항목 확정 · 현지조사일정 수립: 현지방문 일정 조율 및 항공권 구입 · 인권기반개발협력 실무적용과정 참석
	5월 1일 ~ 19일	· 문헌자료 수집 및 분석 ·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컨설팅 참석: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 센터 윤삼호 소장 · 현지조사계획 수립: 기관별, 대상자별 면담지 및 설문지 초안 작성 · 현지조사 관련 사전 준비: 방문기관 선정 및 연락 · 현지조사 인력 확보
	5월 22일 ~ 26일	· 현지조사 항목 구성: 국내 문헌조사를 통해 얻지 못한 조사항목 분류 및 이를 중심으로 현지조사 항목 재구성, 면담지 및 설문지 보완 · 면담지 및 설문지 초안 현지 전달 및 피드백 요청 및 보완 · 현지조사 관련 사전 준비: 방문기관 선정 및 연락 f/u · 현지조사 인력 확보 f/u

현지	5월 30일 ~ 6월 4일	· 조사팀(한지혜 팀장, 이다형 대리) 현지 도착 · 현지사업소 방문 및 지역조사 계획 공유 · 케냐 KOICA 사무소 방문: 케냐 내 장애인지원사업 추진 현황 문의, 엘도렛 내 사업 추진 시 주의사항 문의 등 · 밀알복지재단 아프리카 권역본부장 면담: 장애인지원사업 수요조사에 대한 동 기관의 경험 문의, 케냐 내 장애정책/ 제공 서비스 문의 · National Council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NCPWD) 나이로비 사무소 및 United Disabled Persons of Kenya(UDPK) 방문: 케냐 장애법, 장애정책 이행정도 파악, 동 기관에서 진행 중인 장애옹호활동 문의, 케냐 내 필요한 장애인지원사업 수요 파악 · 1차 조사 결과 분석 토대로 조사 계획 보완 · 나이로비 -> 엘도렛 이동
	6월 5일 ~ 8일	· 엘도렛 현장조사원과 상견례 및 조사일정 공유 · Uasin Gushu County Government Social Service Department 방문: 엘도렛 내 장애현황, 장애정책 문의, 정부관계자 차원의 장애인지원사업 수요 파악 · Uasin Gishu County Government Social Development 방문: 장애인그룹 중심의 사업 문의, 엘도렛 장애현황 데이터 요청 · Association for the physically disabled of Kenya(ADPK) 엘도렛 사무소 방문: 기관 라운딩, 엘도렛 내 장애현황 문의, 추진 중인 사업 문의 · National Council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NCPWD) 엘도렛 사무소 방문: 엘도렛 내 장애인지원사업 및 옹호활동 파악 · 지역장애인 대상의 FGI 진행: 장애관련 사업 참여 여부 및 프로그램 만족도 문의, 지역 내 장애인 인권 현황 파악 · 지역사회 지도자 및 공무원 면담: 지역사회 내 장애인 현황 문의,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수요 파악 · 특수학교 방문(공립, 사립): 학교라운딩 및 학교현황 문의 · 일반중학교 (AIC Seiyot secondary school)방문: 장애아동을 위한 시설 구축 점검, 교사 인터뷰 및 학생설문 진행 · 장애인 가정 방문 · NGO 활동가 면담
	6월 9일	· 엘도렛 -> 나이로비 이동 · 지역조사결과 검토 및 사업 구상 최종 회의
	6월 10일	· 조사팀(한지혜 팀장, 이다형 대리) 케냐 출국

02 조사 항목 및 방법

	조사 항목	조사 방법	조사 기간
1	케냐 일반 현황	문헌조사	4월 24일 ~ 5월 4일
2	사회경제적 현황	문헌조사	5월 8일 ~ 17일
3	장애 정책/서비스	문헌조사, 이해관계자 인터뷰	5월 22일 ~ 6월 10일
4	장애 현황	문헌조사, 이해관계자 인터뷰, 장애인 대상의 FGI, 직접관찰	5월 22일 ~ 6월 10일
5	지역 내 타 기관 활동 현황	문헌조사, 이해관계자 인터뷰, 장애인 대상의 FGI, 직접관찰	5월 22일 ~ 6월 10일

본 조사는 1차 국내 문헌조사를 통해 케냐 국가정보, 장애법/정책과 조사지역의 장애 현황을 파악하고 2차 현장방문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자 했음. 조사지역의 장애관련데이터는 장애인의 수만 있을 뿐 여타 활용 가능한 자료가 부족하여 관련 논문과 정부/NGO 관계자 면담, 장애인 대상의 표적집단면담 및 심층면담을 통해 장애인의 복지, 권리 보호 수준 및 장애법 이행 정도를 파악하려고 했음

면담자 대상의 학력, 소득정도, 장애구분 등 기본 인적조사를 진행했으나 샘플 수 부족으로 유의미한 결과 도출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조사지역 청소년의 장애인식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68명의 학생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함. 그 외 내용은 질적조사를 통해 파악함

03 조사 결과 분석

1) 케냐 국가 및 우아신 기슈 현황

가) 케냐 국가 개황

구분	내용
국명	케냐공화국 (Repulic of Kenya)
수도	나이로비 (Nairobi)

면적	57만㎢ (한반도의 2.6배)
기후	고원지방 및 서부는 강우 풍부, 북부는 건조, 2-3월 기온 최고, 7-8월 기온 최저
인구	4,593만 명
민족	Kikuyu(22%), Luhya(14%), Luo(13%), Kalenjin(12%), Kamba(11%), Kisil(6%), Meru(6%) 등 약 42개 부족
언어	스와힐리어(통용어), 영어(공용어)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 ('63.12.12 영국으로부터 독립)
GDP	552.4억불
1인당 GDP	1,358불

〈케냐 국가 개황〉

- (위치) 아프리카 동부 인도양 연안에 위치해있으며 지리적으로는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남수단, 우간다, 탄자니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 (산업) 농업 위주의 경제구조와 열악한 인프라가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나 농업 생산량 증가, 인프라 투자 등으로 15년 및 16년 6%의 경제 성장률을 보임
- (정치) 케냐는 민주주의 국가로 지난 63년 12월 12일 영국으로부터 독립함. 독립 후 조모 케냐타 초대 대통령 집권 이후 78년 모이 대통령 취임 이후 2003년 키바키 대통령에게 정권을 이양하기까지 24년까지 긴 독재정치가 이어짐. 현재 제4대 대통령으로 우후루 케냐타(Uhuru Kenyatta, 초대 대통령의 아들)이 취임하여 국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8월 제5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예정임
- (안보) 케냐는 아프리카 국가들 중 비교적 치안이 안정적인 국가에 속하나 종족 간 정치 세력으로 인한 내부 갈등, 이슬람 무장그룹 알샤바브의 공격 등 여러 잠재적 요인을 가지고 있음. 케냐는 2013년 웨스트게이트 쇼핑몰 테러를 기점으로 소말리아 이슬람 무장단체의 지속적인 공격을 받고 있음
- (빈곤) 인구는 4,593만명이며 케냐의 빈곤율은 약 45.9%(2005)로 인구의 절반이 빈곤에 노출되어 있으며 인간개발지수(2016) 146위로 주변국인 우간다, 탄자니아 보다 높은 수치를 보임

나) 주요개발계획

- 2007년 국가 중장기 경제 및 사회 개발계획 Vision 2030을 채택, 매년 10% 이상의 고속성장을 이룩하여 2030년에는 중진국 진입 계획을 목표로 수립함

- Vision 2030은 1) 거시경제 안정 2) 지속적인 거버넌스 개혁 3) 빈곤계층의 부 창출 기회 확대 4) 사회간접자본 육성 5) 전력 분야 개선 6) 과학, 기술 및 혁신 7) 토지 구조조정 8) 인적 자원 개발 9) 치안 강화 10) 공공 분야 개혁을 10대 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No	과제	세부 달성 목표
1	거시경제 안정	- 낮은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달성 - 정부 부채율 감소 - 환율 안정 및 저금리 실현
2	지속적인 거버넌스 개혁	- 사회 전반적 부패 척결 - 정부 조직 효율화
3	빈곤계층 부 창출기회 확대	- 빈곤층의 자립 기회 부여를 위한 교육 인프라 개선 - 부의 재분배 추진을 통한 사회 통합 달성
4	사회간접자본 육성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통신 등 사회 인프라 개선 노력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 - 중점 산업 육성의 기본 토대 마련
5	전력 분야 개선	- 지방 전력 공급 수준 개선을 통한 삶의 질 개선 - 산업용 전력 가격 인하를 통한 제조업 육성
6	과학, 기술 및 혁신	- 국가 R&D 역량강화 및 기술 인력 육성
7	토지 개혁	- 공정한 토지 관리 및 소유권 명확화
8	인적 자원 개발	-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인적 자원 육성
9	치안 강화	- 노동 생산성 강화
10	공공분야 개혁	- 공공 분야의 효율성 강화와 대 국민 서비스 제고

◎ <케냐 Vision 2030 개요>

- Vision 2030에는 젠더, 청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청년역량강화센터 설립, 국가체육복권 발행,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국회 여성의원 수 증가, 여성 공무원 수

증가, 성차별적 폭력 감소 정책 등을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음. 장애인에 대한 지원 내용이 전략서 내 기술되어 있지 않으나 관련 프로그램으로 장애인 자조그룹 지원, 장학금 제공, 의지·보조기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02]

다) 우아신 기슈 개황

- 우아신 기슈(Uasin Gishu) 카운티는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북서쪽으로 약 263km에 위치해있으며 총 1,054,805명(2014 기준)이 거주하고 있음. 카운티의 중심 도시는 엘도렛으로 나이로비, 몸바사, 키수무에 이어 4번째로 크며 칼랜진(Kalenjin) 부족의 주 거지주로 칼랜진 부족어를 스와힐리어, 영어와 함께 사용하고 있음. 엘도렛은 지난 2008년 케냐 대통령 부정선거로 야기된 폭동으로 인해 무고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대통령 선거 시 안전 주의가 각별히 요구되는 곳임

- 주 산업은 농축산업으로 주요 작물은 옥수수와 밀이며 주요 가축은 돼지, 염소, 소 순으로 나타남. 엘도렛은 타일, 목재, 파이프 공장 및 옥수수, 밀 가공공장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리적 위치와 풍부한 산업 인프라로 향후 제조업의 허브로 발전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됨

- 전체 학교 수는 초등학교 785, 중등학교 209개로 나타남. 교사 당 학생 비율은 초등학교 1:30.3, 중학교 1:27.1로 케냐 전체 비율[03]보다 낮게 나타남. 엘도렛의 Moi 대학은 케냐 내에서 4번째로 큰 대학으로 법학 캠퍼스로 유명함

- 평균 수명은 남성 54세, 여성 57세로 케냐 전체 평균에 비해 4세씩 낮은 편이며 의료시설은 국립, 사설, NGO, FBO 기반으로 총 189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의료 인력은 케냐 전체보다 높은 비율[04]을 보이고 있음

- 지역 내 활동 중인 국제 NGO로는 SOS International, World Vision 등의 단체가 아동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NGO로는 (사)굿피플이 아동결연사업을

02 http://www.vision2030.go.ke/social-pillar/

03 초등 1:30.6, 중등 1:40

04 10만명당 간호사 118명(케냐 전체 55명), 10만명당 의사 27명(케냐 전체 10명), 그 외 의료인력(케냐 전체 21명), Kenya Service Availability and Readiness Assessment Mapping report, 2013

2011년부터 진행해왔으나 올해 사업이 종료됨. 이 외 천주교, 교회 산하의 소규모 로컬 NGO들이 아동, 교육, 보건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며 케냐의 대표적인 신체장애인 협회인 APDK(Association for the Physically Disabled of Kenya) 엘도렛 지부가 지방정부와 협업을 통해 장애인 대상의 보조기구 지원, 장애인 등록 접수, 교육 및 보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2) 케냐의 장애현황 및 정책

가) 케냐 장애인 현황

- 2009년에 진행된 케냐 정부 조사에 의하면 케냐 내 장애인의 수는 전체 인구의 약 3.6%에 해당되는 1,330,366명으로 남성 647,715(49%), 여성682,651명(51%)으로 나타남

케냐 전체 장애인구	시각	청각	언어	신체	정신	Self-care[05]	기타
1,330,366 (3.6%)	24.9%	14.1%	12.2%	25.3%	10.2%	5.8%	7.5%

  - 케냐는 장애 형태를 위와 같이 구분하며 지적장애의 경우 mental impairment(정신 장애)에 포함함

- 전체 장애인구 중 34%가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며 장애 원인으로는 질병, 선천성, 사고 순으로 높게 나타남

구분	선천성	사고	화재	환경오염	질병	면역 결핍	수유 부족	가정폭력	점진적 진행	기타	미응답
도시	14.3	13.1	0.6	0.6	19.8	2.7	0.1	1.1	10.5	14.1	23.1
지방	14	9.8	-	2.0	15.4	2.3	0.1	1.0	16.2	16.6	22.5

05 Self-Care Disability: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어려움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며 옷 입기, 입욕, 또는 집안을 돌아다니는 등의 일상행위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가진 사람을 지칭 (Erickson&Lee, 2008)

나) 장애법 및 정책

- (장애인법) 케냐 정부는 2003년 장애인법을 제정, 시행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와 복지 및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고용에 있어서의 장애인 차별 금지
  - 장애인 고용 시 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
  - 교육에 있어서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교육의 권리
  - 특수학교 및 비공식 교육기관 개설에 대한 의회의 의무
  - 장애예방, 장애조기발견, 조기재활지원, 장애인 대상의 보건의료인력 배치, 무료 의료 및 재활서비스 제공
  - 건물, 도로, 보조기구 기타 사회적 편의시설 등 장벽 없는 장애 친화적 환경 제공
  - 장애인에 적합한 공공시설 건축 의무 규정
  - 공공서비스 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의무 규정
  - 스포츠, 레크레이션 활동 관련 국내외 행사 참여, 장애인에 적합한 센터 건축 및 운영
  - 이 밖에 장애인의 선거권, 장애인을 위한 기금, 세금 면제, 법률지원, 우편요금 면제, 청각장애인을 위한 TV 프로그램의 수화 영상 삽입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 (장애인협의회 기능) 장애인법은 장애인협의회(The National Council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하 NCPWD)개설을 법령에 명시함. 장애인협의회는 수도 나이로비에 중앙회를 두며 전국 46개 분소를 개설, 운영하며 그 기능은 아래와 같음
  - 장애인 관련하여 계획된 정책과 조치를 개발
  - 장애인, 관련 기관 (disabled people's organizations) 등록
  - 보조기구 지원, 관련 기관에게 장애 관련 정보 접근 기회 제공
  - 장애인 재활 및 훈련시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정부와 협의
  - 장애학생 대상의 장학금 지원 및 대출 프로그램 운영
  - 관련 정부에 장애인의 복지와 재활에 대한 보고 시행
  - 장애인 대상의 적절한 주거공간 제공을 위해 정부와 협의
  - 장애법과 장애인 권리에 대한 정보 공개
  - 장애인 복지와 재활에 관계되거나 기타 다른 법에 따라 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기능 수행
- 장애법 외 케냐법률에서 장애인과 관련한 내용을 명시한 분야는 아래와 같음

구분	내용
헌법	헌법 제7조는 스와힐리어와 영어가 케냐의 공식 언어임을 규정하고 있음. 2010년 개정 헌법 54조에서는 국가가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한 수화, 점자 및 기타 통신의 개발과 사용을 촉진할 것을 보장하고 있음을 명시함
아동법	케냐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를 이유로 아동에 대한 차별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함
노동법	2007년 개정된 고용노동법에 따르면 고용주가 장애유무를 근거로 차별할 수 없도록 명시함

다) 장애정책 집행 정도

- 케냐 정부는 장애법 제정과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을 통해 장애인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노력으로 ▲ 공공서비스 계약 시 장애 주류화와 관련 지표 도입 ▲ 재난 상황 시 장애인을 고려한 국가 재난 센터의 비상계획 수립 ▲ 고용 분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 철폐를 공식적으로 채택 ▲ 장애인에 대한 혜택이 포함된 국가사회보장정책 수립 ▲ 중증 장애인을 위한 재정지원 프로그램 설립이라는 성과를 도출함. 그러나 태부족한 물적, 인적 자원 부족 등으로 당사자 및 주변인이 느끼는 장애인 복지의 체감온도는 여전히 낮음
- 케냐 정부 및 NGO가 제출한 UN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실적에 대해 UN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06] 내용 중 주요 지적 및 권고사항은 아래와 같음

06 케냐 정부는 2012년 국가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2015년 8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민간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함

지적사항	권고사항
- 장애인법과 헌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정의에 경멸적 용어가 포함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의가 헌법 및 기타 법령에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지적[07] - 장애인 권리에 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법안이 부족하며 장애인식개선에 대한 개념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의 부재를 지적 - 주(州), 시 단위에서 협약을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과 당사자 그룹과의 공식적인 논의의 장이 부재 - 장애아동 교육을 위한 적절한 보조기구 지원에 대한 정보 부족, 전문적인 교육 수준이 필요한 장애아동에 대한 정보 부족 - 장애인의 대중교통 접근을 방해하는 장벽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접근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행해야 할 조치가 부족하며 이에 대한 제재 조치 부족 - 장애인의 스포츠, 문화 접근성과 관련하여 스포츠, 문화 행사의 공평한 참여를 위한 정부의 구체적 행동 방안이 부족하며 마라캐쉬 조약[08]에 비준을 하지 않음	- 행동 계획 수행에 있어 도농간의 격차가 없어야 하며 각 지방의 장애인 단체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수립되어야 함 - 국가, 주(州), 시, 군 등 개별 차원의 장애인의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국가, 지방 단위에서 협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예산 자원을 배분하고 정책 실행을 위한 명확한 목표와 지표설정, 행동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장애아동 대상의 포괄적이고 양질의 수업이 가능하도록 예산과 전문가, 기술을 확보해야 하며 정규학교에 등록하려는 장애학생을 거부할 수 없는 정책을 채택해야함. 더불어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학교시설을 구축하고 커리큘럼을 제공해야 함[09] - 장애인법에 명시된 이동권 향상을 위한 국가 차원의 통합 이행계획을 수립, 적용하도록 함 - 장애인의 스포츠, 문화 접근성 관련 마라캐쉬 조약의 비준을 촉구함

- 이 외 케냐 내 뿌리 깊게 박힌 장애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해소를 위해 위원회는차별 근절에 대한 장기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장애인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인식개선캠페인과 공무원 대상의 인권교육 방안 수립을 권장함. 교차차별의 대상인 여성과 아동에 대해서 위원회는 여성장애인 및 장애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여성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성폭력상담소를 전국에 설치할 것을 권고함

- 케냐는 장애인법을 통해 장애인을 규정하고 보호하는 방침을 수립하고 있으나 그 실행 과정이나 구체적 목표, 지방으로까지의 확산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식이 부족함. 더불어 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정의로 미루어 보아 의회나 정부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음. 그 이유로는 정책 입안자, 공무원, 지역

07 장애인법에서 장애인은 "시각, 청각, 학습을 포함한 신체적, 감각적, 정신적 또는 기타 장애 사회적, 경제적 또는 환경적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무능력 "으로 정의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헌법(Section 12)에서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법 중, "대통령의 직무 기능을 수행하는 동안 신체적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무능력해지는 사람은 그 직책에서 제거되어야 한다."는 구절은 신체장애나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음을 암시하는 차별적 의미를 담고 있음

08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에서 비준한 국제조약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은 권리자의 허가가 없이 어문 저작물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형태로 복제해 배포할 수 있음

09 케냐 장애인연합체(United Disabled Persons of Kenya)에서 제출한 민간보고서에 따르면 케냐의 대부분 학교들은 학교시설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게 개선하지 않았으며 이는 장애학생의 학교 접근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있음. 경사로뿐만 아니라 장애아동이 접근 가능한 화장실이 없으며, 장애를 가진 자녀의 교육을 원하는 학부모는 시설 부족으로 좌절을 겪고 있음. 대부분의 학교 관계자는 장애아동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조항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사회 주민 등이 장애인 및 그의 권리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개선을 위해 케냐 정부는 정확한 장애 통계 조사, 인권에 기반한 장애의 정의가 필요하며 지방의 소수 부족의 장애인에게까지 관련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3) 우아신 기슈 장애현황

가) 장애 일반

- (인구) 우아신 기슈 장애인의 수는 전체 인구의 약 2.24%에 해당되는 20,040명으로 장애형태에 따른 구분은 아래와 같음. 성별로 구분된 자료는 없으나 케냐 전체와 리프트밸리 지방의 남녀 장애 성비가 약 5:5임을 감안할 때 이와 동일할 것으로 추정됨
  - 2017년 기준 우아신 기슈 내 등록된 장애인은 약 14,000명으로 나타남

우아신 기슈 전체인구	우아신 기슈 장애인구	시각	청각	언어	신체	정신	Self-care	기타
884,179	20,040	5,225	2,562	2,764	4,735	1,954	1,215	1,585

◎ <Analytical Report on Disability Volume XIII, 2012>

- (교육) 우아신 기슈 거주 장애인에 대한 교육 통계는 확인 가능하지 않으나 아래 표의 도시, 지방, 리프트밸리(우아신 기슈 포함) 지방의 통계로 미루어보아 대부분의 장애인이 초등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파악됨[10]

구분	영유아	초등	직업	중등	전문대학	대학	기타	무응답
도시	2.6	48.4	0.3	27	14.1	5.5	1.9	0.2
지방	5.1	72.4	1.2	15.8	4.0	0.7	0.6	0.2
리프트밸리	6.1	66.2	0.9	17.2	7.9	1.5	0.3	-

◎ <Analytical Report on Disability Volume XIII, 2012>

10 2016년 우아신 기슈 장애인 354명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1%가 초등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나타남. 중도 포기 이유로는 교육비 지출의 어려움(50%)과 장애(41%)로 답함 (Factors inhabiting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towards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in Uasin-Gishu County, Kenya, 2016)

- 엘도렛 내 특수학교는 공립 3개와 사립 1개로 공립은 장애아동을 정신, 시력, 청각으로 구분하여 학생을 수용하며 사립은 장애구분 없이 학생을 입학시키고 있음. 모든 특수학교는 기숙학교로 운영되고 있음
- 국립특수학교의 연 학비는 무료이나 기숙사비 명목으로 25,000ksh(약 30만원)을 청구며 사립의 경우 연 30,000ksh(약 36만원)을 청구함

● (고용) 케냐 전체의 고용률은 40.4%이며 케냐 내 장애인의 고용률은 33.3%로 나타남. 고용에 대한 우아신 기슈 지역의 통계는 없으나 표적집단면담 및 개별면담에 참여한 14명의 경우 정규직 1명, 비정규직 1명, 자영업 7명, 무직 5명으로 응답하였으며 일 생활비는 약 210ksh(한화 약 2,520원)로 응답함[11]

● (인프라/교통) 우아신 기슈 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 외 전무함. 지역 내 장애인은 재활, 직업훈련, 주간보호, 레크레이션에 대한 수요가 있으나 이와 관련된 시설이 부재함. 장애인을 위한 대중교통 시설 또한 전무하며 이동 시 타인의 도움을 받아 마타투(케냐의 대중교통)에 탑승하거나 사설 오토바이, 차량을 섭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네트워크) 우아신 기슈는 총 30개의 워드[12]로 이루어졌으며 워드당 최소 1개의 장애인그룹이 형성되어 활동 중에 있음. 그룹은 최소 9인 이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9인의 역할과 그룹의 규칙이 명시된 신청서를 우아신 기슈 사회개발부서에 접수해야 함. 승인 후 각 그룹은 50,000Ksh(한화 약 6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그룹은 지원비로 대출, 공동사업을 진행하거나 인원수로 지원비를 분배하여 개인 활동을 진행함. 현재 우아신 기슈 내 등록된 장애인그룹은 40개로 장애인그룹에는 장애인 당사자 뿐 아니라 장애인의 보호자도 참여가 가능함

● (정책) 카운티 정부에서 발표한 통합개발계획 2013-2018에 따르면 우아신 기슈 내 공공시설이 장애친화적이지 않음을 밝히며 신체장애인이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공공 및 학교 시설 개선을 강조함. 우아신 기슈 정부의 세부 계획은 아래와 같음

11 10번 각주에 언급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응답자 중 13%만이 정규직으로 고용됨

12 워드(ward)는 선거구로 나눠진 지역단위를 뜻함

- 카운티 전 학교 내 경사로와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을 건축 (2014-2016년)
- 장애아동이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관심을 유도 (2014-2018년)
- 장애인을 위한 지원금 제도를 마련 (2014-2018년)
- 장애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2014-2017년)

나) 지역사회의 장애인식 정도

● 우아신 기슈 내 장애인 대상의 차별, 장애인식 정도 파악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 가족, 지역사회 리더 및 공무원, 카운티 정부 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장애인) 면담에 참석한 12명의 장애인 중 10명의 장애인의 차별을 경험함. 가족 구성원의 외면,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학교 입학을 거부당하거나 구직활동 시 면접을 취소하는 등 고용을 회피하는 차별을 경험함
- (가족) 지적장애, 중증장애아동이 거주하는 가정 3곳을 방문한 결과 중증장애아동의 형제, 자매는 장애인 가족과 함께 산다는 이유로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는 일을 경험하며 이 때문에 장애를 가진 형제, 자매를 비난하는 일이 발생함. 장애아동의 주 양육자는 어머니로 양육으로 인해 외부활동이 어려우며 양육과 경제활동을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의 경우 구직활동이 불가, 집에서 일이 가능한 소일거리(빨래 등)를 찾아 근근이 생활하고 있음. 지역 내 특수학교가 있으나 비싼 등록금으로 입학할 수 없으며 통학 수단이 부재하여 일반학교 입학에 어려움을 겪음
- (지역사회) Chaptiret location의 5명의 지역사회 리더는 장애인법 제정 이후 장애인들의 삶이 나아졌다고 마을주민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일은 없다고 평함. 이는 마을주민의 인식이 개선되기보다는 장애인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무관심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답변함. 리더들은 마을 내 거주 장애인의 수와 장애인그룹과 활동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문제점으로 가정 내 장애인을 숨기고 방치하는 부모와 가족을 꼽음
- (지역사회 공무원) Chaptiret location의 공무원 4명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 수에 대해 파악하고 있으며 장애인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나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함. 관련 교육 참석 경험은 없으며 location 차원에서 장애인 대상의 서비스는 장애인등록 과정에 대해 안내하는 정도임. 지역사회 장애인이 처한 문제로 이동의 제한과 빈곤을 제기함
- (카운티정부 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장애인 차별 정도는 낮아지고 있으나 장애

아동 부모의 경우 장애아동을 자녀로 두었다는 부끄러움과 지역사회 주민의 차별이 두려워 아동을 집에 숨기고 방치하는 경우를 문제로 꼽음. 더불어 특수학교의 높은 등록금으로 장애아동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점을 지적함. 우아신 기슈 내 사회복지공무원은 총 8명으로 14,000명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진 장애인을 일일이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구분	면담정보
장애인 & 가족	◦ **면담일시, 면담자 이름, 면담 장소 기입** **1. 여성장애인 대상 FGI** · 일시: 6.7.(수) 10:00 · 장소: Kimmu village church · 참석자: Ruth Chelagat, Lilian Magut, Elzeba Jepkosgei, Esther Jelimo (4인) **2. 지역장애인 대상 FGI** · 일시: 6.7.(수) 14:00 · 장소: Lanagas village secondary school · 참석자: Sarah Wainaina, Cyrus Ndungu(Chairperson), Caroline Chepchirchir, Esther Kimuna, Albert Onyango, Elijah Mwaniki, Sarah Njeri(Secretary) (7인) **3. 장애가정방문 1** · 일시: 6.5.(월) 16:00 · 장소: Kimmu village · 참석자: Cheptoo Wendot (지적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싱글맘) **4. 장애가정방문 2** · 일시: 6.5.(월) 17:00 · 장소: Kimmu village · 참석자: Linet Nagiret (중증장애아동 주양육자) **5. 장애가정방문 3** · 일시: 6.6.(화) 14:00 · 장소: Chaptiret location · 참석자: Flora Jeptum Bartera (장애그룹 지도자/카운티 의회 멤버) **6. 장애가정방문 4** · 일시: 6.8.(목) 10:00 · 장소: Seiyot village · 참석자: Magdalence Songoi (중증장애아동 주양육자)
지역사회 리더	**1. 지역사회 리더 면담** · 일시: 6.6.(화) 10:00 · 장소: Chaptriet location meeting room · 참석자: John Rono(Cheptiret Location), Jackson Ruto(Chepkoiyo village), Paul Sugut(Kipsano Village), John Yegoh(Sulbeiyet Village), Musa Tanui(Chepteria Village) 5인
지역사회 공무원	**1. 지역사회 공무원 면담** · 일시: 6.6.(화) 12:00 · 장소: Chaptriet location Chief's office · 참석자: Joshua Rirei (Chief), Truphena Rugut (Assistant Chief), Mathew Koech (Chief of Kapkoi Location), Jacob Chepkwony (Assistant chief of Kapkoi)
카운티 정부 공무원	**1. Uasin Gishu County Government Social Service Department** · 일시: 6.5.(월) 09:00 · 참석: Meshack Chemwor (Director) **2. Uasin Gishu Social Development Department** · 일시: 6.8.(목) 16:00 · 참석: Grace J. Kenduiwa (Director)
유관기관 관계자	**1. 신체장애인협회(APDKhhh)** · 일시: 6.5.(월) 11:00 · 참석: Viola Buthiah (Acting Coordinator) **2. 장애인협의회** · 일시: 6.6.(화) 9:00 · 참석: Titus Yegoh (Regional Officer) **3. 우아신 기슈장애인협의체** · 일시: 6.5.(월) 15:00 · 참석: Regina Chumba (Chairperson)

◎ <대상별 면담 정보>

● 이외 청소년의 장애인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AIC Seiyot 중학생 68명 대상으로 설문조사[13]를 실시함. 해당학교는 엘도렛 시 외곽에 위치한 공립학교로 25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11명의 교사를 보유하고 있음. 통합교육지향 학교로 현재 2명의 자폐아동이 재학 중에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 정서반응, 행동개념, 인지이해 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보임

13 Chedoke-McMaster Attitudes Towards Children with Handicaps Scale로 장애아동에 대한 정서반응, 행동개념, 인지이해도를 리커트 3점 척도로 구분한 설문양식 활용. 설문조사 상세 결과는 붙임자료로 첨부

	문항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정서반응]			
1	장애아동은 노는 것을 좋아한다.(like to play)	44 (65%)	10 (15%)	14 (21%)
2	나는 장애아동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67 (99%)		1 (1%)
3	장애아동은 어른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	64 (94%)	3 (4%)	1 (1%)
4	장애아동은 자신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한다.	40 (59%)	17 (25%)	11 (16%)
5	장애아동은 나만큼 행복하다.	51 (75%)	7 (13%)	10 (15%)
6	장애아동이 나를 집으로 초대한다면 기쁠 것이다.	66 (97%)	-	2 (3%)
7	나는 장애아동을 집에 초대하여 함께 놀 수 있다.	65 (96%)	2 (3%)	1 (1%)
8	장애를 가진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게 두렵다.	10 (15%)	1 (1%)	57 (84%)
9	장애아동이 생일파티에 나를 초대한다면 창피할 것이다.	3 (4%)	3 (4%)	62 (91%)
10	장애아동은 종종 슬프다.	28 (42%)	18 (27%)	21 (31%)
11	나는 장애아동과 놀기 위해 그 집을 방문하고 싶지 않다.	5 (7%)	4 (6%)	59 (87%)
12	나는 장애아동과 함께 지내기 위해 휴식시간을 놓쳐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37 (55%)	9 (13%)	21 (31%)
13	장애아동은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	62 (91%)	5 (7%)	1 (1%)
	[행동개념]			
14	나는 장애아동을 친구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지 않다.	25 (37%)	6 (9%)	36 (53%)
15	나는 장애아동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19 (30%)	18 (26%)	30 (44%)
16	내 생일에 장애아동을 초대할 수 있다.	65 (96%)	1 (1%)	2 (3%)
17	나는 장애아동을 두려워한다.	9 (13%)	3 (4%)	56 (82%)
18	나는 내가 모르는 장애아동과 이야기해볼 수 있다.	62 (91%)	3 (4%)	3 (4%)
19	나는 우리집 옆집에 사는 장애아동을 좋아할 수 있다.	62 (93%)	5 (7%)	-
20	나는 특별한 친구로 장애아동과 친구가 되는 것이 좋다.	48 (73%)	8 (12%)	10 (15%)
21	나는 장애아동을 멀리하고 싶다.	9 (13%)	2 (3%)	57 (84%)
22	나는 다른친구들만큼 장애인 친구를 좋아하지 않는다.	5 (7%)	6 (9%)	57 (84%)
23	나는 장애인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5 (8%)	7 (10%)	54 (82%)
24	나는 장애아동과 학교 프로젝트를 함께 한다면 기쁠 것이다.	63 (93%)	1 (1%)	4 (6%)
25	나는 장애아동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다.	32 (47%)	24 (35%)	12 (18%)
26	장애아동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다.	65 (96%)	2 (3%)	1 (1%)
	[인지이해]			
27	장애아동이 내 옆에 앉는 것이 신경 쓰이지 않는다.	61 (90%)	1 (1%)	6 (9%)
28	장애아동은 스스로의 힘으로 여러 일을 해낼 수 있다.	27 (40%)	3 (4%)	37 (54%)
29	나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장애아동을 도와줄 것이다.	65 (96%)	-	3 (4%)
30	장애아동은 친구 사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17 (25%)	10 (15%)	40 (59%)
31	장애아동은 바르게 행동하는 법을 안다.	57 (84%)	9 (13%)	2 (3%)
32	나는 수업시간에 장애아동과 앉고 싶지 않다.	11 (16%)	-	56 (84%)
33	장애아동은 즐거운 일이 별로 없다.	18 (26%)	26 (38%)	24 (35%)
34	장애아동은 많은 것에 관심이 있다.	63 (93%)	3 (4%)	2 (3%)
35	나는 장애아동에게 내 비밀을 말 할 수 있다.	61 (90%)	6 (9%)	1 (1%)
36	장애아동을 볼 때 나는 화가 난다.	9 (13%)	-	58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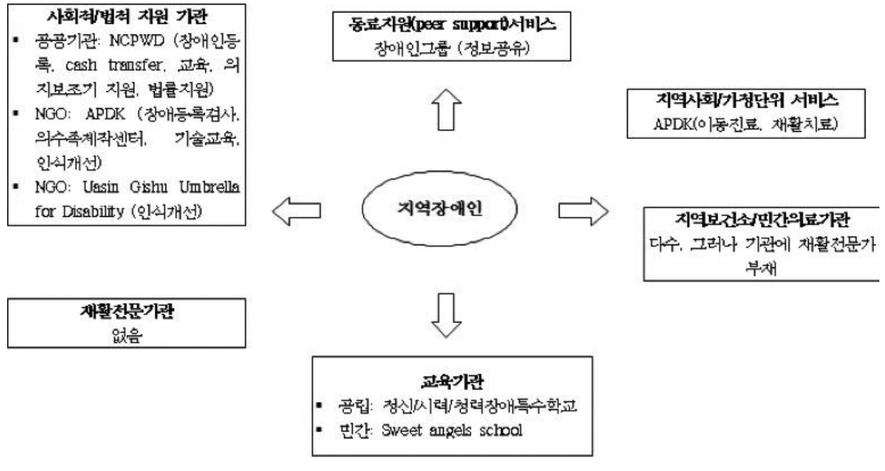
다) 지역정부 및 NGO 활동 현황

- 우아신 기슈 내 장애인 관련 활동을 하는 곳은 장애인협의회(NCPWD)와 케냐신체인장애인협회(APDK), 우아신 기슈장애인협의체(Uasin Gishu Umbrella for Disability)로 구체적인 주요활동은 아래 표와 같음

기관명	활동내용
장애인협의회 엘도렛 지부	- 장애인등록 절차 안내 및 등록증 교부: 약 14,000명 등록 - 중증장애인을 위한 현금서비스(cash transfer) 프로그램 운영: 약 7,000명 등록 및 월 2,000ksh(한화 약 24,000)지급 - 대출 프로그램 운영: 2명에게 각각 한화 50만원, 100만원 대출 -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 장애인그룹 역량강화 프로그램 (교육) 운영 - 의지보조기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패널림픽 운영: 연 1회 - 장애인을 위한 법률 지원 (1명의 변호사가 케냐 전체 장애인 대변) *우아신 기슈 사회개발부서(Department of Social Development)와 협력하여 활동 진행

케냐신체 장애인협회 엘도렛 지부	- 장애인 등록을 위한 검사(assessment) 진행: 매월 첫 번째, 마지막 주 월요일 진행되며 평균 50-70명 검사 - 모바일 클리닉 운영: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대상으로 진행되며 의사와 동행 - 재활치료: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대상으로 홈 서비스 제공 - 의수족제작센터 운영 및 의지보조기 지원 - 장애인 대상으로 기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주요 기부처는 EU와 CBMI(Christian Blind Mission Internationall)로 장애등록검사와 의지보조기 지원은 상시 운영되고 있으나 그 외 프로그램은 기부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됨
우아신 기슈장애인 협의체 (Uasin Gishu Umbrella for Disability)	- 2013년 설립된 우아신 기슈 내 장애인그룹 협의체로 옹호활동,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기술교육 진행 중

관련하여 활동 중인 INGO는 전무함



◎ <지역장애인 케어 연속체>

4) 우아신 기슈 장애관련 이슈

가) 장애인 등록

- 우아신 기슈 내 장애등록에 관여된 기관은 APDK엘도렛, 보건부, NCPWD 나이로비 및 엘도렛 분소로 장애등록에 최대 6개월이 소요됨. 등록비는 무료이나 대부분이 신청인들이 신청서에 부착해야하는 사진 촬영비로 200ksh(한화 약 3,000원)을 지출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 장애인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은 6개월에서 6~7년까지 개인적 편차가 있음. 이는 NCPWD 나이로비 중앙지점에서 엘도렛 분소로 등록카드를 발송하고 엘도렛 분소에서 장애인에게 등록카드를 배부하는 과정이 지연되어 신청서와 등록카드를 정부기관에서 분실, 이에 신청자가 2~3번 재신청하기 때문임. 면담 참석자는 2~3년간 신청해도 발부되지 않았던 장애인등록카드가 나이로비에서 신청한 지 하루 만에 발급되었다고 밝힘

- 장애인등록카드 배부를 맡고 있는 NCPWD 엘도렛 분소의 경우 장애인등록카드 도착 여부를 신청자에게 안내하지 않고 있으며 신청자가 담당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발급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시스템임. 신청자들은 더딘 장애인 등록 과정에 불편함을 호소함

장애인등록 신청서 작성 → APDK 의료진 검진 및 검진서 보건부(나이로비 소재) 제출 → 보건부 2차 검증 및 NCPWD 나이로비 중앙지점에 결과 통보 → NCPWD 나이로비 중앙지점에서 엘도렛 분소로 등록카드 발송 → NCPWD 엘도렛 분소에서 등록카드 배부

나) 장애인을 위한 인프라

- 장애인을 위한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이 부재하며 공공기관 내 장애인을 고려한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함. 카운티정부에서 운영하는 특수학교만이 경사로 등을 설치하였으며 정부기관, 시내 호텔, 슈퍼마켓만이 장애인을 위한 주차공간을 배정해 놓았을 뿐 경사로, 전용화장실 설치는 이루어지지 않음

- 우아신 기슈 내 14,000명의 등록장애인이 있으나 재활센터, 재활병원, 데이케이서

비스가 전무함. 우아신 기슈 통합개발계획 2013-2018에 따르면 재활센터 의지보조기 워크숍 건축, 장애인을 위한 공공시설 개선을 목표로 삼고 있으나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재활센터 부지만이 확보된 상태임

다) 통합교육을 위한 학교시설 및 프로그램

- 우아신 기슈 내 초중등교육기관은 통합교육을 지향하고 있으나 장애아동을 위한 경사로, 화장실 등의 시설이 미비하며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이 높지 않음. 장애아동도 일반학교 입학이 가능하나 시설 부족, 교사 부족의 이유로 입학을 거부당한 사례가 있음

라) 지역사회 주민 대상의 장애인식개선

- 2003년 케냐 장애인법 제정과 장애인 대상의 프로그램 수립 후 장애인의 삶은 개선되고 있으나 일부 장애아동을 자녀로 둔 부모들은 지역사회의 비난과 비판을 두려워 장애아동의 존재를 숨긴 채 방치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 숨기고 방치하는 사례는 신체, 지적장애아동 보다 자폐아동, 알비노아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04 변화의 영역

1) 주목 분야

가) 장애인그룹 기반의 사회경제적 역량강화

- 장애인은 빈곤과 사회적 차별에 노출되어 있는 조사지역 내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교육과 소득증대를 통한 사회경제적 역량강화에 대한 수요를 확인함. 우아신 기슈 카운티정부에 등록된 장애인그룹은 40개로 참여장애인은 1개 그룹당 10명에서 15명 사이로 기조직되어 있는 그룹을 활용한다면 장애인 네트워크 조직화에 따른 시간과 비용 절약이 가능함. 장애인그룹 대상의 역량강화교육을 통해 장애인 리더를 양성하고 소득증대사업 추진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역량강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음

나) 장애인, 가족, 지역주민 대상의 장애인식개선

- 케냐는 2003년 장애법 제정과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보호에 힘쓰고 있으나 여전히 조사지역 일각에서는 장애인의 존재를 숨기고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됨.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를 비롯한 가족, 지역주민이 장애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그리고 유해한 관행 근절이 필요함

- 당사자 중심의 장애권리교육과 가족, 지역주민 대상의 장애이해교육과 더불어 지역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인식개선 캠페인이 조사지역 내 필요함

다) 공무원 대상의 장애정책/법 교육을 통해 의무담지자의 지지환경구축

- 현재 우아신 기슈 장애인협의회를 통해 장애인 관련 활동 등이 진행되고 있으나 주 대상은 장애인 당사자로 그 외 그룹 대상의 사업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음. 특히 지역사회 공무원 대상의 교육은 명목상일 뿐 실제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지역사회 공무원은 장애법과 정책을 실제로 집행해야 하는 지역 장애인과 가장 가까이 위치한 의무담지자로 장애인, 장애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 함. 공무원 교육을 통해 장애인, 장애법/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으며 향후 지역사회 내 관련 활동 진행 시 교육 수료 공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라) 지역 내 장애현황 데이터 구축

- 장애현황에 대한 세부 데이터는 국가 단위만 가능하며 우아신 기슈 장애현황의 경우 숫자만 파악 가능함. 향후 지역 장애인의 실태 파악과 정부 및 민간의 효과적인 장애인지원사업 디자인 및 추진을 위해 우아신 기슈 카운티 장애현황 데이터 구축이 필요함

2) 현지의 수요 및 상황

● 조사결과에 따른 주목분야와 현지수요 및 상황은 아래와 같음

주목분야	현지수요 및 상황
장애인그룹 역량강화교육	- 우아신 기슈 내 등록된 장애인그룹 40개 (그룹당 10-15명) - 장애인그룹은 매월 1-2회 정기미팅을 가지고 있으며 장애관련 정보 공유, 장애인 (가족구성원)으로서 겪는 어려움(감정)을 공유하고 있으며 활발히 활동하는 그룹의 경우 저축과 대출사업, 공동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기조직된 40개의 장애인그룹 대상으로 ▲리더십 ▲재정 ▲문해교육 등을 통해 장애인의 역량강화 도모 필요
소득증대	- 빈곤 탈피, 소득증대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이 중요한 요소로 우아신 기슈 내에서 장애인은 빈곤과 장애라는 이중고통을 겪고 있음. 특히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의 경우 양육과 일자리라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으며 빈곤한 삶을 이어가고 있음 - 장애인지원사업의 소득증대사업은 일반 장애인그룹과 취약 장애인 대상으로 나누어 ▲역량강화교육을 수료한 장애인그룹 대상으로는 소득증대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선발 그룹에게 사업추진금을 대출, ▲취약 장애인 (최빈곤, 여성)대상으로 가축을 지원하여 우아신 기슈 장애인의 소득증대를 꾀함
장애인식개선	- 당사자, 가족, 지역주민 대상의 장애인식개선을 통해 장애에 대한 올바른 개념과 에티켓 확산 등이 필요함. 현재 우아신 기슈에서 진행 중인 장애인식개선사업은 패럴림픽과 가두행진 뿐으로 대상별 세분화된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이 필요함 - 당사자와 가족 중심의 장애인 권리교육, 지역주민 대상의 장애이해교육을 통해 장애인이 누려야 할 권리를 알리고 현지 관습에 따른 장애인 대상의 유해한 행위 등을 폐지할 것을 촉구함. 이 외 지역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식개선 공모전, 미디어 홍보 등을 통해 장애인의 보호와 배려의 필요성에 대해 알리도록 함
공무원교육	- 현재 우아신 기슈 내 지역공무원은 장애법, 정책의 존재에 대해 인지는 하고 있으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함.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 옹호와 관련 사업 진행 시 지역사회 공무원의 지지는 필수적인 요소임 - 1차년 사업으로 우아신 기슈 30개 워드 공무원 대상의 장애정책, 법 교육을 추진하고 2차년에는 공무원, 장애인그룹 지도자, 마을 리더 중심으로 장애정책 워크숍을 추진하여 마을별 장애인 관련 이슈를 파악하고 이슈에 해결에 대한 실행계획방안을 수립함

3) 사업대상 분야(Target Area)의 지표 및 기초선

조사지역의 경우 장애인구 데이터만 있을 뿐 세부 통계는 국가단위의 통계만 활용 가능함. 우아신 기슈 내 장애인지원사업 추진 시 사업 참여자 대상의 기초조사 수행이 필요

함. 본 단체가 구상한 세부사업과 지표 및 기초선은 아래와 같음

세부사업	지표	기초선
• **장애인그룹 역량강화교육** - 조직화 교육 (리더) - 문해, 회계, 기술교육 (일반회원)	- 교육 횟수 - 교육 참여자의 수 - 교육 만족도	- 0회/년 - 0명 - 만족도 %
• **소득증대** - 소득증대공모 - 취약계층지원	- 참여자의 수 - 사업 전후 소득 비교	- 0개
• **장애인식개선** - 장애인 권리교육 (당사자 및 가족) - 장애이해교육 (지역주민&리더) - 장애인식개선 공모전 (주 차원)	- 교육 횟수 - 교육 참여자의 수 - 교육 만족도 - 공모전 출품작의 수	- 0회/년 - 0명 - 만족도 % - 0개
• **공무원교육** - 장애법/정책교육 (공무원) - 장애정책 워크숍 (공무원, 지역리더, 장애인그룹 리더)	- 교육 횟수 - 교육 참가자의 수 - 교육 만족도 - 작성된 장애이슈 해결방안 실행계획서의 수	- 0회 - 0명 - 만족도 % - 실행계획서 0부

4) 단체의 특성과의 연계

● 지구촌나눔운동은 지난 2005년 베트남을 시작으로 미얀마, 에티오피아에서 장애인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옴. 베트남 한베재활센터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도입하여 장애아동을 지원하였으며 미얀마와 에티오피아에서는 현지단체와 협력하여 의지보조기 지원, 소득증대사업, 직업교육 및 장애아동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경사로 설치, 주민 대상의 인식개선교육사업을 추진함. 지난 2016년에는 베트남 중부 꽝찌성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해 ▲암소은행을 통한 소득증대 ▲장애인, 장애관련 단체 실무자, 정부관계자 대상의 장애정책워크숍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공모전을 진행하여 수상작을 꽝찌성 내 학교, 정부기관, 유관기관에 배포함. 꽝찌성 사업은 장애인 사회참여증진이라는 사업의 목적에 세부사업이 계획되고

추진되었는지 여부확인과 사업지 환경에 적합한 옹호활동 디자인을 위해 한국인 권재단과의 현장방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자문제공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일조함

- 동 조사를 통해 그간 지구촌나눔운동이 수행해온 장애인의 활동증진, 소득증대 활동을 넘어 장애인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내고 지역사회 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이전 사업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단계 진일보한 사업 설계 및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05 자료 출처

- Disabled People's Organizations in Kenya (2015) Implementing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Republic of Kenya
- Kenya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2012), Analytical report on disability
- Kenya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2015), Uasin gishu county statistical abstract
- Kenya Nation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2014) From norm to practice a status report on implementation of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enya
- Koech, C. A. (2016) Factors inhibiting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towards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in Uasin-gishu county, Kenya. University of the Western Cape
- National Coordination Agency for Population and Development & Kenya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2008), Kenya national surve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Ngugi, M. N.,Chebet, P. S., & Rono, P. K. (2016). Social factors influencing the accessibility of the national development fund by persons with disability in Eldoret west district, Uasin-gishu county, Kenya. European Academic Research
- The National Council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2004),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no.14 of 2003
- Usasin Gishu County (2013) Uasin gishu county integrated development plan 2013-2018
-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15)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initial report of Kenya
-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14)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35 of the Convention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동부아프리카 2개국(에티오피아, 케냐)의 사회경제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협력방안 연구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서. 2017. 케냐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웹사이트]

- The National Council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http://ncpwd.go.ke
- United Disabled Persons of Kenya: http://www.udpkenya.or.ke/
- Kenya Vision 2030: http://www.vision2030.go.ke

06 기타 활동 자료 (사진 등)

01

02

03

04

01 나이로비 UDPK 방문
02 밀알복지재단 권역본부장 면담
03 NCPWD 엘도렛 분소 방문
04 표적집단면담 1

05

06

07

08

09

10

05 표적집단면담 2
06 지역사회 리더면담
07 장애가정 방문 1
08 장애가정 방문 2
09 특수학교 방문
10 일반중학교 방문 및 장애인식정도 조사

향후 계획

〈다. 사업 대상 분야의 지표 및 기초선〉에 기술된 내용을 중심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음. 지구촌나눔운동이 조사지역 내 사업 수행경험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장애그룹 역량강화교육, 인색개선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현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 뒤 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고자 함

PART 19

[공공행정] 피난처

시행일자	2017년 4월 25일(화)~6월 23일(금) (총60일)
지역	르완다 Kamembe, Kigali, Mahama 등

2017년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지역조사(사업형성조사) 결과보고서

기본정보				
단체명	사단법인 피난처		**작성자**	이호택, 이혜리, 기은재
단체현황	현지 지부		☐ 있음	☑ 없음
	NGO 등록		☐ 있음	☑ 없음
	KOICA 협력사업 수행 경험 유무		☑ 있음	☐ 없음
사업 분야	지역개발, 직업교육, 농업		**코드번호**	99820(개발인식증진)
조사 목적	‘르완다 Kamembe 등 국제이주민 거주지역 개발을 위한 조사’: 부룬디, DR콩고 등 주변지역 분쟁으로 말미암아 르완다로 피난하는 이주민들의 평화와 이주민들이 거주하는 르완다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Kamembe, Mahama, Muhanga, Kigali 등 접경지역 내지 이주민 거주 지역에서 내부자산 활용과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사회개발 교육훈련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현황 및 타당성조사			
대상 국가 및 지역	**국 가**	르완다	**지 역**	Kamembe, Kigali, Mahama 등
	Kamembe : S 2°26′E 28°55′, 르완다수도 키갈리에서 서쪽으로 237 Km, 버스로 5시간, 기타 Mahama 캠프, Kigali 인근(Muhanga 등)			
조사기간	**전체 조사 기간**	2017년 4월 25일(화) ~ 6월 23일(금) (총60일)		
	현지 체류기간	6월 7일 ~ 6월 21일 (총14박 15일)		

조사 목적

chapter 01

‘르완다 Kamembe 등 국제이주민 거주지역 개발을 위한 조사’: 부룬디, DR콩고 등 주변지역 분쟁으로 말미암아 르완다로 피난하는 이주민들의 평화와 이주민들이 거주하는 르완다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Kamembe, Mahama, Kigali 등 접경지역 내지 이주민 거주 지역에서 내부자산 활용과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사회개발 교육훈련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현황 및 타당성조사

조사 결과

chapter 02

01 일정별 조사 활동

기 간		활동 내역 약술	
국내	2017. 4.25.-6.6	- 활동지역: 서울/ 활동내용: 르완다 기초정보 문헌조사 - (1) 르완다 2차 5개년 국가 개발계획 EDPRS : Economic Development and Poverty Reduction Strategy - (2) Rusizi (Kamembe) 지역개발계획 REPUPLIC OF RWANDA WESTERN PROVINCE RUSIZI DISTRICT, DISTRICT DEVELOPMENT PLAN 2013-2018, 2013.6 - (3) 르완다 Rusizi (Kamembe) 지역 현황 ICV3 DISTRICT PROFILE : Rusizi Fourth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rwanda 2012 :Rusizi - (4) 르완다내 난민상황	
현지	2017. 6.7.-6.8	키갈리지역 이해관계자 미팅	- 6.7(수) 도착, 오후 : 부룬디난민 델핀, 크리스찬 미팅, 저녁 부룬디난민단체 ISDO 이사들 및 사무국장 미팅 - 6.8(목) 아침9시 1팀 부룬디난민지원단체 Maison Shalom 방문, 2팀 부룬디난민단체(AESD) 난민그룹모임 참가
	2017. 6.10-6.15	카멤베 지역 KII, FGD, Survey, 직접관찰	- 6.9(금) Kamembe 이동 - 6.10(토) 오전 Ngoma 오후 Gatsiro 마을 방문 - 6.11(일) KII 인터뷰, 오후 난민촌 Nyrushishi Trainsit Center 방문 - 6.12(월) 오전 이민국방문, 오후 FGD준비 - 6.13(화) FGD 1 : 피그미, 마을주민, 난민, 봉제스쿨그룹 대표40명 - 6.14(수) FGD 2 Land project 그룹(ihundwe 230가구, Giheke 500가구 대표 40명) - 6.15(목) FGD 디브리핑
	2017. 6.17.-6.21	키갈리근교 및 Mahama 캠프 KII, 직접관찰, 이해관계자 미팅	- 6.16(금) 키갈리 이동 - 6.17(토) Kigali 인근 부룬디난민 양돈장 Kibaya farm, 양계장 방문관찰 - 6.18(주) Mahama 난민캠프 방문 - 6.19(월) Muhanga ISDO 사무실방문 수혜자인터뷰 - 6.20(화) Yamata지역 수혜자 비즈니스맨(데코. 쌀가게. 건축자재상) 면담 - 6.21(수) 부룬디난민 라디오리포터 프랑소아비즈마나 인터뷰

02 조사 항목 및 방법

	조사 항목	조사 방법	조사 기간
1	브룬디난민NGO (ISDO)의 진행사업	직접조사/ Key Informant Interview	2017.06.07
2	브룬디난민NGO (AESD)를 통한 브룬디난민의 수요파악	직접조사/ Group Interview	2017.06.08
3	피그미마을의 생활실태파악	직접조사/ Observation	2017.06.10
4	피그미, 브룬디난민 및 현지 취약계층의 문제 및 해결방법 토론	직접조사/ Problem Tree, Seasonal Calendar, Focus Group Discussion Key Informant Interview	2017.06.13.-14
5	브룬디난민NGO (ISDO)의 양돈, 양계마을 및 사업장 방문	직접조사/ Observation	2017.06.17.-18, 19
6	Mahama 난민캠프 생활실태파악	직접조사/ Observation	2017.06.19

03 조사 결과 분석

르완다는 전국토의 90%가 산지로 이루어진 자원부족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산지에서 이루어지는 원시적인 농업 및 축산 등 1차 산업 외에는 산업이 없고 지역내부 자산을 활용하고 개발하며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훈련이 부족하여 주민 대부분이 일자리 없이 가난하게 생활하고 있음

2010/2011 르완다통계청 국민생활조사(EICV3) Rusizi 지역통계에 의하면[01], Rusizi 지역 16세 이상의 취업률은 77.9%, 실업률 0.6%, 비경제활동율 21.6%로 전국에 비하여 실업율이 높고(표5.1, 전국 평균 취업률은 84%, 실업률 0.9%, 비경제활동율 15%), 취업자의 대부분인 69.7%가 농업에 종사하고 13.7%가 장사, 기타 산업은 5% 미만임(표5.3)

본 지역조사에서 2017.6.7.~21 수행한 120명의 주민과 난민들 대상 Survey 결과에 의하면 지역의 핵심문제에 관한 153건의 응답 중 자본의 부족을 84건, 훈련의 부족을 69건 응답하였으며, 2017.6.13. 지역주민 38명이 참여적 조사 방법으로 문제나무 분석한 지역의 핵심문제는 훈련의 부족(20건), 자본부족(14건), 직업부족(4건)으로 나타남

조사 결과 Kamembe 지역 1인당월평균소득은 2.46USD(약2,763원), 1인당 1일 소득은 92원으로서, World Bank 자료상 2016 Rwanda 일인당 월 소득 58.57USD 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피그미마을주민들은 대부분 아무런 소득이 없고 구걸로 생활하고 있으며, 난민으로서 비교적 성공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는 비즈니스맨들을 조사대상에 포함한 키갈리 인근지역 난민들의 경제상황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2USD [그러나 월평균 지출 143USD, 총25가구 소득 2539300FR = 101572FR], 1인당월평균소득: 18.51USD (20,787원), -1인당 1일소득 :692월 (0.62USD)으로서 1인당 하루 1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과 소득이 지출에 미치지 못하는 마이너스의 경제생활을 하고 있음

04 변화의 영역

가. 주목 분야

르완다의 2013-2018 경제개발 및 빈곤감소 전략 (EDPRS : Economic Development and Poverty Reduction Strategy)[02]의 핵심내용인 1) RURAL DEVELOPMENT (Integrated Approach to Land Use and Human Settlements, Increase the Productivity of Agriculture, Enabling Graduation from Extreme Poverty, Connecting Rural Communities to Economic Opportunity through Improved Infrastructure), 2) PRODUCTIVITY AND YOUTH EMPLOYMENT (Skills and Attitudes, Technology, Entrepreneurship, Access to Finance and Business Development, Labour Market Interventions)의 목표에도 부합함

가장 주목하는 분야는 지역에 존재하지만 발굴되지 못한 자원을 활용하여 개인과 지역사회를 개발하는 자산개발훈련과 이를 소득창출에 적용한 직업훈련이며, 이 지역에 존재하는 난민들도 단지 부담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귀한 자산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부룬디 난민들 가운데 농업 및 축산과 디자인 및 소규모 창업 분야 전문가 및 교육훈련 강사자원 다수 발견하였고 난민들의 자산을 조사하고 활용하는 사업이 필요함

다만 대상지역은 기본적으로 농업지역이므로 농축산분야 기술훈련을 모체로 하되 인적자산을 포함하여 지역에 존재하지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자산을 발굴 개발하여 지역을 개발하는 자산개발훈련과 농축산관련 기술훈련을 하면서 국가나 지역개발전략목표에 따라 농업분야적정기술을 활용하고 가공하여 부가가치 창출하는 기업경영의 방향으로 소득창출하는 직업훈련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지역의 개발교육분야로 제시될 수 있음

나. 현지의 수요 및 상황

본 지역조사에서 지역주민들은 희망하는 지역 개발사업으로 (1)농업분야에서 감자, 배추, 아마렌스(이무기샤, 랭갈랭가, 비테쿠테쿠), 양념용야채(양파,토마토,당근,마늘), (2) 축산분야에서 토끼, 염소, 돼지, 닭 (3) 가공(수공업)분야에서 봉제, 가게, 가공, 미용, 비누(염색), 목공, 정비, 컴퓨터 등을 제시하였음

적지 않은 주민들이 Business (selling - food, vegetables, clothing)에 대한 희망을 나타냈으나 팔거나 사업화하려고하는 음식, 야채, 혹은 옷감들에 관한 기본적 훈련기회가 부족하고 창업할 수 있는 초기자본이 없어 사업화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으므로 현재있는 자산을 활용하여 소득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자산개발과 직업훈련이 절실함

현 르완다 정부는 농민들이 100명이상 모여서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그들을 조력해줄 공인된 NGO가 있으면 25ha의 땅을 5년간 임대해 주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Kamembe

01 http://statistics.gov.rw/file/1710/download?token=vOzqaMb3

02 http://www.rdb.rw/uploads/tx_sbdownloader/EDPRS_2_Main_Document.pdf

지역 주민들은 HfL의 조력으로 Gihundwe 230가구, Giheke 500가구가 모여 정부로부터 각 25ha씩 총 50ha를 정부로부터 임대분양받아 농작물 경작과 축산을 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상태이며 Focus Group Discussion 조사 결과 대부분의 농민들은 Irish Potato를 키우고 싶으나 발달된 농업기술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어 기술훈련을 받는것과 농기구 및 농축산업에 필요한 도구들을 마련할 방법을 찾고 있는 상황임

다. 사업대상 분야(Target Area)의 지표 및 기초선

지역 조사가 이루어진 Rusizi지역의 16세 이상의 취업률은 77.9%, 실업률 0.6%, 비경제활동율 21.6%로 전국에 비하여 실업율이 높고(표5.1, 전국 평균 취업률은 84%, 실업률 0.9%, 비경제활동율 15%), 취업자의 대부분인 69.7%가 농업에 종사하고 13.7%가 장사, 기타 산업은 5% 미만임(표5.3)

지역조사 결과에 의하면 Kamembe 지역의 1인당월평균소득은 2.46USD(약2,763원)으로서, World Bank 자료상 2016 Rwanda 일인당 월 소득 58.57USD 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난민들의 경제상황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2USD [그러나 월평균 지출 143USD, 총25가구 소득 2539300FR = 101572FR], 1인당월평균소득: 18.51USD (20,787원), -1인당 1일소득 :692월 1인당 하루 1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과 소득이 지출에 미치지 못하는 마이너스의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지역의 빈곤은 근본적으로 훈련의 부족에 기인하며, 지역에 존재하는 자산이 있어도 이를 활용하고 소득원으로 개발하는 능력의 부족에 기인하는 바, 이는 지역주민 38명이 참여적 조사 방법으로 문제나무 분석한 지역의 핵심문제로 지적한 훈련의 부족(20건) 및 초기자본의 부족(14건)과 이로 말미암은 직업부족(4건)과 일치하므로 르완다 Kamembe등 이주난민거주지역에서 자산개발 및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여 일자리와 소득활동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경우 자산개발, 기술, 및 창업훈련기회제공량 내지 훈련참가연인원(훈련제공 일수 ×참여자수)을 지표로 삼을 수 있는 바, 현재 이 지역에서 제공되고 있는 자산개발 및 직업훈련 기초선은 0임

이 지역에서 Rwanda Aid와 Compassion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아동구호이며, World Vision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IT관련 교육이므로 성인대상 농축산을 기반 개발 및 직업교육은 부재함

라. 단체의 특성과의 연계

신청단체는 재한 외국인난민지원 전문단체로서 2016년 말 현재 국내에 난민신청한 22,792명의 세계 각국 출신 난민들의 난민신청절차, 숙소, 생활, 직업, 교육, 개발 및 커뮤니티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2015년 4월이래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한 30명 가량의 부룬디난민들이 르완다 등 주변국에 흩어진 자국 출신 난민들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활동을 전개하고자 하며 광주대학교수가 된 욤비토나를 비롯한 150명 가량의 콩고출신 난민들도 자국 난민들이 흩어진 주변 지역개발과 평화재건에 참여하고자 하므로, 콩고 및 부룬디 국경지역인 르완다 Kamembe 지역을 중심으로 난민들이 지역사회개발과 평화회복 활동에 기여하여 본국귀환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신청단체는 국내에서 2014년부터 콩고난민과 부룬디난민을 포함한 외국인난민들을 대상으로 지역개발CDE훈련(Community Development Education: Wholistic and Participatory Community Development Training)을 실시하고 있으며, KOICA지원사업으로 2015년에 미얀마 카야주 로이코에서 '미얀마 귀환난민 재정착지원을 위한 로이코지역 개발사업'으로 양어장과 양계장을 통한 지역커뮤니티 개발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어, 이들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사업대상지역을 옮겨 콩고 및 부룬디 국경 르완다 지역에서 유사사업을 재개하고자 함

05 자료 출처

(1) 르완다 2차 5개년 국가 개발계획

EDPRS : Economic Development and Poverty Reduction Strategy

http://www.rdb.rw/uploads/tx_sbdownloader/EDPRS_2_Main_Document.pdf

(2) Rusizi (Kamembe) 지역개발계획

REPUPLIC OF RWANDA WESTERN PROVINCE RUSIZI DISTRICT, DISTRICT DEVELOPMENT PLAN 2013-2018, 2013.6

http://rusizi.gov.rw/fileadmin/_migrated/content_uploads/DISTRICT_DEVELOPMENT_PLAN_DDP__2013-2018_FINAL.pdf

(3) 르완다 Rusizi (Kamembe) 지역 현황

ICV3 DISTRICT PROFILE : Rusizi

Fourth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rwanda 2012 :Rusizi

http://statistics.gov.rw/old/publications/eicv-3-rusizi-district-profile

(4) 르완다내 난민상황 :

http://www.unhcr.org/rw/wp-content/uploads/sites/4/2017/02/UNHCR-Rwanda-Monthly-Factsheet-March-2017.pdf

06 기타 활동 자료 (사진 등)

01 문제나무 진행
02 초점그룹토의 진행
03 양돈장 현장관찰
04 이해관계자 미팅

향후 계획

(1) KOICA 민관협력사업신청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주난민거주지역에서 지역의 내부자산을 개발하고 기술을 훈련하는 민관협력사업을 신청하여 지역에서의 자산개발 및 직업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일자리와 소득활동 창출하여 지역의 경제·사회 환경을 강화하는 사업을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함

(2) 난민자산조사

난민은 부담이 아니라 자산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르완다에 체재하는 난민들이 가진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자산들을 재조사하고 위 지역개발사업에서 난민들의 자산도 적극 개발되고 활용되도록 하게 하고자 함

PART 20

[공공행정]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시행일자	2017년 4월 29일(월) ~ 6월 29일(금) (총 60일)
지역	미얀마 양곤

2017년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지역조사(사업형성조사) 결과보고서

기본정보					
단체명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작성자	박 장 우	
단체현황	현지 지부			☐ 있음	☑ 없음
	NGO 등록			☐ 있음	☑ 없음
	KOICA 협력사업 수행 경험 유무			☑ 있음	☐ 없음
사업 분야	공공행정		코드번호		
조사 목적	미얀마 양곤 지역 장애인 이동권 실태 조사 및 사업 기회 발굴				
대상 국가 및 지역	국 가	미얀마	지 역	양곤	
	수도인 네피도에서 약 320KM / 양곤 국제공항에서 15km 거리				
조사기간	전체 조사 기간	2017년 4월 29일(월) ~ 6월 29일(금) (총 60일)			
	현지 체류기간	6월 15일 ~ 6월 24일 (총 10일)			

조사 목적

chapter 01

- 본 법인이 현재 베트남 호치민에서 진행 중인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을 미얀마의 옛 수도인 “양곤” 지역으로 확대 제공할 수 있는지 양곤 지역 장애인들의 욕구 및 사업 가능성을 확인한다.
- 양곤 지역 거주 장애인의 욕구 조사를 통해, 양곤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외, 시급한 욕구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파일럿 프로그램의 수정 및 변경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다.
- 미얀마 복지정책 및 지역서비스를 통해 양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실현의 가능성을 확인한다.
- 장애인 자립생활을 통해 장애인 조직들과 연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기금을 개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 및 환경을 확인한다.
- 양곤 거주 장애인들의 생활, 직업, 소득수준 등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여 사업 발굴 및 개발에 필요한 기초 데이타를 수집한다.
- 대상 중 여성/아동/빈곤의 범 분야 이슈의 데이타를 조사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운동에 미 칠 수 있는 영향을 확인한다.

조사 결과

chapter 02

01 일정별 조사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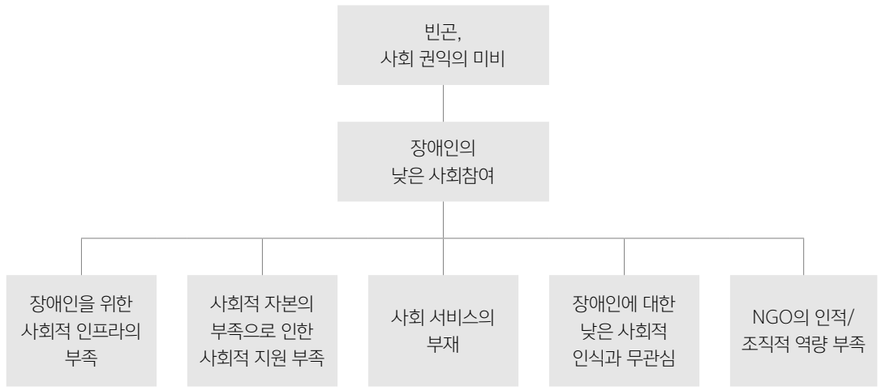
기 간		활동 내역 약술
국내	2017.05.08 ~ 12	▪ 자문위원 회의, 현지 조사 계획 점검 및 현지 파트너 점검
	2017.05.15 ~ 31	▪ 국내 미얀마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 현지조사팀 구성 (사업책임자, 실무자, 장애인 전문가) ▪ 미얀마 유학생 자문 요청 및 현지 조사 계획 확정
	2017.06.28 ~ 30	▪ 현지 조사 데이터 점검 및 분석 ▪ 조사 결과 검토 및 파일럿 사업계획 수립
현지	2017.06.15	출국, 미얀마 양곤 도착
	2017.06.16	MPHA 방문 / 조사계획 현지 점검
	2017.06.17	Dala 지역 방문 / 현지 조사
	2017.06.18	장애인 생활환경 조사
	2017.06.19	presidential nursery Mary Chapman School
	2017.06.20	현지 장애인 그룹인터뷰
	2017.06.21	현지 장애인 방문 인터뷰 (랑다야 인근)
	2017.06.22	KOICA Handicap Infernafinal
	2017.06.23	현지 조사 활동 및 조사 데이터 점검
	2017.06.24	귀국

02 조사 항목 및 방법

	조사 항목	조사 방법	조사 기간
1	지역정보	간접조사(문헌), 직접조사 (현지 NGO 활동가 인터뷰)	2017. 05. 08 ~ 06. 24
2	분야별 이슈	간접조사(문헌), 직접조사 (현지 거주 장애인 그룹 인터뷰, 가정 방문 등)	2017. 05. 08 ~ 06. 24
3	지역 내 타 기관 활동 현황	직접조사 (HI 현지 담당자 인터뷰, KOICA 미얀마 사무소 방문)	2017. 06. 22
4	이해관계자 정보	직접조사 (현지 장애인 지역 공동체 방문)	2017. 06. 21
5	범분야 이슈	간접조사 (문헌), 직접조사 (현지 여성장애인 방문, 장애아동보호센터 방문)	2015. 06. 19

03 조사 결과 분석

1) 문제 분석



- 미얀마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회참여 미비로 인한 빈곤 및 인권에서의 소외, 그리고 정상화의 부재와 주류화에서의 소외에 있음.

- 미얀마 장애인에게 발생하는 모든 문제가 낮은 사회참여로부터 비롯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근본적인 욕구의 발현과 사회환경 개선을 위해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통한 사회적 기반 조성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며, 이를 위한 직업 및 자체적인 소득원을 갖춰 나가야 함.
- 장애인이 주체적으로 경제활동 속에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 함과 동시에 장애인 시민사회 내부에서 활용 가능한 사회적 자본의 축적과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사회서비스의 확산이 미얀마 내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임.
-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지역사회 속에서 장애인과 사회의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본질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음.
- "사회적 경제를 활용한 직업 창출 및 소득 증대 프로젝트"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생활, 그리고 장애인 지역 사회 정착과 통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당사자주의 활동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없다면 그 어떤 노력도 제한적이고, 편중된 결과만을 양산할 것임.
- 조사 결과 우리는 미얀마 내 장애인들을 당당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인식되도록 인식개선 활동을 추진함과 동시에 장애인 스스로의 결정권을 확대하고, 삶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경제적 안정을 도모해 사회적 변화를 추동하기 위한 협력 사업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음.

2) 목표 분석

- 본 사업의 핵심 목표는 미얀마 현지에 장애인 사회적 경제의 기반을 확대하고, 양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협동조합과 수익사업을 통해 양곤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임.
- 현지 장애인 시민사회 내부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2명의 현지 장애인 활동가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해, 사업목표 공유 및 인적 교류를 강화하고, 현지의 사회인식 개선 및 우호적인 사회기반을 조성함.

3) 이해관계자 식별 및 분석

이해관계자		위치			위치한 이유	강점 및 약점	위치변화전략
		0	-	+			
1	현지 거주 장애인			+	사업의 대상자로 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 정도 향상	· 강점 : 사회참여 욕구 높음 · 약점 : 사회기반 미비 및 인식 부족	· 교육을 통한 태도의 변화 유도
2	현지 장애인 NGO			+	현지 장애인 지원영역 확대 및 사업영역 확대의 기회 및 사회적활동의 역량 강화의 기회	· 강점 : 현지 조직/역량 높음 · 약점 : 사업목표에 대한 공유의 질적 부족 가능성	· 사업목표 공유강화 / 인적 교류를 통한 차이 극복
3	현지 정부	0			해외 지원을 통한 사회적 자본 확충의 기회이나, 적극적 협력에는 미온적 가능성	· 강점 : 현지의 인프라/사업 역량 강함 · 약점 : 사회적 인식의 차이로 인한 태도 차이 큼	· 사업적 협력을 통한 태도 변화 및 협력관계 구축
4	현지 한인/한인회 (기업 포함)	0			현지화 및 이미지 개선 등의 기회를 얻을 수 있으나, 비용이 수반되는 협력에는 미온적일 가능성 높음	· 강점:언어/현지적응도 · 약점:비용/업무증가에 따른 부담감	· 협력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적극적 협력자로 변화 유도
5	현지 일반 시민	0			사회적 인식 미비로 인한 무관심	· 강점:현지사회의 실질적 구성원 · 약점:인식의 질 낮음	· 인식개선 교육 / 지역활동을 통한 적극적인 스킨십

04 변화의 영역

1) 지역정보 - 주요 자료 출처 : KOTRA 국가정보

- 조사기간 : 2017. 05. 15 ~ 31 (국내), 2017. 06. 16 ~ 17(현지)
- 조사방법 :
  1. 한국에서 조사 가능한 문헌정보 수집 / 분석
  2. 현지 NGO 및 현지 공무원 인터뷰 등.

- 조사결과 :

• 지역정보 (일반 약황)

- 국명 : 미얀마 연방 공화국(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 수도 : 네피도(Naypyidaw)
- 위치 : 동남아시아 중국 남방 인도차이나 반도 서북부
  동부는 태국 및 라오스, 북부는 중국, 서부는 인도 및 방글라데시와 접경
- 경위도 : 동경 98°00′ , 북위 22°00′
- 주요도시 : 양곤, 만달레이, 삔바마, 빠떼인, 바고, 삐 등.
- 면적 : 676,578Km2 (한반도의 약 3.5배) / 해안선 1,930Km
- 인구 : 5,689만 명(2015년 기준)
- 기후 : 열대 계절풍 기후
  - 연 평균 기온 : 27.08℃
  - 연 평균 강우량 : 2,513㎜ (한국의 2.5배)
- 민족 : 버마족(70%), 소수족(샨, 카렌, 카친, 몬, 친족 등) 130여 종족(25%), 기타, 중국 계(3%), 인 도계(2%)
- 언어 : 미얀마어
- 종교 : 불교 89.4%, 기독교 4.9%, 이슬람교 3.9%, 힌두교 0.5%, 토속신앙 1.2%, 기타 0.1%
- 평균수명 : 65.65년(2013년 기준)
- 정치체제 : 대통령제
- 국 회 : 단원제

- 주요 경제지표 (2015)
  - GDP(국내총생산) : 약 683억불(잠정)
  - 1인당 GDP : 1,3006불(잠정)
  - GDP 성장률 : 8.072%(2016년)
  - 물가상승률 : 9.835%(2016년)
  - 교역 : 277억불 (수출 : 111억불 / 수입 : 166억불)
  - 화폐단위 : 짯(Kyat)
  - 산업구조 : 농업(37.1%), 산업(21.3%), 서비스업(41.6%)(2015년, CIA)
- 시차 : 한국보다 2시간 30분 늦음 (GMT+7)

• 지역정보 (한국-미얀마)

- 체결협정
  - 무역협정(1964년 체결, 1967년 개정)
  - 뉴스교환협정(1972년)
  - 항공협정(1978년)
  - 임업약정(1999년)
  - 이중과세방지협정(2002년)
  - 서비스무역협정(2007년)
  - 외교관 및 특별여권 비자면제협정(2011년)
  - 투자보장협정(2014년)
- 교역규모
  - 한국의 대미얀마 2015년 교역규모
  - 수출 : 6억 5,989만 달러
  - 수입 : 5억 567만 달러
- 교역품
  - 수출 : 철강, 직물, 수송기계, 섬유제품, 플라스틱제품, 산업기계
  - 수입 : 섬유제품, 농산물, 신변잡화, 광물성연료, 공예품, 비철금속제품
- 투자교류
  - 미얀마 투자위원회 승인 기준(2016년 11월 말 기준) : 131건, 승인(35억 614만 달러)
  - 한국수출입은행 신고 기준(2016년 9월 말 기준) : 640건, 승인(50억 1,929만 달러), 투자(26억 4,040만 달러)

– 교민 : 약 3,106명(2015년 5월 기준)

• 지역정보 (역사 요약) – 주요 자료 출처 : KOTRA 국가정보

– 근대 이전

문자로 기록된 미얀마의 고대역사는 매우 빈약하지만 미얀마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대 략 기원 전후로 추정되고 있다. 불교 전통 및 설화에 따르면 부처님이 재세시 미얀마를 다녀 갔으며, 부처님의 머리카락을 받아와 보관했다고 한다. 미얀마가 속한 동남아시아는 중국권 및 인도권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중국과 가까운 베트남의 경우 중국의 영향을, 인도와 가까운 미얀마의 경우 인도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미얀마인은 당시 인도에 속했 던 티벳계 인종으로 알려져 있다.

흩어져 살던 미얀마인이 최초로 통일왕국을 수립한 것은 1044년으로, 아나와타 왕이라는 걸출 한 인물이 미얀마 북서부 지역의 바간(Pagan)을 중심으로 왕국을 건설하면서부터다. 이 왕조는 불교를 숭상해 바간 지역에 대규모 불사를 일으켜 오늘날 앙코르와트에 버금가는 대규모 불교 유적을 남겨놓았으며, 오늘날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미얀마 최대의 관광 상품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왕조는 불사로 인한 재정압박으로 1287년 몽고의 쿠빌라이 칸에게 멸망 당했다. 통일왕 국이 무너지면서 약 300년간의 혼란기를 마무리한 것은 따웅우(Taung Oo) 왕조의 바잉나잉 왕이었다. 그는 수도를 양곤 인근의 바고 지역으로 옮기고 국력의 배양에 힘쓰는 동시에 1564년 과 1569년 태국을 침공, 당시 수도인 아유타야(Ayuthaya)를 점령, 약탈하기도 해 오늘날까지 미 얀마와 태국이 서로를 경계하는 역사적 배경이 됐다.

– 영국 식민지 시대

미얀마의 근대사는 여타 아시아 제국과 마찬가지로 서세동점에 따른 서구열강의 침략과정이 라고 할 수 있다. 인도를 식민지화한 영국은 점차 동쪽으로 세력을 확산하는데, 미얀마 남부의 대규모 곡창지대를 주목하게 된다. 결국 영국은 1824년, 1852년, 1885년 세 차례의 전쟁을 거쳐 미얀마를 식민지로 지배했는데, 특이한 것은 이때 영국의 직할식민지가 아니라 인도의 한 부속 지로 편입시킨 것이다. 영국은 인도인을 미얀마에 이주시켜 식민지 하급관리, 상업 등에 종사하 게 했다. 오늘날 미얀마에

서 인도계 미얀마인을 볼 수 있는데, 2차 대전 후 상당수 인도인이 인도로 복귀했으나 인도계 무슬림 등이 일부 남아 50만 명 정도가 미얀마에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식민시대 미얀마의 경제활동은 농업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이 미얀마를 쌀 수출 식민기지로 육성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미얀마 농업은 종전 왕조시대의 자급자족적 농업에서 수출산업 의 의미를 가지게 됐다. 1830년대 미얀마에 상륙한 영국 상인들은 미얀마의 풍부한 쌀에 주목, 수출독점권을 확보해 미얀마 남부의 라카인주(Rakhine State)를 거점으로 영국의 공산품과 미얀 마산 쌀을 교환해 인도의 마드라스 항구로 수출했다.

1865년 이전 미얀마 북부는 여전히 만달레이에 수도를 둔 미얀마 왕조가 통치했으며 인구 구성 도 북부가 360만 명, 남부가 150만 명으로 북부가 미얀마의 중심적 역할을 했다. 그러다 본격적 인 쌀 중심의 농업생산이 영국의 관심사가 되면서 풍부한 수량과 비옥한 남부 이라와디 델타 (Irrawaddy Delta)지역이 본격 개발되기 시작했으며, 인구 증가와 함께 미얀마 남부로 인구의 대 이동이 일어났다. 1891년 미얀마 인구구성은 북부 340만 명, 남부 470만 명으로 역전돼 이와 같 은 인구 비율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라와디 델타지역은 미얀마 농업의 핵심으로 미얀마의 브레드 바스켓(Bread Basket) 역할을 하고 있다.

미얀마의 쌀 수출은 1869년 수에즈 운하의 개통과 함께 비약적으로 증가했으며, 이후 중동 및 아시아,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로 수출됐다. 1901년 벼 식부면적은 1000만 에이커, 쌀 수출량은 220만 톤, 1941년에는 식부면적 1252만 에이커, 쌀 수출이 279만 톤을 기록했다. 식민시대 미얀 마산 쌀 수출은 200만 톤 이상을 유지했는데, 1934년에는 최고치인 337만 톤을 수출했다. 이때 일반 농민들은 헐값에 벼를 중간상에게 넘기게 돼 어려움을 겪게 됐으며, 상당수 농민들이 농토를 잃고 소작농으로 전락했다.

이 시기 영국인이 쌀의 유통 및 수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는데, 이들은 수출에 편리한 항구에 대규모 도정공장을 설립하고, 중간상을 통해 사들인 벼를 도정, 해외로 직접 수출했다. 중 간상은 브로커나 상인들로서 영국인들의 의뢰를 받아 산지 농민 또는 지주들로부터 벼를 구매, 항구까지 운송하는 책임을 맡았으며, 영국인들로

부터 커미션을 받는 것 외에 매매차익까지 거두었다. 영국인들은 벼의 운송을 위해 이라와디 델타지역을 중심으로 다수의 소규모 운하를 건 설했는데 이들은 오늘까지도 주요 운송수단이 되고 있다. 식량수송을 위해 1877년 양곤과 삐 (Pyi) 사이에 미얀마 최초의 철도가 개설됐으며, 이후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가 속속 건설 돼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미얀마는 다민족국가이다. 영국 식민지 정부는 미얀마인 중 버마인보다 주로 산악지역에 거주 하는 소수민족을 하급관리, 군인 등으로 등용하고 기독교를 전파했다. 그 결과 현재도 버마인이 대부분 불교도인데 반해 소수민족은 기독교인이 많다. 식민지 정부는 통치기술의 하나로 민족 간 갈등을 이용한 측면이 있다고 하며, 미얀마 독립 시 단일국가체제가 아닌 연방국가체제가 된 것은 이와 같은 민족적 요소가 고려된 결과이다.

- 고립적 사회주의 시대

2차 대전 후 1945년 미얀마는 아웅산 장군을 중심으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했으나, 정부 수립 와중에 독립영웅인 아웅산 장군이 암살되는 등 정치적 혼란은 계속됐다. 1948년 미얀마 최초의 민간정부가 수립됐으나 혼란은 계속됐으며, 독립투쟁의 시기에 형성된 군부세력이 민간정치세력을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미얀마의 통치 엘리트로 등장할 소지를 제공하게 된다. 결국 1962년 3월 군 총사령관인 네윈 장군을 중심으로 쿠데타가 성공해 미얀마는 군사통치 시대를 열게 됐다. 네윈은 당시 동서냉전의 시대에서 사회주의와 불교사상에 입각해 이른바 '버마식 사회주의'를 도입하고 사유재산제도의 폐지, 계획경제의 도입은 물론 대외적으로 폐쇄적, 자급자족적 고립경제체제를 채택했는데, 이러한 네윈의 선택이 결과적으로 한 때 동남아의 부국이었던 미얀마를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시킨 결정적 요인이 된다.

네윈은 버마식 사회주의(Burmese way to Socialism)를 기치로 토지, 기업의 국유화를 포함한 계 획경제체제로 돌입했고, 농민 및 노동자를 내세우며 농업에 가장 큰 역점을 두게 됐다. 사회주의 이념의 추구에 따라 모든 토지는 국유화됐고, 따라서 생산주체인 농민에게는 토지의 경작권만 주어졌다. 작물 선택, 재배 등 수확 전 활동과 유통, 수출 등 일체의 수확 후 활동은 정부의 계획에 따라 시행됐다. 정부는 농가의 자가소비분을 제외한 벼를 전량 독점 수매하고 이를 도시민 및 쌀 부족지역을 포함한

전국에 배급했으며 대부분의 시장기능은 정지됐다. 1963년 군사 정부가 발표한 포고령에 따르면 벼를 포함한 42개 농작물의 수매, 저장, 판매, 도정과 쌀 및 쌀 관련제품의 배분, 수출은 정부 및 정부기업만이 수행할 수 있다고 해 농업의 수확 후 활동에 있어 민간부문을 완전히 배제시켰다.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1988년 양곤 대학생을 중심으로 민주화시위가 일어나 결국 네윈이 퇴진하고 딴쉐를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했다. 신군부는 1990년 5월 총선거를 실시했으나, 아웅산 장군의 딸인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NLD가 총 485석 중 392석을 차지했다. 그러나 군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1990년 7월부터 2010년 11월 13일까지 아웅산 수치 여 사의 가택연금과 계엄령 선포로 대응했다. NLD는 지속적으로 군사정권에 대해 1990년 5월 총 선결과의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 왜곡된 시장경제 체제

1988년 집권한 신군부는 종전의 고립적, 폐쇄적 대외경제제도를 대폭 정리, 대외교역 및 투자 활성화를 국가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1988년 외국인투자법을 도입, 외국인투자 활성화에 나섰다. 권력의 최대 기반인 농민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해 쌀과 식용유의 공급안정에 최대의 역점을 두었고, 부족한 외화 확보를 위해 천연가스를 집중 개발했는데 해상 천연가스는 거의 외국인투자자에 의해 개발됐다. 하지만, 미얀마 경제체제는 군부 아래에 시장경제체제와 사회주 의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를 띄고 있고, 현재도 이러한 형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형식상 민간경제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고 있으나 정부의 직접적인 간섭과 규제를 벗어나지 못하며, 필요에 따라 정부는 초법적으로 수시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그 결과 미얀마는 '법에 의한 지배' 보다는 '권력에 의한 지배'가 일상화됐고, 이는 외국인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1962년 사회주의 도입과 더불어 미얀마의 경제발전은 정지 또는 후퇴의 과정을 겪었다. 미얀마는 '황금의 나라'라는 별칭과 함께 '시간이 멈춘 나라'라는 별칭이 있는데, 미얀마의 경제 시계는 일부 영역을 제외할 경우 제조업, 금융업, 농업, 광업, 기타 서비스업 등 대부분 산업이 1962년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미얀마의 산업이 어느 수준에 있는가를 알아보려면 한국의 1960년대를 생각하면 된다고

한다. 1960년대 초를 기준으로 한국은 개방경제를, 미얀마는 폐쇄경제를 선택했고 그 선택이 오늘날의 차이를 만들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1960년대 초 이전에는 미얀마가 한국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였다.

- 개방적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

1962년부터 지속되던 군부통치가 마무리되고 2011년 3월 30일, 테인 세인 대통령이 미얀마 민선 정부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정부 출범 시 국내외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테인 세인 대통령은 수치여사 감금 해제(2010.11.13.) 및 해외활동 허용, 반체제인사 블랙리스트 해제, 언론 검열 철폐, 시장환율 도입, 수출입 인허가 제도 폐지 등 개혁 및 개방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2012년 7월 1일 대통령의 개혁 및 개방정책에 반대하던 친군부 성향의 아웅 민 트 우 부통령의 사임은 정부 내 반개혁파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계기가 됐으며, 이후 개혁성 향 인사의 대거 등용을 통해 친정체제를 강화했다. 또한, 테인 세인 대통령 정부는 전력난 해소, 도로망 개선, 국민주택 확대, 신규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확대, 공무원 월급 인상 등 국민들의 체감에 직접적인 정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2011년 테인 세인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일부 반개혁적 친군부 성향의 인사가 사임한 바 있으나, 군부가 여전히 헌법에 의거해 국방부, 내무부(경찰관할), 국경부 장관의 지명권을 보유 하고 있으며, 신정부의 국방부에 대한 감사 권한이 없어 군부의 활동에 대해 직접적인 관여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군부는 산하의 MEC(Myanmar Economic Corporation)와 UMEHL(Union of Myanmar Economic Holdings Limited)라는 2개의 지주회사를 통해 자원개발, 농수산, 건설, 무역 등 미얀마 경제의 최소 60% 이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종래에 비해 다소 약화됐다고는 해도 여전히 정치·경제적으로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아울러, 국방비는 미얀마에서 가장 큰 정부지출 항목 중의 하나다. 미얀마의 육해공 병력은 4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불교승려의 경우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약 40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테라바다 불교 특성상 세속적인 관심보다 개인 수도에 역점을 두기 때문에 정권에 커다란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러 나, 2007년 9월의 시위사태에서 젊은 승려들이 대규모로 시위에 참가한 점을 볼 때 언제든 이 러한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 군부뿐만 아니라 미얀마 정부 역시 불교 및 승려에 대해 많은 배려를 하고 있으며, 군부 실세들이 직접 고승들을 찾아 인사를 하고 선물을 전달하는 광경을 수시로 볼 수 있다. 최근에는 불교승려들이 정치적인 문제보다는 환경보호, 종교갈등, 소수민족 보호 등과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발언 및 참여를 확대하는 추세이다.

과거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학생들에 대해서는 군사정부가 예방조치로 민주화 운동의 중심인 양곤 대학 자체를 수년간 폐교한 적이 있으며, 이후 도심에서 떨어진 곳으로 학교를 이 전해 학생중심의 민주화 운동의 불씨를 차단한 바 있다. 그러나 테인 세인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에는 계속되는 개혁과 개방조치로 인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이들의 반감이 많이 줄어들었으며, 취업 및 창업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1988년 시위를 주도 했던 반정부 인사들도 테인 세인 대통령 정부의 대대적인 정치범 석방 및 블랙리스트 제외로 대부분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 또한 반정부 시위보다는 노동환경 개선, 환경보호, 소 수민족 보호 등과 사회적인 문제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 NLD 당의 집권

2015년 11월에 이뤄진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여사를 대표로 했던 NLD당이 당시 테인 세인 대 통령이 속해있던 USDP당으로부터 총선에서 승리해 집권당이 됐으며, 2016년 3월에 진행된 대 통령 선거에서도 NLD당의 틴쩌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됐다.

NLD당은 대통령 선거 전까지 아웅산 수치여사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될 수 있도록 관련 수정법 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으나 결국 통과되지 못했고, 아웅산 수치여사는 국가자문역이라는 직책을 부여 받고 국가정치에 깊이 관여를 하게 됐다. 2016년 중반까지 국정 운영시 세수정책, 교육정책, 노동정책, 투자정책 등에 관련한 전반적인 개혁정책을 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기존 정권의 잔재를 처리하는 중으로 크게 정책 변경이 없었으며, 임명된 장관과 차관이 행정실무를 담 당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빠른 변화의 움직임을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이 서방세력의 전폭적 지지와 일본, 중국 등의 지원, 2016년 말 외국인과 현지인 통합투자법의 제정, 신규 프로젝트 창출, 노동법 및 기타 법률 제정 등의 움직 임이 있다.

• 지역정보 (정치 체제 및 정국 현황) - 주요 자료 출처 : KOTRA 국가정보

- 행정조직

미얀마의 정치체계는 대통령 중심제이며, 2008년 5월 국민투표로 채택된 신헌법에 따라 2010 년 11월 7일 총선이 실시돼 2011년 1월 31일 의회가 구성됐다. 2011년 2월 4일에 개최된 연방 상하원 합동의회에서는 상·하원 및 군부에 의해 각각 추천된 3명의 부통령 중 하원 추천 부통 령인 테인 세인(Thein Sein) 총리를 임기 5년의 미얀마 민선 정부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부통령은 3명에서 2명으로 바뀌었으며, 군 출신 의원단이 추천한 냔툰(Nyan Tun)과 상원에서 추천한 사이 마욱 캄(Dr. Sai Mauk Kham)이 부통령이 됐다. 또한 기존의 군정 통치 기구인 국가평화발전위원회(SPDC)는 2011년 3월 30일 테인 세인 대통령 정부 출범을 계기 로 미얀마 정부에 모든 권한을 이양하고 해체됐다.

2016년 3월 15일, 연방 상하원 합동의회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지원하는 하원의 NLD당 띤 쩌(Htin Kyaw)가 미얀마 두 번째 민선 정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본 의회는 2015년 11월 8일 미얀마의 첫 민주선거라 할 수 있는 총선으로 뽑힌 의원들로 구성돼 있으며, 아웅산 수치 여사 가 이끄는 NLD(민주주의 민족동맹당)이 전체 의석 664석에서 390석을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미얀마 국민들이 구성한 의회가 뽑은 띤쩌 대통령은 미얀마의 첫 민주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 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부통령으로는 군부의 민 스웨(Myint Swe)와 상원의 NLD당 헨리 벤 띠우 (Henry Van Thio)가 됐다.

테인 세인 대통령 정부 조직은 대통령실 6개 부처와 연방정부 36개 중앙부처로 구성돼 있었으나, 2016년 4월 신정부 출범과 함께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목표로 정부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2016년 7월 현재 미얀마 정부 조직은 대통령실 2개 부처와 연방정부의 20개 중앙부처 로 구성돼 아래와 같다.

- 미얀마 연방정부 부처(Ministry)

- Ministry of President Office / www.president-office.gov.mm
  Office : President Office, Nay Pyi Taw / Tel : 067-409077 / Fax : 067-409559

- Ministry of State Counsellor Office / www.president-office.gov.mm/counsellor office

Office : President Office, Nay Pyi Taw / Tel : 067-409077 / Fax : 067-409559

- Ministry of Agriculture, Livestock and Irrigation / www.moai.gov.mm
  Office No.15, Nay Pyi Taw. / Tel : 067-410004 / Fax : 067-410130, 410013
  E-mail : moai.myanmar@gmail.com

- Ministry of Commerce / www.commerce.gov.mm
  Building 3, Nay Pyi Taw. / Tel : 067- 408002 / Fax : 067- 408004
  E-mail : moc@commerce.gov.mm

- Ministr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 www.mcit.gov.mm
  Office No.2, Nay Pyi Taw. / Tel : 067-407158, 407037 / Fax : 067-407347, 407444

- Ministry of Construction / www.construction.gov.mm
  Office No.11, Nay pyi taw / Tel : 067-407584 / Fax : 067-407181
  E-mail : pwscon@construction.gov.mm

- Ministry of Culture and Religious Affairs / www.culture.gov.mm
  Office No.35, Nay Pyi Taw. / Tel : 067-408025, 408023 / Fax : 067-408024
  E-mail : moculture@gmail.com

- Ministry of Defence / www.mod.gov.mm
  Office No.20, Nay Pyi Taw. / Tel : 067-409091/96

- Ministry of Education / www.myanmar-education.edu.mm, www.moemyanmar.net
  Office No. 13, Nay Pyi Taw. / Tel : 067-407131, 407121 / Fax : 067-407461
  E-mail : moemyanmarwebmaster@gmail.com

- Ministry of Electric Power and Energy / www.moep.gov.mm, www.energy.gov.mm
  Office No.2, Nay Pyi Taw. / Tel : 067-410666, Office No. 33, Yangon. / Tel : 01-215666

- 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 / www.mnped.gov.mm, www.mof.gov.mm
  Office No.26/34, Nay Pyi Taw. / Tel : 067-410184/5 / Fax : 067-410189

- Ministry of Resources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 www.moecaf.gov.mm, www.mining.gov.mm
  Office No.28, Nay Pyi Taw. / Tel : 067 - 405004 / Fax : 067-405071
  E-mail : mofpma@mptmail.net.mm

- Ministry of Health & Sports / www.moh.gov.mm
  Office No.4, Nay Pyi Taw. / Tel : 067-411353, 411358~9

- Ministry of Home Affairs / www.myanmarhuman, trafficking.gov.mm
  Office No.10, Nay Pyi Taw. / Tel : +95 67 412201
  E-mail : atu.mpf@gmail.com

- Ministry of Hotels & Tourism / www.myanmartourism.org, www.hotel-tourism.gov.mm
  Building No.(33), Nay Pyi Taw. / Tel : 067 406056, 406057 / Fax : 067-406464
  E-mail : dg.dht@mptmail.net.mm, dht.mht@myanmar.com.mm

- Ministry of Labour, Immigration and Population / www.mip.gov.mm
  Office No.23, Nay Pyi Taw. / Tel : 067-404038/30

- Ministry of Industry / www.industry.gov.mm
  Office Building No.(30) Zay Ya Htar Ni Road, Nay Pyi Taw. / Tel : 067-405135, / Fax : 067-405052
  E-mail : ministryofindustry@gmail.com

- Ministry of Information / www.moi.gov.mm
  Office No.7, Nay Pyi Taw. / Tel : 067-412323, 412328

- Ministry of Border Affairs / www.mba.gov.mm
  Office No.(14), Nay Pyi Taw / Tel : 067-409035, 409023, 409022
  E-mail : pbanrda@mptmail.net.mm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www.mofa.gov.mm
  Office : Building No.(9), Nay Pyi Taw

- Ministry of social welfare, relief and resettlement / www.mswrr.gov.mm
  Office No.(23), Nay Pyi Taw / Tel : 067-404021, 404022, 404050 / Fax : 067-404335

미얀마는 8개의 주요 민족에 14개주(7개 Division, 7개 State)로 구성돼 있다. 'District'는 미얀마 민족으로 구성된 일종의 직할 주이고 'State'는 주로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일종의 자치주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도 미얀마가 다민족, 연방국가라는 점을 잘 알 수 있다. 물론 지방정부의 장도 군장성급이 맡고 있다. 지방정부산하에는 'Township'이 있으며, 이는 한국의 기초자치 단체인 '군' 이나 '구'라고 할 수 있다. 농촌의 경우 'Township' 아래에 Village가 있다.

- 입법 및 사법 조직

사법부는 연방 최고법원, 각 주의 사법위원회(고등법원), 자치구법원, 지방법원, 또한 헌법재 판소 등의 형식의 5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 문에 통상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입법부는 군부가 1988년 친위 쿠데 타로 해산한 이후 다시 1990년 5월 의회구성을 위한 총선거를 실시했으나,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국민연맹(NLD)이 압승을 함에 따라 군부가 무효를 선언해 장기간 구성되지 못했었 다. 이후 2003년 미국의 미얀마 경제제재조치 도입 이후에 미얀마 군부가 발표한 7단계 민주화 로드맵에 따라 2010년 총선거가 실시됐고,

그 결과 2011년 1월 31일 의회가 개원돼 입법부가 부활하게 됐다. 입법부는 하원(Pyithu Hluttaw, lower house), 상원(Amyotha Hluttaw, upper house), 연방의회 또는 상하원 합동 연방의회(Pydaungsu Hluttaw), 지방 의회(State and Region Hluttaw)로 나뉘어진다.

- 최근 정치 동향 및 전망

2015년 11월 8일, 미얀마에서는 전국적으로 총선이 실시됐다. 총선 결과, '민주화를 중심으 로 한 경제 발전' 슬로건과 함께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NLD(민주주의 민족동맹당)가 금 번 선출직 491석 중 390석(상원 135석, 하원 255석)을 차지하며 압승했다. 이전 집권당 USDP(통 합단결발전당)는 491석 중 41석(상원 11석, 하원 30석)만을 획득했다. 미얀마 헌법상 의석의 25%를 이미 할당받은 군부는 결과적으로 166석을 차지해 미얀마 의회는 총 664석(상원 224석, 하원 440석)으로 구성됐다.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NLD당이 전체 의석의 59%를 차지하며 미얀마 정치의 주도세력이 됐다. 이를 반영하듯, 2016년 3월 15일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지원하는 하원 의 NLD당 민 쩌(Htin Kyaw)가 대통령으로 당선됐고, 군부의 민 스웨(Myint Swe)와 상원의 NLD 당 헨리 벤 띠우(Henry Van Thio)가 부통령이 됐다.

2016년 3월 15일 대선 이전에 아웅산 수치 여사의 대통령 취임 가능성이 대두됐으나, 군부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참고로, 미얀마는 2008년 헌법 개정 때, 대통령 또는 부 통령 후보의 자격요건으로 '배우자 또는 가족이 다른 국가 국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다른 나라 에서 후원금(지원금)을 받는 자일 경우' 입후보 자격이 없는 것으로 규정한 바 있다. 때문에, 아웅산 수치 여사는 배우자(사망) 및 2명의 아들이 영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 현재 헌법상으로 는 대선에 참가할 수 없었다. 미얀마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연방 상하원 합동의회 재적의 원의 75% 이상이 찬성해야 하나, 2008년 개정 시 군부가 재적의원의 25%를 지명하도록 규정해 사실상 군부의 동의가 없는 한 헌법 개정은 어렵다. 대선 전, NLD당이 외국 국적의 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특별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군부의 반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때문에, 아웅산 수치 여사의 최측근인 민 쩌가 대통령으로 취임해 아웅산 수치 여사의 실질적 친정체제가 구축됐다. 아웅산 수치 여사는 신정부 출범 초, 대통령실, 외교부, 교

육부, 전력에너 지부 총 4개의 정부 부처 장관으로 임명됐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교육부와 전력에너지부 장 관은 각각 새로 임명됐으며 아웅산 수치 여사는 외교부와 대통령실의 장관이자 국가자문역 (State Counsellor)만 역임하고 있다. 미얀마 신정부는 아웅산 수치 여사가 띤 쩌 대통령과 함께 국제 관계, 국내 정치, 경제 등 다방면에서 함께 주축이 돼 실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당분간 이 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지역정보 (대외 관계) - 주요 자료 출처 : KOTRA 국가정보

2011년 4월 1일 미얀마의 테인 세인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UN 특사인 Tomas Ojea가 2011년 8월 21일부터 5일간 미얀마를 방문해 외교부 장관, 내무부 장관, 상. 하원 의장, 수치 여사 및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정치범 석방 및 인권 문제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UN 특사는 2008년 8월과 2010년 2월, 2011년 8월 21일~25일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미얀마를 방문, 미국과 의 관계개선을 위해 정부 주요 인사와 면담을 가졌다. 또한, 같은 해 9월 9일부터 5일간 미국 특사 데릭 미첼(Derek Mitchell)은 처음으로 미얀마에 방문해 외교부장관, 상하원 의장, 정보문 화부 장관, 국경관리부 및 산업부 장관, 아웅산 수치 여사, 대통령 정치 고문 등과 면담을 갖고 향후 미얀마 민주주의 방향 및 미국-미얀마 간의 협력 등을 논의했다. 11월 30일 힐러리 클린 턴 미국 국무장관의 미얀마 방문을 기점으로 미국-미얀마 관계가 급진전하며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 해제에 대한 기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미얀마 정부는 미국이 요구한 정치범 석방, 보궐 선거의 공정한 실시 등을 추진했다. 이어, 케빈 러드 호주 외무장관이 2012년 5월 9일 "미얀마에서 많은 진전이 이뤄졌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며 "이 같은 성취를 평가해 제재 리스트에 서 대상자를 대폭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 및 관광 제재 대상자 명단에서 이전 정부에서 일했던 장관, 차관과 관광 관료가 삭제됐다. 다만 미얀마에 대한 무기금수조치는 그대로 유지했으며, 러드 장관은 야당의 정치참여, 새 노동법, 정치범 석방 등 긍정적 진전이 계속되길 바라며 공정한 선거, 인종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 등을 촉구했다.

미국은 미얀마 군사정권이 출범한 이후 양국 간 대사급 관계를 맺지 않고 있었으나,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2012년 5월 17일 데릭 미첼 미얀마 특사를 주 미얀마 대사로 공식 지명했으며, 미 국 기업의 투자 및 수출입 금지 등 일부 제재조치를 완화하는 등 미얀마 개혁 촉진을 위한 유화정책을 발표했다. 미얀마 정부는 유엔 미얀마 대사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U Than Swe' 를 주미국 미얀마대사로 공식 지명했다.

2012년 9월 25일 테인 세인 대통령은 미국을 공식 방문해 미국 국무장관과 26일 면담을 가졌다. 미국 정부는 9월 26일 미얀마 정부의 정치개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미얀마산 제품에 대 한 추가적인 수입금지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으며,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유엔총 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테인 세인 대통령과 만나 지속적인 개혁 조치를 인정한다는 의미로 미얀마와의 교역관계를 정상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언급했다.

한편, 미얀마 정부는 자국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을 일주일 앞둔 9월 17일, 인도주의적 고려 에 따라 외국인과 정치범을 포함한 514명의 수감자들에게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미얀마 테인 세인 대통령은 9월 27일, 취임 후 처음으로 뉴욕에서 열리는 제67차 유엔총회의 일반 토론에서 연설을 통해 미얀마는 구체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민주화의 과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데에는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여사의 요청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수치 여사는 지금까지 미얀마 정치개혁을 위해 서방이 미얀 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2012년 9월 테인 세인 대통령의 방미에 앞서, 2012년 6월 미국을 방문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클린턴 장관을 만나 미국의 수입금 지 해제를 요청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2012년 7월의 미국 기업의 대미얀마 금융조치 및 일반투자에 대한 일반허 가조치(General Licence)로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조치를 완화했고, 2013년 2월, Myanmar Economic Bank(MEB), Myanmar Investment and Commerce Bank(MICB), Ayeyarwady Bank, Asian Green Development Bank(AGD) 등 4개 미얀마 은행에 대한 미국기업의 금융거래를 승인했다.

세계은행 또한 2012년 6월 미얀마 경제수도 양곤에 사무소를 재개설했으며, 아시아개발은행도 같은 해 8월 사무소를 개설해 정치개혁 이후 국제사회 제재를 대폭 완화된 미얀마에 대한 국제 금융기관 차원의 지원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제금융기관의 지원은 주로 인프라 확대, 일자리 창 출, 농업 개선 등에 사용되고 있는 중이다.

미얀마가 예상치 못한 속도로 빠르게 민주화 개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서방 국가들 가운데 처음으로 호주가 미얀마 경제제재를 해제했다. 유럽연합(EU)은 미얀마 정부의 야당의 정 치참여 허용, 노동법 제정, 정치범 석방 등 개혁 행보와 비례해 경제제재를 2013년 4월 30일까지 1년간 유보했으며, 2013년 4월 22일 EU 외무장관 간 회의를 가진 후, 2013년 5월 1일부터 완전 해제한다고 공식 발표했고, 2013년 6월 13일 특혜관세(GSP) 지위부여도 확정 발표했다.

2014년 11월 미얀마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ESAN) 의장국으로서 아세안+정상회의를 개최해, 아세안국가뿐만 아니라,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 각국 정상들이 수도 네피도에 모여 아 세안 및 환태평양지역의 공동 경제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15년 1월 27일, 미얀마 냔툰 대통령은 태국 부총리의 초청으로 태국을 방문했으며, The 3rd Myanmar-Thailand Joint High-Level Committee에 참석해, 그동안 진척이 더뎠던 다웨이 경제특 구 개발 관련해 일본의 원조를 요청했다.

2015년 4월 21일, 테인 세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아시아-아프리카 정상 회담에 참석했다. 국회 하원의원장 HE. Thura Shwe Mann은 미국 및 중국을 직접 방문해, 미얀 마의 외교관계 및 향후 미얀마 투자방향에 대해서 논의했으며, NLD 당 대변인 아웅산 수치 여 사 또한 2015년 6월에 중국을 방문해 미얀마 발전에 대해 논의했다.

2015년 11월, 미얀마 총선이 끝난 뒤 미국 측에서는 미얀마 총선이 민주적으로 마무리가 잘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그동안 미국의 SDN List에 포함된 대상 기업 및 사업자들 소유의 항구들에 대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무역제재 조치를 완화했다.

이후, 2016년 5월 17일, 미국은 미얀마 경제제재 해제를 1년 유예하는 대신 금융거래 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2015년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항구 이용 기한 제한을 없애고, 7개 국영기 업을 제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제재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주미얀마 미국대사는 자국의 대 미얀마 경제제재 완화 조치에 대해 미얀마 신정부를 지지하는 "중요하고(Significant)","긍정 적인(Positive)" 과정이라 강조하며 향후 미국의 추가 제재 해제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 았다.

주미얀마 미국대사인 미첼 대사는 수치여사와의 면담에서 수소폭탄을 실험한 북한에

대해서, 미얀마와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기를 권유했다. 2015년도 11월에는 북한과 미얀 마 간의 무기 밀거래로 인해, 미국은 주미얀마 북한 전대사인 김석철 대사를 블랙리스트로 지 정한 바 있다. 이는 미얀마에 대해서 민주화는 좋으나, 북한과의 무기거래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것을 알리는 경고로 해석된다. 북한은 블랙리스트 발표 후, 김석철 대사를 정호범 대사로 전격 교체했다.

2016년 9월 미국은 1989년 이후 중단됐던 GSP 수혜국 지정을 27년만에 재개했으며, 최저개발국으로 지정된 미얀마는 총 5,000여개 품목에 대한 무관세 수출 혜택을 받게 됐다. 이어 2016년 10월에 미국은 제재 관련 6개 행정명령을 폐지하면서 미국의 대미얀마 제재 공식 해제를 알려 공식적으로 제재조치는 종료됐다. 또한 재무부 SDN List에 등재돼 있었던 미얀마 기업 및 개인 이 해제, 은행의 규제 등이 풀리면서 대미국 금융거래와 상품 수출입의 제한이 해제되었다.

EU는 총선을 '민주화로가는 역사적 이정표'라고 평가했으며, 미얀마의 향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밝혔다. EU는 2013년도부터 '무기 및 내부 소요 진압장비 금수조치'를 제외하고 모두 해제돼 현재 EU-미얀마 양자투자협정(BIT) 체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 협정이 체결이 될 경우 섬유, 의류, 신발 등 노동집약적 사업에 대해 EU의 미얀마 투자진출 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2015년 6월 방문 이후로 민주적 총선에 대해 축하하는 입장을 밝히며, 미얀마 최대 교역국으로서 지속적으로 미얀마에 투자할 것을 밝혔다. 미얀마 문민정부 출범 후 미얀마의 첫 양자회담 상대는 중국 외교부장이었으며, 아웅산 수지 국가자문역과의 면담에서 양자 현안과 양국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2016년 8월에 아웅산 수지 국가자문역이 중국을 방만하 여 시진핑 주석과 미얀마 투자개발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중국 또한 동남아 진출을 위해 미얀마 투자에 힘쓸 것을 알렸다. 현재 중국은 미얀마에 댐 건설 및 동광산 개발 등에 나섰으나, 토지 수용 및 환경 훼손 우려로 해당 지역의 미얀마 주민들의 반발에 개발이 더딘 상황이다.

일본은 미얀마의 띨라와(Tilawa) 경제특구 개발에 미얀마 51%, 일본 49%의 지분을 투자해, 경제 특구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총 개발면적인 2400ha 중 class-A라고 하는 우선 개발지 400ha에 대한 개발 1단계 개발을 마무리하고 2015년 9월에 가동했다. 지금은

2단계 용지 조성단계를 진 행 중에 있다. 일본 또한 미얀마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이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의 아베 총리로부터 5년간 77억 30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 다. 일본은 미얀마와 태국 간 진행 중인 다웨이(Dawei) 경제특구 개발에도 참가, 한타와디 신 공항 시공에도 참가할 것을 알려 미얀마의 인프라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미국, EU, 중국, 일본 뿐만 아니라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등 주변 국에서도 미얀마 신정부 출 범 이후, 미얀마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하고 있다.

• 지역정보 (한국-미얀마) - 주요 자료 출처 : KOTRA 국가정보

- 정치외교관계

미얀마는 한국과 1975년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며, 한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립적 태도를 견지해 왔지만 북한과 좀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1983년 전두환 대통령의 미얀마 공식 방문 시 북한의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로 인해 한국 외교사절 17명이 순국한 사건 이후, 북한과 단교해 오다가 2007년 4월 26일부로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정상화했다. 정치, 외교적으로 양국 간 특별한 이슈는 없다. 미얀마가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는 ASEAN과 한국이 FTA를 체결 했으나, 한-미얀마 교역 규모가 다른 ASEAN 회원국에 비해서 미미하고 미얀마 시장에서의 주요 경쟁 상대가 이미 FTA를 체결한 중국과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ASEAN 회원국이기 때문에, FTA 체결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2009년 5월 한-아세안 특별정상 회담이 제주도에서 개최됐으며, 미얀마에서는 당시 테인 세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2012년 5월 15일부터 사흘간 이명박 대통령이 외교통상부 장관, 지식경제부 장관 등 주요 정부 부처 요인과 대기업을 포함한 대표단을 구성해 미얀마를 공식 방문했다. 행정수도인 네피도에서 테인 세인 대통령과 면담했으며, 경제수도인 양곤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를 만나 양국간 협력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13년 1월 10일 한국과 미얀마 정부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으며, 지난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경제협력 사절단 이 미얀마를 방문해 떼인 세인 대통령 면담, 한-미얀마 경제장관 회담, 제1차 한-미얀마 경제협 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했으며, 대외협력기금(EDCF) 지원, 농촌개발협력,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 건설, 한국기업 산업단지 조성, 미얀개발연구원(MDI;

Myanmar Development Institute) 개설지원, 투자보장협정 체결, 한-미얀마 비즈니스센터 건립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11년 미얀마 민간 신정부 출범 이후, 미얀마에 대한 서방세계의 경제제재가 해제 또는 완화 됨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 기업의 투자진출이 급증하고 있으나, 미얀마의 미흡한 투자자 보호체제를 보완해 미얀마 진출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2014년 6월 6일 미얀마를 방문한 외교부 장관은 지난 2012년 10월 서울에서 있었던 양국간 정 상회담에서 처음 제기된 이후 두 차례(1차: 2012년 12월 네피도, 2차 2013년 7월 네피도)의 협상 을 거쳐, 지난 2014년 1월 6일 양국 간 가서명이 완료된 한-미얀마 투자보장협정을 공식적으로 체결했다.

이 협정 체결은 한-미얀마 양국은 공식적으로 양국에 진출하는 상대국 투자자와 투자를 재산권 의 수용 등 비상업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경제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된다. 한편, 지난 2014년 11월 미얀마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ESAN) 의장국으로서 아세안+정상회의를 개최했으며, 동 기간 중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했으나, 12월 부산 벡스코에서 예정돼 있는 한-아세안정상회의 관계로 양국 간의 별도의 회담은 이뤄지 지 않았다.

2014년 12월 12일 부산에서 있었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한-미얀마 양국은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이후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은 부산외국어대학교를 방문해 명예박사증을 받는 한편, 대동기계를 방문했다.

2015년 1월 19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미얀마를 방문해 테인 세인 대통령과 함께한 자리에서 양 국 간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국회, 기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한-미얀마 포럼 설 치를 요청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미얀마를 ODA(공적개발원조) 중점지원국으로 지정하고, EDCF(경제협력개발기금) 원조액도 상당액 증액되도록 국회에 요청하겠다고 했다. 이어 2015년 4월 29일에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초대로 미얀마 국회 상원의장 우 킨 아웅 밋(U Khin Aung Myint)을 비롯한 한국방문단이 구성돼 방한했으며, 국회를 방문해, 한국-미얀마 간 국회 교류 협력을 위해 토론했다.

2015년 5월 28일, 2013년 6월에 현오석 경제 부총리가 방문해 진행되고 있었던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 건설 사업이 미얀마 정부의 EDCF 사업 관련 차관을 받는 것에 동의했으며, 현재 디자 인 및 설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2015년 5월 16일은 한-미얀마 수교 40주년으로 주미얀 마 대사관 및 KOTRA 주관으로 5월 21일부터 5월 26일까지 'Korea-Myanmar Week'로 한국 우수 상품전, 한-미얀마 경제포럼, 한-미얀마 정치사회포럼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으며, 이 행 사에 농업관개부 장관, 상무부 장관 등 주요 공직자들이 참석했다.

2016년 7월 24일 라오스 비엔티엔 국립컨벤션 센터(NCC)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아웅산수치 국가자문역이 회담을 가졌으며, 미얀마 개발연구원(MDI)설립,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등 공적개발 원조(ODA)사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9월에는 킨 마웅 초 미얀마 산업부 장관이 한 국의 경기도지사의 초청으로 방한해, 한국산업인력 공단 산하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한국산업 기술대학교를 방문하였다.

10월 27일에는 미얀마의 국회 하원위원장인 윈민 의장이 취임한 후 첫 해외 순방국으로 한국을 방문하면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양국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으며, 28일에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미얀마 성장력, 경제, 한류, 북한문제에 대해서 회담을 가졌다.

- 한-미얀마 간 체결협정 및 교역 관계

- 체결 협정

  무역협정(1964년 체결, 1967년 개정), 뉴스교환협정(1972년), 항공협정(1978년), 임업약정(1999년), 이중과세방지협정(2002년), 무상원조기본협정(2012년), 투자보장협정(2014년)

- 교역 규모

  대미얀마 수출 : US$ 6억, 5.989만(2015년) / US$ 7억 120만(2016년 11월)

  대미얀마 수입 : US$ 5억 567만(2015년) / US$ 4억 2,786만(2016년 11월)

  무역 흑자 : US$ 1억 5,438만(2015년) / US$ 2억 7,334만(2016년 11월)

- 교역품

  수출 : 자동차, 산업기계, 수송기계 석유화학제품, 섬유제품 등(우리나라 수출)

  수입 : 섬유제품, 임산물, 농산물, 수산물, 신변잡화, 비철금속 등(우리나라 수입)

- 교민 : 한국 교민 수 약 3,106명(2015년)

- 민간지원 및 종교활동

현재 미얀마에는 기독교 계통에서 선교사를 현지에 파견하고 있으나 2005년 일부 단기체류 한국 선교사들의 미얀마 내 불법 선교활동으로 미얀마 정부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로 인 해 한국 기업인들의 미얀마 비자발급이 까다로워지기는 했으나, 구비서류 제출시 비자발급에는 문제가 없다. 2008년 5월 사이클론으로 한국에서는 정부차원에서 200만 달러 이상의 현금 및 현물을 지원한 바 있다. 최근에는 ODA자금을 활용한 NGO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 다.

2015년 7월 기준, 공식적으로 미얀마 내무부에 등록된 NGO 단체 수는 6개이며, 협력기관이 약 30개로 알려져 있으며 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얀마 정부에서 NGO로 미얀마 내부 사업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협력기관 혹은 프로젝트성 사업, 학원 등과 같은 형식으로 진출하는 단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3년 기준, 한국항공대학교 개도국기술경영지원센터는 미얀마 ICT 소트트웨어개발 기술교육 및 창업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는 양곤 인근 3개 취약지역 초등학색 건강관리사업, 나눔과 기쁨에서는 미얀마 농촌지역 사회개발 프로젝트, 지구촌나눔본부운동에서는 미얀마 이주민 빈민지역 소득 증대 및 기초교육 지원사업, 한국노인복지회에서는 미얀마 아야와디, 만달레이 및 양곤지역 노인자조모임 지원사업 등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KOICA에서도 미얀마에서 '새마을운동 농촌공동체사업', '전염병 연구소 설립'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새마을운동 농촌공동체산업은 100개 시범마을을 대상으로 2014년 1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진행되는 5년 사업이다. 우리나라 새마을운동 이념과 경험을 바탕으로 미얀마 농촌 개발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염병 연구소는 2014년 8월 11일에 개소해 미얀마 3대 전 염병(말라리아, 간염, 결핵) 연구를 위한 실험실을 겸비했다.

기업차원의 CSR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KB금융그룹이 KB 한국어 학당사업과 레구 KB스타 어린이센터 후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IBK기업은행은 미얀마 바고지역의 학교를 방문해 학교 수리 및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스포츠 및 문화 행사를 개최했다. 최근 발생한 미얀마 홍수 때 주 미얀마 한국대사관과 여러 한국 기업들이 수해지역에 구조금을 기부했다. 최근 현대제철이 미얀 마 총 6개 마을에서 커뮤니티센터, 식수저장탱크, 학교 화장실 등 실생활에 필요한 건축물뿐만 아니라 벽화 그리기, 위생교육 전파 등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 다.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미얀마의 국가기획경제개발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한-미얀마 CSR 우수기업 시상에는 2014년 대우인터내셔널 미얀마법인(국가기획경제개발부 장관상)과 LG전자 미얀마 지점(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이 상을 받은 데 이어, 2015년에는 삼성전자 미얀마 지점(국가기 획경제개발부 장관상)과 IBK 기업은행 미얀마 사무소(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가 수상을 했다.

- 미얀마와 한국 주요 프로젝트

최근 미얀마에서 20년간 진행하게 될 '미얀마 주요 간선도로망 마스터 플랜' KOICA의 지원을 받아 유신, 천일, 일신 등 3개의 한국 엔지니어링 회사로 구성된 유신 컨소시엄이 2013년 부터 시작했으며, 2015년 하반기에 완료됐다. 추후에 마스터 플랜에 따른 도로 개선 시공이 진 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구간은 고속도로망을 포함하는 총 3만4378㎞의 간선도로망으로 우리 기 업이 마스터 플랜을 구성한 만큼 한국 기업의 수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입은행과 진행되는 EDCF사업으로는 500KV Taungoo와 Kamanat을 연결하는 배전망 사업에 대한 입찰이 마감돼 발표를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컨설팅 입찰에 한국 기업이 참가했으며, 아직 까지 결과는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만달레이 미찌나 철도개선 프로젝트에서 컨설팅 부 분은 국내기업이 선정됐으며, 최근에 미얀마 인터넷 백본망 설치 시공 관련, 최종선정자로 코위 버와 KT가 선정됐다. 하나은행, 우리은행은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통해 미얀마 국민들에게 도움 을 주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한은행은 크레파스 재생사업 및 의료봉사 등을 하고 있으며, NGO 나눔과 기쁨, 굿네이버스 등의 집짓기 활동 및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이미 지를 개선하고 있다.

2016년에는 신한은행이 미얀마에서 한국은행 최초로 지점 설립을 완료했으며, 율촌법

무법인이 코리아비즈니스센터를 오픈, 농협이 농협파이낸스 미얀마로 개점, KB은행 또한 소액대출 사업을 준비 중에 있어 미얀마의 투자에 대한 금융 및 미얀마 투자에 대한 법률 부분에서 우리 진출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미얀마와 한류

미얀마는 현재 한류 열풍의 한가운데 서 있다. 2002년 말 방영된 TV드라마 '가을동화'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한국 TV드라마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현재 미얀마 TV채널은 MRTV-1, MRTV-4, Channel7, MWD 등 4개로, 이들 채널을 통해 매일 방영되는 한국 TV드라마 는 4~5편에 달한다. 송승헌, 송혜교, 이민호, 장동건, 최지우, 배용준 등 한국 연예인의 인기는 최고 수준이고, 한국어 배우기 열풍 또한 거세다. 또한 K-pop 역시 인기가 높은데, 'Myanmar K-pop 콘서트'의 경우 현지 미얀마인에게는 부담스러운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수천명의 인원이 모여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며 성공리에 개최됐다.

최근 미얀마 내 핸드폰 보급률이 높아지고 DVD 등을 통해 한국 드라마 및 K-Pop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영화, 드라마 등이 다양하게 보급되면서 한류 열풍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의문이라 는 의견도 있지만, 지난 2002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미얀마의 한류열풍은 이미 미얀마인의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고, 이는 한국의 대미얀마 진출에 커다란 자산이다. 미얀마 군부의 고위층은 물론, 일반 시민까지도 한국어 인사를 자연스럽게 할 정도인데 이는 근본적으로 가족관계의 중시, 연장자에 대한 존경심 등 전통적인 정서가 한국과 매우 가깝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된다. 한류는 한국의 대미얀마 진출에 커다란 디딤돌로, 미얀마인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통의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일본 및 중국 방송 및 엔터테이너의 마케팅으로 인해 한류의 약세 가 예상됐으나, 지난 6월 미얀마 이벤트 파크(Myanmar Event park)에서 열린 k-pop 콘서트 및 2016년 6월 이노그룹의 주최로 열린 K-POP 콘서트에 관객들이 구름 같이 몰려 아직까지 한류가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 지역정보 (미얀마 물가 정보) - 주요 자료 출처 : KOTRA 양곤 무역관

구분	항목	가격(MMK)
식품류	쌀 1kg	1,800
	계란 10개	1,300
	쇠고기 등심 1kg	6,600
	돼지고기 등심 1kg	6,600
	우유 500ml	1,000
	식용유 1L	4,000
	생수 1L	350
	맥주(하이네켄 355ml 1캔)	1,200
	담배 1갑(말보로 라이트)	2,200
	햄버거(롯데리아 Set)	4,000
	김치찌개 1인분	8,000
의료비	의료보험료(4인 가족, 치과제외 Full Cover, 1년)	50,000
	병원진료비(의료보험 X 몸살감기 내과초진)	40,000
	병원진료비(의료보험 o, 몸살감기 내과초진)	없음
차량관련	중형승용차 (2000cc 신차, 오토, 에어컨포함 기본사양)	40,000,000
	무연휘발유 1L(Octane 92)	650
	자동차 등록비	100,000
	자동차보험료 의무 (2000cc 신차, 운전경력 10년, 대인/대물커버, 1년)	의무 없음
교통비	도심 1시간 주차료	200
	지하철 기본요금(1구간)	없음
	시내버스 기본요금	100~300
	택시 기본요금(미터기 없음)	없음
통신	시내전화 요금(3분)	150
	국제전화 요금(3분, 한국으로 걸 때)	2,400
	휴대전화 요금(1분, MPT기준)	25
	인터넷 월사용료(ADSL 기준, 설치비 별도)	40,000
주택	아파트 월 임차료 (150sm, semi-furnished, 시내, 중상급)	2,500,000
교육	외국인학교 초등 1년 수업료(중상급), 입학금 US$7000 별도	21,208,750
	외국인학교 중등 1년 수업료(중상급), 입학금 US$7000 별도	22,383,750
	외국인학교 고등 1년 수업료(중상급), 입학금 US$7000 별도	23,793,750
숙박	특급호텔(5성급) 1박 정상요금(싱글)	230,000
	중급호텔(3성급) 1박 정상요금(싱글)	100,000
임금/노무	대졸 초임 (중상급 대졸, 영어구사, 외국인회사 초임 월급여)	250,000
	생산직 초임(학력무관 월급여 초임)	90,000
	매니저급 급여 (인사담당 5년 경력 과장급 월급여)	500,000
	주당 법정근무시간	44시간
	출산휴가일수(공무원 기준)	6개월
	연간 국경일수	24일
	주5일 근무 여부	주5일
기타	드라이크리닝(정장 1벌 기준)	7,000
출처 : KOTRA 양곤 무역관 자체 조사		

| 미얀마 물가정보(1US$ = 1,365MMK / 2016년 12월 30일 기준)

• 지역정보 (한국기업 진출 현황) - 주요 자료 출처 : KOTRA 양곤 무역관

- 미얀마 진출 한국 기업

2002년 이후 현대종합상사, CJ, 대우전자 등이 철수했으며 미얀마에서 건재자용 아연강판을 생산하던 포스코는 2005년부터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가 2006년 다시 재개해 관련 시장에 1위 기업으로 성장했다. 의류봉제 및 신발봉제 이외에 일반 제조업으로는 선창목재(합판), 더원(등나 무 가구 및 소품), 머큐리레이스(PVC 호스) 삼공(고무보트), 미원쉐타진(PVC 파이프, 플라스틱 연포장재), 예스박스(카톤 박스), UPI(플라스틱 생활용품) 등이 있으며, 이 밖에도 소규모 개인 무역업체가 다수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정식 외국인 투자 절차를 밟지 않고 미 얀마인 명의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봉제, 가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 임업, 수산업 등 현지의 풍부한 원료 활용이 가능한 산업, 곡물 및 바이오 작물 등 농업, 부동산 등 서비스 투자 를 검토, 진행하는 업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금융, 프랜차이즈 등 서비스 분야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먼저 금융부분에서는 2016년 2월 기준 우리, 하나, 국민, 신한, 기업, 산업, 수출입은행의 연락사무소가 열려 있다. 또한, 프랜 차이즈인 롯데리아는 2016년 12월 현재 13호점까지 개점돼 현지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 며, 스노우팩토리(3호점), 유가네 닭갈비(8호점) 등 금융과 소비재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대미 안마 진출이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한국의 CJ CGV가 미얀마의 Shwe Taung Development사 와 합작으로 JCGV를 설립해, 미얀마의 Juntion 쇼핑센터를 위주로 영화관 리모델링 및 영화 관 련 서비스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타 제조업 및 자원 개발에서도 포스코(아연합판공장 확대), 대우인터내셔널(신규 자원개발 추진) 등 기진출 기업의 미얀마내 사업도 확대 추세이다.

회사명	업종	제품명	진출 형태	진출 연도	종업원수	모기업
대우무역	무역업	일반상품	지사	1995	50	㈜대우인터내셔날
효성	무역업	철강, 화학제품	지점	1995	7	효성
대우E&P	제조업	자원개발	지점	2002	50	㈜대우인터내셔날
골든마이더스	건설업	종합건설	단독	2000	79	-
포스코	제조업	아연도금강판	합작	1997	124	포스코
머큐리레이스	제조업	PVC호스	단독	1999	130	-
UPI	제조업	플라스틱제품	합작	1995	80	-
더원라탄	제조업	등나무가구	단독	2002	110	더원
태평양물산	제조업	의류봉제	단독	1999	840	태평양물산
세계물산	제조업	의류봉제	단독	1990	800	에스지위카스
제우	제조업	의류봉제	단독	1996	1300	스타일러스
해외	제조업	의류봉제	단독	1998	750	해외무역
오필	제조업	의류봉제	단독	1996	1800	-
골든샤인	제조업	의류봉제	단독	2001	2000	-
에스콰이아	제조업	정장구두	단독	2000	500	㈜에스콰이아
이화니트	제조업	의류봉제	단독	2013	800	이화니트
석우 E&C	건설시공	인테리어	단독	2012	14	KAS HOLDINGS

출처 : KOTRA 양곤 무역관 자체 조사

우리나라 주요 투자 기업 현황

• 지역정보 (생활여건) - 주요 자료 출처 : KOTRA 국가정보

- 기후

국토의 종단 길이는 2,040km로 열대, 아열대 기후대에 위치해 있으며 전반적으로는 고온 다습한 열대성 몬순기후이다. 연평균 기온은 섭씨 27.4로 낮 기온은 연중 30도 이상이며, 연평균 강우량은 2,500mm에 달한다. 미얀마의 날씨는 건기와 우기가 명확히 구분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건기는 10월 중순에서 다음해 5월 말까지이며 우기는 6월 초에서 10월 초순까지로, 건기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우기에는 거의 매일 5시간 정도 비가 내린다. 건기 중 가장 시 원한 계절인 11~2월 4개월간의 새벽 최저 기온이 15도까지 내려가나, 가장 더운 계절인 3~5월 기간 중 낮 최고 기온은 40도 이상 올라간다.

- 현지 방문 시 추천 복장

우리나라 여름철에 입는 복장을 입고 오면 된다. 정부 인사를 방문할 때 또는 행사에 초대를 받았을 때에도 여름 양복 정장을 입으면 좋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셔츠에 양복 바지 차림으로 활동하면 된다. 출장 시에는 여름용 셔츠, 바지, 양복 정장 1벌을 준비하도록 한다. 시내 관광을 위해 파고다를 방문할 때는 신발과 양말을 모두 벗어야 하며, 무릎

위로 올라오는 반바지, 치마 또한 삼가야 한다.

- 시차/근무 시간

미얀마는 한국보다 2시간 30분이 늦다. 한국의 12시는 현지 9시30분이다. 서머타임제는 실시 하지 않는다.

관공서 근무시간은 9:30~16:30이며 별도의 점심시간은 없고, 토·일요일은 휴무한다. 외환을 취 급하는 은행 역시 근무시간은 일반 관공서와 같으나, 입출금 및 환전은 10:00~15:00까지 가능하 다. 하지만, 입출금에 소요되는 시간이 서류 제출, 승인, 현금 출납까지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는 관계로, 보통 오전 일찍 업무 개시와 더불어 입출금을 신청해야 당일 마칠 수 있음에 유의 해야 한다. 일반 직장의 근무시간은 8:30~17:30이 일반적이다. 관공서와는 달리 토요일 오전 또 는 전일 근무를 한다. 상점들의 개폐 시간은 일반적으로 0:00~19:00이 많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는 일찍 서둘러야 한다. 그렇지만 시티마트 등 대형 슈퍼마켓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영 업한다.

- 도량형

과거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은 관계로 영국식 도량형을 일반적으로 사용해 인치, 야드, 마일, 파운드 등을 사용한다. 또한 인도로부터 들어온 것으로 알려진 비스, 티클 등의 무게 단위가 재래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 교통

미얀마는 비교적 넓은 국토에 도로, 철도 등 육상교통수단이 빈약하거나 노후화됐기 때문에 비교적 단거리라 해도 항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주요 도시에는 공항 이 설치돼 있으며, 국내 항공노선도 비교적 잘 정비돼 있는 편이다. 양곤을 중심으로 주요 도시 간 정기, 비정기 노선이 개설돼 있으며 2015년부터 항공사별로 시간대 및 지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현지인들의 경우, 비용 때문에 장거리라 해도 비행기보다 버스나 기차를 이용 하는 사람이 많다.최근, 양곤-네피도-만달레이를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완공돼 양곤에서 네피도 까지 4시간, 만달레이까지 8시간으로 이동시간이 단축됐다.

미얀마의 차량번호판은 주로 세 가지 색깔이다. 빨간색은 영업용, 검색은 자가용, 흰색은 외교 관용 차량이다. 간혹 청색 번호판도 있으나 이는 특수차량으로 드물다. 미얀마

교통체계는 왼편 운전석에 맞춰져 있으나, 실제 차량은 90% 이상이 일본, 영국, 호주처럼 오른편 운전석이다. 대부분의 차량이 일본 본토로부터 중고차 형태로 직접 수입된 까닭이다. 따라서 운전시 주의가 요구되며, 교통신호체계가 미비해 무단 횡단하는 사람들이 많아 특히 야간 운전에 주의해야 한 다. 따라서 현지 외국인들은 손수 운전을 거의 하지 않고 현지인 운전기사를 고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대중교통

미얀마는 대중교통 수단이 매우 열악하며 공항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교통편은 택시가 유일하다. 공항 출국장을 빠져나오면 택시 서비스 데스크를 찾을 수 있으며, 이곳을 통해 택시 이용이 가능하다. 양곤 시내까지 8~10달러 정도이다. 아울러 체류 호텔의 공항픽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호텔마다 요금이 상이하나 평균 30달러(편도 기준) 정도이다.

- 택시

양곤 등 도시지역에서 외국인이 이용할 만한 대중교통 수단은 택시가 유일하다. 택시라고 표시돼 있으며, 승차 전에 가격을 협상해야 한다. 정부가 미터기 부착을 강제하고 있으나 단속을 거의 하지 않고 있으며, 요금체계 역시 부실해 미터기로 운행하는 택시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요금은 공항에서 양곤 시내까지 8~10달러(8천~10천 차트) 정도이며, 시내 이동의 경우4~5달러(4 천~5천 차트)선이다. 일부 호텔에서는 호텔차량으로 공항픽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15~25달러 정도의 요금이 청구된다.

- 버스

버스는 값이 싸지만 복잡하고 불결해 외국인이 이용하기 어렵다. 버스는 픽업 개조형과 버스 형이 있으며, 구간에 따라 요금이 다르지만 대략 한국 기준 200~300원 정도면 이용 가능하다. 픽업 개조형의 경우, 손님이 많을 때 남자들이 차량 뒤에 매달린 채 운행하고 있다. 최근에 BRT 버스가 도입되면서 버스에서 에이컨이 나오며, 비교적 청결하게 운행을 하고 있으나 아직 까지 구간이 짧으며, 버스역의 거리가 길어 불편한 점이 있다. 렌트카는 양곤 시내 하루 사용 시 운전기사, 기름값 포함 승용차 80~120달러, 승합차 90~150달러선이다.

- 유무선 통신 및 인터넷

미얀마 통신통신부(Ministr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s)에서 운영하는 미얀마 통신

공사 (Myanmar Post and Telecommunication)는 유무선 통신 서비스를, 민간 2개 통신사업자인 Ooredoo와 Telenor는 무선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선전화의 경우, 단말기 보급량 대비 중계기 등 통신설비의 부족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양곤, 만달레이, 네피도 등 대도시 지역 을 벗어나면 통화할 수 없을 정도이며, 시내에서도 자주 끊기고 통화 품질도 좋지 않다. 무선전 화 회선 가격(USIM칩 구입가격)은 1회선 가입 시 2008년에는 2200달러였다가 2012년에는 1회선 에 240달러, 2013년 5월부터 저가 단말기로1500차트(1.7달러)에 판매하고 있으며 구하기도 쉽다. 최근에는 한국으로의 통화 요금이 할인돼 1분당 200차트이다.

미얀마에서는 인터넷 서비스도 정부가 운영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로는 MPT(Myanmar Post and Telecommunication)와 Myanmar Teleport(舊Bagan Cybertech)와 Red Link사가 있다. 인터넷 이용자는 각 서비스 사업자마다 60만 명 정도로 추정되며, MPT는 전화접속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다. 전화선 접속 최대속도는 256kbps, 512kbps 이며 가정용 인터넷은 3G, Wimax(무선 인터넷) 을 사용하고 있다. 전화접속 외에 MPT Fiber Line, MPT Satellite MPT E1, MPT ADSL, YT ADSL FTTx, McWILL YT, IPStar YT, BWLL YT WiMAX, RedLink WiMAX, Sky Net MPS를 통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일반 가정용 인터넷은 초기 설치비가 100달러이고 연회비 60달러, 이 용료는 속도에 따라 1Mbps에 100달러 이며 속도가 다소 느린 편이다. 상업용 인터넷은 초기 설 치비가 500달러이고, 연회비는 60달러, 사용료는 속도 1Mbps에 월 80달러이다.

- 환전/환율

미얀마 화폐단위는 차트(Kyat)로서 약칭은 K 또는 Kt이다. 1, 5, 10, 20, 50, 100, 200, 500, 1000, 5000, 10000차트가 통용되고 있는데 여행객들에게는 1000차트 내지 5000차트, 10000차트 지폐 사용이 상식적이다.

과거 미얀마는 만성적인 외환 부족으로 금융 시스템이 거의 붕괴됐기 때문에 공식 환율, 공정 환율, 시장 환율 등 3가지 환율이 있을 정도로 환율 시스템이 왜곡돼 있었다. 정부는 2012년 4월 1일부로 3가지 환율을 통합해 시장 환율제도(관리형 변동환율)를 운영하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2011년 10월 1일부로 공식 환전소를 개소했으며, 공식 환전소는 공항, 쇼핑몰 등에 50여 개를 운영하고 있다. 미얀마 내에서는 여행자 수표 및 신용카드가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여행 경비에 해당하는 달러화 현금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공항과 은행에서의 환전 시 환율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공항에서 환전하는 것이 편리하며, 1인당 최대 1000달러까지 환전할 수 있다. 구겨지거나, 찢어지거나, 닳은 화폐의 경우 환전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깨끗한 화폐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화폐가치에 따른 환율로 달라지므로 100달러 또는 50달러의 고액의 화폐권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 신용카드 사용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로 인해 신용카드를 사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으나, 최근 경제제재 해 제와 맞물려 일부 특급 호텔과 대형 음식점의 경우 싱가포르 등의 지점을 통해 신용카드가 제 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까진 특급 호텔에서 사용한 이용료에 한하며(일부 호텔내 독립 매장 제외), 카드 사용시 환전 수수료로 평균 3-5%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미얀마는 신용카드는 일부 제한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미얀마 내에서 필요한 경비는 모두 현금으로 준비해오는 것이 좋다.

- 국제/국내전화

미얀마는 통신시설이 매우 열악해 국제 전화료가 비싼 편이지만 최근 한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 대한 국제 전화료가 싸졌다.현재 한국으로 전화할 경우, 1분 기준 0.2달러 정도 청구되며, 호텔에서는 약 1달러 정도 나온다. 요금 지불은 현지화가 아닌 달러로 납부하게 된다. 한국에서 미얀마로 전화할 때는 전화선이 적은 현지 실정을 감안, 이른 새벽이나 밤늦게 통화하는 것이 좋으며 '001(국제전화코드)-95(미얀마국가코드)-1(양곤지역코드)-전화번호' 순서로 IDD 사용이 가 능하다. 미얀마에는 수신자 부담 통화(Collect Call) 방식은 없다.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전화할 경우에는 '00(국제전화코드)-82(한국국가코드)-2(서울지역코드)-전 화번호' 순서로 다이얼을 누르면 된다. 국내 전화의 경우, 양곤 시내에서 한국식 공중전화 부스 는 찾아볼 수 없고 일반가정용 전화가 거리에 설치돼 있다. 시내 전화의 경우 일반 로컬 가정 용 전화요금과 비슷한 수준인 1분당 30Ks(0.03달러)를 받고 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은 국내 통 화료 역시 달러화로 납부하며, 분당 0.2달러 정도다.

핸드폰은 0980, 0985, 0950, 0951, 0943 등을 누른 후 나머지 5-6자리 숫자를 누르게 되는데 회선 부족으로 인해 전화가 제대로 걸리지 않을 때가 많고, 대부분의 휴대전화가

양곤 시내 외곽 지대로 가면 이용이 불가능하다. CDMA와 GSM 방식이 혼용되고 있다. 한국 핸드폰의 경우, SK 와 KT, LG 모두 로밍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SK와 KT, LG 일부 기종의 경우, 원활히 작동되지 않은 경우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국제/국내소포

미얀마의 우체국 시스템은 매우 열악해서 물건을 찾거나 보낼 때는 직접 우체국까지 가야 한 다. 한국에서 미얀마로 소포를 보낼 때는 우체국 EMS 또는 DHL을 이용할 수 있다. 보다 저렴 하고 통관이 비교적 수월한 EMS서비스가 무난하다.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소포를 보낼 때도 역 시 EMS 또는 DHL을 이용할 수 있다. EMS는 대략 1주일, DHL은 3~4일 소요된다. 소포의 가치 가 50달러 이상의 경우, 물건 및 양에 따라 해당 관세를 지불해야 찾을 수 있다. 국내 소포의 경우, 미얀마 우체국에 대한 낮은 신뢰도 때문에 버스 운송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 하며, 양곤 시내에서는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Courier 서비스를 이용한다.

• 지역정보 (양곤)

- 지리/기후

미얀마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옛 수도이며 양곤 구의 주도이다. 원래의 이름은 랑군이었으 나 국호를 버마에서 미얀마로 바꾸면서 랑군의 명칭을 양곤으로 바꾸었다. 도시의 이름은 전쟁 의 끝 또는 평화라는 의미이다. 면적은 598.75km2이고 인구는 2010년 기준으로 4,348,000명이다.

2005년 11월 7일, 미얀마 정부가 행정 수도를 핀마나로 분리시켰다. 그리고 2006년에 이르면서 공식 수도를 이 도시에서 네피도로 옮겼다. 양곤의 도시기반시설은 동남아시아의 다른 주요 도 시들에 비해 개발이 덜 되어있다. 오늘날 양곤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식민지 시대의 건 물이 있다. 과거 20년간 중심가와 양곤 도시권에는 많은 고층 주거지와 상업용 건물들이 건설 되거나 개조되었지만, 대부분의 위성 도시들은 여전히 빈곤한 상태로 남아있다.양곤은 저지 미 얀마의 양곤 강과 바고 강의 합류점에 위치하며 마르타반 만에서 약 30km 떨어져있다. 양곤은 쾨펜의 기후 구분에서 열대 몬순 기후에 속한다. 도시는 4월부터 11월까지의 긴 우기와 12월부 터 3월까지의 상대적으로 짧은 건기를 특징으로 한다. 큰 비는 주로 우기에 오기 때문에 양곤 은 열대 몬순 기후로 분류할 수 있다. 연중 기온은 큰 변화가 없고 평균 최고 기온은 29~36°C, 평균 최저기온은 18~25°C이다.

- 역사

양곤은 6세기에 저지 미얀마를 지배하고 있던 몬족에 의해 다곤(Dagon)으로서 세워졌다. 다곤은 쉐다곤 파고다를 중심으로 한 작은 어촌이었다. 1755년에 얼라웅퍼야 왕은 다곤을 정복한 후에 '양곤'으로 개칭하였고 다곤 주변에 정착지를 세웠다. 영국은 제1차 영국-미얀마 전쟁 때 양곤을 점령하였으나 전쟁 후에 반환하였다. 도시는 1841년에 화재로 파괴되었다.

영국은 1852년의 제2차 영국-미얀마 전쟁 때 저지 미얀마 전역을 점령했고 이후 양곤을 영국령 버마의 상업과 정치의 중심지로 변모시켰다. 군사 공학자 알렉산더 프레이저의 설계를 기초로 영국은 삼각주에 격자형의 새 도시를 건설했고 동쪽은 판준다웅 수로, 남쪽과 서쪽은 양곤 강을 경계로 하였다. 양곤은1885년의 제3차 영국-미얀마 전쟁 때 영국이 고지 미얀마를 점령한 후에 영국령 버마의 수도가 되었다. 1890년대까지 양곤의 인구는 증가하였고 상업이 발전하여 칸도기 호와 인야 호 북쪽에 부유한 교외 거주지를 탄생시켰다. 영국은 또한 랑군 제네럴 병원 등의 병원과 랑군 대학 등의 대학을 세웠다. 식민지 시대에 양곤은 넓은 호수와 공원, 현대적인 건물과 전통적인 목조 건축물이 어우러져 '동쪽의 정원 도시'로 불렸다. 20세기 초까지 양곤의 공공 서비스와 도시기반시설은 런던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2차 대전 이전에 양곤의 인구 50만 명 중 약 55%가 인도인이었고 버마족은 3분의 1에 불과했 다. 카렌족, 중국인과 영국계 미얀마인 등이 나머지를 차지했다.

1차 대전 후에 양곤은 미얀마 독립 운동의 진원지가 되었고 랑군 대학의 좌파 대학생들이 이들 을 이끌었다. 1920, 1936, 1938년에 영국에 대항해 일어난 전국적인 시위는 모두 양곤에서 시작 되었다. 양곤은 1942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에 점령되었고 2차 대전 때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양곤은 1948년 1월 4일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에 버마 연방의 수도가 되었다.

미얀마가 독립한 지 얼마 후인 1958년에 많은 식민지풍 이름의 거리와 공원이 미얀마식 이름으로 개칭되었다. 1989년에 현재의 군부는 다른 많은 도시들의 영어 이름을 바꾸는 것과 동시에 이 도시의 영어 이름을 '양곤(Yangon)'으로 개칭하였다.

독립한 이래로 양곤은 외곽으로 확장되었다. 정부는 1950년대에 Thaketa, North Okkalapa, South Okkalapa와 1980년대에 Hlaingthaya, Shwepyitha, South Dagon와 같은 위성 도시를 계속 건설하였다. 오늘날 양곤 도시권의 면적은 거의 600km²에 이른다.

네윈의 고립주의 식 통치기(1962~88)에 양곤의 도시기반시설은 유지보수의 부족으로 인해 나빠 졌고 증가하는 인구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 1990년대 현재의 군부는 시장 정책을 약간 개방해 국내외의 투자를 이끌었고 도시의 기반시설은 조금 현대화되었다. 많은 식민지 시대의 건물들 이 고층 호텔, 사무용 건물, 쇼핑몰을 짓기 위해 파괴되었고, 이로 인해 시 정부는 약 200여개 의 귀중한 식민지 시대의 건물을 보존 목록에 올려놓았다. 주요 건축 프로그램의 결과 6개의 새로운 다리와 5개의 새로운 고속도로가 도시와 지방의 공업지대를 연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양곤의 대부분은 24시간 전기 공급과 규칙적인 쓰레기 수거와 같은 기초적인 도시 서비 스가 부족한 상태이다.

독립 후에 양곤의 민족 구성은 미얀마의 토착 민족들이 훨씬 많아지게 되었다. 독립 후에 많은 인도인과 영국계 버마인들이 떠났다. 많은 인도인들이 1960년대의 네 윈의 외국인 차별 정책 때문에 양곤을 떠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규모의 인도인과 중국인 사회가 양곤에 여전 히 존재한다. 영국계 미얀마인들은 미얀마를 떠나거나 다른 미얀마인과 결혼하면서 사실상 사 라졌다.

양곤은 1974, 1988, 2007년에 주요 반정부 운동의 거점이었다. 정부의 총격으로 도시의 거리는 시위자들의 피로 물들었다. 2008년 5월에 사이클론 나르기스가 양곤을 강타했다. 도시의 사상자 는 별로 없었지만, 양곤의 도시기반시설의 4분의 3이 파괴되거나 피해를 입었고 피해액은 8억 달러로 추정된다.

2005년 11월에 군사 정부는 양곤에서 북쪽으로 322km 떨어진 네피도로 행정 수도를 이전하였다. 어쨌든 양곤은 미얀마에서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상업 중심지로 남아있다.

- 인구

양곤은 비록 그 추정치가 다양하기는 하지만, 미얀마에서 가장 큰 도시이다(미얀마는 1983년 이래로 공식적인 인구 조사가 행해진 적이 없다). 유엔은 도시의 2010년의 인구를 435만 명으로 추정하는 반면, 미국 국무부는 2009년의 인구를 55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시의 인구는 1948년 이후 미얀마의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로 인해 크게 증가하였고 주변에 많은 위성 도시들이 세워졌다. 이주자들은 연락을 목적으로 양곤에 자신들의 출신지 협회를 만들었 다. 정부는 미얀마의 행정 수도를 네피도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였고 많은 공무원들이 양곤을 떠 났다.

양곤은 미얀마에서 가장 민족적으로 다양한 도시이다. 인도인들은 2차 대전 이전에는 다수를 이루었지만, 오늘날에는 버마족이 다수를 이룬다. 그러나 인도인과 중국인 사회가 특히 전통적인 중심가를 중심으로 여전히 존재한다. 민족간의 결혼, 특히 버마족과 중국인 및 버마족과 다른 미얀마의 민족 간의 결혼은 흔한 일이다. 도시에는 카렌족도 많이 살고 있다.

버마어는 도시의 가장 중요한 언어이다. 영어는 교육받은 계층에서 제2언어로 선호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해외로의 취업을 위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와 한국어가 인기를 끌고 있다.

- 경제

양곤은 미얀마의 교역, 산업, 부동산, 미디어, 오락과 관광의 중심지이다. 공식적인 정부 통계 에 따르면 도시의 명목 GDP는 2007년 기준으로 2조 3800억 챠트(20억 달러)이다.

도시는 기초적인 식료품부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품들의 교역 중심지이다. 바인나웅 시장은 미얀마에서 가장 큰 도매 시장으로 쌀, 콩 등의 농산품이 거래된다. 미얀마의 합법적인 수출입의 대부분은 미얀마에서 가장 크고 분주한 항구인 틸라와 항을 통해 이루어진다.

제조업은 고용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양곤에는 최소한 14개의 경공업 지대가 있으며 2010년 현재 4300개의 공장과 15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있다. 양곤은 미얀마의 의복 산업의 중심지 로 2008/9년에 2억 9200만 달러어치가 수출되었다. 양곤의 공장 노동자의 80% 이상이 일일 노동자이다. 대부분은 더 좋은 삶을 얻기 위해 지방에서 온 15~27세의 젊은 여성들이다. 제조업 분야는 구조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 2008년에 양곤의 2500개 공장이 필요로 하는 전력은 120MW였고 도시가 전체가 필요로 하는 전력은 530MW였으나 이중 250MW만을 받 을 수 있었다. 만성적인 전력 부

족으로 공장의 가동은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제한된다.

건설업은 주요한 고용원이다. 건설업은 네피도로의 국가 기구와 공무원들의 이전, 2008년 8월에 제정된 새로운 고층 건물에 최소한 12개의 주차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 대체로 열악한 사업 풍토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2010년에 승인된 고층건물의 수는 2008~2009년의 582개와 비교해 334개에 불과했다.

비록 동남아시아를 기준으로 볼 때 방문객 수는 적지만 관광업은 주요한 외화벌이 수단이다. 사이클론 나르기스는 관광업은 한풀 꺾어놓았다. 2008년에 양곤을 방문한 관광객 수는 예년에 비해 50% 줄어들었다. 1990년대의 외국인 투자로 양곤에 국제적인 수준의 호텔이 지어졌다.

2) 사업분야 이슈

- 조사기간 : 2017. 05. 15 ~ 31 (국내), 2017. 06. 15 ~ 24 (현지)
- 조사내용 :

  1. 한국에서 조사 가능한 문헌정보 수집 / 분석
  2. 재한 미얀마인 인터뷰 및 자문
  3. 현지 NGO 및 현지 공무원 인터뷰 등.
  4. 현지 거주 장애인 그룹 인터뷰 7명
  5. 현지 거주 장애인 가정 방문 인터뷰 8 Case

- 조사결과 :

• 양곤 – 장애인 일반 현황

– 현재 미얀마에 대한 장애인 통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미얀마 정부의 2014년 발표는 120만명의 장애인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는 미얀마 전체 인구 대비 2.3%에 불과하다.

– 미얀마 사회복지국은 정확한 장애인 통계는 확인할 수 없으며, 이는 현재 조사중이라는 입장이다.

– 미얀마는 장애 구분은 지체, 기각, 청각, 지적의 4가지 이고, 장애를 불심이 깊지 못해 생기는 천벌이라고 보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숨기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통계 작성은 더 요원하다.

– 현지 NGO 및 장애인단체들은 미얀마의 장애인 비율을 최소 5%에서 15%까지 다양하게 추정하 고 있는데... 양곤 인구 500만명을 기준으로 할 때, 최소 25만명의 장애인이 있다고 추정한다.

• 양곤 – 현지 거주 장애인 그룹 인터뷰

– 날짜 : 2017년 6월 20일

– 장소 : 미얀마지체장애인협회 회의실

연번	인적사항	인터뷰내용
1	m 우닝예 64세 랑다야 거주	-장애: 지체(다리절단)-오른쪽(골육종) -가족관계:4명(본인포함)-부인, 아들, 손자, 본인 함께 동거 -학력: 사원에서 공부하였음 -직업:무직 -거주:임대(월세:50,000짯) -생계:아들이 버는돈으로 유지 -수업:아들(100,000짯)송금/직업: 자동차운전(현재는 무직) -장애인으로 힘든점: 지체장애인으로서의 불편함/ 물비누를 만들어서 판매함 -느끼는 사회의 시선: 다른 사람과 다른 사회적 경험에 의한 부정적 감정 -장애인으로서의 사회적 바램: 보장구 지원과 경제적 지원
2	fm 모데체 18세 랑다야 거주	-장애:지체(폴리오/저성장) -가족관계:4명(부모,본인,여동생) -동거중 -학력:7학년(중학교)-재학중(일반학교)/부모님이 자전거로 통학 -생계:아버지 싸이카(3,000~5,000짯) -중학교학비:무료-사설학원비 월:25,000짯(학교내 방과후 교사가) -거주:무허가 주택(쫓겨날 위험) -장애인으로서 힘든점: 학교 다니는 것이 어려움(학교내에서 화장실등)/일상외출 어려움 -느끼는 사회의 시선: 불편한 시선은 크게 의식하지 않음 -장애인으로서의 바램:학교를 갈수 있도록 지원(학교내의 생활까지 포함)/생활환경 개선 필요
3	fm 소모쪼 17세 랑다야 거주	- 장애:소아마비(지체)-약부작용 -가족:5명(어머니,누나,여동생,남동생,본인) -학력:5학년/일반학교/스스로 통학 (세바퀴 휠체어) -생계:어머니 장사(쌀국수)-본인가게(5,000~7000짯) -거주:월세-50,000짯/가게자리세:5,000짯 -장애인으로서 힘든점:동네길 안좋음/남동생은 2학년 까지만,본인의 통학도우미 동생이 등굣길은 동행하나 학교내에서 화장실등 어려움 -느끼는 사회의 시선:친구들은 잘 대해줌 -장애인으로서의 바램: 외출의 어려움, 안전한 도로등/생활환경 필요

4	fm 님 미 타이 32세 랑다야 거주	-장애: 왼쪽 다리 폴리오 -가족:9명(부모님,여동생2명,남동생2명,아들2명) -학교:대학교 1학년(지구과학)-시험점수-졸업희망/재학중 -직업:옷수선 -생계:1일2,500~3,000짯-동생1명:운전/동생1명:막노동(300,000짯)x2 -주거:어머니 동생의 집 -장애인으로서 힘든점:2살 때 장애발생 -재봉기술 교육 이후 일함-공장-본인 work 5년 -학창시절 괴롭힘 기억. 외출포기. 도보능력 퇴하 -느끼는 사회의 시선:외출이나 버스탑승시,차별의 시선 느낌 사회적 시선은 크게 느끼지 못함 -장애인으로서의 바램: 직업 창출 및 지원/교육 지원 및 취업알선 활동
5	m 우뇨아웅 36세 랑다야 거주	-장애:시각 장애(문맹) -가족:5명(본인,부인,아이3) -학교:대학교 졸업(정신 보건학)/소셜워크 -직업:랑다야 지역 장애인 단체 회장-생수 판매-11명 스탭/8개 사업 회원 200명 (뇌병변, 발달장애, 시각, 부모 등/유형무관) -주거:단체 사무실 겸 주거(월세x) -부인은 옷가게 -장애인으로서 힘든점 *시각 장애인 학교 15살 입학/2009년 대학 졸업 *학교와 사회에서 길을 물으면 돈을 주는등 사회적 시선 느낌 *시각 장애인으로서 도보등 어려움 *전봇대 등 장애물 위험 *불법주차 등 어려움 *버스 등 기다리지 않고 출발 *버스 탑승시 차별(요금 할인 등 없음) -장애인으로서의 바램 *취업의 기회 부족함 *장애인 복지법(장애인법?)개선/개정 필요 *학교 등 생활환경, 편의시설 개선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배려 부족-대중교통 이용시 특히 불편 *사회적 배려위한 정책 노력 필요
6	이맷맷 18세 랑다야 거주	-장애:뇌병변(cp)-출생후 3일후에 경기-열병-발달지적장애동반 -가족:3명(부모님, 본인) -학교:초등학교 까지 -하는일:부모님과 함께 있음(랑다야 단체) -생계: 아버님 오토바이 택시(1일 5,000짯)/도시작 공장 직원 대상 무허가 주택 방 임대 (1일 5,000짯) -주거:무허가 주택 -어머니는 예전 교사 아버지는 군관련 공무원/군관련 문제로 남편퇴직-이후 빈곤 -장애인단체 또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 같아서 랑다야로 이사 -딸 외출시 남성들의 시선, 자리양보 등 사회적 배려 부족(사회 인식 개선)
7	따세위 36세 랑다야 거주	-장애:뇌병변-경증-미혼 -가족:3명(어머니, 조카) -학년:8학년까지(중학교)/학교에서 친구들이 괴롭힘, 가족내부에서 무관심/필기 학습 어려움 -직업: 랑다야 지역 장애단체 회계쪽 근무(복권판매 겸업/비누제조 및 판매) -생계: 월 150,000짯 가량(어머니 무직)-9학년 조카(후 취업/빵공장) -주거:임대(월세)-45,000짯 -장애인으로서 힘든 점은 사회적 시선 *장애인이라서 물건을 사기도 하는데, 돈 안내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음 *물비누 방문판매시 장애인이라 어려움 *수금 어려움 본인 바램 *이동권 보장 *직업활동 교육/취업알선 *전문인

• 양곤 - 현지 거주 장애인 방문 인터뷰

- 날 짜 : 2017년 6월 21일(수)
- 장 소 : 미얀마 양곤 Hlaing Tar Yar 지역(양곤공항에서 북서쪽으로 8km)
- 대상자 : Shone Si Yar (손시야) 단체, U Chit Khin 회장 외, 7Case
- U Chit Khin 회장

Q 단체 소개와 마을의 현황을 설명해 달라.

A 단체에서 파악한 장애 아동은 150여명. 대부분 중도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질병이나 병원 주사로(의료사고) 인한 장애 발생이 많은 편이다. 현재 허가 받은 집은 18,000채 정도이며 무허가 집도 상당히 많지만 수치를 가늠할 수 없다. 단체 멤버는 총 11명. 만짯씩 저축하여 순서대로 돈을 받는다(한국의 계문화와 비슷) 단체 멤버는 모두 장애인 가족이며 비교적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편이다.

Q 장애인 관련하여 어떤 일을 하나?

A MPHA에서 (타 단체 받은) 지원금을 보내주는데 입학에 필요한 등록금을 가정형편에 따라 배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1년 수혜자는 50~60명 정도. 그리고 맞벌이 부모를 위한 장애 아동 시보호 및 시골에서 이사 온 장애 아동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집을 보수해 주는 일을 하고 있다.

Q 장애 아동들은 학교에 다니고 있나?

A 그렇다.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도 2명 있다. 그러나 휠체어가 있어야 갈 수 있다.

Q 단체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되나? (의사결정 구조에 관한 질문)

A 월 1회 전체 회의를 진행하여 수익 사업을 논의하고 배분을 결정한다.

Q 장애인을 위해 일하게 된 계기가 있나?

A 장애인 가족이 없어서 누군가를 도와 줄 시간이 있다. 현재 손녀가 NGO단체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단체에서도 장애인을 월 1회 치료지원을 해주는 것을 논의 중이다.

Q 이 지역에는 장애인을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A 가장 시급만 문제는 교육이다. 경제적인 문제로 장애 아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치료 서비스이며 세 번째는 무허가 땅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집수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는 불법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단속을 해서 고민이다.

방문 인터뷰 Case 1

날 짜 : 2017년 6월 21일(수)
장 소 : 미얀마 양곤 Hlaing Tar Yar 지역(양곤공항에서 북서쪽으로 8km)

이름 : Daw Cho Cho Zin
성별 : 여
나이 : 54살
장애유형 : 지체장애
학력 : 초등학교 4학년
결혼유무 : 유

자녀 : 딸 2명, 아들 2명
동거인 : 남편, 딸1, 손자3, 아들2
직업 : 없음
수입 : 없음
월임대료 : 12만 짯
보조기기 : 목발

- 현재 수입이 없어 딸이 장사를 하면서 임대료를 일부 내주고 있음
- 목발을 사용해 혼자서 외출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가급적 외출을 하지 않으며 외출할 경우 아들 도움을 받는 편
- 가장 어려운 점은 쉽게 이동하지 못하는 점
-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휠체어 지원

방문 인터뷰 Case 2

날 짜 : 2017년 6월 21일(수)
장 소 : 미얀마 양곤 Hlaing Tar Yar 지역(양곤공항에서 북서쪽으로 8km)

이름 : Aung Thu Phyo
성별 : 남
나이 : 13세
장애유형 : 지체장애(선천)
학력 : 현재 중학교 6학년
결혼유무 : 해당 없음

자녀 : 해당 없음
동거인 : 아버지, 어머니, 형
보조기기 : 없음

- 아버지의 주 수입원은 싸이카 운전. 현재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 단체가 지어줌. 월 임대료는 없으며 월 수입은 3천~3천5백짯
- 혼자 이동이 어려움. 이전에 MPHA에서 지원해 준 휠체어가 있으나 인도 상태가 좋지 않아 고장난 상태. 현재는 사용할 수 없음
- 등교는 어머니가 자전거로 태워 주거나 아버지가 싸이카로 데려다 주며 비장애 학생과 똑같은 수업을 받고 있음
- 학교 내에서는 친구들 도움으로 이동을 하고 있음
- 보행이 가능하나 오래 지속하지는 못함
- 학교 등록금은 없으며 학원(방과후 활동) 비용으로 월 1만짯 지출함
- 현재 병원 치료는 따로 받고 있지 않음
- 가장 필요한 부분은 직업 교육
- 장래 희망은 식료품 장사

방문 인터뷰 Case 3

날 짜 : 2017년 6월 21일(수)
장 소 : 미얀마 양곤 Hlaing Tar Yar 지역(양곤공항에서 북서쪽으로 8km)

이름 : U Nui Nage
성별 : 남
나이 : 64세
장애유형 : 지체
결혼유무 : 유

자녀 : 8명
동거인 : 부인, 아들, 손자
직업 : 비눗물 판매
보조기기 : 현재 사용안함

- 60살 뼈암으로 인해 오른쪽 다리 절단
- 주 수입은 비눗물 판매. 100병 판매시 4만짯의 순수입이 발생하며 한 달에 50~80병 판매됨. 주 고객은 동네 주민이며 이동에 제약이 있어 공장에 다니는 젊은이들에게 부탁하기도 함
- 현재 거주하는 곳은 무허가 건물이며 월 임대료는 5만짯
- 아들은 회사 운전기사직을 하다 한 달전 실업. 그동안은 수입 15만짯에서 매월 10만짯을 생활비로 보태줬음
- 사용 보조기기는 의족. 현재는 체중 변화로 맞지 않아 사용 못함
- 평소에 외출을 거의 못하는 편이며 필요시 지팡이를 이용해 외출함
- 현재 생활에 부족한 점이 너무 많지만 가장 어려운 점은 임대료를 내는 것
- 장애 발생 이전에는 나무벽을 만들어 판매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외출이 많지 않았음. 장애 발생 후 마음대로 이동을 못하는 것이 가장 불편함

방문 인터뷰 Case 4

날 짜 : 2017년 6월 21일(수)
장 소 : 미얀마 양곤 Hlaing Tar Yar 지역(양곤공항에서 북서쪽으로 8km)

이름 : Moe Thangan
성별 : 여
나이 : 18세
장애유형 : 지체(왜소증)
결혼유무 : 무

동거인 :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
직업 : 학생
보조기기 : 없음

- 무허가 건물에 거주 중이며 임대료는 없음
- 현재 7학년이며 학비는 무료. 학교 생활은 매우 재밌으며 친구들이 많이 도와준다고 함. 방과 후 학원비로 2만5천짯 납부하고 있음
- 약간의 보행이 가능하며 휠체어는 없음
- 아버지가 싸이카로 등하교를 해주고 있으며 교실까지 데려다 줌. 학교 가는 길이 좋지 않아 휠체어가 있어도 이동이 어려움
- 학교 생활에 가장 불편한 점은 학교내 화장실이 멀어 다니기 힘듦
- 장래희망은 옷 수선 하는 일

방문 인터뷰 Case 5

날 짜 : 2017년 6월 21일(수)
장 소 : 미얀마 양곤 Hlaing Tar Yar 지역(양곤공항에서 북서쪽으로 8km)

이름 : Soe Moe Kgaw
성별 : 남
나이 : 18세
장애유형 : 지체
결혼유무 : 무

동거인 : 어머니, 누나2, 동생 3
직업 : 학생
보조기기 : 없음

- 2살 때 주사로 인해 장애 발생(근육장애 추정)
- 어머니는 수년전 이혼 후, 혼자 음식장사를 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음
- 하루 수입은 4~5천짯이며 월 임대료는 5만5천짯
- 그림을 잘 그려 예전에 그림그리기 대회에 입상해 TV를 구입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장애가 심해져 손이 떨려서 그림을 그리지 못함
- 현재 수동휠체어가 있지만 혼자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동휠체어가 있으면 좋겠음
- 통학은 월 3만짯을 주고 등학교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금액 부담으로 지금은 남동생이나 사촌형의 도움을 받아 통학하고 있음
- 학교에서는 화장실이 가깝고 변기로 되어 있어 크게 불편함은 없음
- 5살까지는 치료를 받았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현재는 병원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음

방문 인터뷰 Case 3

날 짜 : 2017년 6월 21일(수)
장 소 : 미얀마 양곤 Hlaing Tar Yar 지역(양곤공항에서 북서쪽으로 8km)

이름 : Mg Thit Lwin
성별 : 남
나이 : 12세
장애유형 : 지체

동거인 : 아버지, 어머니, 누나3,
형1, 동생1
보조기기 : 없음

· 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음. 장애가 심해 혼자 앉아 있지 못해 누워있어야 함
· 하루 종일 보호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엄마는 직업을 갖기 못하고 돌봐주고 있음
· 생후 8개월 때 고열로 병원에 간 이후 장애 발생(폴리오 바이러스로 인한 소아마비)
· 부모가 생각하는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재활운동
· 아동의 가장 큰 욕구는 학교에 다니는 것

방문 인터뷰 Case 3

날 짜 : 2017년 6월 21일(수)
장 소 : 미얀마 양곤 Hlaing Tar Yar 지역(양곤공항에서 북서쪽으로 8km)

이름 : Ko Than Win
성별 : 남
나이 : 42세
동거인 : 어머니

장애 : 지체, 시각
직업 : 학생
보조기기 : 없음

· 13년 전에는 보행이 가능했으나 장애가 심해져 현재는 휠체어 필요함
· 월 임대료 2만짯. 그동안 타 단체에서 지원해줬으나 8개월 전부터 지원이 끊김
· 주변 이웃의 도움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있음
· 수동휠체어로 이동을 하고 있으며 동네 아이들이 밀어줌
·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 집 고장 시 수리를 해주는 것
· 하고 싶은 일은 수입이 들어오는 사업(구체적으로 모르겠다)
· 하루 일과는 기상-이웃의 도움으로 식사-이웃과 교류-이웃의 도움으로 식사- 취침

• 양곤 – 사회복지 공무원 인터뷰

– 날 짜 : 2017년 6월 19일 (월)
– 장 소 : 미얀마 양곤 Presidential Nursery
– 대상자 : 란 다 누에 하 (여성) / 양곤 사회복지국 부국장

Q 미얀마 장애인의 구분 및 현황을 알려달라.

A 미얀마는 장애를 지체, 시각, 청각, 지적의 4가지로 구분한다. 전체 장애 인구 및 유형별 통계 등은 네피도의 중앙 정부에서 조사중이다.

Q 주요 사업은 무엇인가?

A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 운영과, 직업학교 운영 등이다.

Q 기타 다른 사업은 없는가?

A 없다.

Q 장애인 복지를 위한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A 수도에서 준비중이다.

Q 어떤 장애인들이 특수학교와 직업학교에 들어갈 수 있나?

A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판단은 각 학교별로 한다.

Q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는 있는가?

A 사회복지법에 근거가 있고, 장애인 관련 법률이 최근 제정되었다.

Q 양곤시의 사회복지국에 대해 알려달라.

A 우리는 장애인학교 4개, 어린이집 31개, 고아원 19개를 운영하고 있다. 양곤시 사회복지 공무 원은 보육교사를 포함해 700명 정도 된다.

Q 미얀마의 장애인 정책 기조라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

A 우리는 교육지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장애인은 거의 취학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더 악화 되고 있다. 장애인은 무료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고, 안마기술을 비롯한 각종

직업 교육을 받 는다. 기타 생활환경 개선을 비롯한 노력은 준비중이라고 이야기할 수 밖에 없다.

• 양곤 – 청각장애인 특수학교 Mary Chapman School 방문

- 날 짜 : 2017년 6월 19일 (월)
- 장 소 : 미얀마 양곤 Presidential Nursery
- 대상자 : 교장

Q 학교에 대해 알려달라

A 우리 학교는 1919년 영국인 Mary Chapman이 설립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문학교 이고, 청 각장애인을 교육하기 위한 교사도 양성한다. 전체 학생은 400명이고 모두 청각장애인들이다.

Q 이곳 학생들은 몇 년간 이 학교에서 공부하나?

A 우리는 초등학교 0학년부터 7학년 까지의 과정을 가르친다. 6세부터 입학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입학하는 학생들도 있다.

Q 학비는 어떻게 되는가?

A 1달 기준 5,000짯을 받는다. 기숙사는 1달에 15,000짯이다. 부모가 너무 가난해서 학비를 낼 수 없다면 무료로 교육한다.

Q 운영비가 부족할 것 같은데, 정부 지원을 받고 있나?

A 정부 지원은 없다. 서양의 기독교계 재단의 지원을 받는다. 1년에 한번 정부에서 소정의 기부 를 해 온다.

Q 이 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조건이 있나?

A 청각장애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다만 청각장애인이면서 말을 할 수 없어야 한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선천적으로 청각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Q 기독교계 재단의 지원을 받는다면 학생들은 모두 기독교를 믿어야 하는가?

A 종교 여부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 나도 불교를 믿는다.

Q 이 학교는 미얀마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학교인가?

A 그렇다. 우리 학생들은 7학년까지 기본 과정을 졸업하면 상급학교나 직업학교 등에 진학한다.

Q 미얀마의 장애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A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더 많은 교육, 더 많은 지원. 무엇보다 경제적 자립이 필요하다.

• 양곤 – KOICA 미얀마 사무소 방문

- 날 짜 : 2017년 6월 22일 (목)
- 장 소 : No.514 (A), 4Ward, Waizayandar Road, South Okkalapa Tsp, Yangon
- 대상자 : 전지혜 부소장

Q 양곤에서의 사업을 위해 도움말이 있다면?

A 미얀마는 아직 개발이 많이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빈곤과 저개발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다. 우리는 주로 정부 베이스 사업을 하기 때문에, 미얀마 정부의 요청에 따라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 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 당신들과 같은 민간 NGO들이 서로 교류하며, 당사자의 욕구에 기반한 사업들을 늘려 나가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한국 NGO가 하고 싶은 아니라, 실제 미얀마의 시민사회와 장애인들이 원하는 일을 함께 찾아, 함께 해 나가는 것이 중요 하겠다.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미얀마 사회와 미얀마의 장애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좋은 사업을 개발하기 바란다.

• 양곤 – Handicap International 사무소 방문

- 날 짜 : 2017년 6월 22일 (목)
- 장 소 : Handicap International 사무소
- 대상자 : Carla Vitantonio Country Director

Q 미얀마에서 오래 활동한 활동가로서 미얀마의 장애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A 무엇이든 필요하다. 무엇이 더 필요하냐며 따지고 고르는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입

고 있는 옷이라도 지금 이곳의 장애인, 아니... 미얀마 사회에는 필요하다.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 다면 그것이 무엇이건, 일단 시작하라.

Q 양곤에서의 사업을 위해 우리에게 해 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A 참고 또 참아라. 미얀마의 사회적 특성인지 모르겠으나, 미얀마에서의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로 답답함을 느끼게 하고, 조바심이 들게 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것은 이곳 사람들의 특성이다. 그러니 한 번, 두 번 때로는 짜증도 나고, 힘도 들 테지만 꼭 참고 또 참으면서 미얀마와 미얀마의 사람들, 그리고 이곳 장애인들에 도움되는 일을 찾아내기 바란다. 그것이 NGO고, NGO가 정부와 다르게 이 사회와 호흡하는 방법이다. 미얀마를 이해하고 미얀마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라도 주고 싶다는 그 마음을 잊지 말라. 난 젊은 시절 북한에도 있었고, 한국에서도 생활했다. 당신들도 과거엔 이곳과 비슷했다. 이제 그 시절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미얀마의 변화에도 기여해 주길 바란다.

• 양곤 – MPHA(미얀마 지체장애인 협회) 프로젝트 미팅

– 날 짜 : 2017년 6월 22일 (목)
– 장 소 : No.(65)GF, Shwe Laung St:Sanchaung Tsp ; Yangon,Myanmar
– 참여자 : 한국 조사단 4인, 통역 1인, Aye Ko Ko(사무총장), Ko Ko Oo(부회장) 외, MPHA 스텝

- 한 국 : 우리는 베트남 호치민에서 장애인들의 이동권 향상을 통한 자립생활 지원과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당신들에게도 이 모델이 유효할지 우리는 판단이 어렵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들려 달라.
- 미얀마 : 당신들이 조사를 해서 알겠지만, 양곤에서는 오토바이를 활용할 수 없다. 또한 베트 남과 비교해 사회적 자본 등이 너무나 부족해서 지금은 이동지원을 한다고 해도, 적절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우리는 직업 또는 기술 교육 지원을 바란다.
- 한 국 : 사정이 그와 같다면 직업 교육을 해도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것 아닌가?
- 미얀마 :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더 많은 직업과 더 많은 사회 참여를 달성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내부에서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거다. 자체적으로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사회서비스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원한다.

- 한 국 : 한국의 KOICA와 인천 전략 기금에서 베이커리 공장 및 교육 시설을 제공하는 것으로 안다. 정부 베이스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해도 직업과 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것 아닌가?
- 미얀마 : 우리가 직접 우리의 욕구에 맞춰 우리가 바라는 교육을 하고, 바라는 직업을 창출한 다는 것이 중요하다. 접근성 문제도 있고.
- 한 국 : 알겠다. 우리들의 조사에서도 많은 장애인들이 직장을 원했다. 우리의 협력사업의 기본적인 방향은 장애인들이 경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통합되고, 그 안에서 사회적 역량을 확보해 내부로부터의 변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하겠다.
- 미얀마 : 우리가 교육의 내용을 정할 수 있나?
- 한 국 : 물론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현지조사를 나와 있는 거다. 이제 우리는 한국에 돌아가 이번 조사의 내용과 당신들과의 미팅에서 협의된 사업으로 KOICA에 지원 요청을 할 거다. 우리의 미팅이 KOICA의 사업 승인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 하겠다.
- 미얀마 : 이해한다. 우리는 예술 교육을 통해 장애인들이 관광객 상대의 기념품 제작 업체 등에 취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싶다. 어떤가?
- 한 국 : 우리는 현지조사를 하면서 Chapman School에서 봤던 미용실이 인상적이었다. 만일 우리가 교육을 한다면 자체적으로 업체를 만들어 수익활동을 하는 것은 어떤가? 일종의 협동조합같은 형태를 취하면서, 사업장을 만들고 그 사업장을 통해 취업과 경 제활동을 하는 모델이 어떨까 싶다.
- 미얀마 : 돈이 많이 들 것이다.
- 한 국 : 그걸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장담할 수는 없으나 최선을 다 하겠다. 일단 이번 현지조사와 우리의 미팅은 “1. 사회적 경제를 활용한 경제활동”을 주제로 “2. 카페 창업, 혹은 예술 교육”중 하나로 프로젝트 지원 신청을 한다고 정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 미얀마 : 동의한다.
- 한 국 : 다음 번 만날 때는 더 좋은 소식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자.

• 양곤 – 거주 장애인 / 비장애인 욕구조사 결과

– 날 짜 : 2017년 6월 16일 (금) ~ 6월 22일 (목)
– 장 소 : 양곤 일대

– 대 상 자 : 양곤 거주 장애인 50명 / 양곤 거주 비장애인 100명

– 특이사항 :

① 장애 혹은 언어적 문제로 답변이 없는 경우 발생

② 용어에 대한 이해 내지 인식의 차이로 질문의 요지에 적절치 않은 답변 발생

③ 위의 경우 통계에서 제외함.

◈ 장애인 욕구 조사 결과

○Section 1 – 기본항목

① 응답자의 성별

남 성	여 성
77.6%	22.4%

② 응답자의 연령

1_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8.5%	45.1%	22.0%	11.0%	8.5%	3.7%	1.2%

③ 응답자의 민족 구성

버마족	샨족	친족	라킨족	기타
82.5%	2.5%	2.5%	2.5%	10%

④ 응답자의 혼인 여부

유배우자	사별	이혼	별거	미혼	기타
29.8%	4.8%	1.2%	0.0%	64.3%	0.0%

⑤ 배우자의 장애 유무

장애	비장애
0.0%	100.0%

⑥ 응답자 중 기혼자의 자녀 유무

없음	1명	2명	3명	4명 이상
46.9%	24.5%	10.2%	12.2%	6.1%

⑦ 응답자 중 기혼자 자녀의 장애 유무

장애	비장애
2.4%	97.6%

○ Section 2 – 미얀마 장애인구 및 특성

① 응답자의 장애 유형

지체	시각	청각	정신(지적)	기타
91.5%	1.2%	3.7%	0.0%	3.7%

② 응답자의 장애 정도

중함	다소 중함	보통	다소 가벼움	가벼움
21.3%	37.5%	16.3%	20.0%	5%

③ 응답자의 장애 발생 원인

선천적 원인	출산시 원인	질환	사고	원인불명
25.6%	3.7%	20.7%	46.3%	3.7%

○ Section 3 – 미얀마 장애인의 경제 활동

① 응답자의 한달 평균 소득

100$ 미만	100~199$	200~299$	300~399$	400$이상
74.3%	17.1%	0.0%	5.7%	2.9%

② 응답자의 한달 평균 생활비

100$ 미만	100~199$	200~299$	300~399$	400$이상
58.7%	23.9%	13.0%	4.3%	0.0%

③ 응답자의 한달 기대 소득

100$ 미만	100~199$	200~299$	300~399$	400$이상
23.9%	19.6%	39.1%	10.9%	6.5%

④ 응답자의 주요 소득원

급여	정부 지원금	민간 지원금	가족의 도움	기타
50.8%	1.5%	1.5%	43.1%	3.1%

⑤ 응답자의 직업 유무

있음	없음
36.7%	63.3%

⑥ 응답자중 취업자의 한달 평균 급여

100$ 미만	100~199$	200~299$	300~399$	400$이상
75.0%	18.8%	0.0%	3.1%	3.1%

⑦ 응답자의 한달 평균 근무 시간

1 ~ 15시간	16 ~ 25시간	26 ~ 35시간	36시간 이상
46.2%	2.6%	2.6%	48.7%

⑧ 응답자의 거주(동거) 정보

가족과 동거	복지 시설 거주	독거	기타
95.2%	0.0%	4.8%	0.0%

○ Section 4 – 미얀마 장애인의 교육 및 직업 훈련

① 응답자의 교육 수준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2.4%	26.2%	27.4%	26.2%	17.9%

② 응답자의 직업 교육 경험 비율

직업 교육 경험	무경험
59%	41%

③ 응답자가 느끼는 직업 교육의 효과

도움이 되었다	보통	도움되지 않음
7.1%	30.0%	62.9%

○ Section 5 – 미얀마 장애인의 일상 생활

① 응답자의 일상생활 중 보조 활동 필요 정도

필요 없음	다소 필요 없음	보통	다소 필요	대부분 필요
13.8%	27.5%	46.3%	11.3%	1.3%

② 응답자의 외출시 이용 수단

버스	자가용	전동휠체어	자전거	도보	기타
20.5%	10.3%	5.1%	6.4%	47.4%	10.3%

③ 응답자의 주변 생활 환경에 대한 인식

편리하다	보통이다	불편하다
5.0%	48.8%	46.3%

④ 응답자가 느끼는 가장 필요한 사회서비스

교육	직업훈련	경제적 도움	주거지원	의료지원	교통수단
6.8%	42.5%	20.5%	17.8%	5.5%	6.8%

○ Section 6 – 미얀마 장애인의 사회참여 / 인권

① 응답자의 지난 2017년 4월 1일 보궐선거 참여 여부

참여	비참여	해당없음
51.3%	42.5%	6.3%

② 응답자가 느끼는 미얀마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정도 및 개선 여부

개선점 많음	다소 많음	보통	다소 양호	양호함
35.1%	16.9%	20.8%	11.7%	15.6%

③ 응답자가 느끼는 장애 차별의 정도

항상 느낌	가끔 느낌	별로 느끼지 않음	전혀 느끼지 않음
27.2%	58.0%	7.4%	7.4%

④ 응답자가 느끼는 미얀마 사회의 장애인 인권

개선점 많음	다소 많음	보통	다소 양호	양호함
54.9%	21.1%	8.5%	8.5%	7.0%

⑤ 미얀마 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응답자의 평가

개선점 많음	다소 많음	보통	다소 양호	양호함
52.2%	13.0%	8.7%	10.1%	15.9%

ㅇ Section 7 – 미얀마 장애 아동 정보

① 응답자 자녀의 취학 여부

취학	미취학
59.3%	40.7%

② 응답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의 유형

일반학교	특수학교	전문학교	기타
61.3%	12.9%	25.8%	0.0%

③ 응답자 자녀의 미취학 원인

경제적 이유	이동편의 문제	사회적 인식	기타
48.0%	40.0%	4.0%	8.0%

④ 응답자 자녀의 성년이후 삶에 대한 인식

많이 걱정	약간 걱정	잘 모름	약간 희망적	많이 희망적
6.9%	17.2%	13.8%	17.2%	44.8%

⑤ 미얀마 장애 아동 교육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

적절한 교육 제공	적절한 교육 제공 하고 있지 못함
54.8%	45.2%

⑥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회적 지원에 관한 응답자의 인식

특수학교	전문교육	정부 지원	시민사회의 역할	교육환경 개선
11.3%	27.4%	35.5%	6.5%	19.4%

◈ 비장애인 장애인식 조사 결과

ㅇ Section 1 – 기본항목

① 응답자의 성별

남 성	여 성
17.1%	82.9%

② 응답자의 연령

1_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0.0%	41.0%	33.3%	12.8%	12.8%	0.0%	0.0%

③ 응답자의 민족 구성

버마족	샨족	친족	라킨족	기타
68.3%	2.4%	4.9%	4.9%	19.5%

④ 응답자의 최종 학력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상
4.9%	7.3%	7.3%	2.4%	78.0%

⑤ 응답자의 혼인 여부

유배우자	사별	이혼	별거	미혼	기타
51.2%	0.0%	0.0%	4.9%	43.9%	0.0%

⑥ 배우자의 장애 유무

장애	비장애
6.3%	93.8%

⑦ 응답자 중 기혼자의 자녀 유무

없음	1명	2명	3명	4명 이상
50.0%	22.2%	13.9%	11.1%	2.8%

⑧ 응답자 중 기혼자 자녀의 장애 유무

장애	비장애
22.6%	77.4%

○ Section 2- 장애에 대한 인식의 정도

① 응답자의 지인 중 장애인 존재 여부

존재	부존재
68.3%	31.7%

② 일상 생활 중, 장애인 목격 빈도

거의 못 봄	1달 1번	1주 1번	1일 1번	그 이상
2.8%	11.1%	5.6%	22.2%	58.3%

③ 응답자의 장애인에 대한 첫 인상 (주관식)

슬프다, 안타깝다, 동정한다, 불쌍하다

④ 미래 당신도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빈도

전혀 없음	없음	모르겠음	생각함	자주 생각함
14.6%	22.0%	26.8%	29.3%	7.3%

⑤ 미얀마 사회의 장애 인식에 대한 응답자의 생각

매우 긍정적	긍정적	보통	부정적	매우 부정적
0.0%	2.4%	51.2%	41.5%	4.9%

⑥ 미얀마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

충분함	대략 충분함	보통	대략 불충분함	불충분함
0.0%	9.8%	17.1%	63.4%	9.8%

⑦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에 관한 응답자들의 인식

동의	부동의
92.5%	7.5%

○ Section 3 - 장애인에 대한 우호도

①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

매우 부정적	부정적	중립적	긍정적	매우 긍정적
0.0%1	2.6%	28.2%	69.2%	0.0%

② 복지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

사회적 자원 부족 때문에, 장애인 보다 급한 일이 많다.

③ 주변에 장애인이 있을 때, 응답자의 반응

매우 불편	불편	무관심	불편하지 않음	함께할 수 있음
2.5%	5.0%	0.0%	50.0%	42.5%

④ 장애인과 함께 일을 해야 할 상황을 가정할 경우 응답자의 반응

매우 불편	불편	무관심	불편하지 않음	함께할 수 있음
2.5%	2.5%	0.0%	35.0%	60.0%

⑤ 장애인은 직업 생활을 하기 충분한가?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

전혀 아님	아님	보통	충분함	매우 충분함
0.0%	23.1%	33.3%	41.0%	2.6%

⑥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은 사회적 비용인가?에 대한 응답자들의 반응

절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0.0%	56.8%	27.0%	16.2%	0.0%

⑦ 당신의 자녀가 장애인과 함께 공부한다면? 에 대한 응답자들의 반응

매우 부정적	부정적	중립적	긍정적	매우 긍정적
0.0%	0.0%	51.4%	45.7%	2.9%

⑧ 미안먀의 장애인 사회참여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

개선점 많음	다소 많음	보통	다소 양호	양호함
13.5%	21.6%	21.6%	21.6%	21.6%

⑨ 미안마 사회의 장애 차별에 대한 응답자들의 민감도

항상 느낌	가끔 느낌	별로 느끼지 않음	전혀 느끼지 않음
8.1%	64.9%	13.5%	13.5%

⑪ 미안마 장애인 인권에 관한 응답자들의 응답

개선점 많음	다소 많음	보통	다소 양호	양호함
25.0%	36.1%	27.8%	5.6%	5.6%

⑫ 미안마 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가

개선점 많음	다소 많음	보통	다소 양호	양호함
21.6%	24.3%	29.7%	8.1%	16.2%

가. 주목 분야

-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경제적 역량 강화에 주목하고자 함.
- 경제성장기에 미안마의 장애인들은 경제적으로 도태되거나, 혹은 사회의 주변인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대규모 자본과 인력이 필요한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한 기본적인 여건 마련을 위해 장애인 시민사회 내부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증대하고 있음.

- 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생활 지원, 그리고 당사자적 결정권 확대를 추구하는 미얀마 장애 시민사회의 내부적 과제에도 부응하는 접근이며, 미얀마 사회의 장애 친화적 사회인식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것임.

나. 현지의 수요 및 상황

- 사회적 경제를 활용한 장애인 직업 창출 및 소득 증대 프로그램의 필요성
  -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한 양곤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는 궁극적으로 장애인도 경제활동을 통해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고, 경제적 주체로서 사회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음.
  - 낮은 소득, 열악한 생활환경과 낮은 사회개발 정도, 장애인에 친화적이지 못한 사회환경은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미얀마 사회 전반의 장애와 장애인의 삶과 인권에 대한 인식개선을 더디게 하는 악순환을 보이고 있음.
  - 1980년대 한국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낮은 인식이 현재의 수준으로나마 개선되는 과정을 복기해 보면, 장애인의 경제적 주체로서의 역량 확보가 가지는 사회적 의의를 확인할 수 있음.
  -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사회 전반에 장애인과 장애인의 문제를 노출시키기 위한 사회적 경제를 활용한 소득 증대 사업, 즉 장애인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은 미얀마 장애인들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확대, 그리고 정상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장애인 지원 사업임을 확신할 수 있음.

- 해당 지역, 분야에 대한 타 기관의 활동 내역
  - 해당 지역에서 장애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거나 추진하는 타 NGO 내지는 기관을 확인할 수 없었음.

- 핸디캡 인터내셔널에서 의족 보급 사업을 수행 중에 있었으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을 통해 일부 취업 알선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장애인을 중심으로 창업과 경제적 공통체를 전제로 하는 사업은 없었음.

- 미얀마 정부의 협조도
  - 양곤 사회복지국 부국장은 양곤에서 수행 가능한 협력사업으로 직업 및 기술 교

육을 추천하였으며, 정부 베이스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프로젝트도 우호적인 반응을 얻을 것이라 조언하였음.

- 이에 해당 공무원은 파일럿 프로그램의 성공과 본 사업의 승인을 위해 가능한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협조 의사를 밝혔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파일럿 프로그램을 준비 할 때, MPHA와 함께 재협의 하자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음.

●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 본 현지조사에 따른 사업 아이디어는 직업 및 기술 교육과 더불어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의 교육을 전제로 함. 미얀마 내부의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의 정도와 장애인들의 의욕에 사업의 성공 여부가 좌우될 가능성이 큰 만큼, 충분한 교육과 한국에서의 노하우 전수가 사업의 계획과 성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됨.

다. 사업대상 분야(Target Area)의 지표 및 기초선

사업목적	활동내용 (Activities)	모니터링 계획 및 결과측정지표	목표치 (Target)	기준치 (Baseline)
장애인 경제역량 강화	· **양곤 내 장애인 협동조합 결성 및 장애인 사업장 운영**	협동조합	1개	1개
		협동조합 사업장	1개소	1개소
		교육 및 고용	10명	6명
성과공유 사회확산	· **사업장 개소식**	참가자 수, 참여단체 수, 참여주체별 구분 / 인원 수	100명	50명
	· **장애인 사회적 경제 활성화 워크숍**	참가자 수, 참여단체 수, 참여주체별 구분 / 인원 수		

라. 단체의 특성과의 연계

○전문가 및 경험자 보유 현황

● 전문가 : KOICA 자문위원

● 경험자 : 박장우 사무국 차장, 최희은 사무국 사업팀장

- 2011년 베트남교류사업 수행 (한국장애인재단 지원사업)
- 2012년 베트남교류사업 수행 (행정안전부 지원사업)
- 2012년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 수행
- 2013년 KOICA CPP 프로그램 (호치민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수행
- 2014년 KOICA CPP 프로그램 다년도 지원사업 선정 / 수행 중

○본 단체의 비교 우위

● 본 단체는 보건복지부 소관 사단법인으로 아시아태평양 장애인회의, 동남아 개도국 장애인단체들과의 개별 교류사업 등의 경험이 풍부한 단체임.

● 본 단체는 설립 이래로 “정책과 대안 포럼”을 통한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연구 및 대안 제시,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장애인 자립생활 모니터링 및 현황 분석등을 진행해 온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음.

○본 단체의 목적 및 특성, 사업과의 상관관계

● 본 단체는 장애인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당사자주의에 근거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 이념을 근간으로 운영되고 있음.

● 본 단체는 장애인의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사회 일반의 인식을 전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을 위한 사회 서비스 개선 분야에 관심을 두고 집중적인 연구와 조사 사업 등을 벌이고 있음.

●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단순히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사는 것”을 의미하며, 같이 사는 행위의 시작은 장애인들도 소비자로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함.

● 한국 사회역시 경제성장기 많은 장애인들이 사회·경제적 소외 속에서 주변인으로 시혜적 지원만을 바라며 살아왔으나, 이동권 투쟁, 각종 사회서비스 등을 만들고 활용하면서 경제적 역량의 강화속에서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라는 인식의 변화를 이루어내었음.

● 본 단체가 미얀마에서 장애인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해당 조합의 사업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이유 역시, 한국의 경험에 비추어 미얀마의 장애인들에게도 “소비자로서 가지는 사회 구성원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자립생활을 비롯한 장애인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는 시작이 될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임.

● 그간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 온 본 단체의 경험과 성과를 비추어 생각할 때, 본 사업은 본 단체의 경험과 특성에 맞는 사업이며,

미얀마 사회에 한국장애인계의 성장을 알리고 위상을 제고하는 사업이 될 것이라 확신 함.

05 자료 출처

- 미얀마 법률 정보 : 미얀마 지체장애인협회 제공
- 미얀마 지역 정보 : KOTRA 국가정보
- KCOC NGO 길라잡이
- 베트남 장애인 통계 정보 : 양곤 사회복지국 공무원 인터뷰 자료
- 베트남 활동 NGO 관련 정보 : KCOC NGO 길라잡이
- 한국 장애계 국제사업 관련 환경 정보 : 한국장애인개발원 인천 전략 수행 계획 보고서
- 현지조사 계획 수립 : 중앙books “프렌즈 미얀마”
- 미얀마 사회문화 정보 : 미얀마 한인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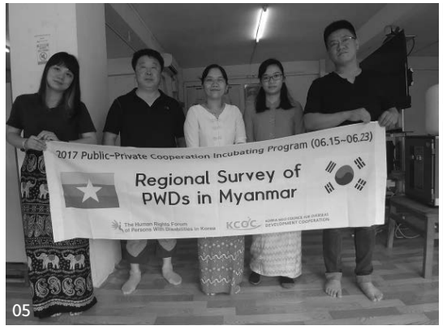
06 기타 활동 자료 (사진 등)

01

02

03

04



05

06

01 미얀마 지체장애인 협회 사전 미팅
02 장애인 생활환경 조사 1
03 장애인 생활환경 조사 2
04 장애인 생활환경 조사 3
05 양곤 사회복지국 부국장 인터뷰
06 양곤 사회복지국 운영 고아원 견학

07

08

09

10

11

12

07 Mary Chapman School 교장 인터뷰
08 Mary Chapman School 견학
09 양곤 장애인 그룹 인터뷰
10 가정 방문 인터뷰
11 미얀마 지체장애인협회 프로젝트 미팅
12 핸디캡 인터내셔널 & KOICA 사무실 방문

향후 계획

chapter 03

- 2018년 KOICA 민관협력 사업 공모 사업 제안서 제출
- 2017년 말 재방문 및 시장 조사 실시
- 한국 내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한-미얀마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PART 21

[농림수산] 굿파머스

시행일자	2017년 4월 28일(화) ~ 6월 27일(금) (총 60일)
지역	라오스 비엔티안 인근 지역, 루앙프라방 인근 지역

2017년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지역조사(사업형성조사) 결과보고서

기본정보					
단체명	사단법인 굿파머스		**작성자**	정 다 희	
단체현황	현지 지부			☐ 있음	☑ 없음
	NGO 등록			☑ 있음	☐ 없음
	KOICA 협력사업 수행 경험 유무			☐ 있음	☑ 없음
사업 분야	Agricultural Development		**코드번호**	31120	
조사 목적	라오스 농촌지역 저소득 농민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사업을 통한 소득증대 사업으로서의 가정양계사업 타당성 확인 및 사업지역 선정을 조사목적으로 함.				
대상 국가 및 지역	**국 가**	라오스	**지 역**	*비엔티안 인근 지역 *루앙프라방 인근 지역	
	*비엔티안(수도)에서 차량으로 약 1시간 소요 – paksapmei village(Nabong) *루앙프라방(Luang Prabang) 도심에서 차량으로 약 1시간 소요 – Pak Reung, Muang Khai, Paksi (현지 지역 공무원과 국립 농업대학교에서 추천받은 마을 조사 진행)				
조사기간	**전체 조사 기간**	2017년 4월 28일(화) ~ 6월 27일(금) (총 60일)			
	현지 체류기간	7박 8일 (6월 15일 ~ 23일, 총 7박 9일)			

조사 목적

chapter 01

조사목적	* 라오스 농촌지역 저소득 농민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사업을 통한 소득증대 사업으로서의 가정양계사업 타당성 확인 및 사업지역 선정 * 방문 지역별(비엔티안, 루앙프라방) 현황 조사 및 협력 가능 기관 발굴을 통한 현지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함.
조사항목	* 라오스 농촌 현황 파악 (가정양계 현황, 가정 인식 등) * 농촌지역 농민의 소득원, 소득수준, 지출수준 등 경제활동 조사를 포함한 가정조사 * 역량강화 사업(양계 및 경영 교육, 조합 결성 및 운영) 기반 조사 * 가정양계사업으로서의 육계, 산란계 중 생산가격, 판매가격, 시장수요 조사를 통한 적합 품목 파악 * 가정양계사업 생산비 절감을 위한 현지 사료용 농작물 파악, 마을단위 소규모 사료 배합소 설치 가능성 및 지원 네트워크 조사 * 가정양계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현지 양계가정 이슈 파악 및 적용 기술조사 * 현지 농업조합 또는 농민 자치 모임 조사 * 현지 잠재 협력기관 조사

조사 결과

chapter 02

01 일정별 조사 활동

1) 개괄

기 간		활동 내역 약술
국내	05.02 ~ 05.19	조사팀 전체 모임 및 현장 방문 일정 조율
	05.22 ~ 06.02	문헌조사 및 현지 방문 체크리스트 작성
	06.05 ~ 06.14	현지 기관 방문 협력 요청 (공문 발송 등) 및 출국 준비
현지	06.15 ~ 06.17 (루앙프라방)	- 루앙프라방 농업국(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Forestry) 방문 - 마을 방문(Pak Reung, Muang Khai): 이장 면담 및 양계 가정 방문 인터뷰 - 수파노봉 대학교 양계영양 전공 교수 면담
	06.18 ~ 06.22 (비엔티안)	- 현지 활동 기관 방문(가나안 농군학교, DVV, 굿네이버스 등) - 한국 부처 현지 사무소 기관 방문(KOICA, KOPIA) - 라오스 국립 농업대학교(National University of Laos) 축산과 교수 면담 및 인근 마을 조사

2) 현지 세부일정

일자 (요일)	조 사 내 용	비 고
6.15 (목) : 이동		
16:00 18:25~22:45	공항집결 이동: 인천-비엔티안 (LJ051)	
6.16 (금) :루앙프라방 - 기관방문 / 마을조사 / 시장조사		
09:10~10:00 11:00~11:30 14:00~15:00 15:00~16:00 16:00~16:20 16:20~17:00 17:00~18:30	이동 : 비엔티안-루앙프라방(라오항공) 기관방문1: 루앙프라방 지방 농림부 방문 (Director General 미팅) 이동 : (배편이동) 루앙프라방시내 - SuDHiCa 기관방문 : LNGO SuDHiCa(대표: Phonepasith Sotitham) 이동 : (배편이동) SuDHiCA - 마을 마을방문 : 빡릉(Pak Leung)마을 방문 이동 : (배편이동) 빡릉-루앙프라방시내 및 일정마무리	
6.17 (토) : 마을조사 / 가정조사 / 사업장 방문 / 전문가 만남		
09:30~10:30 10:30~11:30 11:30~12:00 12:00~13:00 14:30~15:00 15:00~15:30 15:30~15:50 15:50~16:20 16:20~17:30 17:30~20:00	이동 : 루앙프라방시내 - 마을 마을방문 : 므왕카이(Muang Khai)마을 - 이장 면담 및 재래양계 관찰 이동 : 마을-마을 마을방문 : 빡시(Pak Si)마을 - 재래양계, 축우, 양어 가정 방문 이동 : 마을-양계사업장 사업장 : 산란계 사업장 이동 : 사업장-마을 가정방문 : 므왕카이 양계 가정 방문 이동 : 마을 - 루앙프라방 시내 및 일정마무리 전문가 : Prof. Bounmy(양계영양, Souphanouvong Univ.)	
6.18 (일) : 시장조사 / 이동		
09:00~11:00 11:30~13:00 13:05~13:50 17:00~20:00	시장조사 : 재래시장조사 / Saffron 이동 : 공항이동 및 체크인 이동 : 루앙프라방-비엔티안 시장조사 : 재래시장 / 마트 / 치킨집 및 일정마무리	
6.19 (월): 기관방문 / 전문가 만남		
08:30~10:30 10:30~13:00 13:00~15:00 15:00~16:00 17:30~19:30	이동 : 비엔티안시내 - 가나안농군학교 기관방문 : 가나안농군학교(김진수 교장) 및 전문가 만남(박용승 수의사) 이동 : 가나안농군학교 - DVV International 기관방문 : DVV International (Uwe Gartenshclaeger) 전문가 : KOICA 조영신 (도시농업 등)	

6.20 (화): 기관방문 / 전문가 만남		
08:00~10:00 10:00~11:30 11:30~13:00 13:00~14:00 14:00~15:00 15:00~16:00 16:00~20:00	이동 : 비엔티안시내-농진청시범농장 기관방문 : 농진청 시범농장 이동 : 농진청 - KOPIA 기관방문 : KOPIA 이동 : KOPIA - KOICA 기관방문 : KOICA 기관방문 : 굿네이버스 (박범근 지부장)	
6.21 (수): 기관방문 / 가정방문 / 시설견학		
08:00~10:00 10:00~11:00 11:00~13:30 13:30~14:30 14:40~16:30 18:00~20:00	이동 : 비엔티안시내 - 나봉(Nabong) 팍삽 마이(Paksap Mai) 마을 가정방문 : 양계 가정 방문 기관방문 : 라오스국립농업대학교 시설 : 양계시설 이동 : 나봉 - 비엔티안시내 모임 : 조사내용 회의	
6.22 (목): 기관방문 / 이동		
10:00~12:00 15:00~17:00 22:45~	모임 : 조사내용 회의 기관방문 : KOPIA-서울대 농업 워크숍 참석 출국	
6.23 (금): 이동		
~05:55	입국	

02 조사 항목 및 방법

	조사 항목	조사 방법	조사 기간
1	국가 전반 이해	문헌조사	현지 조사 출국 전
2	지역 정보	양적 조사, 질적 조사, 인터뷰, 직접 관찰	현지 조사 기간 내
3	이해관계자 분석	인터뷰	
4	양계, 기술	인터뷰, 직접 관찰, 양적 조사	
5	시장, 유통, 네트워킹	문헌조사, 직접 관찰	
6	부녀자, 아동교육	인터뷰, 직접 관찰	

03 조사 결과 분석 (전문 분야별 결과 분석)

가. 국가, 마을, 가정

1) 국가

-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 라오스의 GNI per capita는 $1,740이며 GDP 성장률은 평균 7%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01] 그러나 대다수의 경제성장이 수도인 비엔티안과 인근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도·농간 소득 및 발전 격차 발생의 가능성이 있음.
- 라오스 GDP의 분야별 비중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서비스 산업이 39.4%, 기계산업 32.5%, 농업이 21.3%를 차지하고 있는 데 반해 전체 노동 인구 중 73.1%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02] 인구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총 GDP에 농업이 기여하는 비중이 작은 것으로 보아 농업 생산성이 낮음을 유추할 수 있음.
- 농축산업의 경우, 라오스 농림부 산하 농업통계청이 발표한 농업 센서스(Lao Census of Agriculture) 자료에 근거하면, 라오스의 주요 가축은 소, 버팔로, 돼지, 닭, 오리로 구분할 수 있음.
  - [그림 1]을 통해 2011년 라오스의 전체 가축수가 종류에 따라 크게 증가하거나 감소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소 사육수의 증가에 비해 버팔로의 수는 감소하였음. 일반적으로 라오스 남부지역에서는 버팔로를 가뭄에 대비한 가축으로 인식하여 왔으나 농업 기계화와 더불어 버팔로의 개체수가 감소했음.[03]
  - 토종닭을 기르는 농가의 비중은 1999년 73%였던 것에 비해 2011년 62%로 감소하였고, 토종닭의 수도 감소하였으나 상업용 닭의 개체 수는 증가하였음. 상업용 닭 개체 수 증가는 태국 CP의 적극적인 라오스 진출 영향으로 보임.

01 World Bank(2017), http://www.worldbank.org/en/country/lao/overview
02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la.html
03 라오스 농업부(2012), LAO CENSUS OF AGRICULTURE 2010/11

Livestock type	Farm h'holds with ('000)		No. of livestock ('000)	
	1999	2011	1999	2011
Cattle	208	297	944	1,586
Buffaloes	322	226	992	774
Pigs	328	306	1,036	978
Goats	26	43	94	216
Local chickens	487	488	9,379	8,665
Com. chickens	4	4	290	649
Ducks	191	213	1,351	1,791

◎ <그림 1. Main Livestock and Poultry Types, 1999 and 2011>

2) 마을

본 현지 조사에서는 라오스 지방정부의 추천을 받은 루앙프라방 지역의 마을 세 곳과 비엔티안 농업대학교 인근 마을을 한 곳을 방문하였으며, 마을 이장과의 면담을 통해 마을의 기본적인 정보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며 사업 대상 후보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 또한 농업대학교 인근 마을의 경우 가구 단위 설문조사 데이터를 확보하여 양적 분석을 수행함.

- (루앙프라방)[04]Muang Khai 마을은 약 64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마을의 주요 산업은 농업으로 마을 인구의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 마을 가구가 소유한 전체 농지는 약 132ha로, 쌀농사를 주로 짓고 있음. 일반적으로 1ha 당 2.5ton의 쌀을 생산하는데, 아직까지 자연농법에 의존한 가구가 대다수를 차지함.
  - 가축의 경우, 현지 조사 당시 마을에서는 약 200마리의 소와 4,000마리의 닭/오리를 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대다수의 농가들은 가축을 food security의 이유로 기르거나 가구의 자산으로 생각하여 닭을 통해 창출하는 소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짐.
  - 농가 단위에서는 닭을 판매용이나 상업용으로 사육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재래종(토종닭)의 비중이 현저히 높음. 마을 이장과 면담 결과, 육계나 상업용 닭보다 토종닭에 대한 선호가 높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도 가정양계 시 질병 컨트롤이나 기르기 용이하다는 장점을 설명함.
  - 면담 결과, 마을 주민들은 특별히 신진 농법이나 가축 사육에 대한 훈련을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지방 정부의 농업·농촌 지도사가 있으나, 농민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 않음. 또한 가축별 혹은 특정 작물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농업·농촌 지도사도 부재하기 때문에 가축 질병 발병 시 원인을 모르고 폐사 처리하는 경우가 빈번함.

- (비엔티안) Paksap Mai 마을은 라오스 국립대학교(농업대학) 인근에 위치한 마을로 비엔티안에서 약 35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음. 약 200가구 정도가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 가구의 약 30%만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농촌의 특성을 잘 보여줌.
  - 마을 전수조사(가구당) 데이터 분석에 의하면, 전체 181개 가구 중 약 80% 정도가 가정양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당 평균 25마리를 보유하고 있음. 100수 이상 보유 가정은 10개 가정 미만이며 이들 가정에서 가축으로 창출하는 소득액은 1년 기준 약 $600인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판매 유통 경로를 살펴보면, 중간 상인을 통해 인근 시장으로 판매되는 것보다 마을 내에서 가구 간 판매되는 경우가 많음.
  - 가축 사료 관련, 대다수의 가정양계 가구는 특별히 닭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가 드물고 쌀이나 옥수수를 임의로 배합하여 급여하는 것으로 보임.
  - 전체 181개 가구 중 협동조합에 가입한 적이 있는 가구는 약 15%에 불과하며, 평균 활동 년수는 8년가량으로 나타남. 이를 통해 라오스는 개인 가구 단위로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으며, 협동조합을 대체할 수 있는 마을 공동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루앙프라방 마을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아 라오스에서의 농업 협동조합 가입과 활동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됨.

3) 가정

루앙프라방과 비엔티안 가정을 방문하여 가구주와 인터뷰 및 직접 관찰을 수행하였음.

- (루앙프라방) 루앙프라방 가구주는 지역 경찰관으로 활동하며 부 수입원으로 닭을 기르고 있었음.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가정 집 옆 공간에 울타리를 치고 사육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최근 펜스를 구입하여 보수 작업 진행 중에 있음.
  - 가축 질병 및 백신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나, 백신의 종류, 종류별 사용법 등에 대

04 방문한 세 곳 중 대표마을 한 마을 기술함. 세 마을 모두 정부 추천 마을로 상황은 비슷함.

한 이해는 떨어짐. 사육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마을 인근에 있는 수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함. 그러나, 최근 질병으로 인해 기르던 닭을 폐사시킨 경험이 있는 반면 이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라오스 전역에 일시적으로 발병한 AI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됨.)
- 태국 CP와 중국의 희망사료를 구입하고 있으며, 옥수수와 임의로 배합하여 급여함.

● (비엔티안) 라오스국립농업대학교 인근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약 50수 정도의 닭(병아리 포함)과 오리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가구주는 비엔티안의 한 은행에서 근무하여 월 1000불 정도의 정기적인 소득이 있었음.
- 루앙프라방의 가정과 유사하게 집 옆의 마당을 활용하여 닭과 오리를 키우고 있으며, 자연 부화된 병아리는 일정 시기까지 분리하여 키움.
- 인근에 태국 CP 공장이 있었으나 CP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전무함.
- 비교적 계사 분리 및 공간 확보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보이며, 사료는 옥수수, 쌀과 commercial 사료를 섞어서 사용함. 개체 상태도 양호함
- 가구소비로 주로 이용되며 경우에 따라 이웃 주민에게 제공하기도 하나, 양계를 통한 소득이 있지는 않음

나. 양계

마을방문, 가정방문, 양계 사업장 방문 및 기관 방문을 통해 수집된 내용 중 가정양계 사업과 관련, 공통적으로 관찰된 이슈는 아래와 같음

● (인식) 방문 마을 공통적으로 발견된 특징 중 하나는 가정 양계를 할 때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가소비용 또는 교환용으로 생각하고 있었음. 즉, 사업적으로 키우겠다는 마인드가 없었음. 논농사 등이 주업인 만큼 양계로 소득을 창출하겠다는 발상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양계가 소득원이 될 수 있다는 인식 개선이 필요함.

● (품종) 품종은 대부분 재래종이며 이 외에 몇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마을, 가정방문 시 개량종은 거의 없었음. 주민 면담 시 개량종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은 것을 발견했는데, 이는 객관적인 의견이기 보다는 실제로 개량종을 키워보거나 접해보지 않은 것의 결과로 보임. CP 계열농장들에서 개량종을

사육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개방하지 않아 직접 확인은 어려웠음. 가정 당 재래종 사육 수수는 많은 편이지만 살이 찌지 않아 육량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음(생산성이 좋지 않음)

● (계사) 계사가 있으나 경계가 불분명 했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먹이를 찾아다니고 있어 제대로 자라지 않아 살이 찌지 않고 날렵했음. 또한, 개방형 계사로 아무나 드나들 수 있어 방역상의 문제가 있어 보임.

● (사료) 대체적으로 충분한 사료를 급여하지 않아 영양 성분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옥수수, 카사바 등 에너지원이 되는 사료 원료 공급에는 별 어려움이 없어 보이나 단백질원이 부족함. 라오스에는 단백질원으로 널리 사용되는 대두가 생산되지 않고 있어 대두박 확보가 어려우며, 바다를 접하고 있지 않아 어분의 확보도 어려워 대두를 대체할 대안이 없음. 지렁이 사육 공급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 없음. 또한, 배합사료의 가격이 비싼 편으로 배합사료를 먹일 경우 사료비 감당이 되지 않음. 이에 사료개발이 시급해 보임. 현재 KOPIA에서 사료 개발을 위해 쌀겨, 옥수수, 야생토란, 카사바, 스타일로, 파파야박, 바나나, 페이퍼멀베리 등 원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루앙프라방 Prof.Bounmy는 이전 양계 사료 연구시 현지의 '부레옥잠'을 사료 원료로 제안.

● (관리, 백신, 방역) 가정 양계 병아리의 경우 대부분 자연 부화에 의존하고 있으나 병아리 보온 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사양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 라오스 기후 특성 상 춥지 않아 생명에 지장은 없으나 보온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성장이 더디고 크며 살이 잘 붙지 않는 부작용이 있음. 가정에서 양계 시 백신을 해야 한다는 개념은 가지고 있으나 사용하는 백신이 무엇인지,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지 못했으며, 백신의 종류 역가, 보관, 저장, 운반, 접종방법, 접종 수행자가 확실하지 않아 백신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었음. 또한, 질병과 집단폐사 문제를 상당부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역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었음.

다. 양계시장

● (라오스시장 일반) 초기 시장 형성 단계로 시장 진입이 용이하며, 한국 문화에 대한

대중적 호감도가 높아 진출 시 높은 수준의 상품 신뢰도를 얻고 시작할 가능성이 높음. 반면, 인구, 지리적 특성으로 내수 시장 규모가 작으며 생산, 물류, 판매 등 유통 인프라가 전체적으로 미흡함. 또한, 생산 능력이 열악해 수입 의존도가 높아 주변 국가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음.

- (양계시장) 라오스에서 닭고기는 주식인 동시에 주요 단백질원으로 경제가 성장할수록 그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임. 현재도 이미 공급이 부족하여 태국 등에서 많은 양의 닭고기(냉동)를 수입하고 있으며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수입은 계속 늘어날 전망임. 라오스는 대형 마트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통상적으로 재래시장에서 농산물을 거래하고 있음. 양계도 이에 해당함. 일부 CP 제품이 마트에서 냉동육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계란의 경우 CP 전문 가판대가 있음. 토종닭(재래종)은 가정용으로 인기가 있으며, 주민들이 이에 입맛이 길들여져 있어 거부감이 없는 반면, 음식점 대부분은 개량종을 사용하고 있음. 외식업 발달에 따라 육질이 부드럽고 품질과 맛이 균일하며 대량 공급이 가능할 뿐 아니라 사료요구율이 낮아 생산원가와 판매가격이 낮은 개량종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임. 그러나, 태국 CP의 기업형 양계와의 차별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함. 이에 따라 외식 문화가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수요를 고려할 때 재래종이 소규모 시장에서는 유리할 것으로 보임.

- (가격) 달걀은 도시와 시골 구별 없이 개당 1,000kip(약 USD1=8225kip)선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으며 소매점은 달걀의 상태를 따로 구분하지 않음. 단, 재래시장에서 달걀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점포의 경우 신선도와 크기에 따라 가격을 달리하기도 함. 오리알은 소매 기준 개당 1500kip선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음. 재래시장에서 판매되는 양계 생고기 가격은 25,000kip/kg, 냉동 20,000kip/kg, 토종닭(재래종) 45,000kip/kg선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음.

- (유통) 현재는 마을에서 생산되는 재래종 육계의 양이 아주 작아 중간상인들이 직접 방문하여 구매함. 때문에 파는데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음. 그러나, 마을별로 생산되는 양이 늘고,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면 이에 따른 중간상인들의 횡포와 같은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함.

04 변화의 영역

가. 주목분야

- 굿파머스는 낮은 비용 및 최소 인력 투입, 짧은 사육 기간 등의 이점으로 단기간에 가정 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가정 양계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로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을 주 소득원으로 하는 가구 중 추가적인 소득원 확보가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함.

나. 현지 양계 수요 및 상황

- (국가) GDP 경제 성장률 7%를 웃도는 라오스는 비엔티안과 루앙프라방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꾸준한 경제 발전을 지속하고 있으나, 라오스 통계청이 2016년 발표한 Poverty map[05]을 참고하면 지역별 발전격차가 점차 심화되는 양상을 보임. 특히, 루앙프라방 농촌지역과 사바나켓(Savannakhet) 지역들의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라오스 정부가 발표한 'Agricultural Development Strategy to the 2025 and Vision to the year 2030(ADS2025)'에 따르면 농업을 기반산업으로 부가가치 창출(산업화)을 통한 경제 성장을 주요 목표로 선정한 바 있음. 그러나, 정부의 정책 방향이 다소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 및 산업화에 집중되어 있어 마을 단위 소작농 가구의 소득 증대를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사업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마을, 가정) 농업을 주 소득원으로 하는 가구의 경우 농업 생산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이에 대비하여 소득원의 다양화를 통해 가구의 소득 안정화, 나아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음.

- (가정양계) '3.조사 결과 분석'의 이슈를 토대로 가정 양계를 통한 농가소득 증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분야는 아래 6가지 영역임.
  – 인식개선 교육: 양계사업이 소득원이 될 수 있으며, 관리를 통해 경험했던 질병

05 라오스 통계청(2016), LAO PDR 2015 CENSUS-BASED POVERTY MAP: Province and District Level Results

및 집단폐사 등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고, 공동 관리 및 판매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음을 교육

- 사양관리 개선: 단계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설 지원 및 기술 교육 지원. 더불어 지속적, 안정적 관리가 가능한 전문인력 배치 또는 양성
- 계사개량: 현재의 개방형 계사가 아닌 반개방형 개사 등의 개량으로 사육하는 개체들의 공간을 확보하면서도 더불어 운동을 제한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며, 더불어 질병에 취약한 구조개선
- 종계장, 부화장 운영 및 품종개량: 건강한 병아리들이 합리적인 가격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종계장 및 부화장을 마을 단위로 운영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품종 개량 사업도 함께 진행함.
- 사료개발 및 사료공장 운영: KOPIA에서 분석중인 사료, 라오국립대학에서 사용한 사료, Prof. Bounmy 가 제안한 사료 재료 등을 통합적으로 연구. 특히 단백질원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할 필요 있음. 단, 현재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시판사료 50: 기타 사료재료 50의 비율로 하되, 기타 사료재료 맥주박, 쌀겨를 이용한 발효사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함. 사료첨가제 사용도 고려할 수 있음. 단, 적절 비율은 추가로 분석. 또한, 마을단위 또는 지역단위로 소규모 사료공장 운영.
- 유통: 한국 업체와의 협력 추진 및 현지 매장 도입. 매장을 통해 가정에서 생산되는 닭의 브랜드화 추진. 이는 지속적인 수매가 가능하며, 더불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음.

● 잠재 협력기관(방문기관)

라오스 국립대학교 (National University of Laos)

- **(내용)**

  라오스 국립대학교(농업대학교)는 2008년도부터 약 8년 간 캐나다의 'Veterinarians Without Borders'와 협업하여 양계 농가 지원 과제를 수행한 경험이 있음.
  - 사업은 3단계로 진행되었으며, 1단계: 가축 분배 / 2단계: 사료개발 및 품종개량 / 3단계: 개체관리 (백신 등)의 내용으로 진행됨.
  - 1개 마을 당 14가구를 선정하여 총 11개 마을에서 과제를 진행하였으며, 여성 가구주의 농가를 우선적으로(약 60%) 선정한 것이 특징임. 각 가정에 13수씩 분배됨.
  - 국립대학교와 VWB의 협업 하에 개발한 사료를 가구에게 1년간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으며, 초기에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으나 향후 수정 보완 단계를 거쳐 자체 평가 기준, 성공 사업으로 마무리됨. (농가 소득증대가 아닌 가정사육 가축의 생존율 및 개체 증가가 결과물 측정 기준이었음)
  - VWB에서 기본 1년 주기로 수의사를 국립대학교에 파견하여 현장에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지원함.
  - 사료는 루키나잎(Leucaena Leucocephala) 10% / 카사바 잎 10% / 쌀겨 배합을 사용
- **(향후협력)**

  농업대학교는 농가소득 증대라는 목적 이외의 학생들의 농축산 실습을 위한 사업 진행이 필요한 상황으로, 굿파머스의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사업에 관심을 표함. 굿파머스가 라오스에서 가정양계 사업을 진행할 경우 시범사업 협업에 동의함.

루앙프라방 수파노봉 대학교 (Souphanouvong University)

- **(내용)**

  한국 강원대학교에서 사료학을 공부한 Prof.Bounmy가 있는 학교로, 이전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양계사업을 진행해본 경험이 있으며, 정부에서 추천하는 비교적 발전한 마을이 아닌 실제 열악한 마을에서의 사업진행 경험을 가지고 있음. 가정양계에서 사료문제를 지적했으며, 현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부레옥잠'을 연구해 볼 것을 제안함.
- **(향후협력)**

  사료개발 및 농가적용 등의 시범사업 협력 가능함

KOPIA (Korea Program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 **(내용)**

  농촌진흥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세계 농업 기술지원(축산, 원예, 식량 등) 프로그램으로, 라오스에서는 현재 라오스 축산연구센터(LRC)와 협력 하에 2016년 9월부터 총 28개월간 라오스 양계, 양돈 농가를 위한 품종개량 및 생산기술 개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 재래종 닭의 경우 크기가 작고 근육이 많아 소비 시 식감이 질긴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재래종 돼지의 경우 총량의 70% 이상이 지방으로 이루어짐. 또한 가축 관리 등 관련 기술이 부족하여 성장률이 낮고 질병에 취약해 품종 및 사육환경 개선 기술 보급이 시급한 실정임.
  - KOPIA의 지원 하에 라오스 축산연구센터에서는 라오스 재래종 닭과 이집트 닭 교배시킨 F1 병아리와 라오스 재래종 돼지와 Large white 또는 Landrace 품종을 교배시킨 개량된 재래종 돼지 생산품종을 개발하여 시범농가에 보급하여 효과를 측정하고자 함.
  - 2017년 1월 기준으로, 씨엥쿠앙(Xieng Kuang) Mokmay district의 Yorkmoon Village, Namone village 마을을 선정하여 △ 기술교육 진행, △ 사육장 건설, △ 11개 시범농가에 닭 132마리, 6개 농가에 14마리 개량 재래종 돼지 분양, △ 사육물품 전달 및 기술 전수 등을 수행함.
  - 농업시장의 구성상 농민 부담이 높아지는 구조로 '라오스 농민 옥수수생산 -> 태국 수출 -> 태국에서 사료로 가공 됨 -> 라오스 농민에서 높은 가격으로 사료 판매'임. 이에, 라오스 자체 사료연구 및 생산 능력 배양 필요.
- **(향후협력)**

  KOPIA 양계 농장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진행 중인 개발 사료 협업

가나안농군학교

- **(내용)**
  비엔티안에서 약 43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가나안농군학교는 코이카 지원사업으로 양계사업(산란계)을 진행한바 있으며, 현재 약 3만평의 부지에서 돼지를 사육, 인근 마을을 대상으로 2주 간의 교육 진행 후 돼지를 분양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임.
  - 맥주박을 이용한 유기농 사료를 직접 배합하여 발효시킨 후 급여하고 있으며, 돼지 분뇨의 경우 메기, 가물치 등 양어장 운영에 재활용하고 있음. 현재까지는 태국과 베트남에서 모돈을 수입해옴.
  - 2011~2012년에는 코이카의 지원을 받아 주민 40명을 대상으로 '양계 교육을 통한 소득증대 사업'을 수행한 바 있음(라오스어 양계 교재 제작). 사업 수행 경험 상 한 가정이 산란계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최소 300수 정도가 필요하며, 비용은 대략적으로 병아리 구입 비용 300불, 사료 6개월분 130불(산란시점 도달까지), 계사 건축비 400불, 총 830불 정도가 소요됨.
  - 양계사업 진행시 종계장/ 사료/ 질병 분야를 고려해 사업계획. 특히, 현재 병아리를 태국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인데, 질병에 취약한 상태로 들어오고 있음. 또한, 현지 유통 상황을 고려 양계 생산물 전부를 수매할 수 있어야 함.
- **(향후협력)**
  산란계 사업 진행 시 현지어 교육자료, 교육방법 및 양돈 사업 확장 시 사료 협력, 농가교육 프로그램 협력

DVV International

- **(내용)**
  라오스 남부 사바나켓, 캄무안 지역에 지역교육센터(Community Learning Center)를 28개소 설치, 지역개발 및 생계수단 개선(Promoting Community Development and Improving Livelihood)사업 수행. 센터는 지역사회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에 열려 있음. 우선 과제로는 소득증대와 건강증진 사업.
- **(향후협력)**
  남부지역에서 사업 진행 시 주민교육, 재교육, 경영교육 등에 센터 활용 협력

SuDHiCa

- **(내용)**
  루앙프라방시내에서 배편 약 1시간 떨어진 산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친환경, 유기농, 자급자족, 자연체험 등을 시도하는 젊은 대표이자 농부가 꾸리는 신생 소규모 LNGO. 현재 닭, 오리, 칠면조, 토끼, 각종 채소 및 과일, 약초 등 다양하게 재배하고 있으며, 향후 회원을 늘려 조합 등을 운영할 계획. 기관 대표는 생물학 전공으로 열린 사고, 폭넓은 정보력, 뛰어난 언어구사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자국 발전 및 국민 역량강화에 관심이 높아 학생시절부터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 위생 교육 등을 실시한 바 있음.
- **(향후협력)**
  북부지역, 루앙프라방근교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할 시 주민교육, 모니터 등의 협력 뿐 아니라 판로 개척 및 공유의 협력 가능

기타 참고 단체

- **SAFFRON (dsmith@saffroncoffe.com / info@saffroncoffe.com)**
  루앙프라방에 위치한 사회적 기업으로, 라오 북부 산악지역 소수민족들에게 커피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 초기비용 및 기술지원과 함께 기본적으로 협력농장을 월 1회 방문하여 재교육, 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이렇게 생산된 커피 전량을 수매해 루앙프라방에 위치한 자체 카페에서 사용함. 또한, 커피콩을 상품화 하여 마트 등에서도 판매하고 있음. 그 수익금은 라오스에 재투자 하는 사회적 기업임.

다. [06]사업대상 분야(Target Area)의 지표 및 기초선(예시)

사업목표: 기존 소득 대비 월간 소득 100불 증대		
사업내용	**성과측정 지표**	**기초선**
양계	폐사율	TBD
	생산단가, 사료비 (사료 투입량/단가)	TBD
	산란율 (계란 생산량)	TBD
교육 지원	교육 횟수, 참여인원	TBD
소득 창출	월간 소득, 판매 마릿수	TBD

라. 단체의 특성과의 연계

- (관심분야사업 타국가 사업경험) 굿파머스에서 아시아 지역 방글라데시 및 아프리카 부르키나 파소 등에서 가정육계, 가정산란계사업을 현지 단체와 협력하여 진행했던 사업을 참고로 가정양계 관리 및 공동 경영 등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더불어 필요 시 방글라데시 사업 진행자의 현지 방문을 통한 컨설팅도 고려할 수 있음.

- (교육) 현지 조사 결과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됨. 크게 '1)인식개선 교육'과 '2)기술교육'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음.
  1)인식개선 교육: 굿파머스 시니어 전문가 선생님들의 한국 경제발전 시기의 축산사업 기여 및 발전에 대한 교육으로 축산을 통해 가정경제,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이 가능하며, 가정양계로 시작한 토대가 어떠한 방식으로 발전해 주요 가정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지식을 실질적 경험을 토대로 교육할 수 있음. 또한,
  2)기술 교육: 타국가 가정양계사업의 전문가양성과정 및 대상가정방문, 집단 컨설팅 등을 진행해본 전문가의 적극적인 라오스 사업 참여를 통해 사업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음. 특히, 라오국립대학교에서 캐나다 '국경없는수의사회'와 협업으로 진행한, 마을 축산전문 인력 사업의 계속 사업 또는 해당 프로젝트의 기존방식을 일부 수정 차용하는 방법으로 한국인 전문가와 현지 인력의 연계 사업을 통해 마

06 마을확정 후 추가 현지조사를 통해 구체화 할 예정

을주민들에게 상시적으로 양계기술 재교육,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인력 접근성이 높아지도록 할 수 있음.

- (한국관련사업체 연계를 통한 기술전수) 가정양계를 통한 소득증대를 위해서 핵심은 유통, 마케팅임. 이에, 대한국 라오스의 우호적인 정서 및 한국문화에 대한 호의를 바탕으로, 굿파머스의 관련 업체 기술 전수 사업 실시 가능. 특히, 사회적기업 형태로 발전될 것을 염두에 둘 때 한국의 비비큐, 교촌치킨, 체리부로와 같은 닭고기 유통업체, 판매업체, 치킨체인점과의 제휴를 추진할 수 있음

- (사료개발) 굿파머스 전문가 그룹 중 사료사업을 배경으로 하는 전문가의 사료사업에 대한 지식 및 노하우, 네트워킹 역량을 토대로 현지 작물 분석, 첨가물, 단백질원 개발 및 적합 배합비율 도출이 용이함.

마. 대상국가 사업진입(안)

NGO등록	강	대상국가 내의 법적 지위를 자체적으로 획득함으로 향후 다수의 자체사업 진행 시 용이함. 국내 모금 및 기금사업 제안 시 용이함.
	약	초기 비용이 많이 필요하며, 비영리법인보다 영리법인을 선호하는 대상국가의 특성에 따라 향후 변수가 있을 수 있음. 또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이를 위한 자원 확보, 집행 계획이 사전에 수립되어야 하며, 일정수준 이상의 집행능력을 갖춰야 함. 아닐 경우 등록 갱신이 어렵거나 제약이 있을 수 있음. 사업계획서 제출 시 약 5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이에 대한 확보 방법, 지출 실적이 필요.
기존NGO 협력	강	기존 NGO의 인력 및 현지 법체계 안에서의 사업 진행에 대한 노하우 도움을 받을 수 있음. 특히, 사업초기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적음. 또한, 현지 단체와 협력할 경우 현지 역량강화 및 사업대상지역과의 라포 형성에 용이함
	약	굿파머스의 역할이 후원금지원에 집중 될 수밖에 없어 사업 추진이 다소 제약이 있음.
학교협력	강	농업대학과의 협력으로 연구/개발 사업을 위주로 하는 사업 진입을 할 경우, 학교는 연구비 확보 및 학생들의 실습장 확보로 현지 역량강화의 장점이 있으며, 굿파머스의 경우 학교의 공신력으로 현지에서 마을 접근성, 향후 사업 허가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강점이 있음. 또한, 공간 및 인력 확보에 용이함. 학교 내 사무실 임대, 학생들의 사업진행, 모니터링 요원 투입 등을 고려할 수 있음.
	약	학교 교직원(교수)들의 비용 투입이 불가피하며 실제 마을의 수익성보다 아카데믹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음. 또한, 사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학교에서는 학교와의 접근성이 좋은 마을을 선호.
기타 법인 등록	강	회사법인, 농업법인 등 기타 형태가 있음. 사회적 기업 형태의 회사법인 설립을 추천하는 현지 관계자들 있음. 특히, 양계를 통한 사업을 진행할 경우, 향후 회사법인 설립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초기 사업비는 약 1억 정도를 규정 상 있어야 함. (단, 관계성에 따라 1억 사업의 집행 방법은 달라질 수 있음)
	약	국내 기금사업(KOICA 등 기타 기금) 지원이 어려움. 다수의 경우 현지 'NGO'등록 또는 협력을 지원 조건으로 하고 있음. 사회적기업 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은 별도로 있음. 단, 이 경우 굿브리지로 제안.

사업진행 단계별로 협력대상을 달리하여 사업 진행. 초기 진입 시 연구 및 시범사업은 학교와 협력하여 비용절감 효과 및 현지 역량강화를 지향. 가정양계 사업으로 확대 시 현지 L.NGO와 협력하여 확산이 되도록 함. 이후 수익사업 단계에서는 자체 회사법인(사회적기업의 항목을 자세하게 기술)을 설립. 단, 각 사업간 연속성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해 전담인력 1인 (한국파견 또는 현지고용) 배치 필요.

05 자료 출처

* World Bank(2017), http://www.worldbank.org/en/country/lao/overview
*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la.html
* 라오스 농업부(2012), LAO CENSUS OF AGRICULTURE 2010/11
* 라오스 통계청(2016), LAO PDR 2015 CENSUS-BASED POVERTY MAP: Province and District Level Results
* 현지방문 조사팀 보고서(양계, 교육, 유통 등): 첨부 참조

06 활동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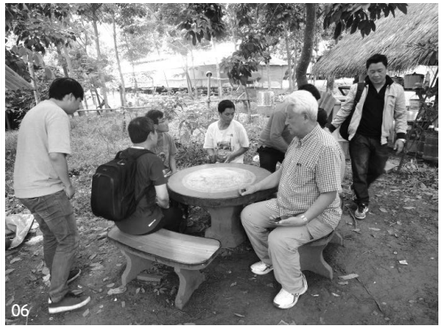
01

02

03

04

05


06

01 (16일) 루앙프라방 농림부 방문
02 (16일) SuDHiCa (LNGO)
03 (16일) 마을1: 빡릉(Pak Leung) 마을방문
04 (17일) 마을2: 므앙카이(Muang Khai) 이장면담
05 (17일) 마을3: 빡시Paksi 가정방문
06 (17일) 산란계 사업장 / 방역상의 문제로 내부 시설 관찰은 불가

07

08

09

10

11

12

13

14

07 (16일) 빡릉 닭, 오리 사육 현황
08 (17일) 므앙카이 마을 양계 현황
09 (18일) 시장조사1: 루앙프라방
10 (18일) 시장조사2: 비엔티안
11 (19일) 가나안농군학교
12 (19일) DVV International
13 (20일) NAFRI(농진청) 시범농장 방문
14 (20일) KOPIA

15

16

17

18

19

20

15 (20일) KOICA
16 (20일) 굿네이버스
17 (21일) 마을4: 나봉(가정양계)-양호한 사례
18 (21일) 라오국립대학
19 (21일) 양계장
20 (22일) KOPIA 워크숍

향후 계획

chapter 03

라오스 조사를 토대로 굿파머스 농민 역량강화를 통한 소득증대 사업의 계획은 아래와 같음

대상지역	▪ **라오스 북쪽 루앙프라방 지역 인근 산악지대 마을** (구체적인 대상마을은 향후 협력 대학과 협의)
양계품목	▪ **'육계(재래종) -> 육계(개량종) -> 산란계'의 순서로 사업진행** 시범사업은 가정들에서 보편적으로 사육중인 재래종 육계로 진행하되 현재의 사육방법이 아닌 사료를 적절히 공급하고, 사양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육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진행(생산성을 향상시킴). 이후, 가정확대 및 유통망 확보 단계에서 개량종으로 진행
사업내용 (Category)	▪ **(연구사업)** 1) 사료: 루앙프라방 대학교 혹은 라오스 국립대학교(농업대학)와 현지에 최적화된 사료 연구개발 등 생산비 감축을 위한 연구 협력. 특히, 닭 사료에 단백질원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 개발 2) 품종개량: 현재 재래종의 품종은 살이 잘 찌지 않는 품종으로, 생산성이 낮아 안정적 소득원으로서 적합하지 않음. 이에 개량종으로의 품종개량 3) 식품개발: 현지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재료로, 현지인의 입맛 또는 현지에 보편화된 음식에 어울리는 맛의 제품 개발(라오국립대학교 농경제학과 교수1인 근처 식당 운영 중. 협력하여 맛 시연 및 한국 제품 적용 방안 모색)

사업내용 (Category)	▪ **(시설지원)** 1) 가정단위: 현재의 개방형 계사 형태로 인해 발생하는 방역문제, 질병관리 문제, 과도한 운동량(살이 찌지 않음)의 이슈 해결을 위해 개체를 가두어 키우는 계사 구축 및 부대장치(급이기, 급수기 등) / 병아리 보온을 위한 장치 / 계사 내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장치 또는 기술 지원 2) 마을(지역)단위: 개발된 사료 배합 비율에 맞춰 주민들에게 사료를 배합 지급할 수 있는, 현지에 적합한 사료시설 설치(접근성을 고려 사업대상 마을에 설치) 3) 그 외: 안정적인 병아리 생산 및 이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초기 관리를 할 수 있는 부화기 및 육추실 지원. 학생들의 실습과 이후 분배 및 모니터링을 고려 협력 학교 내 장소 섭외 후 지원 ▪ **(교육)** 1) 인식개선: 소득원으로서의 축산업(양계사업)의 가능성 교육을 통한 동기 부여 2) 양계교육: (가정양계 시작 전)양계의 개념, 수익성, 양계 사양관리, 영양 및 사료, 방역을 포함한 포괄적 양계 교육 실시 (가정양계 진행 중) 가정방문 및 정기적 모니터링 실시 후 재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 (SAFFRON의 월 1회 교육 모델 고려). 양계교육의 겨우 교육성과 확인 및 교육 참여 및 이해도를 측정, 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병아리 분양) 3) 관리자교육: 마을별 양계(축산) 관련 기본 지식을 갖춘 관리자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집중 전문 교육 실시 (VWB 사업) 4) 전문인교육: 협력 학교 학생들 대상 시범가정 또는 가정양계 대상가정 사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 지식 등을 연구 협력 실습을 통해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 ▪ **(유통/마케팅)**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 및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사회적기업 형태의 판로 확보. 많은 해외여행자들이 찾는 루앙프라방 시내에 라오스 농민 지원 및 안전한 먹거리(친환경) 제공이라는 콘셉트로 닭요리를 주 메뉴로 하는 가게 설립. 이 가게를 통해 닭고기 수매, 친환경 농작물 수매 등을 통해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 또는 단체에게 판로 제공의 역할을 하도록 함.
국가진입	초기 법인의 형태로 진입하는 것은 비용적인 부담이 있으므로, 초기 사업은 타 기관과의 협업으로 진입. 법인은 농민 수익 확보를 위한 법인의 형태로 진행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진행. 1단계) 대학협업: 연구 및 시범사업 2단계) L.NGO 협력: 가정확대 및 관리 3단계) 회사법인 설립: 유통 / 마케팅 / 일자리 창출 1단계에서는 정기적인 전문가 방문을 통해 모니터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2단계부터 전담 인력이 한국 파견 또는 현지 채용의 형태로 배치 될 수 있도록 함.
향후일정	2017. 3분기: 라오스국립대학교 / 수파노봉대학 연구 및 가정양계 시범사업 협력 구체화 2017. 4분기: 사료연구 및 양계시범가정 사업 진행 대학과의 MOU 체결. 전문가 단기파견(방문) 추가조사 및 사업 컨설팅 2018. 1분기: 시범가정 사업평가 및 사업의 가정확대 결정. 현지 L.NGO 사업협력 협의 및 MOU 체결 라오스사업 담당자 파견 또는 현지 채용 2018. 2분기: 양계가정확대 프로그램 시작 (전문가 파견 교육 / 현지 대학생 모니터링 교육 등 시행) 식품개발 연구 시작 2018. 3분기: 현지 상황에 적합한 사료시설 마을단위 또는 지역단위 설치 회사법인(사회적기업) 준비 2018. 4분기: 양계가정 프로그램 진행 및 사회적기업 설립

라오스 가정양계사업(안)	
목표	라오스 농촌지역 저소득 농민의 역량강화와 소득증대 및 라오스 양계 전문인 양성 및 역량강화
목적	1. 라오스 북부 산악지역 저소득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가정양계사업 역량강화 및 소득증대 2. 라오스 양계사업 마을 전문가 양성을 통을 축산업 역량강화 3. 연구사업 및 시범사업, 교육을 통한 라오스 미래 농업인(농업대학 학생) 역량강화 4. 사업체 설립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
산출물	1.1 가정양계 기본교육 및 경영 기본교육을 받은 농가 XX 가정(수행표) 1.2 마을단위 공동관리 및 사료관리를 위한 자치회 X개 조직 1.3 가정별 육계(재래종) 출하 X회 2.1 마을별 전문인 양성 교육 X회 2.2 마을별 전문인 X명 2.3 마을단위(지역단위) 적합 사료시설 X개 3.1 연구소 설치 X개소(사료, 부화, 종계장 등) 3.2 시범사업 가정 X가정 3.3 농업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교육 수료자 XX명 3.4 모니터링 실시 레포트 X개 4.1 회사법인 설립증 1개 4.2 가게 설립 1개소 4.3 닭고기 납품 가정 XX가정 4.4 그 외 농산물 납품 가정 XX 가정 (단체)
활동	1.1 한국 양계전문가 및 현지 양계전문가의 양계 및 양계 경영 교육 실시(인식교육 포함) 1.2 자치회를 통한 마을 양계사업 공동관리, 판매 및 적합 사료시설 관리 2.1 마을별 전문인 교육 실시 (기본적인 축산 관리가 가능한 전문인 마을별 확보) 2.2 마을 전문인 실습 기회 부여 3.1 양계관련 연구 사업 수행을 위한 교육 및 기술 전수, 기자재 지원 3.2 연구 관리 및 시범사업, 본 사업 모니터링을 위한 학생 교육 실시 4.1 유통채널 확보를 위한 식품 연구 실시 4.2 서비스 교육 실시

PART 22

[농림수산] 아름다운가게

시행일자	2017년 4월 25일(화) ~ 6월 24일(토) (총 60일)
지역	네팔 1. Kathmandu District, Dakshinkali municipality, 2. Gorkha District, Thalajung VDC 3. Kavrepalanchowk District, Panauti municipality 4. Kavrepalanchowk District, Panchkhal municipality

2017년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지역조사(사업형성조사) 결과보고서

기본정보				
단체명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	**작성자**	설 지 예	
단체현황	현지 지부		☐ 있음	☑ 없음
	NGO 등록		☐ 있음	☑ 없음
	KOICA 협력사업 수행 경험 유무		☑ 있음	☐ 없음
사업 분야	농림수산	**코드번호**	311(농업)	
조사 목적	지역조사를 통해 태양광 관개시설 보급과 농업 교육을 통한 농업 생산성 및 수익 향상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실현가능성을 확인 하여 사업을 구체화함			
대상 국가 및 지역	**국 가**	네팔	**지 역**	1. Kathmandu District,Dakshinkali municipality, 2. Gorkha District, Thalajung VDC 3. Kavrepalanchowk District, Panauti municipality 4. Kavrepalanchowk District, Panchkhal municipality
	1. Kathmandu District, Dakshinkali municipality – 수도 카트만두에서 차량으로 약 2시간 소요 2.Gorkhal District, Thalajung VDC – 수도 카트만두에서 차량으로 약 6시간 소요 3.Kavrepalanchowk District, Panauti municipality – 수도 카트만두에서 차량으로 약 1시간 30분 소요 4. Kavrepalanchowk District, Panchkhal municipality – 수도에서 차량으로 약 1시간 30분 소요			
조사기간	**전체 조사 기간**	2017년 4월 25일(화) ~ 6월 24일(토) (총 60일)		
	현지 체류기간	6월 9일 ~ 6월 19일 (총 11일)		

조사 목적

chapter 01

– 네팔의 농업 생산량 증대를 통한 농민들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실현가능성, 파급효과 및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여 사업의 계획에 적용함

- 지역과 해당 이슈에 대한기초 자료 수집을 통한 현황 파악
- 농업 생산량 증대를 통한수익 증대 가능성(자급자족 및 판매 상황) 및 지역의 현황파악
- 농업 생산량 증대를 위한방안 중 하나인 태양광 관개시설 설치 및 작동 가능성 검토
-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농법 및 농업관리 현황 및 필요부분 확인

조사 결과

chapter 02

01 일정별 조사 활동

기간		활동 내역 약술
국내	4월 25일 – 5월 2일	· 조사 내용 및 항목 구성 · 현지 조사지역 추가 발굴 및 지역정보 검토 · 태양광 및 농업 전문가 자문 진행
	5월 15일– 5월 19일	· 현지 조사 설문지 및 인터뷰지 작성 · 문헌자료 수집 및 분석
	5월 22일	· 1차 농업 컨설팅 진행
	5월 29일 –6월 8일	· 현지 지역조사를 위한 일정 조율 및 협조 요청 · 현지 농업 전문가 및 가구 설문조사를 위한 조사원 인력 연락
	6월 22일 – 7월 20일	· 현지 조사결과 기반 2차 농업 컨설팅 진행 · 현지 조사결과 분석 및 지역조사 결과보고 작성
현지	6월 9일	· 현지 도착
	6월 10일	· Dakshinkali 지역 방문 및 조사
	6월 11일 – 6월 13일	· Gorkha District Agriculture Development Office 방문 – Gorkha District 농업 관련 정보 수집 · 설문조사를 위한 사전 미팅 · Gorkha해당 커뮤니티 방문 및 조사 – 가구 설문조사 진행 – VDC 오피스 방문 및 주민 인터뷰
	6월 14일	· 현지 NGO(Pourakhi) 사무소 방문 및 기존 조사지역에 대한 추가 정보 및 NGO 활동에 대한 정보 수집 · 굿네이버스 사무소 방문 및 현지 프로그램 정보 공유 및 자문 요청 · Panchkhal 지역 동행 전문가 사전 미팅
	6월 15일	· Kavrepalanchowk District, Panauti Municipality 해당 커뮤니티 방문 및 조사 – 주민 대상 FGI
	6월 16일	· Kavrepalanchowk District, Panchkhal Municipality 지역 방문 및 조사 – 가구 설문조사 진행
	6월 17일	· Dakshinkali 및 Gorkha 지역 동행 전문가 사후 미팅 · 설문조사 결과 검토
	6월 18일	· 현지 태양광 업체 미팅 · 현지 NGO(Sukhawati Foundation) 방문 및 미팅
	6월 19일	· 설문조사 및 내부 자료 정리 · 출국

02 조사 항목 및 방법

	조사 항목	조사 방법	조사 기간
1	네팔 일반 현황	문헌조사	5월 15일 – 5월 19일
2	네팔의 농업 현황	문헌조사	5월 22일 – 5월 26일
3	현지 조사지역의 일반 현황 및 농업 관련 상황	문헌조사, 가구별 설문조사, 인터뷰 등	6월 1일 – 6월 1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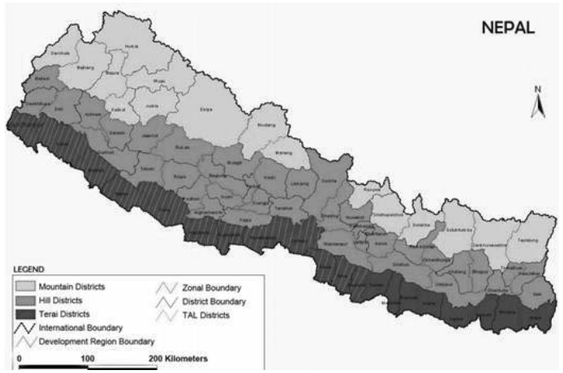
● 지역조사를 위한 팀 구성은 다음과 같음

No.	이름	소속/직위	역할
1	김하나	아름다운가게 사회적기업센터 팀장	조사 총괄
2	이해인	아름다운가게 사회적기업센터 간사	회계, 조사 진행 및 분석, 정산서류 작성
3	설지예	아름다운가게 사회적기업센터 간사	조사 계획, 조사 진행 및 분석, 보고서 작성
4	Chij Man Gurung	Sukhawati Foundation, Vice president	네팔어 통역
5	Nirmal Aryal	Ecoprise, Technical officer	지역의 태양광 관개시설 설치 가능성 확인
6	Bidur Chaulagain	HICAST(Himalaya college of Agricultural Science and Technology), 교수	2개 조사지역 동행 및 해당 지역 농업 자문
7	Kamal Kant Jhar	HICAST, 교수	2개 조사지역 동행 및 해당 지역 농업 자문
8	Dinesh Thapa	NARC (Nepal Agriculture Research Council), researcher	1개 조사지역 동행 및 해당 지역 농업 자문

03 조사 결과 분석

(1) 네팔의 일반현황 (개발환경, 개발전략, ODA 지원현황)

1) 일반 및 경제 현황



◎ National Sample Census of Agriculture Nepal2011/2012, GoN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Dec 2013

일반	인구	26,494,504명 (남 12,849,041, 여 13,645,463, 가구 수 5,427,302)
	면적	147,181km2 (한국 100,210km2)
	기후	지형과 고도에 따라 다양한 기후를 나타냄
경제	GDP	2016년 기준 약 211억 달러
	GNI per capita, PPP	약 2,520 달러
	산업구조	2014년 기준 농업 약 32%, 산업 14%, 서비스 54% (농업부분 고용비율은 2016년 기준 64%)

2) 경제사회지수

- HDI 지수는 0.558(2016 HumanDevelopment Report)로 평균 기대 수명은 70세, 기대 교육 연수는 약 12년, 평균교육 연수는 약 4년, 1인당 실질 국민소득은 $ 2,3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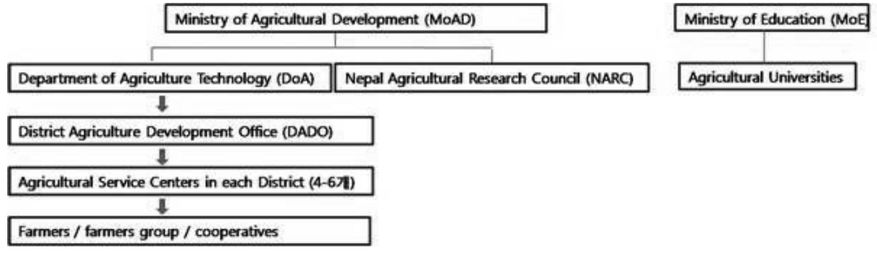
(2) 네팔의 농업현황

1) 네팔의 농업정책

- 2013년 발표된 네팔 농업 전략(ADS,Agriculture Development Strategy)은 기존의 AgriculturePerspective Plan이 2015년 완료된 후,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여 수립한 20년간의 후속 장기전략으로,2030년까지 연중 사용가능 관개설비 보급률을 80% (2010년 기준 18%), 유기농 퇴비 활용을 4%(2010년 기준 1%), 헥타르당 토지농업생산성을 $4,787(2010년 기준 $1,804)로 올리는 것이 목표에 포함되어 있음

- 전략 우선순위로 ①농업관련 과학 기술 분야 투자 촉진, 지식 순환구조(연구-교육-확장) 지원, ②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농업 성장, 사회적·지역적 불평등 개선, ③소농의 경쟁력 있는 가치사슬 창출지원, ④지역 인프라와 개발 및 기업농육성 4가지로 설정되어있음

2) 네팔의 농업 관련 기관



- 농업과 관련된 정부의 주요 기관은 크게 3개기관으로, DoA, NARC, 농업 대학임
  - 이 중 DoA와 NARC는 MoAD 소속이며, 농업대학은 MoE (Ministry of Education) 소속임
  - DoA는 농업 관련 예산을 각 기관에 연결하고분배하는 역할을 함
  - NARC는 농업과 관련된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임
- 각 District에는 DADO가 있으며, DADO 아래1개 District 당 4-6개의 농업 서비스센터가 있음
  - 농업 서비스 센터는 지역 농민, 농업 조합과직접적인 접점을 갖고 농업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 최근 시행된 선거 이후, 중앙집권적인 형식이 아니라 각 지역이 주도권을 가지고 각행정 구역의 발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 예정
  - 3개의 주요 기관이 분절된 형태가 아니라 지역을기반으로 함께 연결되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형태로 변경될 예정임

(3) 지역별 조사결과

○Kathmandu District, Dakshinkali Municipality

1) 지역 개요

① 조사지역 정보

지역명	Kathmandu District, Dakshinkali Municipality, Ward No.7
가구 수	약 700 가구
지형	계단식 토지, 산악지역의 경사진 토지(50도 이하)
직업	대부분 자급자족 형태의 농사를 짓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은 소작농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해외 이주 노동을 떠난 주민들도 많음

② 지역선정 배경

- Sukhawati Foundation이 추천한지역으로 현지 NGO인 Pourakhi의 사업 지역 중 하나임
  - Pourakhi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여성들, 특히 해외 이주를 다녀온 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해외 이주노동을계획하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소득창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Dakshinkali, Ward No.7)에서는 13명의 여성을 대상으로농업을 통한 소득증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③ 조사활동

1. 주민 대상 Focus Group Interview	· 참여자: 지역주민 10명 · 목적: 지역주민들이 농업에서 겪고 있는 문제와 수요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됨 · 내용: 지역 농업의 문제점 및 농업 사업 수요
2. Pourakhi 지역 담당자 인터뷰	· Interviewee: Pourakhi 지역담당자인 Culpana Giri · 목적: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담당자로서 생각하는 마을의 문제 및 정보 공유 · 내용: 마을의 전체적인 농업상황 및 Pourakhi 사업의 진행 내용
3. 솔라펌프 필요성 및 가능성 확인	· 참여자: 현지 태양광 업체 기술 전문가 및 지역주민 등 · 목적: 마을의 수자원 현황 파악 및 솔라펌프 설치 가능성 확인 · 내용: 마을 주민의 수자원 상황 및 수요량 논의, 솔라펌프 설치 가능성이 있는 수원 방문 및 가능성 확인
4. 농지 둘러보기	· 참여자: 마을 주민 및 현지 농업 전문가 · 목적: 농업 현황 파악 · 내용: 농업 전문가와 마을의 농지를 둘러보며 마을의 농업 현황 파악

2) 지역의 농업 상황

① 작부체계 및 농업 계획

- (전체 농업 상황) 곡물 및채소 등여러 작물들을 재배하고 있으며, 자급자족 농업 형태로 일부 채소는 비닐하우스 재배를 하고 있음
- (주요 생산 작물)주요 생산 곡물은 옥수수, 대두, 밀, 기장, 쌀이며,주로 생산하는 채소는 토마토, 콜리플라워, 양배추, 오이, 콩, 호박이며, 지역에서나는 과일은 럽시(Lapsi), 복숭아, 자두, 배 등이 있음
  - 농업 전문가가 이 지역에서 생산 잠재력이 크다고 추천한 작물은 다양한 채소, 특히 토마토, 콩, 콜리플라워, 무, 오이, 호박 등임
  - 떨구 지역(조사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배는 품질이 좋은 것으로 유명함

- (농산물 생산 시기) 월별 시기에 따른 농업 생산 작물 현황은아래와 같음

	1	2	3	4	5	6	7	8	9	10	11	12
옥수수												
보리												
토마토 1												
토마토 2												
콜리플라워 1												
콜리플라워 2												
양배추												
콩												
유채(겨울)												

* 토마토 1, 2, 콜리플라워 1, 2는 같은 작물이나 종류가 달라 재배 및수확시기가 다름
* 토마토는 보통 한꺼번에 생산하고 판매하기 때문에 판매 가격이 낮아짐
* Pourakhi에서지원을 받는 여성들은 비닐하우스를 지원받아 토마토 농사에 집중하고 있으며, 콜리플라워, 오이를 기르기도 함
* 양배추는 항상재배가 가능하며, 날씨가 좋을 경우 크고 좋은 품질의 양배추를 수확할 수 있고, 날씨가 좋지 않을 경우 작고 질이 좋지 않은 양배추를 수확하게 됨
* 쌀은 잘 재배되고 있지 못한 상황임

② 토지

- (토지 종류) 계단식 토지, 산악지역의경사진 토지(50도 이하)로 이뤄져 있으며, 근처에 소나무 숲이 있음
- (평균 경작 면적) 1가구 당 2-5Ropani(0.1-0.25 Ha, 1 Ha=19.56 Ropani)를 경작하고 있으며, 소유한토지를 경작하는 농민들도 있으며, 토지가 없어 임대하여 경작하는 농민들도 있음
  - 농사를 짓는 사람들 중에는토지를 소유자가 많지 않고, 농사를짓지 않는 사람들 중 토지 소유주가 많아서 농사를 짓지 않고 비어있는 땅이 많이 있음(Pourakhi 지역 담당자)
  - Pourakhi가 지원하고 있는 여성들은 현재땅을 임대하여 농사를 짓고 있음
  - Ropani (0.2 Ha) 정도가 1가구(4-6명의 구성원)의 1년 소비량을 경작할 수 있는 정도임'(커뮤니티 주민)

- (토지 임대) 토지를 임대하는 농민의 경우, 토지를 단기로 계약하고 있어 장기적인 안목으로 농업 계획을 세울 수 없음
  - 농부들은 보통 3-5년 정도의 기간으로 토지를임대하고 있으며, 1년씩 단기로 계약하고 계약을 해마다 갱신하는 토지 주인들도 있음(Pourakh 지역 담당자)
  - 해당 지역에서는 1 Ropani를 1년 임대할 경우, 약6,000루피를 내야 함 (카트만두의 경우,15,000-20,000루피를 내야 함)(Pourakhi 지역 담당자)

- (정부 지원) 토지와관련된 정부의 지원 시스템은 없음
  - 세금을 낼 때 소유한 땅에 농사를 짓고 있으면 세금의 일부를 면제해주나, 소유한 땅에 농사를 짓지 않고 있으면 세금을 2배로 내야 함(Pourakhi 담당자)

③ 토양

- (토양의 종류) 해당 지역은Rocky and sandy loam, sandy loam로 구성되어 있어 mixed loam 임(농업전문가 의견)

- (토양의 상태) 해당 지역에서Soil test를 시행한 적이 없어 토양의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없음
  - 농민들은 흙의 상태를 잘 몰라 농사가 잘 안 될 경우, 씨앗등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고 있으며, 정확한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음 (Pourakhi 지역담당자)

④ 종자

- (종자의 출처) 종자의 일부는 정부기관에서 지원받았으나,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일부였으며, 씨앗을 구입해 사용하는농민들이 많지만 구입한 씨앗의 품질에 대해 만족하고 있지 않음
  - '종자의 일부는 DADO(District Agriculture Development Office)와 같은 정부기관이 보급하였으나,이 종자 지원은 DADO와 연관이 있는 가구들만 혜택을 받았음'(FGI, 커뮤니티 주민)
  - '농부들이 생산하여 저장한 씨앗은 다음 시즌에 사용할 경우, 생산량이 높지 않음'(FGI, 커뮤니티 주민)
  - '요즘 씨앗들은 인도에서 넘어오고 있으며, 이 씨앗들도 열매가 잘 맺히지 않는 씨앗으로 Local seed를사용하기를 원함'(FGI, 커뮤니티 주민, Pourakhi 수혜자)
  - '하이브리드 씨앗을 심을 경우, 여러 화학약품을 사용해야지만 농민들의 인식이 부족해 비싼 돈을 들여 하이브리드 씨앗을 구매하고 있음'(Pourakhi 지역담당자)

⑤ 수자원

- (전체적인 수자원 현황) 산에서 내려오는 적은 양의 용수와 빗물이해당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자원이며, 식수와 농업용수 모두 부족한 상황으로, 우기를 포함한 4-5개월을 제외하고는 물을 구하기 힘든 상황임
  - '우기를 포함한 5개월 정도는 마을의 수자원 상황이 나은 편이나, 겨울을 포함한 나머지 7개월 정도는 물을 구하기 힘듦'(FGI, 커뮤니티 주민)
  - '담당하고 있는 6개 지역 중 물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해당지역인 떨구와 차이말레 지역으로,지진 후 물길이 끊긴 후 해결방법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으며, 떨구 지역은 농업용수와 식수모두 문제를 겪고 있음'(Pourakhi 지역담당자)
  - '지진 이전에는 지하수 이용이 가능했고, 개천이 흐르는 등 수자원이 풍부했으나, 지금은 이러한 수자원들을전혀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마을 아래에 있는 작은 개천에서 마실 물 소량만을 공급받고 있음'
  - '지진 후 타NGO에서 긴급구호 프로그램으로 식수를 보급했으나, 현재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이고, Dakshinkali 지역정부에도 이야기했지만 제대로 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Pourakhi 지역담당자)

  - '떨구 지역에서는 물이 나올 수 있는 수자원이없어 솔라펌프도 불가능해 보이나, 차이말레 지역에는 개천이 흐르고 있어서 물을 보관하거나 솔라펌프를사용하는 것도 가능성이 있어 보임'(Pourakhi지역담당자)
  - '특히, 떨구지역의 물 부족이 심각하며, 다른 동은 물이 나오고 전기펌프를 사용하는 곳도 있으니, 이 지역의 물 사정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함'(FGI, 커뮤니티 주민)

- (농업 용수 상황 및 관개시설) 마을 근처에 작은 수원이 있으나 겨울에는 물을 구할 수 없으며, 이로인해 4개월(우기 포함)을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농사를 짓기 힘든 상황임
- 주로 빗물에 의지해 농사를 짓고 있으며, 일부농민들이 비닐로 만든 저수지를 농업에 이용하고 있고, 솔라펌프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비닐 저수지에 대한지원을 요청함
  - '농사에 주로 빗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관개시설로는 현재 20가구 정도가 모여 땅을 파고 비닐을 덮어 만든저수지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며, 연간 60,000리터 정도공급이 가능함'(Pourakhi 지역담당자)
    - '솔라펌프 설치가 불가능하더라도 비닐을 지원받으면, 저수지를 만들어빗물 저장이가능함'(커뮤니티 주민)
  - '농업 용수가 부족해 4개월 정도만 제대로 농사를 짓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거의 농사를짓지 못하고 있음'(FGI, 커뮤니티 주민들)
    - 4개월 지은 농사로 1년을 먹고 살아야 하는 상황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나머지 기간은수도 카트만두에서 일용직 임금노동을 하며 돈을 벌어야 함'(FGI, 커뮤니티 주민)
  - '농업 용수가 제대로 공급된다면, 계절마다 심을 수 있는 작물이 있으니 겨울 채소를 심어 수확할 수 있을 것임'(FGI, 커뮤니티 주민)

- (식수 상황) 모든동에서 물을 구하기 힘든 상황으로, 동마다 돌아가면서 4일에1회, 1시간 가량 펌프를 통해 물을 공급 받아 식수 및 가정용 용수로사용하고 있음
  - 각 가정에서 한 달에 200 루피의 사용료를내고 있으며, 물 사용량이 나타나는 계량기 표시에 따라 추가 요금을 부과하고 있음(마을 둘러보기, 커뮤니티 주민)
  - 사용료를 받아 수도 관리비로 사용하고 있음(마을 둘러보기, 커뮤니티 주민)
  - 1가구 당 1개의파이프가 설치되어 있으며, 파이프는 정부에 요청하여 구할 수 있음(마을 둘러보기, 커뮤니티 주민)

- 물 저장시설이 있고 스케줄에 따라 저장시설의 밸브를 열면 마을에서 물을 사용할 수 있음(마을 둘러보기, 커뮤니티 주민)

⑥ 기후 및 기온

- (지구 온난화로 인한 영향) 예측할수 없는 날씨와 우박, 새로운 병충해 등장 등 농업에 영향을 주고 있음
  - '여러 가지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 사람들도날씨를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해짐'(Pourakhi지역담당자)
  - '지진 후 기온의 변화가 더 커진 느낌으로 추울때 기온이 더 내려가고, 더울 때의 기온이 더 높아진 것 같음'(FGI, 커뮤니티 주민)
  - '물 문제가 겹치면서 병충해도 많아지고 새로운병충해들도 발생하고 있으며, 열매도 제대로 맺지 못하는 등 농사가 제대로 안된다는 이야기를 주민들이많이 하고 있음'
    - '유채의 꽃이 너무 빨리 펴 열매를 제대로 맺지못함'
  - '겨울이 길어지고 있음'
    - '파종 후 올해 4월까지 추위가 지속되어 씨앗이 발아하지 않음'
  - '비가 너무 빨리 내리거나 늦게 내림'
    - '올해는 비가 빨리 내려서 문제였음'
  - '비가 갑자기 강하게 내리고, 우박까지 내려 농사에 대한 피해가 심함'
    - '보슬비가 오래와야 땅이 잘 졌는데, 비도 짧은 기간 동안 강하게 오기 시작함' (이는 물이 땅속 깊이까지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임)
  - 홍수피해는 발생하지 않음

⑦ 지역 내부 조합 및 조직

- (지역 조직 현황) 4개이상의 다목적 협동조합과 2개의 농업 협동조합,마을 여성그룹, Pourakhi가 조직한 여성 조직 등이 있음
  - '현지 여성 이주자 지원 NGO인 Pourakhi에서 이주를 다녀온 여성들이나 이주 계획이있는 여성들 11명을 대상으로 소득 증대와 관련된 조직을 만들었음'(Pourakhi 지역담당자)
  - '이번 선거로VDC 행정단위가 없어지고 이 커뮤니티는 9동에 편입되었으며, 9동 안에 10-20명으로 구성된 농업 관련 여성 조직이 생겨남'(FGI, 커뮤니티 주민)

- (농업 관련 조합)마을에 2개의농업 협동조합이 있으나 일부 부유한 주민들이 구성한 신용협동조합 형태의 조합으로 정부에 등록되어 있지만 제대로 된 조합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음
  - 'FGI에서는 농업 조합이 있다고 이야기했으나, 조합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의 부유한 사람들이돈을 투자해서 만든 것으로 이들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음'(Pourakhi 지역담당자)
  - '조합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부유한사람임'
    - 이자율이 18-24%로 높고 담보가 필요하여가난한 사람은 돈을 빌릴 수 없음
    - 대부분의 여성들은 가난하여 담보를 잡는 것이 불가능함
  - '조합의 구성원이 되면 6개월간 조합에 돈을 적립해야 하며, 추후 50,000 루피까지는 담보없이 이자를 내는 형태로만 대출이 가능하고,100,000 루피 이상의 대출은 담보와 이자가 모두 필요함'
  - '조합에서 이자만 받고 그 이자로 다른 서비스를제공하고 있지는 않음'(네팔에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조합의 경우 이러한 경우가 많음)

- (Pourakhi의 조직 계획) 이 지역의 가난한 여성들을 모아 농업을 통한 소득 증대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조합의 형태로 구성하는 것을 생각 중임 (Pourakhi지역담당자)
  - 여성 그룹들은 각자 1-2 Ropani 면적의땅에 농사를 짓고 있음
  - 조합을 만들고 그 대출 이자를 모으게 된다면, 여성대상 collection center를 지어서 여성 그룹이 생산한 농업 수확물을 모아 시내에 판매할계획임
    - 하루에 15-20kg 정도 농산물을 생산하고있으나, 시내까지 거리가 멀고 운송수단이 없어서 판매가 힘든 상황임
  - 해당 지역의 여성그룹은 아직 조합의 형태가 아니나Pourakhi는 카트만두에 조합의 형태로 여성그룹을 운영하고 있음
    - 한 달간 10루피를 저금하고, 10,000-15,000루피를 대출할 수 있도록하는 조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권력 구조) 커뮤니티에서는권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며, 아직까지 상황이 열악한 주민들은 성, 카스트에 의해 차별을 받고 있기도 함

⑧ 비료, 농약, 제초제 사용

- (비료, 농약, 제초제 사용현황) 동물 배설물을 이용한 퇴비 및 화학 비료와농약을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하이브리드 씨앗을 사용함에 따라 화학 농약 및 비료의 사용이 높아지고있는 것으로 보임
  - '돼지나 양의 배설물을 이용한 퇴비를 사용하고있음'(FGI, 커뮤니티 주민)
  - '정부기관의 농업전문가들과 달리, Agro-vet의 판매원은 농민들에게 하이브리드 씨앗과 화학 비료, 농약구입을 추천하고 있음'(Pourakhi 지역담당자)
    - 정부기관의 농업전문가들은 하이브리드 씨앗과 화학약품의 사용을 제한할 것을 권고하며, 나무를 태운 재나 쑥을 발효한 물, 기름 제거 후의 유채 찌꺼기를 물에 섞은 것 등 유기농 방식의 제초제 등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음
    - 농민들은 단기적인 효과와 생산량 증가에 관심이 높아 이러한 화학 약품들과 하이브리드 씨앗을많이 사용하고 있음
  - 식물성 농약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음 (농업 전문가)

⑨ 병충해

- (병충해 문제) 2-3 종류의병충해가 널리 퍼져 있으며, 화학 농약을 구입하여 살포하고 있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농업 전문가)
  - '농사 관련 관개문제 이외의 또 하나의 큰 문제는병충해임'(FGI, 커뮤니티 주민)
    - '비료로 양의 배설물을 이용한 퇴비를 사용하고있는데, 이로 인해 벌레가 많이 생기고 있음'
    - '병충해 해결을 위해 약을 뿌렸으나 효과가 없는상황임'
    - '토마토 등 작물이 잘 자라도록 비타민을 주면벌레가 많이 생기고, 이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다시 비타민을 사용하고, 다시 벌레가 많이 생기는 악순환을 겪고 있음'
  - '비닐하우스 농사를 시작한 후, 비타민이부족해 병에 걸리고 있으며, 농업 관련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수 없어 많은 문제를 겪고 있음'(FGI, 커뮤니티 주민)
    - '농업 관련 약품을 판매하는 곳의 담당자도 전문가가 아니므로 병충해가 발생해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임'
  - '씨앗을 심어 묘목으로 기르는 과정에서 병충해로인해 죽는 경우가 많아 그룹 차원의 묘목장 건립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FGI, 커뮤니티 주민)
  - '병충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에서 적시에 방문해 대처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작물을 일게 되며, 올해 Pourakhi 수혜 여성 1명이 재배하던 토마토를 모두 잃었음'(Pourakhi 지역담당자)

- (병충해 관리 교육 현황) 통합적인 병충해 관리 교육이 1번 이상 실행되지 않았으며, 교육을 받은 대상도 몇 가구 되지 않음(농업 전문가)

⑩ 농사 방법 및 생산량, 농업 수익

- (농사 방법) 땅을갈고, 잡초를 뽑는 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음
- (농산물 생산량)농업 용수 부족으로 인해 4개월 정도 밖에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생산량이 많지 않으며, Pourakhi수혜 여성의 경우, 토마토 수확기에는 개인당 하루15-20kg 정도를 생산하고 있음
  - 현재는 비닐하우스에서 6개월간 열매 수확이 가능함

- (농업 수익) 토지를소유하고 있고, 형편이 나은 사람들은 4개월 농사로 1년간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FGI에 참여한 주민들이나 여성들경우, 토지 없이 4개월 농사로 1년을 먹고 살 수 없음 (Pourakhi 지역담당자)
  - 1년간(6개월열매 수확) 1개의 비닐하우스로 40,000 루피 수익을벌고 있음(커뮤니티 주민)
    - '토마토의 경우, 1kg 당 약 80-100루피 정도의 판매가격을 받을 수 있음'(FGI, 커뮤니티 주민)
    - '생산된 토마토를 한꺼번에 판매할 경우, 시장에서 낮은 가격을 받게 되므로 케첩과 같은 가공과정을 거쳐 판매하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임'(Pourakhi 지역담당자)
  - '초기 비닐하우스 시작단계에서는 대나무, 비닐 등을 구입해야 하므로 약 15,000-25,000 루피가 들어감'
  - '초기 시작단계를 제외하고, 연간 농업에 투자하는 비용은 약 15,000-20,000 루피 정도이며, 농약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투자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
  - '비닐하우스는 한번 지으면 3-4년간 유지가능하며, 연간 약5,000-8,000 루피의 유지비용이 들어감'
  - '비료에 연간700 루피 정도를 사용함'

⑪ 저장시설

- (저장시설 문제) 저장·보관시설이 없어 옥수수나 보리를 따로 보관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수확물의 손실이나 수익에 영향을 받고있음
  - '채소가 많이 수확되는 시기에 한꺼번에 시장에서판매하면 시장 판매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잉여 농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있다면 농민이좀 더 높은 가격에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을 것임'(Pourakhi 지역담당자)
  - '옥수수의 경우, 비를 맞아 썩거나 쥐가 먹는 경우가 많음'(FGI, 커뮤니티 주민)

⑫ 농업생산물 판매

- (교통수단) 도로가가까이 있어 접근이 쉬우며, Kathmandu Valley와 가까움(35km)
- (판매 시장)Kalimati 시장이가장 가까운 시장으로 마을에서 약 19.6 km떨어져 있고, 차로약 1시간이 넘는 곳에 위치해있어 대부분의 농민들이 잉여 농산물이 있을 경우, 이 시장에 판매하고 있음

⑬ 가공

- (농산물 가공상황) 대부분자급자족 농업이며, 판매하는 모든 농산물은 가공과정을 거치지 않고 판매하고 있음
  - '이 지역에서 자두가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방치해둬썩고 있는 상황으로, 이런 농산물들을 잼이나 주스로 가공하는 방법에 대한교육도 진행하길 추천함'(농업 전문가)
  - '농민들이 보존 및 발효 기술을 통해 복숭아, 자두, 배를 피클, 베이커리, lapsi 캔디, 잼, 젤리, 와인, 맥주 등으로 생산할 수 있는 소규모 생산 비즈니스와 같은수확 후 처리기술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음'(농업전문가)

⑭ 정부 지원 및 농업 교육경험

- (정부 지원)정부에서 지원하는 농업 교육이 있었으나 일부 농민들만참여할 수 있었으며, 농민들은 정부 지원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싶어함
  - '정부의agriculture extension과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최소한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낌'(FGI, 커뮤니티 주민)
  - '정부 쪽에서도 농업 교육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러한 지원이 언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접수기간이 언제인지 등 공유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이러한 연결과 조정 작업이 커뮤니티에 도움이 될 수 있음'(FGI, 커뮤니티 주민)

- (농업 교육 경험 및 관심)농민들이 농업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지역에서 어떤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지, 어떤 작물이 시장성이 높은지에 대한 정보가 없으며, 농업 관련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고, 수확 후 처리 관련 기술등 현대적인 농업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음
  - '주민들이 상업적인 농업과 기업가적 농업 경영(seed money 관리 등)에 대한 교육에 많은 관심을 보임'(농업 전문가)
  - '지금은 완두콩과 같은 작물이 시장성이 높으나정보가 부족해 기존에 재배하고 있는 작물들만을 재배하려는 경향이 있음'(농업 전문가)
  - 'Pourakhi가 13명 여성을 대상으로 농업 교육을 진행했으며, 정부에서 일부 농민들에게농업 교육을 제공했으나 대다수의 농민들이 농업 관련 교육을 받지 못했음' (Pourakhi 지역담당자)

⑮ 식량안보

- 음식을 구입하는데 있어 문제가 있는 상태는 아님(Pourakhi 지역담당자)

⑯기타

- (타 NGO 활동 사항) 현재 이 지역에서 Municipality 지방정부의 허가를 받고 활동하고있는 단체는 Pourakhi가 유일함
  - 지진 이후 Oxfam과 Change Nepal에서 지진피해 지원활동을 했었음

- (가축 사육) 주민중 일부가 닭, 소, 버팔로, 염소를 작은 규모로 사육하고 있음

- (마을 근처 숲의 상태) 현재커뮤니티 숲의 상태는 좋은 편으로, 이전 정부에서 관리할 때는 사람들이 나무를 많이 베었으나 커뮤니티의관리로 넘어온 이 후에는 커뮤니티 주민들이 숲 관리자를 따로 두고 관리하여 상태가 개선됨
  - 일부 주민들이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숲의 떨어진 가지들을 이용하고 있지만 나무를 베는 것이금지되어 있어 숲에 해를 입히고 있지는 않음

● (주민들의 교육 수준) 다른지역에 비해 주민들의 교육수준이 높으나, 직업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 주민 대부분이 학교 교육을 받았으며, 학부, 석사 교육까지 받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음

● (여성 이슈) 여성대부분 가족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느끼며 교육에 대한 의지가 높음 (농업 전문가)

- 농업 및 농업 외 분야와 관련된 교육에 대한 높은 의지를 보였으며, entrepreneurship과 같은 스스로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싶어함
- 가축 사육에 대한 관심은 낮았는데, 그 이유는가축 사육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고, 사회적으로 환영받지 못하는 직업이기 때문이라고 함 (농업전문가)

※ Pourakhi의 커뮤니티 프로그램 (Pourakhi 지역담당자)

● 지역 선정이유

- 7개 District를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정부기관에서 이주여성에 대한 데이터를 토대로 이 지역을 추천해줌
- 이주경험이 있거나 이주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관심과 참여 욕구가 높은것도 고려 이유 중 하나로, 이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교육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

● 수혜자 선정

- 4년간 13명을지원하고 있음
- Microfinance 교육을 하기 위해 수혜자를찾았으며, 지진 피해 이후 이주 노동을 계획하고 있었던 가난한17-30세 여성 13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시작하게 됨
- 13명 이외에도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성들이해당 커뮤니티에 많이 있음
  - 초기 110명을 대상 설문을 통해13명을 선발한 것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면 40명 정도 더 수혜자를늘릴 수 있음

● 여성 그룹 대상 농업 지원 사업

- 떨구 지역에서 농업을 통한 소득증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여성 스스로 소득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여성 대상 소득증대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떨구 지역에서 소득증대사업으로 농업을 선택한 이유는 이전에 소득증대사업으로 미용 기술 교육을진행했으나 사람들의 관심이 적었고 지역에서의 미용에 대한 수요가 낮았기 때문임
  - 지역 사람들이 농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 농업 관련 여성 그룹을 만들게 되었고, 농사 생산성이 개선된다면 사람들의 생계도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함
- Pourakhi 활동 전 8개의 비닐하우스가 있었고, 지금은13개로 늘어남
  - 비닐하우스 건립 후 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는데, 토마토농사를 같은 땅에서 계속하게 되면, 토양의 질이 나빠질 위험이 있음
  - 정부기관에서 지역을 방문하지만, 이에 대한 교육등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음
- 해당 커뮤니티 여성 그룹을 대상으로 2회의 농업교육을 실시함
  - 영국인 토마토 박사가 2일간 토마토 재배 교육을진행함 (강사비 10000루피/1일)
  - 정부기관의 농업 서비스 센터 전문가가 5일 동안토마토 재배 및 돼지, 양 사육에 대한 교육을 진행함 (강사비 6,000 루피/1일)

● 타 지역 사업 내용

- 여성들이 안전한 이주노동을 할 수 있도록 이주 안내 교육을 진행하며, 여성 문제를 정부측에 알리고 개선하기 위한 옹호 활동도 진행하고 있음
- 월경 등 잘 알려지지 않은 여성 보건 문제도 외부에 드러내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과정부에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음
- 여성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여성 대상 income generation 운동을 진행하고 있음
  - 미싱, 베이커리 교육 등을 진행하는 곳도 있음 (베이커리의 경우, 한국 NGO가포우라키 수혜자 2명을 교육한 후 빵가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일본으로 이주를 가려던 계획을 수정함)

3) 지역 사진

01

02

03

04

05

06

07 양배추 밭
08 옥수수 밭
09 비닐을 구입하지 못해 뼈대만 남아있는 비닐하우스
10 옥수수 밭
11 사양토
12 각 가구당 1개씩 설치된 물파이프
- 4일에 1시간 물 사용이 가능함
- 각 가정에서 한 달에 200루피를 내고 있으며, 물 사용량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금을 내고 있음

01 마을 전경
02 Pourakhi 지원 여성의 토마토 밭과 비닐하우스
03 토마토 농사에 위협이 되고 있는 해충
04 해충으로 인한 작물 피해
05 마을 밭의 전경
06 옥수수, 토마토 밭

13 솔라펌프 설치가 가능한 수원
14 솔라펌프 설치가 가능한 수원 (왼쪽 사진과 동일한 곳)
15 마을 주민들과의 FGI
16 솔라펌프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천으로 내려가는 길목
17 농지 둘러보기
18 인터뷰를 하고 있는 Pourakhi 담당자, Ms.Culpana Giri

○Gorkha District, Thalajung VDC

1) 지역개요

① 조사지역 정보

지역명	Gorkha District, Shilanchok Municipality(구 Thalajung VDC) Ward No.2의 2개 커뮤니티 1. Thulosora, Pathesora 커뮤니티 (Community Hall 위치, 마을사람들이 건립한 건물로 마을의 결혼, 제사 등의 행사를 이곳에서 진행함) 2. Chilaune 커뮤니티 (달리트 계층 거주지역) ('해당 커뮤니티'는 위의 2개 커뮤니티를 지칭하는 것임)
가구 수	약 70 가구
지형 및 고도	- 북동 및 남서 방향으로 경사와 계단식 산맥을 이룸 - 해발 1500-1700m
민족	Gurung 민족이 대다수이며, 일부 달리트 계층의 인구가 있음
직업	대부분 자급자족 형태의 농사를 짓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은 가족의 해외 이주노동에 따른 송금 및 해외 용병생활 이후 받는 연금 등을 받고 있음

② 지역선정 배경

- 해당 커뮤니티에 거주하고 있는 Mr. RajuGurung이 지역에서 친환경 방식의 농사를 짓고 있으며, 마을에서의 친환경 농업과 에코투어리즘의 확대·개발을 통해마을 주민들이 해외나 대도시로 이주하지 않고 커뮤니티에서 지속가능한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 아름다운가게에서 일했던 Sukhawati 재단의 Mr. Chij Man Gurung이 Mr. Raju Gurung을소개함

③ 조사활동

1. Gorkha DADO 방문 및 면담	· 참여자: Senior Agriculture Development officer인 Yam Kumar Sherestha 및 DADO 직원들 · 목적: Gorkha의 농업 상황과 정부 및 타 NGO의 지원 내용을 알아보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됨 · 내용: Gokha 농업 현황 및 지원 사업 관련 조언

2. Raju Gurung 인터뷰 및 친환경 농장 방문	· 참여자: Raju Gurung 및 태양광업체 기술 담당직원 · 목적: Raju Gurung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친환경 농장 방문 및 확대 가능성 확인 · 내용: 마을 구조 설명, 친환경 농장 방문
3. VDC Office 방문 및 FGI	· 참여자: VDC 의장 및 사무소 직원, 각 커뮤니티 농업 협동조합 대표 및 농민 조합원 등 마을 주민 약 26명 (농민 및 조합원 24명, 정부 측 관련 주민 약 2명) · 목적: Thalajung VDC 농업 현황 파악 및 주민들이 생각하는 지역 농업의 문제점 및 수요 파악 · 내용: 각 협동조합 운영 방식, 농업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 개선이 필요한 점 등 공유
4. 가구 별 설문조사	· 참여자: 39가구 (Thulusora, Pathesora 커뮤니티 38가구, Chilaune 커뮤니티 1가구) · 목적: 해당 커뮤니티의 농업 현황 및 주민들의 수요 조사 · 내용: 수자원, 생산 작물 등 농업 현황 관련 질문 및 교육 관련 수요 조사
5. 솔라펌프 필요성 및 가능성 확인	· 참여자: 현지 태양광 업체 기술 전문가 및 지역주민 등 · 목적: 마을의 수자원 현황 파악 및 솔라펌프 설치 가능성 확인 · 내용: 마을 주민의 수자원 상황 및 수요량 논의, 솔라펌프 설치 가능성이 있는 수원 방문 및 가능성 확인

2) 지역의 농업상황

① 작부체계 및 농업 계획

- (전체 농업 상황) 대부분 자급자족 농업으로생산량이 많지 않은편이며, 모자란 식량은 Gorkha 시내에서 구입해오고 있음
  - '도로가 들어오기 전에는 자급자족을 위한 농사를 지었으나 도로가 들어온 뒤 농사의 규모를 줄이고 Gorkha 시내에서 농산물을 구입해오려는 경향이 있음'(라주 구릉)

- (주요 생산 작물) 쌀, 옥수수, 기장 3가지가 주요 생산 곡물이며,감자와 일부 채소들도 재배하고 있음
- 일부 농민들이 카다멈, 키위, 생강, 녹차 등의 환금작물들을 키우고 있으나 생산량은 매우 미미한상황임

- 해당 커뮤니티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복수응답가능 문항), 옥수수(30명), 쌀(23명), 수수·기장(23명)을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었으며, 채소류(11명)를 재배하는 농부들도 많았고, 소수의 콩, 과일, 기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이 있었음(HH Survey)
- 주로 많이 생산하고 있는 채소는 토마토, 양배추, 무, 리마콩(Limabeans), 동부(Cow Pea), 겨자잎(Broadleaf mustard), 마늘, 양파, 오이, 호박 등임
- 주로 생산하는 과일은 귤과 키위임
- 주요 환금작물로 검은 카다멈(blackcardamom), 키위, 커피, 생강 등이며, 녹차와 버섯에 대한 관심도 높음

• (카다멈) 2012년에지역으로 들여와 재배하고 있으며, 열매 생산까지 3-4년간의 재배 기간이 필요하며, 2016년부터 생산된 카다멈을 판매하고 있음

· 카다멈은 그늘진 휴한지, 주변부 토지, 옥수수, 벼 재배 토지 등 평균 5-6 Ha에 심고 있음 (농업 전문가)

· 카다멈은 그늘이 있는 곳에서 자라므로 나무 밑에 심어 키우며, 우티스나무옆에 심으면 질소가 풍부해서 잘 자랄 수 있고, 우박이 내리면 이를 막는 역할도 할 수 있음(라주 구릉)

· 생산량에 따라 시장 가격의 변화가 매우 심하나(NPR 150/kg - NPR2,400/kg), 지역농민의 말에 따르면 kg 당NPR 250를 받으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임

· Gorkha DADO는 해당 지역을 Cardamom pocketarea로 공표했음

· Gorkha DADO에 농민들이 묘목 구입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고 있으며, 많이 재배가 되고 있어 사는 사람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으나 너무 많은 양을 재배하여 시장성이 떨어질 수 있는문제가 있음 (Gorkha DADOsenior officer)

· 2명의 농민이 카다멈 묘목장을 건립해서 묘목들을키우고 있으며, 농민 대상 카다멈 재배와 수확 수 처리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함

· 카다멈은 묘목장에서 기른 후 심으면 약 20년간재배 가능하며, 원래의 묘목에서 일부를 분리해서 심으면 약 10년간재배가 가능함(라주 구릉)

· 카다멈 생산과 관련해 토지 관리 등의 문제점을 발견했으며,'모자이크 바이러스'라는 질병을 발견함 (농업 전문가)

· 마을에서 카다멈 농사가 가능한 토지가 약 110Ropani 정도 있음 (라주구릉)

• (키위) 지역 정부(DADO)에서는키위를 지역으로 들여와 2016년 농민들에게 묘목을 제공했으며, 해당지역을 Kiwi pocket area로 공표함
  · '지역 정부에서 키위 묘목 250 그루를 지원했으며, 그 중86그루를 내가 재배하고 나머지는 다른 농부들에게 양도함'(라주 구릉)
  · '농민들은 다른 농부들과 함께 대규모 농장으로확대하여 생산하기를 원함'(VDC Office FGI, 커뮤니티 주민)

• (커피) 지역 정부(DADO)에서해당 지역을 Coffee pocket area로 공표하고 100kg의커피 씨앗을 지역 농부들에게 제공함

• (생강) 대규모 농장과 시장이 있으나, 저장과 관련해 문제가 있음 (농업 전문가)

• (버섯) 해당 지역이 버섯 재배에 알맞은 기후로 DADO와 농민들은 버섯 재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아직 재배를 하고 있지 않은표고 버섯과 같은 다양한 버섯의 재배 가능성이 높으나 문제는시장성임 (VDC 정부 사업 담당직원)

• (녹차) 녹차 생산의가능성도 매우 높은 지역이라는 의견들이 있음

● (농산물 생산 시기)각 농산물의 생산 시기는 다음과 같음

	1	2	3	4	5	6	7	8	9	10	11	12
옥수수 (기장, 콩)												
머스타드												
벼												
밀												
감자												
유채(겨울)												
메밀												

  – 옥수수는 겨울이 지난 3-4월에 심어 9-10월에 수확하며, 기장과는 간작(한작물을 다른 작물의 열 사이에 함께 키우는 것), 콩과는 혼작(생육기간이거의 같은 두 종류의 작물을 동시에 같은 밭에서 섞어서 재배하는 것)하고 있음
  – 일부 농민들은 머스타드를 11-12월에 심고4월에 수확한 이후, 몬순 기간 동안은 강 유역과 계단식 토지에서 벼를재배함 (해당 커뮤니티 전체 토지의 약 20%)(농업전문가)
  – 일부 농민들은 겨울에 감자를 재배하고 있음
  – 밀은 전체 토지의 10% 이하로 재배하고 있음
  – 겨울 동안 일부 농민들은 유채, 메밀을 재배하고있으나 수확량이 적음

● (농업 계획의 필요성) 조합 차원에서 전체적인 협의를 통해 농업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지만 조합 차원에서판매에 대한 고려와 계획 없이 농사를 시작하는 것이 문제임'(VDC Office FGI, 커뮤니티 주민)
  – '조합이 농사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농사를시작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정과 협의도 전혀 없는 상태임'(VDC Office FGI, 커뮤니티 주민)

② 토지

● (토지 종류)대부분 계단식 농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지를 두로 해외나 카트만두로 이주를 간 사람들이 있어 비어있는 토지들이 있음

● (평균 경작 면적)가구 당 평균 10-12 Ropani (0.5-0.6 Ha)를 경작함
  –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의 평균 경작 면적은 13 Ropani로, 가장 작은 경작 면적은 0.5 Ropani(0.026 Ha)였고, 가장 큰 경작 면적은 35 Ropani(1.79 Ha) 였음
  – Dalit 계층의 주민들은 약 5-6 Ropani(0.26 – 0.3 Ha) 정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 (라주 구릉)

● (토지 소유 및 임대) 대부분의 농민들이 개인 소유의 토지에서농사를 짓고 있으며, 토지를 임대하여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넓은 면적의 농사를 짓지 않음
  – 설문조사 결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91%, 임대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9%였음

- 자녀가 자라 토지를 물려줄 경우 토지의 면적은 그대로이나 사람은 많아져 결과적으로 소유할수 있는 땅이 더 적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으며, 소유한 땅이 적은 Dalit의 경우 더욱 문제가 됨

③ 토양

- (토양의 종류) 사양토와 양토로 구성됨(sandy loam to loamy)(농업 전문가)
  - 토양이 비옥한 편이며, 흙의 일부는 적색토와부엽토임(농업 전문가)

- (토양의 상태) 토양이 비옥한 편이나(농업 전문가), soil test를 한번도 해본 적이 없어 어떤 땅에서어떠한 작물이 잘 자라는지 알 수 없음(VDCOffice FGI, 커뮤니티 주민들)

④ 종자

- (종자의 출처) 하이브리드 씨앗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농민들도많으나, 농민 스스로 다음 시즌을 위해 종자를 저장하는 경우가 많음
  - 해당 커뮤니티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77%의농민이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씨앗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나머지는 하이브리드 씨앗을 구입해 사용하고있다고 답함
  - 농민들은 품질이 좋은 개량 종자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길 원함 (농업 전문가)

- (종자 관련 문제) 해당 커뮤니티는 대부분 농가에서 생산한 씨앗을사용하고 있으나, 다른 Thalajung VDC의 커뮤니티에서는씨앗을 구입해 사용하는 경우도 많으며, 씨앗을 구입할 경우,Gorkha 시내(차로 3시간 거리)로 나가 구입해야 어려움이 있으며, 지역에서 직접 씨앗을 생산하고자하는 의지도 있으나 방법을 잘 모르고 있음
  - '정부에서 씨앗을 공급해주기도 하는데 정부 측에서씨앗이 없다고 하여 시장에서 씨앗을 구입해 농사를 짓고 있음'(VDC Office, 커뮤니티 주민)
  - '여주나 토마토 씨앗 등을 사려면 시내로 나가야하고 약 2,000루피 정도의 돈이 추가적으로 듦'(VDC Office, 커뮤니티 주민)
  - '씨앗이 지역에서 생산된다면,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고 지역을 대상으로 그 씨앗을 판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교육이 가장 필요함'(VDC Office, 커뮤니티 주민)

⑤ 수자원

- (전체적인 수자원 현황)몬순 기간에는 물을 사용할 수 있으나겨울 시기 동안은 물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어 농사가 잘 되지 않고 있음
  - Dalit 마을의 경우, 마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수자원이 있지만 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개시설이 없는 상태임 (라주 구릉)
  - Pathesora 커뮤니티에서는, 마을 아래 지역은 개천이 있어 수자원을 이용할 수 있으나, 도로위쪽의 15가구 정도가 수자원 접근성이 떨어져 건기 동안 외부에서 식수를 가져오고 있으며 채소 재배는불가능한 상황임 (라주 구릉)

- (농업 용수 상황 및 관개시설)드문드문 퍼져있는 작은 용수와몬순 기간에는 빗물을 관개 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겨울과 봄 동안 물이 부족한 상황임
  - 몬순 시기에는 커뮤니티의 초목이 울창하지만 겨울에는 관개 문제로 인해 건조하고 척박한 토지로변함 (농업전문가)
  - 설문조사 결과, 41%의 응답자가 관개시설을사용하고 있으며, 59%는 관개시설 없이 빗물에 의존하여 농사를 짓고 있음
    - 설문조사 응답자 중 1명만이 연중 관개시설을활용할 수 있다고 대답하여, 농업용수 사용에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알 수 있음
    - 관개시설의 충분 여부에 대한 질문에 18%만이충분하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82%는 불충분하다고 응답함
  - '물이 있지만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생산 가능한 만큼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개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농민들의 소득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주민들도 관개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임'(VDC Office FGI, VDC 정부사업 담당자)
  - '관개 시설이Thalajung VDC에서의 가장 큰 문제임'(VDC Office FGI, 커뮤니티 주민)
  - '건기에 물이 없어서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고있으며, 이 때에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도 수확량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임'(VDC Office FGI, 커뮤니티 주민)
  - '물이 있지만 농지까지 끌어올 시설이 부재함' (VDC Office FGI, 커뮤니티 주민)
  - 탈라중 7동이 물이 가장 부족한 곳이며, 관개시설이 없어 큰 문제임 (VDC Office FGI, 커뮤니티 주민)
  - (솔라펌프 관련 의견) 비용이많이 드는 솔라펌프보다 농민 간의 협력을 통해 공동

의 물 저장시설을 설치하기를원함 (VDC FGI, 커뮤니티주민)

- '솔라펌프 설치를 위해 대출을 받아 지불하는 방식으로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음' (VDC FGI, 커뮤니티 주민)
- '작은 관개시설, 예를 들어 강에서 물을 모아두었다가 호수로 연결하여 관개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음'(VDC FGI, 커뮤니티 주민)
- '물을 보관할 수 있는 저장소가 있으면, 농부들이함께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VDC FGI, 커뮤니티 주민)

● (식수 상황) 설문조사 결과,34명의 응답자 중 88%가 안전한 식수를 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응답함

- 설문조사에서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고 응답한4명은 Pathesora 커뮤니티의 도로 위쪽 가구로 추정되며, Pathesora 커뮤니티의 도로 윗마을에 위치한 15가구는 겨울동안 외부에서 식수를 조달하고 있다고 함
- 설문조사 중 식수 공급처에 대한 질문에 47%는개인 우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으며, 24%는 수돗물, 9%는공용 우물, 21%은 기타 방법을 통해 식수를 공급하고 있다고 함
  - '마을에 개천이 하나 흐르고 있어 약숫물로 사용하고있음'(Raju Gurung)

⑥ 기온 및 강우량

● (지역의 기후, 기온 및 강우량)다양한기후로 아열대와 따뜻한 아온대 기후가 섞여 있음

평균 기온 (℃)				강수량					강우량			
2007	2008	2009	2010	연간	몬순	겨울	몬순 전 시기	몬순 후 시기	2007	2008	2009	2010
22	22.9	21.9	22.5	1779.6	1352.3	57.6	305.4	64.3	1763	NA	1476	1900

출처: District &VDC Profile of Nepal, 2014/2015, A socio-economic development database of Nepal

● (지구 온난화로 인한 영향)4개월간 비가 오지 않기도 하고, 갑자기 우박과 산사태로 인해 농사에 피해를 입기도 함(라주 구릉)

⑦ 지역 내부 농업 협동조합및 그룹

● (농업 관련 협동조합) SilanchokMunicipaloty(구 Thalajung VDC)에26개의 농업 협동조합이 있으며, 이중 6개조합은 Silanchok Municipality Ward No.2 소속임

- 모든 가구들이 보통 1개의 협동조합에는 가입이되어 있는 상태임
- (해당 커뮤니티 조합)Thulosora 커뮤니티에 Shilanchowk agriculture group이 있으며아직 농업 생산성이 낮아, 농업 생산물을 모아서 판매하고 있지는 않음
  - 라주 구릉이 조직한 협동조합으로 20명 정도의 조합원이 협동하여 카다멈농장을 운영하고 있음

- (협동조합의 운영) 조합원들이조합원비를 내고 있으며(약 25-50루피), 조합마다 집중하고 있는 농업 부분이 다르고 아직까지 조합 내부의 운영이 활발한 상황은 아님(VDC Office FGI, 커뮤니티주민들)
  - 1개 조합 당 조합원은 약 20-35명 사이임
  - 정부에 조합을 등록할 때 등록비를 내야 함
  - 생강과 카다멈 같은 환금 작물을 중점적으로 재배하는 조합들도 있음
  - 조합 공동 농장에서 연간 400kg의 작물을생산하는 조합도 있음
  - Thalajung 7동의 조합은 한 달에 50루피의 조합원비를 받고 있고, 이 중 10루피는 조합을 위해 사용하며, 특히 공동체 숲을 관리하는 인력비를지급하고 있음
    - 공동체 숲에 카다멈을 재배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카다멈묘목장 조성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잠재성은 높으나 현재는 생산량이 부족해 먹는 것도 시장에서 구입하고 있는 상황이며, 생산이 되도 판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
    - 닭, 돼지를 키우는 활동들도 조합에서 진행하고있음
  - '마틸 로 팜'커뮤니티는 마을 전체 35가구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채소재배, 양봉 등을 함께 하고 있으나 조합활동이 제대로 진행되지않고 있으며 생산성이 낮음
    - 8개의 상자에 양봉을 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적은 없으며, 정부에 장갑, 망 등 양봉 관련 지원을 요청했으나 지원을 받지 못함
    - 조합에서 토마토, 호박을 재배하고 있으나 조합공동으로 재배할 때는 생산을 많이 하지 못했으며, 조합원 모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음
    - 전문가의 도움도 없고, 일을 하러 나오지 않는사람들도 있어 조합에서 공동으

로 진행하는 활동들은 거의 실패하고 있음
· 현재 조합은 카다멈 재배에 관심이 있음

- (농업 협동조합의 문제) 많은 농민들이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며조합을 조직했으나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며, 개별조합의 활동도 활발하지 않은 상태이고, 26개 조합 간의 협력이 전혀 없는 상태로, 26개 조합의 협력을이끌어내고 정부와 조합들을 연결할 수 있는 코디네이션 역할의 조정자가 필요한 상황임
  · '조합이 설립된 지 4년이지났지만 정부로부터 씨앗 한 봉지도 받은 적도 없고, VDC에 신청해도 지원을 받을 순서가 아니라고거절당하고 있음'(VDC FGI, 커뮤니티 주민)
  · '관개시설 문제에 대해 정부에 이야기해도 이에 대한 지원 계획을 들은 적이 없음'(VDC FGI, 커뮤니티 주민)
  · 협동조합이조직되어 있으나 개별 협동조합의 활동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물리적인 거리로 인해 협동조합 간의 상호작용과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한 상황임(VDC FGI, 커뮤니티 주민)
  - 한달 1번 협동조합 회의가 있으나 제대로 협의가 진행되거나 교육을 진행하거나 하지는 않음
    · 26개의 조합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정부와 조합을 연결할수 있는 코디네이션 역할의 조정자가 필요하며, 코디네이션 팀을 통해 조합끼리 소통을 돕고, 정부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임'(농업 전문가)
    · '농민들로 코디네이션 팀을 구성하면 농업의 문제들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음'(농업 전문가)
    · 26개 조합 소속 조합원 중 조정 역할에 관심 있는 농민들을 뽑아서 코디네이션 팀을 만들 수 있으며, 리더십 및 협동 조합 운영과 관련된 교육들을 통해 역량을 높일 수 있음'(농업 전문가)

- (소외 그룹) Dalit 계층소속의 8가구가 Chilaune 커뮤니티에 거주 중이며, 주로 대장장이, 목수, 봉제등의 직업을 가지고 있음
  - '가구 별 설문조사 시, 설문조사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프로젝트 참여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임'(설문조사원)

  - 이전 프로젝트에서의 소외 경험 등 추가적인 확인 후 프로젝트의 수혜자로 포함하기 위한 작업이필요해 보임 (한국 농업 전문가)

⑧ 비료, 농약, 제초제 사용

- (비료, 농약, 제초제 사용현황)다른 조사지역에 비해 비교적 적은 양의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고 있으나 많은 화학 비료와농약을 사용하고 있는 커뮤니티도 있음
  - Thalajung VDC 내에서는 각 지역과조합마다 화학 비료와 농약 사용의 정도가 다르며, 많이 사용하는 지역과 조합도 있고 전체적으로 적게사용하는 지역과 조합들이 있음
    • '우리 마을 조합에서는 2% 정도만 농약을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친환경 퇴비를 사용하고 있음'(VDC Office FGI, 커뮤니티 주민)
    • '우리 마을은 화학 비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정부 지원으로 싸게 구입할 수 있어서 많이 사용하고 있음'(VDC Office FGI, 커뮤니티 주민)
    • '화학 비료를 많이 사용할수록 땅이 망가지는것에 대해 많은 농민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상황임'(VDC Office FGI, 커뮤니티 주민)
  - 해당 커뮤니티 대상 설문조사 결과, 91%의농민들이 2016년 비료 또는 살충제를 구입했음
    • 사용한 비료의 종류는 주로 UREA와 DAP 임
    • 비료 및 살충제의 구입처로는 주로 시장에서구입하고 있으며, 일부 농민은 정부 지원, 일부 농민을 협동조합을통해 구입함
    • '커뮤니티농민들의 대다수인 약 70%가 화학비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10% 정도의농부들은 화학 농약을 사용하고 있음'(라주 구릉)
  - (친환경 농장의 비료 사용법) 친환경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라주구릉 씨의 경우, 산에서 구할 수 있는 풀과 동물의 배설물 등으로 유기농 비료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며, 이 방법을 지역 농민들에게 소개하고 확장하고 싶어함

⑨ 병충해

- (병충해 문제)농업 전문가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 등 일부 병충해를발견함
- (병충해 관리 교육 현황)병충해 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없음

⑩ 농업 수익

- (농업 수익 및 농업 외 수익) 농업은개별 가구의 식량을 위해 이뤄지고 있어, 농사 수익은 거의 없는 상황이며, 마을에서의 단기 노동이나 이주를 통한 노동으로 소득을 벎
  - 농사 수익은 거의 없는 상태로, 마을 사람들이농사를 크게 짓고 있지 않으며, 농사로 고생은 많이 하지만, 그만큼소득을 얻지 못한다는 인식이 있음 (라주구릉, 해당 커뮤니티)
  - 주민 중 일부는 해외에서 용병생활 이후 받고 있는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나머지 주민들은 농사 외에 마을이나 시내로 나가 돈을 벌어 생활하고 있음
  - 마을에서 해외 용병 등 이주노동을 떠난 청년들이 많음

⑪ 저장시설 및 농산물 손실

- (저장시설 및 목적)커뮤니티 차원의 보관시설은 없으며, 개별 가구에서 농산물을 보관하고 있고, 식량보관과 작물 씨앗 보관을위해 저장하고 있음
  - 해당 커뮤니티 설문조사 결과, Bhakari(잡안에보관하는 큰 바구니)에 보관한다는 응답이 94%였고, 그 밖에 쥬트나 비닐로 된 포대, 철제 컨테이너에 보관한다는 소수의응답이 있었음
  - 설문조사에서 가족들의 식량을 위해 수확물을 저장한다는 응답이 6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작물의 씨앗을 보관하기 위해 저장한다는응답이 21%로 높았으며, 그 밖에 기근에 대비하기 위해(9%), 높은 가격으로 팔기 위해 (2%)라는 응답이 있었음

- (농산물 손실) 저장 과정에서 작물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다양하나 가장 높은 피해의 원인은 쥐 등 설치류 피해로 나타남
  - 설문조사 결과, 쌀은 수확량의 15%, 밀은 11%, 옥수수는 14%,수수기장은 10%의 손실을 입고 있으며, 채소류도수확량의 5% 정도 손실을 입는 것으로 나타남
    - 손실의 원인으로 가장 많은 응답은 쥐 등 설치류로 인한 피해가 33%, 곤충피해 32%, 썩거나 부패로 인한 손실이 14%, 원숭이로 인한 피해 등 기타가 11%(10명)로 나타남

⑫ 농업 생산물 판매

- (접근성) 고르카 시내까지 차로 약 3시간 거리이고, 많은 부분이 현재는 비포장도로이며, 지역의 농업 생산량이 적어 중간상인들이 마을로 들어오지 않아 판매에 문제를 겪고 있음 (2017년 6월 방문 당시, 도로를포장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었음)
  - Gorkha District Headquarter와멀리 떨어져 있으며, 차로 약 3시간 거리이고, 이 중 40km이상은 비포장 도로임
  - 설문 조사 결과, 교통시설 및 도로 접근성에대한 질문에 응답자 66%(21명)가 접근이 용이하다고 응답했고, 34%(11명)가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함
  - '도로 사정이 현재 좋지 않으며, 농민들은 시장까지 가져갈 수 있는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음'(VDC Office FGI, 커뮤니티 주민)
  - '농업 생산량이 너무 적어 한 차에 차지 않기때문에 시장에서 buyer가 들어오지 않고 있으며, 생산량을더 높여야 판매가 가능함'(VDCOffice FGI, 정부 사업 담당자)
  - '바나나가 익었는데 사가는 사람이 없어 판매를하지 못하고 있음'(VDC OfficeFGI, 여성 조합원)
  - '전체 지역에 26개의 협동조합이 있고, Ward No.2에 6개의 협동조합이 있으나 서로 상호작용이 부족하고공동의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며,농산물을 구입하는 업자들이 마을로 들어오도록 같은 작물을 생산하는 것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지역의 협동조합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함'(농업 전문가)

- (판매 시장) 지역에서 가까운 시장은 1-2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걸어서 왕복 약 2시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음
  - '생산량이 높아질 경우, Gorkha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Phokara, Chitwan,Kathmandu 시장으로 판매가 가능함'(농업 전문가, 라주 구릉)

- (판매 정도) 대부분의 주민들이 농업 생산량이 적어 수확물을거의 식량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농민만이 생산한 작물을 판매하고 있음
  - 설문조사에서 88%의 응답자가 2016년 수확한 농산물을 판매하지 못했다고 답변했으며, 12%만이농산물을 판매했다고 응답함
    - 판매했다고 응답한 농민 중 2명은 소매업자에게, 1명은 도매시장에, 1명은 집에서 이웃을 대상으로 판매했다고 답함

• 판매를 하지 못한 이유로는 판매하지 못했다는 응답자의 80%가판매할 만큼의 잉여 생산물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일부 농민들이 잉여 생산물이 있으나 팔기 원치않아서 판매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소수의 농민들이 잉여생산물이 있으나 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워 판매하지못했다고 답변함

⑬ 가공

- (농산물 가공 현황) 자급자족 형태의 농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고, 판매하는 농산물도 원재료로 판매하고 있으며, 가공 기술이나 지식도없는 상황임
  - 커피의 경우, 원두를 발효해서 판매해야 높은가격을 받을 수 있는데, 농민들이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원재료를 낮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음 (농업 전문가)

⑭ 정부 지원 및 농업 교육경험

- (Distric 단위의 정부 지원)Gorkha DADO에서 시트러스, 채소, 키위, 커피 등의 묘목을 지원하고 있으며, 트렉터 지원, 비닐 저수지, 호수연결 등 간단한 형태의 관개시설 지원들을 진행하고 있으나, Thalajung VDC에 지원하고 있는프로그램은 없음 (Gorkha DADOsenior officer)
  - (지원 필요 지역)Gorkha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지역이 많으며, 특히 시내보다 산속에 있는 마을에 대한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Gorkha DADOsenior officer)
  - (수혜 대상) 가난한농민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가난한 농민들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면 제대로 유지되지가 않는 경향이 있어, 기본 자원이 있고 농사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인이 투자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형태로도 지원하고 있음 (GorkhaDADO senior officer)
  - (추천 사업) 양봉, 다양한 종류의 버섯 재배를 추천함 (Gorkha DADO senior officer)
  - '네팔에는 3개 종류의 버섯만 있어서 한국에 있는 다양한 버섯들을 들여오면시장성이 있을 것임'

- (정부 지원의 문제) 정부의농업 extension 서비스가 농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으며, 농민들은 문의와 요구에도 반응이 없는 정부 공무원들에 대해 비판함
  - DADO에서 마을로 파견되는 농업 전문가들은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기술적인 전문성이 없는 경우가 많음 (농업 전문가: 농민들 의견 + 정부공무원과의 개인적인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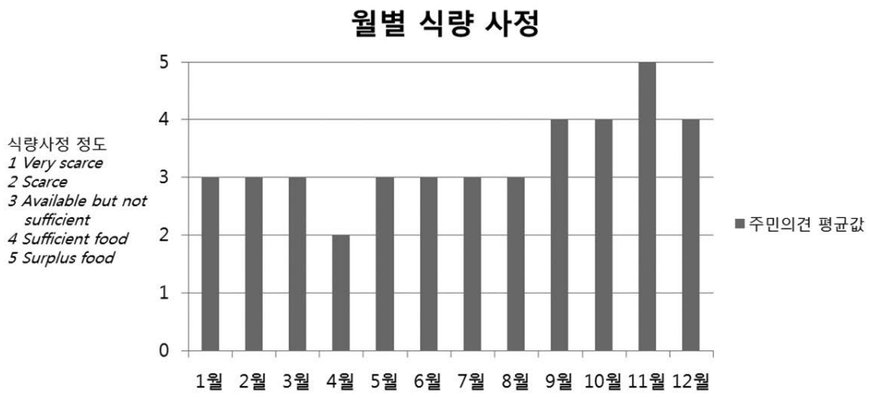
- (VDC 단위의 지원 계획) 주민들의의견을 반영하여, 지역의 농업 가능성을 확인하고 실현할 수 있는 지원들을 진행할 계획임 (VDC Office FGI, VDC 의장)
  - Soil test를 통해 무엇이 가능한지 파악하고농민들에게 이를 공유할 예정임
  - 산에 여러 약초들이 있어서 약초 재배 전문가를 모셔와 무엇을 재배하면 좋을지 컨설팅 받을예정임
  - 가축 사육에 대한 잠재성이 높지만 이를 제대로 하고 있는 조합이 없어 양, 돼지, 소, 염소 등가축 사육을 지원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음
  - 작은 관개시설에 대한 농민들의 문의가 있으나 이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음

- (농업 교육 경험 및 관심)농민들은 농산물 재배와 관리에 대한교육을 받은 적이 한번도 없으며, 정기적으로 혹은 기간을 설정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농업 전문가의조언과 교육을 받고 싶어했고, 특히 생산성을 높이는 교육, 친환경농법에 대한 관심과 수확 후 처리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
  - 해당 커뮤니티 대상 설문조사 결과, 88%의응답자가 최근 3년 간 가구원 포함 농업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고 답함
  - 설문조사에서 94%이 생산성 증진을 위한 친환경농법에 관심이 있다고 답변했으며, 같은 비율로 친환경 농법이 농업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며친환경 농법으로 농산물의 시장가격을 높일 수 있다고 응답함
  - 농산물 수확의 가치증대를 위한 수확 후 처리 기술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85%로,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고부가가치 약용식물 및 허브 경작에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62%(18명)이었음
  - '농업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필요함'(VDC Office FGI, 커뮤니티 주민)
  - '카다멈 재배와 관련된 교육을 한번도 받은 적이없으며, 양봉, 카다멈 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싶음'(VDC Office FGI, 커뮤니티 주민)
  - '지금은 각 가정이 소비할 정도로만 생산해내고있는 상태이므로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함'(라주 구릉)

⑮ 식량 안보

- 농민들이 생산한 작물로는 1년 전체 식량소비중 5-6개월 정도를 버틸 수 있으므로 해당 커뮤니티는 Foodsecurity에 대한 문제가 있음 (농업 전문가)

- 나머지 기간은 다른 도시나 해외로 이주 노동을 떠난 가족들이 보내주는 송금액으로 버티는가정들도 있음
- (연중 식량 상태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설문조사 결과, 대체적인 패턴이 나타났는데, 1-3월과 5-8월 기간 동안은 식량이 있으나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4월은 식량이 부족하고, 9-10월, 12월은 식량이 충분하고 11월은 잉여 농산물이 발생한다고 응답함



- (식량 공급처)설문조사 결과,응답자 중32명이 스스로 농사를 지어 식량을 조달한다고 응답했고, 27명이 시장에서 구입한다고 응답하여,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로 조달할수 없는 기간 동안은 시장에서 식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식량을 교환하거나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보급·지원받는다는응답은 없었음

⑯ 기타

- (행정구역 변경) 해당지역은 Thalajung 9동에서 Silanchowk ruralmunicipality 2동으로 행정구역 변경 예정
- (가축 사육) 설문 조사에서,가금류(닭, 오리)를 키우는 가정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염소가 많았으며, 일부 가정은 버팔로와 소를 키우고 있었으며, 양어장(약 1,000마리)을 운영하는주민 1명이 있었음
- (숲 및 혼농임업 현황) 비목재숲으로 여물로 사용하는 풀, 약초, 장작, 과수원으로 이뤄짐

- 카다멈 재배지역에 오리나무, 자귀나무가 많음
- 몇 농부들이 환금작물로 불교에서 신성한 열매로 여겨지는 보리수 나무(Bodhi chitta, ziziphus budhensis 네팔 고유 종임)와힌두교의 신성한 열매로 알려진 Rudraksha(Elaeocarpus ganitrus)를 키우고 있으며, 이를 확대하여 다른 많은 농부들과 함께 재배하기를 원함

이름	Raju Gurung (라주 구릉)
나이	44세
직업	투어가이드, 농업
학력	석사 (Food &Beverage management)
친환경 농장 운영 동기	- 네덜란드,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의 학업 및 이주 경험, 카트만두에서의 생활 이후, 고향으로 돌아와 마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고향에 정착하게 됨 - 투어가이드를 하며 친환경 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음 - 친환경 농사 방식을 마을에 확산하여 농업 생산성과 농가 수입을 높이고, 지역에 에코 투어리즘을 개발하여 사람들이 도시나 해외로 나가지 않고 마을에서 지속가능한 방식의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음
인터뷰 내용	• 마을의 경제상황, 자원, 사람들, 토지 사정 등을 알고 있으며, 이러한 마을의 인적, 물적 자원을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하여 마을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음 • 현재 카다멈, 키위를 재배하고 있으며,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농업을 진행하고 있음 - 카다멈을 선택한 이유는 한번 심으면 20년간 자라고, 옥수수 농사처럼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임 - 카다멈, 키위로 소득을 얻으면 이주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농사를 짓는 것도 가능함 • 마을을 에코 투어리즘, 유기농업 마을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발하고자 함 - 주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친환경적인 방식의 농업과 양봉을 통해 마을의 생태를 지킬 수 있음 • 마을에 외국인이 방문하는 것은 처음으로, 마을 스스로도 노력하고자 하지만 한계가 있어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 - 마을을 발전시킬 수 있는 아래의 5가지 사업을 구상 중임 · 카다멈, 키위 재배 · 채소 등 다른 작물 재배를 위한 관개시설 설치 · 가축 사육 (버팔로, 닭, 소): 배설물에 질소가 풍부해 비료 생산 가능 · 레몬 그라스와 다른 식물의 마른 잎을 섞어 유기농 비료와 농약 생산 · 양봉: 꿀 생산 및 다른 식물의 수정을 도움

◎ 친환경 농장을 운영 중인 Mr. Raju Gurung (라주구릉) 인터뷰

3) 지역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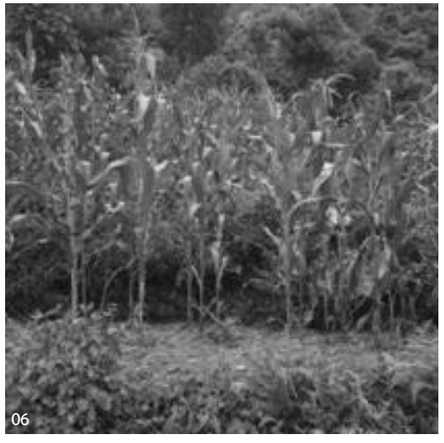
01

02

03

04

05


06

01 마을 전경 1
02 마을 전경 2
03 옥수수 밭 1
04 옥수수 밭 2
05 옥수수와 기장
06 옥수수와 기장 2

07

08

09

10

11

12

13

14

07 라주 구릉씨의 친환경 개인 농장 (산)
(재배 중인 카다멈과 호수로 만든 관개시설)
08 카다멈 열매
09 라주 구릉씨의 친환경 개인 농장 (산) (관개시설_물탱크)
10 라주 구릉씨의 친환경 개인 농장 (산) (관개시설_스프링클러)
11 친환경 비료에 쓰이는 풀
12 친환경 비료에 쓰이는 풀
13 라주 구릉씨의 친환경 개인 농장 (산)
(농장 안의 친환경 비료 만드는 곳_산에서 나는 풀,말린 나뭇잎,
물을 혼합해 만들고 주기적으로 섞어줌)
14 라주 구릉씨의 친환경 개인 농장 (산)
(동물의 오줌을 넣어 만든 친환경 비료)

15

16

17

18

19

20

21

22

15 라주 구릉씨의 친환경 개인 농장(계단식 밭) (키위)
16 라주 구릉씨의 친환경 개인 농장(계단식 밭) (오감주 나무)
17 라주 구릉씨의 친환경 개인 농장 (카다멈 건조장)
18 라주 구릉씨의 친환경 개인 농장(계단식 밭) (카다멈 묘목장)
19 Gorkha DADO방문 및 인터뷰
20 가구 별 설문조사 전 조사원들과의 회의
21 VDC Office 방문 및 FGI
22 FGI에 참여한 농민들

○Kavrepalanchowk District, Panauti Municipality

1) 지역개요

① 조사지역 정보

지역명	Kavrepalanchowk District, Panauti Municipality Ward No.6 Ratomate, Chakhe danda
가구 수	약 150 가구 (약 650명)
지형 및 고도	주로 계단식 토지로 이뤄짐
민족	Tamang, Braman 등
직업	대부분 자급자족 형태의 농사를 짓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은 소작농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해외 이주 노동을 떠난 주민들도 많음

② 지역선정 배경

- 해당 커뮤니티는 네팔 아름다운도서관 사업의 파트너 기관인READ Nepal이 소개한 지역으로 READ Nepal이 Panauti에 지은 커뮤니티 도서관을 통해 농업 상황이 열악한 마을을 연결해줌

③ 조사활동

1.주민 대상 Focus Group Interview	· 참여자: 지역주민 약 22명 · 목적: 지역주민들이 농업에서 겪고 있는 문제와 수요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됨 · 내용: 지역 농업의 현황 및 문제점
2. 솔라펌프 필요성 및 가능성 확인	· 참여자: 현지 태양광 업체 기술 전문가 및 지역주민 등 · 목적: 마을의 수자원 현황 파악 및 솔라펌프 설치 가능성 확인 · 내용: 마을 주민의 수자원 상황 및 수요량 논의, 솔라펌프 설치 가능성이 있는 수원 방문 및 가능성 확인
3. FGD (시기 별 수자원 상황 그래프)	· 참여자: 지역주민 약 22명 · 목적: 마을의 시기 별 수자원 상황 및 심각성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됨 · 내용: 각 주민들이 느끼는 시기 별 수자원 상황(부족-충분) 표시

4. FGD (농업 분야의 문제점)	· 참여자: 지역주민 약 22명 · 목적: 주민들이 생각하는 농업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됨 · 내용: 농업의 각 이슈에 대한 심각성 정도를 함께 논의하여 표시 (토지,농업 용수,종자 등 각 이슈에 대해 주민들이 함께 논의한 후, 초록색(해당 주제에 대한 농업문제가 없음), 노란색(문제가 있음), 붉은 색(문제가 심각함)으로 표시함)
5. 농지 둘러보기	· 참여자: 마을 주민 · 목적: 농업 현황 파악 · 내용: 농업 전문가와 마을의 농지를 둘러보며 마을의 농업 현황 파악

2) 지역의 농업상황

① 작부체계 및 농업 계획

- (전체 농업 상황) 대부분 자급자족을 목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으며, 1년 간 생산한 농산물로 약 5개월 정도 식량으로 소비할 수 있고, 생산한 작물 중 소량의 채소만을 판매하고 있음

- (주요 생산 작물) 주요 생산 곡물은 옥수수, 벼, 보리가 있으며, 고추, 토마토, 감자 등의 채소와 과일로는 귤을 생산하고 있음
  - '지역에서 귤 농사가 잘 됐었는데, 기후변화로 인한 것인지 요즘은 제대로 열매가 잘 맺지 않고 있음'(커뮤니티 주민)

- (농산물 생산 시기)몬순 기간에는 벼(개천 근처), 옥수수를 많이 생산하고, 겨울을 포함한 그 외 기간 동안은 메밀, 유채, 감자, 보리 등을 재배하고 있지만,비가내리지 않아 농사가 대체로 잘 되고 있지는 않음

② 토지

- (토지 종류)계단식 토지가 주를 이룸
- (평균 경작 면적)2—4Ropani(약 0.1-0.2 Ha)를 경작하고 있음
  - 소유한 토지에서 경작하는 농민의 비율이 높으나, 토지를임대하여 농사를 짓는 농민들도 있음

  - '아이들이 자라면 땅을 나눠줘야 하는데, 적은 땅을 나눠가지면 경작할 수 있는 토지가 더 줄어드는 것이니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음'(커뮤니티 주민)

- (토지 임대)토지를 임대할 경우, 임대료는 1년간 1Ropani 임대에약 12,000-15,000 루피 정도를 지불함
  - 주민들은 농업 문제에 대한 FGD에서 토지에노란색(문제가 있음)을 표시했으며, 그 이유는 토지를 임대해 농사를 지어야 하는 농민들이 있기 때문이었음

③ 토양

- (토양의 상태)정부에서Soil test를 진행했으며, 토양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결과가 나옴
  - 주민들은 대부분 토양 상태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었으며,Soil test에 대한 결과 정보를 이전에 공유 받은 적이 없음
    - 농업 문제 관련 FGD에서 주민들은 흙에 문제가없다고 했으나 Panauti 도서관 의장이 정부가 진행한 Soiltest의 결과를 이야기 해주었음
    - 토양 상태에 대한 질문에 '농사를 짓는데 문제가없고, 7-8월에는 비가 와서 좋은 편이나 겨울시즌 동안 물이 부족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응답함
  - Panauti 지역의 경우, 사진으로 봤을 때, 토양이 붉은 색을 띠고 있는데 이것은 토양의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임 (한국농업 전문가)

④ 종자

- (종자의 출처)과거에는 옥수수,쌀 등 수확한 것에서 좋은 것들을 선별하여씨앗으로 보관했지만, 지금은 하이브리드 씨앗을 시장에서구입하고 있음
  - 주민들과의 FGD에서 종자의 문제는 붉은 색으로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표시함 (농업문제 FGD, 커뮤니티 주민)
  - 정부가 보급하는 씨앗에 대해 사람들의 인식이 좋지 않아서 주로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씨앗을구입하고 있음
    - '정부에서 벼 씨앗을 줘서 재배했는데 쌀알이없이 껍질만 남아있었다. 어느 곳에서든 공짜로 주는 씨앗을 받아서 키우면 안 된다. '(FGI, 커뮤니티 주민)

⑤ 수자원

- (전체적인 수자원 현황)마을의 식수, 관개용수 모두 부족한 상황이며, 마을 근처를 흐

르는 강이 있으나오염이 심해 수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임
- '마을 근처 강은 소도 마실 수 없을 정도로수질이 악화된 상태임'(FGI, 커뮤니티 주민)
- Water resource graph FGD에서농민들은 특히 겨울 동안 식수 및 농업 용수로 사용할 물이 부족하다고 함
  - 1-3월(겨울시즌): 물이 부족
  - 4-6월: 부족-보통
  - 7-9월(몬순): 충분
  - 8-10월: 보통
- FGD에서 몬순 전 후로 주민들이 느끼는 수자원양에 대해 차이를 보이는데 윗마을과 아랫마을의 접근성 차이가 원인인 것으로 보임
  - '개천이 가까운 아래 마을보다 윗마을은 물을구하기가 조금 더 힘듦'(FGD, 커뮤니티 주민)

- (농업 용수 상황 및 관개시설) 대부분 빗물에 의지해 농사를짓고 있는 상황(강 바로 근처 지역에서는 디젤 발전기를 사용해 농사를 짓는 곳도 있음)이며, 특히 겨울 동안의 농업 용수가 부족해서 제대로 농사를 짓고있지 못함
  - '관개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농사에 투자한만큼 제대로 된 소득을 올리고 있지 못하는 상황임'(커뮤니티 주민)
  - '비가 오지 않는 기간에는 농사가 잘 되지 않지만혹시나 하는 마음에 메밀, 유채, 감자 등 겨울에 재배가능한작물을 심고 기다린다. 비가 오지 않아 작물이 잘 자라지 않으면 씨앗에 쓴 돈을 손해 보는 것이다.'(농지 둘러보기, 커뮤니티 주민)
  - 'Panauti는 Kavre District의 큰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부의 지원이 많고 농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지원도 없고 매우 열악한 상황임'(FGI, 커뮤니티 주민)
  - 'Kavre 지역은 물소 사육이 잘 되는 지역으로알려져 있지만, 현재 소에게 물도 제대로 못 먹이고 있는 상황임'(FGI, 커뮤니티 주민)

- (식수 상황)마시는 식수도 전체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물을 긷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음
  - '식수가 부족하고, 물을 길러와야 하기 때문에 노인 분들이 더 많이 힘든 상황을 겪고 있음'(FGI, 커뮤니티 주민)

⑥ 기후 및 기온

- (지구 온난화로 인한 영향) 기후 변화로 인해 날씨와 강우량을예측할 수 없는 것과 재배 환경이 달라진 문제가 있음
  - '기후 변화로 인해 갑자기 비가 한꺼번에 많이와서, 감자 수확 시기에 감자가 썩은 경우가 있었고 그 밖의 작은 피해들이 있었음'(FGI, 커뮤니티 주민)
  - '이 지역에서 귤 농사도 원래 잘 됐었는데 기후변화로인해 농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농지 둘러보기, 커뮤니티 주민)

⑦ 지역 내부 조합 및 조직

- (지역 조직 현황) 지역에 신용협동조합 형식의 농업 조합 및여성 조합들이 있음

- (농업 관련 조합) 신용협동조합 형식의 농업 협동조합이 있음
  - 30명의 조합원이 있으며, 한달 간 100루피를 적립하고 있음
  - 공동으로 농사를 짓고 있으며, FGI에 참여한주민 중 7명이 해당 조합원이었음
  - 토지에 대한 지원은 없고, 비료를 어떻게 사용해야하는지 등과 관련해 정부의 연구기관에서 전문가를 보내주는 정도로 지원을 받고 있음
  - '조합에서 농부에게 담보 없이 100,000루피를 대출해주고 있지만 농업에 사용할 물이 없어서 많은 농산물을 생산해낼 수 없으니 이용하고 있지않음'(FGI, 커뮤니티 주민)

⑧ 비료, 농약, 제초제 사용

- (비료, 농약, 제초제 사용현황)동물 배설물을 이용한 거름과 많은 양의 화학 비료를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화학 약품들도 사용하고 있음
  - 예전에는 소 배설물을 이용한 퇴비를 사용했으나 지금은 화학 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음
    - '예전에는 소 배설물을 이용한 거름만으로도 농사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Urea 같은 비료를 사용하고 있고, 화학비료를 사용해야 농사가 가능함'(FDG, 커뮤니티 주민)
    - '화학약품 사용으로 흙 자체가 바뀐 뒤에는 거름만으로는 농사가 되지 않아 화학 비료를 함께 사용하고 있음'(FDG, 커뮤니티 주민)
  - (화학 및 유기농 비료에 대한 인식) 동물 배설물 퇴비를 사용하는 방식을 잘 모르고, 효과가 없다는 인식이높으며, 화학 비료 사용이 인체에 해롭다는 사실을 모르고

agro-vet에서 주는 정보만으로 사용하는 농민들도 있음

- '소 거름은 별로 효과가 없음'(FDG, 커뮤니티 주민)
- '소 거름을 바로 쓰면 벌레가 많이 생기고 나쁘다고 들었는데 거름 만드는 방법을 잘 모르겠음'(FGD, 커뮤니티 주민)
- '유기농 거름을 만드는 방법을 잘 알아야 하는데, 주민들이 잘못 사용하고있음. 소 거름의 경우, 발효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바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럴 경우 효과가 없음. 화학 비료를덜 쓰고 유기농 거름을 써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음'(FGD, 지역 농업 지원 전문가)
- '화학 비료 사용이 인체에 해롭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로컬 씨앗에서요즘은 하이브리드 씨앗으로 바뀠기 때문에 화학비료를 사용해야 농사가 잘 될 수 있음'(FGI, 커뮤니티 주민)
- '예전에는 소 배설물을 이용한 거름을 사용했지만, 생산량을 한 번에올리고 싶어 agro-vet에서 추천해준 화학비료를 구입함. 토양의질이 안 좋아진다는 것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서 모르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화학비료를 사용해오고 있음'(FGD, 커뮤니티 주민)

⑨ 병충해

- (병충해 문제) 토마토 등의 작물이 병들어 있었으며,그 밖에도 여러 병충해 문제가 있음
  - 마을 주민들과의 FGD에서 병충해와 관련된 심각한문제가 있다고 표시했으며(노란색), 소 퇴비 사용시, 발효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사용하고 있어 벌레가 많이 생긴다고 함

- (병충해 관리 교육 현황) 정부에서 지원한 농업 교육 프로그램중 병충해 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었으며, 해당 마을의 주민 30명정도가 이 교육에 참석했으나 배운 내용들을 실제 농사에 적용해 병충해 관리를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 문제 발생시, agro-vet에서 추천해주는 약품과 정보들에 의지하고 있음

⑩ 농사 방법 및 생산량, 농업 수익

- (농사 방법) 기존의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농사 방식을 그대로사용하고 있으며, 기계 대신 대부분 사람의 노동력으로 모든 작업을 하고 있음
  - '땅을 깊이 파면, 땅의 정령을 파괴한다고 믿어서 소를 이용해 밭을 가는 작업을 하지 못하고, 대신사람이 손으로 얕게 파서 농사를 하고 있음'(fieldvisit, 커뮤니티 주민)
  - '농지 면적이 작고, 이웃 간 협력해서 농사를 짓고 있어서 노동력에 대한 문제를 겪는 경우는 없음'(커뮤니티 주민)

- (농산물 생산량) 1년간농사를 지어서 약 4-5개월 정도만 자급자족이 가능하며, 재배한채소의 소량만 판매가 가능함
  - '농사를 짓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1년 농사를 지어도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관개시설이 없어서 농업 생산량이 너무 낮다.'(FGI, 커뮤니티 주민)
  - '지금은 농사를 지어도 1년을 먹고 살기가 힘든 상황이다. 농사를 하면서 다른 일을 하지않고 1년간 먹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FGI, 커뮤니티 주민)

- (농업 수익) 판매량이 생산량의 2-3% 밖에 되지 않아 농업을 통해 버는 소득은 거의 없는 상황임
  - '옥수수와 벼는 판매를 못하고, 감자나 토마토 같은 채소를 조금씩 팔고 있으며, 채소를 팔아 번돈으로 쌀을 사고 있음'(농지 둘러보기, 커뮤니티 주민)
  - '비가 와서 옥수수가 잘되면 10,000루피 정도 수확할 수 있음. 그러나 판매를 할 수는 없고, 재배해서 식량으로 사용하고 있음. 돈으로 환산했을 때 10,000 루피 정도 된다는 것임.'(Field visit, 커뮤니티 주민)

- (농업 외 소득) 농사를짓지 못하는 겨울은 시내에서 일용직 노동을 통한 수입이나 해외 이주노동을 나간 가족들의 송금으로 생활을 하고 있음
  - '소를 키워 우유를 판매하기도 하지만, 지금은 소 물을 먹이기도 힘든 상황임'
  - '농사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많은 가정에서 1명 정도 해외이주를 나간 상태임'
  - '남성은 노동일을 하고, 여성들은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음'(FGI, 커뮤니티 주민)

- (농업 투입 비용) 씨앗 가격과 농약, 비료 등에 다음과 같은 비용이 사용됨
  - 1년에 약 5000-10000루피를 농업 투입 비용을 사용하고 있음 (커뮤니티 주민)
  - 씨앗 가격 (2Ropani에 약 2kg의 씨앗이 사용됨)
    - 보리 1kg: 200루피

· 옥수수 1kg: 300루피

• 농약, 비료는1년에 약 2,500 루피를 사용함 (Urea 1자루 25kg, DAP 1자루 25kg)

⑪ 저장시설

● (저장시설 현황) 농업 생산물을 저장하는 시설은 따로 없어 자루에저장하고 있으며, 수확물을 제대로 보관하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음

- 보관할 수 있는 저온 저장시설이 PanautiMunicipality에 1개가 있으나 마을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 마을 내부에는 저장 시설이 따로 없고 각 개별 가구가 각자 저장하고 있음
- 과거에는 개별 가구에서 Local Bhakahri(대나무바구니)에 농업 수확물을 저장했으나, 지금은 자루에 저장하고있음
- '집에 농업 생산물을 보관할 경우, 쥐가 먹는 경우도 있음'(FGD, 커뮤니티 주민)
- '수확량 자체가 많지 않아서 저장과 관련된 큰문제는 없음'(FGD, 커뮤니티 주민)

⑫ 농업 생산물 판매

● (판매 시장)판매할 농산물이 있을 경우, 로컬 마켓인 Panauti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판매로 인한소득이 거의 없음

- 'Panauti 시장 규모가 작아서 판매가 잘되지 않으며, 판매해도 차비만큼도못 버는 경우도 있음'(FGI, 커뮤니티주민)

⑬ 가공

● (농산물 가공 현황)농산물 생산량 자체가 적어 대부분 식량으로소비되고 있으며, 소량 판매하고 있는 농산물은 가공을 거치지 않고 있음

⑭ 정부 지원 및 농업 교육경험

● (정부 지원) 정부 측에서Soil test를 진행했고, 농업 교육을 진행한 적이 있음 (하단의 '농업 교육 경험 및 관심'참고)

● (농업 교육 경험 및 관심)커뮤니티 주민들은 정부에서 진행한농업 교육과 현지 NGO인 READ Nepal이 건립한 도서관에서진행하는 농업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고, 커뮤니티 리더와 일부 농민들이 지역 농업을 유기농업으로 전환하는것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정부가 제공한 농업 교육)6개월간 주 1회 농업 교육을 진행했으며, 농업의 전반적인 내용에대한 교육과 비닐하우스와 물 바구니 등을 지원함

• 씨앗을 심는데 알맞은 깊이, 병충해 관리, 수확 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함

• 해당 마을에서 약 30명 정도가 참석했으며, FGI 참여 주민 중 4명이 이 교육에 참석한 경험이 있음

• '농업 교육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고 참석한 30명의 주민은 비닐하우스도 만들고 물 바구니도 받았으나, 농업 용수가없어 제대로 생산하고 있지 못함'(FGI, 커뮤니티 주민)

- (도서관 교육) 여성그룹 35명을 조직한 후 가축 사육 및 백신접종 방법과 같은 여성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18개 조합을 대상으로 버섯 농사 교육을 진행하여 이 커뮤니티의 일부 농민들이 참여함

• '소를 키우고 있었는데 가축사육과 관련된 정부의보험이 있다는 것을 도서관 교육을 통해 처음 알게 됨'(FGI, 커뮤니티 주민)

⑮ 식량 안보

● 1년간 동안4-5개월 정도의 식량만을 생산하고 있어 식량 안보에 문제가 있음

⑯ 기타

● (가축 사육) 마을에서염소, 소, 물소 등을 키우고 있으며, 주로 소를 많이 키우고 있음

- 소 거름을 생산하기 위해 소를 키우고 있으며, 소오줌을 약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소 우유를 판매하기도 함

3) 지역 사진

01

02

03

04

05

06

07

08

01 마을 전경
02 오염된 강
03 집 마당에서 만들고 있는 퇴비
04 집 마당에서 만들고 있는 퇴비
05 토마토 밭 1
06 토마토 밭 2
07 옥수수 밭 1
08 옥수수 밭 2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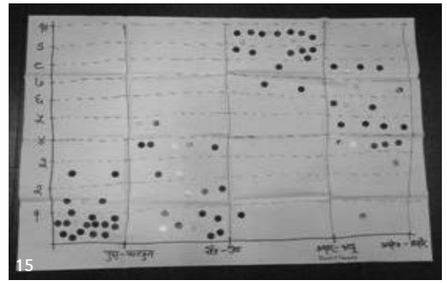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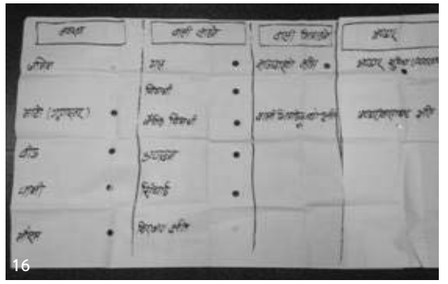
11

12

13

14


15


16

09 마을 주민들과의 인사 및 인터뷰
10 인터뷰에 참여한 마을 주민들
11 시기 별 수자원 상황을 표시하고 있는 마을 주민
12 마을 주민들이 표시한 시기별 수자원 상황의 결과를 공유 중임
13 마을의 농업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주민들
14 주민들이 생각하는 마을의 농업 문제의 결과를 공유 중임
15 시기 별 수자원 상황 FGD 결과
16 마을의 농업 문제 관련 FGD 결과

○Kavrepalanchowk District, Panchkhal Municipality

1) 지역개요

① 조사지역 정보

지역 명	Kavre District, Panchkhal ward No. 7
가구 수	약 200가구
지형 및 고도	대부분 평평한 지형에 경작 토지가 있으며, 일부 경사진 토지가 있음
직업	대부분 주민들의 주요 소득원은 농업이며, 지역 상인을 통해 카트만두 도매 시장에 채소 등의 농산물을 판매하여 소득을 얻고 있음

② 지역선정 배경

- 현지 태양광 업체인 Ecoprise가 소개한지역으로 지역의 몇몇 가구가 태양광 펌프를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태양광 펌프의 잠재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추천함

③조사활동

1.농민 인터뷰	· 참여자: 태양광 펌프의 시범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농민과 이웃들 2명 · 목적: 마을의 농업 상황과 문제점 및 수요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됨 · 내용: 농업 상황 및 문제점에 대한 인터뷰, 농장 둘러보기
2. 마을 농민들과의 FGI	· 참여자: 마을 주민 약 20명 · 목적: 마을의 농업 상황 및 문제점, 농업 용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됨 · 내용: 농업 생산 정도, 조합 활동 여부, 농업 교육 경험, 농업 용수 활동 상황 등에 대한 인터뷰
3. 가구 별 설문조사	· 참여자: 61가구 · 목적: 해당 커뮤니티의 농업 현황 및 주민들의 수요 조사 · 내용: 수자원, 생산 작물 등 농업 현황 관련 질문 및 교육 관련 수요 조사

2) 지역의 농업상황

① 작부체계 및 농업 계획

- (전체 농업 상황) 옥수수, 벼와여러 가지 채소 농사를 짓고 있으며, 생산한 농산물들을 지역의 상인을 통해 카트만두 도매시장으로 판매하고있음

- (주요 생산 작물) 주요 생산 곡물을 옥수수와 쌀이고, 감자, 양배추, 콜리플라워와여주, 수세미, 오이와 같은 조롱박과 식물이 주요 생산 채소임
  - Khet(관개를 하는 농지)에서의 주요 생산작물을 쌀, 감자,콜리플라워, 조롱박과 식물들이며, Bariland(빗물에의존하는 농지)에서는 주로 옥수수, 머스타드 등의 채소류를키우고 있음
  - 겨울에 관개 용수가 충분하면 감자농사를 지을 수 있음

- (농산물 생산 시기) 9-11월에는감자, 콜리플라워를 심고, 겨울에는 여주, 수세미, 호박 등을 심고 있으며,여주와같은 줄기식물을 재배한 후 벼농사를 시작함
  - 이 지역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이 없을 정도로 시즌 별 작물들을 이어서 농사 짓고 있고, 여주와 같은 줄기식물은 오래감

② 토지

- (토지 종류) 커뮤니티는 크게2개 종류의 토지로 이뤄졌으며, 첫 번째는 lowland(khet land, flat land), 두 번째는 Bari land (sloppycultivated land with clay, clay loam soil)로 두 종류의 토지 모두에서 농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임

- (평균 경작 면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평균 경작면적은 8 Ropani(약 0.4 ha) 였으며, 가장 적은 면적은 1 Ropani(약 0.05 Ha), 가장 큰 경작 면적은 26 Ropani(약1.3 Ha) 였음,

- (토지 소유 및 임대) 대부분 농민들이 소지한 토지에서 농사를짓고 있음
  -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100%가 토지를 소유하고있다고 응답함

③ 토양

- (토양의 종류) 대부분 점질양토(Clay loam)와 사양토, 점토질로 이뤄져 있음
  - 설문조사에서 경작하고 있는 토양에 대한 질문에 71%의응답자가 점질양토에서 경작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13%가 사양토,13% 점토질, 4%(2명)이 양토(Loam)이라고 응답함
- (토양의 상태)정부에서 이 지역의 유기농업 전환을 위해 Soil test를 진행했는데, 토양이 농약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좋지 않은 상태라는 결과를 얻음
  - 유기농 전환을 위해 해당 토지를 5년간 경작하지않아야 한다고 했으나 농사를 중단할 수 없어 전환하지 못하고 그 방식 그대로 유지하면 농사를 짓고 있음
  - 화학약품과 비료의 과다한 사용이 땅을 산성화시키고 있고,이를 개선하려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토지의 상태가 더 나빠질 것임 (농업 전문가)
  - 윤작을 하지 않고 같은 작물을 반복적으로 재배하고 있어 지력이 좋지 않아짐 (농업 전문가)

④ 종자

- (종자의 출처)과거에는 지역,가정에서 생산한 종자를 다음 농업 시즌에 사용했으나, 지금은 작물 수확량과 소득을 올리기위해 하이브리드 종자를 사용하고 있음
  - 설문조사 결과, 91%의 응답자가 하이브리드씨앗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답함
  - 농민들은 하이브리드 씨앗 중 품질이 좋지 않은 것도 있어 씨앗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음
    - '벼농사를 모두 망친 적도 있고, 고추라고 구입했던 씨앗이 다른 작물 씨앗이었던 경우도 있었음'(인터뷰, 커뮤니티 주민)
    - '하이브리드 씨앗도 잘 사야 하는데, 모르고 사게 되면 품질이 좋지 않을 것을 구입해 농사가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농업 전문가)
  - '전문가를 접하기 힘들어 씨앗 몇 개를 미리테스트해보고 열매가 잘 나오면 해당 씨앗을 선택해서 심는 방식으로 종자를 선택하고 있음'(인터뷰,커뮤니티 주민)

⑤ 수자원

- (전체적인 수자원 현황)마을에서는 식수와 농업 관개를 위해 약 4개의 deep boring을 설치했으나, 현재는 1개만 작동하고 있고 그마저도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음
  - '마을 주민들이 돈을 모아 deep boring 4개 설치를 시도했는데, 성공한 것은 1개였음. 그러나 그마저도 집 근처로 물을 끌어올 파이프를 구입할돈이 부족해서 중단된 상태임.'(FGI, 커뮤니티 주민)
  - '마을 주변에 흐르는 Indrawati강을 이용한 운하 관개시설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나 이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지않은 상태임'(FGI, 커뮤니티 주민)
    - '이 프로젝트가 이뤄지는데 노력을 들인다면,마을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농업 전문가)
  - 특히, 위쪽에 위치한 밭에는 물에 대한 접근성이떨어짐

- (농업 용수 상황 및 관개시설)마을 주민들마다 물에 대한 접근성정도가 다르며, 강물을 사용할 수 있는 농민들과 빗물에 의존하는 농민들이 있으며, 관개 용수의 접근성과 사용에 따란 작물을 달리 심고 있음
  - 지역을 관통해서 흘러가는 Jhikhu Khola 강은마을 관개에서 주요 자원이나 강의 물을 끌어오기 위한 관개시설은 없는 상태임
  -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30%의 농민들이 관개시설이 있다고 응답했고, 70%의 농민들이 빗물에의존해 농사를 짓고 있다고 답함
    - 시즌 별 농업 용수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질문에 80%의응답자가 계절에 따라 사용 가능 정도가 다르다고 했으며, 20%의 응답자가 연중 활용이 가능하다고 답함
    - 관개시설이 충분하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14%, 나머지 86%는 불충분하다고 응답함
  - 농민들은 겨울과 봄 시즌 동안 생산 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물을 구하기 쉽지 않아 강물의이용가능성(강물의 양)에 크게 의지하고 있음
    - 올해의 경우는 겨울 시즌 동안 강물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물의 양이 되어 건조한 시즌에도작물에 물을 댈 수 있었음
  - 강 옆의 토지를 가진 대부분의 농민들은 강물을 이용해 관개를 하며, 이를 위해 강둑에 우물이나 연못을 설치하고 있음
    - 강물을 저장하기 위해 약 100개 이상의 연못이설치되었으며,농민들은 강에서 연못(약 9 Feet)으로 연못에서 경작지로 물을 끌어오기 위해 모터 펌프를 사용하고 있음

• 땅을 팔 때, 아무나 접근할 수 없고, 강 앞에 땅이 있는 사람들만 이용이 가능함
· 강 근처 토지 소유자는 물을 쓰고 남으면 주변에 나눠주기도 함
– 몇몇 농민들은 정부와 Kavre 지역 DADO에서 경작지에 우물을 설치해주는 지하수 관개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기도 함
• 이 지원을 받으려면, 농민들은 최소한 0.5헥타르 (9.98 Ropani)의 땅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토지 소유에 대한 인증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해당기관에 제출해야 함
– 농민들이 농업의 가장 큰 문제는 물 문제라고 이야기함
• '가까운 곳에 강이 있지만 우기에만 물을 사용할수 있고 겨울에는 보통 물이 마른 상태라 이용할 수 없음'
• '지금은 빗물에 의존해서 농사를 짓고 있으며, 물이 있는 곳은 작물들이 자라고 물이 없는 곳은 작물들이 자라지 못하고 있음'(FGI, 커뮤니티 주민)

● (식수 상황) 설문조사에서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성에 문제가없다는 응답은 52%, 접근이 어렵다는 응답은 48%로 약절반의 주민들이 식수 상황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함
– 설문조사에서 식수를 공용 우물을 통해 얻는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58%, 35명), 개인 우물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33%(20명), 기타가 5%(3명), 수돗물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3%(2명)이었음

⑥ 기후 및 기온

● (지역의 기온) Panchkhal의평균 기온은 24.9℃이나, 여름에는 38℃까지 올라감

⑦ 지역 내부 조합 및 조직

● (지역 조직 현황) 마을에 농업과 관련된 협동조합은 형성되지않음

● (농업 관련 조합) 농민들은 조합을 형성할 경우DADO와 같은 정부기관으로부터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조합을 조직하지 않고 독립적으로농사를 짓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지원물품이나 교육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보이며, 그 결과 농민 그룹이 활성화되지 못한 채로 남았고, DADO의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음

– 농민 그룹에 속했던 일부 농민들은 DADO에서지원받은 종자로 농사를 지었으나 더 적은 량을 생산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가 제공한 교육이 효과적이지않았다는 답변을 함
• '정부에서 종자를 가져왔는데 농사가 잘 된 적이한번도 없었다. 옥수수 씨앗 50kg을 가져왔는데 열매가제대로 맺질 않았다. 이럴 경우 농부에게 타격이 몹시 크다. 농민은그저 연구용이다.'(인터뷰, 커뮤니티 주민)
• '정부에서 제공하는 교육에 참석하고 씨앗을 받았는데열매가 맺질 않았다.'(인터뷰, 커뮤니티 주민)
• '정부가 제공하는 교육을 들으러 가면, 간식비 200루피 정도를 받고,1000루피를 농사일 해주시는 분의 하루 임금으로 줘야 한다. 손해가 더 크다보니 갈 수가없는 상황이다.'(인터뷰, 커뮤니티 주민)

⑧ 비료, 농약, 제초제 사용

● (비료, 농약, 제초제 사용현황)해충과 병을 관리하고 높은 수확량을 확보하기 위해 농약 및 화학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농약 과다 사용으로 사람들의 건강뿐 아니라 토지, 환경에 부정적인영향을 주고 있음
– 설문조사 결과, 98%의 응답자가 2016년 비료나 살충제를 구입했다고 답함
– 구입한 살충제는 Urea와 DAP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었음
– 마을의 일부 주민들은 농약으로 인해 건강문제를 겪기도 했음
– Panchkhal 지역의 농약 및 화학 약품사용으로 인한 농민들의 건강 문제 등이 뉴스나 연구 자료로 나오기도 함
– 네팔 정부는 카트만두 도매시장으로 들어오는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여물 분석 검사를 실시하고있으며, 이 마을에서 기르는 채소에서 높은 수치의 농약 성분이 검출되어 판매한 농산물을 반환 받은 경험들도있고 네팔 사람들이 이 지역의 채소에 대해 나쁜 인식을 갖게 됨
– 일부 농민은 화학 비료와 함께 소 퇴비를 사용하고 있음
• '소 퇴비를 화학 비료와 함께 사용하고 있다. 비가 오지 않을 때, 화학 비료만 사용하면 땅이 마르지만, 소 퇴비를 함께 사용하면 비가 오지 않아도 땅이 빨리 마르지 않는다.'(FGI, 커뮤니티 주민)
• 1 Ropani 당 소 퇴비 20-25바구니를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화학비료를 함께 사용하고있으며, 감자는 닭의 퇴비를 사용하고 있음'(FGI, 커뮤니티 주민)

● (화학 약품 사용에 대한 인식) 대부분의 농민들이 농약 및 화학 약품 사용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사용 시 주의사항들을 지키지 않고 있음

- 일부 농민들은 화학 약품 사용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어 약품 사용 비율을 줄이기 위해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양을 사용 중임
  - '예전에는 화학 비료나 농약을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은 줄이고 있고, 강한 약이 아니라 보통 강도의 약을 사용하고 있다. 강한 화학비료사용이 해롭다면 정부에서 금지시켜야 하고 정부에서 관리해야 한다. 네팔로 들어오는 농산물들도 농약을많이 사용한 것이지만 네팔 정부에서 커미션을 받고 들어온 것이 아닌가.'(인터뷰,커뮤니티 주민)
  - '작물이 병에 걸리면 전에는 독한 약을 쓰곤했는데, 지금은 독한 약의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
- 농약 살포 시,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들(장갑과 안경, 마스크, 긴소매 옷, 긴 부츠 착용 및 약품 사용 후 일정 기간 농산물 수확 금지 등)이 있으나 잘 알지 못했으며, 이를 지키지 않고 있음
  - '약을 치고 바로 농산물을 수확하고 있다. 수세미의 경우, 늦게 따면 열매가 더 커지고 수확시기를 놓치게 되므로어쩔 수 없이 화학 약품을 사용하고 바로 따로 있다.'(인터뷰,커뮤니티 주민)
  - '우리는 농약의 유해성이나 지켜야 할 수칙에대한 교육을 들은 적이 없다.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들을 들고 싶다.'(FGI, 커뮤니티 주민)

⑨ 병충해

● (병충해 문제)마을의 심각한 농업 문제로 병충해 문제가 있으며, 새로운 병과 벌레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고 작물을 치료하는 것이 쉽지 않음

- 주민들이 해당 마을의 농업 문제 중 심각한 것으로 농업 용수 부족 외에 병충해 피해를 이야기했으며, 옥수수, 토마토 등의 작물에 다양한 질병이 발생하고 있음
  - '올해는 토마토가 꽃 필 때 병들어서 농사를망쳤다. 약이 비싸 치료를 할 수 없어서 모두 뽑고 수세미를 심었다.'
  - '토마토는 벌레가 먹어 구멍이 나고 까맣게 돼판매를 할 수 없는 상황임'
  - '키우는 작물들이 병에도 많이 걸리고 벌레도많다. 이전보다 점점 더 새로운 병과 벌레들이 발생하고 있다.'

⑩ 농사 방법 및 생산량, 농업 수익

● (농사 방법)트랙터를 사용하는 가구들이 있었고, 나머지는 사람 손으로 농사를 짓고 있으며, 일부 농민들은 비닐하우스농업을 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새로운 농사 방법이나 기계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지 못함

- 트랙터를 이용해 땅을 파고, 밭고랑을 만들어작물을 재배하고 있음
- 농민들은 멀칭(짚 등으로 작물이 자라는 밭을덮어 잡초 발생과 수분 증발을 막는 작업)과 같은 농법이나 넷 하우스(작물을해치는 벌레가 들어갈 수 없도록 디자인된 그물형 하우스), 네팔에 새로 도입된 농업 기계 등에 대한정보는들어본 적이 없음
- 일부 농민들이 비닐하우스에서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음
- 일부 농민들이 밭에 심은 토마토는 해당 지역의 환경에 잘 맞지 않고 산맥이나 비닐하우스에서재배해야 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작물에 대한 정보가 없어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농산물 생산량)이 지역은 대부분 채소 농사로 소득을 올리고있으며, 농업이 주 수입원으로 매일 5-8대의 차로 수확물을카트만두 도매시장에 판매하고 있으나, 매해 생산량의 격차가 큰 편임

- 이 지역의 감자와 같은 채소들의 평균 수확량은 1hectare 당(1 ha=19.65 Ropani), 약35 metric ton (35,000kg)이며, 옥수수는 1 hectare 당 5 metric ton(5000kg)임 (농업 전문가)

  (채소 1 Ropani → 약 1,790kg, 옥수수 1 Ropani → 약 255kg)
  - '감자는 1 Ropani 당,1000-1500kg 정도 생산되고, 농사가 제일 잘될 경우, 2,000kg까지 생산된 경우도 있었음'(인터뷰,커뮤니티 주민)
  - '콜리플라워는 농사가 잘 될 경우, 1 Ropani 당 약 3,000kg 생산되고 있지만, 잘 안될 경우, 300kg 생산되기도 함'(인터뷰,커뮤니티 주민)
  - '옥수수는 1 Ropani 당, 5muri (360kg, 1 muri=72 kg)정도 생산되고 잘 될 경우, 400kg까지생산되기도 함'
  - '여주는 1 Ropani 당, 약 200-300 kg 생산 가능함'

● (농업 수익)주민들의 주요 소득원이 농업이며, 대부분 재배한작물 중 채소를 판매하여 소득을 얻고 있음

- '여주는 1Ropani에 약 200-300 kg을 생산하고 1kg당 30루피를 받고 있음'

– '감자는 1Ropani 당 약 1000-1500kg을 생산하고,1kg당 14-30루피를 받고 있음'
– (농업 투입 비용) 씨앗, 농약, 관개시설, 일일임금 지급 등에 사용하고 있음
• 농업 노동 임금은 1일 여성 1,000루피, 남성 1,400루피임 (보통 2교대로 일하며, 오전은 6:00a.m. – 11:45a.m., 오후는 12p.m.-6p.m.일을하고, 1교대로 일할 경우, 여성은 500루피를 받으며, 남성은 700루피를받음)
• 디젤 펌프를 구입시에는 15,000-20,000루피정도 들어가고, 개인 땅에서 개인이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음

⑪ 저장시설

● (저장시설 현황)채소를 저장하는 제대로 된 시설들이 없는 상태이므로농산물에 대해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없음
– 대부분의 농민들은 제철채소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해당시즌에 잉여 농산물이 발생하지만 보관할 장소가 없어 좋은 가격에 판매할 가능성이 낮음
– 저온 보관시설이 1-2개 정도 있으나, 씨감자를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음
• 1자루 6개월 보관 시, 350루피의사용비를 내야 함
– 설문조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저장시설에 대한 질문(복수응답가능)에 대해 대부분의 농민들이 쥬트, 비닐 자루나 Bhakari(집안에서 보관하는 큰 바구니)에 보관한다고 응답함
• 저장 시 손실 비율은 쌀, 밀, 옥수수, 기장, 콩류, 채소류, 기타모두 10% 미만으로 평균 1% – 1.9% 였음
• 농작물 손실 원인(복수응답 가능)에 대해서는 곤충으로 인한 피해가 48%으로 가장 많았으며, 병충해로 인한 손실이 25%, 썩거나 부패한 경우가 23%였으며, 설치류에 의한 피해가5%라고 응답함

⑫ 농업 생산물 판매

● (교통 및 도로 접근성)해당 지역 근처에 카트만두로 향하는 도로가인접해있으며, 차로 약 1시간 정도 걸려 교통 및 도로 접근성은매우 높은 편임
– 설문조사에서 교통 및 도로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문항에 응답자 100%가 접근이 용이하다고 답함

● (판매 방식 및 시장) 대부분의 농민들은 카트만두에 채소를 공급하는지역 상인들에게 자신의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 농산물들은 카트만두의 도매시장(Kalimati market)에 판매됨
– 설문조사에서 2016년 수확한 농산품을 판매했다는농민의 비율은 86%였으며, 판매를 하지 못했다는 농민은 14%임
• 판매 작물의 주요 구입고객은 중간상인이 61%, 소매업자가 28%, 마을주민 11%로 나옴
• 조사에서, 많은 응답자가 농산물 가격 결정권을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중간상인을 이야기했으며, 소매업자는8%, 마을주민 4% 순임
• 판매를 하지 못했을 경우, 그 이유로 팔만큼의잉여 생산물이 없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74%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팔기를 원했지만 가격이 낮기 때문이었다는 응답이 9% 였음
– 농민들은 상인들과의 협상을 기반으로 가격을 정하고 있으며,농민 개인 토지나 집에서 상인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음
– 마을에 Collection center가 1개 있는데, 공동체 소유가 아니라local buyer가 지역 농산물을 모아두었다가 판매하기 위해 만든 것임
– 조합을 결성하여 판매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중개인들이 있기 때문이며, 농업 수확물이 많이 나오거나 적게 나와도 모두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임
• '조합을 결성해 농산물을 모아서 판매하는 방식은생각해 본 적이 없다. 카트만두에 가져가면 가격이 내려가고 농부들이 가져온 것은 시장에서 사지 않는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농업 수확물이 적든 많든 꼭 판매하는 것이 중요한데 다른 중개인들도 들어오고있어서 그들에게 판매해도 된다. 이 지역의 농민들이 중개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FGI, 커뮤니티 주민)

● (판매에서의 문제) 판매가안되거나 시장이 없는 것은 아니나 농산물을 낮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음

⑬ 가공

● (농산물 가공 현황) 생산된 채소나 잉여 농산물에 대한 가공작업은 현재 없으며, 농민들은 채소 생산량을 예측할 수 없어 가공작업을 고려해본 적이 없음
– '채소를 재배할 때, 항상 불안감이 있다. 어떤 때에는 재배한 채소가 모두 죽기도

하고, 항상 채소 농업이 잘 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채소 농사가 언제잘 될지 모르니 가공과정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없다.'(FGI, 커뮤니티 주민)

⑭ 정부 지원 및 농업 교육경험

● (정부 지원) 우물 설치 지원과 비닐 저수지 지원 등 정부의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나, 이 밖의 지원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잘 알지 못함

- 토지 면적 10 Ropani 당 우물 1개를 설치할 수 있는 돈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는 20개의 우물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14개의 우물을 설치한 상황임 (정부의 지원 조건이 원래 20 Ropani당 우물 1개 지원이었으나, 토지 20Ropani를 소유한 농부가 많지 않아 10 Ropani로 조건을 변경한 것임(농업 전문가))
  - '우물마다 물의 양이 다르며,정부는 우물에 대해 지원하고 있지만, 펌프에 대한 지원은 없음'
  - '우물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시설은 개인이 구입해야하며, 현재는 전기로 물을 끌어올리고 있음'
- 정부의 지원내용에 대해 농민들이 잘 모르고 있음
  - 밭에서 노동하는 분의 하루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비싸므로 소유한 토지면적에 따라 정부가경운기, 트렉터 등 농기계에 대해 60-70%를 지원하고있으며, 이러한 지원을 신청할 경우, 몇 가구 묶어서 함께사용할 수도 있음 (농업 전문가)
  - '정부의 지원을 받은 적이 없고, 농업과 관련된 기계를 구입할 때 50% 정도를 할인 받아 구입할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인지 모르겠다.'(FGI,커뮤니티 주민)

● (농업 교육 경험)교육 경험이 없는 농민들이 많았으며, 일부 교육에 참여했던 농민들은 정부가 제공한 농업 교육에 대한 실망감을 나타냄

- 설문조사에서 최근 3년간 응답자 포함 가족원의농업교육 참여 여부에 대한 질문에 88%의 응답자가 교육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응답함
- '정부가 제공한 농업 교육은 소용이 없었다. 어떻게 하면 농사를 망치는 일 없이 생산을 잘 할 수 있는지 알면 좋겠다.'(FGI, 커뮤니티 주민)
- '정부 쪽에서는 이 지역에서 채소가 많이 생산되는것을 알고 있지만, 농업 교육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한번도 참여해 본 경험이 없다.'(FGI, 커뮤니티 주민)

● (농업 교육에 대한 관심) 전반적으로 채소 재배 관련과 농산물수확 후 처리 기술 교육에 관심이 높았고, 일부 농민들은 유기농업이나 농약을 덜 쓰고 농사를 짓는 법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싶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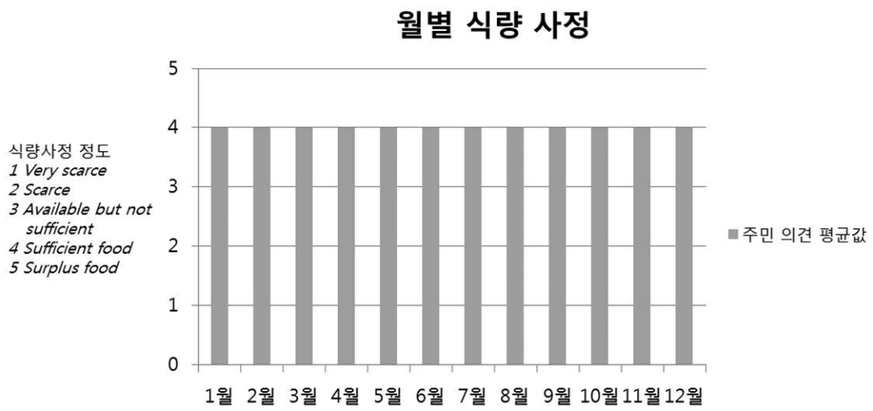
-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농산물 수확의 가치증대를위한 수확 후 처리 기술 교육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친환경 농법이 시장가격을 높일 수 있다고생각하지만 생산성을 높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음
  - 농산물 수확 후 처리 기술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0%이었음
  - 친환경 농법이 시장가격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78%이었으나, 친환경 농법이 생산성을 증진시킨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비율은 48%였으며, 친환경 농법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농민은 86%이었음
  - 생산성 증진을 위한 친환경 농법에 관심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68%였으며, 32%의 농부가 관심이 없다고 응답했고, 친환경 농법이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농부는 48%(29명)이었고 나머지는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없다고 응답함
- '농약을 사용하는 것보다 유기농업을 하고 싶은데그 방법을 잘 모른다. 아니면 농약을 조금 사용하면서 농사를 짓는 방법을 알고 싶다. 정부 담당자에게 교육을 받고 싶다고 했는데, 교육 지원이 불가능하다는답변을 받은 적이 있다.'(FGI, 커뮤니티 주민)

● (농업 관련 정보) 농민들은마을 안에 종자, 화학 비료, 농약, 기타 농업 기기들을 판매하는 Agro-vet이 있어 농업에 투입되어야할 요소들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편이었으며, 주로 agro-vet과주변 이웃 농민들의 경험에서 정보를 얻고 이에 대한 관찰 및 평가를 거쳐 새로운 작물을 도입하고 있음

⑮ 식량 안보

● 시기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이 식량과 관련된 문제를 겪고 있지 않음

- 설문조사에서 월별 식량 사정을 매우 부족함(1)부터소비하고 남는 잉여 생산물이 있다는 응답(5)까지 표현할 수 있도록 했을 때, 주민의견 평균은 몬순과 건기에 상관 없이 모두 4로 나타났으며 연중식량에 대한 접근성에 문제가 없어 보임



⑯ 기타

- (가축 사육) 해당커뮤니티의 농민들 대부분이 소, 버팔로, 염소와 같은 가축들과가 금류를 키우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지에 사용할 거름을 얻고 있음

3) 지역 사진

01

02

01 마을 전경 1 (옥수수 밭)

02 마을 전경 2 (옥수수 밭)

03

04

05

06

07

08

09

10

03 옥수수 밭
04 토마토 밭 (해충 피해)
05 보리 경작지
06 토마토를 수확 중인 주민들

07 여주 재배
08 설문 조사원들과의 회의
09 농민들과의 인터뷰 1
10 농민들과의 인터뷰 2

04 변화의 영역

(1) 주목 분야

● 네팔 지역의 농업 생산성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

– 관개시스템 지원 (태양광 관개시설 설치 및 관리 교육 프로그램)

• 지역 당 일부 태양광 관개시설을 설치하여 시범사용기간을 거친 후 보급할 예정임

• 현지 태양광 업체를 통해 태양광 관개시설을 보급할 예정이며, 태양광 관개시설 자금 대출을 이용하여 추후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임

– 지속가능한 농업 교육 지원 및 유통·판매 지원 프로그램

• 지역의 상황에 맞는 농업 교육을 지원하며, 물과 토양의 지속가능성에 대한정보와 관리 방법을 포함한 교육을 제공할 예정임

• 생산된 농작물의 판매 과정에 대한 정보 및 교육 제공

(2) 현지의 수요 및 상황

1) Kathmandu District, DakshinkaliMunicipality의해당 커뮤니티

● (관개 시스템 지원의 필요성) 해당 커뮤니티는 물 부족으로인해 연중 4개월 정도를 제외한 기간에는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태양광 관개시설 설치 관련) 해당 커뮤니티에는 적당한수원을 찾을 수 없고 약 4km 떨어진 지역에 있는 수원을 사용하여 물을 저장하고 해당 커뮤니티로 연결하는것이 가능하다고 기술 담당자가 의견을 줌

• 4km 떨어진 지역의 수원은 겨울에도 물이 완전히 마르지 않는다고 함

• 대상 가구는 약 170가구로 하루60,000리터의 물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예상됨 (태양광 전문가)

• 물을 110m 위로 끌어올려 설치 예정인 예비 물탱크에 저장하고, 파이프를 통해 4km 떨어진 해당 마을로 물을 운반할 예정임

• 수원은 해발 1,480m, 예비 물탱크가 위치할 지역은 해발 1,580m에 위치할 예정임

• 파이프는 지역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기도 함

• 다른 마을에서도 해당 개천의 물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역 정부 측과 함께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 (지속가능한 농업 교육 및 유통 • 판매 지원 필요성) 마을 주민들이 대부분 농업관련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어 윤작의 필요성이나 병충해와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들을 알지 못해 많은 생산물을 농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개시설에대한 지원과 함께 농업 교육도 함께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지역은 자두, 럽씨, 배 등 과일이 많이 생산되는 곳으로, 주민들도 수확 후 가공기술교육 등에 관심이 높아 기본적인 농업 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행한 뒤 수확 후 처리 기술 등의 교육을 통한 소득 증대를 고려해 볼 수 있음

● (타 기관의 활동 내역) Pourakhi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 13명을 대상으로 농업 교육을 진행하는 것 이외 현재 다른 기관의 활동은 없음

2) Gorkha District, Thalajungn VDC의 해당 커뮤니티

● (관개 시스템 지원의 필요성) 해당 커뮤니티에 수자원이부족하지는 않았으나 이를 농지에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으로 많은 농민들이 농업에서의 문제점으로 관개시설의 부재를 이야기하여이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함

– (태양광 관개시설 설치 관련) 농민들은 대출을 받아 상환하는방식의 솔라펌프 설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호수 연결이나 공동의 물 보관 저장소 등 작은 규모의 관개시설을 대안으로 이야기함

• 'Raju Gurung의 농장은 빗물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관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의 다른 곳들도 호수연결 등을 통해 농업 용수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도로 위 물 공급이 어려운 15가구에게는 작은 규모의 솔라펌프 설치를 추천함'(태양광 업체 Ecoprice 기술전문가)

•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했을 때 솔라펌프 설치보다 빗물을 이용한 관개 시스템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물 문제가 심각한 15가구에 대한 조사와 방안 연구가 필요함

● (지속가능한 농업 교육 및 유통·판매 지원 필요성) 해당 지역의 농민들은 농업교육을 받

아본 적이 없으며, 생산량이 낮아 제대로 판매를 해 본 경험이 없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교육과 조합의 활동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부터 시작하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농업 교육 및 정보) 많은 농민들이농업 생산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재배 및 관리 교육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음
- (유통·판매) 농산물 생산량이 적어 판매를하고 싶어도 외부 농산물 구입 업자가 들어오지 않는 문제가 있으며, 이를 위해 농산물 생산량을 높이는작업과 조합 간 판매 작물 선정 등 협력을 통해 외부와 연결하는 방법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기타) Soil test를 비롯한 농업 정보에 대한수요(커뮤니티 주민)/작은 기업 형태의 지원 필요 (Gorkha DADO senior officer)

- Soil test를 통해 토양의 상태를 파악하고 토양에 맞는 잠재성이 높은 작물을 심고자 함
- 많은 NGO들이 들어와 채소 씨앗 제공과 농업 교육 지원 등의 사업을 많이하고 있으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상품성이 좋은 작물로 가공과정을 거쳐 네팔 전역을 대상으로 판매할수 있는 작은 기업 형태로의 지원이 필요함
- 농산물의 가장 큰 문제는 시장 가격을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가격이 높을때는 해당 작물을 많이 심으나 수확량이 많아져 판매할 시기에는 판매 가격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3) Kavre District, Panauti 지역

● (관개 시스템 지원의 필요성) 해당 커뮤니티는 몬순과 몬순후 2개월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물 부족으로 농업 생산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 관개 시스템지원이 필요해 보이나 땅을 파서 태양광 펌프를 설치하는 방식이 아닌 대안적인 방법을 고려해야 함

- (태양광 관개시설 설치 관련) 마을 근처에 있는 2개의 수원은 모두 사용이 불가능하고 강 근처의 땅을 파서 지하수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태양광 기술자의 의견이있었으나 한국 농업 전문가는 지하수를 이용한 태양광 펌프가 아닌 다른 대안적인 방법을 제안함
  - 마을 뒤편의 개천은 다른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강은 오염이 심해사용할 수 없음
  -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관개시설을 설치하여 지원해야할 토지 면적이 1,300 Ropani로 추정됨 (태양광 전문가)
  - 대상 가구는 약 160가구(약 700명)임 (태양광 전문가)
  - 하루 1인당 200리터 지원 예상됨
  - Panauti는 패널만 700,000루피가 필요할것으로 예상됨 (태양광 전문가)
  - 네팔의 토양은 비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지하수에도 비소가 많을 확률이 높아 지하수를 통한 관개를 추천하지 않음 (한국 농업 전문가)

● (지속가능한 농업 교육 및 유통 • 판매 지원 필요성) 해당 지역의 농민 중 일부는정부가 제공한 농업교육 및 READ Nepal이 건립한 커뮤니티 도서관의 농업 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으나여전히 농업 생산성이 낮았으며, 이로 인해 1년 간 농사를지어도 4-5개월의 가족 소비 분량의 식량만을 생산하고 있는 상태로,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체 농민을 대상으로 한 농업 교육과 실제 적용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농업 교육 및 정보) 일부 주민들이 정부와 도서관의농업 관련 교육을 받았으나 그 비율이 높지 않고, 농업과 관련된 정보도 이웃 농민과 agro-vet 등을 통해 얻고 있어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상태임
  - 커뮤니티 리더들은 유기농업과 관련된 관심이 높았으나 이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음
  - 주민 일부가 정부와 도서관이 제공한 농업 교육을 받았으나 농업 용수 부족으로 인해 지원 받은 것들과 배운 내용을 실제농사에 제대로 적용하고 있지 못함
  - 정부가 시행한 soil test에 대한 결과(토양의 문제)를 해당 주민들은 잘 알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보아 마을과관련된 농업 정보도 마을의 농민들과는 공유가 잘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유통·판매) 농산물 생산량이 적어 판매를거의 하지 않고 못하고 있어, 농업 생산량 증가와 조합 활성화를 통해 조합 차원의 판매를 장기적으로고려해야 함

● (타 기관의 활동 내역) READ Nepal의Panauti 커뮤니티 도서관을 통해 농민 조합 조직 및 농업 관련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나, 해당 커뮤니티에서 참여하는 농민은 일부임

4) Kavre District, Panchkhal 지역

- (관개 시스템 지원의 필요성)마을 근처에 강이 흐르고있지만, 강으로부터 관개를 위해 설치된 공급시설이 부족한 상태로, 강근처의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민들은 디젤펌프를 이용하고 있기도 하지만 빗물에 의지해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도 있어 관개 시스템에 대한 지원이필요해 보임
  - 겨울과 봄 시즌 농사는 강물의 이용가능성에 크게 의지하고 있음
  - 일부 농민들은 Kavre DADO에서 경작지에 우물을 설치해주는 지하수 관개프로젝트를 지원받기도 했으나,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0.5Hactare의 땅을 소유해야 하며, 필요에 비해 지원의 양은 적음
  - 마을에서 식수와 관개 용수를 위해 4개의deep boring을 설치했으나 1개의 boring에서만물이 나오고 있으나 이마저도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음
  - 농민과의 FGI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물을 끌어올리는 펌프와 농사에 사용할수 있는 기계를 사용하고 있음
  - (태양광 관개시설 설치 관련) 현지 태양광 업체인 Ecoprise는 이 지역에서 강에서 우물로 물을 끌어오기 위한 솔라 펌프를 시험 중에 있으며, 몇몇 농민들은 태양광 펌프설치 과정 중에 있으나 여전히 많은 농민들이 솔라펌프 기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않아 기기에 대한 오랜 test와 설명 및 인식제고가 있어야 수요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12m를 파고 35m를 파도 물이 나오지않았다'(FGI, 커뮤니티 주민)
    - '많은 물을 끌어올리는 기계는 필요하지 않고 물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작은기계가 필요하다. 물이 없으면 꺼지고, 물이 많아졌을 때켤 수 있는 방식의 기계가 필요하다.'(인터뷰, 커뮤니티 주민)
    - '지금 솔라펌프는 한계가 많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 물이 필요할 때 해가 안나면 펌프를 가지고 있어도 의미가 없다.'(FGI, 커뮤니티 주민)
    - '땅은 물을 부으면 바로 흡수하는데 그런 엄청난 양의 물을 탱크에 어떻게 보관할수 있다는 건지 이해가 안된다. 솔라펌프는 채소 재배에는 적용 가능하겠지만, 옥수수나 벼에는 적용이 불가능해 보인다.'(FGI, 커뮤니티 주민)

- (지속가능한 농업 교육 및 유통·판매 지원 필요성) 현재 local buyer를 통해 카트만두 도매시장으로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나, 대부분의농부들이 기술적인 훈련을 받은 경험이 없어 농약 사용과 같이 즉각적인 결과를 주지만 지속가능하지 않고 안전한 식량 생산에 도움이 않는 방식들을사용하여 농사를 짓고 있어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상황임 (농업 전문가)
  - 농약의 해로운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의 병충해 관리 기술에 대한 역량(ex. Integrated Pest Management) 강화가 필요함(농업 전문가)
  - 농부들은 농약 사용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병충해관리에 대한 기술적인 지식의 부족으로 농약 사용을 줄이거나 안전한 방식을 도입하지 않고 있음
  - 천연 유기농 비료에 대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수자원 관리에서 커뮤니티의 참여 부족으로 물 사용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이에 대한 관리와 조직이 필요함
  - 커뮤니티 농민들은 채소 재배에 대한 교육과 농약을 적게 사용할 수 있는 농법에 대해 관심을 보임
  - (유통·판매) Local buyer를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농민들은 조합 조직을 통한 유통·판매에는 관심이 없음

- (기타)Value Addition과 관련된 기술 이전과 이에맞는 local enterprise 설립 및 농업 기계 및 장비 도입 (농업 전문가)
  - 채소를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농부들은 잉여 산물이 발생하는 시기에 낮은 가격에 농산물을 판매해야 하는 문제를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마을에서는 병충해가 주요 문제이므로 Net house등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함

(3) 사업대상 분야(Target Area)의지표 및 기초선

- 조사를 진행한 4개의 지역에서 모두 설문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설문조사를 진행한 2개 지역의 표본 가구 수가 적어 지표 및 기초선으로사용하기에 무리가 있음
  - Municipality에 대한 자료는 있으나 Municipality의자료와 해당 커뮤니티의 격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1인당 연평균 농업 소득, 경작하고 있는 농지 면적, 작물별 생산성, 농업 투입 비용 등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진행해 활용할 필요가 있음

지역	Kathmandu District	Gorkha District	Kavre Distrcit
Per Capita Income (USD)	2,764	1,039	1,399

◎ NationalSample Census of Agriculture Nepal 2011/2012, GoN Central Bureau of Statistics,Dec 2013

(4) 단체의 특성과의 연계

- 아름다운가게는 농촌지역의 빈곤을 해결하고, 식량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의 농업과 소기업을 지원하는 '나마스떼 갠지스 사업'을진행해옴
  - 농업 지원과 주민들 대상농업 역량 강화, 협동조합 지원, 농업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지역 기반의 소규모 기업 건립 및 운영지원, 여성농민 권익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하였음

05 자료 출처

(1) 네팔 국가 현황

- Nepal National Planning Commission,통계청 등의 자료 이용
- 기타 세계은행, FAO 등국제기구의 자료 이용

(2) 네팔 농업 관련 정책 및 정보

- Ministry of AgriculturalDevelopment
- KREI의 세계농업, '네팔의 농업현황과 정책'
- NARC의 농업 전문가 제공 정보

향후 계획

1. 신규사업 기획 방향성

- 커뮤니티 선정 후 관개시설과 친환경 농업 교육을 진행하여 지역에서 소비가능한 곡물과 채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지원
  - 관개시설의 경우, 솔라펌프 설치와 관련해서는 수원의 위치와 사용 현황, 수자원의 농업 용수 사용 적격 여부, 물의 소비를 줄일 수 있는방식과의 결합 등을 고려하여 접근할 예정임
  - Gorkha에 위치한 조사 지역의 경우, 솔라펌프설치가 불필요해 보이며, 물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15가구에대한 다른 대안을 고민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솔라펌프 설치가 불가한 경우, 빗물과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관개시설 설치를고려할 예정임
  - 농업 교육과 관련해서는 먼저 친환경농법 교육을 통해 기존의 작물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에 투입되는 비용을 낮출 수있도록 함
  - 생산성을 높인 이후, 각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과조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여 해당 작물을 조합을 통해 판매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함

2. 신규사업 기획 추후 계획

- 사업 대상 지역 선정 후, 사업 계획의 구체화를 위한 정보와 기초선을 위한추가 조

사를 진행할 예정임

- 지역 농업 생산량 및 네팔 평균, 국제 평균 조사를 통해 잠재적인 생산 가능정도를 파악하고 목표를 설정

PART 23

[농림수산] 텐포원

시행일자	2017년 4월 19일(수) ~ 6월 18일(일) (총 60일)
지역	르완다 키갈리/냐미라마 외

2017년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지역조사(사업형성조사) 결과보고서

기본정보				
단체명	텐포원		**작성자**	한 상 훈
단체현황	현지 지부		☐ 있음	☑ 없음
	NGO 등록		☐ 있음	☑ 없음
	KOICA 협력사업 수행 경험 유무		☐ 있음	☑ 없음
사업 분야	농림축산		**코드번호**	311**
조사 목적	본 기관은 르완다에서 자연양돈보급 및 돼지은행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자연양돈의 적합성, 돼지판로/시장조사, 기존 양돈행태조사 등 다양한 자료의 수집이 이번 조사의 목적입니다.			
대상 국가 및 지역	**국 가**	르완다	**지 역**	키갈리/냐미라마 외
	냐미라마는 수도 키갈리에서 동남쪽으로 60km 떨어져 있으며, 차량을 이용할 경우 1시간 30분 정도 걸리며, 르완다와 부룬디 국경에 있는 지역입니다.			
조사기간	**전체 조사 기간**	2017년 4월 19일(수) ~ 6월 18일(일) (총 60일)		
	현지 체류기간	1차: 4월 28일 ~ 5월 2일 (총 5일) 2차: 5월 30일 ~ 6월 6일 (총 8일)		

조사 목적

chapter 01

- 본 기관은 2015년부터 행정자치부의 비영리민간단체공익사업지원사업에 다년도 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부룬디에서 자연양돈보급 및 돼지은행사업(이하 자연양돈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사업에서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부룬디의 인근 국가인 르완다에서 자연양돈보급을 통한 주민소득증대사업을 계획 중에 있음.
- 그런데 부룬디의 사업내용을 그대로 르완다에 적용하기에는 기후, 시장성, 기존관행양돈방법, 사료원료 등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르완다의 다양한 사업환경에 대해 새롭게 조사할 필요가 있어 본 조사를 통하여 르완다 상황에 맞는 자연양돈방법을 찾아내고, 이와 관련된 자연양돈적합성조사, 판로조사, 사료원료조사, 기존양돈행태조사, 기후조사, 돈사재료조사, 질병조사, 육가공품생산가능성조사를 하는 것이 본 지역조사의 목적임.

조사 결과

chapter 02

지역 정보

- 국가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는 CIA WORLD FACTBOOK, 대한민국 외교부 홈페이지 및 국제기구의 홈페이지 자료를 활용하였음.
- 사업지역에 관한 정보는 문헌조사, 현지조사를 병행하려 하였으나, 해당지역의 정부 및 관련기관에서 해당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참고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현지방문직접조사 및 이해관계자 인터뷰 등을 토대로 인구, 성비, 소득, 직업분포, 필요 등을 확인하였음.

분야별 이슈 (사업분야)

- 자연양돈사업을 위해 필요한 조사는 1)사료관련조사, 2)기존양돈농가조사, 3)판로조사로 크게 나누어 짐.
- 사료관련조사: 현지에서 구입 가능한 사료의 종류와 가격 파악, 우기/건기에 따라 가격이 얼마나 변동이 되는지 조사, 사료의 질 분석, 사료운반비용조사 등
- 기존양돈농가조사: 어떤 형태로 양돈을 하고 있는지 조사, 농가의 규모파악, 농가 숫자 파악, 농가의 소득규모조사, 돈사건축재료 및 바닥처리방법 조사, 현지돼지종류파악, 돼지발육상태확인 등
- 판로조사: 비육돈가격조사, 이유자돈가격조사, 비육돈의 경우 암수의 가격차조사, 돼지수요층조사 등

- 기타조사: 도축관련법률조사, 돈사건축관련법률조사, 충분한 물공급이 가능한지 조사, 기후조사, 돈사보안관련조사, 현지인의 양돈지식여부 조사 등
- 대부분의 조사는 현지방문조사의 형태로 관계자 인터뷰와 직접관찰을 통해 진행되었음.

지역 내 타 기관(NGO, 정부, 국제기구)의 활동 현황

- 대상 마을의 지역정부를 통해 얻은 정보를 통해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타 기관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특별히 조사를 할 사항이 없었음.
- 그리고 르완다 내에 있는 한국 NGO의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대표를 만나 르완다 내에서 활동에 관한 애로사항과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었으며, 르완다가 올 해 8월초에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대선비용 마련을 위해 NGO들의 활동에 많은 제약 두고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는 정보와 8월까지는 르완다 정부의 업무가 많이 지체될 것이라는 정보를 얻었음.

이해관계자 정보

- 냐미나마 지역의 정부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마을의 필요와 본 단체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간극 또한 확인하였음.
- 그리고 마을 주민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소득, 생활수준, 필요 등에 대한 정보를 얻었으며, 이미 마을에서 양돈사업을 하고 있는 농가 몇 곳을 방문하여 양돈사업을 통한 소득창출에 관한 자문을 받았음.

01 일정별 조사 활동

기 간		활동 내역 약술
국내	5/15	현지조사팀 준비모임, 팀 내 역할 분담
	5/16-17	신진농장 1박 2일 견학(예산, 홍성) 및 양돈전반에 대해 자문 받음
	5/17	㈜이-글벳 방문: 사료배합비율 등에 대한 자문 받음 서현동물병원 문진성 수의사: 사양관리, 질병관리에 관해 자문 받음
	5/20	대구 온누리화학 남세현대표 면담: 미생물발효 방법 자문 받음
현지 1차	4/28	휴먼인러브 성혜신지부장 면담
	4/29	주르완다 한국대사 김응중 대사 면담
	4/30	월드비전 르완다지부 전지환과장 면담 2&5 이상훈 대표 면담
	5/1	현지조사원 Mr.Julius와 일정논의 및 관련사항 회의
	5/2	르완다 코이카 사무소 조형래소장 면담
현지 2차	5/31	라즈만나 정새샘 사장님 면담(코이카 민관협력 사회적기업)
	6/1	븀바(Vyumba) 지역 지역조사 및 관행양돈농장 방문조사
	6/2	주르완다 한국대사관 김응중 대사 면담 냐미라마(Nyamirama) 지역조사 및 지역정부 관계자 면담 한국 NGO 휴먼인러브 성혜신지부장 면담
	6/3	키미롱고(Kimirongko) 지역시장 시장조사 냐부고고(Nyabugogo) 정육점 시장조사 고릴라피드(사료공장) 견학 및 박상주사장 면담 고민수 수의사와 면담
	6/4	현지 수퍼마켓 시장조사(나꾸마트)
	6/5	EPR 키갈리지역 대표와 면담 열매나눔재단 사무실 방문 및 박준권지부장 면담 독일 정육점 시장조사 코이카 사무소 방문 및 조형래 소장 면담
	6/6	르완다 국경 세관 방문 및 통관절차와 세금관련 조사

02 조사 항목 및 방법

	조사 항목	조사 방법	조사 기간
1	사업대상국가 및 지역에 관한 인구, 언어, 종족, 지리, 성비, 지업, 소득, 교육정도, 보건현황 등에 관한 전반적인 지역정보	-문헌조사 및 인터넷검색 -협력기관을 통한 정보습득: EPR	2017.04.19.-06.18
2	르완다에 적합한 양돈법 조사	-문헌조사 -전문가면담: 신진농장 진민현사장, 서현동물병원 문진성원장, 온누리화학 남세현사장, ㈜이-글벳 정연근부사장, 르완다 고민수수의사	2017.04.19.-05.30
3	-Nyamirama 지역의 수요와 핵심문제,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 면담: 마을대표, 지역정부 공무원, 종교지도자	2017.06.01.-06.06
4	사료관련조사 -사료 재료 종류, 구입처, 가격, 질, 운반비 등	-전문가면담: 고릴라피드 박상주사장(축산학박사) -직접방문조사: Nyamirama 지역 및 Vyumba 지역 양돈농가	2017.06.01.-06.06
5	기존양돈농가조사 -양돈형태, 규모, 숫자, 사양, 육종 등을 파악	-전문가면담 및 직접방문조사: Vision Agribusiness Farm Ltd: Jean Claude SHIRIMPUMU 프로젝트 디렉터 -직접방문조사: Nyamirama 지역 및 Vyumba 지역 양돈농가	2017.06.01.-06.06
6	판로조사 -비육돈가격, 유통구조, 수요층 등을 파악	-직접방문조사 및 관계자 면담: Nyabugogo 시장(King Smart Butchery), Kimironko 시장 (Nziza Butcher Shop, Munexoro Farm LTD), Kigali Town German Butchery, Nakumatt	2017.06.01.-06.06
7	-현지 NGO 등록 절차 -사업수행경험과 노하우 및 주의사항 -지역 내 타 기관의 활동현황	-전문가면담: 한국대사관 김응중대사, 코이카 조형래 소장, 이상훈선교사, 휴먼인러브 성혜신지부장, 열매나눔재단 박준권지부장, 라즈만나 정새샘사장	2017.06.01.-06.06
8	-도축관련법률, 수출입관련조사	르완다 세관 사무소	2017.06.01..-06.06

03 조사 결과 분석

(1) 문헌조사 결과

- 르완다는 열대성기후이고, 남위 2도에 위치해 있지만, 평균해발고도 1600미터 이상의 고산지대에 위치해 있어서 덥고 습하지 않으며, 한국의 가을날씨와 비슷함.
- 2번의 우기와 2번의 건기가 반복이 되는데, 우기는 2월-5월, 9월-12월이며, 건기는 5월-8월, 12월-2월이며, 국토의 75%가 농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로 커피, 차, 바나나, 콩, 사탕수수, 감자, 축산동물이 생산되고 있음.
- 2017년 IMF 통계에 따르면, 르완다의 1인당 GDP는 연 754불(월평균 약 7만5천원) 임.
- 르완다의 빈곤선 이하의 주민들의 비율은 39.1%(2015, CIA Factbook)이고, 노동인력의 75.3%가 농업에 종사할 정도로 르완다는 농업이 주산업 임.
- 대상 지역에 관한 세부소득통계자료 및 관련자료는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UN기관 및 NGO가 없거나 이미 사업종료를 한 상태여서 해당자료를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음.
- 협력기관인 EPR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대상 지역은 르완다 내에서 강수량이 매우 적은 지역으로 식수 및 농업용수를 공급받기 매우 어려우며, 따라서 르완다의 타 지역에 비해 농업생산능력 및 소득수준이 낙후되어 있다고 함.

(2) 르완다에 적합한 양돈법조사 결과

- 자연양돈에서는 돈사바닥을 흙으로 놔두기 때문에 구충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짜는 것이 중요함. 1년에 2차례 이버맥틴 5-7ml를 전체 돈사에 일제 주사를 하고 1주일 내에 아미트라제를 분무하여 2차 구충을 해야 함.
- 위와 같은 이유로 돈사바닥을 발효시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발효바닥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생물원액을 직접 배양하고, 충분한 물을 공급받는 것이 중요함.
- 르완다는 한국에서 많이 발생하는 구제역 등의 질병은 거의 없으며, 학회에는 아프리카열병에 관한 위험성만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 양돈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임.
- 양돈은 전반적인 기후(온도, 습도 등)에는 영향을 받지만 계절달력에 나타나는 우기/건기 등의 요인으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르완다에서 양돈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임.

(3) Nyamirama 지역조사 결과

- 냐미라마지역은 매우 건조한 지역으로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공급이 원활하지가 못함.
- 약 200가정 정도가 모인 마을 7개가 모여 냐미라마 지역을 이루고 있는데, 주민소득 수준은 하루 500프랑(약 700원)정도 임.
- 마을 부대표(Vice Administrator)와 개발위원회 위원은 마을의 주요어려움을 의료보험료납부, 공교육시설부족, 일자리부족으로 꼽았는데, 이는 마을의 필요가 양돈사업과는 간극이 있음을 말해 줌. 그 이유로 양돈사업은 사료를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는 등 기초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임.
- 하지만 동일지역에서 양돈을 하는 농가가 100가구 당 4-5가정이 되며, 이 중 1-2가정은 모돈 10-20마리 수준으로 양돈사업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 농가들은 꾸준하게 양돈을 통한 수입이 늘어나고 있으며, 전망 또한 밝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음.

(4) 사료관련조사 결과

- 고릴라피드에서 사료를 공급받는 다면 1킬로에 250프랑(약 370원)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이외에 운송비가 발생함.
- 위에 대한 대안으로 현지에서 자가배급사료를 만들 수 있는데, 음식물찌거기, 카사바껍질, 옥수수껍질, 쌀겨, 동물의 피, 어분 등이 좋은 사료로 사용될 수 있으나 건기/우기에 따라 공급량 및 가격변동폭이 크다는 어려움이 있음.

(5) 기존양돈농가조사 결과

- 모돈 100마리를 양돈하고 있는 Vision Agribusiness Farm Ltd는 설립된 지 5년 정도 되었지만 르완다 양돈산업의 성장과 발맞추어 함께 성장한 좋은 사례임. 이곳도 사료는 고릴라피드에서 공급을 받고 있으며, 사료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게 평가하였음.
- 르완다에는 한 해 10만 마리의 돼지가 도축/생산되고 있으며, 공급보다 수요가 점

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망은 매우 밝다고 함.

(6) 판로조사 결과

- 농가에서 생산된 돼지는 대부분 중간업자가 직접 찾아와서 구매를 해가고 있음. 따라서 생산자가 직접 판로를 찾아야하는 번거로움은 없음.
- 비육돈의 경우 1킬로에 2000-2500프랑(약 3000원-37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소매 정육점에서는 킬로에 최대 5000프랑(약 7500원)에 거래되고 있음.
- 르완다 내에 도축시설은 전체 3개가 있으며, 수도 근처에 1개 지방에 2개가 있음. 르완다 법에 의해 모든 가축은 허가된 도축시설에서만 도축이 허용되나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비허가 도축시설 또는 마을시장에서의 도축에 대한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도축된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도매상은 키갈리에 단 3개만 있으며, 하루 수십 마리에서 100마리까지 매출을 올린다고 함. 이 중 저먼부처리(German Butchery)는 자체적으로 육가공품을 만들어 판매를 하고 있는데, 독점적으로 육가공품을 판매하고 있음.
- 위 내용을 분석해 보면, 양돈을 통한 돼지생산 및 도축가공을 통한 돼지고기판매에 대한 전망은 밝다고 예상 됨.

(7) 지역 전문가와의 인터뷰조사 결과

- 한국대사관 김응중대사: 냐미라마 지역보다는 한국 ODA 사업으로 새로운 가축사료공장이 들어선 HUYE(후예)지역을 사업지로 하는 것을 추천함. 그 이유는 후예지역은 영부인과 밀접하게 관련된 곳으로 텐포원이 주 사업지는 부룬디의 국경과도 가까우며 르완다 정부차원에서 지역개발을 하기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임.
- 르완다 코이카 사무소 조형래소장: 르완다 코이카 사무소는 양돈에 관한 아무런 정보로 가지고 있지 않으며 본 사업에 대한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음. 또한 전통적으로 양돈보다는 양우산업이 선호되고 발전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함.
- 월드비전 르완다지부 전지환과장: 양돈사업은 리스크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코이카 민관협력사업으로는 적당하지가 않음. 차라리 타 NGO에 의해 검증된 리스크가 거의 없는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음.
- 2&5 이상훈선교사(전 우간다 기아대책 Country Director): 르완다의 도축시스템이 많이 낙후되어 있고 도축 후 위생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으므로, 양돈사업을 육가공판매까지 연결시키는 부분에 대한 준비가 많이 필요할 것임.
- 열매나눔인터내셔널 박준권지부장: 양돈사업을 위한 지속적인 사료공급에 대한 공급처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함. 열매나눔이 진행하고 있는 옥수수 사업에서도 옥수수의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은데, 이는 돼지사료의 한 부분인 옥수수가루 공급이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

(8) 르완다 세관사무소 조사 결과

- 르완다에서 인근 국가로 부룬디, 콩고, 탄자니아로의 돼지수출은 크게 어려운 점이 없는데, 사전에 양국의 농림부 장관으로부터 수출입에 관한 허가를 받고, 검역을 완료한 후 살아있는 돼지의 수출입이 가능함. 세관에서의 비용도 다른 무역상품에 비해 매우 저렴함.

04 변화의 영역

가. 주목 분야

- EPR의 사회봉사부서의 추천을 받은 사업후보지역인 냐미라마 마을의 주민 대부분은 절대빈곤선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살고 있으며, 대부분 농업을 통해 생계를 꾸려가고 있으나 자신의 땅이 아닌 소작농이나 일꾼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이는 인구에 비해 땅이 작은 르완다의 지리지형적 상황에 기초하고 있어서 경작지 부족에 대한 해결방법은 거의 없다 볼 수 있음.
- 상황이 이렇지만 양돈을 통한 주민소득증대 사업은 농업에 비해 땅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 인구밀도가 높은 르완다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냐미라마 지역에서 양돈사업에 대한 지역조사를 시행하였으나, 오히려 냐미나마 지역은 건조하고 양돈을 위한 물을 구하기 어려운 사정이라 양돈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하지만 위의 어려움은 르완다 내에서 지역적인 특수성에 기초한 결과라 판단되며,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풍부한 르완다 서쪽 지역에서의 사업을 추진한다면 양돈사업을 통한 주민소득증대 사업이 가능하다 판단됨.
- 또한 양돈사업 외에 양계사업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하는데, 이는 양돈에 비해 초기자본이 덜 필요하며 현지에서 수요가 더 많고, 주민들이 양계에 대한 경험이 양돈에 비해 조금이라도 더 많기 때문임.

나. 현지의 수요 및 상황

-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르완다는 높은 인구밀도와 산악지형으로 인해 개인별 경작지가 매우 부족한 실정임. 일부 NGO 기관에서는 경작지를 구입하여 주민들에게 유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나, 이는 경작지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지역의 문제를 미봉책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음. 왜냐하면 경작지를 제공받은 사람은 농사를 지을 수 있겠지만, 경작지를 판 사람은 농지를 잃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광의적 관점에서는 이는 좋은 해결방법이 아니라 판단 됨.
- 따라서 농경지 지원을 통한 소득증대사업 보다는 양돈이나 축산을 통한 소득증대사업이 농업분야에서 더 효과적이라 판단 됨. 왜냐하면 양돈, 양계 등의 축산사업은 집 앞 마당에 있는 적은 땅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임.
- 하지만 냐미라미 지역과 같이 물부족 등의 이유로 양돈에 적합하지 않는 지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양돈사업에 맞는 적합한 지역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판단 됨. 이번 지역조사 기간 때 냐미나라 지역 외에 Vyumba(븀바) 지역에 대한 지역조사도 함께 수행을 하였는데, 븀바지역은 르완다 키갈리에서 북쪽으로 약 6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데, 물공급 및 기후 등이 양돈사업을 하기에 매우 적당하며, 주민들이 양돈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
- 이와 같은 맥락에서 양계사업에 대해 고려해 보는 것도 바람직해 보이는데, 그 이유는 양계는 양돈에 비해 전문적인 지식이 덜 필요하고, 기후적인 고려사항이 적으며, 생애주기가 더 짧아 자본회전율이 더 원활하기 때문 임.

다. 사업대상 분야(Target Area)의 지표 및 기초선

- 본 사업은 주민의 소득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 2017년 6월 초 냐미라마 지역 표본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한 것을 기준으로 주민소득에 관한 기초선은 1인당 하루 수입 약 500프랑(약 700원)이고, 주민의 한 가구(6인가족)당 월평균소득은 약 40,000프랑(약 6만원)이고, 주민이 말하는 생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은 한 가구당 월 60,000프랑(약 9만원)정도임. 따라서 1년 후 본 사업의 소득증대에 관한 지표를 대상가구의 소득이 약 25% 증가한 50,000프랑(약 7만 5천원)으로 설정함. 왜냐하면 본 사업은 1년 후에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단년도 사업으로는 타당하지 않으며, 최소 2년 이상 양돈을 한 뒤 소득이 나타나는 다년도 사업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고, 3년 후의 소득증대에 관한 지표를 한 가구당 최소 월 60,000프랑에 이르게 하는 게 최종목표임.

라. 단체의 특성과의 연계

- 텐포원은 르완다와 문화, 환경이 비슷한 인근국가 부룬디에서 대한민국 행정자치부의 지원을 받아 '자연양돈보급 및 돼지은행 사업'을 3년 간 다년도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르완다에서 현장에 대한 이해 및 사업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서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으리라 기대가 됨.
- 특히 부룬디의 키룬디어와 르완다의 키냐르완다어가 90% 이상 동일한 문법과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부룬디 지부의 인력이 가지고 있는 현지어 능력을 통해 르완다 시골마을에서의 언어장벽을 쉽게 넘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되며, 문화와 기후가 서로 비슷한 르완다에서의 사업은 부룬디 지부에서 5년 간 지부장으로 파견되어 있는 인력을 통해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됨.
- 또한 한국에서 유력한 사료회사(이-글벳)와 양돈자문기관(신진농장, 프레팜, 서현동물병원 등)과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단위 사업 중 하나로의 양돈이 아닌, 양돈사업만을 통한 소득증대 사업이 어려움 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 됨.

05 자료 출처

- CIA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rw.html>
- 주 르완다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르완다 정보,
  http://rwa.mofa.go.kr/korean/af/rwa/policy/overview/index.jsp>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s,
  http://www.imf.org/external/ns/cs.aspx?id=28>
- 전문가 면담

  신진농장 진민현 사장과의 인터뷰자료,

  서현동물병원 문진성원장과의 인터뷰자료,

  온누리화학 남세현사장과의 인터뷰자료,

  ㈜이-글벳 정연근부사장과의 인터뷰자료,

  르완다 고민수수의사와의 인터뷰자료,

  고릴라피드 박상주박사와의 인터뷰자료,

  Vision Agribusiness Farm Ltd Jean Claude SHIRIMPUMU PD와의 인터뷰자료,

  냐미라마마을 양돈사업장 Nsabiyeze Theoneste사장과의 인터뷰자료.

- 이해관계자와의 면담자료

  냐미라마마을 부대표 Mukantwali Vestine와의 면담자료,

  냐미라마마을 개발부서 담당자 Rudahangarwa Ignace와의 면담자료,

  냐미라마마을 종교지도자 Rutayisire Jacques와의 면담자료,

  냐미라마마을 주민 Mengwariho Janvier와의 면담자료,

  주르완다한국대사관 김응중대사와의 면담자료,

  르완다 코이카사무소 조형래소장과의 면담자료,

  2&5 이상훈대표와의 면담자료,

  열매나눔인터내셔널 르완다 박준권지부장과의 면담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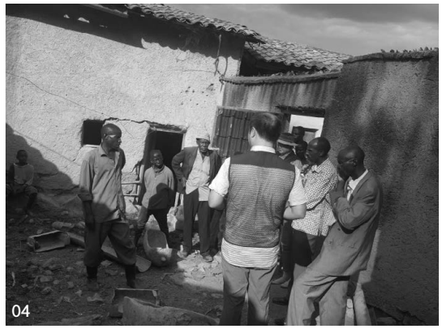
  라즈만나 정새샘사장과의 면담자료.

06 기타 활동 자료 (사진 등)

01

02

03


04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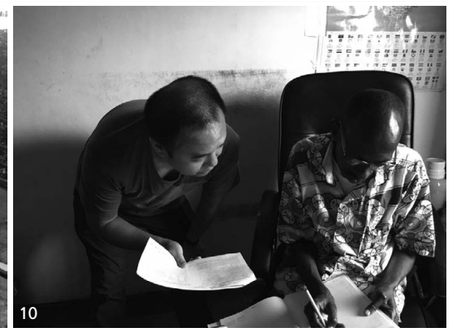
01 냐미라마 지역정부 관계자와 면담
02 붐바지역 마을대표와의 인터뷰
03 냐미라마지역 주민가정방문 인터뷰
04 냐미나라지역 양돈농가방문조사
05 붐바지역 Vision Agribusiness Farm Ltd 방문 인터뷰

06

07

08

09


10

06 고릴라피드 견학 및 자문
07 키갈리 냐부고고 정육점 방문조사
08 열매나눔 르완다지부 방문 인터뷰
09 월드비전 전지환과장과 면담(1차 조사 시)
10 Mr. Julius와 전체일정 조율(1차 조사 시)

향후 계획

- 처음에 본 사업에 대한 대상지로 고려하고 있던 냐미라마 마을은 양돈하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라는 결론을 이번 지역조사를 통해 내렸으나, 르완다의 다른 지역인 븀바 마을은 오히려 자연양돈을 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음. 따라서 향후 르완다에서 자연양돈보급사업을 위한 지역선정에 대해 보다 다양한 지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본 단체의 부룬디 지부를 통해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르완다에서 자연양돈사업에 적합한 지역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역조사를 계속할 계획을 가지게 되었음.
- 또한 르완다에서 정육점, 육가공품 판매 등의 사업전망이 밝다고 판단되어, 사회적 기업 형태로 육가공/정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판매/생산시설을 열고 현지주민들을 고용하여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 볼 필요가 생겼음.
- 그러므로 본 단체는 르완다에서 자연양돈보급을 통한 주민소득증대사업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보다 많은 지역을 조사하여 적합한 지역을 발굴하려고 하며, 자연양돈보급을 통한 소득증대 외에 돼지가공을 통한 소득증대사업에 대한 가능성을 토대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려고 함.

KCOC

Korea NGO Council for Overseas Development Cooperation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KCOC는 세계 여러 분쟁지역과 기근지역에서 인도적지원 및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한국 개발NGO의 협의체입니다. 국제개발협력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NGO 간 정보공유와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NGO 역량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및 중견 단체들의 개발협력사업 진입 확대와 신규 및 우수사업 발굴을 위하여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시민사회파트너 대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www.ngokcoc.or.kr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

KOICA는 1991년 4월 설립되어, 정부차원의 대외무상협력사업을 전담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이들 국가들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초청연수, 전문가 파견, 해외봉사단 파견, 개발조사, 인프라 건축, NGO지원, 재난복구지원, 국제기구협력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www.koica.go.kr

2017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지역조사 결과보고집

발 행 인 박용준
편 집 인 윤현봉
발 행 처 KCOC(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주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로 54 TAF빌딩 4층
전 화 02-2279-1704~6
팩 스 02-2279-1719
홈페이지 www.ngokcoc.or.kr

* 본 발간물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사진제공 :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참가단체, KCOC